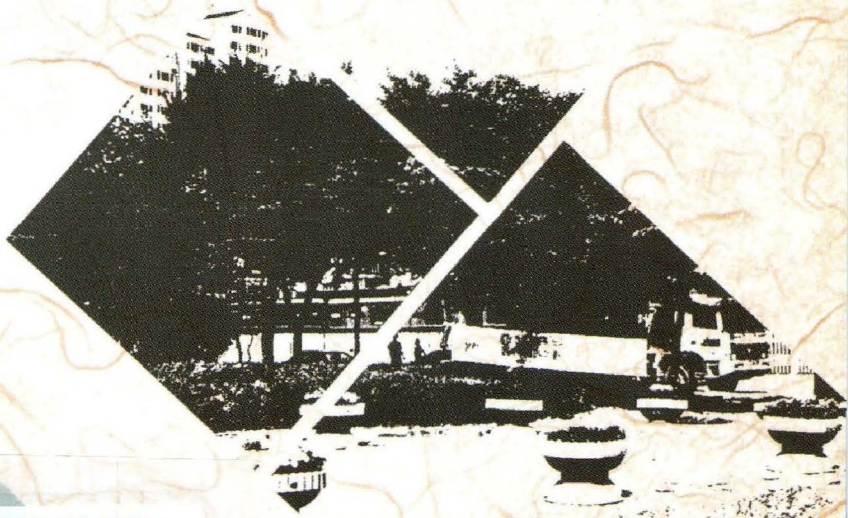
안양시 지명유래집

李承彦 著



안양시립석수도서관
RF008383

재안양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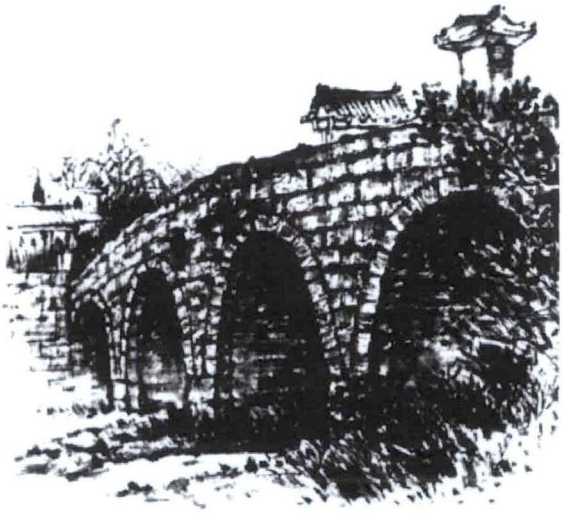
여 백

여 백

AN
981.157
이576안

안양시 지명유래집

李承彦著



안양시립석수도서관
등록
★★★ 2013.5.30 ★★★
제 RF008383 호

새안양회

여 백

증보 발간사



우리 안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양 사랑의 실천의지를 담은 『안양시 지명유래집』이 발간 된 것이 벌써 15년이 지났습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을 발간할 당시의 목적은 안양의 지명에 대한 이해와 이어 온 역사를 각종 문헌과 어르신들의 고증을 통하여 바르게 정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제14대 원종면 회장님께서 발간하신 『안양시 지명유래집』은 새안양회 회원이라면 누구나가 품에 두고 보고, 귀하게 여겨야 할 책임이 틀림없습니다. 발간 당시 자료 수집과 정리, 집필하여 주신 이한기 선배님과 실무위원 선배님들께도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선배님들의 사랑과 정성으로 이루어 놓으신 좋은 토대를 바탕으로 우리 후배들은 별 어려움없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선배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저희 후배 회원들은 더욱 정진할 것입니다. 더욱 발전해 나가는 새안양회를 지켜봐 주십시요.

이번에 『안양시 지명유래집』을 재발간하면서, 어려웠던 시기를 극복하시고 지금 이 자리가 있기까지 함께하여 주신 역대회장님과 선배님들의 노력과 수고에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선배님을 비롯한 회원 가족 모두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012. 11.

새안양회 회장

김 강 수

발 간 사



새로운 삶의 가치를 창조할 토대가 되는 우리의 향토 안양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애향의 실천의지를 다지기 위해 새안양회 창립 26주년 기념 사업으로 『안양시 지명유래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새안양회는 이 고장을 참신한 기풍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 번영시키며, 우리의 후배와 자손들이 보다 밝고 희망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수 역할을 담당하는데 참뜻이 있음을 선언하면서 창립된 이래, 모든 선후배들이 협동하는 마음과 단결된 힘으로 안양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새안양회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내고장 안양을 아끼고 가꾸며 각자의 일터에서 직분에 충실하며 생업에 종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안양시 지명유래집』`발간의 참목적은 안양의 지명에 대한 이해와 이어 온 역사를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통하여 바르게 정리하고 소상히 밝혀두고자 함입니다. 또한 안양의 산, 하천, 고개, 골짜기, 벌, 노거수, 약수 등의 자연물과 마을, 사찰, 길, 다리, 육교, 광장, 옛 터와 같은 문화유산의 명칭에 대한 내력과 그 내용을 모든 이들과 특히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하여 이를 바탕으로 그들의 삶에 튼튼한 뿌리가 되어 장차 무성한 가지와 줄기,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함입니다.

끝으로 이 귀중한 책자의 발간에 따른 자료의 수집과 정리 및 집필을 해주신 이한기(필명 이승언)회원과 실무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새안양회 전 회원들의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996. 12.

새안양회 회장

원 종 면

축 사



『안양시 지명유래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화합을 도모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귀중한 자료를 수집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새안양회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로 표해 마지 않습니다.

수도권의 중핵도시이며 관악산과 수리산의 정기를 받은 안양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부문에서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여 지난날 서울의 위성도시에서 탈바꿈, 서해안 시대의 배후 거점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고구려 시절 율목군으로 시작하여 통일신라의 율진군, 고려의 과주, 조선시대의 금과현과 과천현을 거쳐 1914년에 시흥군에 속하여 1941년 『안양』이라는 면명을 얻고, 1973년 시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안양은 많은 역사와 전통을 가진 고장으로서 안양의 지명 변천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집대성한 『안양시 지명유래집』의 발간은 60만 안양시민의 자부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에 발간된 책자가 지역사회 발전과 향토문화를 연구하는데 지침서로 활용됨은 물론 후학들의 교육자료로 널리 쓰여지기를 기대하며, 안양에 대한 역사를 조사, 발굴, 기록하여 선조들의 얼을 가지고 후세들에게 전승시켜 주는 일이야 말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주어진 막중한 문화적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새안양회 창립 26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안양시 지명유래집』이 발간되기까지 온갖 정열을 기울여 주신 새안양회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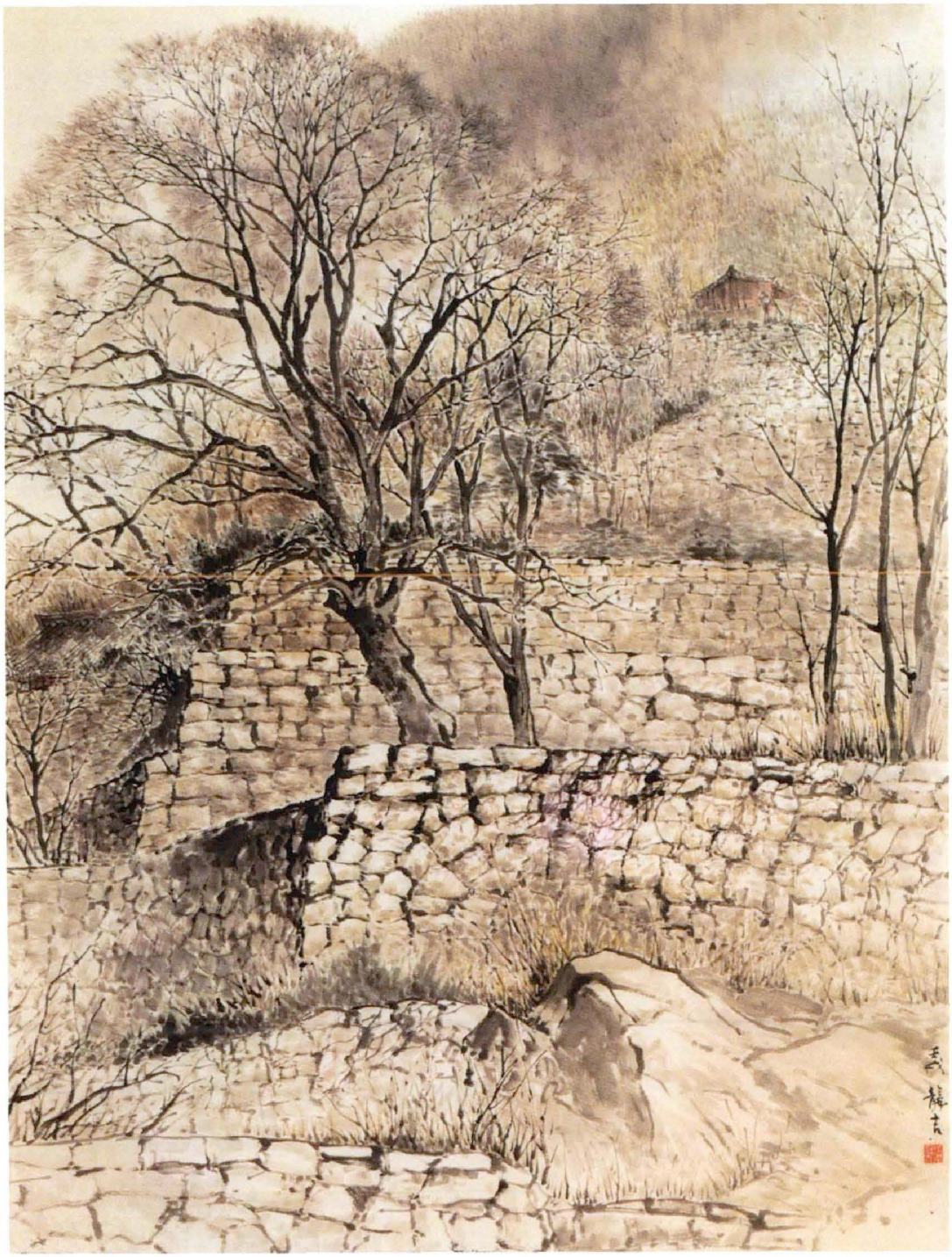
1996. 12.

안양시장 이 석 용

권수화

오용길(吳龍吉)작

• 1982년도 작. 화선지에 수묵담채. 112×143㎝



오용길 : 1946년 안양시 안양동 779 출생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졸업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



새향의 유산

'안양시지명유래집'에 부쳐

金 大 圭
(시인 예총안양시지부장)

처음 이름은
仍伐奴縣 또는 栗木郡
누가 그렇게 부르고
또 누가 여기 살았는지

그걸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이 곳은
安養 이라 부르고
자식을 키우고 살아가듯
그들고 그렇게
이 땅을 가꾸며 살았으리

마을 마을 오손도손
정겨운 마음 나누며
발길 닿는 곳곳
산과 들 시내와 골짜기
고개며 바위 다리며 샘터마다
이름지어 부른 세월
너무나 오래고 길어

혹은 잊혀지고 혹은 버려져
모두 사라지는가 안타깝더니
그러면 그렇지
새안양회 형제들
그 후손들이 해주었구나
고맙고 갸륵하다 그 정성
보람차고 값지구나 고향사랑

펼쳐보는 갈피 갈피
조상님들의 얼이 스몄고
선인들의 슬기 새롭나니
오 안양시지명유래집 이여!
애향의 탯줄이여!
그대는 안양의 내일을 밝히는
영원한 길잡이가 되리라

여 백

일 러 두 기

[1] 이 책은 안양의 옛 지명과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지명을 조사 정리하여 향토사의 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2] 이 책은 필자가 그동안 『안양문화』 5호(1986) 『경기도지명유래집』 (1987) 『안양시지』(1992) 등에 안양지방의 지명에 대하여 발표된 내용을 대폭 수정 보완하여 작성되었다

[3]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문용어 등은 ( )에 한자를 부기하였다

[4] 이 책을 작성함에 있어 참고문헌과 향토인사의 증언으로 서술되었으나 각자의 의견에 따라 견해가 다를 수가 있다

[5] 이 책의 행정동을 서술하기에 앞서 안양시의 31개 행정동사무소에 대해 2차에 걸친 자료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아울러 수자에 걸쳐 전화로 협조를 부탁했으나 12개 동사무소가 끝내 요정을 거부한 관계로 해당 행정동에 관한 내용이 일부 미비할 수가 있다

[6] 이 책에 기재된 지명마다 설명을 붙이고 아울러 해당 지명에 대해 사진을 곁들이려고 했으나 사진자료의 미비와 지면의 제약 등으로 완벽하게 수록되지 못하였다

[7] 이 책의 모든 지명의 배열은 가 나 다 순으로 하여 자료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8] 삽입된 사진은 촬영지 촬영연도 등을 가능한 밝혔고 인용한 도서의 사진 등은 다음과 같이 약호를 사용하였다
★ 『사진으로 본 안양시의 어제와 오늘』(안양시) ▲ 『관양』(관양동)
⊙ 『안양문화유적종람』(안양시) ◇ 『안양 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명지대)

[9] 이 책을 서술함에 있어 『읍지』 『양안』 『지지』 『족보』 『문집』 「지도」 등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나 院前坪 軍浦川前坪 少浦坪 虎溪前坪 馬里坪 石水洞坪 陽村前坪 長九坪 道少坪 泉坪 등의 지명에 대하여는 지명의 위치조자 파악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수록하지 못하였다

[10] 인물에 대한 존칭은 생략하였다

■ 증보발간사 • 현 새안양회장
■ 축　　사 • 안양시장
■ 발 간 사 • 새안양회장
■ 권 수 화 • 오용길
■ 헌　　시 • 김대규

목 차

Ⅰ 안양의 근원지와 시명칭의 유래

제1절 안양의 근원지 / 26

1 안양의 근원지에 대한 제설
2 안양의 근원지

제2절 안양시 명칭의 유래 / 32

1 시명칭에 대한 제설
1) 만안교 원용설(萬安橋 援用說)
2) 안양사 원용설(安養寺 援用說)
2 안양시 명칭의 논거
3 안양시 명칭의 유래
1) 안양의 뜻
2)안양의 장엄(莊嚴)

Ⅱ 안양의 연혁

제1절 안양의 시대별 연혁 / 38

1 삼국시대(三國時代)
2 고려시대(高麗時代)
3 조선시대(朝鮮時代)
4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5 광복이후(光復以後)

제2절 구와 동의 연혁 / 64

1 구의 연혁
1) 만안구(萬安區)
2) 동안구(東安區)
2 동의 연혁
1) 안양1동安養一洞)
2) 안양2동(安養二洞)

3) 안양3동(安養三洞)
4) 안양4동(安養四洞)
5) 안양5동(安養五洞)
6) 안양6동(安養六洞)
7) 안양7동(安養七洞)
8) 안양8동(安養八洞)
9) 안양9동(安養九洞)
10) 석수1동(石水一洞)
11) 석수2동(石水二洞)
12) 석수3동(石水三洞)
13) 박달1동(博達一洞)
14) 박달2동(博達二洞)
15) 비산1동(飛山一洞)
16) 비산2동(飛山二洞)
17) 비산3동飛山三洞)
18) 부흥동(復興洞)
19) 달안동(達安洞)
20) 관양1동(冠陽一洞)
21) 관양2동(冠陽二洞)
22) 부림동(富林洞)
23) 평촌동(坪村洞)
24) 평안동(坪安洞)
25) 귀인동(貴仁洞)
26) 호계1동(虎溪一洞)
27) 호계2동(虎溪二洞)
28) 호계3동(虎溪三洞)
29) 범계동
30) 신촌동(新村洞)
31) 갈산동(葛山洞)

Ⅲ 안양시의 지명유래

제1절 자연마을 / 148

1 가운데말(中村)/관양1동
2 갈미(葛山)/갈산동
3 골안(谷內)①)/안양8동
4 골안(谷內)②)/관양1동
5 구군포(舊軍浦)/호계3동
6 구룡마을(九龍洞)/석수1동
7 구름을(雲谷洞)/비산3동
8 금성마을(全星村)/호계1동
9 교하동 (校下洞 敎化洞)/안양5동
10 귀인(貴仁)/귀인동
11 꼬쟁이(花倉 串昌洞)/석수2동
12 남부동(南部洞)/안양1동
13 능골(陵谷)①/안양9동
14 능골(陵谷)②/박달2동
15 달안이(達安洞)/달안동
16 담배촌/안양9동
17 당살미(堂山尾)/갈산동
18 덕고개(德峴)/호계1동
19 덕천마을(德泉洞)/안양7동
20 동수암(東秀岩)/박달2동
21 동편(東便)/관양1동
22 뒷말(後村)/갈산동
23 마장골(梅谷洞)/비산3동
24 막상골/박달2동
25 말무덤이(馬賁洞)/관양1동
26 망녕골(亡靈谷)/관양1동
27 명학동(鳴鶴洞)/안양8동
28 미름물/박달2동
29 민배기(禿朴只 民伯洞)/평촌동
30 밧(박)날미(外飛山)/비산3동
31 방죽말(防築洞)/호계2동
32 벌말(坪村)/평촌동
33 벌터(坪村)/석수2동
34 범고개(虎峴洞)/박달2동
35 병목안(後頭尾洞)/안양9동
36 부림말(富林洞)/관양1동
37 북부동(北部洞)/안양2동
38 붓골(筆洞 富谷)/박달2동
39 빼말(秀村)/관양1동
40 산골재/관양1동
41 삼막골(三幕洞)/석수1동
42 삼봉마을(三峯洞)/박달2동

43 상록마을(常綠洞)/안양8동
44 새마을/안양9동
45 샌말(間村)/관양1동
46 샘모루(泉隅)/비산2동
47 샛터말(新基村)①/박달2동
48 샛터말(新基洞)②/호계2동
49 석수동(石手洞 石水洞)/안양2동
50 선녀골(仙女谷)/박달2동
51 소골안(小谷洞 昭谷洞/안양6동
52 소능골(小陵谷)/관양1동
53 수푸루지(林谷洞 林川)/비산1동
54 시대동(市垈洞 舊市場)/안양1동
55 신말(新村)/신촌동
56 신촌(新村)/석수2동
57 신흥마을(新興洞/관양2동
58 안골(安谷 內谷)/안양9동
59 안날미(內飛山)/비산3동
60 안말(內村)/호계2동
61 양지동(陽地洞 陽智洞 陽支洞)
/안양3동
62 양희다리/박달2동
63 연현(鳶峴)/석수2동
64 오촌말(吳村洞)/관양1동
65 웃박달리(上博達里)/박달2동
66 율목동(栗木洞)/안양9동
67 인덕원(仁德院)/관양2동
68 장내동(場內洞 漳安)/안양4동
69 주접동(住接洞)/안양6동
70 중앙동(中央洞)/안양1동
71 찬우물(冷泉洞)/안양5동
72 장박골(蒼岩洞)/안양9동
73 중훈부(中勳府)/석수3동
74 진목마을(親睦洞)/박달2동
75 포도원(葡萄園)마을/호계3동
76 횃골/박달2동
77 희성촌(喜星村)/비산2동

제2절 산(山) / 204

1 가운데봉/박달2동
2 갈매산/석수2동
3 갈미봉/안양9동
4 관모봉(冠帽峯)/안양8동
5 관악산(冠岳山)
/비산1동 비산3동 관양1동
6 군웅산(軍雄山)/호계3동
7 꽃뫼산(花山)/석수3동
8 노적봉(露積峯)/안양3동 안양9동
9 당봉(堂峯 매봉)/비산1동
10 더러미산/비산1동
11 덤박골산/ 관양1동
12 뒷메/안양6동
13 망해산(望海山)/안양2동
14 매봉산(鷹峯山)/호계2동
15 매봉(鷹峯)재/비산3동
16 명학봉(鳴鶴峯)/안양8동
17 무쇠봉/박달2동
18 박산(博山)/석수1동
19 살푸재산/관양2동
20 삼봉산(三峯山)/박달2동
21 삼성산(三聖山)/석수1동
22 서계동산(徐溪洞山)/갈산동
23 성계동산(成溪洞山)/갈산동
24 수리산(修理山)/안양9동
25 수암봉(秀岩峯)/안양9동
26 쓰레봉/박달2동
27 오미산(烏尾山)/안양2동
28 움진산/비산1동
29 작별산/석수2동
30 태양산(大陽山)/안양9동
31 학림산(鶴林山)/박달2동
32 학무봉(鶴舞峯)/석수1동
33 호암산(虎岩山 虎岩)/석수1동

제3절 사찰(寺 刹) / 250

1 공덕사(公德寺)/안양2동
2 관음사(觀音寺)/안양9동
3 금강사(金剛寺)/석수1동
4 망월암(望月庵)/석수1동
5 망해암(望海庵)/안양2동
6 반월암(半月庵)/석수1동
7 백년암(白蓮庵)/안양1동
8 백운암(白雲庵)/비산3동
9 보덕암(寶德庵)/비산1동
10 보장사(寶藏寺)/석수1동
11 봉용사(奉龍寺)/안양8동
12 불성사(佛性寺)/비산3동
13 불암사(佛岩寺)/비산3동
14 삼막사(三幕寺)/석수1동
15 삼성사(三成寺)/비산1동
16 상불암(上佛庵)/석수1동
17 수도사(修道寺)/석수1동
18 안양사(安養寺)/석수1동
19 안흥사(安興寺)/안양2동
20 약사사(藥師寺)/안양8동
21 약수암(藥水庵)/비산3동
22 염불암(念佛庵)/석수1동
23 용화사(龍華寺)/호계2동
24 운암불교회관(雲庵佛敎會館)
/안양5동
25 원광사(圓光寺)/안양9동
26 장안사(長安寺)/안양5동
27 정심사(淨心寺)/안양2동
28 천인암(天人庵)/석수1동
29 칠조사(七朝寺)/안양9동
30 한마음선원/석수1동
31 효달암(曉達庵)/안양9동
32 흥국사(興國寺)/비산3동

제4절 전철역(電鐵驛) / 287

1 관악역(冠岳驛)/석수2동 246
2 명학역(鳴鶴驛)/안양6동 383-1
3 범계역/호계동 30-7
4 석수역(石水驛)석수2동 422-3
5 안양역(安養驛)안양1동 641
6 인덕원역(仁德院驛)관양2동 1566
7 경존역/관양동 1608

제5절 하 천(河 川) / 292

1 곡내천(谷內川)/안양8동
2 구시월개울 /비산3동
3 내비산천(內飛山川) /비산3동
4 능곡천(陵谷川) /안양9동
5 동샘천/박달2동
6 마분산천(馬糞山川) /관양1동
7 망해천(望海川)/안양2동
8 박달천(博達川)/박달2동
9 방죽천(防築川)/호계2동
10 배순이천/석수1동
11 부림천(富林川)/관양1동
12 삼막천(三幕川)/석수1동
13 삼성천(三聖川)/안양2동 석수1동
14 서울제지발천/안양3동 안양9동
15 선녀천(仙女川)/석수1동
16 소골안천(小谷川)/안양6동
17 수암천(秀岩川)
/안양2동 안양3동 안양9동
18 안양천(安養川)
/안양동 호계동 비산동 석수동 박달동
19 양단천/ 박달1동
20 임곡천(林谷川 林川)/비산1동
21 조롱내(仁德院川)/관양2동
22 경존천(坪村川)/경존동
23 학의천(鶴儀川 鶴古介川)
/관양1동 관양2동
24 혜인천(惠仁川)/석수1동
25 호현천(虎峴川)/박달2동

26 후두미전(後頭尾川)/안양9동

제6절 고개(峴) / 302

1 가일(加一)고개/관양1동
2 가재물고개/호계2동
3 가죽재고개/석수1동
4 각씨고개/관양1동
5 곤두래미고개/박달2동
6 구룡(九龍)고개/호계2동
7 구리(狗留)고개/비산3동
8 꼬쟁이(花倉 串昌)고개/석수2동
9 낭떨어지고개/관양1동
10 노두골고개/비산3동
11 달래고개/박달2동
12 뒤뜸이고개/안양9동
13 뒷말(後村)고개/갈산동
14 막은고개/박달2동
15 망거리고개/호계2동
16 망령골(亡靈谷)고개/관양1동
17 무너미(水餘里)고개/비산3동
18 박달(博達)고개/박달2동
19 범고개(虎峴)/박달2동
20 부림말(富林洞)고개/관양1동
21 부저고개/호계1동
22 서리재고개/석수1동 석수2동
23 성당고개/호계2동
24 아랫고개/비산3동
25 오미(烏尾)고개/안양2동
26 오촌말(吳村洞)고개/관양1동
27 웃고개/비산3동
28 웃말안산내미고개/안양9동
29 완쟁이(宛井里)고개/관양1동
30 자진골(自棧谷)고개/호계3동
31 장군재(張君谷)고개/박달2동
32 장터고개/호계2동
33 절골(寺谷)고개/박달2동
34 정문(旌門)고개/박달2동
35 형제(兄弟)고개/안양6동
36 활터고개/관양1동
37 훼무기고개/비산1동

제7절 골짜기 / 314

1 가능골(細谷)/안양9동
2 가재미골/관양1동
3 가재물골/호계2동
4 각사골/오세3동
5 갈매골/석수2동
6 개미골/안양9동
7 거북골/석수1동
8 괭맹이두턱골/석수1동
9 굴뚝골/안양9동
10 꼬쟁이골/석수2동
11 넙적골/ 비산3동
12 노랭이골(굴)/안양9동
13 누두골/비산3동
14 능골/관양1동
15 덤박골/관양1동
16 덩골/비산1동
17 도장골/안양9동
18 동이점골(盆店谷)/안양9동
19 두리미골/석수1동
20 뒷골(後谷)①/석수1동
21 뒷골(後谷)②/석수3동
22 들어가는 속골 /석수1동
23 등잔골 /안양9동
24 디디미골 /석수1동
25 막는골 /비산3동
26 모이골 /석수1동
27 못들어가는 속골 /석수1동
28 문바위골/안양9동
29 밤나무가시/관양1동
30 뱀골(蛇谷)/비산3동
31 벚나무골/관양1동
32 병풍(屛風)골 /안양9동

33 부엉골 /석수1동
34 분상골/안양5동
35 분투골/석수1동
36 불당골(佛堂谷)/비산1동
37 비지재골(비재골)/안양9동
38 삼막골((三幕谷)/석수1동
39 송도사골(宋道士谷)/비산1동
40 송지골(松脂谷 承旨谷)/안양9동
41 송정내미골/안양9동
42 송쟁이골(宋政丞谷)/안양9동
43 수리골/석수2동
44 수리바위골/안양9동
45 수안곤/비산3동
46 수태골/안양4동 안양5동
47 시계능골/안양9동
48 신부곤(新富谷)/안양9동
49 안산내미골/안양9동
50 약사골/안양9동
51 어둠골/비산3동
52 언추리골/석수1동
53 염불암골(念佛庵谷)/석수1동
54 옥적골(玉笛谷)/안양6동
55 완쟁이골(院井里谷 浣井里谷)/관양1동
56 요골(龍谷)/박달2동
57 웃능골/안양9동
58 웃샛갓골/석수1동
59 웃절터골/석수1동
60 자그나무골/석수2동
61 자진골(自棧谷 自盡谷)/호계3동
62 작은바랑골/석수1동
63 작은장배안골/안양9동
64 작은태양산골/안양9동
65 장골(長谷)/관양1동
66 장녕골/관양2동
67 장장골(張長谷)/비산1동
68 쟁골(齋宮谷)/비산3동
69 절골(寺谷)/석수1동
70 절터골(寺址谷)/비산1동
71 접시골/안양9동
72 조골(趙谷)/호계2동
73 중상골(中上谷)/비산3동
74 지지밭골/안양6동
75 집뒤골/안양9동
76 초앙골(草庵谷)/석수1동
77 지루골/안양9동
78 큰골①/안양9동
79 큰곧②/관양1동
80 큰바랑골/석수1동
81 큰절골/석수1동
82 큰장배안골/안양9동
83 큰태양산곤/안양9동
84 키다리골/석수1동
85 통목골/관양1동
86 퉁퉁골/관양1동
87 한자골/관양1동
88 횃골/안양9동

제8절 바위(岩) / 337

1 감투바위/박달2동
2 공알바위①/비산3동
3 공알바위②/호계2동
4 광석(廣石)바위/석수1동
5 괭이바위①/석수2동
6 괭이바위②/비산3동
7 군함(軍艦)바위/관양1동
8 굴바위①/석수1동
9 굴바위②/관양1동
10 금관(金冠)바위/석수1동
11 넙적바위/석수1동
12 농바위①/박달2동
13 농바위②/비산2동
14 덤바위/관양1동
15 동이바위/석수1동
16 뒤뜸바위/관양1동

17 뒤주바위/비산3동
18 마귀할미-불돌바위/석수1동
19 마당바위/석수1동
20 마리아바위/석수1동
21 만두바위/석수1동
22 말바위/비산1동
23 매바위/석수1동
24 명학(鳴鶴)바위/안양8동
25 문둥바위/안양9동
26 문(門)바위/안양9동
27 범바위①/안양6동
28 범바위②/박달2동
29 범바위③/비산3동
30 범바위④/호계2동
31 병풍(屛風)바위/비산1동
32 보습바위/석수1동
33 복(福)바위/석수1동
34 삼귀자(三龜字)바위/석수1동
35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 男女根石) /석수1동
36 삼산동전바위/관양1동
37 삿갓바위(笠岩)①/비산3동
38 삿갓바위(笠岩)②/비산3동
39 석바위/석수1동
40 선(立)바위/석수1동
41 소바위/비산3동
42 수리바위/안양9동
43 십자(十字)바위/석수1동
44 쓰레(써레)바위/안양3동
45 오송칠성(五松七星)바위/호계3동
46 장군(將軍)바위/석수1동
47 장사(壯士)바위/비산1동
48 장수(將帥)바위①/안양6동 안양8동
49 장수(將帥)바위②/관양1동
50 지붕바위/안양9동
51 쪽돌바위/관양1동
52 장바위/안양9동
53 칼바위/안양6동
54 토끼바위/비산1동
55 행여(轝輿)바위/비산3동

제9절 들 벌(野坪) / 352

1 가운데 벌(중간벌)/석수3동
2 강정(江村)머리들/관양1동
3 꼬쟁이벌(花倉坪 串昌坪)/석수2동
4 넉보들(德洑坪 德坪)/비산3동
5 달안이들(達安洞坪) /달안동 부흥동 범계동 부림동
6 돌머리들(石隅坪)/박달2동
7 마루들①/관양2동
8 마루들②/호계2동
9 먹해이들/박달1동
10 면세들/관양2동
11 삭계들/관양2동
12 샘들(泉坪)/관양2동
13 아랫벌(들)/석수3동
14 어수물들(御水井坪)/박달1동
15 작대들/박달2동
16 장양들/관양2동
17 중보들(中洑坪)/부림동 달안동
18 향나무들/박달2동
19 호현들(虎峴坪)/박달2동

제10절 길(道路) / 358

1 경수산업도로(京水産業道路)
2 공원로(公園路)
3 관악로(冠岳路)
4 관평로(冠坪路)
5 귀인로(貴仁路)
6 냉천로(冷泉路)
7 달안로(達安路)
8 대한로(大韓路)
9 만안로(萬安路)
10 명학로(鳴鶴路)

11 문화로(文化路)
12 박달로(博達路)
13 방죽로(防築路)
14 범계로
15 새마을로
16 시민로(市民路)
17 시민대로(市民大路)
18 신기로(新基路)
19 신기이로(新基二路)
20 중앙로(中央路)
21 중훈로(中勳路)
22 경촌대로(坪村大路)
23 학의로(鶴儀路)
24 흥안로(興安路)

제11절 다리(橋梁) / 365

1 관악교(冠岳橋)/석수1동
2 관악일교(冠岳一橋)/석수1동
3 관양교(冠陽橋)/관양2동
4 관양2동보도교(冠陽二洞步道橋)
/관양2동
5 군포교(軍浦橋)/호계3동
6 내비산교(內飛山橋)/비산2동 달안동
7 대한교(大韓橋)/관양2동
8 덕전교(德泉橋)/안양7동 비산2동
9 동안교(東安橋)/관양2동
10 동양교(東洋橋)/호계2동
11 만안교(萬安橋)/석수2동
12 만안삼성교(萬安三聖橋)/석수2동
13 명학대교(鳴鶴大橋)
/안양7동 호계2동
14 박달교(博達橋)/박달2동
15 박석교(博石橋)/박달1동 석수2동
16 비산교(飛山橋)/비산2동 부흥동
17 비산대교(飛山大橋)
/안양1동 비산1동
18 비산인도교(飛山人道橋)
/비산2동 부흥동
19 비호교(飛虎橋)/비산2동 호계3동
20 삼막교(三幕橋)/석수2동
21 삼성일교(三聖一橋)/석수1동
22 삼성이교(三聖二橋)/석수1동
23 삼성삼교(三聖三橋)/석수1동
24 삼성오교(三聖五橋)/석수1동
25 삼성육교(三聖六橋)/석수1동
26 새마을교①/석수1동
27 새마을교②/안양9동
28 석수교(石水橋)/석수1동
29 수촌교(秀村橋)/관양1동 부림동
30 신촌교(新村橋)/석수1동
31 안양교(安養橋)/안양2동
32 안양대교(安養大橋)
/안양2동 석수2동
33 양명교(養明橋)/안양2동
34 양지교(陽地橋)/안양1동 안양2동
35 율목일교(栗木一橋)/안양9동
36 율목이교(栗木二橋)/안양9동
37 율목삼교(栗木三橋)/안양9동
38 인덕원교(仁德院橋)/관양2동 경촌동
39 임곡교(林谷橋)/비산1동
40 인덕원점후전교(仁德院店後川橋)
/관양2동
41 인덕원전교(仁德院川橋)/관양2동
42 제이양지교(第二陽地橋)
/안양1동 안양2동
43 제삼양지교(第三陽地橋)/안양3동
44 전과교(電波橋)/안양7동
45 중훈교(中勳橋)/박달1동 박달2동
석수3동
46 학운교(鶴雲橋)/비산2동
47 호계고가교(虎溪高架橋)
/호계1동 호계3동
48 호계교(虎溪橋)/호계2동
49 호계대교(虎溪大橋)/호계2동

50 후두미교(後頭尾橋)/안양9동

제12절 육교(陸橋) / 392

1 거화예식장 앞 육교/안양1동 안양5동
2 공원관리사무소 앞 육교/평안동
3 과천육교(果川陸橋)/안양1동
4 관악역 보도육교(冠岳驛步道陸橋)
/석수1동 석수2동
5 귀인초등학교 앞 육교/귀인동 평안동
6 남초등학교 앞 육교/갈산동
7 느티나무 앞 육교/호계2동 범계동
8 달안동사무소 앞 육교/달안동
9 대안중학교 앞 육교/갈산동
10 대한전선 앞 육교/관양1동 관양2동
11 럭키아파트 앞 육교/호계2동 신촌동
12 명학역보도육교(鳴鶴驛步道陸橋)
/안양7동 안양8동
13 명학육교(鳴鶴陸橋)
/안양7동 안양8동
14 민백마을 앞 육교/귀인동 평촌동
15 박달삼거리 육교(博達三巨里陸橋)
/박달1동 박달2동
16 범계중학교 앞 육교/범계동 신촌동
17 범계초등학교 앞 육교/범계동
18 부림동사무소 앞 육교/부림동
19 비산육교(飛山陸橋)/안양5동
안양7동
20 성예육교/석수1동 석수2동
21 안양육교(安養陸橋)/석수1동
석수2동
22 잠업검사소 앞 육교/안양6동
안양8동
23 중앙공원 옆 육교/평안동 범계동
24 중앙로 국민은행 앞 육교
/안양2동 안양3동
25 중앙로 수의과학연구소 앞 육교
/안양6동
26 평안동사무소 앞 육교/평안동
27 향림육교/안양2동
28 호계1동 국민은행 앞 육교
/호계1동 호계3동
29 호계1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
/호계1동 호계3동
30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육교/호계3동
31 호계3동 삼영아파트 앞 육교/호계3동

제13절 노거수(老巨樹) / 401

1 박달동 향나무/박달2동
2 석수동 느티나무/석수1동
3 석수동 보리수나무/석수1동
4 석수동 향나무/석수1동
5 수목정자나무(秀木亭子木)/관양1동
6 신촌동 느티나무/신촌동

제14절 약수 우물(藥水 井) / 404

1 가재물골 약수/호계2동
2 간촌약수(間村藥水)/관양1동
3 관상약수(冠上藥水)/관양1동
4 관악전약수(冠岳泉藥水)/안양2동
5 군포웅뎅이/안양7동
6 굴쟁이우물/비산1동
7 냉천약수(冷泉藥水)/안양5동
8 능곡약수(陵谷藥水)/안양9동
9 만안약수(萬安藥水)/안양6동
10 망해암약수(望海庵藥水)/안양2동
11 매천약수(梅泉藥水)/비산3동
12 미름물/박달2동
13 박달약수(博達藥水)/박달2동
14 박산약수(博山藥水)/석수1동
15 백영약수/안양9동
16 보덕암약수(寶德庵藥水) /비산1동
17 봉수정약수(峰水井藥水)/안양8동
18 부림우물/관양1동
19 불당약수(佛堂藥水)/비산3동

20 삼막부락약수(三幕部落藥水)/석수1동
21 삼막사약수(三幕寺藥水)/석수1동
22 삼성약수(三聖藥水)/석수1동
23 상록약수(常綠藥水)/안양8동
24 상불당약수(上佛堂藥水)/비산3동
25 샘마을약수/갈산동
26 석천약수(石泉藥水)①/석수2동
27 석천약수(石泉藥水)②/석수2동
28 설천약수(雪泉藥水)/비산3동
29 세심천약수/안양2동
30 소곡약수(昭谷藥水)/안양6동
31 송림약수(松林藥水)/박달2동
32 수리산약수(修理山藥水)/안양9동
33 수리천약수(修理泉藥水)①/안양8동
34 수리천약수(修理泉藥水)②/안양8동
35 수안물/비산1동
36 수왕약수(水旺藥水)/안양6동
37 수촌약수(秀村藥水)/관양1동
38 신매천약수(新梅泉藥水)/비산3동
39 신안약수(新安藥水)/안양9동
40 신양지약수(新陽地藥水)/안양9동
41 신촌약수(新村藥水)/석수2동
42 어수정(御水井)/박달1동
43 장수약수(長壽藥水)/비산3동
44 장수천약수(長壽泉藥水)/안양9동
45 장암약수(蒼岩藥水)/안양9동
46 정란약수/석수3동
47 정수정약수(淸水井藥水)/석수2동
48 정심약수(淸心藥水)/관양1동
49 중의약수(忠義藥水)/비산3동
50 큰우물/비산1동
51 통일천약수(統一泉藥水)/석수2동
52 팔팔약수(八八藥水)/안양9동
53 한마음약수/안양6동
54 현대건설앞약수/석수1동
55 화장약수(花倉藥水)/석수3동

제15절 광 장(廣場) / 418

1 범계광장
2 자유광장(自由廣場)
3 중앙광장(中央廣場)
4 평촌광장(坪村廣場)
5 호계광장(虎溪廣場)
6 흥안광장(興安廣場)

제16절 옛 터(舊址 遺址) / 420

1 고려장터(高麗葬址)①/안양8동
2 고려장터(高麗葬址)②/박달2동
3 관악산 정자 백자가마터
(冠岳山靑磁白磁窯址)/비산3동
4 관청터(官廳址)/비산3동
5 금성방직터(金星紡織址)/안양3동
6 낙랑실업공사터(樂浪實業公司址)
/안양1동
7 낙영학교터(洛英學校址)/호계2동
8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터
(大韓食糧公司 始興支社址)/안양1동
9 독점터/석수1동
10 동이점터(盆店址)/안양9동
11 박애원 안양양노원터
(博愛院 安養養老院址)/석수1동
12 백련암지터(白蓮庵池址)/석수1동
13 백련암터(白蓮庵址)/석수1동
14 범고개약수터(虎峴藥水址)/박달2동
15 산골재활터(弓址)/관양1동
16 삼곡터(三谷址)/관양1동
17 삼길양산공장터(三吉洋傘工場址)
/안양1동
18 삼막골 교회터(三幕洞敎會址)/석수1동
19 서이면사무소터(西二面事務所址)①
/호계2동
20 서이면사무소터(西二面事務所址)②
/안양1동

02333

21 소호정터(嘯虎亭址)/호계2동
22 수리산성지터(修理山聖地 聖址)
/안양9동
23 시흥군청터(始興郡廳址)①/안양1동
24 시흥군청터(始興郡廳址)②/안양6동
25 아시이(旭)학교터/안양3동
26 안양경찰서터(安養警察署址)/안양1동
27 안양고등공민학교터
(安養高等公民學校址)/안양1동
28 안양곡물검사서터(安養穀物檢査署址)
/안양1동
29 안양교터(安養橋址)/석수1동
30 안양금융조합터(安養金融組合址)
/안양1동
31 안양미륵당터(安養彌勒堂址)/안양1동
32 안양변전소터(安養變電所址)/안양4동
33 안양사터(安養寺址)/석수1동
34 안양산업사터(安養産業社址)/안양3동
35 안양소방대터(安養消防隊址)/안양1동
36 안양신사터(安養神社址)/안양1동
37 안양연초조합터(安養煙草組合址)
/안양1동
38 안양우체국터(安養郵遞局址)/안양1동
39 안양읍사무소터(安養邑事務所址)
/안양1동
40 안양인쇄소터(安養印刷所址)/안양1동
41 안양직물공장터(安養織物工場址)
/안양6동
42 안양행궁터(安養行宮址)/안양1동
43 영랑성터(永郎城址 三城古山城址)
/석수1동
44 원태우지사 이등박문저격터
(元泰祐志士 伊藤博文狙擊址)
/석수1동 석수2동
45 인덕원주막터(仁德院酒幕址)/관양2동
46 인덕원터(仁德院址)관양2동
47 일동리강습소터(一洞里講習所址)
/관양1동
48 임업시험장터(林業試驗場址)/안양6동
49 제일방적안양공장터
(第一紡績安養工場址)/안양1동
50 조선견직터(朝鮮絹織址)/석수1동
51 조선직물터(朝鮮織物址)/안양3동
52 중초사터(中初寺址)/석수1동
53 창강서원터(滄江書院址)/호계2동
54 청록서원터(靑鹿書院址)/안양1동
55 퇴로정터(退老亭址)/비산3동
56 한증막터/석수1동
57 향교터(鄕校址)/비산1동
58 호계방죽터(虎溪防築址)/호계2동
59 흥안초등학교터(興安初等學校址)
/신촌동
60 황사지터(黃砂地址)
/비산2동 호계2동

■ 맺음말 / 471

■ 새안양회 선언문 / 477
■ 새안양회 기구표
■ 새안양회 활동상황
■ 새안양회 회원명단

머 리 말

한반도의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은 서울의 남쪽 관문이자 서울의 위성도시이다 북쪽으로는 관악산의 능선을 경계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경기도의 과천시와 접하고 동쪽으로는 청계산과 백운산을 경계로 성남시와 접한다 서쪽으로는 수리산을 경계로 시흥시와 안산시와 접하고 남쪽으로는 모락산과 오봉산을 경계로 수원시와 의왕시 및 군포시와 각각 접하고 있다 이처럼 동 서 남 북이 산으로 둘러쌓인 타원형 분지가 지금의 안양시가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와같이 안양은 지리적으로는 서울과 일일 생활권에 속해 있는 인접 도시인데다가 상업과 공업을 중심으로 한 상공업도시이며 아울러 관광의 도시로 성장 발달된 곳이다 과전에 속한 작은 마을 안양이 오늘날에는 수 십만의 거대도시로 성장 발달된 이면에는 정조(正祖)의 효심에 의한 만안교의 가설로 시흥행로(始興行路)가 개설된 후 경부선 철도의 부설로 안양역이 생기자 교통이 편리해졌으며 관악산 수리산 삼성산 등 전연적인 관광자원 충분한 수원(水源)과 수송의 용이로 1920년대 이후 공장건설로 인한 산업이 발달되었기 때문이다

예전의 안양은 오늘의 안양처럼 찌든 안양이 아니었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자리잡은 고을이기 때문에 이름 그대로 안양세계(安養世界) 즉 극락세계(極樂世界)를 연상케 했다 그만큼 살기좋은 곳이었다 적어도 1940년대 아니 1950년대까지는 그러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안양에서 살았던 또는 안양에 와서 보고 느낀 바를 문인들의 글을 통해 옛 안양을 알아본다

P형

이번에 불시로 송도를 떠나 이곳 안양으로 이사를 했소

경부선(京釜線) 안양역(安養驛)이고 경성과는 바로 24킬로 상거(相距)에 아주 지근한 사이고 여름 한철이면 푸울과 포도와 수박으로 그밖에도 관악산(冠岳山) 하이킹의 초입처로 두루두루 서울 주민들에게 (그러니까 형한테도) 잘 알려진 그 안양이오

하나 그러고저러고 궁벽스럽게 안양이라니? 그동안 몇해를 두고 무던히 벼르던 이사가 일껏 서울을 경중 건너 뛰어 하필 안양이란 말이냐고 형이며 지우(知友)들이며 퍽 이상히 여기기도 하고 궁금해 하기도 할 것이오

사실 나 스스로도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뜻밖이었소

안양이라고 이름이나 들었을 뿐이지 그리고 경부선 열차로 가끔 지나다니기나 했을 따름이지

근년 그렇게들 푸울이 좋으네 포도며 수박이 맛있네 관악산과 연주암이 보암직하네 해싸도 진작에 한번인들 와 본적도 없고 뿐만 아니라 어디로든지 이렇다 할 조그만한 결연이나 연분도 없는 땅이오

해서 내가 일조(一朝)에 안양이라는 이 고장엘 와 일간두옥(一間斗屋)일망정 기둥뿌리를 박고 다만 한때나마 거접(居接)해 살라고는 막상 꿈밖이요 일찍이 생각조차 못했던 일이었소

그러나 그러했건만 나는 시방 이렇게 번연히 여기 그 안양땅 -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하고도 양지말(陽智村) 한구석의 어떤 집인 이 집에서 이처럼 천연덕스러이 기거를 하고 있으면서 어느새 다 이런 글발까지 초(草)하고 있으니까요! (이하생략)

여기가 어떨까? 그늘이 있고 푹포가 있고

풀 을 지나 관악산폭으로 물줄기를 거슬러 한참을 타고나가 누군가 이렇게 音見들을 편다

어느새 조그마한 천막이 시냇가에 자리를 갑는다 모두가 유목시대의 우리 조상들의 옛모습을 방불케 하는 광경이다

나는 이내 타올을 목에 걸고 이른바 폭포 떠러지는 데로 나려갔다 걱당히 바위가 둘린 전연의 욕조엔 선객이 二 三人 어린에처럼 물장난을 즐기고 있다

나는 나려지는 폭포수를 두어깨로 떠바치며 팔장을 끼고 눈을 감아본다 몹은 창자 속으로 뼈속으로도 스며들어 한여름 묵은 더위가 묵은 때와 함께 다씻기는 듯하다 내 육체로서 옛 끄리시아의 조상(彫像)을 그려보려는 엉큼한 욕심을 잠깐 느껴 보는 것도 암벽이 그럴듯한 탓일지 모른다

"메기다

한 사나이가 환성을 올리자, 다른 사나이는 거드쳐 돌맹이를 둘러메고 덤벼든다 또다른 축들은 타올로 그물모양을 맨들어가지고 멀즈막이 포위자세를 취한다 도(女)를 물가으로 도(導)하야 사로잡는 魂膽이리라 설사 악의에서가 아니라 하더라도 얼마나 야속한 짓들이뇨

남의 영역에 무단히 침입한 것 만으로도 심히 죄송스러울 일이어든 하물며 원자에게 대한 이렇듯한 무례가 어데 있으랴

어쩌면 이 조그마한 水域의 여왕일지도 모르는 저 메기양으로 더불어 함께 미역감고 숨박꼭질하고 발로하는 수작이 아니기에 더욱 오묘한 이해에 이룰수 있고 사괼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즐겁고도 아름다운 인선(因線)이기에 이제 저들은 이 은혜로운 기회마저 行으로 더럽히려 드는 걸까

사나이들의 서두는 품이 종시 심상지않음을 알자 메기양은 바위틈에 숨은 재 드디어 나오지 않는다 나도 메기양처럼 인간을 하야 그러나 바위틈 대신 으슥한 숲속을 찾었다 나는 여기서 문득 생각난듯 나뭇잎을 따서 일부러 모양 사나운데를 가리우고 한팔로 나무가지를 위어잡고 휘어

잡고, 마즌편 산등성이와 그위에 뜬구름과 하늘을 바라본다 내몸에 털이 없는 것이 얼마나 흉해 보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또 나무가지에 오르는 대신 마즌편 바위 등 위에 올라가 쭈구리고 앉어본다 이마에 손을 얹고 세상을 나려다본다 그러나 손등에 털이 없으니 어찌 세상이 옛 모습이기를 바라랴

나는 다시 타온을 목에 걸고 천막으로 돌아온다 나는 벌써 벗은 몸이 아니다

세상과의 슬픈 대좌! 이 겨우에 蓁을 반기는 것은 반듯이 선사시대에의 나의 향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황혼이 나릴 무렵 추억 위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포로다! 문명의 포로다! 하고 즘승저럼 소리 소리 질렀더니 모도들 웃지 않는가 단지 酊으로 들리나 보다 숲속의 달밤이 그립대서 醉情만일리야 있느뇨

이윽고 집에 돌아오니 나는 오늘 굉장히 먼데를 여행하고 돌아온 것 같아서 마음이 흐뭇했다

東和 社長의 好意가 새삼 고마웠다 (* 原文대로 표기함 「東亞日報」 1955 10 11)

전자는 1940년에 안양3동 양지동에 일시 살았던 소설가 재만식(蔡萬植)의 「안양복거기(安養卜居記)」의 첫머리 부분이고 후자는 1955년에 시인 김동명(金東鳴)의 「안양유기(安養遊記)」인데 굳이 문인들의 글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40대 이상의 안양토박이들은 안양천이나 수암천의 맑은 냇물에서 붕어나 잉어를 잡던 추억담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1960년대 부터 일기 시작한 이른바 산업화 공업화로 안양은 급격히 변모되기 시작했다 금성방직 태평방직 등의 공업화의 물결을 타고 도시가 활기를 띄었다 그러나 공업화가 되어 갈수록 농업은 그만큼 위축되어 갔다 농지는 어느새 공장지대로 바뀌었다

그 와중에 무엇보다 안양의 명성을 뒷받침해 주었던 포도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안양의 포도밭이 공장과 택지로 잠식 당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안양원예협동조합 자료에 따르면 1968년에 이미 포도는 사라졌고 그 주변인 시흥지역 등지에서 대물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안양의 공업화는 곧 안양천의 극심한 오염현상을 가져왔다 안양의 제조업자들은 기업주들이 자신의 필요에 의해 자발적으로 안양에 들어와 편리한 지역에 부지를 선택했기 때문에 공장지대가 시가지나 주택가와 분리되지 않고 서로 뒤섞여 매연 분진 소음을 무작정 방출하고 있는데다가 주택지 주변의 공해공장에서 버리는 화공약품들이 오염시키는 일이 허다하게 보고된 바 있다

지금의 안양은 어떤 곳인가? 안양에서 태어나 안양에서 살고 있는 시인 김대규(金大圭)는 안양을 어떻게 보았는가를 그의 시를 통해서 알아 보자

안양은 서울 바로 아래라서
서울을 가려다 지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살고
안양은 서우 가까운 곳이라서
서울을 피해 나온
덜 약은 사람들도 내려와 산다

나처럼 고향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안양에도 적어졌다
겁이 많은 장남들만 남아서
아버지의 유언을 기다리며
조상의 무덤을 쓰다듬고 있다

바람 탓이다
돈바람
가면 다시 안 부는
돈바람

근대화의 폐스가
송사리까지 몰아낸 냇물을 막아
여름에는 푸울장
서울사람들이 몰려와
한 겨울 난 먼지 돈으로 씻고 가고
휴일에는 관악산 골짜기마다
더러운 서울공기 토해 놓고 간다
안양시 살던 깨끗한 공기들도
나무숲 속에서 빠져 나간다

요즘에는 산귀신들도 딴곳을 찾아
사람 몰래 도망가는 걸
나 혼자 지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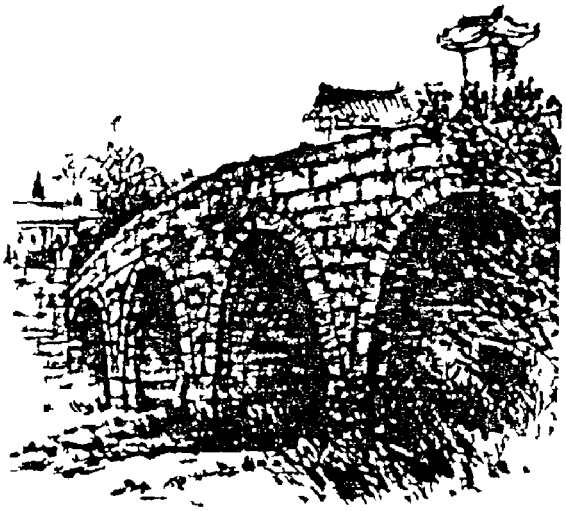
시인이 지적한 대로 안양은 서울 바로 아래라서 아니 안양은 가까운 곳이라 그런지

이미 안양은 포화상태가 되었다 중심가에 자리잡아 안양의 경제를 좌우했던 금성방직 태평방직 금성통신 등의 공장들도 딴 곳으로 떠난 지 오래이다 안양의 곡창지대 달안이들에 살던 토박이들은 외지인들에게 안방을 내주고 어디에서인가 긴 한숨을 내리 쉬는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렇듯 안양의 역사가 일천하고 또 다른 어느 지역보다 급성장한 곳이기 때문에 토박이들 보다는 외지인이 절대적으로 많아 애향심의 결여가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본 서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마을 산 바위 이름에 이르기까지 선조의 체취가 물씬 풍기는 작은 지명에 이르기까지 그 사실을 밝혀 고장의 내력을 알리려는데 주력하였다

여 백

Ⅰ. 안양의 근원지와 시명칭의 유래



제1절 안양의 근원지

1. 안양의 근원지에 대한 제설

안양(安養)의 근원지(根源地)에 대하여는 이승언(李承彦)이 『안양문화』 제3호 「행정구역변천사」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으며 이어 동 제4호 「안양의 유래」와 동 제5호 「안양시 지명유래」에서 각종 문헌과 증언을 토대로 소상히 밝힌 바 있는데 동 논문에 따르면 안양시의 31개 행정동 중 석수1 2 3동과 박달1 2동은 금전현(衿川縣 → 시흥현 → 시흥군)지역이였으며 그 외 전 지역은 과전현(果川縣 → 과천군) 지역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광복 이후에 발간된 각종 자료가 대부분 안양의 근원지는 금천현이었고 금전현의 중심지는 안양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는 안양의 역사가 일천하기 때문에 향토사에 대한 연구가 없어 어느 한 책자가 그 사실을 기록하면 그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전재했기 때문이다 다음에 열거한 자료들은 안양의 근원지가 금전현(衿川縣 → 시흥현)이라고 기술된 논저(論著)인데 금전현은 고구려 때(475) 잉벌노현(仍伐奴縣) 신라 때(757) 곡양현(穀壤縣) 고려 때(940) 금주(衿川 黔川) 조선 태종 13년(1413)부터 정조 19년(1795)까지 금전현(衿川縣)이었고 1795년 부터 시흥현(始興縣) 1895년에 이르러 시흥군(始興郡)으로 개칭되었다

■ 『내고장 전통가꾸기』 (안양시 1981 2쪽)

934년(고려 태조) 衿川로 개칭되면서 衿川縣으로 칭함 1895년(이조 고종 32년) 衿川郡에 속하였음

■ 『경기도사(京畿道史)』 ① (경기도 1979 1268쪽)

시흥군이란 명칭은 『東輿』 『輿圖』에 보이지 않는다 이 명칭은 현재의 안양시를 중심으로 한 일대가 衿川이었고

■ 『시흥의 전통문화』 (시흥군 1983)

『경기도사』의 내용과 같음

■ 『한국지지(韓国地誌)(지방편)』 (국립지리원 1982 574 ~ 575쪽)

고려시대 →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또는 黔川)로 고치고 별칭 衿陽이라함

■ 『지방행정지명사(地方行政地名史)』 (내무부 1982 188쪽)

안양은 고구려 시대에 仍伐奴縣에 속했다가 고려 태조 17년(934)에 衿川로 개칭되었고

■ 『기호풍물지리지(畿湖風物地理志)』 (경인일보 1983 12 13)

이지역 최고의 기록은 고구려 시대의 仍伐奴縣에 속해 있었다 고려 태조 17년(934)때는 衿川이라 칭했다

■ 『안양문화(安養文化)』 (안양문화원, 1982 25쪽)

오늘의 금천(衿川) 시흥군(始興郡)일대는 원래 금전(衿川) 안산(安山) 과전(果川)의 3군이 정립되어 있었는데 안양을 중심으로 한 일대가 衿川이었다

■ 『시정안내(市政案內)』 (안양시 1981 15쪽)

- 고구려 잉벌노현에 속함
- 757(신라 경덕왕) 곡양을 고져 율진군의 영현이 되었음
- 934(고려 태조) 금주로 개칭되면서 금전으로 칭함

■ 「서울시 위성도시 개발에 관한 연구 - 안양시를 중심으로」 (金東炫 학위논문 1976 54쪽)

- 고구려 본군은 원래 仝泉과 安山 및 果川의 삼군이 정립하였음
- 742~764 곡양현으로 율진군에 영속시킴
- 940 仝川로 개칭

■ 『경기연감(京畿年鑑)』 (경인일보사 1985 430쪽)

안양의 연혁을 살펴보면 고구려 시대에는 仍伐奴縣에 속했다가 서기 757년 (신라) 곡양으로 고쳐 934년(고려 태조) 衿川를 개칭되면서 衿川으로 불리다가

■ 「안양지역의 산업폐기물처리 및활용방안에 대한 연구」 (안양상의 1982 15쪽)

고구려 시대에는 잉벌노현에 속했다가 서기 757년 곡양 934(고려 태조) 衿川로 개칭되면서 衿川으로 칭하다가 1879년 또다시 衿川縣으로 개칭했다가 1895년 衿川郡에 속했다가

■ 『자랑스런 내고장』 (경기도 교육위원회 1985 89쪽)

고려 태조 때에 금주로 고져 부르면서 금천으로 불리워졌고 고종 16년 (1879)에 금전현으로 바뀌고 고종 32년(1895)에 금천군에 속했다가

■ 「신풍토기(新風土記)」 (한국일보 1982 7 30)

고구려 때엔 잉벌노현 신라 때엔 곡양 고려 초기엔 衿川

■ 『세계백과대사전(世界百科大事典)』 ⑬ (서문당 1975 118쪽)

본래 衿川 安山 果川의 3군이 합군된 것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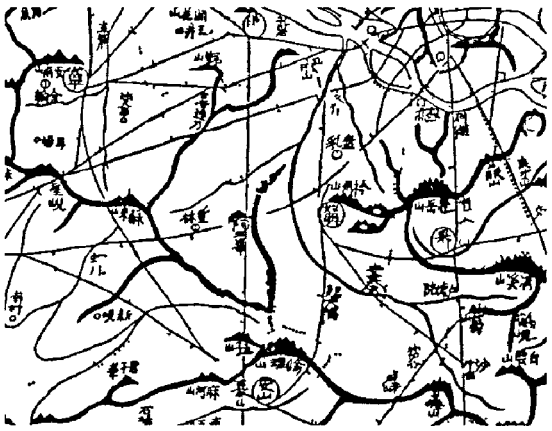
■ 『행정구역연혁 및 지방관련사례』 (내무부 1987 122쪽)

- 삼국시대 仍伐奴縣(고구려)
- 통일신라시대 穀壤[경덕왕 16년(757)]
- 고려시대 衿川[태조 17년(934)] - 樹川
- 조선시대 衿果縣[태종 14년(1414)] - 衿陽縣 - 衿川縣
- 1914년 始興郡 衿川面

■ 『안양시 통계연보』 (안양시 1988 38쪽)

- 고구려 仍伐双縣에 속함
- 934년 (고려 태조) 衿川로 개칭되면서 衿川으로 칭함
- 1879년 (이조 고종 16년) 衿川縣으로 칭함
- 1895년 (이조 고종 32년) 衿川郡에 속하였음
- 1914 3 衿山 安山 始興 3군이 始興郡으로 개칭
- 1914 3 1 衿川이 西二面으로 개칭

이상 열거한 논저 이외에도 안양의 연혁은 거의가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한가지 부언할 것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기술된 자료가 없다는 것이다 한 지방의 연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단 말인가 연대와 지명표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오자(誤字)를 오자인 줄도 모르고 계속해서 사용하는 웃지 못할 사례까지 있다 (예 衿川 → 衿山 衿川 → 衿川)



대동여지도의 과천의 위치

다음에 열거한 자료들은 안양의 근원지가 과천현(果川縣 → 과천군)이라고 기술된 논저들인데 과천은 고구려 때(475) 율목군(栗木郡) 신라 때(757) 율진군(栗津郡) 고려 때(940) 과주(果川) 조선 태종13년(1413) 부터 고종 32년(1895)까지 과천현(果川縣)이었고 1895년 부터 과천군(果川郡)으로 개칭되었다

■ 『안양읍 통계연보(安養邑 統計年譜)』(안양읍 1963 9쪽)

본 안양읍은 원래 과천군에 속하였으나 서기 1914년 2월 10일 군 계합으로

■ 『경기도사(京畿道史)』② (경기도 1982 386쪽)

과천군의 내력을 고찰해 보면 삼국시대에는 栗林 등으로 불리웠으나 고종 32년(1895)에 과천군이 되었는 바 치역은 현내면 남면 안양 등이었다고 하며

■ 『지명유래집(地名由來集)』 (경기도 1987 81쪽)

안양시는 고구려 시대에는 율목군(栗木郡) 신라시대(757)는 율진군(栗津郡) 고려시대(940)에는 과주군(果川郡) 조선 태종 13년(1413)에 과천현(果川縣)

■ 『안양시통계연감(安養市統計年譜)』 (안양시 1995 28 ~ 29쪽)

- 475년(고구려 장수왕 63년) 栗木郡에 속함 (박달동 석수동은 仍伐奴縣에 속함)
- 757년(신라 경덕왕 16년) 栗津郡(穀壤縣)
- 940년(고려 태조 23년) 果川(衿川縣)
- 991년(고려 성종 9년) 富林 또는 富安(果川의 별호를 富林 또는 富安으로 정하다)
- 1413년(조선 태종 13년) 果川縣(衿川縣)

이상과 같이 안양의 근원지가 금천(衿川)과 과천(果川)의 두 갈래로 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데 그 원인은 첫째 한 행정구역(시흥군)내에 안양리란 행정지명이 둘이나 있었고 둘째는 금천현 안양리(현 안양시 석수동으로 시흥군 동면 안양리였다가 1963년에 안양읍 신안양리로 개칭)와 과천현 안양리(현 안양시 안양동)가 삼성천을 경계로 서로 접경지대에 위치해 있었으며 셋째는 조선시대에 발간된 지리지 읍지 등의 옛 문헌이 양현(금천 과천)의 안양리(安養里)가 안양리(安陽里) 안양리(安養里)로 기술되어 있어 더욱 혼란을 야기시켰으며 넷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향토사(안양사)에 대한 전문적이고 제계적인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 안양의 근원지

안양의 근원지 즉 뿌리를 밝히려면 무엇보다 금천 안양리와 과천 안양리에 관한 옛 기록들을 살펴 보아야 하는데 주지하는 바와 같이 안양이 삼국시대 이후 고려 조선을 거치는 동안 독립된 지방행정(府 牧 郡 縣)이 아닌 소읍(小邑)에 불과한 관계로 이렇다할 문헌이나 지도 등이 없었기 때문에 양현의 읍지나 지리지 등을 통한 사실

규명이 선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천현 안양리에 관한 기록은 영조조의 『여지도서』 이래 조선 말기에 발간된 읍지나 지리지 중 1871년에 편찬되어 일제강점기 때 필사한 『과천읍지』(국사편찬위원회 소장)와 『호구총수』(규장각 소장) 등 불과 몇몇 문헌 외에는 안양리에 관한 행정지명이 기술되어 있지 않으므로 옛 과천의 치소(治所 현 과천시 중앙동사무소 자리)에서 현 안양시의 영역인 만안구(下西面)와 동안구(上西面)에 해당되는 경계에 관해 기재된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영조 35년(1759)
- 상서면은 과천현 치소에서 서쪽 15리 지점에 있다 (上西面 在縣西十五里)
- 하서면은 과천현 치소에서 서쪽 25리 지점에 있다 (下西面 在縣西二十五里)

■ 『대동지지(大東地志)』 고종 원년(1864)
- 상서면은 처음이 10리이고 끝이 20리이다 (上西初十終二十)
- 하서면은 서남쪽으로 끝이 25리이다 (下西西南終二十五)

■ 『과천읍지(果川邑誌)』 1871 1910 ~ 1944년에 필사
- 하서면 一洞 二洞 道陽里 虎溪里 石手村 安陽里 後頭尾洞 撥舍洞

■ 『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 1912
- 하서면 一洞 二洞 道陽里 虎溪里 石手洞 安陽里 後頭尾洞 培內洞 撥舍洞

■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 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중앙시장, 1917
- 과천군 하서면의 撥舍里 石培里 後頭尾里 培內里 安陽里가 安養里로 통칭되면서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됨

금천현 안양리는 치소와 인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치소 내에 소재해 있어 행정상 중요시 되던 곳이었는데 조선시대 금전 안양리(현 석수1 2 3동)에 관한 자료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여지도서(輿地圖書)』 영조 35년(1759)
- 현내면에서 10리 거리에 安養里가 있고 5리 거리에 博山里(서울 시흥동 박미)와 上平里가 있다

■ 『시흥군읍지(始興郡邑誌)』 광무 3년(1899)

• 군내면에서 3리 거리에 박산리가 있고 10리 거리에 安養里(현 석수동)가 있으며 17리 거리에 博達里(현 박달동)가 있다 (郡內面博山里三里安養里十里博達里十七里)

■ 『경기지(京畿誌)』 편자미상 고종조에 편년

• 위와 같은 내용임

■ 『기전읍지(畿甸邑誌)』 의정부 고종조에 편년

• 위와 같은 내용이나 安養里를 安陽里로 기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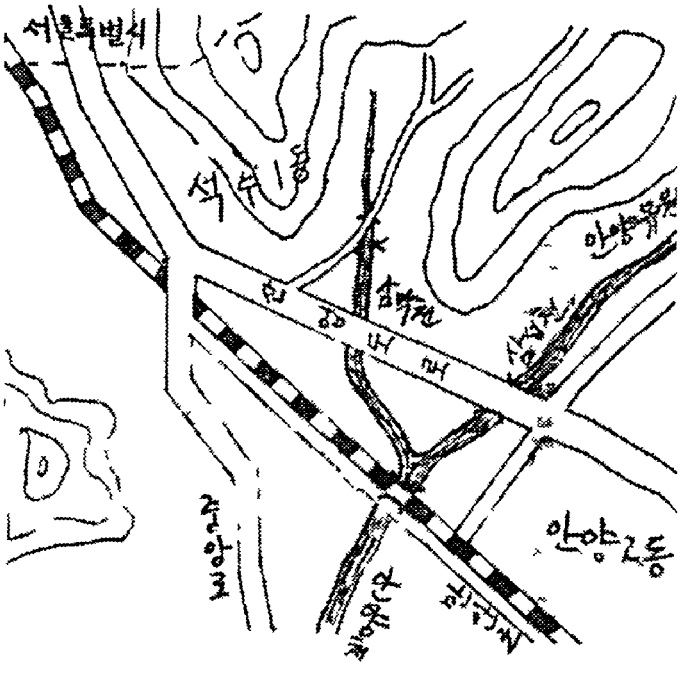
■ 『지방행정구역명칭 일람(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조선총독부 1912

• 시흥군 군내면 郡內洞 安養里 博達里

■ 『조선전도부군면리동명칭 일람(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중앙시장 1917

• 시흥군 군내면 安陽里가 安養里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됨

금전현(시흥권)과 과전현의 현계



이상과 같이 양현(금전현 과전현)에 안양리(安養里)가 있었기 때문에 현계를 정확히 논증하기란 상당히 어려운 것이어서 수 자에 걸친 답사와 읍지(邑誌) 지리지(地理志) 지도(地圖) 등을 토대로 안양의 원로들의 증언과 지리학자 등의 자문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 현계(경계)는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로 흘러내리는 안양천(삼성천 옛명칭은 安陽川 또는 安養川)을 따라 그 북쪽에 위치한 지역이 과전현 안양리(현 안양시 안양1동-9동)이다 말하자면 현 안양시의 지역(治域)중 석수동과 박달동은 금천현에 속했고 그 외 전역은 과천현에 속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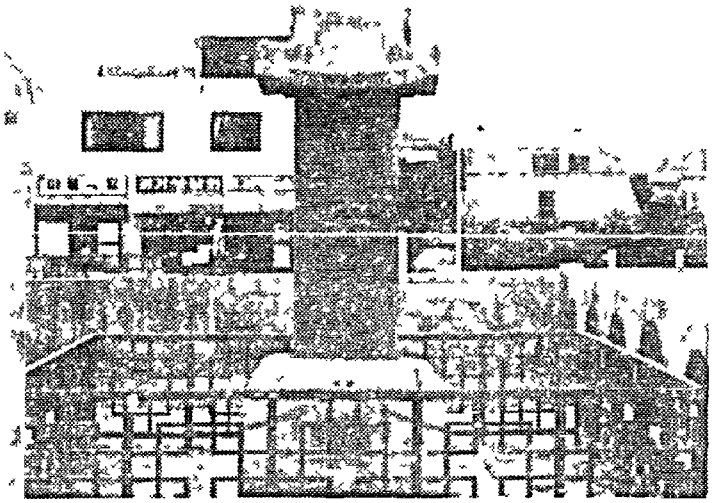
이상의 사실을 종합하자면 안양의 근원지 즉 뿌리는 삼성산에서 발원한 삼성천을 현계로 했고 뒤에서 언급하지만 안양의 명칭유래가 삼성산 소재 안양사(安養寺)에서 유래되었으니 엄밀한 의미에서는 금천현이 안양의 근원지라는 설이 옳다고 보나 현 안양시의 인구 및 면적은 물론 시정사 등 행정의 중심지가 삼성천 이남의 지역으로 과거 과천현의 치역이었으므로 안양의 근원지는 과천현이라고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제2절 안양시 명칭의 유래

1 시명칭에 대한 제설

안양시 명칭에 대하여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안양의 전통문화를 상징하는 만안교에서 유래되었다는 설과 삼성산에 있었던 안양사에서 유래되었다는 설 등으로 대별되는데 그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만안교 원용설(萬安橋 援用說)



만안교비(1990년대) 정부기관등의 문헌들이 대부분은 안양의 시명의 유래를 만안교원용이라고 밝히고 있다

■ **『한국지지(韓國地誌)』 ① 건설부 1983 575쪽**

안양은 조선의 정조 임금이 父王인 사도세자의 수원 화산능을 참배하기 위하여 안양에 '만안교'를 놓았는데 효도의 다리로 알려진 이 다리 이름에서 '安'자를 취하고 또 그 정성을 길이 일깨워 살린다는 뜻에서 '養'자를 취하여 '安養'이 되었다고 함

■ **『한국지방행정지명사(韓國地方行政地名史)』 내부부 1982 188쪽**

조선 정조 19년(1795) 9월 효성이 극진한 정조가 父君 莊獻世子(사도세자)의 수원 화산능 輦路를 위하여 놓은 '만안교'에서 '安'자를 사용했을 것으로 풀이되며 정조가 父君에 대하여 身命을 바쳤던 바와 같이 인륜의 근본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뜻을 더욱 살리고 일깨우며 그 뜻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養'자를 사용하여 '安養'으로 징하게 되었음

■ **『행정구역 연혁 및 지명관련 사례』 내무부 1987 122쪽**

'安'자는 조선 정조 19년(1794) 9월 효성이 지극한 정조가 부왕인 莊獻世子(사도세자)의 수원 화산능 輦路를 위하여 놓은 '만안교'에서 따온 것이며 정조가 父君에 대하여 신명을 바쳤던 바와 같이 인륜의 근본인 부모에게 효도하는 뜻을 더욱 살리고 일깨우며 그 뜻을 길이 전하기 위하여 '養'자를 사용하여 '安養'으로 징하게 되었음

2) 안양사 원용설(安養寺 援用說)

■ 「신팔도기(新八道記)」 동아일보 1978 12 1

안양의 유래는 생어안주(生於安住 편히 사는 곳)에서 따온 것 금주 과천 금천 안산으로 불려지던 시흥군의 한 邑에서 떨어져 나온 이곳을 安養이라 이름 짓기까지엔 숱한 사연이 깃들어 있다 시내 한 복판에서 서울쪽으로 우뚝 솟은 삼성산에도 '安住'와 관련된 사연이 많다

■ 「기호풍물지리지(畿湖風物地理志)」 김대규 경인일보 1983 12 13

안양이란 말은 원래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지니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일컫는 말이다 안양계(安養界) 안양보국(安養寶国) 안양세계(安養世界) 등이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말들이니 시명(市名)이야 말로 더 말할 나위 없이 빼어난 자랑거리가 아니겠는가?

■ 「고향에 살다」 김대규 동아일보 1984 9 18

원래 불교에서 '마음을 편하게 지니고 몸을 쉬게 하는' 극락정토(極樂淨土)를 안양계(安養界) 안양보국(安養寶國) 안양세계(安養世界)라 부르는 바 안양이 바로 그 佛界에 통하니 얼마나 자랑스럽고 빼어난 이름인가?

■ 「신풍토기(新風土記)」 정진규 한국일보 1982 7 30

안양이란 지명이 1941년에 시흥군 서이면이 안양면으로 개칭되면서부터 쓰여진 것으로 연혁에 나타나 있어 그 명칭을 고찰할 셈으로 찾은 안양사(安養寺) 석수동 산27) 경내 법당 앞에 남아 있는 귀부(龜趺)정도에서 그 옛 사찰의 향훈을 느껴 볼 수 있을 따름이다 육당(六堂)의 『대동지명(大東地名)』사전에 의하면 안양에 대한 지명풀이는 따로이 없고 안양사(安養寺) 제하에 재금전삼성산(在衿川三聖山 금천은 고려초기의 이 지역 명칭)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개칭할 때 이 사찰의 이름을 원용(援用)한 것으로 짐작된다

2 안양시 명칭의 논거

전술한 안양시 명칭유래 중 1)의 만안교 원용설은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만안교 가설 이전의 문헌에 '안양'이란 지명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특히 1)의 설은 억지 춘향식의 인조어(人造語)인상이 짙게 풍긴다 안양이란 지명은 김대규가 지적했듯이 불계의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나온 말로 그 기원은 신라

효공왕 4년(900)에 고려 태조 왕건이 금주(衿川 시흥) 과주(果川 과천)) 등의 제 지역을 정벌하기 위하여 삼성산을 지나다가 능정(能正)이란 스님을 만난 인연으로 그 자리에 안양사(安養寺)를 창사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안양사의 원용설을 주장하는 논거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첫째 삼성산 안양사 인근에 있는 삼막사(三幕寺) 삼막전(三幕川) 삼성천(三聖川) 안양천(安養川 현 삼성전) 삼막동(三幕洞) 안양교(安養橋) 안양전석교(安養川石橋) 안흥사(安興寺 염불암) 호압사(虎壓寺) 불성사(佛性寺) 망해암(望海庵) 염불암(念佛庵)등의 사명(寺名) 지명 등이 모두 불교와 깊은 관련이 있고

둘째 삼성산 안양사의 위치가 금전현 안양리(현 석수동)에 속해 있으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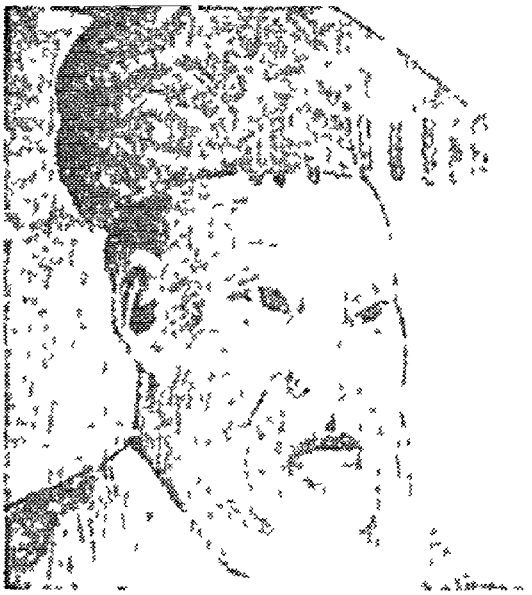
셋째 안양유원지 일대의 옛 지명이 안양동 또는 안양골이라 칭했다는 안양 원로들의 증언과 옛 문헌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데다가

넷째 안양사 이전에는 안양이란 문헌이 없으며

다섯째 삼성천(안양전)을 경계로 하여 현계를 구획했다는 사실과 서로 다른 행정구역(금전현 과천현)이면서 안양리(安養里)란 지명을 택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닌 필연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그 주변 일대를 불심(佛心)으로 안양세계(安養世界)를 이룩하려고 했던 선조들의 깊은 뜻이 내포되어 있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3. 안양시 명칭의 유래

고려 태조 왕건 상



안양이란 시명이 탄생된 것은 통일신라 말기였다 고려 태조 왕건(王建 877-943)이 18세 때 (895) 아버지 왕융(王隆)을 따라 궁예의 휘하로 들어가 23세 때(900) 금주(衿川 → 금전 → 시흥) 과주(果川 → 과전) 등의 지역을 정벌하기 위하여 안양시 석수1동 소재 삼성산을 지나다가 삼성산에 구름이 5가지 빛으로 재색을 이루어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능정(能正)이란 늙은 스님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보니 왕건의 뜻과 같으므로 이곳(석수동 산27 일대)에 안양사란 사찰을 건립하였는데 이 안양사로 인하여 '안양(安養)'이란 지명이 탄생되었다

1) 안양(安養)의 뜻

안양이란 서방극락국(西方極樂國)의 이명(異名)으로 『무량수경(無量壽經)』 下에 의하면 "제불(諸佛)이 보살에게 말하여 안양불(安養佛)을 찾아보게 하였다"고 기술되어 있으며 의적소(義寂疏)에는 '마음을 편히 하고 몸을 양(養)함을 안양이라 한다'고 하였는데 좀 더 설명을 붙이면 안양은 사바세계에서 서쪽으로 십만억불을 지나간 곳에 있다는 아미타불(阿彌陀佛의 정토로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구니(法藏比丘)의 이상을 실현한 국토인데 지금도 계시어 항상 설법하시며 모든 일이 원만구족하여 즐거움만 있고 괴로움은 없는 자유롭고 안락한 이상향(理想鄕이다

그 밖에 안양은 안양계(安養界) 안양교주(安養敎主) 안양락(安養樂) 안양세계(安養世界) 극락세계(極樂世界) 안양정업(安養淨業) 안양정찰(安養淨刹) 안양정토(安養淨土) 안양즉적광(安養卽寂光) 안양지족(安養知足)이란 뜻으로도 풀이된다

• 참고문헌 세계성전간행협회 『망월불교대사전』 1954
한국불교편찬위원회 『한국불교 대사전』 1982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 안양(安養)의 장엄(莊嚴)

- 안양은 땅이 칠보(七寶)로 되어 광채가 빛나고 기묘하여 청정하기가 시방세계에 뛰어나고 국토의 넓이가 한량없으며 땅이 평탄하여 산 구렁 골짜기 바다 강이 없다
- 안양은 비와 눈이 없고 해와 달이 없으나 항상 밝고 어둡지 아니하여 밤과 낮이 없거니와 꽃이 피고 새가 우는 것으로 낮을 삼고 꽃이 지고 새가 쉬는 것으로 밤을 삼으며 기후가 차고 더운 것이 없어 항상 봄과 같이 온화하고 밝으며 상쾌하다
- 안양은 땅위에서 허공에 이르기까지 한량이 없는 여러가지 보배와 백천 종류의 향(香)으로 되었으며 장엄한 것이기 묘하고 절승하며 광채가 휘황하기 그지없다

■ 안양은 여러가지 보배로 된 보망(寶網)이 그 나라를 덮었을 뿐 아니라 여러가지 보배나무도 위에는 보망이 덮히었고 그 주위에는 보배 난간(欄干)이 둘려져 교묘하게 꾸미고 광채가찬란하다 또 바람이 약간 불면 보배나무와 보배그물에서 미묘한 법음(法音)이나며 꽃다운 향기가 퍼지고 나무에서 나는 소리가 백전 종류의 음악소리와 같다

■ 안양은 바람이 불면 꽃이 흩어져서 전국에 가득차고 하늘에서도 꽃비가 오는데 제각기 그 빛을 따라 쌓이고 섞이지 않으며 부드럽고 고와 찬란한 광채와 꽃다운 향기가 난다

■ 안양은 칠보로 된 연목에 팔공덕수(八功德水)가 가득 잤는데 목욕할 때는 물이 덥고 잔 것과 늘고 주는 마음대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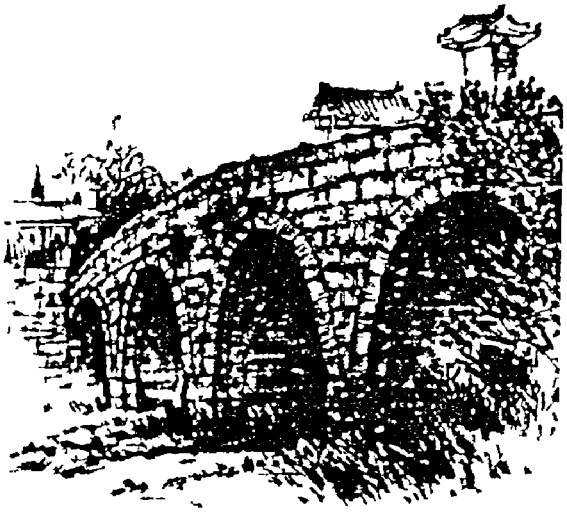
■ 안양에서 음식을 먹을 때에는 각색 보배그릇이 마음대로 앞에 오는데 그 가운데에 백미(百味)가 구존(具存)한 음식이 잠겨져 있고 먹은 뒤에는 자연히 녹아 흘러서 남는 찌꺼기가 없다

■ 안양은 모든 사람들이 지혜가 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도덕 아닌 것이 없으며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른 일 아닌 것이 없고 서로 사랑하며 공경하고 미워하거나 시기하는 일이 없으며 제각기 질서를 지키고 어긋나는 일이 없어서 움직이는 것이 예의(禮儀)에 맞고 화목하기가 형제 같으며 말이 진실하고 서로 가르쳐주면 기쁘게 받아 어김이 없으며 신기(神氣)가 고르고 고요하며 체질이 가볍고 맑다

■ 안양은 락(樂)만 있고 생노병사(生老病死)의 고통이 없나니 태어날 때는 고통이 있으니 성화(花生)하는 데는 연화에 화생하므로 생고(生苦)가 없으며 4계절이 없고 절기가 바뀌지 아니하며 기후가 항상 온화하여 노고(老苦)가 없으며 화생한 몸이 미묘하여 향기롭고 정결하므로 병을 앓아 고생하는 일이 없고 수명이 한량이 없으므로 사고(死苦)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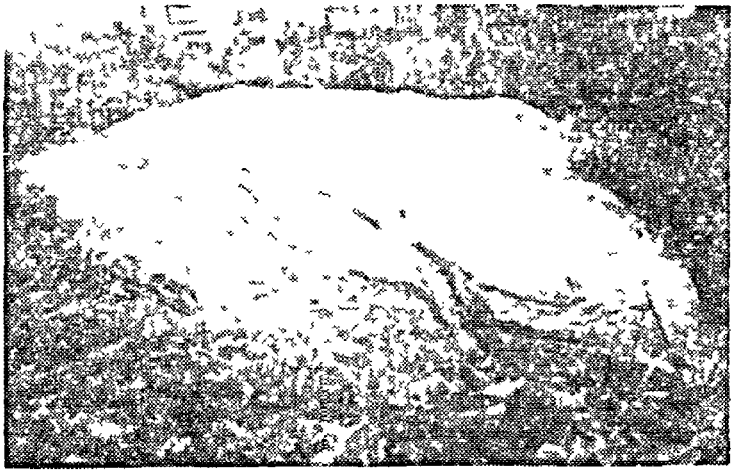
● **참고문헌** 홍인표 『연종집요』 1970 세계성전간행협회 『망월불교대사전』 1954
한국불교대사전편찬위원회 『한국불교대사전』 1982

Ⅱ. 안양의 연혁



제1절 안양의 시대별 연혁

1 삼국시대


평촌지구 개발전 지석묘 모습(1990년경)○

우리나라 중앙을 횡(橫)으로 관류(貫流)하는 한강을 끼고 그 남방에 위치한 안양지방은 아득한 옛날부터 선인들의 생활터전이요 문화의 발상지가 되었다 1989년 평촌동의 귀인(貴仁) 신말(新村) 갈미(葛山)등지에서 발견된 지석묘(支石墓)등은 안양이 이미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우리 조상들의 집단생활터가 되어 왔음을 여실히 말해주고 있으며 그 후 오랜 기간에 걸친 집단생활은 계속되어 점차 선진적인 발전을 가져 왔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다

안양지역이 문헌자료에 처음 기록된 것은 한나라의 무제(武帝)가 위만 조선을 정벌하고 소위 한사군(漢四郡)을 설치한 기원전 108년 경 이후이다 국가의 영역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한강 이남인 안양지역은 대개 진국(辰國)의 영역에 속한 여러 부족 중 하나였던 것 같다 이 지역은 한(漢)의 발달된 철기문화를 받아들여 일찍부터 높은 문화수준을 유지하여 후에 이곳을 중심으로 백제가 흥기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그 후 진국이 삼한(三韓)으로 분리되면서 안양지역은 마한(馬韓)의 영토가 되었다가 후에 다시 백제의 영토가 되었다

백제의 건국시기와 그 시조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설화에 따르면 북부여(北扶餘)에서 남하하며 고구려를 건국한 주몽(朱蒙)의 아들인 비류(沸流)와 그 아우인 온조(溫祚)가 패수(浿水)와 대수(帶水)를 건너 한산(漢山)에 이르러 온조는 위례성(慰禮城)에 도읍하고 10명의 신하의 보필을 받으면서 국가 이름을 '십제(十濟)'라 칭했고 비류는 바닷가에 정착키 위해 무리를 나누어 미추홀(彌鄒忽)로 들어갔으나 그곳 땅이 습하고 소금기가 있어 되돌아와 죽자 미추홀의 백성들은 위례성에 모이게 되어 국가명을 백제(百濟)로 바꾸었다고 한다

그 후 온조왕 13년(기원전 6)에는 한강 남쪽을 돌아보고 땅이 기름지므로 백성들을 옮긴 후 이듬해에 도읍을 광주(廣川)로 옮기었다 그러나 기원 후 3세기 중엽 낙랑

과 대방의 침략을 받은 한강유역의 여러 성읍국가들은 보다 큰 연맹체를 갖추어 이에 대항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었으니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것이 백제였다 이리하여 3세기 말에 이르러 백제는 한강유역 일대를 지배하는 새로운 국가로 성장하였으며 근초고왕 24년(369)에는 마한을 완전히 병합(이설도 있음)하는 등 영토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남북으로 영토의 확장을 꾀하던 고구려는 광개토왕(廣開土王) 때에 남쪽의 백제를 져서 임진강과 한강 부근까지 진출하여 한강 연안의 여러 성을 공격해서 빼앗았다 당시 고구려가 차지한 지역은 인천부근의 미추성(彌鄒城)과 서울 동쪽 한강연안의 아차성 등은 포함하여 대략 58성 700촌락이었다 광개토왕에 이어 왕위에 오른 장수왕(長□王)은 동왕 63년(475)에 국도를 평양으로 옮기고 남진정책을 추진하였으며 그 결과 백제의 수도 한산을 함락시켰다 고구려의 공격으로 백제가 부득이 수도를 웅진(能□)으로 옮기게 되자 경기도 전역이 고구려의 영토가 되었다

이리하여 안양지역은 고구려의 남부에 해당되어 안양시 박달1동 박달2동 석수1동 ~ 석수3동을 비롯하여 광명시의 지역 중 옥길동을 제외한 전지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지역 중 여의도동을 제외한 전지역 동작구의 지역 중 상도동과 신대방동지역 관악구의 치역 중 남현동을 제외한 전지역 구로구의 지역 중 가리봉동 구로동 신도림동 금천구의 독산동 시흥동 가산동 등의 전지역을 '잉벌노현(仍伐奴縣)'이라 칭하고 안양시의 안양1동 ~ 안양9동 호계1동 ~ 호계3동 비산1동 ~ 비산3동 평촌동 관양1동 관양2동 지역과 군포시 전역 과천시 전역 서울특별시 용산구 전역 동작구 중 노량진동 본동 사당동(남현동 일부지역 제외) 흑석동 등의 전지역 서초구 중 내곡동 도곡동 염곡동 등을 제외한 전지역을 '율목군(栗木郡)또는 동사힐이라 칭했다

그러나 백제는 성왕(聖王) 29년(551) 신라와 연합군을 만들어 6개 군을 회복했으나 성왕 31년(553)에 다시 신라 진흥왕에게 빼앗겨 신라의 영토가 되었다 신라 문무왕 8년(668)에 반도를 통일한 신라는 행정구역 제도 역시 신라의 제도로 바꾸기 시작했다 즉 신라는 넓어진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서는 지방조직의 정비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통일 후의 신라가 당의 세력을 완전히 구축한 것은 문무왕 16년(676)이었으나 전국을 9주(九州)로 나눈 것은 그로 부터 9년 후인 신문왕 5년(685)이었다 9주란 옛 백제 땅에 3개주 신라와 가야 땅에 3개주 고구려 땅에 3개주를 말하는데 이때의 안양지역은 한산주(漢山州)에 속했다 9주 밑에 두는 군(郡) 현(縣)은 제 35대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일대 개혁을 보아 종전의 지명이 우리

말에 한자를 빌어서 이두나 향가식 문자이던 것을 모든 지명을 한자의 이자(二字)식으로 고쳐 부르게 되어 지명의 획기적인 변동이 있었다 이러한 원칙에 의하여 잉벌노현은 '곡양현(穀壤縣)'으로 율목군은 '율진군(栗津郡)'으로 각각 개칭되었는데

이를 표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주 명	속 군 명	속 현 명
漢 川	栗木郡(고구려)→栗津郡(신라) 仍伐奴縣(고구려)→穀壤縣(신라)	穀壤縣 孔岩縣 邵城縣

* 자료 『삼국사기』 권35

위의 표 중 한주(漢川)는 주치(川治)를 광주에 두고 그 밑에 군 현을 두어 도독(都督)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특기할 사항은 곡양(穀壤) 공암(孔巖) 소성(邵城)의 3개현이 모두 율진군의 영현이 된 것인데 공암현은 지금의 서울특별시 강서구와 양천구이며 소성은 인천광역시를 일컫는데 지금의 안양시를 비롯하여 광명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악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 동작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와 인천광역시에 이르는 제지역이 통일신라시대에는 과천의 영역이었거나 영현이었던 것이다 신라 말기에는 골품제도(骨品制度)의 모순이 극에 달해 이로 말미암아 진골귀족(眞骨貴族)의 분열 상극현상과 육두품(六頭品) 세력의 불만은 더욱 고조되자 그것이 원인이 되어 중앙정부의 통치력이 약화되어 각 고을에서는 농민들의 봉기가 도처에서 발생하였다 이들 농민들을 거느리는 두목이 원주의 양길(梁吉 良吉) 전주의 견훤(甄萱 ?-936) 죽산의 기훤(箕萱) 양길의 부하 궁예(弓裔 ?-918) 등인데 그 중에 안양지방은 송악(松岳)을 근거지로 삼아 후고구려(後高句麗)를 세운 궁예의 휘하에 놓이게 되었다 이 때 궁예의 부하인 왕건(王建)은 눈부신 전공을 세워 자신의 지지기반을 착실하게 쌓아 나가다 효공왕 4년(900)에는 궁예의 명령을 받아 경기도의 양성(남양) 광주 곡양(시흥) 율진(과천) 등의 제현을 평정하기 위하여 삼성산을 지나가다 능정(能正)이란 늙은 중을 만난 후 안양사(安養寺)를 창건했는데 이것이 안양시 명칭의 기원이 된다

2 고려시대

후삼국(後三國)을 통일한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지 22년이 되는 동왕 23년(940)에

경덕왕16년(757) 이래로 사용해 온 전국의 모든 주(川) 군(郡) 현(縣)의 이름을 고쳤다 신라가 3국을 통일한 지 100여년 후에 단행한 것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단행한 것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라 경덕왕16년(757)	고려 태조23년(940)
栗津郡	果川
穀壤縣	衿川(또는 黔川)

* 자료 『고려사』지리지 서문

왕건의 지명 변개(變改)의 특색은 신라시대의 9주 지역 외에 국가의 공헌이 있거나 왕실의 외척지(外戚地)등에 「~川」의 명칭을 지나치게 남발했는데 예를 들면 견성군(堅城郡)을 포주군(抱川郡) 소성현(邵城縣)을 인주(仁川) 절성군(鐵城郡)을 동주(東川) 진예군(進禮郡)을 금주군(錦川郡)으로 개칭한 따위가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상 열거한 지방은 지관(知官)으로서의 주의 명칭이아니고 금주와 과주는 감무관(監務官)으로서 주의 명칭이므로 그 개념이 전혀 다르다

고려의 지방제도가 정비된 것은 제6대 성종(成宗 982~997)때 였다 신라 육두품계열의 유학자 최승노(崔承老 927~989)의 건의를 받아들여 처음으로 중앙에서 지방관을 과견하고 향직개혁(鄕職改革)을 실시했다 즉 성종 2년(983)에 설치된 12목제(十二牧制)가 고려의 지방제도로는 최초가 아닌가 보여진다 12목제의 설치배경은 지방관 설치를 통하여 중앙의 행정력을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일단의 행정력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12목제는 성종 14년(995)에 12주(十二川)로 명칭을 바꾸고 직명도 목사에서 절도사(節度使)로 바꾸고 그 밖에 도단련사(都團練使) 단련사(團練使) 칙사(勅使) 방어사(防禦使) 등 외관을 일시에 전국적인 규모로 증설하였는데 『고려사 지리지』에 의한 배치현황은 다음과 같다

- 도단련사 水川 運川
- 단 련 사 衿川 樹川
- 직 사 林川 提川

이러한 배치는 불과 10년 후인 목종 8년(1005)에 파하고 말았다 성종 14년(995)의 제도정비 중 주목할 사항은 당(唐)의 제도를 모방한 10도제(十道制)였다 기내도(畿內道 경기도 황해도 일대)를 비롯한 10도가 그것인데 안찰사(按察使) 등 중앙의 관인이 순찰하고 돌아오는 정도로 도의 수장이 그 곳에 상주하는 행정구역으로는

발전하지 못하고 말아 10년만에 폐지되었다

성종대의 지방행정제도 가운데 특기할 만한 점은 별호제(別號制)였다 성종10년(991)의 별호제는 고려의 지방제도가 확립되는 시기의 특징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고려 사회의 본관이나 성씨 봉작명(封爵名)의 운영에 있어서도 기본이 되는 원리였다 더욱이 지명 이외에 따로 별호를 제정하였다는 사실은 일련의 국가권력과 지방토호세력 간의 관련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과주의 별호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려사』 지리지와 『세종실록』 지리지에 관한 기사를 살펴 보기로 한다

果川 本高句麗栗木郡(一云 冬斯○) 新羅景德王改爲栗津郡 高麗初更今名 顯宗九年來屬後置監務 別號富安(成廟所定) 又號富林 有冠嶽山 (『高麗史』권56 지10 지리1)果川縣 本高句麗栗木郡 新羅改爲栗津郡 高麗改爲果川 顯宗戊午屬廣川任內 後置監務 本朝大宗十三年癸巳 例改爲果川縣監 別號富林(淳化所定一作富安) (『世宗實錄』권148 地理 8)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천군의 별호는 '부안(富安)' 또는 '부림(富林)'인데 이러한 별호는 고려 성종 9년(990)~성종 13년(994)에 정해졌다고 하였으며 『세종실록』 지리지에도 순화(순화 송의 연호 990~994)년 간에 정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고려에서는 이 당시 성종의 유교적 제제확립과 중국제도의 수용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배경이 송의 문물제도를 바탕으로 하여 지방의 특성을 별호로 제정하게끔 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성조대의 정치확립에는 최승로(崔承老)의 정책의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그는 태조이래 공신의 우대를 강조하여 중앙관료로 진출한 그들의 출신지에 별호를 부여하게끔 하였으며 또 그들을 위무하기 위한 정책상의 필요에서 성종대에 별호의 성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현종 2년(1011)에는 거란의 제 2차 침입으로 수도 개경(開京)이 함락당했으며 이듬해에는 절도사가 다시 폐지되고 안무사(按撫使)가 설치되었다가 현종 9년(1018)에 다시 안무사를 폐지하고 4도호(四都護) 8목(八牧) 56지주군사(五六知州郡事) 28진장(二八鎭將) 20현령(二十縣令)을 설치하였다 고려의 지방행정제도는 기능면에서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던 곳은 4도호 8목을 중심으로 하여 그 아래에 중앙관리가 전임으로 파견 상주하는 주(州) 부(府) 군(郡) 현(縣) 진(鎭)이 있었다 그 중 중앙에서 외관이 파견된 곳을 주목(主牧) 영군(領郡) 주현(主縣)이라고 하였고 반면에 속군(屬郡)과 속현(屬縣)은 지방관이 임명되지 않았다

현종 9년(1018)에 개편된 지방제도에 의거 안양지역인 과주는 천령(川寧) 이천(利川) 죽주(竹川)와 함께 광무목(廣川牧)에 금주는 안남도호부(安南都護府 부평)에 각각 속하게 되었다 그 후 과주는 감무(監務)를 두었고 숙종 7년(1102)에 용산저(龍山處 현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대)에 고관을 시켜 도읍지가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본 후 충렬왕 10년(1284)에 부원현(富原縣)으로 승격되어 과주에서 분리되었으며 금주는 명종 2년(1172)에 비로소 감무를 두어 지방제도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고려조의 지방행정제도 중 주목할 사항은 '경기(京畿)'라고 하는 특별한 행정구역을 설치한 것이다 즉 성종 2년 개성부와 동시에 적현(赤縣 京縣)과 기현(畿縣)을 파하고 현을 두어 정주(貞川 豊德郡지방) 덕수(德水 開豊郡 지방) 강음(江陰 金川郡 지방)의 개성현을 두어 장단현령으로 하여금 송림(松林) 임진(臨津) 토산(兎山) 임강(臨江) 적성(積城) 과평(坡平) 마전(麻田)의 7현을 관할케 하여 모두 상서도성(尙書都省)에 직속시켜 '경기(京畿)'라 칭하였다 그후 문종 23년(1069)에 다시 50군현으로 확장된 후 공양왕 2년(1390)에 이르러 조 준(趙浚 1346 ~ 1405)이 사전개혁에 관한 소를 여러 차례에 걸쳐 올림에 따라 사전개혁이 실시되어 경기를 좌우도로 분정하였다 그리하여 경기좌도에는 과주를 비롯하여 금주 안산군 등이 속했고 경기우도에는 개성현 강음현 김포현 등이 속했다

3 조선시대

조선왕조를 성립시킨 주체세력은 막강한 군사력과 려말(麗末)에 등장한 신흥 사대부로 그들은 고려말에 전래된 성리학으로 정신무장된 신흥 정치세력이어서 중앙의 정치기구나 지방통치조직은 유교정치의 이상을 구현할 수 있는 정책수립과 시행을 위한 것이어서 국초(國初)의 지방제도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차차 지방제도가 완비되자 수도인 한성부 주위의 경기도에 포함되었던 서북쪽의 7개 지방을 분할하여 서해도(西海道)에 분리시키고 수도에 인접한 양광도의 제지방을 경기도에 이속시켜 광주 수원 관하의 한강 이남의 군 현을 경기좌도라 하였고 양주 연안 등 한양 이북의 군현을 우도라 하였는데 안양지역인 과주와 금주는 고려말의 행정제도와 같이 경기좌도에 속했다가 다시 태종 2년(1402)에 경기좌도와 우도를 합하자 경기좌우도(京畿左右道)에 속하였다

왕조의 기반이 안정되어가고 왕권이 점차 확립되어가자 유교정치에 입각한 제도개편에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하자 태종 13년(1413)에는 지방제도의 전면적인 개혁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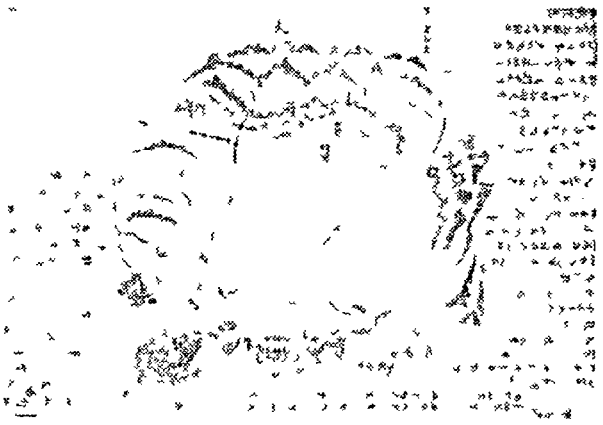
단행하였는데 이것이 이른바 팔도제(八道制)의 편제와 각급 군읍(郡邑)의 정비였다 8도는 경기도를 비롯하여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함경도 평안도인데 고종 32년(1895) 23부제로 고쳐질 때까지 조선시대를 통하여 지방행정 제도의 기본으로 되었다 8도에는 관찰사(觀察使 監司 종2품)가 파견되어 수령으로 통칭되는 도내의 부윤(府尹 종2품) 목사(牧司 정3품) 부사(府使 종3품) 군수(郡守 종4품) 현령(縣令 종5품) 현감(縣監 종6품) 등을 통할 감시하였다

태종 13년(1413)에 전개된 지방개혁의 특징은 고려조에 남발되었던'~주'의 명칭을 대폭 정리한 것으로 이는 다분히 고려왕조의 잔재를 불식시키기 위한 정치적 작용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각도의 부관(府官)은 도호부로 고치고 감무는 현감으로 고치며 무릇 군이나 현에 '~주(川)'자가 든 고을을 모두 '산(山)' 자나 '전(川)'자로 고쳤으니 영주(寧川)는 영전(寧川)으로 금주(衿川)는 금전(衿川)으로 과주(果川)는 과전(果川)으로 고친 것이 그 본보기이다 『세종실록』 지리지 권 148 과전현 조에 과전현의 연혁을 풀이한 대목을 보면 무릇 주(川)와 부(府)와 군(郡)과 현(縣)사이에는 각각 등급이 있는데 조선 초기에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지관(知官)이 행정관이 있는 자리에도 '주(川)'자로 붙여 부르는데 이런 보기로는 인주(仁川)니 괴주(槐川)하는 따위가 바로 그것이고 현감으로서 주자를 붙여 부르는 고을도 있는데 과주와 금주가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뒤섞여 부르기 때문에 그 고을에 등급을 알 수가 없어서 혼란을 일으키는 일이 많아 지관이나 감무관으로 행정관리가 된 고을은 그 '주(川)'자를 모두 '전(川)'자나 '산(山)'자로 바꾸었다

태종 13년에 개칭된 과천현은 이듬해 다시 금전현(衿川縣)과 병합하여 금전현의 '금(衿)'자와 과전현의 '과(果)'자를 합해 금과현(衿果縣)이라 칭하였으나 불과 두어 달 만에 파하고 예전대로 복구하였다 이어 다시 세조 2년(1456)에 금천현과 병합했지만 역시 얼마안가 파하고 예전의 명칭을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위의 사실을 『태종실록』 태종 14년 8월 신유 및 동 9월 무인조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8월 21일 신유(辛酉)에 왕이 의정부 육조 대간들을 광연루(廣延樓) 아래에서 인견(引見)하여 경외(京外)의 용관(冗官)을 도태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 명령에 따라 신하들이 자문(紫門)에 모여 의논한 결과 용구(龍駒)와 처인(處仁)을 합하여 용인(龍仁)으로 하고 금천 과천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하며 교하(交河)를 원평(原平)에 붙이고 김포 양천을 합하여 全陽

으로


금전현 지도

곧 여러 고을의 군현 합병안을 제시하여 왕의 허락을 받았고 다음 달인 9월 8일 무인에 금천과 과전을 합하여 '금과(衿果)'로 정하여 현정 소재지를 금전으로 하였다 이와 아울러 김포와 양전을 합하여 김포에 현치(縣治)를 두었다 그런데 과전과 양천이 각각 경성에서 가까울 뿐 아니라 교통의 요지라는 이유로 군현의 통폐합을 재고함이 어떠냐는 것이 논의 되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과전을 금전으로 옮기고 양전을 김포에 옮기는 것이 좋다"는 호조의 의견이 있어 원안대로 따르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무리가 따랐던지 다음달인 윤9월 24일 호조에서 아뢰기를 "지난번에 과천을 금전에 병합했으나 경성에서 수원까지의 사객영송(使客迎送)등에 불편하니 과전현감을 다시 두기로 하고 그 대신 금전을 양전에 합하여 금양현(衿陽縣)으로 하고 김포는 부평에 붙일 것을 아뢰어 왕의 허락을 받았다

이상과 같은 군현의 병합 역시 무리가 있었던지 태종 16년(1416) 8월 30일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앞서 병합한 군현 중 금전과 양천 삭녕과 안협 마전과 연천 김포 등을 종전대로 복구한다고 기록하고 있다 조선초기의 행정구역 개편작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단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어 세조 2년 (1456) 5월 승정원에서 아뢰기를 " 과전과 금천을 병합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 금천을 치소로 삼는 것이 좋겠다"고 아뢰었으나 전지(傳旨)하기를 " 이조(吏曹)에서 병조판서 신숙주와 함께 의논하여 다시 아뢰라"고 하였고 이듬해 (1457) 2월 25일 이조에서 경기관찰사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처음에 과전과 금천을 합하여 한 고을로 삼고는 금천으로서 치소(治所)를 삼았으니 비록 양재역과는 거리가 조금 멀지마는 대소사객(大小使客)들을 역에서 스스로 접대하게 되니 읍과 다름이 없습니다 정하옵건대 금천으로써 치소를 삼게 하고서"하자 그대로 따랐다

그러나 세조 6년(1462) 5월 3일 이조에서 과전 백성들이 상언(上言)한 것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일찍이 과천현을 혁파하여 금전현에 붙였으나 다만 과전현과 금전현의 거리가 30여 리이고 또 길 옆에 있어서 사객(使客)이 더욱 번잡하게 왕래하며 인

물은 지나치게 적어서 양현(兩縣)에 분주하게 왕래하면서 접대하기 어려우므로 정컨대 치소를 본현으로 옮겨 주소서"하자 그대로 따랐다 이리하여 태종조 이래 근 50여 년 간 금전현과의 병합문제는 더 이상 언급이 없었다

조선조의 지방제도가 태종대에 그 체계가 확립되었다면 군사제도는 세조대에 이르러 완비를 보았다 즉 세조 원년(1455)에 지방방위 조직을 일신하여 처음으로 내지(內地)의 주(州) 현(縣)도 모두 군상(軍上)으로 편제한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다른 도와 마찬가지로 수 개의 거진(巨鎭)을 두는 이외에 광주 양주 부평의 삼도(三道)로 나누어 각 도마다 인근 각 읍을 중(中) 좌(左) 우익(右翼)으로 분속시키고 각 읍의 수령으로 하여금 모두 군사직을 겸대시켜 중익수령을 병마단련사(兵馬團練使)로 불렀는데 안양지방은 부평도로 과천현은 좌익에 금전은 중익에 각각 편제되었다


과천현의 치소 옛 과천군 관아였고1914년 부터 과천면 사무소로 사용되었다(1950년대)

그 후 세조 3년(1457)에는 중 좌 우익제를 폐지한 후 동왕 12년(1466)에는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창설되면서 과천군은 광주 진관 관할하에 금천현은 수원진관 관할하에 각각 예속되었다 진관제제란 거진을 중심으로 주위의 여러 진을 이에 소속시킴으로써 자전자수(自戰自守)하는 독립적인 군사거점의 성격을 갖도록 한 것으로 대체로 16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면 조선시대에 있어 안양지역의 관할구역은 어떠하였는가 안양지역의 관할구역은 행정구획 개편마다 변동되었는데 행정구획 개편에 따른 관할구역의 변천과정을 살펴 본다 조선 초기의 지지인 『세종실록』 지리지(1454)에 의하면 과천현(당시의 치소는 지금의 과천시 중앙동사무소 자리에 있었음)의 사경(四境)은 동쪽으로 광주에 이르기 11리 서쪽으로 금전에 이르기 10리 남쪽으로 광주의 지경 지석(支石)에 이르기 19리 북쪽으로 한강에 이르기 25리였으며 금천현(당시의 치소는 지금의 서울시 금전구 시흥 5동 107 번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 있었음)의 4경은 동쪽으로 과전에 이르기 14리 서쪽으로 부평에 이르기 11리 남쪽으로 안산에 이르기 15리 북쪽으로 노도(露渡)에 이르기 18리였다

그 후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1481)에 의하면 과천현의 4경은 동쪽으로 광주 경계까지 13리 남쪽으로 수원부까지 34리 서쪽으로 금전현 경계까지 20리 안산군 경

계까지 28리 북쪽으로 노량(鷺梁)까지 20리 서울까지는 33리였으며 금천현의 4경은 동쪽으로 과천현 경계까지 11리 남쪽으로 안산군 경계까지 16리 서쪽으로 부평부 경계까지 17리 북쪽으로 양천현 경계까지 27리 노량까지는 23리 서울과의 거리는 31리였다 전자의 『세종실록』 지리지보다 후자의 『동국여지승람』의 기록이 세밀한 편이나 그렇다고 안양지역의 경역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안양지역의 광역적인 지경(地境)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면(面)의 명칭과 아울러 이에 포용되는 자연취락의 구체적인 명칭이 드러나는 조선 후기에 이르러서야 가능하다

다음의 표는 조선 후기에 간행된 읍지 지지 중 안양지역의 면별 변동상황을 시내별로 분류한 것이다

읍지 지지명	간행연도	읍명	주요항목	관할면명
여지도서	영조35년 (1759)	과천현	면별 남 녀 인구수	현내 동 상서 하서 남 상북 하북
		금천현	면별동리명 남 녀 인구수	현내 동 서 남 상북 하북

읍지 지지명	간행연도	읍명	주요항목	관할면명
경기지	고종연간	과천현	면명만 기재	동 현내 상북 하북 남 상서 하서
		시흥현	면별동리명 남 녀 인구수	현내 동 남 서 상북 하북
과천군읍지	광무3년(1899)	과천현	면명만 기재	군내 동 남 상서 하서 상북 하북
시흥군읍지	광무3년(1899)	시흥군	면별동리명 남 녀 인구수	군내 동 남 서 상북 하북

위의 표 중 가장 오래된 자료가 『여지도서』인데 여기에 나타나는 면은 과천현의 경우 현내면(縣內面) 동면(東面) 상서면(上西面) 하서면(下西面) 남면(南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등 7개면인데 그 중 오늘날 안양지역에 해당되는 면이 상서면(지금의 동안구 관할구역)과 하서면(지금의 만안구 관할구역)이다

한편 금천현은 현내면(縣內面) 동면(東面) 서면(西面) 남면(南面) 상북면(上北面) 하북면(下北面) 등 6개면인데 그 중 안양지역은 현내면 (오늘날의 박달1동 박달2동과 석수1동 석수2동 석수3동 및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지역)이다 안양지역의 면의 수는 조선 말기까지 별로 변동이 없었으나 현내면의 경우 고종 32년(1895)에 과천현과 시흥현이 각각 군으로 승격되자 군내면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런데 위의 자료 중에는 각 면별 포괄 동리명(洞里名)도 보이는데 이를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 과천현

- 현내면(마을수 6) 加日里 葛峴里 莫界里 文原里 下里 邑內里
- 동면(마을수 6) 汪岩里 牛眠里 新院里 良才里 明達里 霜草里
- 상북면(마을수 6) 舍堂里 方背里 浦村里 銅雀里 盤浦里 沙坪里
- 하북면(마을수 8) 里石里 黔梁里 上加次山里 下加次山里 新分村里 高寺里 瓮店里 瓮幕里
- 상서면(마을수 3) 一洞里 二洞里 飛山里
- 하서면(마을수 8) 一洞里 二洞里 道陽里 虎伏里 安養里 撥舍里 後頭尾洞 石手村
- 남면(마을수 7) 衿井里 堂里 堂井里 鳳城里 章干里 山本里 富谷里

■ 금천현

- 현내면(마을수 3수) 博山里 博達里 安養里
- 동면(마을수 9) 禿山里 加里峰里 文橋里 蘭谷里 書院里 新林里 奉天里 成桃花里 上道里
- 남면(마을수 5) 廣火大里 九明里 阿方里 老溫寺里 柳等里
- 서면(마을수 9) 鞍峴里 加里大里 栗日里 自警里 所下里 一直里 鐵山里 下坪里 巳省里
- 상북면(마을수 7) 遠志牧里 九老里 沙村里 道也味里 堂山里 楊坪里 仙遊峰里
- 하북면(마을수 5) 牛臥皮里 番大方里 新吉里 永登浦里 放鶴亭里

이상의 읍지 지지 중에 나타나는 동리의 명칭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대동소이하게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정조 13년(1789)에 편찬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는 면의 수나 명칭은 동일하나 동리의 명칭 및 동리의 예속 여부가 상당히 차이가 있어 당시의 안양지역 행정지명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예를 들면 위의 자료는 박달리가 금천현 현내면에 속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호구총수』에는 서면 박달리에 속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 과전현의 상서면과 하서면의 동리 명칭도 위의 자료와 상당히 차이가 있다 지면 관계상 현재의 안양시에 해당되는 지역만 소개한다

■ 과천현

• 상서면(마을수 3)　三峴一里　三峴二里　飛山里

• 하서면(마을수 6)　貴仁一洞　貴仁二洞　虎溪里　安養里　後頭尾里　道陽里

■ 금천현

• 현내면(마을수 3수)　邑內里　博山里　安養里

• 서면(마을수 9)　博達里　加里大里　一直里　所下里　(이하생략)

위와 같은 행정구획은 그 후 계속 습용되어 오다가 고종 32년(1895)에 변동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태종 이래 482년간이나 이어온 8도제를 폐지하고 23부제가 실시된 것이다 동년 5월 26일 전문 6조의 칙령 제98호로 반포되어 시행을 본 행정개혁은 종래의 부 목 군 현 등에 대해서는 이를 통털어 모두 군으로 동일하였는데 이때 과전현은 과전군으로 시흥현은 시흥군으로 각각 승격되어 군수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다

한편 23부는 한성부를 비롯하여 인전부 홍주부 충주부 공주부 전주부 등인데 안양지역인 과전군과 시흥군은 모두 인전부에 속하였다 또 이 해 9월 5일에는 칙령 제164호 '군수관등 봉급에 관한 건'에 의거 과전군과 시흥군이 5등군이 되었다 그런데 23부제는 불합리한 점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을 본지 1년 2개월만에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이듬해 8월 4일 칙령 제36호인 '지방제도 관제 봉급 경비 개정의 건'을 공포하여 13도제가 시행되었다 13도제는 종래의 8도제를 바탕으로 하여 경기 강원 황해를 제외한 5도를 남북 양개도로 분할한 것이다

오늘날의 지방행정구역체계는 바로 이 13도제에서 부터 그 기반이 확립되었는데 13도제에 따른 개편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경기도(4부, 치소　수원)

• 一 等　廣川郡　開城府　江華府　仁川府

• 二 等　水原郡

• 三 等　驪川郡　楊川郡　長湍郡　通津郡

• 四 等　果川郡　安山郡　始興郡　坡川郡　利川郡　富平郡　南陽郡
豊德郡　抱川郡　竹山郡　楊根郡　朔寧郡　安城郡　高陽郡
金浦郡　永平郡　麻田郡　交河郡　加平郡　龍仁郡　陰竹郡
振威郡　陽川郡　砥平郡　漣川郡　陽城郡　喬桐郡　積城郡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천군과 시흥군은 4등군이 되었는데 이후로는 안양지역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었으나 지방 행정 구역의 말단 행정구역명인 리 동(里洞)에 대해서는 약간의 변동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과천군(7면 55동리, 치소 → 과천군 군내면 관문동)
- 군내면(마을수 9) 官門洞 內店洞 外店洞 校洞 下里洞 莫界洞 文原洞 加日洞 葛峴洞
- 동면(마을수 7) 汪岩洞 新院洞 院基洞 良才里 牛眼里 瑞草里 明達里
- 상서면(마을수 4) 一洞 二洞 外飛山里 內飛山里
- 하서면(마을수 9) 一洞 二洞 道陽里 虎俟里 後頭尾洞 堉內洞 撥舍洞 石手洞 安養里
- 남면(마을수 10) 山本洞 堂里 龍虎洞 章干里 富谷里 槐谷里 衿井里 堂井里 鳳城里 草幕洞
- 상북면(마을수 8) 舍堂里 方背洞 浦村里 銅雀里 下盤浦里 沙坪里 蠶室理 上盤浦里
- 하북면(마을수 8) 里石里 本洞 上加次山里 下加次山里 新分村里 高寺里 瓮店里 瓮幕里

■ 시흥군(6면 22동리, 치소 →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리)
- 하북면(마을수 3) 永登浦里 新吉里 番大方里
- 동면(마을수 5) 上道里 新林里 奉天里 加里峰里 禿山里
- 군내면(마을수 3) 郡內洞 安養里 博達里
- 남면(마을수 3) 鴛鶴洞 老溫寺里 九明里
- 서면(마을수 4) 一直里 所下里 下安里 鐵山里
- 상북면(마을수 4) 楊坪里 堂山里 道林里 九老里

4 일제강점기

청일전쟁(1894)과 노일전쟁(1904)으로 일본은 한국에서 그들의 세력을 확고히 굳힌 후 1905년 11월 17일 을사조약을 시작으로 한국의 주권을 단계적으로 박탈해

가더니 급기야는 1910년 8월 29일 한 일 합병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우리의 주권은 이로부터 완전히 상실하고 말았다

일제는 한국강점과 동시에 서울에 통감부대신 총독부를 설치하여 통치하기 시작하였는데 조선총독은 육 해군의 현직 대장 중에서만 임명되고 아울러 일본천황에게 직속되어 정무종리권 출병정구권 법령제정권 명령권 감독권 등 입법 사법 행정의 3권을 장악하고 헌병경찰조직을 통하여 무단정치를 감행하였다 이와같이 무단정치를 구축한 일제는 본격적으로 식민통지를 감행하기 시작하여 강점한 지 한 달만인 동년 9월 30일 '총독부 관제'와 함께 직령 제357호로 '조선 총독부 지방관제'를 공포하여 종전 도의 관찰사를 도장관으로 개칭하고 도의 하부 행정조직으로는 부 군 면을 두고 면에는 면장을 두되 부윤 또는 군수의 지휘감독을 받아 면내의 행정사무를 보조집행하도록 하였다 이는 말단 행정조직의 장(長)인 면장의 실권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중앙집권적 식민통지의 효과를 위한 조치였으며 이를 한층 보강하기 위하여 다음날(10월 1일) 총독부령 제8호로 '면에 관한 규정'을 공포하였다

이듬 해 4월 1일에는 경기도령 제3호에 의거 경성부에 군 면제를 도입하는 등의 부분적인 도(道) 부(府) 군(郡) 현(縣) 면(面)간의 경계변동이 있었을 뿐 제도적인 변화가 없었다가 식민통치를 보다 효과적이고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본적이고 대폭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일제는 1913년 12월 29일 공포된 총독부령 제111호 '도의 위지 관할구역 및 부 군 명징 위치 관할구역'에 의해 구제적으로 실천되었다 도의 관할구역과 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을 대폭적으로 정리 단행된 이 개혁안은 도와 부 군에 있어서는 1914년 3월 1일부터 면 리에 있어서는 4월 1일부터 실시되었으나 경기도의 경우는 1916년에 완결을 보았는데 대체로 오늘날의 각 계층별 지방행정 구역의 명징과 규모가 이 때에 기틀이 확립되었으나 식민통치의 효율적 편의를 위해서 행정지명을 획일적으로 통치하였기 때문에 개편 이전의 옛 자연취락명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개편으로 인하여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 통합되었는데 이로써 시흥군은 북면(北面) 신동면(新東面) 서면(西面) 과천면(果川面) 서이면(西二面) 남면(南面) 수암면(秀岩面) 군자면(君子面) 등 9면 83리로 편제되었다 한편 안양지역은 대폭적인 행정구획 변경에 따라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는 서면에 군내면 안양리는 동면에 그 외 전지역은 모두 서이면에 속하게 되었다 3군으로 통합된 후 시흥군의 행정구역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북면(11개리, 치소 영등포리)

- 永登浦里 始興郡 下北面 永登浦里 重宇里 下方下串里
- 新吉里 始興郡 下北面 新吉里 上方下串里
- 番大方里 始興郡 下北面 番大方里 牛臥皮里
- 道林里 始興郡 上北面 道也味里 遠之牧里 沙頓里
- 九老里 始興郡 上北面 九老一里 九老二里
- 堂山里 始興郡 上北面 堂山里 楊津里
- 楊坪里 始興郡 上北面 楊坪里
- 鷺梁津里 果川郡 下北面 高寺里 甕幕里 甕店里 新村分里
- 里石里 果川郡 下北面 里石里
- 銅雀里 果川郡 上北面 銅雀里 浦村里

■ 신동면(8개리, 치소 우면리)

- 牛眼里 果川郡 東面 牛眼里
- 良才里 果川郡 東面 良才里
- 蠶室里 果川郡 上北面 蠶室里 沙坪里
- 盤浦里 果川郡 上北面 上盤浦里 下盤浦里
- 方背里 果川郡 上北面 方背洞
- 舍堂里 果川郡 上北面 舍堂里
- 新院里 果川郡 上北面 新院洞
- 瑞草里 果川郡 上北面 瑞草里 明達里

■ 동면(7개리, 치소 시흥리)

- 始興里 始興郡 郡內面 郡內洞
- 禿山里 始興郡 東面 禿山里 文橋里
- 新林里 始興郡 東面 新林里 書院里 蘭谷里
- 奉天里 始興郡 東面 奉天里 果川郡 下北面 本洞里 일부
- 加里峯里 始興郡 東面 加里峯里
- 安養里 始興郡 東面 安養里

■ 서면(8개리, 치소 소하리)

- 所下里　始興郡 西面 所下里　加里大里
- 日直里　始興郡 西面 一直里　自磬里
- 鐵山里　始興郡 西面 鐵山里 일부　巳省里
- 下安里　始興郡 西面 下安里　鞍峴里　栗日里
- 博達里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九明里　始興郡 南面 九明里　廣大大里
- 老溫寺里　始興郡 南面 老溫寺里　阿方里
- 鶴鶴里　始興郡 南面 鶴鶴里　老溫谷里　柳等里


서면사무소(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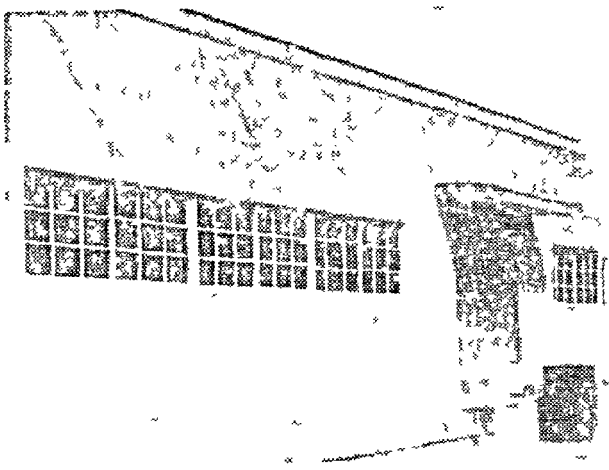
■ 과천면 (6개리 치소 관문리)

- 官門里　果川郡 郡內面 官門洞　內店洞
- 文原里　果川郡 郡內面 文原洞　外店洞　校洞
- 下　里　果川郡 郡內面 下里洞
- 莫俔里　果川郡 郡內面 莫界(俔)里
- 仁岩里　果川郡 東面 仁岩里
- 葛峴里　果川郡 郡內面 葛峴洞　加日里

■ 서이면(5개리 치소 호계리)

- 虎溪里　果川郡 下北面 虎溪洞　道陽洞
- 安養里　果川郡 下北面 發舍里　安養里　石塔里　塔內里
- 一洞里　果川郡 上北面 一洞　二洞
- 二洞里　果川郡 上北面 一洞　二洞
- 飛山里　果川郡 上北面 內飛山里　外飛山里

남면사무소(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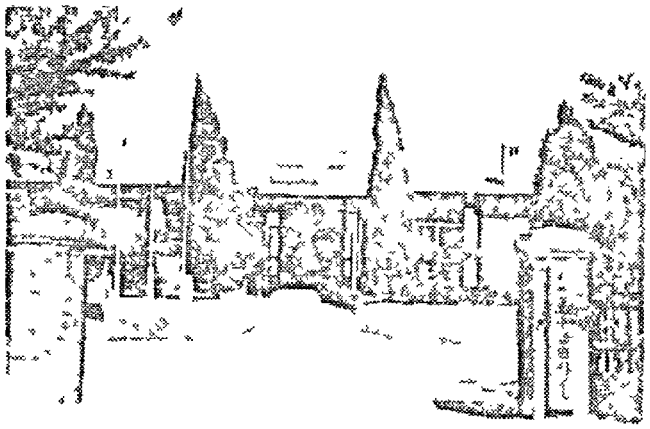
■ 남면(5개리 치소 당리)

- 堂　里　果川郡 南面　堂　里　龍虎洞
- 堂井里　果川郡 南面 堂井里　鳳城里
- 衿井里　果川郡 南面 衿井里　槐谷里
- 山本里　果川郡 南面 山本里
- 富谷里　果川郡 南面 富谷里　章干里

■ 수암면(19개리, 치소　수암리)

- 秀岩里　安山郡 郡內面 秀岩里　西亭里
- 章上里　安山郡 郡內面 獐上里　東谷里
- 章下里　安山郡 郡內面 獐下里
- 釜谷里　安山郡 郡內面 釜谷里　新里
- 聲甫里　安山郡 郡內面 聲甫里　占星里
- 楊上里　安山郡 郡內面 楊上里　楊下里
- 陵谷里　安山郡 仍火面 北谷里　陵谷里
- 花井里　安山郡 仍火面 花井里　嵩谷里
- 瓦　里　安山郡 仍火面 瓦上里　瓦下里
- 古棧里　安山郡 仍火面 古棧里
- 月陂里　安山郡 仍火面 月入陂里
- 鳥南里　安山郡 草山面 乌南里　祭廳里
- 牧甘里　安山郡 草山面 牧甘里　栗甫里
- 物旺里　安山郡 草山面 勿項里　上職里
- 論谷里　安山郡 草山面 論谷里
- 下中里　安山郡 草山面 下中里
- 山峴里　安山郡 草山面 山峴里　槐谷里
- 下上里　安山郡 草山面 下上里　中職里
- 廣石里　安山郡 草山面 廣石里　下下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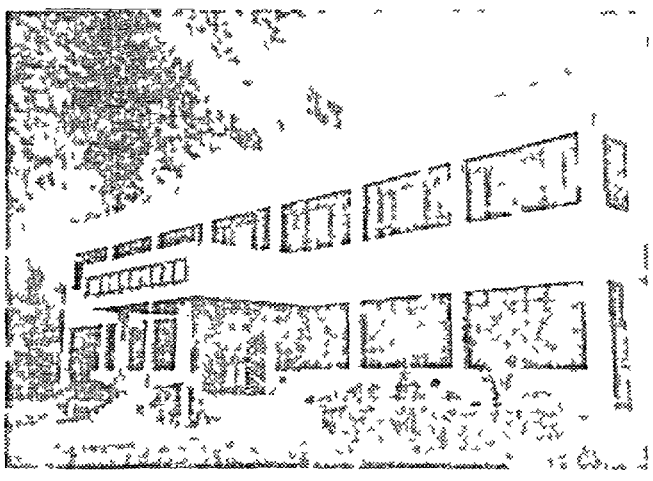
수암면사무소(1988)



■ 군자면(14개리　치소　거모리)

- 去毛里　安山郡 大月面 去毛甫　石谷里
- 君子里　安山郡 馬遊面 九井里　山北里
- 長峴里　安山郡 馬遊面 長上里　鳥峴里
- 長谷里　安山郡 馬遊面 長下里　島村里
  鷹谷里
- 月串里　安山郡 馬遊面 月東里　月西里
- 正往里　安山郡 馬遊面 正往里　乌耳里
- 竹栗里　安山郡 馬遊面 竹栗里
- 仙府里　安山郡 大月面 仙府里　達山里

군자면사무소(1988)



- 草芝里　安山郡 瓦里面 草芝里　元堂里
- 元谷里　安山郡 瓦里面 元上里　茅谷里
- 新吉里　安山郡 瓦里面 新角洞　赤吉里　城內洞　船谷里
- 城谷里　安山郡 瓦里面 城頭里　茂谷里
- 木內里　安山郡 瓦里面 梨木洞　陵內里
- 元時里　安山郡 瓦里面 元下里　時雨里

위의 행정구역 중 서면은 지금의 광명시의 전 행정명칭이며 면사무소는 소하리(현 광명시 소하동)에 있었다 동면은 안양시 석수동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독산동 가산동과 관악구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 일부 및 동작구 상도동과 구로구의 가리봉동 이며 면사무소는 시흥리에 있었다 그리고 서이면은 안양시의 전신으로 과천군의 상서면과 하서면을 합하면서 서(西)'자 둘이 있는 면이란 뜻인데 면사무소는 호계리에 있었다 호계리에 서이면사무소가 설치된 것은 조선시대 과전군 하서면사무소가 있었는 데다가 이곳 출신으로 초대 면장과 초대 읍장을 지낸 조한구의 힘이 크지 않았나 생각된다

그러나 호계리의 서이면사무소는 설치된지 3년여 만인 1917년 7월 6일 안양리(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271)로 이전되었다 면사무소를 안양리로 이전하게된 이유는 무엇보다도 안양리에 안양역이 설치되어서 인구의 집중화 현상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부터 서이면을 비롯하여 안양면 안양읍 안양시정사가 안양리(동)에 정착하게 되었다

경성부에 인접한 안양지역은 경성부의 구역확정책에 따라 1936년 4월 1일 부령 제8호 '부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개정'에 의거 시흥군의 영등포읍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북면의 신길리 노량진리 본동리 동작리 흑석리 동면의 상도리가 경성부에 편입되어 시흥군에서 분리되자 시흥군민들이 영등포읍 영등포리에 소재한 시흥군정사를 시흥군의 중심지인 서이면 안양리로 이전하기 위해 기성회를 조직하고 군민대회 및 군민들로 부터 서명날인 하는 등 끈질긴 유치운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사는 이전되지 않았다가 일제 패망 후 광복이 되자 안양읍 안양리 688(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 674-251)로 이전되었다

1940년대에 들어서면서 안양은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즉 1940년 3월 31일 서이면 협의원회가 서이면민의 숙원 사업이었던 하수도 공사를 실행하기로 결의를 한 것이다 이듬 해(1941) 10월 1일에는 부령 제253호에 의거 서이면이 안양면(安養面)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었다 면명의 변경은 1920년대 이래로 조선직물을 비롯하여 유수의 공장이 들어서자 공장발전 주세에 따라 안양의 인구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결국에는 면 행정의 중심지인 안양리를 면명으로 개칭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5 광복 이후

1945년 8월 15일 일본이 태평양전쟁에서 연합군측에게 무조건 항복하자 한국은 일제 식민통치로 부터 광복을 맞게 되었으나 엉뚱하게 신탁통치안(信託統治案)이 대두되고 미군과 소련이 괭괭하게 대립되는 가운데 급기야는 군정(軍政)이라고 하는 과도기가 2년 11개월 동안 미군에 의한 잠정적인 점령 통기하에 놓이게 되었다 군정(軍政)기간에서의 지방제도 중 특기할 사항은 서울시를 경기도 관할로부터 분리하여 도(道)와 동등한 지위로 분리시킴과 동시에 그 관할구역으로 종로구 중구 용산구 등 8개 구를 설치한 것이었다

광복 3년 후인 1948년 8월 15일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미군정은 막을 내렸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을 하게 됨을 의미했다 정부가 수립된 지 3개월 후 (11월 17일)에는 유효기간 6개월의 시한법(時限法)인 법률 제8호로서 지방행정에 관한 임시조지법이 제정 공포됨으로서 우리나라의 지방제도의 새로운 장이 열리기 시작했다 동법은 그 뒤 9개월이 경과된 1949년 7월 4일에는 법률 제32호인 지방자지법이 제정 공포되어 같은 해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부(府)를 시(市)로 울릉도를 울릉군으로 하는 외에는 종전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한편 지방자지법 공조 직후인 동년 7월 11일에는 서울시가 구역확장책의 일환으로 서울시의 인접지역인 경기도의 고양군과 시흥군의 관할구역 중 3천 3백여만평의 편입을 요구하는 계획서를 관계당국에 제출하였다 이 결과로 동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59호인 '시도의 관할구역 및 시군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변경의 건'에 의거 시흥군 동면의 구로리(九老里) 도림리(道林里) 번대방리(番大方里)가 서울시에 편입되었으며 같은 날 제정 공조된 '읍 설치에 관한 건'에 따라 시흥군 안양면이 '안양읍(安養邑)'으로 승격되었다 서울시 구역확장과 안양면의 승격 등의 조치가 동시에 실시되자 동년 8월 19일 내무부장관 김효석(全孝錫)이 담화를 발표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여수 순천 포항 수원 김천 등 5읍이 부(府)로 광양(光陽) 안양(安養) 등 2면이 읍으

로 승격되고 또 서울시의 구역확장을 보게 된 것은 국력이 나날이 충실하여짐을 증명하는 것이요 국가가 이를 인정하게 된 것은 오로지 그 지방주민의 복리로 보아서 또한 다행한 일이다 자치법이 공포된 이 때에 그 규정에 따라 그 시기를 기다리도록 하여 왔으나 여러 방면에서 요망하기를 하루라도 빨리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하여 우선 승격시키도록 한 것이다 -「동아일보」 1949 8 20-

안양읍 승격 당시(1949)의 현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이듬 해 (1950) 발행된 『금전지(衿川誌)』가 거의 1949년 당시의 현황이므로 이를 토대로 안양읍의 현황을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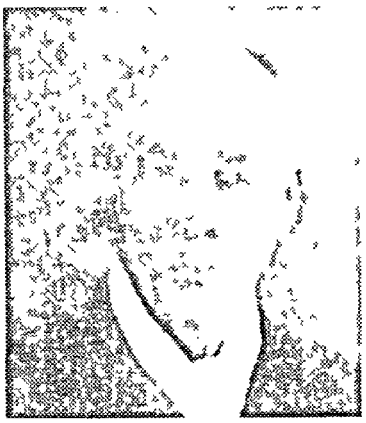
- 면적 39 07㎢
- 인구 20,021명
  - 남자 9 835명 여자 10 191명
- 세대수 3,791세대
- 행정현황
  - 읍장(조한구) 1 부읍장 1 리수 5 구장수(區長數) 34 반장수 167 서기 18 기사 2
  - 예산액 4 309 820환
- 농업현황
  - 농가호수 1 245호 죽우호수 390호 양돈호수 142호 양계호수 282호
  - 농경지면적(논 714町8反 밭 583町 5反) 농가1호당(논 58(畝) 밭 47畝)
  - 과수현황(배 8町2反 조도 14町3反 복숭아 1町4反 밤 기타 31 町8反 계 55町7反)
- 공장현황
  - 제일방적공사(10 810평 모직물)
  - 금성방적주식회사(5 600평 면사)
  - 안양직물공장(351평 본견 인견)
  - 조선빠이루공업유한회사(700평 메리야쓰)
  - 낙랑실업공사(61평 본견 인견)
  - 조선견직주식회사(1 0260평 본견 인견)
  - 조선직물주식회사(5 853평 본견 인견)

- 삼덕제지주식회사(4 784평 모조지 선화지)
- 고려석면고무공업주식회사(5 741평 석면 시트박킹)
- 조선제함공업합자회사(1 200평 제재)
- 남해산업공사(10 529평 철도침목)
- 삼길양산제조소(400평 양산 우산)
- 조선특수도기주식회사(240평 도자기제품)
- 삼신제도공업사(120평 도자기제품)

■ 교육현황

- 초등학교 안양조교 흥안조교 관양초교 삼성조교
- 공민학교 안양 朝織 안양직물 고려석면 삼왕제지 虎峴 一洞 조선견직
- 중학교 안양공립공업중 안양여자중
- 고등공민학교 안양고등공민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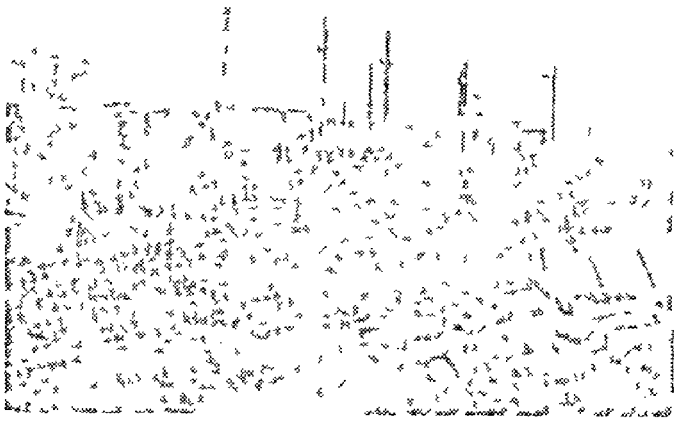
조대 안양읍장 조한구



안양읍으로 승격되자 동년 9월 7일에는 안양읍 승격 기념축하행사를 안양공설시장에서 거행했으며 초대 안양읍장에는 초대 서이면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한구(趙漢九)가 선임되었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안양읍 정사가 파괴되자 그 후 수축공사를 실시해 1952년 12월 15일부터 새 안양읍 정사에서 업무가 시작되었다

1950년대에는 한국전쟁의 혼란기를 거쳐 1952년 지방의회의 구성을 보았으나 그 출발부터 순탄치를 못해 1960년 4 19때까지 무려 4차례에 걸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다 이러한 여건 때문에 행정구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그 조정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양지역은 행정구역상 별 변동이 없다가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서울의 인구 집중 현상으로 인근 경기도의 지역으로 무질서하게 확산되어 나가자 사회문제와 행정상 애로에 직면하게 되자 서울시의 구역을 대폭 확장하여 한강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정비를 목

잿더미로 변한 안양역 구내(1950 『한국철도 80년 약사』에서



로 시흥군 등 인근에 구역을 흡수하였던 것이다 이리하여 1963년 1월 1일에 시행을 본 법률 제1175호인 '서울특별시 도 군 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흥군 신동면의 잠실리 방배리 반포리 양재리 사당리 우면리 신원리 서초리와 동면의 시흥리 독산리 신림리 봉전리 가리봉리가 서울시 영등포구에 편입되었으며 같은 날 시행을 본 법률 제1175호인 '시 군 관할구역 변경 및 면의 재지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시흥군 동면 안양리(安養里)와 서면 박달리(博達里)가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읍내에 안양리란 행정지명이 있으므로 신안양리(新安養里)로 개칭되었다 한편 서울시의 구역확장으로 시흥군의 신동면 및 동면 일부가 서울시에 편입되자 동 법률 제1175호에 의거 화성군 일왕면의 고전리 등 9개리가 시흥군에 편입되면서 '의왕면(儀旺面)'으로 개칭되었다


의왕면사무소(1970년대)

1970년대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은 실로 경이적인 것이었다 고도의 발전과정에서 공업화 및 도시화의 주세와 함께 사회여건이 크게 발전되어 전답은 공장부지로 바뀌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으로 전환되어 농촌인구의 도시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도시인구의 과중현상을 보여 왔다 특히 수도 서울은 1964년 이래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 대책을 실시하여 왔으나 기대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던 것이다 이러한 수도권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수도권의 인구집중을 억제하고 수도권 주변의 무질서한 도시확산을 방지하며 아울러 서울 외곽 도시의 합리적인 육성과 인천 수원 의정부 등 기존의 도시들과 함께 수도권 인구의 분산과 시설 이전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1973년 3월 12일 법률 제2597호 '시 설치와 군의 폐치 분합에 관한 법률'을 공포하여 안양읍을 '안양시(安養市)'로 승격하여 동년 7월 1일부터 시행케 하였다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구역 중 리(안양리 1914) → 면(안양면 1941) → 읍(안양읍 1949) → 시(안양시 1973)에 이르기까지 꼭 60년만에 단계적 과정을 거친 유일의 市인 안양은 일제강점 초인 1912년에는 인구가 3 464명에 불과했으나 1949년 읍승격 당시는 2만 26명 1957년에는 2만 2천 181이었으며 1960년에는 3만 1천 673명으로 급격한 발전 주세를 보이다가 1970년에는 9만 1천 894명으로 인구면에서

만 본다고 해도 시 승격은 당연한 것이었다

안양의 도시계획은 전술한 바와 같이 1926년에 처음 거론된 후 1940년에 하수도 공사실시와 광복 후 혼란기를 거쳐 1953년 3월 12일에는 안양의 도시계획 구역을 52 437㎢ 로 결정한데 이어 5년 후인 1958년 3월 12일에 용도지역제를 시행했으며 1967년 5월 16일에 도시계획 구역을 72 334㎢ 로 다시 1972년 8월 25일 116 210㎢를 확장했고 이듬 해 7월 12일에 157 2㎢ 로 대폭 확장구역을 실시했다 1972년에는 시 승격을 예상하고 서울- 수원간 고속화도로(폭 25m)를 안양 시가지 앞을 지나도록 조정했고 신안양리(현 석수동)에서 국도를 잇는 폭 35m 길이 5km의 간선도로를 신설 조장했으며 1972년 3월부터는 시가지 중심을 지나는 수암천(秀岩川)을 개발 도로확장과 주택건립을 작수했다

한편 안양 상공회의소에서는 안양읍의 인구가 1971년 10월 1일 현재 10만 1천 749명으로 늘어 시 제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되자 1972년 2월 25일에 안양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당시 이택돈(李宅敦)국회의원을 비롯하여 정봉수 유창노 김정대 문광식 이광원 오면교 심동식 함 기용 등 시역 유지 21명이 모여 간담회를 갖고 '안양읍 시승격 주진위원회(위원장 장배순 후에 박용학 선임)를 발족하고 시 승격을 강력히 추진한 바 있다 안양시로 승격(1973 7 1) 당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면적 58㎢
- 가구 21, 000가구
- 인구 104, 515명
- 행정동(12) 안양 1 2 3 4 5 6 석수, 박달 비산 관양 평촌, 호계동
- 시청사 대지 564평, 건평 230평으로 구 안양읍청사와 경찰서 청사를 별관으로 사용
- 시기구 총무과 재무과 복지과 산업과 건설과 등 5과 24계
- 공무원수 157명
- 주요기관 안양시, 교육청, 경찰서 등 20개 기관
- 의료시설 보건소1, 종합병원 2, 의원 16, 치과위원 6 한의원 13,



시 승격 후 안양읍사무소에서 일시 시정업무로 보다 (1973)

약국 44, 기타 9

- 교육기관 국교 7, 중학교 5, 고교 3
- 학생수 고교생 1,790, 중학생 5,681명, 국교생 15,115명, 기타 400명
- 상가 중앙공설시장(185점포), 남부시장(86점포)
- 환경업소 다방 47, 식당 125, 호텔 1, 여관 59, 여인숙 55
- 기업체수 97
- 최고층건물 5층
- 땅값 최고시세 30만원(평당)

* 자료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 20년사」 (1990)

1989년 부터 개발되기 시작한 경존지구 개발은 1992년에 이르러 대부분의 시가지가 형성되고 신규 아파트에 입주가 되면서 인구의 유입이 늘어나자 범계동을 비롯하여 부흥동 달안동 부림동 갈산동 경안동 신존동 귀인동 등 8개 행정동을 신설하고 이 해(1992) 5월 7일에는 시 조례 제1161에 의거 범계동과 부흥동이 각각 개청되었으며 이어 만안출장소와 동안출장소가 1992년 10월 11일 시 조례 제 1173호에 의해 설치되었다가 동년 10월 1일 만안구 동안구로 승격하였다 특히 동안구는 비산동 관양동 호계동 평촌동 등 4개 법정동이 경존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8개 행정동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동별로 보면 관양동 1개동(부림동) 비산동 2개동(부흥동 달안동) 평촌동2개동(평안동 귀인동) 호계동 3개동(범계동 신촌동 갈산동)이다

안양시로 승격된 뒤 안양은 인구의 유입이 계속 증가하여 행정동을 분동하는가 하면 구제(區制)를 실시하였고 이어 주민편익에 따라 인접 지역과의 행정구역에 대한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1979 4 28 공포)로 안양6동을 안양6과 7동으로 석수동을 석수1 2동으로 분동(14개동)
-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1982 8 5 공포)로 비산동을 비산1과 비산2동으로 분동(15개동)
-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1983 9 14 공포)로 호계동을 호계1 2동으로 분동(16개동)
-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739호(1983 11 11 공포)로 안양6동을

안양6과 안양7동으로 호계동을 호계1동과 3동으로 분동(18개동)

-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로 광명시 소하동 일부를 석수2동에 편입
- 1989년 5월 1일 시조례 제931호(1989 4 10 공포)로 출장소(만안 동안)설치
- 1990년 1월 1일 시조례 제 1000호(1989 12 20 공포)로 석수2동을 석수2동과 3동으로 분동(19개동)
- 1990년 5월 20일 시조례 제1027호(1990 5 10 공포)로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관양동을 관양1동과 관양2동으로 분동(21개동)
-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1992 5 7 공포)로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으로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각각 분동(23개동)
-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1992 10 1 공포)로 만안 동안 출장소 설치
-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1993 1 15 공포)로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으로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으로 분동(26개동)
-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 1285호(1993 5 20 공포)로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으로 분동(28개동)
-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로 안양시 안양3동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으로 각각 행정동 분동(31개동)
-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 14434호(1994 12 22 공포)로 시간(市間) 일부 변경
  - 만안구 안양동 일부 → 군포시 편입
  - 동안구 호계동 일부 → 군포시 편입

- 동안구 평촌동 일부 → 의왕시 편입
- 군포시 산본동 일부 → 만안구 안양동 편입

■ 1994년 12월 26일 시 조례 제1338호(1994 12 26 공포)로 법정동 경계변경

- 만안구 안양동 일부 → 박달동 편입
- 만안구 박달동 일부 → 안양동 편입
- 동안구 평촌동 일부 → 호계동 편입

■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1995 12 7 공포)로 법정동 경계조정

- 동안구 관양동 일부 → 비산동 평촌동에 편입
- 동안구 평촌동 일부 → 관양동에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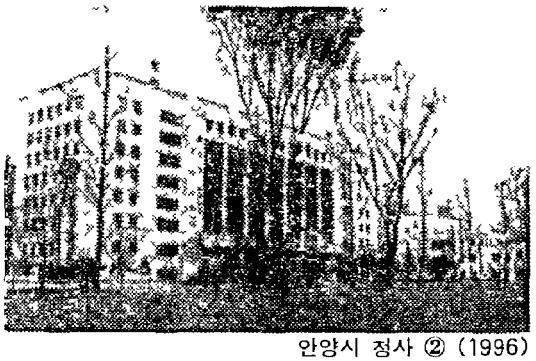
■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1995 12 7 공포)로 행정동 경계변경

- 만안구 안양2동 일부 → 안양3동에 편입
- 만안구 안양5동 일부 → 안양1동에 편입
- 만안구 안양5동 일부 → 안양4동에 편입
- 동안구 갈산동 일부 → 신촌동에 편입

한편 1973년 7월 1일 안양읍에서 시로 승격된 안양시는 새 정사가 마련되지 못한 관계로 안양읍 청사에서 개정식을 갖고 일시 업무를 보다가 시 승격 2주년이 되는 1975년 7월 1일에 안양6동 530에 새 건물을 짓고 독립된 정사에서 시정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뒤 시세 신장에 따라 기구 확장 등에 따라 평촌신도시 개발지인 관양동 1590에 새 정사를 신축하여 1996년 11월 11일 의회청사와 함께 이전되어 다음날 부터 새로운 업무가 시작되었다

안양시 정사 ① (1988)





안양시 정사 ②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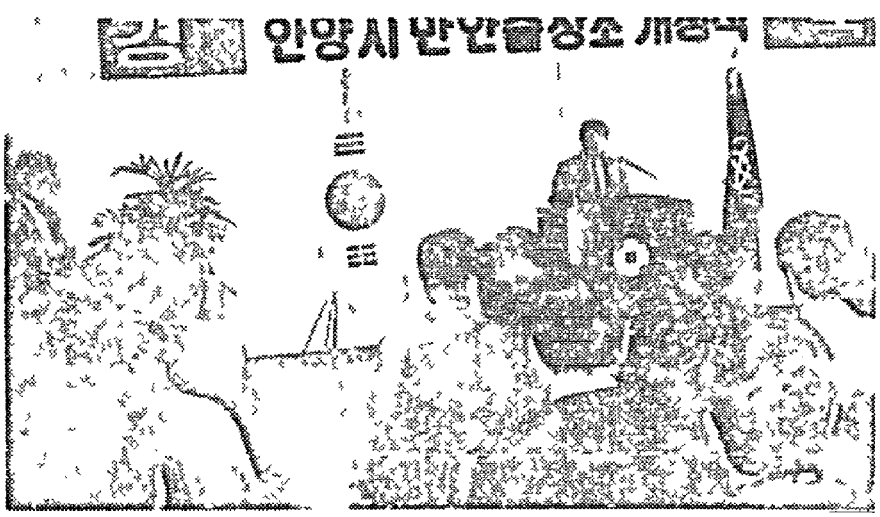
제2절 구(區)와 동(洞)의 연혁

1. 구의 연혁

1) 만안구 (萬安區)

조선시대의 안양리(현재의 안양1동~안양9동)는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지역이었고 박달리(현재의 박달1동~박달2동) 안양리(현재의 석수1동~석수3동)는 시흥군 동면(始興君 東郡) 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에 따라 시흥군 안산군 과천군이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자 안양리는 시흥군 서이면(始興郡西二面)으로 박달리는 시흥군 서면(始興郡 西面)으로 안양리는 시흥군 동면(始興郡東面)에 속했다가 안양리는 1914년 10월 1일 부령 제235호에 의거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으로 되었다가 다시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으로 승격되었다 한편 박달리와 안양리는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에 편입되었는데 안양리는 기존의 안양리가 있으므로 신안양리로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안양리는 안양1동 안양2동 안양3동 안양4동 안양5동 안양6동으로 되었고 신안양리는 석수동으로 박달리는 박달동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뒤 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주민편익에 따른 행정구역의 개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즉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석수동을 석수1동과 석수2동으로 각각 분동하였고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739호(1985 11 11 공포)에 의거 안양6동을 안양6동과 안양8동으로 분동하였으며 1987년 1월 1일에는 대통령령 제12007호(1986 12 23 공포)에 따라 광명시 소하동 일부가 석수2동에 편입되었다

만안출장소 개청식(1989)★



1989년 5월 1일에는 시 조



만안구청 현판식(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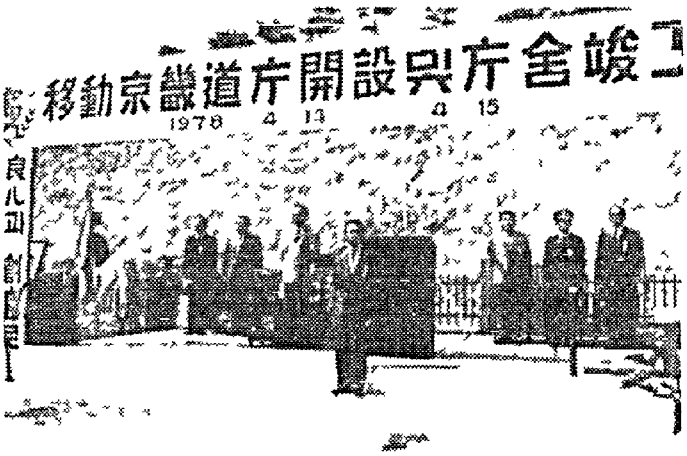
례 제931호(1989 4 10 공포)에 의거 안양1동 ~ 안양6동 안양8동 석수1동 석수2동 박달동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가 설치되었고 1990년 1월 1일 시 조례 제1000호(1989 12 20 공포)로 석수2동을 석수2동과 석수3동으로 분동하였다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1992 10 1 공포)에 따라 만안구(萬安區)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동안출장소의 안양7동이 편입되었으며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의거 안양3동을 안양3동과 안양9동으로 박달동을 박달1동과 박달2동으로 각각 분동한데 이어 동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1944 12 22 공포)로 안양동의 일부가 군포시에 편입되었는가 하면 동령에 따라 군포시 산본동 일부가 안양동에 편입되었다 동년 12월 26일에는 시 조례 제1338호(1994 12 26 공포)에 따라 안양동의 일부가 박달동에 편입되었는가 하면 박달동 일부가 안양동에 편입되는 등 법정동간에 경계 변경이 있었다

■ 만안구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와 63년(475) 율목군(栗木郡) 잉벌노현(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시흥군 동면(始興郡 東面)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박달리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博達里 新安養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동 석수동 박달동(安養市 安養洞 石水洞 博達洞)
- 1979 4 28 안양6동(安養六洞)을 안양6동 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 석수동(石水洞)을 석수1동(石水一洞) 석수2동(石水二洞)으로 분동
- 1985 11 5 안양6동(安養六洞)을 안양6동 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
- 1987 1 1 광명시 소하동 일부 석수2동에 편입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
- 1990 1 1 석수2동(石水二洞)을 석수2동 석수3동(石水三洞)으로 분동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로 승격
- 1994 12 26 안양동 일부 군포시에 편입 군포시 산본동 일부 안양동에 편입 안양동 일부 박달동에 편입
  박달동 일부 안양동에 편입

만안구정사인 옛 시흥군정사의 준공식(1978 4 14)



만안구는 정조 19년(1795)에 과천현과 금전현(시흥현)의 현계인 안양전 위에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한 후 정조의 능행로정이 시흥 - 안양을 경유하는 이른바 시흥로정(始興路程 금천로정)으로 바뀐 후 1905년에 경부선부설로 안양역이 설치된데 이어 1932년에 안양3동 대농단지에 조선직물을 건립한 후 곧 이어 조선견직 금성방직 등 유수의 공장건설로 안양 경제계에 큰 바람을 일으켰고 같은 해 비산공원(안양유원지)에 석수동수영장을 건설했는가 하면 이해 안양9동의 율목동마을에서 있었던 전국부인밤줍기대회는 안양의 밤의 성가를 국내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더우기 안양2동은 안양포도의 발상지로 알려진 곳이다 또 안양의 뿌리인 안양사를 비롯한 안양을 대표하는 각종 문화재 대부분이 이곳에 있다

구청사는 옛 시흥군의 정사로 1979년 2월 15일에 건립되었는데 부지면적 8 999

㎡에 연면적 6 372 37㎡이며 건물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및 경량철골조로 지상 6층이다 1988년 12월 31에 시흥군이 해제된 후 1989년 5월 1일에 만안출장소의 개소에 앞서 정사로 사용키 위해 3 465백만원에 매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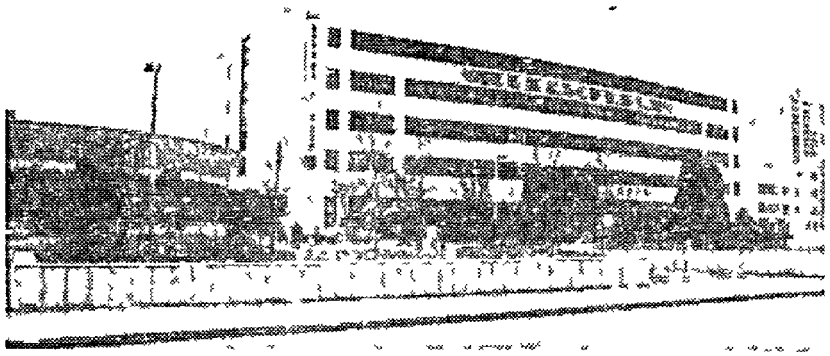
1996년 9월 30일 현재 만안구의 행정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과 시민과 세무1과 세무2과 지적과 사회사업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등 9개과와 36계로 되어 있으며 면적은 36 60㎢ 세대수 86 087세대 인구 261 796명 인구밀도 1㎢당 7 152명이다 교육기관은 대학 2개교 전문대1개교 고등학교11개교 중학교 7개교 초등학교 11개교가 있다 그밖에 주택은 48 499동 상수도 18 474전 하수도 399㎞ 의료시설 343개소 전화 151 749대 금융기관 111개소 자동차 50 120대 주자장 40 730면이다

만안구의 구명(區名)은 만안교(萬安橋)에서 유래한 것으로 그뜻은 "정조와 어머니 혜경궁 홍씨가 이 다리를 편안히 지났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만년을 할 수 있고 나아가 만백성에게까지 튼튼한 다리로 건너게 되어 만만년토록 성은(聖恩 정조)을 입게 되고 자덕(慈德 혜경궁 홍씨)을 기리기 위함"이다

2) 동안구 (東安區)

동안구는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하서면(果川郡 上西面 下西面) 지역으로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 안산 과전군이 시흥군에 흡수통합되자 시흥근 서이면(始興郡 西二面)으로 되었고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시흥군 안양면(始興郡 安養面)으로 개칭된 후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로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으로 되었고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시로 승격되면서 비산리는 비산동(飛山洞)으로 일동리는 관양동(冠陽洞)으로 이동리는 평촌동(坪村洞)으로 호계리는 호계동(虎溪洞)으로 각각 개칭되었다 그뒤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1982 8 5 공포)로 비산동을 비산1동과 비산2동으로 분동하였고 이듬해 10월 5일 시 조례 제600호(1983 9 14 공포)로 호계동을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분동한 후 1985년 11월 5일 시 조례 제739호(1985 11 11 공포)에 의거 호계1동을 호계1동과 호계3동으로 분동하였고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1989 4 10 공포)로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가 개소되어 안양7동 비산1동 비산2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1동 호계2동 호계3동 등 8개동을 관할하였다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1990 5 10 공포)에 의거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으로 관양동을 관양1동과 관양2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이후 평촌신

도시의 개발계획으로 신도시내에 주민들의 입주가 시작되자 인구의 급증으로 분동이 속속 이루어 졌다 즉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1992 5 7 공포)에 의거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復興洞)으로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법계동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1992년 10월 1일에는 동안출장소가 폐지됨과 동시에 동안구(東安區)로 승격되었는데 이때 안양7동이 만안구에 편입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1993 1 15 공포)로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富林洞)으로 경존동을 경촌동과 평안동(坪安洞)으로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新村洞)으로 각각 분동하였다 이어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1993 5 20 공포)로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達安洞)으로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葛山洞)으로 분동하였고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따라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貴仁洞)으로 분동하여 17개동이 되었다



동안구청사(1996 동안구 제공)

동안구정 현판식(1992)★



동년 12월 26일에는 대통령령 제14434호(1994 12 22 공포)로 시간(市間)에 행정구역 일부 변경이 이루어져 호계동 일부가 군포시에 평촌동 일부가 의왕시에 각각 편입되었고 동년 같은날에 시 조례 제1338호(1994 12 26 공포)로 법정동의 경계변경이 이루어져 평촌동의 일부가 호계동으로 편입되었다 또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1995 12 7 공포)로 관양동 일부가 비산동 평촌동에 경촌동 일부가 관양동에 편입되는 등 법정동간에 경계조정이 있었고 동년 같은 날에는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갈산동 일부가 신촌동에 편입되었다

■ 동안구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始興郡 安養邑)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 관양동 평촌동 호계동(安養市 飛山洞 冠陽洞 坪村洞 虎溪洞)
- 1982 9 1 비산동을 비산1동(飛山一洞)과 비산2동(飛山二洞)으로 분동
- 1983 10 1 호계동을 호계1동(虎溪一洞)과 호계2동(虎溪二洞)으로 분동
- 1985 11 5 호계1동을 호계1동과 호계3동(虎溪三洞)으로 분동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
- 1990 5 20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비산3동(飛山三洞)으로 분동
- 1992 5 1 비산2동을 비산2동과 부흥동(復興洞)으로 분동
  호계2동을 호계2동과 범계동으로 분동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
- 1993 1 15 관양2동을 관양2동과 부림동(富林洞)으로 분동
  평촌동을 평촌동과 평안동(坪安洞)으로 분동
  범계동을 범계동과 신촌동(新村洞)으로 분동
- 1993 5 20 부흥동을 부흥동과 달안동(達安洞)으로 분동
  호계1동을 호계1동과 갈산동(葛山洞)으로 분동
- 1994 7 1 평안동을 평안동과 귀인동(貴仁洞)으로 분동
- 1994 12 26 호계동일부 군포시(軍浦市)편입
  평촌동일부 의왕시(儀旺市)편입
  평촌동일부 호계동에 일부
- 1996 1 1 관양동일부 비산동 평촌동에 편입
  평촌동일부 관양동편입
  갈산동일부 신촌동편입

동안구의 역사는 후기 구석기시대부터 시작된듯 하다 즉 1990년 명지대박물관에

서 조사한바에 따르면 귀인동에서 찌르개 찍개 등이 출토된 것으로 보아 적어도 이 때부터 사람이 살기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뒤 10세기경인 정동기시대에 귀인·평촌 갈산동에서 다량의 지석묘가 발견된바 있으며 백제조기의 주거지도 발견되었다 고려시대인 11~14세기에는 비산동에서 정자 백자가 생산되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인덕원사거리 부근에 공용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던 원(院)이 설치되어 서울 - 과전 - 수원 -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중요 교통로였으나 조선조 정조가 1795년에 안양천위에 만안교가설로 정조의 능행이 시흥 - 안양을 잇는 노정으로 바뀌자 이곳 일대는 점차 퇴락하기 시작하다가 1989년 부터 이른바 평촌신도시개발로 대단위아파트가 속속 들어서고 전철역 등으로 교통이 편리해지자 인구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안양의 신중심지역으로 변모되기 시작하였다 평촌신도시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도시 개발이전의 평촌지구(1970년대)

평촌신도시 현황

공급세대수(아)	합 계		아 파 트		단 독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세 대	인 구
42 000	47,133	154 825	45 796	150,796	1 337	4 029

* 미입주 부림동 세경 1 292세대

단 지 별 현 황

동명	단지명	세대수	인구	비고
계	11개 단지	45 796	150 796	
부흥동	관악단지	4 445	14 893	
	은하수단지	2 650	8 581	
달안동	샛별단지	6 105	18 142	
부림동	공작단지	3 635	11 783	
	한가람단지	3 582	11 692	
평안동	초원단지	6 892	22 437	
	양촌단지	2 127	7 243	
귀인동	꿈마을단지	3 672	12 733	
범계동	목련단지	5 872	19 532	
신촌동	무궁화단지	4 178	14 481	
갈산동	샘마을단지	2 638	9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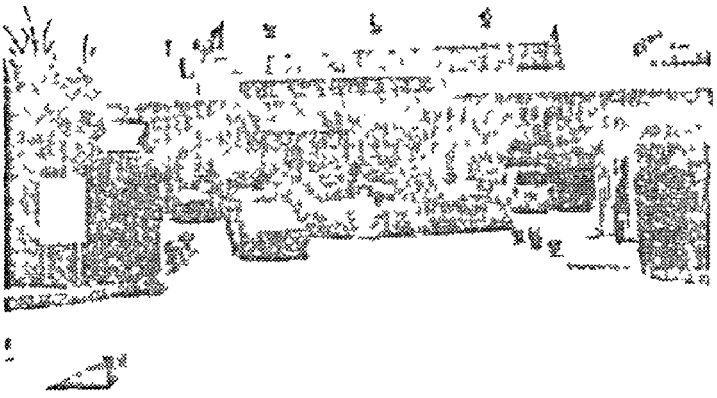
단독주택 입주현황

계	귀인동	신촌동	갈산동	비 고
1 337 / 4 029	747 / 2 180	283 / 867	307 / 982	

1996년 9월 30일 현재 동안구의 면적은 21 9㎢ 세대수 105 250세대이며 인구수는 332 751명이다 행정조직은 구청장 부구청장 9개과 36계로 되어있고 행정동은 비산1동을 비롯하여 17개동이다 도로 시설물은 교량 15개 지하차도 4개소 육교 17개소 지하보도 14개소 가로등 2 939 등이고 주차장(노상)은 23개소에 면적은 58 917㎡이다 자동차는 69 048(승용자 56 427대 승합자 3 979대 화물차 8 570대 특수자동차 72대)이고 전화기 보유는 115 412(일반전화 113 862대 공중전화 1 550대)이다 또 상수도 급수인구는 325 550명으로 보급율이 97 8%에 이르며 교육기관은 대학교 1개교 고등학교 7개교 중학교 12개교 초등학교 21개교로 모두 41개교이다 금융기관은 은행 57개점포 상호신용금고와 증권이 10개점포 새마을금고 6개점포이다 그밖에 파출소 9개소 소방파출소 4개소이고 기업체는 464개 업체이며 종합병원 2개소 의원 124개소 등이다

동안구청은 비산동 1111에 위치해 있는데 철근콘크리트 건물로 지하 1층에 지상

5층인데 대지면적 17 903㎡(5 415평) 건축연면적 12 329㎡(3 729평) 건축면적 2 529㎡(756평)이다 사업비는 17 549백만원이 소요되었다



동안출장소 정사(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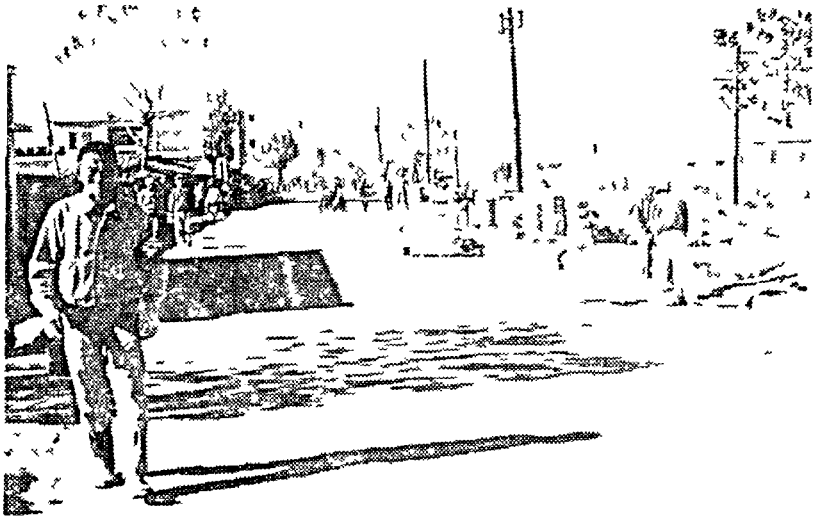
1989년5월 출장소가 설치되기에 앞서 안양시로부터 필자(이승언)에게 출장소 명칭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었다 그후 우연한 기회에 안양시에 들렀더니 만안 동안출장소로 명명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저윽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인덕'이 어질 '인(仁)'자와 큰 '덕(德)'자 이므로 한자로 보면 더할나위없이 이상적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원래의 뜻은 '내시'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내시는 무엇인가 자신의 생식기를 어려서 거세하여 후에 장성하여서는 궁중에서 온갖 영예를 누렸지만 인간으로서는 일생을 불행한 삶을 영위하지 않았는가 인덕원은 지리적으로 서울근교였던 관계로 조선시대에는 내시의 집단거주지였다 내시중에 과전과하면 이는 곧 인덕원내시를 일컬었다 굳이 '인덕'의 의미를 살리려했다면 '인덕원출장소'로 해야 옳았다 행정편의상 두글자로 하다보니 '인덕'이 된 모양인데 이는 어불성설이다 만약에 사리원과 조치원이 시로 승격되었을 때 '사리시' 조치시로 한다면 얼마나 우스광스러운 시명일까?

다행이도 필자(이승언)의 요청을 안양시에서 받아들여 곧 동안출장소로 개칭했는데 동안(東安)은 '동쪽 안양'이란 뜻일게다

2 동의 연혁

1) 안양1동 (安養一洞)

안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안양리(安養里)와 발사리(撥舍里)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 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 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남부시장 입구에서 안양역 방향을 바라보고 잘영한 모습 길 양옆으로 보도브럭 공사가 한창이고 오른쪽 건물은 태평방직이다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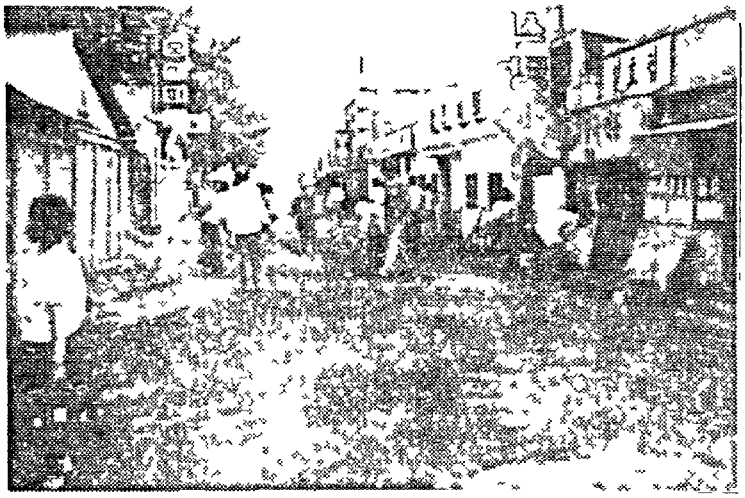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 (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1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1동(安養一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 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조례 제1392호에 따라 안양5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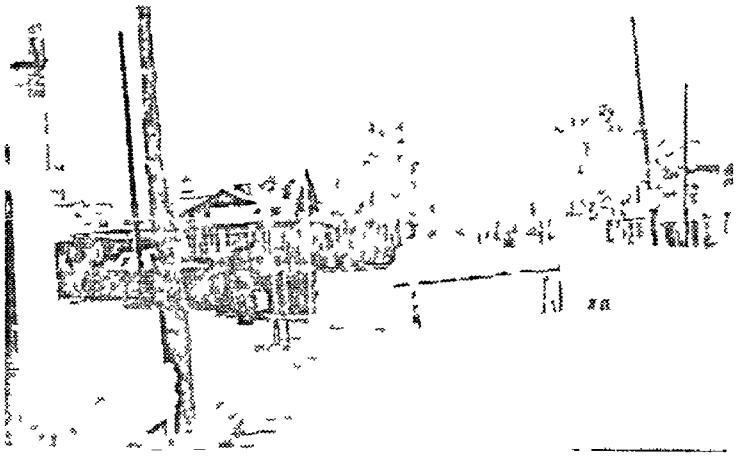
■ **안양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발사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撥舍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1 5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一 五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1동(安養市 安養一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場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5동 일부 편입

안양1동(이하 안양8동 포함)의 동명유래는 안양시의 유래와 같으므로 생략한다 안양1동은 동(東)으로 비산1동 서(西)로 안양4동 남(南)으로 안양5동 안양7동 북(北)으로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남부동(南部洞) 시대동(市垈洞 舊市場) 중앙동(中央洞)이 있다


안양양조장 뒷길(1970)


만안로 신도예식장 입구에서 안양역에 이르는 제지역(1972)

안양 중심부에 위치한 안양1동은 교통 금융 상가(특히 유흥상가)가 운집해 있어 명실공히 '안양의 1번가'로 통할 만큼 가장 번화한 곳이다 이 곳이 안양의 중심가로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은 약 200년 전인 정조 19년(1795) 부터이다

정조는 부왕(사도세자)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전장하고 능행을 위해 유래정 뒤(안양1동 674-67)에 안양행궁(安養行宮)을 짓고 능행(陵幸)시 휴게(休憩)했다 그 후부터 오늘날의 만안로가 개설되었고 이어 구 한말에는 미나리밭이었던 자리에 경부선 안양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되었다 일제강점기인 1917년에 호계2동 방죽말에 있던 서이면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 옆(안양1동 674-271)으로 이전되고 광복 직후에는 서울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정사가 뉴코리아호텔 자리(안양1동 674-251)로 이전하자 곧 이어 안양경찰서(안양1동 674-245)와 안양읍사무소(안양1동 674-208) 등 관가의 건물이 속속 들어섰다

또 1924년에는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 앞 만안로에 안양지방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역 앞에 안양우체국 안양연초조합 등이 설립되었는가 하며 1926년에는 진흥아파트 앞(시대동 구시장)에 안양시장이 개설되어 상권이 다져졌고 1929년에는 역시 시대동 일대에 안양지방에서 최초로 전기가 송전되는 등 오늘날 안양의 발전은 안양1동으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관내의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역(안양1동 641) 안양파출소(안양1동 641-3)가 있다 아파트는 진흥아파트(안양1동 97-3)가 27개동에 2 276세대로 1984년 3월 31일에 입주했고 정원아파트(안양1동 80-4)가 4개동에 183세대로 1978년 8월 10일에 입주했다 안양1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9월 30일 현재 면적 0 65km 세대수 4 648세대 인구수 13 905명 인구밀도 1㎢당 21 392명이다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안양 남지점(안양1동 674) 안양1동 새마을금고(안양1동사무소) 등이 있다 안양1동 사무소(1979 4 3 건립 부지면적 429 4㎡ 연면적 1 225㎡)는 안양1동 674-207에 있다

2) 안양2동 (安養二洞)

화단극장 앞에서 만안초등학교를 바라본 모습(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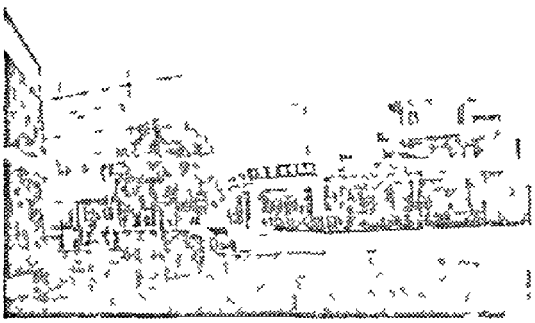


안양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석수동(果川郡 下西面 石手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2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2동((安養二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로 동의 일부가 안양3동에 편입되었다

■ **안양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석수동 (果川郡 下西面 石手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2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二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2동(安養市 安養二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안양2동 일부 안양3동에 편입



화단극장앞 삼거리 왼쪽 건물이 연미예식장이다 (1972)



안양유원지 삼거리에서 비산동 방향으로 산업도로 개설공사가 시작되고 있다 (1972)

안양2동은 동(東)으로 비산1동 서(西)로 박달1동 남(南)으로 안양1동 북(北)으로 석수1동 석수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북부동(北部洞)과 석수동(石手洞 石水洞)이 있다 조선시대 금천현(衿川縣)과 과천현(果川縣)의 현계(縣界)에 위치한 안양2동은 안양문화의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안교(萬安橋)가 소재해 있던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지극한 효성으로 그 이름이 높았던 정조가 능행을 위해 1795년에 가설한 이 다리는 본래 나무다리였던 것을 홍예석교로 가설한 후 만인이 만년 동안 편안하게 건너 다니라는 뜻으로 '만안교(萬安橋)'라고 명명하고 가설하던 해(1795) 음력 2월 13일 어머니(혜경궁 홍씨)의 회갑연을 거행키 위해 친히 어머니를 모시고 처음 이 다리를 건넜다 그 후 보잘 것 없던 이 다리가 유명해져 정조의 능행을 과천로정에서 시흥~안양으로 노정을 바꾼 후부터 과천에 딸린 작은 마을이 오늘날에는 60만의 거대도시로 비약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삼성산 아래에 있는 안양유원지(비산공원)는 수도권의 위락지로 각광을 받는 곳이며 일제강점기에는 오끼(冲

井)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는 최초로 이곳에 조도를 재배해 안양의 명물로 명성을 높혔으며 기독보육원은 안양의 첫 사회복지시설로 고아의 할아버지로 칭송을 받았던 오긍선에 의해 설립되었다 관내에는 안양여중 고(안양2동 840-2)를 비롯하여 양명고(안양2동 산21) 양명여고(안양2동 산21) 만안초교(안양2동 848-1) 등의 교육기관과 기업체는 13개업체이며 안양을 대표하는 안양전 삼성전 수암전 삼막천 등이 모두 안양대교에서 합류된다 아파트는 삼영1차(안양2동 15-16) 삼영2차(안양2동 34-1) 대우아파트(안양2동 70) 삼성아파트(안양2동 32-1) 향림이파트(안양2동 46-5)가 있다

안양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9월 30일 현재 면적 2 87㎢ 세대수 9 457세대 인구수 28 399명 인구밀도 1㎢당 9 895명이다 안양2동사무소(1990 7 4 건립 부지면적 2 114 9㎡ 연면적 3 234 32㎡)는 안양2동 842-207에 있다

3) 안양3동 (安養三洞)

옛 금성방직터에 주택단지로 변모된 모습(1993)★



안양3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3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3동((安養三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 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의거 안양2동 일부가 편입되었다

■ **안양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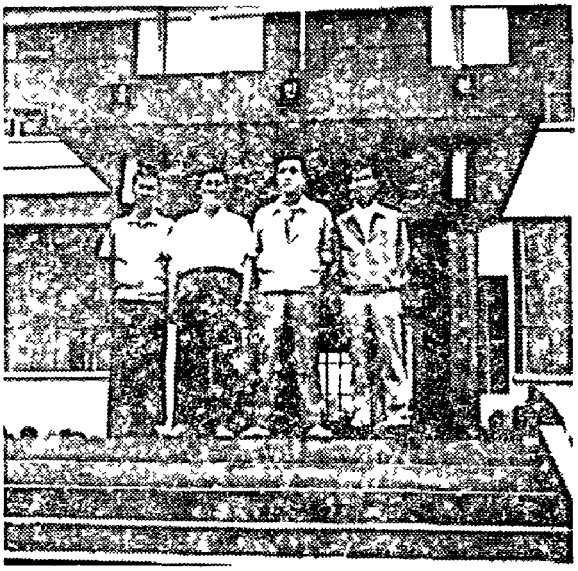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 (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3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三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3동(安養市 安養三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2동 일부 편입

안양3동은 동(東)으로 안양1 4동 서(西)로 안양3동 남(南)으로 군포시 산본동 북(北)으로 박달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양지동(陽地洞)이 있다

안양3동은 행정구역의 80%가 아파트(오승아파트 정우 진흥 성원 홍화) 및 단독주택으로 형성된 주거지역으로 일제 강점기에는 아사이(旭)학교가 설립된 후 안양공고(안양3동 795) 안양여상(안양9동 산41-1) 안양예고(안양3동 산42-1) 안양전문대학(안양3동 산39-1) 안양서초등학교(안양9동 931) 등의 교육기관이 속속 설립되어 안양교육의 요람지가 되었다 특히 1928년에는 엄기승(嚴基承)이 안양3동사무소 부근에 안양 최초의 회사인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를 설립하였고 이어 1932년에는 조선직물(朝鮮織物)에 들어섰고 광복이 되자 그 자리에 금성방직(金星紡織)이 설립되어 오늘날 안양이 상공업 도시로 성장하는데 견인차가 되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0㎢ 세대수 7 019세대 인구수 21 798명 인구밀도 1㎢당 21 798명이다 안양3동사무소(1994 1 14 건립 부지면적 315㎡ 연면적 363 77㎡)는 안양3동 1195-33에 있다

4) 안양4동 (安養四洞)

안양4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장내동(果川郡 下西面 墻內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4리와 5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4동((安養四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안양5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읍민관(1960년대)

■ **안양4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장내동 (果川郡 下西面 墻內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4 5리(始興郡 安養邑 安養四 五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4동(安養市 安養四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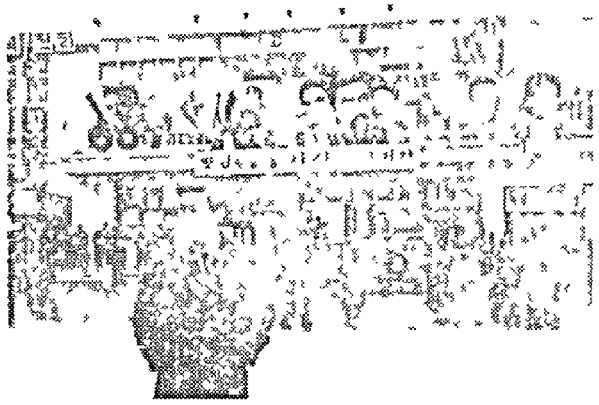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5동 일부 편입



중앙시장 입구에 포장공사를 하고 있다(1970)

안양극장(1971)



안양의 상권 중심지인 안양4동은 동(東)으로 안양1동 서(西)로 안양3동 남(南)으로 안양5동 북(北)으로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장내동(場內洞)이 있다 안양4동은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밤나무가 무성한 밤동산(栗園)이었다 특히 지금의 벽산쇼핑 일대에는 좌백율원(佐白栗園)이라는 대단위 율원이 조성되어 해마다 유료로 밤줍기대회를 개최했는가 하면 이 곳의 자연취락인 장내동이란 취락명도 밤나무 안에 민가가 옹기종기 있다 하여 유래될 만큼 전지역이 밤나무밭이었다

이렇듯 밤동산이었던 안양4동이 점차로 개화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삼덕제지 앞에 안양변전소가 설치된 후 삼덕제지와 삼길양산 등의 공장과 1954년 전주교 장내동성당 등이 건립되면서 부터이다 그 중 장내동성당은 서울교구가 1937년에 밤나무밭 6 657평을 교회부지로 매입한 후 1954년 서울교구의 구천우(具天祐)신부에 의해 신부가 거저할 2개의 방이 달린 목조 함석지붕 성당(24평)을 건축하고 노기남 주교의 주례로 축성식을 가졌고 이어 동년 9월 7일 구천우 신부가 안양으로 이사했는데 이 날이 장내동성당의 창설일로 이는 당시 시흥군 안양읍 유일의 천주교 교회였다 2년 후(1956) 5월 4일 동 성당내에 안양 최초의 유치원이 개설되어 안양지역 유아교육사의 새로운 장(章)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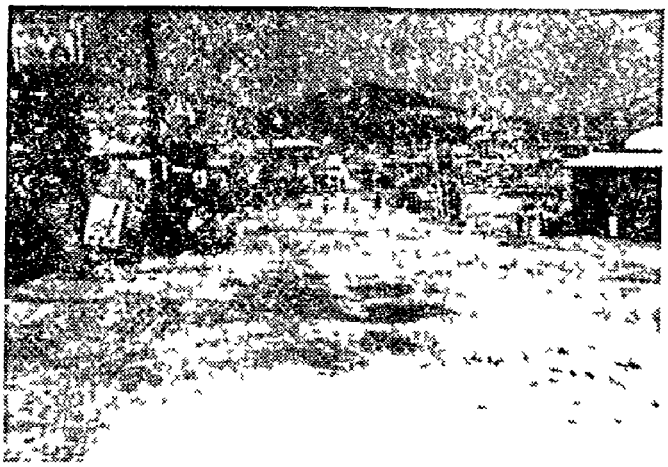
5 16군사쿠데타 후인 1961년 11월 6일에는 안양1동 시대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중

앙동으로 이전하여 중앙시장(中央市場)으로 명명된 후 중앙로의 개통과 이어 벽산쇼핑과 풍물시장이 개장되자 한때는 안양시민의 생활필수품의 약 60%가 유통될 만큼 명실공히 안양의 시장 상가지역으로 자리를 굳혔으며 아파트는 화양아파트(안양4동 709-16) 벽산아파트(안양4동 627-72)가 있다

안양4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1996년 9월 30일 현재 면적 0 31㎢ 세대수 2 988세대 인구수 8 586명 인구밀도 1㎢당 27 535명이다 안양4동사무소(1995 7 12 건립 부지면적 381㎡ 연면적 705 22㎡)는 안양4동 711-399에 있다

5) 안양5동 (安養五洞)

근명여상앞 도로(1970년대초)★



안양5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6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5동((安養五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에 따라 동의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되었다

■ **안양5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6리(始興郡 安養邑 安養六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5동(安養市 安養五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6 1 1 안양5동 일부가 안양1동 안양4동에 편입

안양5동은 동(東)으로 안양7동 서(西)로 안양9동 남(南)으로 안양6동 북(北)으로 안양4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교하동(교화동) 과 잔우물 등이 있다 안양의 중심부를 남 북으로 가로지르는 중앙로를 따라 서편에 위치한 찬우물과 그 동편에 위치한 교화동을 중심으로 형성된 안양5동은 현대적 의미에 있어 안양의 첫 교육시설인 안양초등학교(안양5동 387-1)가 설립되자 안양교육의 메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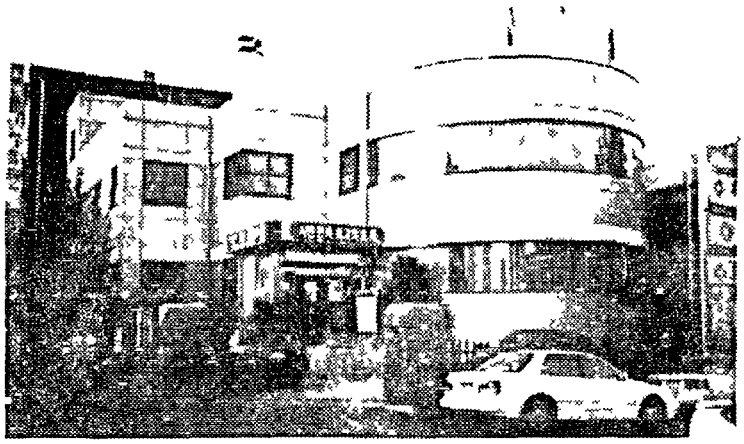

충혼탑주변 택지조성(1970)★

1920년대 조까지만 해도 안양의 교육은 불모지여서 먼거리에 있는 과천초등학교(과천시 소재)와 안산초등학교(안산시 소재)를 다녀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만 했다 그러다가 1927년 엄기승(嚴基承 안양산업사 사장) 조한구(趙漢九 초대 서이면장과 초대안양읍장 역임) 등 안양유지의 눈부신 활동으로 안양공립보통학교 기성회를 조직하고 학교 설립에 박차를 가했으나 건립에 필요한 자금염출로 어려움을 겪게 되자 「동아일보」가 이러한 딱한 사정을 연일 보도하자 전국에서 모금이 답지하여 신문지상에 이들의 성명과 성금액이 보도되었다 이에 당황한 일경이 국민의 단합을 이유로 방해를 했으나 국민들의 줄기찬 성원에 힘입어 1927년 12월 20일 개교(안양초등학교)를 보았는데 이것이 안양교육의 시발이 되었다

이어 근명여중 상고(안양5동 708-197) 안양대학(안양5동 산103-101) 등의 교육기관이 들어섰고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전화국(안양5동 445) 안양우체국(안양5동 613-31) 안양소방서(안양5동 472-2) 안양등기소(안양5동 456-6)이 있다 오늘날의 안양5동은 안정된 주거지역으로 재건축사업이 활발하고 아파트로는 동덕 동명 장미 한남아파트가 있으며 주요기관과 각종 편의 시설이 소재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 도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다 어느 농부의 지성에 의해 샘물이 솟았다는 잔우물 일대는 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아파트와 현대식 주택들이 빽빽히 들어 차 있어 옛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크게 변모되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52㎢ 세대수 5 231세대 인구수 15 160명 인구밀도 1㎢당 29 153명이다 안양5동사무소(1977 12 19 건립 부지면적 264 50㎡ 연면적 305 64㎡)는 안양5동 542-307에 있다

6) 안양6동 (安養六洞)


안양6동사무소(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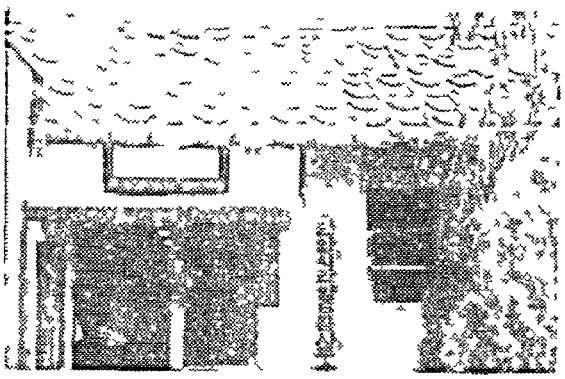
안양6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 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이어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로 안양6동을 안양6동 안양7동(安養七洞)으로 분동하였고 다시 1985년 11월 5일 안양6동을 안양6동 안양8동(安養八洞)으로 분동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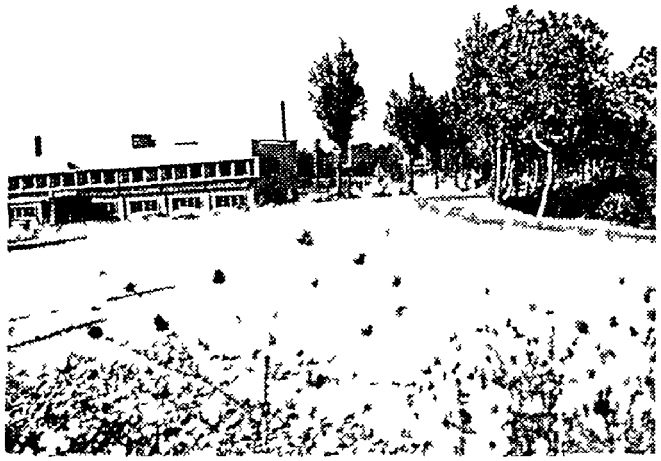
■ **안양6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7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七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6동(安養市 安養六洞)
- 1979 4 28 안양7동(安養七洞)분리
- 1985 11 5 안양8동(安養八洞)분리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옛 안양6동사무소 안양읍 당시 리사무소였었다 (1973)★

안양6동은 동(東)으로 안양7동 서(西)로 안양9동 남(南)으로 안양8동 북(北)으로 안양5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소골안(小谷洞)과 주접동(住接洞)이 있다 행정의 1번가로 불리워지는 안양6동은 조선 후기에 정조가 부왕의 묘를 수원 화산으로 천장하고 능행을 위해 지금의 안양경찰서 뒤에 정각(亭閣 政閣)을 짓고 잠시 휴게했다는 연유로 '주접동(住接洞)'이란 마을명이 유래되었고 이어 한국전쟁 직후 안양1동 진흥아파트 자리의 난민들을 수리산 골짜기에 집단 이주시키면서 '소골안(小谷洞)'이란 취락이 생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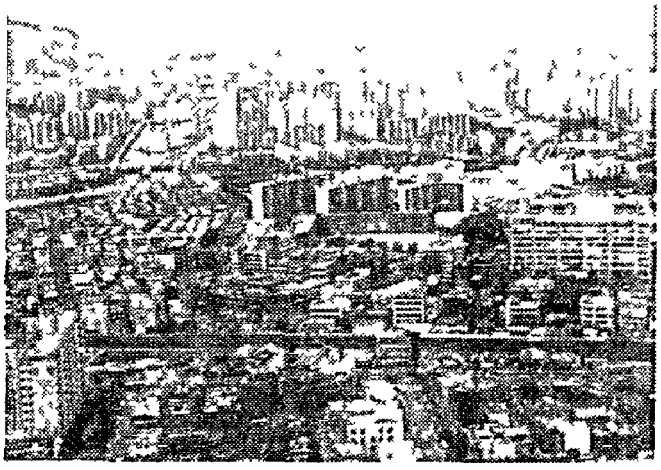
이곳의 관가는 1938년에 밤나무밭이었던 자리에 안양식림묘포(→ 경기도임업시험장)를 설치한 후 수의과학연구소(안양6동 480) 국립식물검사소(안양6동 433-1) 시흥군 임업협동조합(안양6동 532-11) 농수산물검사소(안양6동 433-21) 한국담배인삼공사 안양지점(안양6동 437) 국립종자공급소(안양6동 433) 안양세관(안양6동 584-1) 안양시의료보험조합(안양6동 504-1) 등과 1975년에 안양시정사(안양6동


안양경찰서 일대(1972)

530) 1977년에 시흥군청사(→ 만안구청 만안구보건소 안양6동 477-1) 안양세무서(안양6동 582-4) 안양상공회의소(안양6동 502-2) 등이 들어서면서 관가의 중심지가 되었고 1979년에 안양7동 1985년에 안양8동을 각각 분리시켰을 만큼 인구의 급격한 주세를 보였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신성중 신성고(안양6동 587-68) 제일실업고(안양6동 541-33)가 있고 기업체로는 오토 갤러리 영진교동 동양유리 신흥목재 등 4개업체가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안양중앙지점(안양1동 674-93) 국민은행분소 남부단위농협 6동새마을금고 소곡새마을금고 등 5개소가 있고 아파트로는 성업 동성 동아 삼익 미주아파트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47㎢ 세대수 6 763세대 인구수 19 523명 인구밀도 1㎢당 13 280명이다 안양6동사무소(1994 2 17 건립 부지면적 514㎡ 연면적 867 22㎡)는 안양6동 437-407에 있다

7) 안양7동 (安養七洞)


안양7동 전경(1993년)★

안양7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의거 안양6동을 분동해 덕천마을 지역을 안양7동(安養七洞)이라 칭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조계 제 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 **안양7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7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七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6동(安養市 安養六洞)
- 1979 4 28 안양시 안양7동(安養市 安養七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안양7동은 동(東)으로 부흥동 서(西)로 안양6동 남(南)으로 호계2동 북(北)으로 안양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덕전마을이 있다 조선시대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던 곳으로 대부분 농경지였었다가 일제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에 살던 원정상(元貞常)이 분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살기 시작하자 허허 벌판에 있는 마을이라



덕전 슈퍼앞 도로공사(1980)★

하여 '벌터(坪村)'라 칭했다가 1977년 7월 8일 이른바 7 8 홍수 때 안양천의 범람 후 안양시에 의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실시하자 주변인구의 급증으로 크게 번창되었다

1978년 마을의 유지들에 의해 '덕천마을'로 개칭되었고 이듬 해 5월 1일 안양6동에서 분리되어 안양7동이 되었다 지역적으로 안양전을 끼고 만안로 관악로 명학로 및 경부철도가 관통되어 1960년대 부터 대 중소기업제가 들어서기 시작하여 면적의 70%가 500여 중소기업이 활발하게 생산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거지역은 공동주택의 밀집으로 인구가 과밀하며 토작민보다 외부 유입 주민이 절대 다수인데다가 저소득층의 과다유입 빈번한 이동이 있는 지역이다 교육시설로는 덕전초등학교(안양7동 192-5) 풍명실업고(안양7동 199)가 있으며 공공기관으로는 노동부 안양사무소(안양7동 190-10)가 있고 아파트로는 준마아파트(안양7동 192-9) 은하아파트(안양7동 159-7) 동아아파트(안양7동 190-11)가 있다

안양7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면적 1 05㎢ 세대수 7 221세대 인구수 22 411명 인구밀도 1㎢당 21 343명이다 안양7동사무소(1980 4 15 건립 부지면적 620 5㎡ 연면적 683 72㎡)는 안양7동 126-4에 있다

8) 안양8동 (安養八洞)

명학동마을 앞에서 여인들이 밭일을 하고 있다
(1971 전우회원 이석범제공)



안양8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안양리(果川郡 下西面 安養里)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7리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6동((安養六洞)이 되었다

1985년 11월 15일 시 조례 제739호에 의거 안양6동을 분동해 명학동 곡내동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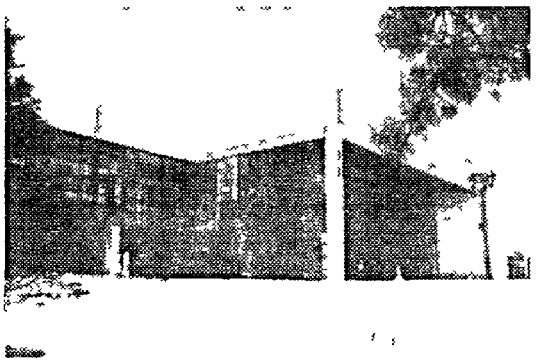
록마을의 제 지역을 '안양8동(安養八洞)'이라 칭했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 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 되었다

■ **안양8동의 변천 이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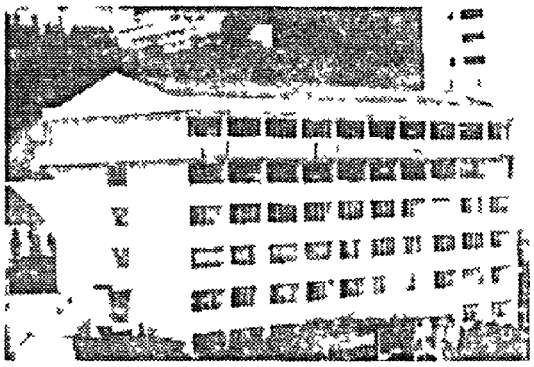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하서면 안양리
  (果川郡 下西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7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七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6동(安養市 安養六洞)
- 1985 11 5 안양시 안양8동(安養市 安養八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안양8동은 동(東)으로 안양7동 호계2동 서(西)로 안양9동 남(南)으로 군포시 산본동 북(北)으로 안양6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골안(谷內洞) 명학동(鳴鶴洞) 상록마을이 있다 안양 서남쪽에 위치한 안양8동은 인조조의 명신

안양문예회관(1990년대)



성결대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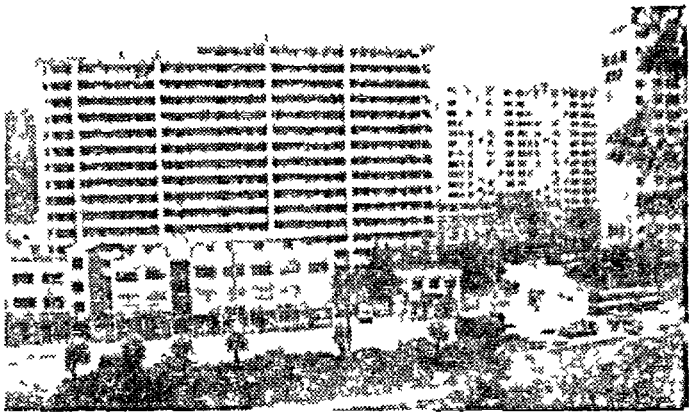
심기원(沈器遠)이 부친(심간)의 묘를 비산1동 소재 대림공전 뒤에 쓰기 위해 광중을 파던 중 암반 위에 앉아 있던 학이 이곳 명학초교 아래에 있는 바위에 앉아 슬피 울었다는 연유로 명학동이란 취락명이 취해진 이래 안양의 외곽지대로 안양6동 일대에 관가가 생기면서 함께 번창되기 시작하였다 지리적으로 관모봉과 명학봉의 빼어난 산세에 미도 명학아파트를 비롯하여 현대연립 귀빈타운 효성연립 삼성연립 동남연립 등의 주택이 집중된 안정된 주거지이며 명학초등학교(안양8동 349-13) 성문여자중(안양8동 산117-1) 성문여고교(안양8동 산147-2) 성결대학교(안양8동 산147-2) 등의 교육기관과 안양문예회관(안양8동 550)이 위치해 있어 교육 문화권의 중심지이다

또 관악산과 관모봉 수리산을 마주한 중간위지에 있으면서 많은 인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휴식공간이 부족한 시민들을 위하여 1989년 안양시에 의해 이곳 상록마을에서 안양3동 지루골에 이르는 연장7 7km 를 산림욕장을 개설해 신체적 정신적 건전생활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

안양8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14㎢ 세대수 5 184세대 인구수 15 394명 인구밀도 1㎢당 13 503명이다 안양8동사무소(1987 5 8 건립 부지면적 661 2㎡ 연면적 706 69㎡)는 안양8동 572-1에 있다

9) 안양9동 (安養九洞)

프라자아파트(1993)★



안양9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안양리(安養面 安養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안양리(安養邑 安養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안양3리로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3동(安養三洞)이 되었다 1985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

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에 따라 안양3동을 분동해 '안양9동(安養九洞)'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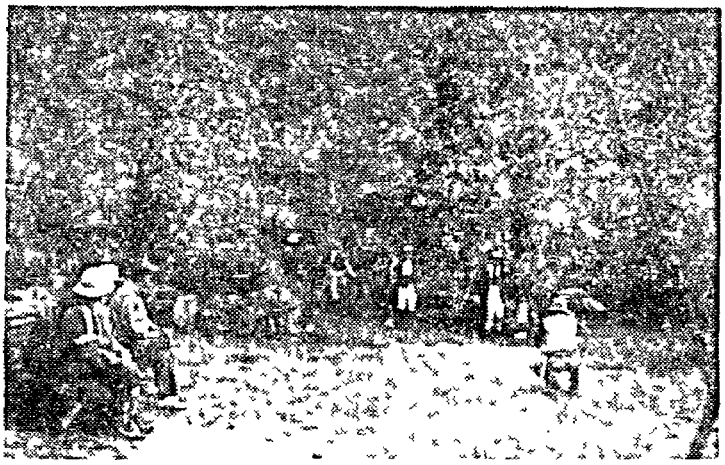
■ **안양9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 (果川郡 下西面 後頭尾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始興郡 西二面 安養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始興郡 安養面 安養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始興郡 安養邑 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안양3리(始興郡 安養邑 安養三里)
- 1973 7 1 안양시 안양3동(安養市 安養三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4 7 1 안양시 안양9동(安養市 安養九洞)

안양9동은 동(東)으로 안양5동 안양6동 안양8동 서(西)로 안산시 수암동 남(南)으로 군포시 산본동 북(北)으로 안양3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능골(陵谷) 담배촌 병목안(後頭尾洞) 새마을 안골(內谷) 율목동(栗木洞) 창박골(蒼岩洞) 등이 있다

안양시의 서부외곽지역으로 동 전체면적의 84 7%가 임야로 되어 있어 시민의 휴식공간이 있는 반면 주거환경이 도심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시급히 요망되는 지역이다 아파트로는 크라자아파트(안양9동 762-2)를 비롯하여 우성아파트(안양9동 730-10) 정호아파트(안양9동 734-1) 뉴 골든아파트(안양9동 1024-1)가 있다

특히 이곳은 1837년 7월경에 우리나라의 두번째 신부로 알려진 최양업(崔良業)의 부친 최경환(崔京煥)이 수리산의 연봉인 태양산 아래에 정착하여 안양은 물론 인근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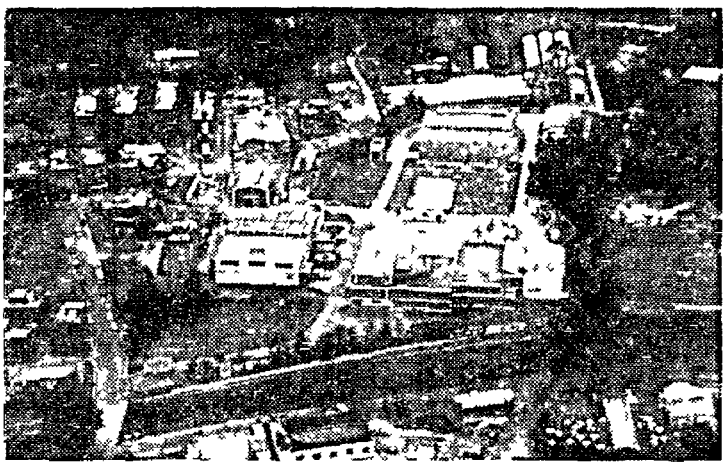
수리산산림욕장(1990년대)

군포 의왕 안산 시흥지방에 전주교를 잉태시켰다 또 수리산과 수암봉이 병풍처럼 감싸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잇점을 이용하여 1989년 안양시에 의해 '수리산산림욕장'을 개설 시민들에게 하루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신안초교(안양9동 730) 양지초교(안양9동 980)와 신안중(안양9동 728) 안양서중(안양9동 1060) 안양서여중(안양9동 728) 등이 소재해 있다

안양9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6 42㎢ 세대수 5 333세대 인구수 17 047명 인구밀도 1㎢당 2 655명이다 안양9동사무소(1995 8 28 건립 부지면적 855㎡ 연면적 894㎡)는 안양9동 995-21 외 3에 이다

10) 석수1동 (石水一洞)

유유산업(중앙)과 그 주변 민가(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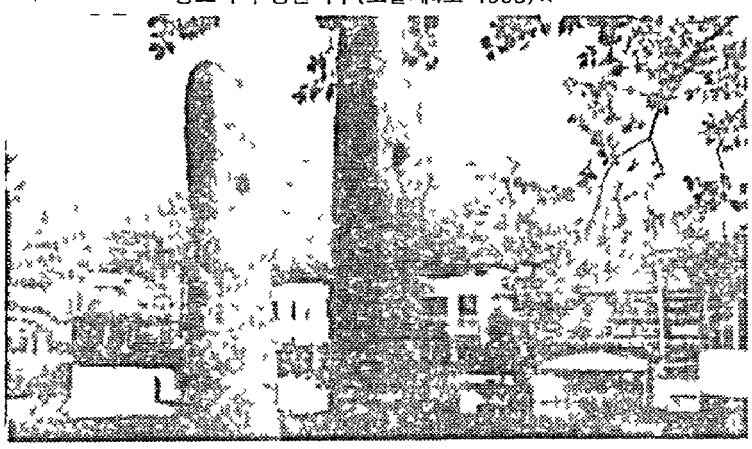


석수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衿川縣 縣內面 安養里)였다가 제22대 정조 19년(1795) 음력 윤 2월 1일에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로 개칭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安養邑 新安養里)로 되었다 이어 1964년 1월 1일 신촌 삼막골 구룡동 지역을 신안양1리(新安養一里)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 340호에 따라 석수동을 분동해 삼막골 신촌 구룡마을 등의 제 지역을' 석수1동(石水一洞)'이라 하였으며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 **석수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 (始興縣 縣內面 安養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근내면 안양리 (始興郡 郡內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1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一里)
- 1973 7 1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중초사지 당간지주(보물제4호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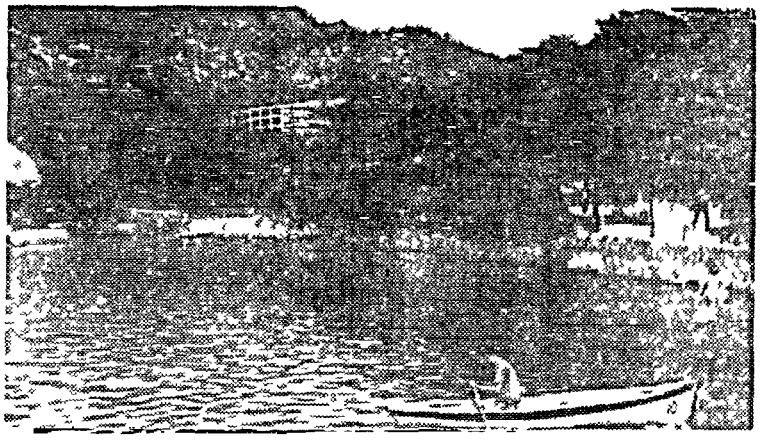


석수1동은 동(東)으로 비산3동 서(西)로 석수2동 남(南)으로 안양2동 북(北)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마을과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구룡마을(九龍洞)과 삼막골(三幕洞)이 있다 서울의 관문으로 안양 북단에 위치한 석수1동은 안양의 시원지(始源地)이자 불교문화의 발상지로 문화재의 보고이다 안양의 대표적 문화재인 중조사지 당간지주(中初寺址幢竿支柱 보물 제4호)와 중초사지 삼층석탑 (中初寺址 三層石塔 보물 제5호였으나 1996년 12월 해제됨))를 비롯하여 삼막사 대웅전(三幕寺 大雄殿 문화재 자료 제38호 1990년에 소실되어 1991년 4월에 해제됨) 삼막사 명부전(三幕寺冥府殿 문화재자료 제60호)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男女根石 민속자료 제3호) 삼막사사적비(三幕寺事蹟碑 유형문화재 제125호) 삼막사 삼층석탑(三幕寺三層石塔

유형문화재 제112호) 삼막사 동종(三幕寺銅鍾 유형문화재 제95호 1990년에 소실되어 1991년 4월에 해제됨) 삼막사 마애삼존불상(三幕寺磨崖三尊佛像 유형문화재 제94호) 삼막사 귀부(三幕寺龜趺 유형문화재 제93호) 안양 석수동 마애종(安養石水洞磨崖鍾 유형문화재 제92호) 석수동 석실분(石水洞石室墳 기념물 제126호)등이 소재해 있고 주요 사찰로는 안양의 대표 사찰인 삼막사를 비롯하여 망월암 상불암 염불암(사) 안양사 수도사 등이 있다 특히 옛 안양사는 신라 효공왕 4년(900)에 왕건에 의해 장건된 사찰로 안양의 시명(市名) 동명(洞名)의 기원이 된다 또 삼성산을 비롯하여 학무봉 호암산 등의 수려한 산세와 이곳에서 흘러내리는 맑은 물은 안양시민의 휴식처이자 서울근교의 위락지이다 지리적으로 관악전철역과 경수산업도로가 남 북으로 관통되어 교통이 편리하여 석수주공아파트 한도아파트 등 7개 단지가 조성된 아파트 밀집지역이나 동의 전체면적 중 86 6%인 7 98㎢가 개발제한 구역이다

공공기관은 석산공업개발사업소(석수1동 99-20)가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삼성초등학교(석수1동 169)가 있으며 아파트로는 주공 삼신 장미공영 한도 백조1차 백조2차아파트가 있다

석수1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9 22㎢ 세대수 5 017세대 인구수 14 886명 인구밀도 1㎢당 1 614명이다 석수1동사무소(1976 7 15 건립 부지면적 274㎡ 연면적 275 54㎡)는 석수1동 182-17에 있다



석수동 수영장 통칭 안양풀장으로 불리운다
(1960년대 전우희 회원 이응식 제공)

석수동(석수1 석수2 석수3동 포함)은 1932년 이곳(삼성천)에 수영장을 건설하면서 관악산과 삼성산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맑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산명수려(山明秀麗)한 절승지(絶勝地)라 하여 석수동 수영장(石水洞水泳場)이라 했는데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수영장 명칭을 취해 '석수동(石水洞)'이라 칭하였다

11) 석수2동 (石水2洞)

석수2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衿川縣 縣內面 安養里)였다가 정조 19년(1795) 음력 윤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로 되었


석수2동사무소(1996 석수2동사무소 제공)

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로 개칭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安養邑 新安養里)로 되었다 다시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신안양2리 3리(安養邑 新安養二里 三里)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동을 분동해 충훈부(忠勳府) 꽃쟁이(花倉洞) 등의 제 지역을 '석수2동(石水二洞)'이라 하였으며 1987년 1월 1일 대통령령 제12007호에 따라 광명시 소하1동의 일부가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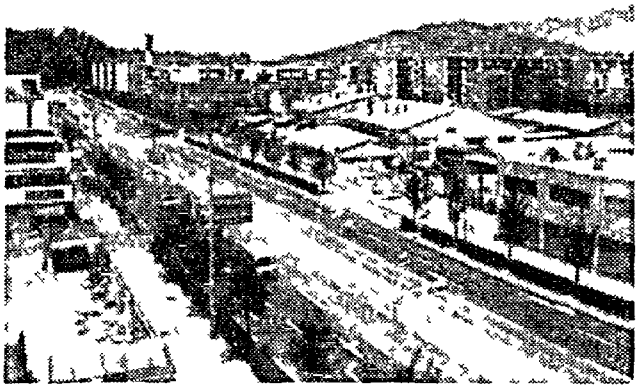
그 후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된 후 1990년 1월 1일 시조례 제1000호에 의거 충훈부지역을 석수3동으로 분동해 석수2동에서 분리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 **석수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 (始興縣 縣內面 安養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 (始興郡 郡內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2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二里)
- 1973 7 1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
- 1979 4 28 안양시 석수2동(安養市 石水二洞)
- 1987 1 1 광명시 소하1동 일부지역 편입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0 1 1 충훈부 지역 석수3동으로 분동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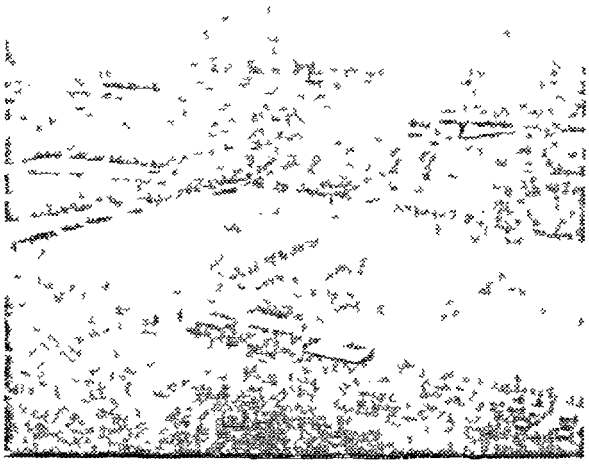
한국영화의 메카였던 옛 안양촬영소 주변(1993)★



석수2동은 동(東)으로 석수1동 서(西)로 광명시 일직동 남(南)으로 석수3동 북(北)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및 광명시 일직동과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꼬챙이(花倉洞) 벌터(坏洞) 신촌(新村) 연현(芚峴) 등이 있다 안양 서북단에 위치한 석수2동은 지금의 안양육교 일대가 예전에는 산세가 높고 후미진 곳이어서 서울로 가는 과객이나 보부상 등이 이곳을 지나치자면 산적이나 강도들에게 수난을 겪을만큼 험준한 곳이었으나 구한말에 경부선의 철도부설로 고개가 낮추어졌고 이어 신작로가 건설되면서 교통의 편리로 점차 취락이 발달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안양육교는 1905년 을사조약이 조인된 지 5일 후인 동년 11월 22일 민족의 원흉 이등박문(伊藤博文)이 기고만장하여 수원지방에 유람갔다가 돌아가는 길에 안양출신 원태우(元泰祐)지사에게 돌멩이 세례를 받아 치욕을 당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광명시 일직동과 접경한 벌터마을은 1960년대 초에 경기도 종축장이 들어서면서 폐동되었으나 경기도 종축장이 1970년대에 다시 경기도 광주로 이전되자 폐허화되었으며 안양전변과 만안로변에 자리잡은 신촌은 1956년 수도영화사에 의해 안양촬영소가 설치되어 한 때는 우리나라 영화산업의 본 고장으로 각광을 받던 곳이었다 또 꽃재배지로 유명했던 꼬챙이 마을은 아파트단지와 주택지로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되었다 공공기관으로는 관악파출소(석수2동 266) 석수소방과출소(석수2동 295-14) 석수우체국(석수2동 314-12) 안양전화국 석수분국(석수2동 320-1) 관악역(석

수2동 241) 석수역(석수2동 422-3)이 교육기관으로는 연현초등학교(석수2동 산134-4)가 있으며 금융기관으로는 석수2동(석수2동사무소)새마을금고 안양농협석수지소 한일은행 석수출장소가 있다 기업체는 17개업체가 있으며 아파트는 관악 럭키 동삼 한신 무림 세우아파트가 있고 문화재는 안양문화의 상징인 만안교(유형문화재 제38호)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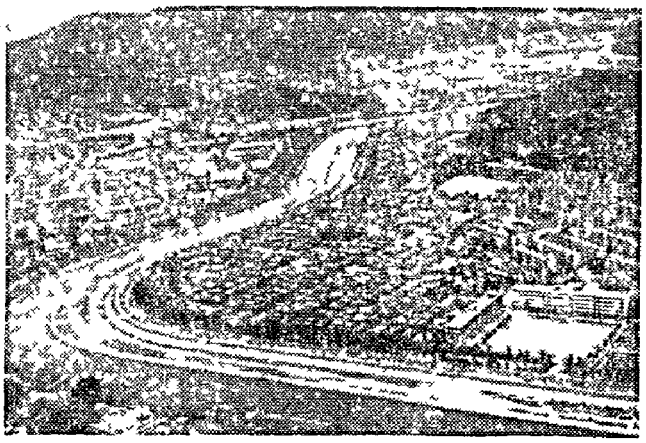

시흥군 공설운동장이 위치해 있던 신촌일대(1971)

석수2동은 수도 서울의 관문에 위치하여 서울 광명시와 인접해 있으며 관악 석수역 등과 제2경인고속도로 경수산업도로 등으로 교통의 요충지로 서울의 남부를 연결하고 특히 동 전체 가구의 65%가 공동주택 밀집지역이다

석수2동은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3 43㎢ 세대수 9 909세대 인구수 29 776명 인구밀도 1㎢당 8 681명이다 석수2동사무소(1980 1 29 건립 부지면적 632 2㎡ 연면적 518 24㎡)는 석수2동 265-807에 있다

12) 석수3동 (石水三洞)

석수3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안양리(衿川縣 縣內面 安養里)였다가 정조 19년(1795) 음력 윤2월 1일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始興縣 縣內面 安養里)로 되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 98호에 의거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始興郡 郡內面 安養里)로 개칭 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로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신안양리(安養邑 新安養里)로 되었다가 다시 1964년 1월 1일 안양읍 신안양3리(安養邑 新安養三里)로 각각 개편한 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이 되었다 1979년 4월 28일 시 조례 제340호에 따라 석수1동을 분동해 중훈부 화장동 등의 제 지역을 석수2동(石水二洞)이라 하였으며 이어 1989년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다 1990년 1월 1일 인구의 급격한 증가 추세에 따라 석수2동 중 충훈부지역을 분동해 '석수3동(石水三洞)'이라



칭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 **석수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 노현 (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 (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 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전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전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안양리 (始興縣 縣內面 安養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 (始興郡 郡內面 安養里)
- 1914 3 1 시흥군 동면 안양리(始興郡 東面 安養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신안양3리(始興郡 安養邑 新安養三里)
- 1973 7 1 안양시 석수동(安養市 石水洞)
- 1979 4 28 안양시 석수2동(安養市 石水二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0 1 1 안양시 석수삼동(安養市 石水三洞)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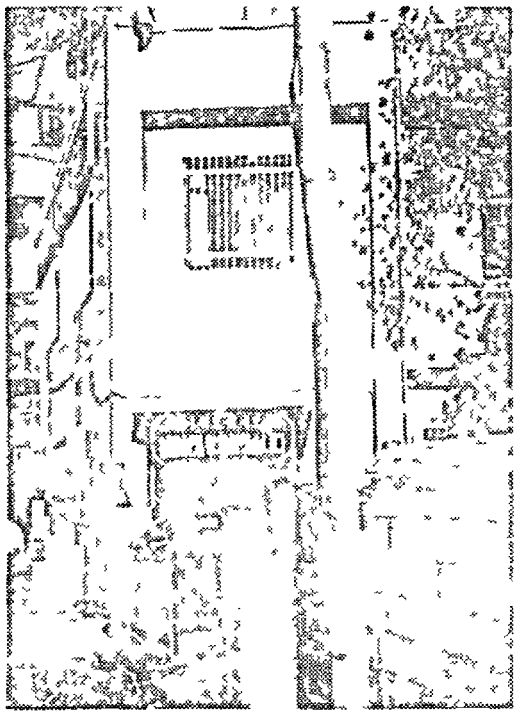
석수3동은 동(東)으로 안양2동 석수2동 서(西)로 광명시 일직동 남(南)으로 박달1동 박달2동 북(北)으로 석수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충훈부(忠勳府)가 있다 안양시의 박달동 석수동 등이 속한 조선시대 시흥군 유일의 기관인 충훈부란 관아가 소재해 있던 지역으로 일제강점기에는 밤의 명산지로 1950년대에는 화훼와 고등소채로 부(富)를 이루었다가 1983년 도시계획에 따라 괘동되자 주공아파트를 비롯한 아파트와 빌라 연립주택 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더우기 시내버스(삼영운수) 2 2-1 6 6-1 6-3 8 8-1 9 등 9개 노선이 운행되어 교통은 원활한 편이다 주공아파트는 2단지(201동 ~ 224동)와 3단지(301 ~ 310동)로 되어있고 영광 우성 로얄 극동 태건 등의 빌라와 연립주택이 빽빽히 들어서 신

시가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푸른산 등 자연적 휴식공간으로 깨끗한 환경과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석수초등학교(석수3동655)와 안양중학교(석수3동 752)가 있고 기업체는 삼영운수 1개업체이다

석수3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69㎢ 세대수 5 766세대 인구수 18 363명 인구밀도 1㎢당 26 613명이다 석수3동사무소(1991 3 9 건립 부지면적 844㎡ 연면적 495 72㎡)는 석수3동 600-3 4이다

13) 박달1동 (博達一洞)

박달1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박달리(衿川縣 縣內面 博達里)였다가 제22대 정조 때(1795)만안교를 가설한 후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始興縣 縣內面 博達里)로 되었다가 고종 때(1895)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始興郡 郡內面 博達里)로 개칭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면 박달리(始興郡 西面 博達里)라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박달리(安養邑 博達里)로 되었고 다시 1964년 1월 1일 호현동(虎峴洞) 지역을 박달1리로 그 외 지역을 박달2리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박달동(博達洞)'이 되었다


박달1동사무소(1996)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따라 박달동을 분동해 '박달1동(博達一洞)'이 되었다

■ **박달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 금양현(衿果縣 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 (始興縣 縣內面 博達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 1914 3 1 시흥군 서면 박달리(始興郡 西面 博達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始興郡 安養邑 博達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1 2리(始興郡 安養邑 博達一 二里)
- 1973 7 1 안양시 박달동(安養市 博達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4 7 1 안양시 박달1동(安養市 博達一洞)

박달1동은 동(東)으로 안양2동 안양3동 서(西)로 박달2동 남(南)으로 안양3동 북(北)으로 석수3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박달1동사무소 동남쪽(구 대농단지 초입)에 어수정(御水井)이란 우물 하나가 있었는데 이 우물은 지금으로 부터 2백여년전 정조대왕이 수원화산능행을 하기 위하여 안양에서 잠시 휴게하다가 갈증이 나자 이 우물물을 마셨다고 전해질 만큼 안양일대에서는 수질이 가장 우수하여 금성방직 등의 공장이 들어섰다고 한다

박달동 박달로 주변 왼쪽 축대 위는 대농단지임(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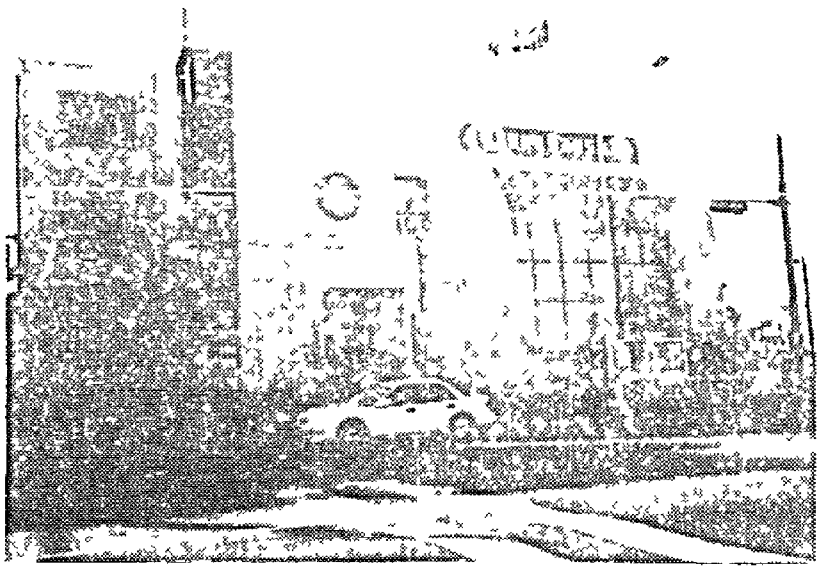
본래 박달1동사무소는 일대는 먹해이들이라고 불렀는데 박토여서 농사짓기에는 적합지 않았는데 일제강점기인 1937년경 박달2동 붓골 살던 권공선(權公先 시흥시 산현동 출신으로 알려짐)이 경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 건설로 마을이 폐동되자 농사를

짓기 위해 지금에 박달1동사무소 부근에 처음으로 정착한 후 일제말엽부터 차차 민가가 형성되기 시작했다고 한다 박달1동은 서안양의 중심동 역할을 하는 경제교통의 중심지로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의 밀집주거 지역이지만 상대적으로는 낙후지역이 잔존해 있다 그것은 기관과 교육시설의 부재에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기업체는 20여업체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93㎢ 세대수 6 930세대 인구수 21 060명 인구밀도 1㎢당 22 645명이다 박달1동사무소는 박달1동 19-1에 있다

14) 박달2동 (博達二洞)

박달2동사무소(1996)



박달2동은 조선시대에는 금전현 현내면 박달리(衿川縣 縣內面 博達里)였다가 제22대 정조 때(1795)만안교를 가설한 후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始興縣 縣內面 博達里)로 되었다가 고종 때(1895)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始興郡 郡內面 博達里)로 개칭되었다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면 박달리(始興郡 西面 博達里)라 했다가 1963년 1월 1일 법률 제1175호에 의거 안양읍 박달리(安養邑 博達里)로 되었다가 다시 1964년 1월 1일 호현동(虎峴洞)지역을 박달1리로 그 외 지역을 박달2리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박달동(安養市 博達洞)'이 되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만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만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1994 6 28 공포)에 따라 박달동을 분동해 '박달2동(博達二洞)'이 되었다

■ **박달2동의 변천 일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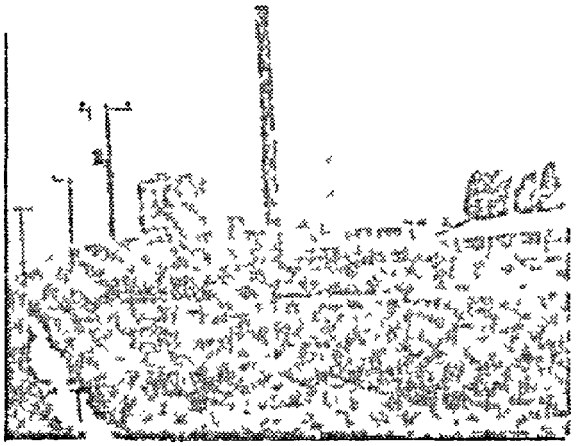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잉벌노현(仍伐奴縣)

- 신라 경덕왕 16년(757) 곡양현(穀壤縣)
- 고려 태조 23년(940) 금주(衿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금천현(衿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금양현(衿陽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정조 19년(1795)음(윤 2 1) 시흥현 현내면 박달리 (始興縣 縣內面 博達里)
- 조선 고종 32년 (1895) 5 26 시흥군 군내면 박달리 (始興郡 郡內面 博達里)
- 1963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리(始興郡 安養邑 博達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박달1 2리(始興郡 安養邑 博達一 二里)
- 1973 7 1 안양시 박달동(安養市 博達洞)
- 1989 5 1 만안출장소(萬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만안구(萬安區)에 편제
- 1994 7 1 안양시 박달2동(安養市 博達二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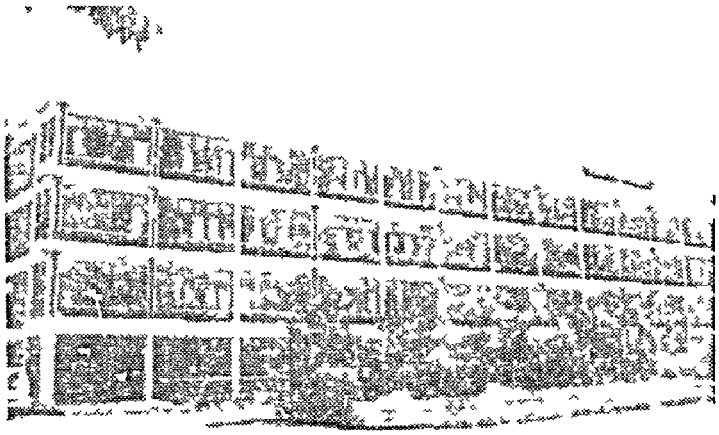
박달2동은 동(東)으로 박달1동 서(西)로 시흥시 목감동 남(南)으로 안양3동 북(北)으로 석수3동 광명시 일직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능골(陵谷) 동수암(東秀岩) 막상골 미름물 범고개(虎峴) 붓골(筆洞 富谷) 삼봉마을(三峯洞) 샛터말(新基村) 선녀골(仙女谷) 양회다리 웃말(上村) 웃박달리(上傳達里) 친목마을(親睦洞) 횃골 등이었으나 동수암 막상골 미름물 선녀골 양회다리 웃말 웃박달리 횃골 등은 군용지건설로 폐동되었다

안산 시흥 광명 인천의 서부관문인 박달동은 지금의 박달삼거리에서 곤두레미고개에 이르는 제지역은 수리산과 무쇠봉 등의 산세와 땅이 비옥하고 수원이 풍부해 농업을 하는 데에는 최적지역서 일찍부터 취락이 발달되었으나 1930년대에 일제에 의해 경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의 건설로 동수암을 비롯한 취락은 모두 폐동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있던 후령군(厚寧君) 엄정구(嚴鼎耉) 엄황(嚴愰) 엄성(嚴惺) 등의 묘 및 구만(충신)의 정문(旌門) 등 선현묘와 문화재가 일실되었다 이 군용지의 건설로 이곳을 거쳐 안산지방을 왕래하던 도로는 폐쇄되고 박달삼거리에서 호현(범고개) 시흥시 목감동을 잇는 우회도로(박달로)가 신설되었다

박달2동은 근교 영농지역으로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지역이 많은 관계로 다른 동(洞)에 비해 낙후성을 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안양전과 박달전을 끼



박달로와 노루표페인트 공장(1970)★



명문교인 안양고등학교(1993)★

고박달로 등 교통의 발달로 만도기계(주) 삼아알루미늄(주) 대한페인트잉크(주) 동서유리공업(주) 등 90여개의 유수의 공장이 속속 건설되면서 공장지대로 변모되기 시작했고 우성아파트 극동아파트 승리아파트 신안아파트 금호아파트 삼신아파트 신한아파트 등으로 농촌지대에서 시가지로 점차 일신되고 있으나 더욱 발전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및 군사보호시설이 단계적으로 풀려 주택 또는 공업지역으로 진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관은 박달파출소 1개소에 금융기관 1개소 교육기관은 박달초교(박달2동 128-7) 안양고(박달동 144-3)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 박달2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6 9㎢ 세대수 4 621세대 인구수 15 538명 인구밀도 1㎢당 2 251명이다 박달2동사무소(1995 7 19 건립 부지면적 467㎡ 연면적 813 83㎡)는 박달2동 124-7외 13에 있다

박달동의 '박달'은 '밝다' 즉 '밝은 산' 또는 '밝은 땅'의 뜻으로 보기도 하지만 '머리'나 '뫼'의 옛말로 봄이 좋을 것이다 언어학자들은 이 '박'이 '받'에서 나온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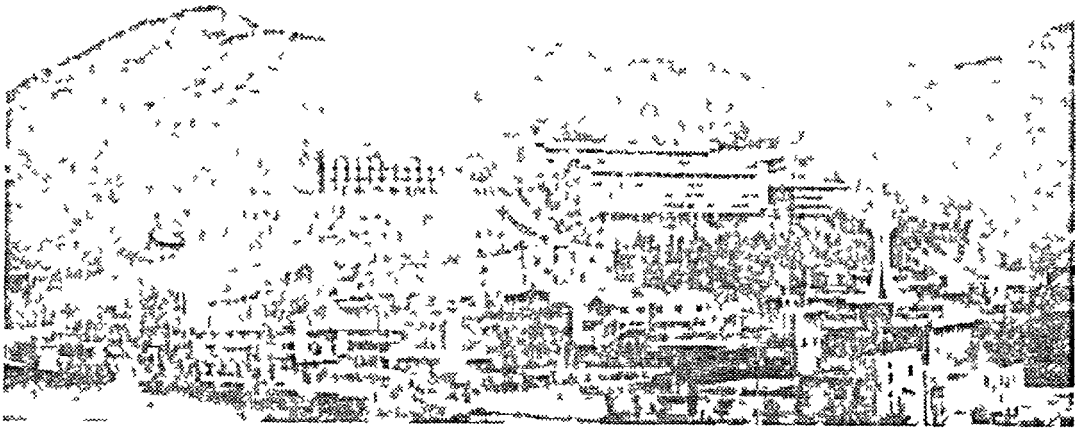
받 〉 발 〉 밝 〉 박(또는 받) 〉 박

지금의 말의 '박치기'란 말을 보면 '박'과 '치기'가 합해져 나온 말임을 알 수 있는데 여기서의 '박'은 곧 '머리'를 나타낸다 '머리로 받다'라고 할 때의 '받다'는 '받(머리)'에서 파생한 동사이다 '이마 팍' '대갈곽'에서의 '곽'도 '박'에서 나온 것이다 결국 '박달'은 '머리 산(頭山)'의 뜻이 아닌가 이것은 결국 '높은 산'의 뜻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배우리『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1994 74~75쪽 참조〉

5) 비산1동 (飛山1一洞)

비산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면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1리(安養邑 飛山1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飛山洞)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동 중 수푸루지(林谷洞 林川)지역을 '비산1동(飛山一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임곡동 전경(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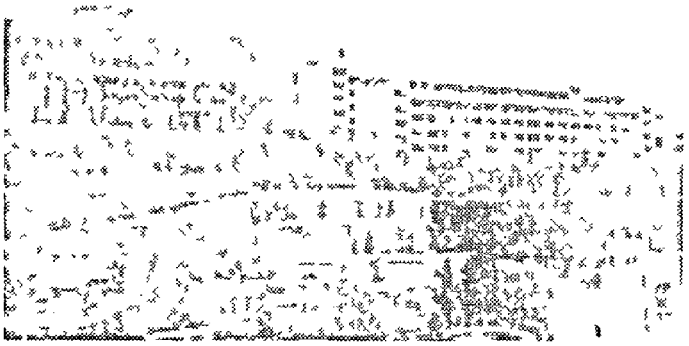


■ **비산1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외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

- 1914 10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面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1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一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9 9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비산1동은 동(東)으로 비산3동 서(西)로 안양1동 남(南)으로 비산2동 북(北)으로 안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수푸루지(林谷洞 林川)가 있다


대림전문대학 전경(1993)★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집단주거지인 비산1동은 이곳의 중심마을인 수푸루지란 지명이 의미하듯이 산림이 우거진 산간지대였다가 조선 중기에 인조반정의 일등공신이었던 심기원(沈器遠)이 부친(沈諒)의 묘를 대림전문대 뒤에 쓴 후 후손인 청송 심씨가 묘하에 정착하면서 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 후 관악로와 경수산업도로의 개설과 주공아파트(2단지)가 건립되면서 동세(洞勢)가 급격히 신장되었지만 지은지가 20여년이 경과한 탓에 건물(아파트)이 낡아 재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관내의 아파트는 주공아파트가 54개동에 2 638세대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우성아파트가 8개동에 295세대 장미아파트가 2개동에 40세대 그밖에 원건 기오 성도 덕산 등의 아파트가 각각 1개동씩 모두 116세대가 입주하였다 기관으로는 비산파출소(비산1동 459-1) 1개소가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대림전문대(비산1동 526-7) 동초등학교(비산1동 산133-1) 등이 있으며 또 평화보육원(비산1동 산136) 비산복지관(비산1동 510-5)과 금융기관도 상업은행 비산동출장소(비산1동 550-1)과 비산1동 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82㎢ 세대수 6 512세대 인구수 19 374명 인구밀도 1㎢당 10 645명이다 비산1동사무소는 비산1동 459-3에 있다

유적으로는 안양유일의 향교지(鄕校址)와 류정현(柳廷顯 영의정) 심간(沈諒 정

풍군수) 등의 선현 묘가 있다 비산동은 예로 부터 농악이 유명했다 인근지방에서 농악하면 으레 날미(飛山)를 연상할 만큼 이곳의 농악은 널리 알려졌다 이 날미농악이 1995년에 제 1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발굴상을 수상했고 이어 1996년 9월 수원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된 제10회 경기도 청소년 민속 예술제에서 장려상을 수상한 바 있는데 「날미농악」이 어떤 농악인가를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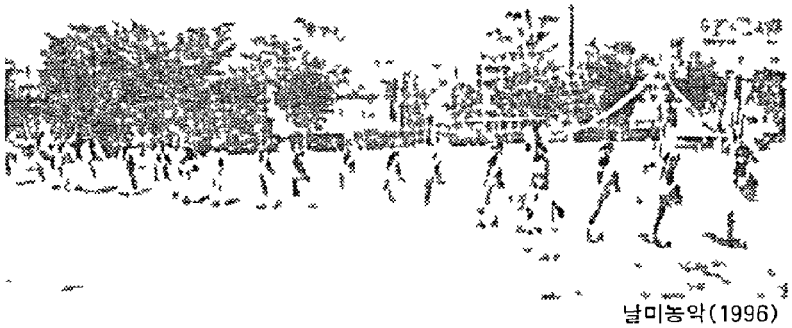
날미농악의 배경

이승언

날미 - 한자로는 飛山 이라고 쓴다

오늘날의 비산동은 지칭하는 말이다 본래 날미는 현 안양종합운동장 남문 부근에 있던 구리 고개에서 보죽 능선을 따라 동쪽 지역을 안날미(內飛山)라 칭하고 그 서쪽지역을 밖날미(外飛山)라 칭했다 날미는 지형적으로 명산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싸여 있고 마을 앞은 넓은 농경지가 펼쳐진 천혜의 삶의 터전이다

마을 앞의 다라니들은 일명 만마지가들 이라고 칭할 만큼 광활한 농경지였다 현재는 평촌 신도시 구역에 편입되어 아파트군을 이루고 있지만 예전에는 안양을 대표하는 곡창지였다 날미농악이 언제부터 시작 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알수가 없지만 적어도 조선 후기에는 활발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고종2년(1865) 경복궁 중건 때 부역하는 사람들의 노고를 덜어 주고자 참가 하였는데 전국 각처에서 모인 농악대 가운데 날미농악대의 기량이 단연 으뜸이었다고 한다 이후부터 장원농악 이란 별명이 붙여져 인근에서는 농악하면 날미농악대를 떠오르곤 하였다고 한다 특히 융희 2년(1908) 순종황제로 부터 하사받은 농기(農旗)를 마을 사람들은 큰 자랑으로 여겼다 이 농기는 70×50cm 정도의 적색천에 중앙에는 다시 50×30cm 정도의 흰색천을 붙이고 중앙에는 종서로農商工部라 쓰여 있고 그 우측 상단에는 隆熙二年'이라고 썼으며 그 좌측에는 京畿道 果川郡 上西面 飛山里라 쓰여 있었다고 한다


날미농악(1996)

이 농기는 신임이 두터운 마을의 인사가 소중히 간직했다가 마을의 행사가 있거나 농번기에 농악 놀이가 거행되면 주민들은 농기 앞을 함부로 왕래하지 않고 큰 절을 하는 등 외경시 하였다 더

우기 6 7월경 다라니들에서 김맬때 흥을 돋우고 피로를 덜기 위하여 칠때와 김매기가 끝난 후 농신(農神 농기)으 모시고 풍년을 기원하는 놀이가 벌어질때에는 마을 주민들은 물론 인근의 주민들까지 합세하여 신명나는 한마당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듯 명성을 날렸던 날미농악도 일제가 강점한 후 1920년대에 이르러 간악한 일제의 탄합으로 주민간의 단합을 한다는 이유로 농기가 회수되고 농악대를 강제로 해산시키자 이후부터 자취를 감추었다

그동안 안양문화원이 중심이 되어 날미농악의 복원을 위해 부단한 노력 끝에 이제야 결실을 보게되었다 광복50주년을 맞이하는 해에 안양 고유의 문화특성을 되살리고 나아가 안양의 옛 놀이문화를 재현함에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할 것이다

1995 9

비산동의 안양종합운동장 윗쪽에 '날미'라는 긴 등성이가 있는데 이 등성이가 이룬 골짜기의 안쪽에 있는 것이 '안날미'이고 바깥쪽(지금의 큰 길쪽)에 있는 것이 '밧(박)날미'이다 '날미'는 등성이가 길게 늘어져 '널미' 또는 '늘미'로 불렸던 것이 모음 변화를 일으켜 정착된 것인데 이 '날미'가 '날아가는 뫼' 저럼 들려 한자로 비산동(飛山洞)이 된 것이다 안날미는 한자로 내비산(內飛山)이라 하고 밧(박)날미는 외비산(外飛山)이라 한다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 1994 70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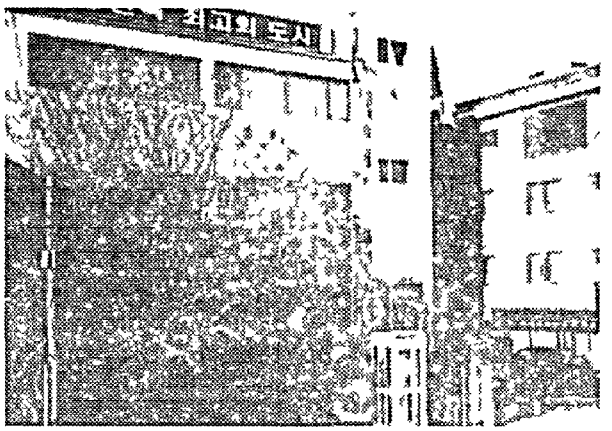
그러나 한글학회가 발간한 『한국지명총람』 경기도 안양시편에 '날미(비산) 비산동과 석수동 경계에 있는 산 높이 300 4m 새가 나는 모양이라 함'이라 하여 산명(山名)에서 유래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는데 옛 문헌은 물론 향토 원로들도 그러한 산명은 실재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예로부터 비산동(리) 정에 관한 전설이 내려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주 먼 옛날에는 비산동 일대가 허허벌판이었는데 하루 밤을 자고나니 어디에서인가 산이 날아와 현재의 모습으로 변모되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산(어떤 산을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음)을 비산(飛山)이라 했다는 것이다

16) 비산2동 (飛山二洞)

비산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2리(安養邑 飛山二里)로 개편

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飛山洞)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동을 중 달안동(達安洞) 샘모루(泉隅) 희성촌(喜星村)등의 제 지역을 '비산2동(飛山二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된후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비산2동을 비산2동 비산3동(飛山三洞)으로 분동되었고 다시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로 비산2동 비산3동(飛山三洞)으로 분동되었으며 이어 1992년 10월 1일 내무부 승인 제892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비산2동사무소(1996)

■ **비산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전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 (1895) 5 26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西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2동(始興郡 飛山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비산3동(飛山三洞)분리
- 1992 5 1 부흥동(復興洞)분리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비산2동은 동(東)으로 비산3동 서(西)로 안양7동 남(南)으로 부흥동 북(北)으로 비산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샘모루(泉隅) 희성촌(喜星村)등이 있다 주공아파트(1단지)를 비롯하여 삼익 미륭 진흥 임곡 등 아파트가 밀집한 비산2동은 안동 권씨가 정착한 이래 문화류씨 진주 강씨 등이 세거해 왔는데 이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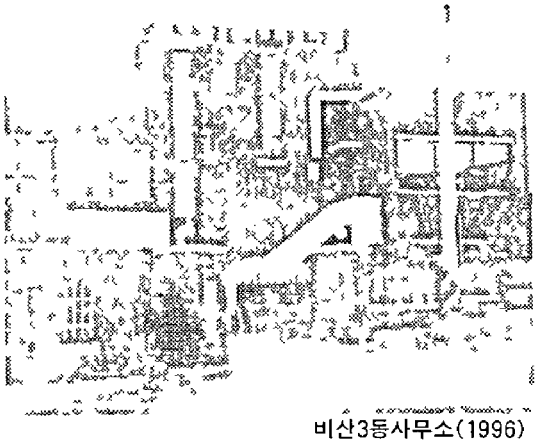
비산2동 전경(1989년 석우회 회원 최장선 촬영)

은 지금의 수도군단 초입 학의전에 큰 보(덕보)를 막아 농사를 지을 정도로 수답(水畓)보다는 대부분의 지역이 천수답(天水畓)이었다 농사짓기에는 보잘것 없는 땅이었으나 예로부터 안양의 금소반(仝小盤)이라 하여 명당 중의 명당으로 손꼽히던 곳이었다 그래서 일제강점기에는 실업가 박흥식(朴興植)에 의해 비행장 건설이 계획된 바 있었고 1989년 신도시 평촌지구에 80ha가 편입되었다 교육기관으로는 안양중앙초등학교(비산2동 423) 등이 있고 금융기관으로는 농협 비산지소(비산2동 571-1) 수협 비산동출장소(비산2동 422-13) 비산2동 3동 새마을금고(비산2동 414-7)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46㎢ 세대수 4 790세대 인구수 15 078명 인구밀도 1㎢당 32 778명이다 비산2동사무소는 비산2동 418-13이다

17) 비산3동 (飛山三洞)

비산3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면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2리(安養邑 飛山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



비산3동사무소(1996)

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이 되었고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2동이라 칭했다가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된 후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비산2동 중 안날미(內飛山) 마장골(梅谷洞) 구름울(雲谷洞) 등의 제 지역을 '비산3동(飛山三洞)'이라 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 **비산3동의 변천 일람**


안양종합운동장(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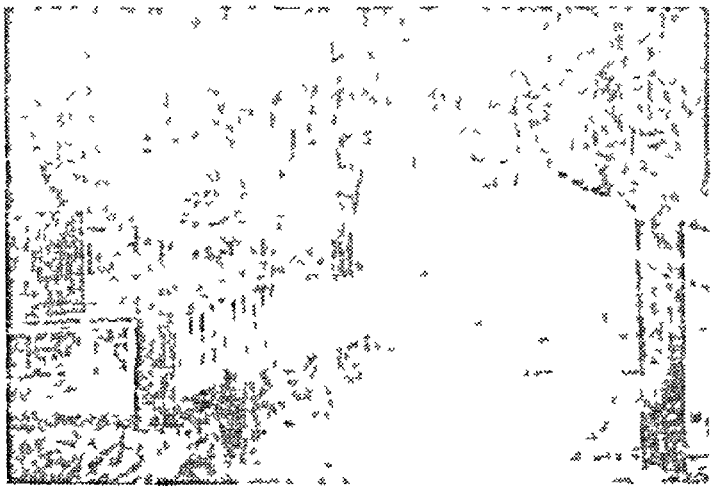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외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西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2동(安養市 飛山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비산3동(安養市 飛山三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비산3동은 동(東)으로 관양1동 과천시 갈현동 서(西)로 안양2동 석수1동 비산1동 남(南)으로 달안동 북(北)으로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안날미(內飛山) 마장골(梅谷洞) 구름울(雲谷洞) 등이 있다

관악산 남쪽에 자리한 비산3동은 군사보호시설과 개발제한구역이 동 전체면적의 80%를 육박할 만큼 개발의 편차가 심한 곳이며 수많은 문화유적이 도시화로 과괴 또는 일실되었다 석수1동과 접경지역인 불성사 초입은 12세기 ~ 14세기의 정자 가마터와 14세기의 백자 가마터가 있으며 마장골과 103번 시내버스 종점 부근에 관아와 구류장이 있었다고 하나 그 위치조자 과악되지 않고 있으며 비산초등학교 부근에

는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의병장이었던 심수경(沈守慶)이 관직에서 물러나 만년을 보낸 퇴로정(退老亭) 역시 정확한 위치가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전통사찰로 불성사가 현존하나 관악산 일대에는 현재 많은 절터가 방치되고 있는데 파괴되기 전에 학술적인 조사가 실시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선현 묘는 이석근(李石根 익경부원군) 이종용(李從龍 양전현령) 이정용(李廷龍 감찰) 이기(李岐) 장언방(張彦邦 한성부관윤) 등의 묘가 있다 비산3동은 지리적으로는 관악산이 병풍처럼 둘러쌓인 전체의 주거지역으로 관악산 산림욕장을 비롯하여 매천약수 불당약수 상불당약수 설전약수 신매천약수 장수약수 충의약수 등의 약수터와 안양종합운동장과 실내수영장이 소재해 있어 안양 관내에서는 주거환경에 있어서는 단연 으뜸이다

관악산산림욕장(1990년대)▲



공공기관으로는 안양종합운동장(비산3동 1023)이 있고 교육기관은 비산초등학교(비산3동 315-1)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비산동지점(비산3동 360-17) 중소기업은행 비산3동지점(비산동 1031-10)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5 54㎢ 세대수 8 727세대 인구수 27 357명 인구밀도 1㎢당 4 944명이다 비산3동사무소는 비산3동 318-79에 있다

18) 부흥동 (復興洞)

부흥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상서면 외비산리(果川縣 上西面 外飛山里)라 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상서면 비산리(果川郡 上西面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면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비산2리


부흥동(1993)★

(安養邑 飛山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비산동이 되었다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호에 의거 비산동이 되었다가 1982년 9월 1일 시 조례 제556에 의거 비산2동(飛山二洞)이 되었다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됨과 동시에 같은 날(1992 5 1) 시 조례 제1161호에 의거 '부흥동(復興洞)'이 신설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에 따라 부흥동을 부흥동 달안동(達安洞)으로 분동되었다

■ **부흥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面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일동(安養市 飛山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부흥동(復興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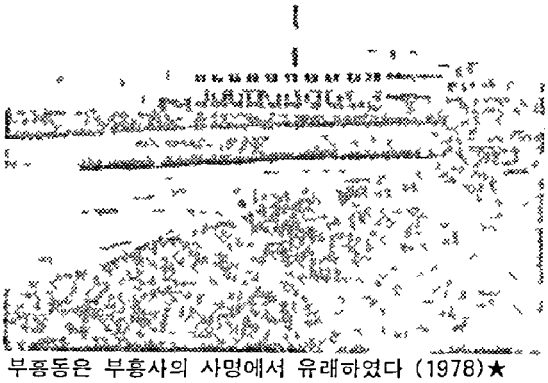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달안동(達安洞) 분리

부흥동은 동(東)으로 달안동 서(西)로 호계2동 남(南)으로 범계동 북(北)으로 비산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청구 벽산 한양 신성 주공 성원 관악타운 부영 등 주거용 아파트 72개동이 있는 공동 주택밀집지역으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가 공존하나 임대아파트가 489세대나 되어 영세민 집단거주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시기)
청구아파트	은하수	1104	6	502	'92 6 15
벽산아파트	은하수	1103	9	620	'92 5 31
한양아파트	은하수	1103-9	5	716	'92 8 20
신성아파트	은하수	1103-4	8	508	'92 11 7
주공아파트	관악	1102-9	3	480	'92 8 27
성원아파트	관악	1102-7	7	790	'92 9 29
관악타운아파트	관악	1102	24	1800	'92 11
부영아파트	관악	1102-4	10	796	'93 10



부흥동은 부흥사의 사명에서 유래하였다 (1978)★

교육기관으로는 부흥초등학교(비산동 1102-8) 부흥중학교(비산동 1102-1) 부흥고등학교(비산동 1102-2)가 있고 금융기관은 상업은행 평촌출장소(비산동 1102) 한일은행 평촌출장소(비산동 1102) 농협 부흥지소(비산동 1102-7)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 부흥동은 면적 0 50㎢ 세대수 7 084세대 인구수 23 340명 인구밀도 1㎢당 46 680명이다 부흥동사무소는 비산동 1103-1에 있다

부흥동이란 동명은 현 부흥동 서쪽 경수산업도로변(비산2동 576-7)에 '부흥사(復興社)'란 공장이 있었는데 그 후 1984년 그 자리에 부흥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관내에 있는 교명을 부흥초교 부흥중 부흥고로 명명하자 입주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부흥동(復興洞)'이라 칭하였다

19) 달안동 (達安洞)

평촌전화국 개국 테이프 커팅(1993 8 20)★



단안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外飛山里)였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비산리(安養面 飛山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비산리(安養邑 飛山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비산동(飛山洞)이 되었다가 1982년9월1일 시 조례 제556호에 따라 비산동을 달안동(達安洞) 샘모루(泉隅) 희성촌(喜星村) 등의 제지역을 비산2동(飛山二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5월 1일(1992 5 7 공포)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비산2동을 비산2동 부흥동(復興洞)으로 분동한 후 동년 10월 1일 시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5월20일 시 조례 제1285호(1993 5 20 공포)에 따라 부흥동을 분동해 '달안동(達安洞)'이 되었다

■ **부흥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전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전군 상서면 비산리 (果川郡 上西面 飛山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始興郡 西二面 飛山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비산리(始興郡 安養面 飛山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비산리(始興郡 安養邑 飛山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비산2리(始興郡 安養邑 飛山二里)
- 1973 7 1 안양시 비산동(安養市 飛山洞)
- 1982 9 1 안양시 비산일동(安養市 飛山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부흥동(復興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달안동(達安洞) 분리

달안동은 동(東)으로 부림동 서(西)로 부흥동 남(南)으로 범계동 북(北)으로 비산3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신도시개발 이전에는 삿갓들(笠坪) 또는 다라니들(달안이들 만마지기들)이라고 불리웠던 지역으로 평촌신도시 개발지역내에 서는 가장 큰 들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 말엽에는 박흥식(朴興植)이 안양3동 소재 조선직물을 인수한 후 이 일대에 조선비행기주식회사의 활주로 공사를 실시하다가 이듬해(1945) 광복이 되자 중단되었다 1989년에 마을이 폐동되자 신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공동주택밀집지역으로 변모되어 주거용 아파트 41개동이 조성되었다 그러나 전체의 70%가 임대아파트여서 주민대다수가 서민계층에 속하고 타지역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관계로 내고장에 대한 애착심의 결여가 단점으로 자적되고 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시기
한양샛별	샛별단지	비산동1109	5(601~605동)	766	
		비산동1109~4	7(606~612동)	1 266	
		비산동1109~6	6(613~617)	825	
		비산동1109~3	3(618~620)	68	
		비산동1101~2	8(101~108)	1 531	
		비산동1101~6	8(201~208)	963	
		비산동1101~8	5(301~305)	7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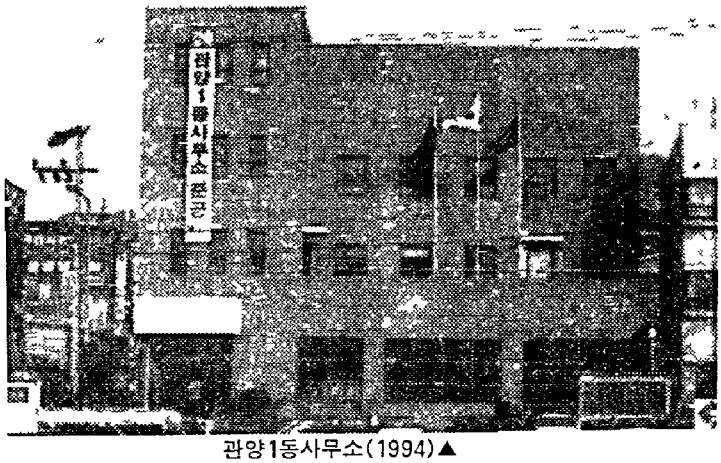
공공기관으로는 동안구청(비산동1111)을 비롯하여 동안구보건소(비산동1111) 평촌우체국(비산동 1110) 평촌전화국(비산동 1110-2) 등과 교육기관으로는 달안초등학교 (비산동 1109~1) 희성초등학교(비산동1101~1) 관악정보산업고등학교(비산동1101) 등과 금융기관은 농협 안양시 지부(비산동1113~1)가 있다 1996년 9월 30

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44㎢, 세대수 6 154세대 인구수 18 218명 인구 밀도는 1㎢당 41 404명이다 달안동사무소는 비산동1101~5에있다

달안동(達安洞)은 전술한 바와 같이 넓은 들판에 위치한 지역으로 예전에 비가오면 가릴 것이 없어 삿갓을 쓰고 달아나야 비를 피할 수 있다하여 '삿갓들(笠坪)'이라고 불렀다 즉 빨리 달아나야 한다고 하여 다라니 또는 달안이라고 했는데 이를 한자화 하면서 '달안동(達安洞)이라 했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땅 이름학회 배우리회장은 " 달안(다라니)'의 한자식 지명은 월내(月內)이다 이것은 '달안'의 '달'과 '안'을 각각 월(月)자와 내(內)자로 뜻 옮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의 '달'은 산(山)이 아니고 '들(野)'이다 따라서 '달안'은 '들가운데'를 뜻하고 있다"는 견해를 피력한다

20) 관양1동 (冠陽一洞)

관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1동 2동(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일동리(安養面 一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일동리(安養邑 一洞里)라 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동(冠陽洞)이 되었다가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관양동 중 가운데말(中村) 골안(谷內) 동편(東便) 말무덤이(馬墳洞) 부림말(富林洞) 뺌말(秀村) 샛말(間村) 오촌말(吳村洞) 등의 제 지역을 '관양1동(冠陽一洞)'이라 칭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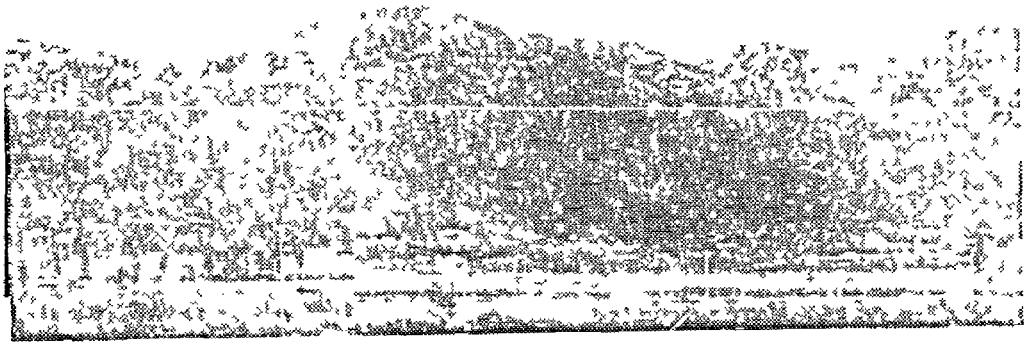

관양1동사무소(1994)▲

■ **관양1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始興郡 安養面 一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관양1동(安養市 冠陽一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관양1동 전경(1970)★



관양1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포일동 및 과천시 갈현동 서(西)로 비산3동 남(南)으로 관양2동 부림동 북(北)으로 과천시 갈현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가운데말(中村) 골안(谷內) 동편(東便) 말무덤이(馬墳洞) 부림말(富林洞) 빼말(秀村) 샌말(間村) 오촌말(吳村洞) 등이 있다

› 도시와 농촌이 병존하는 관양1동은 조선시대에는 관아가 있는 과천으로 가는 길목으로 고개 셋을 넘어야 갈 수 있다고 하여 삼현원정리(三峴院井里)라 부르기도 하였던 곳으로 시제 실시 후 관악로의 개설과 안양 6지구 구획정리로 현대 아파트를 비롯하여 다세대 연립주택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유입이 급증한 신흥도시 주거지역이긴 하나 개발 제한 구역이 동 전체 면적의 절반을 넘는 도농복합지역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 주요기관은 동안양세무소(관양1동 1451) 동안파출소 관양우체국 등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관양초등학교(관양1동1407) 관양중학교(관양1동 1407-3)가 있다 또 금융기관으로는 관양1동새마을금고(관양1동 1406-38) 관양동새마을금고분소(관양1동 1406-38) 안양농협관양지소(관양동 143-9) 경기은행 관

양동출장소(관양동 1406-47) 축협관양지소(관양동 1406-49) 서울은행 관양동지점(관양동 1403-4) 조흥은행관양동지점(관양동 1384-26) 주택은행 관양동지점(관양동 1458-1) 동화은행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3 20㎢ 세대수 10 718세대 인구수 32 918명 인구밀도 1㎢당 10 286명이다 관양1동사무소는 관양1동 1432-15에 있다

이곳은 예로부터 명당길지(明堂吉地)로 안명세(安名世 홍문관정자) 오문서(吳文瑞 학자) 오익서(吳益瑞 학자) 오병선(吳炳善 교육자) 류계장(柳季장 점지중주부사) 류녕(柳寧 전주관관) 이후달(李厚達 능주현감) 홍헌표(洪憲杓 제신부장관) 이면훈(李冕薰 기업가) 오상(吳尙 순전부사) 오윤경(吳胤慶 산음현감) 등의 묘소가 있으며 (이 중 일부는 화장 또는 이장됨) 뺌말(秀村)의 관악산 산신제는 400여년간 면면히 내려온 동제(洞祭)이다

관양1동(이하 관양2동 포함)의 유래는 1948년 지금에 관양동1407에 관양초등학교를 건립하면서 교명을 지을때 관양동 출신 오병선(吳炳善 1904~1979)이 '관악산 아래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학교'라 하여 관악산의 '관(冠)'자와 양지의 '양(陽)'자를 취해 관양초등학교라 하였는데 그후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교명을 취해 '관양동(冠陽洞)'이라 하였다

21) 관양2동 (冠陽二洞)

관양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의거 안양면 일동리(安養面 一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일동리(安養邑 一洞里)라 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동(冠陽洞)이 되었다 그 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관양동 중 인덕원과 신흥동 지역을 '관양2동(冠陽二

관양2동사무소(1993 『관양동지』에서)



洞)'이라 칭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관양2동 부림동(富林洞)으로 분동되었다

■ **관양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始興郡 安養面 一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관양2동(安養市 飛山二洞)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부림동(富林洞)분리

관양2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포일동 서(西)로 부림동 남(南)으로 평촌동 평안동 북(北)으로 관양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신흥마을(新興洞)과 인덕원(仁德院)이 있다 안양동부에 위치한 관양2동은 서울 과천 및 의왕시의 접경지역으로 동안출장소를 비롯한 관청과 대한전선 크라운제과 삼성물산 등 기업체가 운집한 중소기업 지대이며 인덕초교 등의 교육기관과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공동주택 지역이다 또 평촌신도시지구에 60ha가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정 - 사당간 지하전철이 경유하는 미래의 주거지로 각광받는 곳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 서울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교통로여서 조선 중기에는 임진왜란의 명장 이순신(李舜臣)과 후기에는 정조가 부왕의 묘를 참배하기 위하여 지나던 중 일시 휴게(休憩)하기도 해 일찌기 선술집 주막 등이 성행하였다 문화유적으로는 조선시대 공용(公用)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했던 인덕원(仁德院)이 있었으

이태응 선정비(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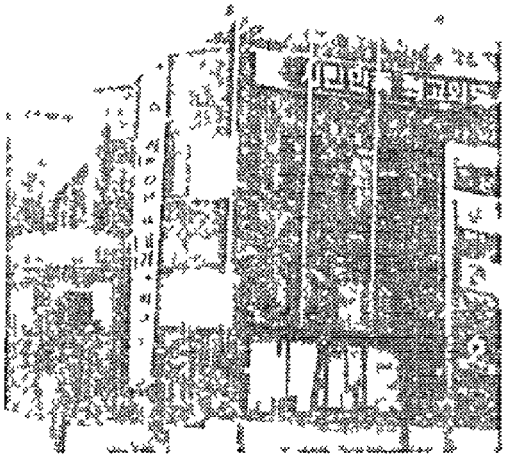


나 임진왜란 이전에 이미 폐치되어 그 위치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으며 그 밖에 인덕원 주막 선술집 등은 도시화로 주택 여관 등이 들어서 그 흔적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변모되었는데 다만 인덕원 사거리와 인덕원교 사이 노변에 고종 3년(1866)부터 고종 5년(1868)까지 과천현감을 지낸 이태응(李泰應)의 송덕비가 있을 뿐이다 교육기관으로는 인덕원초교(관양2동 210) 관양여자중(관양2동 1482) 등이 있고 금융기관은 관양2동 새마을금고(관양2동 1491-9) 중소기업 은행인덕원지점(관양2동 1488-35) 국민은행 인덕원지점(관양2동 1474-21)가 있으며 기업체는 대한전선(관양2동 785) 크라운제과(관양2동 810) 삼성물산(관양2동 922)가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81㎢ 세대수 5 208세대 인구수 14 965명 인구밀도 1㎢당 8 267명이다 관양2동사무소는 관양2동 1482-3에 있다

22) 부림동 (富林洞)

부림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일동리(安養面 一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일동리(安養邑一洞里)라 했다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동(冠陽洞)이 되었다가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0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027호에 의거 관양2동이 된 후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조례 제1245호로 '부림동(富林洞)'이 되었다



부림동사무소
(1996 부림동사무소 제공)

■ 부림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일동리((始興郡 西二面 一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일동리(始興郡 安養面 一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일동리(始興郡 安養邑 一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0 5 20 안양시 관양 2동 (安養市 冠陽二洞)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부림동(安養市 富林洞)

부림동은 동(東)으로 관양2동 서(西)로 달안동 남(南)으로 평안동 북(北)으로 관양1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전술한 바와 같이 관양2동에서 분리한 지역으로 본래 농경지가 대부분이었는데 신도시 건설로 분양아파트와 임대아파트 등 주거용 아파트 73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 주민상호 간에 위화감이 상존한 지역이지만 1996년 11월 11일에 안양시청(관양동1590)과 안양시의회(관양동1590)가 들어섰고 안양교육청(관양동1592) 소방서(관양동1592-1) 세무서(관양동1592-2) 법원(관양동1588-18) 검찰청(관양동1593) 평촌시립도서관(관양동1589-2) 부림동우체국(관양동1605-3) 평촌전철역(관양동1608-1) 시설관리공단(관양동1591-1) 국토개발연구원(관양동1591-6) 토지공사평촌사업단(관양동1591-6) 근로복지공단(관양동1591-6) 한국감정원(관양동1588-11) 사설안전관리공단(관양동1588-11) 석유개발공사(관양동1588-14) 국립기술품질원(관양동1599) 등 안양을 대표하는 공공기관이 입주 완료되면 행정발

신도시 개발이전의 부림동지역
왼쪽에 대한전선이 보인다(1970년대)★



전의 요람지로 각광받을 것이다 또 교육시설로는 부림초등학교(광양동1587-3) 부안초등학교(관양동1586-2) 부안중학교(관양동1588-5) 부림중학교(관양동1586-1) 평촌정보산업고등학교(관양동1587-2) 등이 이미 개교를 보았고 금융기관으로는 은행 6개소(농협 산업은행 대동은행 외환은행 주택은행 조흥은행 기업은행) 증권 2개소(신용보증기금 한신증권) 언론기관으로 조선일보사가 있고 시장 상가도 6개소가 있으며 공원으로 경존공원과 학운공원 그리고 어린이 공원 3개소가 위치해 있어 주거지역으로도 더할나위 없는 이상적인 곳이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
신라아파트	한가람단지	관양동1589-1	9	1 068	'92 7
두산아파트	한가람단지	1586-6	6	436	'92 11
삼성아파트	한가람단지	1586-5	10	708	'95 4
한양아파트	한가람단지	1586	8	952	'95 6
세경아파트	한가람단지	1589	11	1 293	'96 10
부영아파트	공작단지	1588 1588-13	13	1 710	'93 3
성일아파트	공작단지	1587-5	7	750	'93 2
럭키아파트	공작단지	1587	8	766	'93 6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85㎢ 세대수 7 253세대 인구수 23 480명 인구밀도는 1㎢당 27 623명이다 부림동사무소는 관양동 1588~1에 있다

부림동(富林洞)은 당초 관양동의 '관(冠)'자와 관악산의 '악(岳)' 자를 취해 관악동(冠岳洞)이라고 정했다가 여론에 따라 개칭하였는데 동명의 유래는 산림이 울창하고 부자가 많았다는 관양1동의 자연취락명인 부림말(富林洞)에서 취한 것으로 예전에 부림말 사람들이 현재의 부림동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다는 연유에서 동명을 취했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신중하지 못한 작명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다음의 몇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다 첫째는 부림말 사람들이 이곳에서 농사를 지었다고 하여 마을명을 그대로 승계했다고 하면 후일에 관양1동의 부림말 지역의 인구증가로 별도의 행정동이 설치되면 동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는 현 부림동내에 부림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가 있는데 부림(富林) 부안(富安)은 안양 과천지역의 고려시대의 별호명이라는

역사적인 사실을 조금이라도 인식했다면 이러한 누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더우기 이웃 과천시에 부림동 사무소가 있는데 안양 과전을 처음으로 찾는 사람들은 혼돈을 야기시키는 사례가 비일비재 할 것이다

23) 평촌동 (坪村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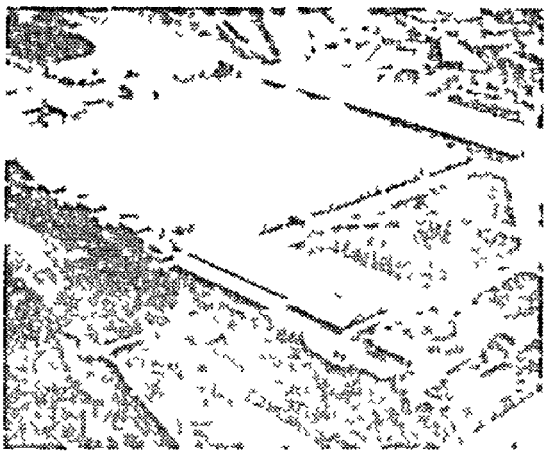
평촌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일동(一洞) 및 이동(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칭했다 1989년 5월 1일 시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평촌동을 평촌동 평안동(坪安洞)으로 분동되었고 1994년 12월 26일 대통령령 제14434호에 따라 동의 일부가 의왕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시 조례 제1338호에 의거 동의 일부가 호계동에 편입되었고 1996년 1월 1일 시 조례 제1392호로 동의 일부가 관양동에 편입되었다

■ **평촌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 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西二邑 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평안동(坪安洞) 분리
- 1994 12 26 경촌동 일부 의왕시에 편입
  평촌동 일부 호계동에 편입
- 1996 1 1 경촌동 일부 관양동에 편입

동일방직 전경(1993)★



경촌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포일동 서(西)로 경안동 귀인동 남(南)으로 의왕시 오전동 북(北)으로 관양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민배기 벌말 등이 있다 이곳은 서울 과전과 수원 안산 군포를 연계하는 안양시의 동부지역으로 동일방직(경촌동1) 삼화왕관(경촌동 126-1) 오뚜기식품(경촌동 160) 등 크고 작은 업체가 밀집한 경공업지역으로 경촌신도시개발지구에 2 4㎢가 편입되었다 금융기관으로는 안양농협경촌지소(평촌동 93-4) 경촌동새마을금고(경촌동 93-2)가 있다

경촌동은 신도시 개발계획 이전에는 대부분 농촌지역으로 벌말 부근의 공업지대 외에는 낙후성을 면치 못했던 곳이나 일제강점기에는 안양의 여다 지역보다 주민들이 단합되어 조직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로 금주(禁酒)운동을 전개해 소비절약을 통하여 교육 및 자선 공익사업의 기금을 마련하여 애국운동을 했다 즉 평촌동 주민들은 1924년 4월 4일 금주동맹회(禁酒洞盟會)를 100여명의 회원으로 조직했는데 동 회의 규약은 다음과 같다

- 소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일제 음주를 단행할 事
- 冠婚喪祭와 기타 필요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다른 품목으로 대용할 事
- 본회에 불참하는 자는 農事時에 相助를 거절할 事
- 제1조를 위반하여 음주한 자는 초범 50전 재범 10원을 징수하고 집에서 술을 담그는 자는 초범5원 재범 10원의 벌금을 징수할 事
- 제2조를 위반하여 관혼상제에 술을 사용할 때는 초범 10원 재범 20원의 벌금을 징수할 事

당시 임원은 회장에 김진영(金晉永) 부회장에 서기선(徐基先)이었다

문화유적으로는 벌말에 지석묘 6기 신말에 4기 귀인에 1기 갈미에 1기 등 모두 12기와 귀인에 초기 백제주거지 등이다

평촌동은 넓은 벌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벌말(坪村)이라 했는데 1973년에 시제가 실시되면서 마을 이름을 취해 '평촌동(坪村洞)'이라 칭했다 평촌이 세인에게 널리 알려지기는 아무래도 신도시개발 부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인근의 산본 신도시와 같은 시기에 건설된 평촌에 대해 주거지로서의 삶의 터전으로 길지냐 흉지냐에 대해 이러쿵 저러쿵 말이 많았다 그러면 평촌은 어떤 곳인가? 이에 대한 궁금증을 다음의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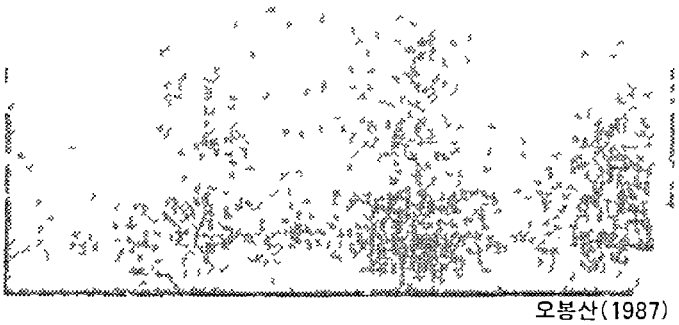
택지개발로 바뀐 「관」이 오히려 길상 / 평촌신도시

- 최영주 / 문화부장 대우 -

한강 이남의 산들은 대개 그 뿌리를 속리산에 두고 있다 속리산맥이 경기도안성에서 충남을 형성하는 금북정맥과 한남정맥으로 갈라진다 한강이남의 경기도 산들은 이 한남정맥의 가지들이다 안성에서 북진하는 산맥이 용인에 와서 보개산을 만들고 여기서 왼쪽으로 뻗은 가지들이 서북진해 광교산을 만드니 그 아래가 수원시다 광교산에서 다시 왼쪽 청룡의 맥이 오봉산을 만들고 이어 수리산으로 치고 올라가 안양 동쪽 군포 안산 부천 등을 만든다 광교산의 오른쪽 백호는 북진 백운산을 만들고 다시 더 올라가 국사봉 청계산으로 이어지고 다른 한 맥은 관악산 줄기와 연결된다 백운산을 중심으로 서편이 안양시와 의왕시 동편이 성남시의 분당지역 그리고 청계산 서편이 과천시다

이렇게 보면 광교산과 수리산 백운산과 청계산 그리고 관악산을 연결하는 산맥의 좌우에 수도권 도시들이 형성돼 있는 셈이다 이 일대에는 북으로 흐르는 안양천 이외에는 큰 강이 없다 이에 비해 산들은 매우 왕성한 기운을 뻗지고 이산 마치 무리를 지은 학들이 서로 울음을 다투는 형세(군학쟁명형)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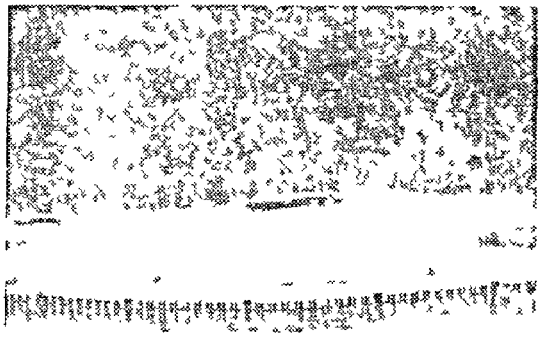
안양시 평촌지구는 이 무리지은 학들이 내려와 노닐던 벌판이다 절대농지로 묶여 있던 문전옥답이 6공시절 주택2백만호 건설사업에 따라 택지로 바뀌었다 17만명을 수용하는 거대 집단취락지구로 면모가 일신됐다


오봉산(1987)

평촌은 백운산에서 서북쪽으로 떨어지면서 다시 봉우리를 만든 모락산(마치 옛 선비가 쓰던 정

자관처럼 생긴 산이다)이 주산이다 청룡은 오봉산에서 수리산으로 건너간 맥이 말고 있고 의왕시와 과천시의 경계를 이루는 오른쪽 능선이 백호가 된다 또 안산(앞산)은 관악산과 관악산의 서쪽맥인 삼성산이 말고 있다

자유공원내에 있는 지석묘(1990년대)⊙



모락산(1988)



국의 흐름은 보면 백호쪽 백운산 밑에서 발원한 학의천(안양천 상류)이 관양동과 경계를 이루며 감고 돌아가 왼쪽 오봉산 뒤 지지대 고개에서 발원한 맑은 내와 비산교 앞에서 만나 안양천이 되어 서북쪽으로 빠져 나간다 건제적인 국은 서보 양판이다 양대지로서는 제대로 법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땅의 이같은 성격과는 달리 택지개발은 하면서 판은 바꿔버렸다 배산임수보다는 남향을 선호하는 일반적 기호를 더 높이 산 것이다 그 결과 주산은 물론 청룡과 백호가 바뀌고 안산도 바뀌었다 만약 평촌들이 좁았다면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다

국(택지)이 넓고 앞산으로 바뀐 모락산이 높지 않아 흠이 되지 않는다 여기에다 학의천과 맑은 내가 국의 뒤에서 만나 이른바 후합금을 이룬다 학의천은 수전현무(물로써 주산이 되는 격)가 되거 맑은 내는 조래수(앞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물 부를 기약한다)가 되니 오히려 판을 바꿔 남향을 취한 것이 주택단지에는 길상이 된 셈이다

전제 단지는 모락산 밑에 있는 배수지고지(자유공원)를 기준으로 삼분할 수 있다 모락산과 배수지고지 사이의 샘마을 지구와 서쪽 무궁화마을 동쪽의 굼마을이 그것이다 샘마을은 모락산이 유과(정자과)을 이루고 삼성산 일부와 멀리 수리산 정상이 탐랑필봉을 이루니 교육기관이 들어설 자리다 현재도 이곳은 학교시설이 중심을 이룬다 다만 과협처(맥이 건너가는 곳)이므로 지기를 누르는 건물이 많이 들어가서는 안좋다

무궁화마을 지역은 비산동 뒤의 마치 창고처럼 생긴 산을 베개로 삼고 맑은 내가 조래수를 이루니 이 일대의 부를 주관하는 격이다 서울 강남의 압구정동 일대와 비슷한 형국을 보여준다 꿈마을 지역은 배수지고지의 동쪽맥이 뻗어내려 이 일대의 본수령을 이룬다 물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흠이 있지만 모락산이 분명하게 보여 재주있는 문인 배출되는 곳이다 귀인이란 동네이름도 아를 두고 이르는 말이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분당이나 일산 등 신도시의 경우에서 목격할 수 있듯이 단독택지로 지정된 지역들이 대개 그 단지의 중심혈을 차지하고 있다 평촌지역도 무궁화마을과 꿈마을 사이에 있는 단독지구가 중심혈이다 그 모습은 귀인이 막 동네를 나가는 형국이다 크게 보면 학모양의 산들이 좌우에 나래를 펴고 있고 붓끝 모양의 문필봉이 겹겹으로 이를 감고 있다 또 뒤에는 삼성산이 창고의 모습을 띠고 있고 앞의 모락산은 삼태 유관이다 문화 예술인을 비롯해 교육기관이 들어 갈만 한 곳이다 * **도움말=수강 유종근(이수학회고문)** -「중앙일보」 1995년 2월 2일자 -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80㎢ 세대수 1 693세대 인구수 5 005명 인구밀도 1㎢당 6 256명이다 경촌동사무소는 평촌동 138-1에 있다

경촌동은 너른 벌판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벌말(坪村)이라 하였는데 1973년 7월 1일 시제가 실시되면서 마을명을 취해 '평촌동(坪村洞)'이라 하였다

24) 평안동 (坪安洞)

평안동사무소 현판식(1993)★



평안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下西面 一洞 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1 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 (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칭했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경촌동을 분동해 '평안동(坪安洞)'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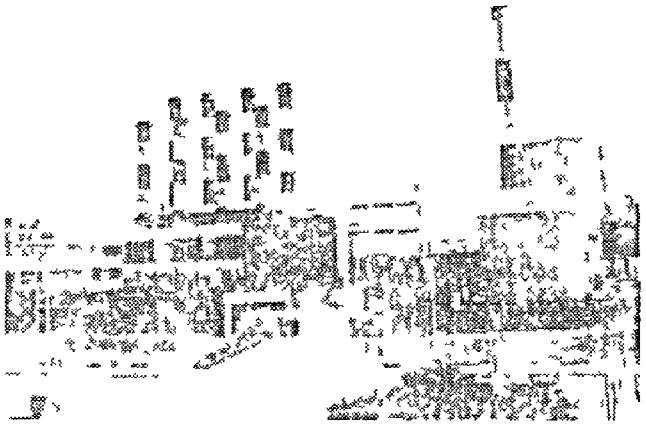
■ **평안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安養邑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관양동(安養市 冠陽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평안동(安養市 坪安洞)

평안동은 동(東)으로 귀인동 서(西)로 부림동 남(南)으로 범계동 북(北)으로 평촌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평촌신도시의 교육 교통 공원의 중심지역으로 중앙공원 등이 입지한 쾌적한 환경지역이며 병원 백화점 전철역 등 생활편의시설 등이 인접한 주거지역이다

공공기관 금융기관으로는 평안파출소(평촌동 896-3) 일반폐기물소각장(897-1) 농협 평촌지점(평촌동 899-7) 평화은행 평촌지점(평촌동 898-6) 신한은행 평촌지점(평촌동 897-7) 복합화력발전소(평촌동 897-2) 지역난방공사(평촌동 897-3) 등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동안초등학교(평촌동 898-1) 평촌초등학교(평촌동 899-4) 평촌중학교(평촌동 899-5) 동안고등학교(평촌동 898-3) 등이 있다


평안동 열병합발전소(1993)★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67㎢ 세대수 9 096세대 인구수 29 764명 인구밀도는 1㎢당 44 423명이다 평안동사무소는 평촌동 896-4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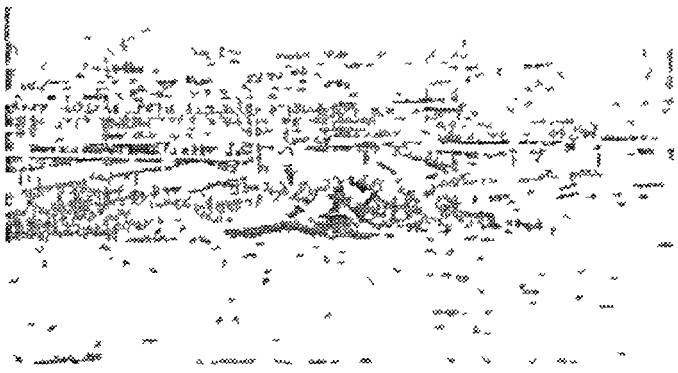
평안동(坪安洞)은 평촌지구의 '평(坪)'자와 안양의 '안(安)'자를 취해 '평안동(坪安洞)'이라 칭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개동)	세대수	입주일
부영아파트	조원단지	평촌동 896-2	13	2 069	'92 12
한양아파트	조원단지	897-5	11	999	'93 12
럭키아파트	조원단지	897-7	9	756	'93 12
대원아파트	조원단지	898-6	9	870	'93 9
대림아파트	조원단지	898-2	12	1 171	'93 11
성원아파트	조원단지	898	5	441	'93 12
세경아파트	조원단지	896-2	6	660	'96 5
현대4차아파트	향촌단지	899-2	8	629	'93 3
현대5차아파트	향촌단지	899-7	11	879	'93 5
롯데아파트	향촌단지	899	9	619	'93 3

25) 귀인동 (貴仁洞)

귀인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果川郡 下西面 一洞 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의거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칭했다 1989년 5월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귀인 지석묘 주변(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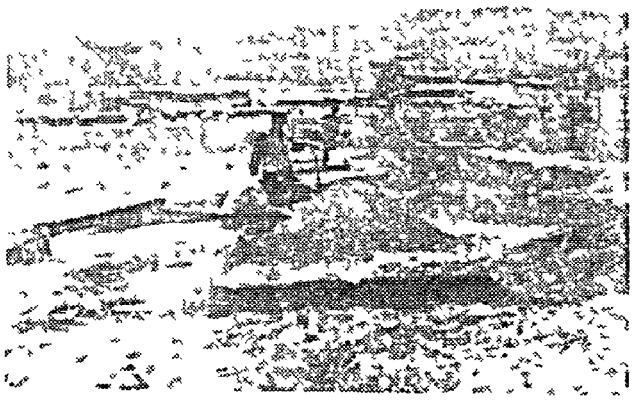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로 평촌동을 분동해 평안동(坪安洞)이라 했다가 1994년 7월 1일 시 조례 제1306호에 의거 평안동을 분동해 '귀인동(貴仁洞)'이 되었다

■ **귀인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상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上西面 一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 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安養邑 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평안동(安養市 坪安洞)
- 1994 7 1 안양시 귀인동(安養市 貴仁洞)

귀인동은 동(東)으로 갈산동 서(西)로 평안동 남(南)으로 신촌동 북(北)으로 의왕시 내손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평촌지구 내에서는 평촌동의 벌말동과 함께 옛 마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백제시대 주거지 유적 발굴 모습(1990)◇



이곳은 역사적으로 안양지방에서는 최초로 사람이 살기 시작한 곳으로 최근 학계조사 결과 밝혀졌다 즉 1990년 명지대박물관이 평촌지구 지표조사에서 찌르개 긁개 등 후기 구석기시대의 유물을 귀인마을에서 출토한 것이다 동 박물

관에서는 또 마을 안쪽 해발 60m 구릉정상에서 청동기시대의 유물인 지석묘와 백제 초기의 주거지(면적 24 25㎡)도 함께 발견되어 학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귀인동은 평촌신도시 내에서는 중대형아파트 중심으로 주민들의 생활은 중 상류계층이며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건설로 유통산업의 요충지로 기대되나 한편으로는 단독주택지와 아파트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어 공동체의식의 결여가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아파트는 라이프 금호 한신 현대 우성 건영 동아아파트가 있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위치	입주일	가구수
계			3 126
라이프	평촌동932-6	'92 9	548
금호	932-2	'93 9	250
한신	932-4	'93 9	566
현대7차	932-7	'93 11	386
우성	933	'93 11	422
건영2차	933-6	'93 10	196
건영3차	933-7	'94 4	386
동아	933-7	'94 4	372

교육기관으로는 귀인초등학교(평촌동 932-1) 민백초등학교(평촌동 933-1) 귀인중학교(평촌동 914) 백영고등학교(평촌동 932)가 있고 금융기관은 서울은행 평촌꿈마을 영업점(평촌동 932-6) 보람은행 평촌지점(평촌동 933-6) 조흥은행 평촌지점(평촌동 900-1) 상업은행 꿈마을점(평촌동 933-7)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61㎢ 세대수 4 464세대 인구수 15 021명 인구밀도는 1㎢ 당 24 624명이다 귀인동사무소는 평촌동 933-4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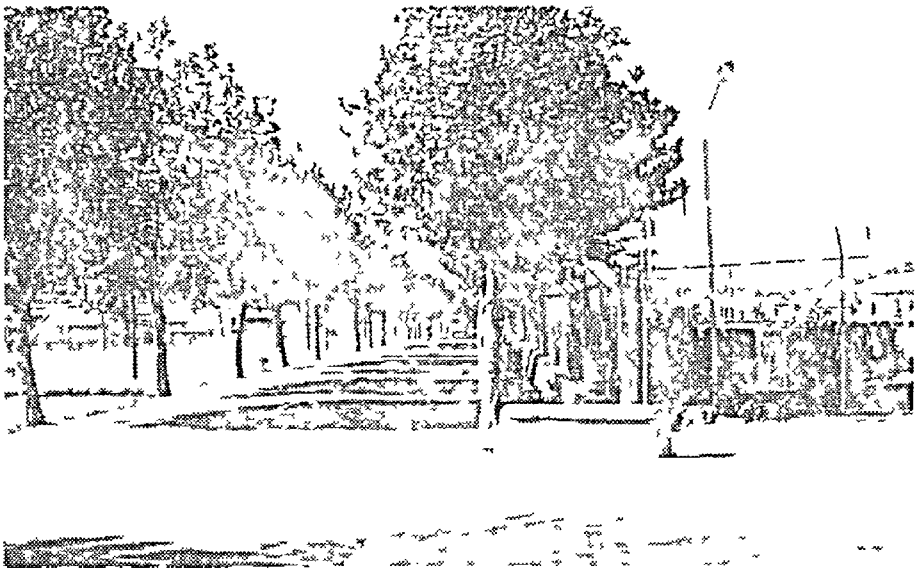
귀인동(貴仁洞)은 옛 평촌동의 자연취락인 귀인동에서 유래한 것으로 조선시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 갈 때 이 마을에 들려 머물다 갔다고 하여 '귀인(貴仁)'이란 마을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26) 호계1동 (虎溪一洞)

호계1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상서면 도양리(果川縣 上西面 道陽里)지역이었다

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果川郡 下西面 道陽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라 했다가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호계리(安養邑 虎溪里)로 칭했고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2리(安養邑 虎溪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분동해 덕고개 금성마을 지역을 '호계1동(虎溪一洞)'이라 칭하였다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5월 20일 시 조례 제1285호에 의거 호계동을 호계1동 갈산동(葛山洞)으로 분동되었다

LG전선(우측 19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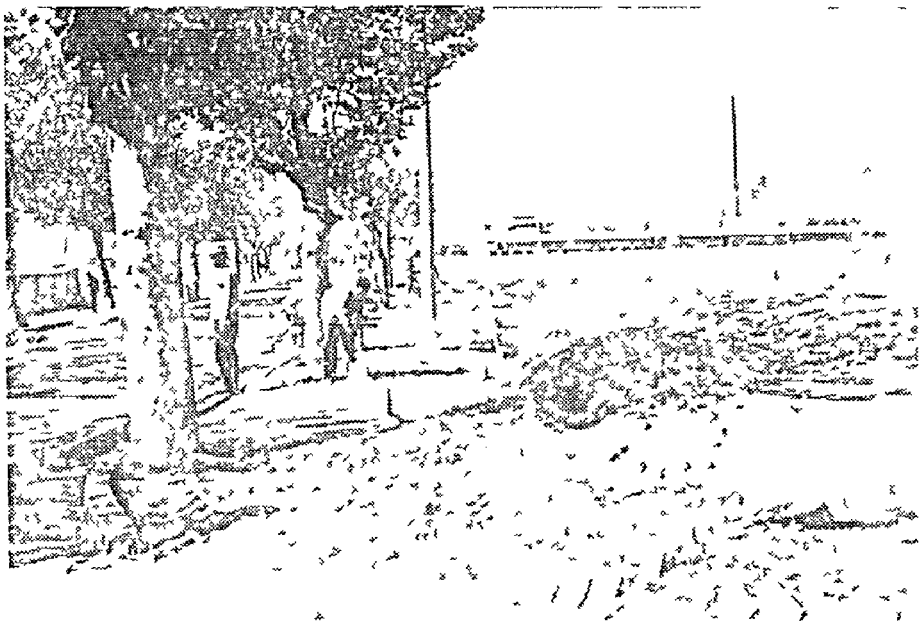
■ 호계1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果川郡 下西面 道陽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2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二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1동(安養市 虎溪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갈산동(葛山洞)분리

호계1동은 동(東)으로 갈산동 서(西)로 군포시 금정동 남(南)으로 호계3동 북(北)으로 호계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금성마을(金星村)과 덕고개(德峴)가 있다 교통의 요충지인 호계1동은 조선시대 만안로가 개설된 이래 1930년대에는 서울-과천-남양간을 관통하는 도로 및 경수산업도로의 개설로 서울 과천 수원 안산을 연결하는 교통의 발달로 주공아파트를 비롯하여 삼신아파트 일신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의 유입이 급증한 곳으로 중앙제지 LG전선 등 60여 업체가 소재한 중소기업 밀집지역으로 평촌신도시의 배후 상가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다 금융기관으로는 국민은행 호계동지점(호계1동 964-8) 주택은행 호계동지점(호계1동 1003-5) 중소기업은행 호계동지점(호계동 960-1) 한일은행 호계동지점(호계1동 960-2) 농협 호계동지점(호계1동 995) 대동은행 안양지점(호계1동 949-10) 동남은행 안양지점(호계1동 1003-9) 안양농협 호성지소(호계동 961-11)이 있다

옛 금성통신 주변(1972)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03㎢ 세대수 7 219세대 인구수 22 008명 인구밀도 1㎢당 21 366명이다 호계1동무소는 호계1동 1003-7에 있다

■ 호계1동 아파트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시기)
주공아파트	주공	999-983	25	770	'84 3
일신아파트	일신	999-25	6	192	'84 9
삼신아파트	삼신	992-1 990-5	4	216	'83 10
강남4차아파트	강남	951-4	1	66	'83 3
강남5차아파트	강남	945-1	1	72	'82 1
청도아파트	청도	997	4	44	'84 2
미성아파트	미성	995-9	2	30	'78 3
정호아파트	정호	944	2	16	'88 2

역사적으로 호계1동은 안양지방 최초의 개신교의 전래지로 알려지고 있다 1895년 보고에 의하면 덕고개 출신 허대진이 저음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의 신상에 대하여는 밝혀진 바가 없다 이 때 덕고개교회(감리교회)가 설립되었는데 그 위치는 알 수가 없지만 문헌에 따르면 1909년에 장로교회에서 인수하여 삼성(리) 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고 한다 호계동(이하 호계2 3동 포함)의 유래는 예전에 방죽말(防築洞) 샛터말(新基洞) 안말(內村) 일대가 범(虎)이 많은 곳이라 하여 범계 즉(虎溪)라 칭한데 유래한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땅이름학회 배우리회장은 '벋은 내'의 뜻인 '벗내'가 '번내'로 되었다가 '범내'로 되어 한자의 '호계(虎溪)'로 바뀐 것이라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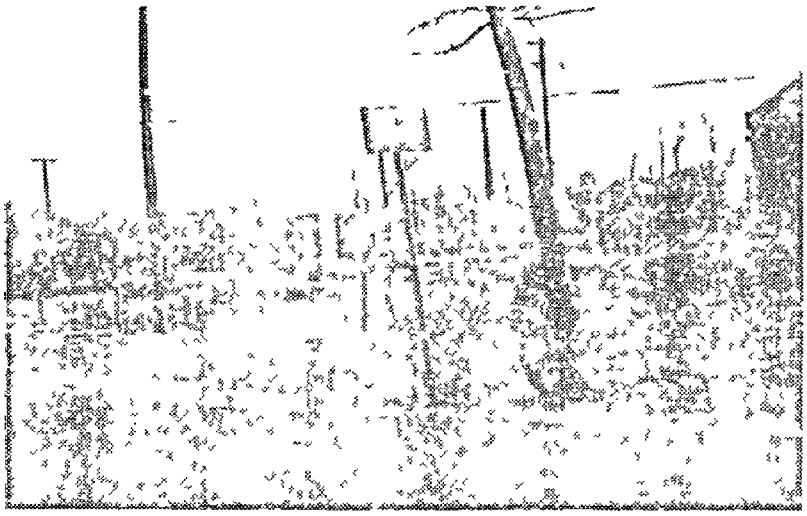
〈배우리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 ② 1994 217쪽 참조〉

27) 호계2동 (虎溪二洞)

호계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하서면 호계리(果川縣 下西面 虎溪里)지역이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果川郡 下西面 虎溪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라 칭했고 그 후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되었으며 이어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

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그 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분동해 안말(內村) 방죽말(防築洞) 샛터말(新基洞) 등의 제 지역을 '호계2동(虎溪二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 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된 후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호계2동을 호계2동 범계동으로 분동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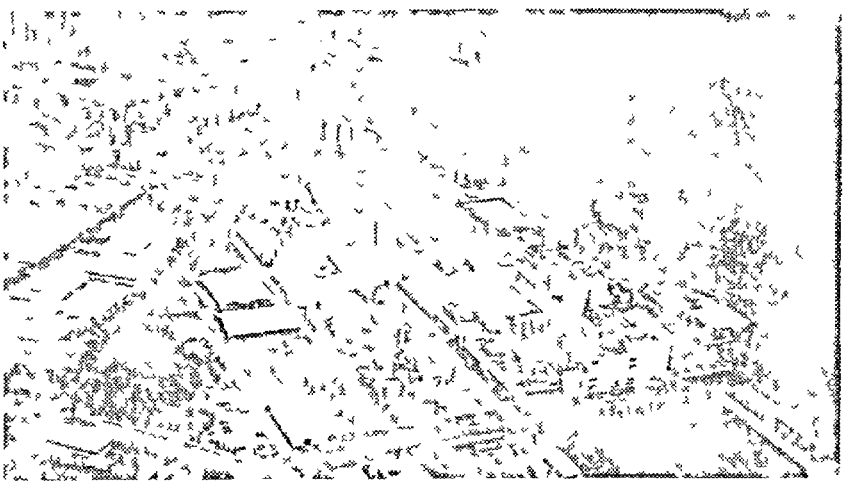

호계1리 이정판(1972)

■ 호계2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전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 (果川郡 下西面 虎溪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1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一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범계동 분리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호계2동은 동(東)으로 신촌동 서(西)로 안양8동 남(南)으로 호계1동 북(北)으

로 비산2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안말(內村) 방죽말(防築洞) 샛터말(新基洞) 등이 있다 안양교육의 발상지인 호계2동은 동양나이론 신아화학 등이 운집한 경공업지역으로 강남 경남 대림 덕원 미주 옥산 현대 등의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밀집한 신흥개발지역이며 주민의 구성은 토박이가 다수를 차지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안양교육청(관양동 1592로 이전 예정) 한국전력 안양지점(호계2동 921) 전과연구소(호계2동 901) 등과 교육기관으로는 호계초등학교(호계2동 923-17) 호계중(호계2동 312-2) 호원초등학교(호계2동 338) 호원고등학교(호계2동 339) 등이 있다 기업체로는 동양나이론(호계2동 183-2) 등과 금융기관은 중소기업은행 범계역출장소(호계2동 905) 제일은행 호계동지점(호계2동 943-2) 수협 호계1동새마을금고 등과 아다는 현대아파트(호계2동 914-40 11개동) 럭키아파트(호계2동 570 12개동) 등이 있다


동양나이론 전경(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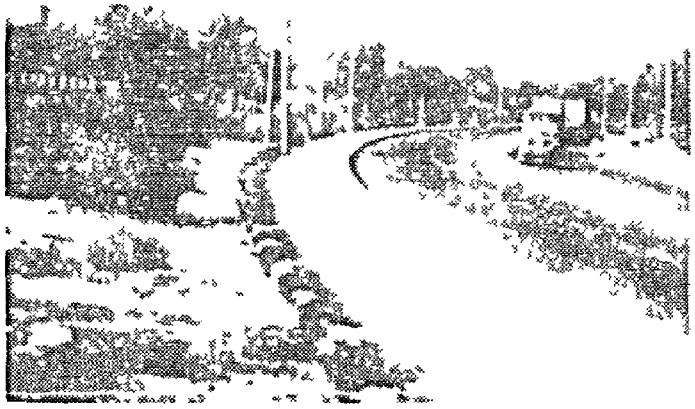
억사적으로는 과전면의 상서면사무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 초기에는 안양면의 전신인 서이면사무소가 소재해 한때는 관가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또 안양 최초의 교육시설로 숙종 42년(1716)에 창건되어 대원군 집정 때(1870) 서원철폐령에 의해 훼철된 장강서원(또는 호계서원)과 옛 범계주민들이 풍류를 즐기던 소호정 및 일제강점기 초에 설립된 낙영학교 등은 비록 지금에는 남아있지 않고 그 기록만 전해질 뿐이지만 이 곳이 이미 오래전부터 안양교육의 발아지(發牙地)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다

호계2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1 43㎢ 세대수 7 194세대 인구수 22 840명 인구밀도 1㎢당 15 972명이다 호계2동무소는 호계2동 933-18에 있다

28) 호계3동 (虎溪3洞)

호계2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하서면 도양리(果川縣 下西面 道陽里)지역이었다

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따라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果川郡 下西面 道陽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개칭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라 했다가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로 칭했고 이어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2리(安養邑 虎溪二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 2597호에 의거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구 군포 방죽말 샛터말 안말 포도원마을을 '호계3동(虎溪三洞)'이라 칭하였다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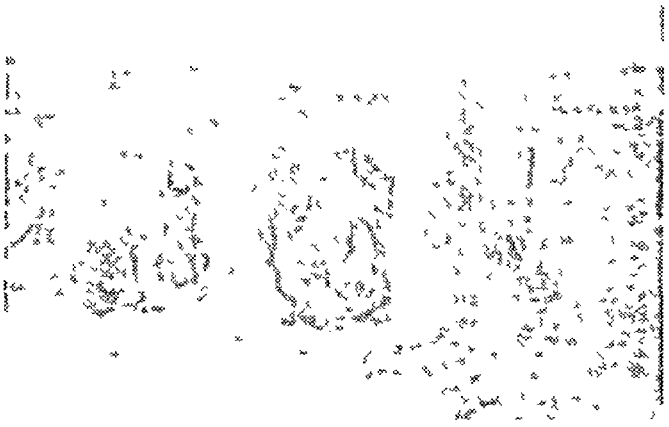
경수산업도로와 만안로가 만나는 호계삼거리(1980)★

■ **호계3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 (果川郡 下西面 道陽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2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二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5 11 15 안양시 호계3동(安養市 虎溪三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옛 호계리 뒷산에서 식수를 하고 있다(1978 4 5)



호계3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오전동 서(西)로 군포시 당정동 남(南)으로 의왕시 오전동 및 군포시 당정동 북(北)으로 호계1동이 각각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취락으로 구군포(舊軍浦) 포도원(葡萄園)마을 등이 있다

역사적으로는 조선 후기 정조의 능행로인 서울 ~ 과천 ~ 인덕원 ~ 수원을 잇는 과천행로와 서울 ~ 시흥(서울특별시 구로구 시흥동) ~ 안양 ~ 수원을 잇는 시흥행로가 교차되는 지역이며 호성초등학교 부근에 소재한 자진골(자진구리)은 춘향전의 이도령이 과거보러 갈 때 다니던 길이라고 전해질 만큼 전설이 깃든 곳이며 지금의 안양시민방위교육장 뒤에는 예로부터 홀아비 5천명이 살 땅이라고 구전되어오던 곳인데 1963년 안양교도소가 개소되어 옛 사람들의 지혜에 새삼 머리가 숙여진다 또 구 군포사거리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 초기(1920년대)에는 군포장(軍浦場)이 서던 곳으로 안양상권의 중심지이기도 했다

안양시 남단의 관문인 호계3동은 서울 과천 수원 안산을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주공 경향 삼익 등 13개의 아파트단지와 18개의 연립주택 등 주택단지가 밀집된 지역이다 공공기관으로는 안양교도소(호계3동 458) 안양분류심사원(호계3동 770) 등과 교육기관은 호성초등학교(호계3동 820) 등이 있고 금융기관은 조흥은행 호계동지점(호계3동 811) 경기은행 호계동지점(호계3동 971-20) 수협 호계3동새마을금고 등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75㎢ 세대수 5 765세대 인구수 18 015명 인구밀도 1㎢당 24 020명이다 호계3동무소는 호계3동 768-5에 있다

29) 범계동

범계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하서면 호계리(果川縣 下西面 虎溪里)라 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로 되었고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호계리(安養面 虎溪里)로 개칭되었다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호계리(安養邑 虎溪里)라 했다가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호계동이 되었다 그 후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2동이 되었고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의거 동안출장소에 편제됨과 동시에 같은 날(1992 5 1) 시 조례 제1161호에 따라 범계동이 되었다 이어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따라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뒤 1993년 1월 15일 시 조례 제1245호에 의거 범계동을 범계동 신촌동(新村洞)으로 분동되었다

■ **범계동의 변천 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6년(1416) 금천현(衿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 (果川郡 下西面 虎溪里)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1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一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안양시 범계동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신촌동(新村洞) 분리

범계동은 동으로 평안동 부림동 서로 호계2동 남으로 신촌동 북으로 달안동 부흥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이곳은 공동주택(아파트) 밀집지역으로 선경 대우 우성 두산 경남 동아 신동아아파트 등 주거용 아파트가 70개동 있다

■ 아파트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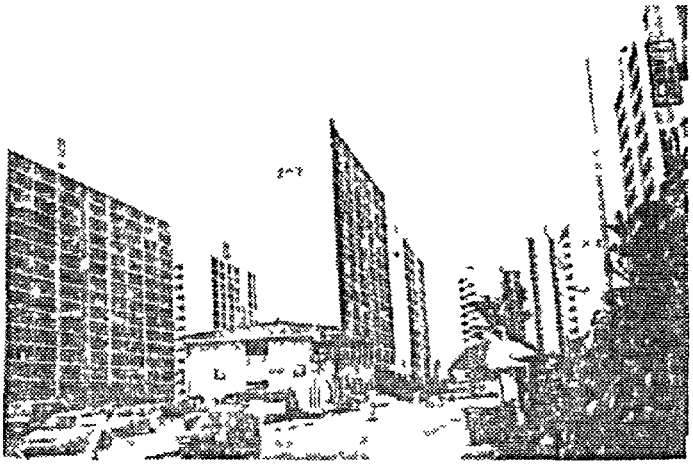
단지명	가구수	위 치	동수	세대수	입주일	비고
계	5,059	8개단지	70	5,882		임대 3 분양 5
1단지(선경)	480	1053-2	7	550	'92 11	분양
2단지(대우 선경)	994	1052	9	1 147	'92 3	임대
3단지(우성1차)	902	1052-3	10	1 051	'92 7	임대
5단지(우성3차)	683	1052-5	7	821	'93 3	임대
6단지(두산)	440	1054-6	10	510	'93 7	분양
7단지(우성2차)	466	1054-8	9	530	'92 9	분양
8단지(경남 동아)	516	1053-4	8	607	'92 10	분양
9단지(신동아)	578	1053-3	10	666	'94 7	분양

또 상가 금융 업무시설 등 중심상가지역으로 안양의 신상권의 중심지이며 범계역 경수산업도로가 인접한 교통의 요충지로 평촌신도시의 관문이다 주요공공기관으로는 범계파출소(호계동 1051-2) 범계소방파출소(호계동 1051-3) 범계전철역(호계동 1039-1 2)이 있고 교육기관으로는 범계초등학교(호계동 1052-1) 평촌초등학교(평촌동 402-13) 범계중학교(호계동 1054-5) 평촌고등학교(호계동 1054)가 있다 금융기관은 신한은행 평촌지점(호계동 1046) 주택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1-1) 상업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9-4) 동화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1) 하나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0) 한일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51) 국민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2-1) 경기은행평촌지점(호계동 1044-8) 경안상호신용금고(호계동 1045-5) 경수종합금융(주)(호계동 1051) 한일투자신탁안양지점(호계동 1051) 한국투자신탁평촌지점(호계동 1047-8) 동아증권(호계동 1045) 동양증권(호계동 1045) 쌍용증권(호계동 1546-1) 등이 있다

범계동의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은 0 64㎢ 세대수 5 883세대 인구수 19 516명 인구밀도는 1㎢ 당 30 493명이다 범계동사무소는 호

계동 1051-1에 있다

아파트 숲을 이룬 범계동(1993)



범계동의 동명은 방죽말(防築洞) 안말(內村) 샛터말(新基洞)을 통칭해 일컫었는데 예전에 이곳 냇가에 범이 많았다 하여 '범계'라 불렀고 이를 한자화하면서 '호계동(虎溪洞)'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므로 범계의 '범'은 우리말의 호랑이를 '溪(계)'는 냇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几溪' '範溪'로 표기함은 온당치 않다 1992년 범계동을 신설할 당시 안양시로 부터 동명제정에 대해 자문요청이 있자 필자(이승언)는 범계동 명은 한자명으로 절대 사용할 수 없음을 누차 전명한 바 있는데 아직도 시에서 발행하는 지도나 문서 등에 한자로 사용함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현재의 동명(범계동)으로 명명된 것은 안양교육정내 학교명칭선정위원회에서 범계초교 범계중을 선정한데 이어 1990년 안양시정자문위원회에서 지하철역명을 범계역으로 결정한 관계로 주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역의 유대를 계승키 위했다고는 하나 이는 더욱 혼돈을 야기시킬 수 있다 동일한 의미의 지명을 한자 한글로 분리해서 명명함은 그 명분이 아무리 좋다해도 후세를 위해서는 바람스럽지 못하다고 생각된다

30) 신촌동 (新村洞)

신촌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현 하서면 호계리(果川縣 下西面 虎溪里)지역이었다가 고종 32년(1895) 5월 26일 칙령 제98호에 의거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果川郡 下西面 虎溪里)로 되었고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라 칭했고 그 후 1964년 1월 1일 안양읍 호계1리 (安養邑 虎溪一里)로 개편된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의거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이 되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분동해 안말(內村) 방죽말(防築洞) 샛터말(新基洞) 등의 제 지역을 '호계2동(虎溪二洞)'이라 칭

하였다 1989년 5월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5월 1일 시 조례 제1161호(1992 5 7 공포)에 따라 호계2동을 호계2동 범계동으로 각각 분동하였고 이어 1992년 10월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3년 1월 15일 시조례 제1245호(1993 1 15 공포)에 의거 범계동을 범계동 '신촌동(新村洞)'으로 분동하였고 이어 1996년 1월 1일에 갈산동 일부지역이 경계조정으로 편입되었다


신촌 제1호 지석묘 개석 모습(1990)◇

■ 신촌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호계리 (果川郡 下西面 虎溪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호계리((始興郡 西二面 虎溪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호계리(始興郡 安養面 虎溪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호계리(始興郡 安養邑 虎溪里)
- 1964 1 1 시흥군 안양읍 호계1리(始興郡 安養邑 虎溪一里)
- 1973 7 1 안양시 호계동(安養市 虎溪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2동(安養市 虎溪二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5 1 안양시 범계동
- 1992 10 1 안양시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1 15 안양시 신촌동(安養市 新村洞)
- 1996 1 1 갈산동 일부 편입

신촌동은 동(東)으로 갈산동 서(西)로 호계1동 호계2동 남(南)으로 호계1동 의왕시 오전동 북(北)으로 범계동이 각각 위치해 있다 역사적으로는 1990년에 명지대 평촌지구 지표조사시 신촌마을에서 지석묘 3기가 발견된 바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BC 10세기경인 청동기시대에 이미 이곳에서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수산업도로와 서울외곽고속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정부의 신도시계획에 의거 전원 분양아파트로 조성되어 있다 주민들은 중산층에 고학력 수준으로 밀집지역이긴 하나 아파트단지 옆으로 단독주택 내에 이른바 먹자거리(먹자골목)가 형성되어 50여 개의 음식점이 성업 중에 있다

아파트는 금호 진흥 건영 코오롱 효성 한양 경남 태영 등 53개동에 4천 319세대가 입주하였다 이들 아파트는 우리나라 꽃인 무궁화아파트단지를 조성한 것이 특징이다 신촌동내 아파트 현황은 다음과 같다



신촌지석묘 유적 발굴조사 모습(1990)◇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시기
계			53	4,319	
금호	무궁화단지	1056	7	507	'92 8
진흥	무궁화단지	1056-6	6	386	'92 9
건영	무궁화단지	1055-1	6	536	'92 9
코오롱	무궁화단지	1055-1	6	533	'92 9
효성	무궁화단지	1055	6	482	'92 12
한양	무궁화단지	1055	6	474	'92 12
경남	무궁화단지	1057	8	665	'94 8
태영	무궁화단지	1075	8	736	'92 8

한편 교육기관으로는 신기초등학교(호계동 1056) 신기중학교(호계동 1075-1)가 있고 금융기관은 제일은행 평촌출장소(호계동 1058) 외환은행 호계동지점(호계동 1055-1) 부국증권(호계동 1045-5)이 있다 1996년 9월 30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62㎢ 세대수 4 486세대 인구수 15 423명 인구밀도는 1㎢당 24 875명이다

신촌동사무소는 호계동 1056-3에 있다

신촌동(新村洞)은 풍양 조씨(豊壤 趙氏)가 처음으로 정착한 후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말(新村)'이라 칭했는데 그 뒤 신말을 중심으로 조성된 동이므로 '신촌동(新村洞)'이라 하였다

31) 갈산동 (葛山洞)

갈산동은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일동(一洞) 및 이동(二洞)지역이었다가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의거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로 되었다 그 후 1941년 10월 1일 부령 제253호에 따라 안양면 이동리(安養面 二洞里)로 개칭되었고 이어 1949년 8월 15일 대통령령 제162호에 따라 안양읍 이동리(安養邑 二洞里)라 했다가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시제가 실시되면서 안양시 평촌동(安養市 坪村洞)이라 했다 다시 1983년 10월 1일 시 조례 제600호로 호계동을 호계1동과 호계2동으로 분동하여 호계1동으로 되었고 이어 1989년 5월 1일 시 조례 제931호에 따라 동안출장소에 편제되었고 1992년 10월 1일 시 조례 제1173호에 의거 동안구에 편제되었다 그 뒤 1993년 5월 20일 시조례 제1285호에 따라 호계1동을 분동하여 갈산동(葛山洞)이 되었고 1996년 1월 1일 시조례 제1392호에 의거 동의 일부가 신촌동에 편입되었다



갈산동사무소 현판식(1993)★

■ 갈산동의 변천일람

- 고구려 장수왕 63년(475) 율목군(栗木郡)
- 신라 경덕왕 16년(757) 율진군(栗津郡)
- 고려 태조 23년(940) 과주(果川)
- 조선 태종 13년(1413) 과천현(果川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금과현(衿果縣)
- 조선 태종 14년(1414) 과천현(果川縣)
- 조선 고종 32년(1895) 5 26 과천군 하서면 일동 이동
  (果川郡 下西面 一 洞 二洞)
- 1914 3 1 시흥군 서이면 이동리((始興郡 西二面 二洞里)
- 1941 10 1 시흥군 안양면 이동리(始興郡 安養面 二洞里)
- 1949 8 15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始興郡 安養邑 二洞里)
- 1973 7 1 안양시 경촌동(安養市 坪村洞)
- 1983 10 1 안양시 호계1동(安養市 虎溪一洞)
- 1989 5 1 동안출장소(東安出張所)에 편제
- 1992 10 1 동안구(東安區)에 편제
- 1993 5 20 안양시 갈산동(安養市 葛山洞)
- 1996 1 1 갈산동 일부가 신촌동에 편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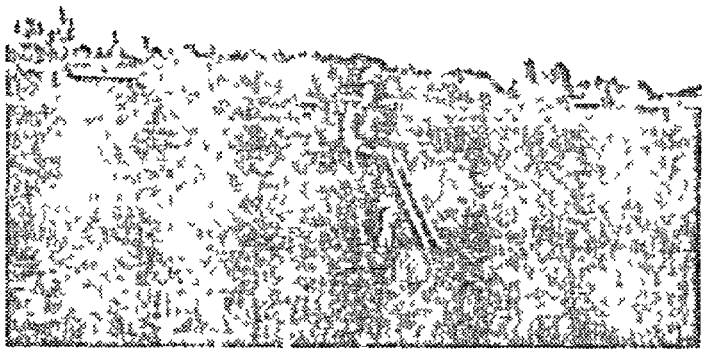
갈산동은 동(東)으로 의왕시 내손동 서(西)로 신촌동 남(南)으로 호계1동 북(北)으로 귀인동이 각각 위치해 있으며 옛 자연취락으로는 갈미(葛山) 당살미(堂山尾) 등이 있었다 이곳은 지리적으로 평촌신도시의 서남쪽에 위치하여 의왕시와 접하고 있으며 아파트는 샘마을단지로 쌍용 우방 임광 대우 한양아파트와 단독주택의 혼합구성으로 되어 있고 주변에는 푸른 산과 자유공원이 조성되어 있는 쾌적한 주거지역이다

■ 아파트 현황

아파트명	단지명	지번	동수	세대수	입주일
쌍용	샘마을	호계동1117	8	384	'93 9
우방	샘마을	1116	8	488	'92 12
임광	샘마을	1115	8	390	'94 4
대우 한양	샘마을	1121	20	1072	'94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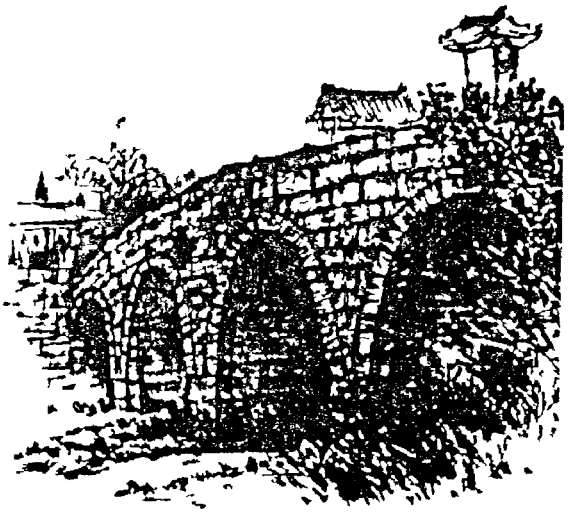
공공기관으로는 갈산파출소(호계동 1118-1)가 있고 교육기관은 안양남초등학교(호계동 1215) 덕현초등학교(호계동 1101) 신기중학교(호계동842-7) 대안중학교(호계동 1228) 대안여자중학교(호계동 1231) 평촌공업고등학교(호계동 1118-1)가 있으며 금융기관은 한미은행 평촌지점(호계동 1121)이 있다 1996년 10월 1일 현재의 현황을 살펴보면 면적 0 73㎢ 세대수 3 004세대 인구수 10 429명 인구밀도는 1㎢당 14 286명이다 갈산동사무소는 호계동 1118에 있다

갈산동(新村洞)의 유래가 되는 갈미는 본래 갈산동은 처음에는 호계1동의 자연취락명인 덕현동(德峴洞 덕고개)으로 정했졌으나 여론에 따라 개칭된 것으로 광주군 의곡면 손리(廣川郡 儀谷面 荪里)에 속한 마을인데 1936년 서울 - 과천 - 남양을 연계하는 지금의 홍인로를 개설할 때 양쪽으로 갈라져 도로 동쪽지역은 의왕시 갈미로 서쪽지역은 안양시 갈미로 되었다 이곳은 정조의 화산능행의 노정이자 서울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통이자 분기점(分岐點)이었다 갈미는 길(道)이 갈라지다(分岐)라는 동사의 첫음절 갈~의 음차로 '갈미(葛山)'가 된 것이다


신도시 개발이전의 갈산동의 농촌풍경(1970년대)

여 백

Ⅲ. 안양시 지명유래



제1절 자연마을

1. 가운데말 (中村) 〈관양1동〉

조선시대 대궐안의 식사와 왕명(王命)의 전달 수문(守門)및 정소를 맡아 보던 곳을 내시부(內侍府)라 칭하고 이에 종사하는 사람을 내시(內侍)라 불렀다 내시는 품관 이하는 다른 문무관(文武官)과 같이 계급이 올라가고 3品 이상은 왕의 특지(特旨)로 올라 갈 만큼 권세가 당당해 신분상 중인(中人)에 속했다 과천 지역의 내시는 인덕원에서 집단을 이루며 살다가 이들이 수(壽)를 다해 죽으면 오늘날의 공원묘지처럼 내시묘원(內侍墓園)을 조성해 예장을 치뤘다

가운데말(中村)
가운데 건물이 현 농촌번영회 건물이다(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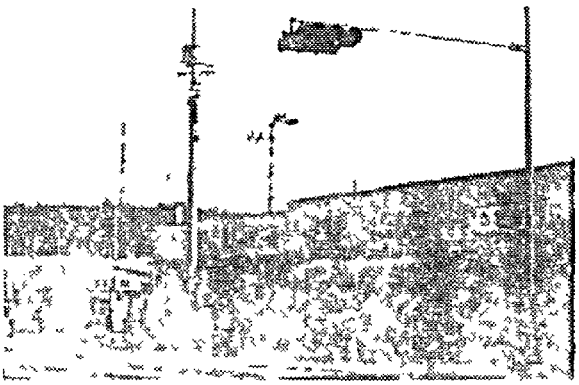
가운데말 즉 중촌(中村)은 내시(中人)가 죽어 묻히는 곳이란 뜻인데 실제로 최근까지 이 마을 곳곳에 내시 무덤이 있었다가 주변환경 변화로 모두 이장 또는 화장된 사례가 있다 즉 효성다세대 주택(관양동 356)에 4기와 관양동 산 65-1 속칭 내시땅에도 1기가 있었다가 1970년대 말 내시 후손이 화장하였다 마을 주민들이 증언한 바에 따르면 어떤 내시 묘앞에 있는 묘비명(墓碑銘)에는 '내시 김공 지묘'라 쓰인 비석도 있었다고 한다 가운데말은 김해 김씨 나주 나씨 경양 조씨 안동 김씨 등의 세거지로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까지만 해도 20여호 남짓한 촌락이었으나 1978년 안양 7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택지로 변모 되면서 남광 1차아파트(농경지) 동산빌라(안동 김씨 소유) 뉴한신빌라(안동 김씨 소유 임야) 등이 들어섰고 1973년에는 시제가 실시되면서 관양1동사무소가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뺌말 말무덤이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1일 뺌말 뒷산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조재근(趙載根 관양동 355 1903년생)
이용진(李龍鎭 과천시 갈현동 35 1917년생)
김봉묵(全鳳默 관양동 329 1926년생)

2 갈미 (葛山) 〈갈산동〉


갈미주막터(1987 사진은 의왕시 내손동 갈미임)

당살미 동쪽에 위치한 마을 의왕시 내손동 갈미와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마을은 본래 의왕시 갈미와 함께 광주군 의곡면 손리(廣川郡 儀谷面 荪里)에 속한 마을이었는데 1936년 3월 서울 - 과전 - 남양을 연계하는 도로를 개설하면서 동쪽 지역은 의왕 내손리(현 의왕시 내손동) 갈미가 되었고 서쪽 지역은 서이면 이동리(현 안양시 평촌동)갈미로 되었다

이곳은 정조가 부왕의 묘가 수원 화산능을 참배할 때 다니던 능행로(陵幸路)로 조선시대에는 한양에서 과전 - 인덕원을 경유 수원을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교통의 요충지이자 분기점(分岐點)이었다 철종 12년(1861) 김정호(全正浩)가 제작한 「대동여지도(大東輿地圖)」에 보면 당시 안양지방은 인덕원 관악산 갈미 등 불과 수개의 지명만이 표기된 것만 보아도 조선시대에는 오고가는 사람들로 상당히 북적댔던 것으로 보인다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광주읍지(廣川邑誌)』에 이 곳에 원(院)과 주막(酒幕)이 있었다는 기록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이와 같이 갈미란 길(道)이 갈라지다(分岐)라는 동사의 첫 음절 갈~의 음차(音借)로 갈미(葛山)가 된 것이다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대제로 유씨(劉氏)를 비롯하여 전주 이씨 (임영 대군파)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갈미는 20여 호의 작은 취락이나 예로부터

갈미봉에 비들어 온다 멍석 똘똘마러 세워라

라는 말이 구전되어 있는데 이는 모락산(慕洛山)의 연봉인 갈미봉에 구름이 끼면 틀림없이 비가 내린다는 속설때문에 퍼진 얘기로 보인다 주막과 원(院) 등이 있어 북

적대던 갈미 마을도 1990년 평촌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자 폐동되었다 마을에서는 1960년대까지만 해도 당살미 뒷말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의왕시 내손동 소재 모락산 중턱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광주군 『광주읍지』 189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3 골안 (谷內洞)① 〈안양8동〉

주접동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본래 주접동에 속한 마을이었으나 1962년에 성결교신학교(안양동 산 147-1) 1971년에 성문여중(안양동 산 117-1) 등이 설립되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로 주접동에서 분리되어 골안(谷內洞)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골안(谷內洞)이란 관모봉(성문여중 뒷산) 골짜기 안에 형성된 취락이란 뜻이다 이곳엔 일찌기 전주 이씨와 여흥 민씨가 세거하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정갑수(鄭甲秀 박달동 우성아파트 103-603 1924년생)

4 골안 (谷內)② 〈관양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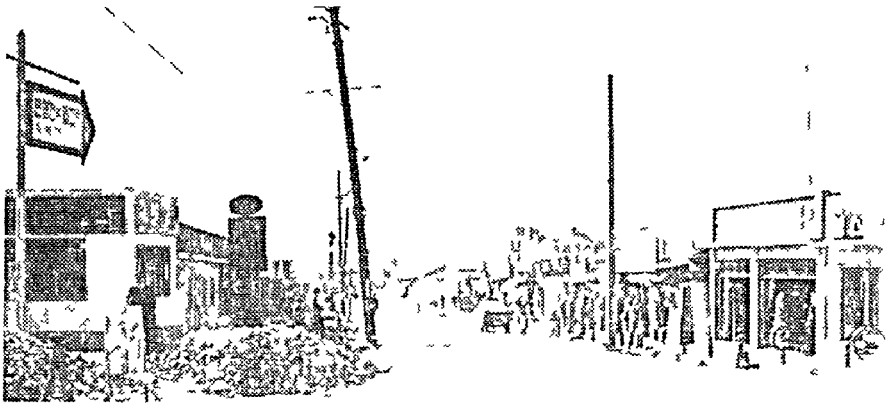
뻠말(秀村)에 속했던 마을로 뻠말 서북쪽에 있다 작은 골짜기 안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골안(谷內)'이라 칭하며 1970년대 초까지만 해도 민가 3호가 있었다 그 후 1978년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택지로 조성되어 민가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들어섰다

- **도 움 말** 조재근(趙載根 관양동 355 1903년생)
  김종성(金鍾聲 관양동 1406-15 1927년생)

5 구군포 (舊軍浦) 〈호계3동〉

안양시 최남단에 위치한 마을로 동쪽은 덕고개 북쪽은 샛터말 서쪽은 군포시 당정동 벌세전리 및 금정동 점말 남쪽은 의왕시 오전동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이곳은 조선 말엽에 구군포사거리와 맑은내(淸川) 사이에 장(군포장)이 설치되면서

시장 주변에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한다


구군포사거리(1972)
왼쪽에 안양칸트리클럽 이정표가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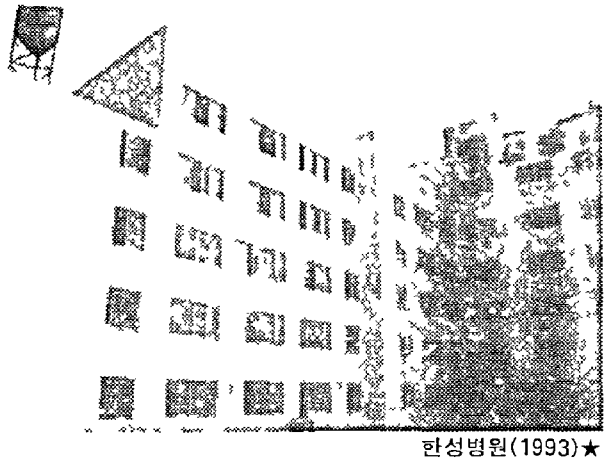
5 10일에 섰던 군포장은 담배를 비롯하여 소금 광목 등과 쌀 콩 조 보리쌀 등 농산물이 주로 거래되었으며 인근에서는 안양 군포 의왕 과전 등과 멀리는 용인 남양 판교 등지의 상인이 붐벼 성시를 이루었었다 군포장의 명물은 씨름과 정월 대보름에 개최되는 줄다리기로 이 때는 시장의 열기가 고조를 이룬다고 한다

번창하던 군포장이 자취를 감추기는 1925년 소위 을축년 대홍수로 맑은 내가 범람하자 안양지역은 안양1동 소재 구시장(진흥아파트 앞)으로 옮기면서 그 명칭이 안양시장으로 개칭되었고 서남부지역인 남면 군포역 앞(현 군포시 당동)으로 이전하면서 시장 명칭을 그대로 승계하였다 이 후부터 이곳 일대를 '구군포(舊軍浦)' 또는 '구장터'라 부르고 있다

군포(軍浦)의 유래에 대하여는 아직까지도 자세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 군포란 지명이 문헌상에 나타나기는 200년 내외로 알려지고 있다 정조가 부왕의 묘를 양주 배봉산에서 수원 화산으로 천묘할 때 능행에 관한 제 사실을 편찬한 『원행정례(園幸定例)』(1789) 도로교량조(道路橋梁條)에 '軍布'라 기재되어 있는데 군포(軍布)는 양역(良役)이라 하여 양인(평민)이 부역하던 국역(國役)을 말하기도 하고 정병(正兵)을 돕는 조정(助丁)에게 역(役)을 면해 주는 댓가로 받는 삼베나 무명을 말하는데 군포(軍浦)가 군포(軍布)에서 유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일설에는 정 일전쟁 때 (1894) 청나라 군인들이 군함을 타고 한강을 경유하여 이곳에 머물렀다 하여 군포(軍浦)라 하였다고 하나 오늘날 관개수로가 잘 된 지금에도 어려운 상황인데 어떻게 군함이 왕래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간다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조선 선조 때(1592)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관군(官軍)이 왜군에게 패하여 후퇴하다 지금의 군포에 이르러 승려의병(僧侶義兵)과 만나 관군을 재정비하였는데 이 지역에 머물 때 동리 주민들이 굶주린 관군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사기를 진작시켜 주었다 한다 그 후 관군이 승려의병과 합세하여 왜군을 무찔러 공을 세웠다고 전하며 그 후부터 이곳을 굶주린 관군이 배불리 먹은 지역이라 하여 軍飽라 하였으나 시대변천으로 軍浦로 되었으며 軍飽가 軍浦로 바뀌어진 시기와 사유는 알 수 없다

구 군포는 김해 김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이래 수성 최씨 전주 이씨 등이 대대로 살아온 마을로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10여 호의 한촌이었다 이마을은 만안로와 맑은내사이의 서쪽지역은 아랫말 만안로와 경수산업도로 사이의 동쪽지역은 웃말이라 각각 불렀으며 오늘날처럼 번창되기는 1963년 호계 3동 458에 안양교도소가 들어서고 이어 인근에 LG전선 구금성통신 등의 공장과 경수산업도로가 개설되면서 부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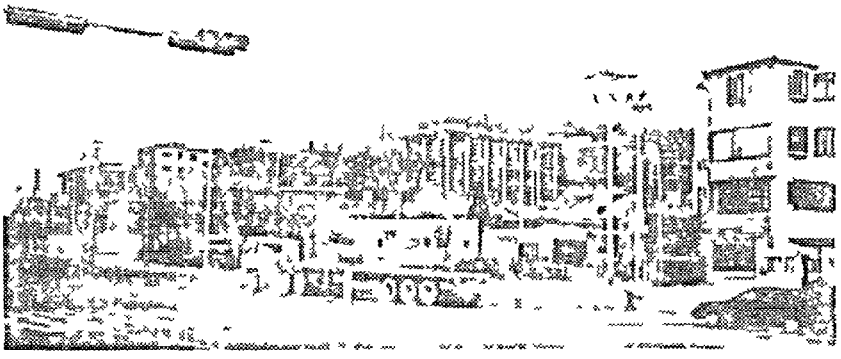

한성병원(1993)★

이곳에는 안양교도소 안양시민방위교육장 호계3동사무소 호계파출소 한성병원 등이 있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2일이면 호계파출소 북쪽 약 100m 지점에 있는 군웅산(軍雄山)에서 군웅제(軍雄祭)를 지냈으며 1960년 말에 이곳에 민가가 신축되자 파출소 북쪽 50m지점으로 옮겨 제를 지내다가 이곳 역시 박모씨로 소유주가 바뀌자 1980년 초부터 제(祭)를 지내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園幸定例)』 1789 「동아일보」1927 6 1
  내무부 『지방행정사』 1982 이승언 「행정구역변천사」 안양문화 3-1984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 **도 움 말** 김순흥(全順興 호계동 702-3 1925년생)

6 구룡마을 (九龍洞) 〈석수1동〉

구룡마을 한마음선원 부근이다(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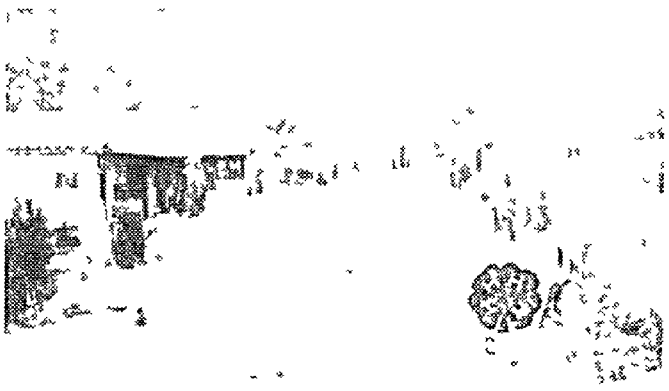


관악역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한국전쟁(1950)직전까지만 해도 동국실업(석수동 165 1968년 설립) 주변에 10여 호의 민가가 있었고 그 밖의 지역은 밤나무 참나무 등 잡목이 우거져 있었다 9 28

수복 후 당시 시흥군에서 난민들을 정착 이주시킨 후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그 후 동국실업 등의 공장과 관악역(冠岳驛 석수2동 241)이 생기면서 번창되기 시작했다 구룡마을이란 지명은 석수1동 3통 노인회관 자리가 풍수로 보아 좌청룡(左靑龍)이 완연한 명당지지(明堂之地)라 하여 구룡목이라 칭한데 연유한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이곳이 명당터라 조선시대 어느 왕비의 묘를 쓰려다가 조산이 약하다 하여 동구능에 썼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7 구름울 (雲谷洞) 〈비산3동〉



구름울(雲谷)입구(1971)

삼호아파트와 안양시 제 1정수장(위치 비산동 산 142) 사이에 있으며 마을의 지세가 흡사 구름에 둘러 쌓인 것 같다 하여 '구름울(雲谷洞)'이라 부른다고 하는데 보통 '삼호아파트 안 동네'라 칭하기도 한다

이 마을은 샘머루에 살던 안동 권씨 정승공과 후손들이 분가를 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하며 현재도 안동 권씨가 대성을 이루고 있다 구름울은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33호가 있었다가 마을 앞에 삼호아파트가 들어선 후 1986년에 영진빌라를 비롯하여 1989년에 현대빌라 선영빌라 산정빌라 등의 다세대 주택이 건립되었다 마을에서는 마장골 수푸루지 주민들과 함께 경화보육원 동쪽에 위치한 당봉(또는 매봉) 정상에서 해마다 음력 7월 2일과 10월 2일에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다가 1980년대 부터 음력 10월 2일에만 지내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장식(權昶植 비산동 378 1925년생)

8 금성마을 (金星村) 〈호계1동〉

일제강점기만 해도 고구마 콩감자 등이나 심던 박토로 한 때는 일본인들이 소나

무 잣나무 등을 가꾸던 묘포가 있었을 만큼 불모지였었는데 1970년대에 이르러 럭키금성그룹에서 무주택 사원을 새 주택을 집단으로 신축 입주하면서 부터 이루어졌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한용(李漢容 호계동 1000 1919년생)
  노일선(盧一先 호계1동 959-9 1922년생)

9 교하동 (校下洞 敎化洞) 〈안양 5동〉



만안로 주변의교하동(1972)

남부동과 주접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구한말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소나무가 무성했던 곳이나 일제강점 후 왜병의 군사훈련장으로 되었다가 1927년에 안양초등학교(안양5동 387-1)가 설립되자 학교주변에 민가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이 마을의 유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구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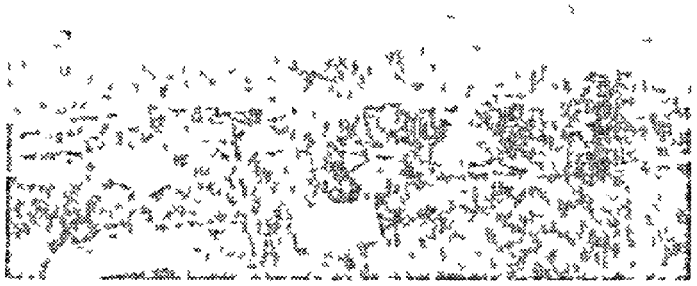
조선조 중엽에 이 마을에 어느 가난한 부부가 외아들과 함께 살았는데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라 아들을 공부시킬 수 없게 되자 그 아들이 서당 선생의 도움으로 무료로 글을 배워 노력 끝에 과거에 합격하였다 이에 조정에서 그에게 높은 관직을 제수하려 했으나 끝내 사양하고 오직 이곳 마을에 향교를 짓고 우매한 백성을 가르칠 것을 임금에게 아뢰자 이에 감탄한 임금이 이곳에 커다란 집을 지어주고 교화당(敎化堂)으로 명명해 주었는데 그 후부터 이 주변의 마을을 교화동(敎化洞)으로 부르다가 1927년 안양조등학교가 세워지자 학교밑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교화동(校下洞)'으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내고장전통가꾸기」 1981
- **도 움 말** 김병석(金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10 귀인 (貴仁) 〈귀인동〉

신말(新村)동쪽으로 온양 정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마을이라고 한다 조선시대 신분이나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서울로 과거를 보러갈 때 이 마을에 들려 머물다 갔다고 하여 '귀인(貴人)'이란 지명이 붙여졌다고 한다

조선조 정조 때(1789) 전국의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그 내용을 편찬한 『호구총수(戶口總數)』에 의하면 귀인이 안양에서 인구가 가장 많아 귀인1동 귀인2동으로 분동해 안양에서는 가장 번창했던 마을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일제강점기에는 이곳에 귀인강습소가 있었다가 광복 직후에 이르러 학생의 감소와 재정난 등의 이유로 문은 닫았다 70여호의 대촌인 귀인마을은 경존 신도시 개발구역내의 존치(存置)되는 몇 안되는 마을 중의 하나로 1990년 4월에는 명지대박물관에 의해 지석묘가 발굴되었다 지석묘가 발굴된 곳은 마을 뒷산으로 (해발 60m) 1970년대까지만 해도 수목이 우거진 곳이었다 크기는 175 × 110 × 20 - 30cm 로 재질은 화강암이며 성혈(性穴)이 7개가 있다 학술적 자료로 이용하기 위하여 일부는 자유공원내에 이전복원 되었고 일부는 파괴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귀인 전경(1980년대)★

또 이곳에는 지석묘 뿐만 아니라 백제시대 주거지 유적이 발굴조사 되기도 하였다 동 주거지는 지석묘에서 서북쪽으로 약 3m 떨어진 산의 능선이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삼국시대 주거지로 확인 조사된 예는 불과 3 - 4곳에 불과했는데 귀인마을에서 발견된 백제초기 주거지는 아궁이 온돌시설인 삼렬(三列)의 구들골이 잘 보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부엌 곁에 마련된 저장고와 기둥구멍이 뚜렷하게 남아 있어 원형의 가상복원이 가능하므로 백제초기의 주거문화의 한 면을 헤아릴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 마을에서는 일제강점기 말엽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7월에 길일을 택해 마을내에 있는 대동우물에서 마을의 풍요와 무해를 기원하는 우물고사(井祭)를 지냈다 1996년 1월 1일에 주민들의 마을에 「귀인동 마을유래」표석을 세웠

다

- **참고문헌** 『호구총수』 1789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안양문화 5-1986
  명지대학교 『안양평촌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0
- **도 움 말** 정규결(丁圭轍 호계동 314 1924년생)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11 꼬챙이 (花倉洞 串昌洞) 〈석수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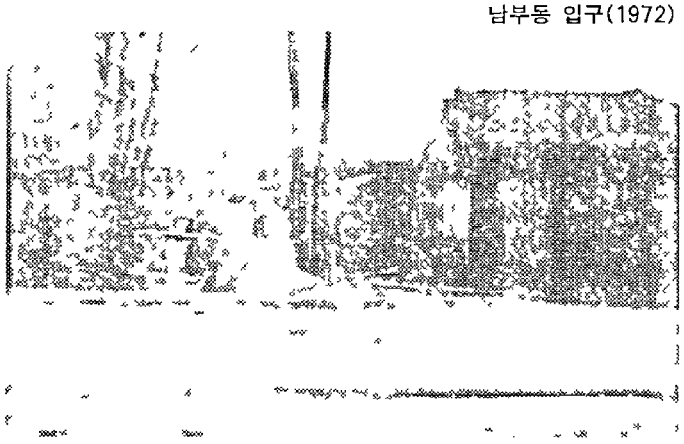
충훈부 동북쪽에 있다 이곳은 조선조 말엽까지만 해도 미곡을 저장하는 창고와 절쭉밭이었으나 일제강점기 초에 광명시 가학동 공석골 출신 성만제(成萬濟 1890 - 1959 시흥시 미산동 구시미에 묘가 있음)씨가 이 마을에 처음으로 정착한 후 벗나무 등을 식재하면서 각종 꽃이 재배되기 시작했다 그 후부터 꽃과 창고가 있는 마을이라 하여 '꼬챙이(花倉洞)'이라 칭한다고 한다 그런데 『조선지지자료』 경기도 시흥군편에 '곶창(串昌)'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보아 예전엔 이곳 일대가 안양전변에 위치한 곶(串 바다에 뾰족하게 내민 땅)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마을내에는 효종 때 예조및 병조관서를 역임한 박서(1602 - 1653)와 일제강점기 만석꾼으로 자본가였던 김윤식(金閏植)의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임시토지조사국 『조선지지자료』 1918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성시만(成始萬 석수동 산 159 1923년생)

12 남부동(南部洞) 〈안양1동〉

남부동 입구(1972)



교하동(안양5동)과 중앙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시가지 남쪽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남부동(南部洞)'이라 칭한다 일제 강점기만 해도 잔우물(안양5동)에서 흘러 내리는 샘물로 농사를 짓던 전형

적인 농촌지역으로 광복 직후에 벽산쇼핑 앞에 민가 수호가 뜨문뜨문 있었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원예 정과 시장이 개설되고 이어 숙박업이 번성하면서 급성장한 곳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13 능골 (陵谷)①

〈안양9동〉

현 안양서여자중학교(안양9동 1055-3) 뒷산이 흡사 능(陵)의 활개같은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능골」(陵谷'이라 칭한다고 하나 일설에는 조선조 제 21대 영조의 아들인 속칭 뒤주대왕(사도세자)이 생전에 "내가 죽으면 연(𡰥)을 띄워 떨어지는 곳에 묻어 달라"는 유언을 하며 연을 띄웠는데 그 후 신하들이 연 떨어진 곳을 살피니 그 곳이 바로 능골이었다는 것인데 그 후부터 능 후보지였다는 연유로 '능골(陵谷)'이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상은 구전에 불과할 뿐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은 산등성이를 가리키는 것으로 담안(안양4동)에서 이 마을을 바라볼때 산등성이 너머 쪽에 위치했기 때문에 '능골(陵谷)'로 붙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능골은 원주 변씨가 정착한 이래 재씨 김씨 등이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일제강점기만 해도 불과 15호 남짓한 작은 촌락이었으나 삼영하드보드(안양3동 774 1946년에 설립 선창산업주식회사로 개칭) 삼진알미늄 한국아트제지 등 유수의 공장이 들어서자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이어 안양서여자중학교 신안초등학교(안양3동 730 1977년에 설립) 신안중학교(안양3동 728 1980년에 설립) 등 교육기관이 속속 들어섰다 1986년에는 삼진알미늄과 한국아트제지 자리에 프라자아파트가 신축되어 마을이 일신되었다 보통 병목안을 웃능골이라 부르는데 반하여 이 마을을 일컬어 밧(박)능골이라 칭한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1979년 안양서여자중학교를 신축할 때 대리석으로 된 대형 십자가가 출토된 것을 이 학교 화장실 부근에 묻었다고 하여 1996년 12월 안양시에 의해 발굴조사가 이루어 졌다 안양9동 1통 ~ 3통에 속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한윤호(안양동 949 1934년생)
  조문성(趙文成 안양동 973-35 1943년생)

14 능골 (陵谷)②

〈박달2동〉

범고개마을 서남쪽으로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新村)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5호 남짓한 작은 취락이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초만 해도 안양에서 안산 소래 등을 가려면 이곳 앞(범고개)을 거쳐야 했으므로 강도 도둑이 득실거렸다고 한다 마을의 유래는 이 마을 남쪽 약 200m 지점의 논가운데에 섬같이 생긴 큰 무덤이 있어 애능(兒陵)이라 징한데서 기인하고 있다고 하나 그 보다는 낮은 산줄기가 느러진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능골(陵谷)'로 징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 무덤은 1988년에 김(全)모씨에 의해 경지정리되었다 주민의 대부분은 농업으로 생계를 잇고 있으며 행정구역상으로는 안양시 박달동에 속하나 생활은 이웃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 주민들과 함께 한다

마을 초입에는 일우주절(박달동 753-11 1989년에 설립)과 세원화학(박달동 753-9 1972년에 설립) 등의 공장이 있고 마을에서는 1970년대까지만 해도 범고개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범고개 요골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도 움 말** 이계순(李季淳 박달동 765 1927년생)

15 달안이 (達安洞) 〈달안동〉

이 마을은 1944년 박흥식(朴興植 1903년생)이 안양에 있는 조선직물주식회사(현 대농단지)를 인수한 후 조선비행기주식회사(朝鮮飛行機株式會社)의 비행기 활주로 공사를 시작할 만큼(1945년 광복으로 중단) 지역이 넓어 비가 오면 가릴 것이 없어 삿갓을 쓰고 달아나야 비를 피할 수 있다하여 삿갓들(笠坪) 또는 달안이(達安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또 살기 힘든 동네라 하여 사람들이 달아난다고 하여 '달안이'로 했다는 설 등이 있으나 이는 이곳이 외진 곳이기 때문에 하는 말일 것이다 한국땅이름학회 배우리회장은 달안이를 "'들안'이란 뜻의 '달(들)안이'였을 것" 이라고 하여 예전 지도에 이곳의 지명이 월내(月內)로 나오는데 이것은 '달안'을 그대로 의역한 것이라고 한다 일명 섬마을이라 부르기도 하였다 달안이는 허허벌판이라 겨울이면 추워 사람들이 살지 못하는 불모지라 하여 농경지 외에 민가가 없었다가 1940년대 조에 의지할 곳 없는 외지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 취락이 처음 형성될 때에는 문화 류씨 진주 강씨 등 모두 12호가 있었고 이 후에도 이곳이 절대농지지역이라 민가의 신축이 되지않아 그대로 유지되었다가 달안이 일대가 평촌신도시 구역에 편입되자 1989년에 폐동되었다

달안이에는 예로부터

안양은 금소반이요 달안동은 오씨의 천년 도읍지이다

安養金小盤 吳達安周千之地

라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장식(權昶植 비산동 378 1925년생)

16 담배촌 〈안양9동〉

담배촌 수리산공소(1996)



병목안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9동 11통에 속해 있다 이 마을은 하동 정씨를 비롯하여 금녕 김씨 원주 변씨 정주 한씨 등의 세거지로 우리나라에서 두번째 신부인 최양업(崔良業 1821-1861)의 아버지 최경환(崔京煥 1805 10 15 - 1839 9 12)을 비롯한 전주교도들이 조정의 천주교 박해로 인하여 1837년 7월 이곳에 정착 이주하면서 생계를 이어가기 위하여 담배를 경작했다고 하여 '담배촌'이라 칭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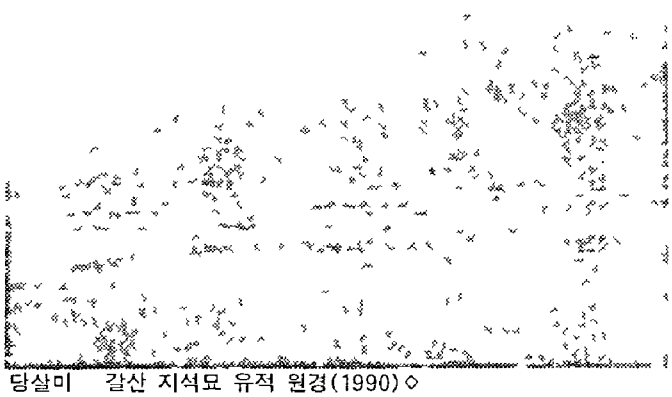
담배촌은 급경사진 곳이 많아 담배는 주로 저지대의 경사가 완만한 곳에서 경작했는데 일제강점기때만 해도 한강 이남에서는 담배촌에서 재배한 담배를 일등품으로 칠만큼 품질이 우수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 담배촌 주민들은 담배 경작 외에 땔나무와 토종꿀을 채취해 이를 안산장(안산시 수암동) 군포장(호계3동 구 군포) 안양장(안양1동 시대동) 등에 갈아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곳이 산간오지의 마을이라 한국전쟁 때는 인민군의 본부가 주둔하기도 했고 근래에는 병목안에서 담배촌에 이르는 골짜기마다 연중무휴 휴양객으로 붐빈다 성지에는 복자(福者)최경환의 묘(허묘)가 있으며 성지입구 못미처에 있는 복자강당은 대홍수 직후 중건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조문성(趙文成 안양동 973-35 1943년생)

17 당살미 (堂山尾) 〈갈산동〉


당살미 갈산 지석묘 유적 원경(1990)◇

죽산 안씨의 세거지로 갈미 서쪽에 있었던 마을이다 일제 강점기 이전만 해도 의왕시 내손동 갈미마을과 평촌동 갈미마을은 본래 한 마을로 오손도손 함께 살아오면서 모락산 중턱에 당집(堂宇)을 짓고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지냈는데 '당살미(堂山尾)'라는 마을명은 이 당(堂)을 모신 모락산의 산세가 이곳 마을에까지 이르렀다 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민가라고는 7호 밖에 안되는 쥐락이나 대안중학교(1984년에 개교 평촌동 784) 대안여자중학교(1985년에 개교 평촌동 824-3) 등의 교육기관이 있고 1990년에는 명지대에서 지석묘를 발굴했다 이 지석묘는 대안여중에서 남쪽으로 약 20m 떨어진 산 기슭의 밭에 자리잡고 있는데 이곳은 신도시 건설지구에 조성된 자유공원의 끝자락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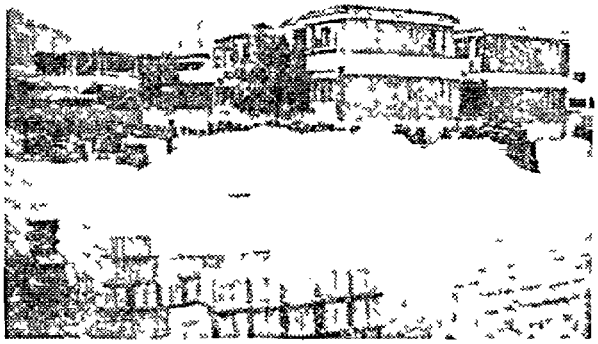
평촌 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어 1990년에 폐동된 당살미마을은 1960년대까지만 해도 뒷말 갈미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의왕시 내손동 소재 모락산 중턱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명지대학교 「안양존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0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18 덕고개 (德峴) 〈호계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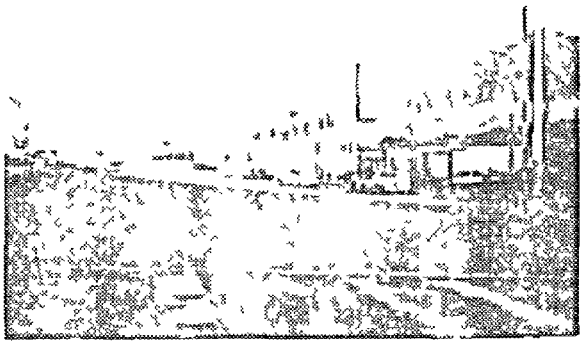
군포 신사거리 동북쪽에 위치해 있는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 도양리(果川郡 下西面 道陽里)라 불리웠던 마을이다

군포 신사거리에서 과전 방향으로 약 400m 지점에 있는 홍안주유소 일대가 예전에 큰 고개였었다는 연유로 이 일대를 덕고개(德峴)라 칭하고 있는데 이고개는 당살미 갈미 인덕원 등 주민들이 군조장(軍俎場)을 보러 갈 때 왕래하던 곳으로 1936년 3월 서울 - 과천 - 남양간 도로개설 할 때 현재의 모습대로 고개를 낮추었다



덕고개 교회터 신군포사거리에서 북쪽으로 약200m지점 서편도로변 세멘트벽돌공장
(1995 『안양지방 감리교회백년사』에서)

덕고개는 풍수로 보아 배형국(舟形局)인데 우물을 여러 개 파면 배가 가라 앉으므로 마을 중앙에 있는 우물 하나로 대동의 식수로 사용했다고 한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현 호계시장 북쪽 100여 미터 지점에 나무로 방풍림(防風林)을 조성해 배의 풍파를 막았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 지역을 '수풀아래'라 부르고 있다 나주 오씨와 경주 김씨 남평 문씨 함흥 노씨 등의 오랜 세거지인 이 곳은 동쪽 지역(홍안주유소 주변)을 웃만 서북쪽 지역(농협 호계동 지점 호계시장 주변)을 아랫말 서쪽 지역(군조신사거리 호계동사무소 주변)을 건너말이라 각각 불렀다 「대한 그리스도인회보」(1895)에 의하면 이 마을의 허대진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으로 보아 안양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로 생각된다 그리고 이곳에 있던 덕고개교회는 1908년까지 감리교회였다가 1909년 장로교회에서 인수하여 삼성교회(위치 군조시 부곡동)로 되었다



덕고개(1996)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2일이면 마을 중앙에 있던 우물(현재 건국빌라가 들어섬)에서 소 머리를 놓고 온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우물고사(井祭)를 지냈으나 인근에 민가와 연립주택 등이 신축되면서 수원(水源)이 끊긴데다가 우물터가 타인에게 매도되는 등 주변환경의 변화로 1988년 부터 제(祭)를 지내지 않고 있다 덕고개는 1973년 시제가 실시된 후 경수산업도로의 관통과 홍안로 등 교통의 발달로 급성장되었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대한그리스도인회보」 1895
조선총독부 『구한국 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경수노정어연구」 인문경론 16-1988
이진호 「안양신문」 1989 10 11

● **도 움 말** 오광렬(吳廣列 호계동 998-55 1930년생)

19 덕천마을 (德泉洞) 〈안양7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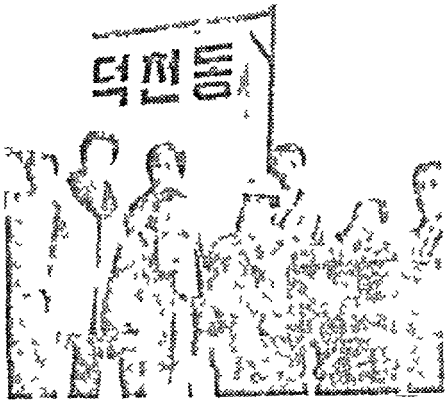
주접동 동북쪽에 있는 마을로 예전에는 주접동과 한 마을이었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 초에 시흥시 정왕동 출신인 원정상(元貞常 안양여고 원종면 교감선생의 증조부로 묘가 안양중앙병원 뒤에 있었다가 1990년 5월에 화성군 매송면으로 이장됨)이 분가를 하면서 지금의 안양7동 213에 정착했고 이어 전주 이씨 창령 성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으로 발달되었다



덕전마을 표석 설치하는 사람은 최돈세이다(1978)

이곳은 1960년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였었다 예컨대 명학역과 주접 지하도에 이르는 경부선 철도변은 아카시아 동산이었으며 안양냉동사(안양7동 196-15)자리는 농경지(논) 주식회사 삼풍(안양7동 199)자리는 논과 도밭 대영모방주식회사(안양7동 196-12) 자리는 자두밭 동화약품공업주식회사(위치 안양7동 189)자리는 농장이었다

덕전동으로 명명한 후 주민들이 기념촬영 (1977년경 최돈세 제공)



이 마을이 오늘날처럼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토박이 원종만(元鍾萬 안양7동 138-32 1932~ 원정상 증손)의 공로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원씨는 허허벌판인 이곳에 덕천슈퍼건물을 신축한 후 7동 새마을금고(안양7동 130-27)를 비롯하여 덕천초등학교(안양7동 192-5) 덕전우편취급소 등의 기관과 유수의 공장을 유치하는 데 공헌했다

이 마을 본래의 이름은 넓은 벌판에 있다고 하여 벌터(坪村)라 칭했는데 1977년 7월 대홍수 때 안양전의 범람으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자 수재민촌(水災民村)으로 불리웠고 이 해 9월에 안양의 시내버스(삼영운수)가 이곳에 버스노선을 개설하면서 버스 안내판에 '수재민촌'으로 명기하자 당시 이 마을의 새마을 지도자였던 최돈세(崔燉世)가 중심이 되어 긴급 주민회의를 개최한 결과 '수재민촌'이란 마을명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장차 2세 교육을 위해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므로 차제에 새로운 마을명을 짓자는 제의가 많아 큰 하천인 안양천에 위지해 있다고 하여 큰 '덕(德)'자에 '내(川)'자를 취해 '덕전마을(德川洞)'로 명명했다가 안양천의 오염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1년만인 이듬해(1978) 9월에 "이곳 어린이들이 샘솟듯이 씩씩하게 자라서 나라에 큰 일꾼이 되라"는 뜻으로 큰 덕(德)자에 샘 전(泉)자를 취해 '덕전마을(德泉洞)'로 개칭하고 마을입구에 '덕전마을'이란 표석을 설치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원종만(元鍾萬 안양동 138-32 1932년생
  최돈세(崔燉世 안양동 402-13 1941년생)
  원종면(元鍾冕 안양동213 1946년생)

20 동수암 (東秀岩) 〈박달2동〉

작대들에 소재한 골짜기 중 가장 큰 골짜기에 있던 마을 고려 때 창건된 동수암사(東秀岩寺)란 사찰이 있었는데 사찰 주변에 민가가 생기면서 사찰명을 취해 '동수암(東秀岩)'이라 칭한다고 한다 일설에는 옛 시흥군 수암면 동쪽에 있는 마을이므로 '동수암'이라 불렀다고 한다

이 마을은 파주 염씨와 광주 이씨 등 15호 남짓한 취락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이곳 일대가 군용지에 편입되면서 폐동되자 이곳에 살던 주민들은 대부분 인근 지역인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신촌)과 박달2동 능골로 분산 이주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21 동편 (東便) 〈관양1동〉

동편(1971 전우회 회원 이응식 제공)



샌말(間村) 동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이곳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조선중기에 전주이씨 익양군과인데 1996년 현재 동편의 50가구 중 30여 가구가 전주 이씨일 만큼 전주이씨가 크게 번성했다 후손 중에 이면훈(李冕薰 작고 전매정장 역임) 이서구(李書九

1923~ 대림콘크리트 상임고문역임)가 있다

관양1동 28통에 속한 동편마을은 서남지역을 아랫말 동북지역을 웃말이라 각각 칭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데다가 수도물도 안들어오는 도시 속의 농촌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22 뒷말 (後村)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동북쪽에 있었다 본래 갈미에 속했던 마을로 죽산 안씨의 세거지였다 갈미주막(葛山店) 뒤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뒷말(後村)'이라 했는데 평촌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어 1990년에 폐동되어 5호가 있었다 마을에서는 1960년대 이전만 해도 당살미(堂山洞) 갈미(葛山)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의왕시 내손동 소재 모락산 중턱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23. 마장골 (梅谷洞) 〈비산3동

구름울과 안날미 사이에 위치해 있으며 예전에는 구름울에 속해 마장골을 웃말 구름울을 아랫말이라 각각 칭했다 이 마을은 샘머루에 살던 안동 권씨 정승공파 후손들이 분가를 하면서 형성되었고 그 후 청주 한씨 등이 세거하기 시작해 광복 직전에는 30호가 있었다 그 후 관청자리에 1978년 비산초등학교(비산동 315)가 건립되고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화남아파트(1986) 호성빌라(1986) 삼호빌라(1989) 두산빌라(1989) 등의 아파트와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마장골이란 조선시대 관가에서 사용하던 말(馬)을 이곳에서 사육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다음과 같은 전설로 인해 매곡동(梅谷洞)으로도 불리우고 있다 조선조 중엽 마장골에 사는 어느 농군의 아낙네가 갓난 아이를 풀 밭에 뉘여 놀게 하고 자신은 김을 매고 있는데 매가 갓난 아이를 채어 날아 갔다고 한다

아이를 잃은 아낙네는 그 날로 몸져 눕게 되었는데 그 후 이 마을 나무꾼이 이곳에서 나무를 하려고 산을 오르려는 순간 커다란 매가 공중을 빙빙 돌기 시작하자

주위를 살핀 이 나무꾼은 갓난 아이가 있는 곳을 확인한 다음 곧 마을로 내려와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리자 이 소문이 널리 퍼져 임금님에게 까지 알게 되어 급기야는 어전회의까지 열리게 되었는데 대신들이 이는 좋지 않은 징조이므로 퇴치해야 한다고 하여 어명을 받은 원님이 포졸과 함께 현지에 도달했으나 보금자리만 있을 뿐 갓난 아이와 매는 온데간데 자취가 없어졌다 이상하게 여긴 원님은 이 갓난 아이가 필경 독수리의 보호를 받으며 자라고 있다고 생각하고 절수를 하였다고 한다 이 후부터 이 마을에는 매가 자취를 감추었다고 하며 마을이름도 '매곡동(梅谷洞)'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한다

마장골에는 흥국사(興國寺 비산3동 306-12)와 약수암(藥水庵 비산 3동 292-1) 등의 사찰이 있고 마을에서는 구름을 수푸루지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2일 평화보육원 동쪽에 있는 당봉(또는 매봉)에서 산신제를 지낸다

- **참고문헌** 김행웅 「매곡동의 전설」 안양문화 2-1983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장식(權昶植 비산동 378 1925년생)

24 막상골 〈박달2동〉

붓골 남쪽에 있다 안동 권씨 밀양 박씨 김해 김씨 등 15호 남짓한 마을이었는데 일제강점기때 군용지 건설로 폐동되었다 현재 ○○단 본부가 있다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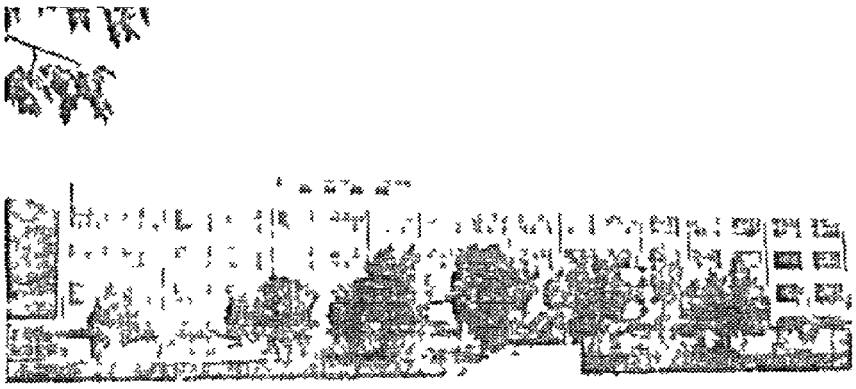
25 말무덤이 (馬賁洞) 〈관양1동〉

뺌말(秀村)과 가운데말(中村)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로 조선시대 마장골(현 매곡동)에서 기르던 말이 죽으면 이곳에 매장했다고 하여 '말무덤이'(馬賁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일설에는 큰 무덤이 있는 곳이라 하여 말무덤이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1960년대만 해도 현 관양중학교 아래에서 말에게 편자했던 쇠조각 등이 많이 출토되었다는 마을 촌로들의 증언이 있는 것으로 보아 말의 무덤이 있었던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김해 김씨 나주 정씨 위씨(韋氏)등이 오래 살아 온 말무덤이 마을이 오늘날처럼 크게 번창되기는 1978년에 시작된 안양7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실시하면서 부터이다

이후 1982년 현대식 건물이 간간이 신축되다가 1985년에 이르러 농경지(논)였던 곳에 현대아파트가 들어선데 이어 야산이었던 곳에 아리랑아파트와 남광 2차아파트가 밭과 논이었던 곳에 태광아파트가 각각 신축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또 밭과 임야였던 관양동 538일대는 1948년 관양초등학교가 세워졌는데 이는 동안구정 관내에서는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인 동시에 이 학교 교명(校名)으로 인해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이 일대를 관양동(冠陽洞)으로 명명하기까지 하였다 그 후 1977년에는 포도밭이었던 관양동 산90-3에는 관양중학교가 세워져 한낱 말의 매장지에 불과했던 불모지가 오늘날의 교육의 요람지로 크게 탈바꿈 되었다 마을에서는 뱀말 가운데말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10월 1일 뱀말 뒤에 있는 산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내오다가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는 곳이 뱀말지역이라는 연유로 1960년대 초부터 제(祭)를 지내지 않는다



관양초등학교(1993)★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김종성(全鍾聲 관양동 1406-5 1927년생)

26 망령골 (亡靈谷) 〈관양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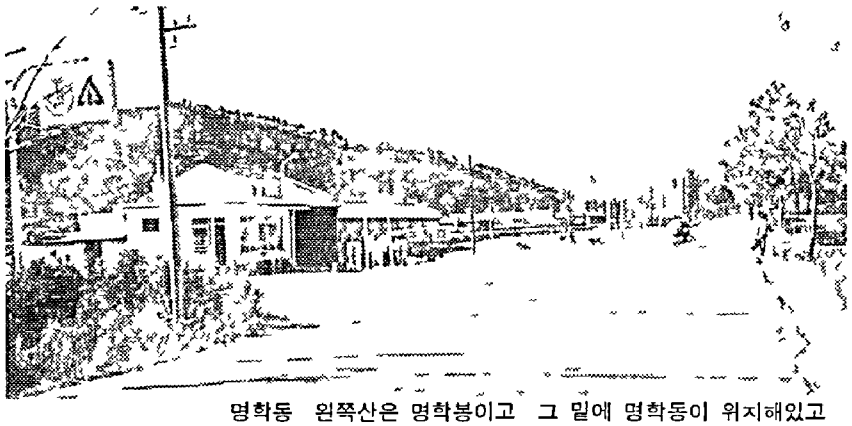
망령골 고개주변에 있다 본래 동편에 속한 마을로 청주 한씨 등의 오랜 세거지이며 민가 7호의 작은 취락이다 구전에 따르면 신라말기에 어떤 사람이 서울에서 나무를 팔고 과전을 거져 이곳을 지나가는데 어느 여인이 소복을 하고 나타나 하루밤을 유숙하며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고 한다 그 후 여인이 다시 나타나 하는 말이 '관악산 바위 틈에 아이가 있으니 가보시오'라고 한마디 하고는 홀연히 사라졌다 여인이 일러준 대로 현장엘 가보니 과연 바위 틈에서 아이가 울고 있어 데려다 정성껏 기르니 이가 후에 귀주대첩의 영웅 강감찬(姜邯贊)장군이라는 것이다 망령골이란 망령(亡靈) 즉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났다 해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는데 일설에는

어느 여인이 이곳에서 3년간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관악산을 바라보며 기도했다고 하여 '망령골(亡靈谷)'이라 했다는 것이다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득춘(全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27 명학동 (鳴鶴洞) 〈안양8동〉

주접동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경산 신씨 함평 이씨 등이 처음으로 정착했다고 전해진다 예전에는 명학초등학교 아래에 사람이 살기 시작했다가 1974년 서울-수원간 전철개통과 동시에 명학역의 건설 1976년의 명학초등학교(위치 안양8동 349-1) 중앙병원(위치 안양8동 산160) 등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했다


명학동 왼쪽산은 명학봉이고 그 밑에 명학동이 위치해있고
만안로와 마을사이엔 경부철도가 놓여있다(1972 천우희 회원 이석범 제공)

구전에 따르면 조선조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 ? - 1644)이 부친 심간(沈諫)의 묘를 비산1동 수푸루지(林谷洞) 뒷산에 묘를 쓰려고 땅을 팠는데 돌 밑에 학(鶴)이 두 마리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중의 한 마리는 안양 2동 소재 양명고등학교 옆에 위치한 오미산(烏尾山)) 학 뒤로 날아갔고 다른 한 마리는 명학초등학교 옆(동북)에 위지한 바위에 날아와 앉더니 슬피운 후 어디론가 날아 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학이 울던 바위라 하여 '명학바위'라 칭했고 마을 이름도 바위 이름을 취해 '명학동(鳴鶴洞)'이라 부른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병석(全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28 미름물 〈박달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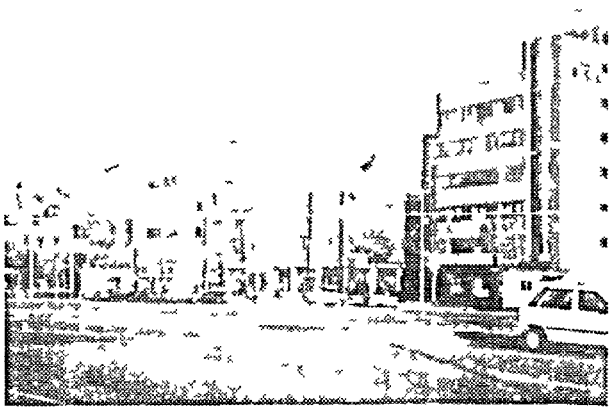
샛터말 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마을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대동우물을 미름물

이라 했는데 마을명도 우물명을 취해 '미름물'이라 칭했다 이 마을에 세거한 성씨는 최씨 김해 김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다 5호 남짓한 작은 취락이었으나 일제때 평양 육군병기창 안양분장이 들어서자 폐동되었다 이곳에는 엄성(嚴惺 1575 - 1628 응교) 엄황(嚴愰 1580-1653 영흥부사) 엄정구(嚴鼎耉 1605 - 1670 한성좌윤) 등 영월 엄씨 선대의 묘가 많았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上 1988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29 민배기 (禿朴只, 民伯洞) 〈평촌동〉

민배기(1996)



삼태기처럼 오목하게 생긴 마을로 벌말과 갈미 사이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 과전 인덕원 갈미 등은 관아와 원(院)이 있어 지체높은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데 반해 이곳은 좀 외진 곳이다 서울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행려자들이 날이 저물면 민박을 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민박이(民伯洞)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민배기(民伯洞)로 불리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정조의 『원행정례』에는 禿朴只(독박지)로 기술되어 있는데 이는 민배기를 한자화한 표기라고 한다 즉 禿(독)은 석독(釋讀)하여 '민~'으로 읽어 '민배기'로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괴산 음씨가 저음으로 세거한 민배기마을은 동쪽 지역을 등너머라 칭하고 그외 지역은 민배기로 통칭된다 또 마을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 지르는 길이 있어 그 서쪽 지역은 평촌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경수노정어연구」 인문논총 16-1988
  이숭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정규절(丁奎敎 호계동 314 1924년생)

30 밧(박)날미 (外飛山) 〈비산3동〉

삼호아파트 서북쪽에 있는 매곡동과 수푸루지 등의 제 지역을 통칭해 일컫는 말

로 비산동 골짜기 밖에 위치해 있어 밧(박)날미(外飛山)라 칭한다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상서면 외비산리라 불렀다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31 방죽말 (防築洞) 〈호계2동〉



방죽말 전경(1970년대)★

안말과 샛터말 사이에 있다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果川郡 下西面)의 관아가 있었고 그 후 1914년 3월 부터 1917년 7월까지 시흥군 서이면(始興郡 西二面)의 관아가 있었던 유서깊은 고을이다 이곳은 조선시대에 물을 막기 위하여 둑을 쌓았는데 그 주변에 있는 취락이므로 '방죽말(防築洞)'이라 칭했다 그런데 이 방죽이 언제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숙종 때(1699) 발간된 『과천현신수읍지』 제언조(堤堰條)에 '虎界堤堰在縣西南間十八里'라 했는데 이로 미루어 보아 방죽(제언)의 이름은 호계이고 그 위치는 과천치소(현 과천시 중앙동 사무소)에서 서남쪽으로 18리 지점에 있다 숙조년대는 숙종조 이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최소한 조선 중기에 이미 방죽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이 방죽은 후대에 내려 오면서 그 명칭이 바뀌었다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과전읍지』 제언조(堤堰條)에 '호계리경자제언일고재현서남간18리(虎溪里競子堤堰一庫在縣西南間十八里)'라 하여 방죽은 호계(虎界)에서 호계리경자(虎溪里競子)로 되었고 이어 일제때 부터 범계방죽으로 불리었으나 1974년 부터 실시된 안양6지구 구획정리 사업때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조에 길일을 택해 방죽 앞에 있던 수령 300년 되는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는 군웅제(軍雄祭)를 지내다가 1970년대에 나무가 죽자 제(祭)를 지내지 않는다

● **참고문헌** 과전현 『과전현신수읍지』 1699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32. 벌말 (坪村) 〈평촌동〉

인덕원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산이 없는 허허벌판에 자리잡고 있어 '벌말(坪村)'이라 불렀는데 그 후 마을이 또 생겨 두 벌말 또는 이평촌(二坪村)이라 했으며 이를 줄여 이동리(二洞里)라 칭하였다 예전에는 한강에서 과전 - 안양에 있는 취락 중 가장 큰 마을이었다고 한다 벌말은 조선 조기에 괴산 음씨가 저음 정착하였다고 하여 음촌(陰村)이라 부르기도 하였으며 그 후 밀양 박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등이 세거해 왔다

벌말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서울 - 과전 - 군포 - 남양간 도로를 개설한 후 1969년에 동일방직(평촌동 1)을 비롯하여 오뚜기 식품(평촌동 160) 등의 공장이 건립되면서 인구가 늘기 시작하였다

이곳은 지역이 넓어 동북쪽 지역(동일방직 주변)은 웃말 또는 웃벌말(上坪村) 서남쪽 지역(오뚜기식품 삼화왕관 주변)은 아랫말 또는 아랫벌말(下坪村)이라 불렀다 이 마을 이름으로 인해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동명칭이 평촌동(坪村洞)으로 되었고 이어 신도시개발지구 명칭도 이 마을명을 취했다 안양 시가지의 중심지로 각광받을 미래의 땅이다

● **참고문헌**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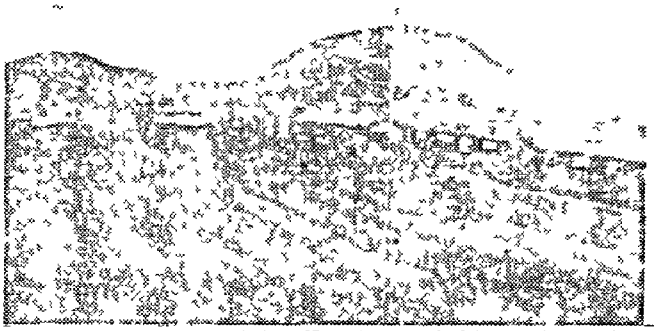
● **도 움 말** 음상규(陰相圭 평촌동 62-2 1927년생)

33. 벌터 (坪村) 〈석수2동〉

중훈부 북쪽에 위치했던 마을 서쪽으로는 광명시 일직동 자경리와 북쪽으로는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 박미마을과 동쪽으로는 꽃쟁이 마을과 각각 경계를 이루고 있다 허허벌판 모래땅 위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벌터라 불렀는데 일명 벌말(坪村)이라 칭하기도 하고 또 일제 때는 밤의 명산지라 하여 밤골로 불리우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진주 하씨로 알려지고 있다 석수1동 삼막골에

살던 진주 하씨 문효공(文孝公 河演) 후손들이 이곳으로 분가를 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15호 남짓했던 이 마을은 임(林)씨가 1호 이(李)씨가 1호이고 그 외는 모두 진주 하씨였었다


경기도 종축장 계사(鷄舍) 모습(1950년대)

벌터마을은 풍수로 보아 배형국(舟形局)이므로 우물을 파면 망한다는 속설이 있어 마을 내에는 우물을 과지 않고 식수는 안양전에서 물을 길어다 마셨다고 한다 그 후 일제강점기 말엽에 죽어도 함께 죽자는 일념으로 마을 중앙에 우물을 과기 시작하자 집집마다 우물을 괐다고 한다

1960년대 초에 럭키아파트 일대에 있던 경기도립종축장이 이곳으로 이전하자 마을이 재동되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마을안에 우물을 과지 말아야 하는데 지신(地神)이 노해서 마을이 망했다는 말을 지금까지도 하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립종축장은 이곳에 10여년간 있었다가 1970년대에 이르러 경기도 광주군 실촌면 삼리 산 26-1로 이전하였고 그 후 모 재단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개인에게 불하하여 현재는 황량한 벌판으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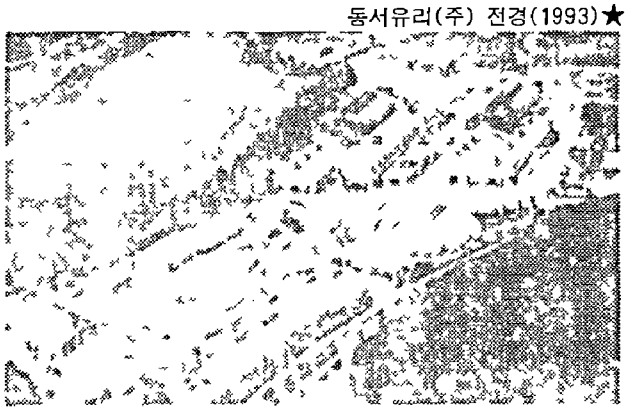
폐동전만 해도 벌터 주민들은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마을 중앙에 있던 향나무 앞에서 마을의 안정과 무해 및 풍년을 기원하는 당제(堂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진환(林振煥 석수동 268-24 1924년생)

34 범고개 (虎峴洞) 〈박달2동〉

돔서유리(주) 전경(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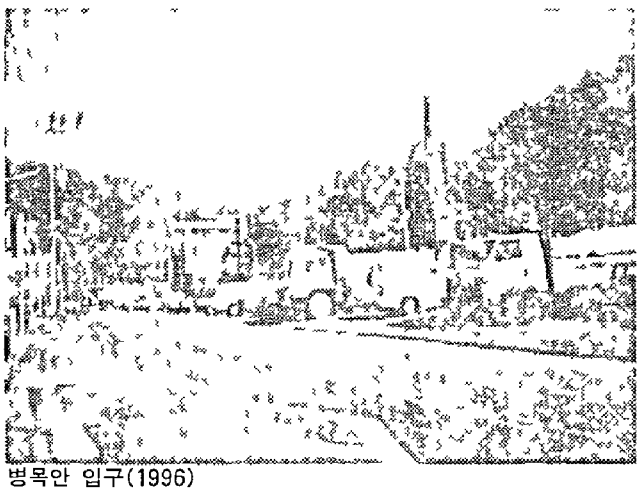
진목마을 남쪽으로 박달로변에 위치해 있다 범고개(虎峴)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고개이름을 취해 '범고개(虎峴洞)'라 칭한다 예전에는 이곳 남쪽(현재 군용지에 편입됨)에 웃말(上村)이란

마을이 있었다가 어느 부자가 화재로 가산을 탕진하자 마을을 떠난데 이어 마을 주민이 범에게 잡혀 죽자 사람 살 곳이 못된다고 하여 모두 지금의 위치로 이주 정착했다고 한다

이 마을에 최초로 정착한 성씨는 나주 임씨와 안동 권씨로 알려지고 있으며 번창하기 시작한 것은 일제강점기에 군용지의 건설로 안양 - 안산간 도로가 개설된 후 1972년 동서유리공업주식회사(박달동 620-5) 등을 시발로 각종 공장이 들어서면서부터이다 마을에서는 십수년 전까지만 해도 음력 10월 2일에 요골 초입에 있는 소나무 앞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임종대(林鍾大 박달동 774 1930년생)

35 병목안 (後頭尾洞) 〈안양9동〉


병목안 입구(1996)

새마을교에서 안양 재석장에 이르는 지역으로 마을의 지세가 병목처럼 마을 초입(새마을교)은 좁으나 마을에 들어서면 골(谷)이 깊고 넓다고 하여 '병목안'이라 부르고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수리산(修理山) 뒤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뒤띠미(後頭尾洞)라 칭했고 행정명칭은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으로 불리웠다 그런데 후두미동의 '두'자는 豆와 頭를 함께 사용하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頭로 통일된 것으로 보이며 『진주하씨세보(晋川柳氏世譜)』(1982)에는 후둔(後屯)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두(頭)의 오기로 보인다

병목안에 사람이 최초로 살기 시작한 것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촌로들의 증언과 이 곳에 소재한 묘소 등을 살펴보면 대체로 조선조 숙종년 간에 진주 류씨에 의해 세거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즉 인조연간에 오위도총부 부총관을 지낸 류적(1597 - 1638)의 둘째 아들인 류명재(柳命才 1623 - 1703)의 묘를 이곳에 쓴 후 부터라고

하는데 류명재는 자가 유도(有道) 호가 사재(思齋)로 통정대부에 올라 안산군수와 영전군수 및 첨지중추부사를 지낸 후 81세를 일기로 사망했다

진주 류씨의 묘는 류명재외에 류명재의 아우 류명웅(柳命雄 1636 - 1722 돈지돈령부사 역임 1973년에 화장)을 비롯하여 류명재의 큰아들 류석(柳晳, 1656 - 1703 군자감주부를 역임) 손자 류경우(柳慶佑 1676 - 1708 호조판서에 증직) 류경전(柳敬全 1685 - 1751 현감역임) 및 조선조 영조 때의 화가인 강세황(姜世晃 1713 - 1791)의 처(晋川柳氏) 묘(후에 진전으로 이장) 등이 있었다 그 중 류석의 지석(誌石)을 이곳 토박이인 변원신(邊源信)이 수습 현재 안양시 문화공보담당관실에 의해 보존 관리되고 있다 진주류씨 이후 병목안에 세거한 성씨는 원주 원씨 순창 조씨 달성 서씨 등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병목안을 기점으로 서쪽지역을 새마을 서남쪽지역을 창박골 남쪽지역을 담배존이라 각각 칭한다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에 진주 류씨가 부자로 살았는데 날마다 찾아오는 식객(食客)으로 고민하던 차 하루는 시주하러 온 스님에게 그 방도를 물었다고 한다 이에 스님이 이르기를 "마을 초입(새마을교) 산 밑에 묘를 쓰고 탑을 세우시오"라고 이른 후 어디론가 홀연히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 류부자의 하인이나 가족이 죽으면 스님이 일러준 대로 묘를 쓰고 그 옆에 탑(돌탑)을 세웠다는 것인데 이렇게 정성을 들이자 과연 류부자집에 찾아오던 손님(식객)의 발길은 끊겼으나 진주 류씨가 일거에 패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병목안 동쪽에 있는 뉴골든아파트 뒷산이 풍수로 보아 배형국(舟形局)이므로 산 끝에다 묘와 돌탑 등 무거운 것을 쌓았으니 배가 뒤집혀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새마을교 옆에 있던 돌탑은 손을 대거나 치우면 병목안 주민들이 위해를 당할지 모른다는 속설 때문에 그대로 있었다가 한국전쟁 때(1950) 미군들에 의해 어디론가 실려 갔고 묘는 1980년대 초에 대부분 화장되었다 마을 동남쪽에 있던 안양채석장은 1930년대 초에 개장되었다가 1989년에 폐장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차응설이 이곳에 야학을 세워 문맹퇴치에 헌신하기도 하였다

안양9동 11통에 속해 있는 병목안에서는 일제중엽까지만 해도 창박골 주민들과 함께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면 창박골 앞산(약수터 입구)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 **참고문헌** 『진주류씨세보』 1982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형욱(金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조문성(趙文成 안양동 973-35 1943년생)

36 부림말 (富林洞) 〈관양1동〉

가운데말 동쪽에 위치한 마을로 남평 문씨와 밀양 박씨가 처음으로 정착했다고 한다 이곳은 예로부터 산림이 울창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다른 마을보다 부자가 많이 산다고 하여 부림말(富林洞)이라 칭한다고 한다 그러나 비산동 출신 남창우(南彰祐 전우회 회원)는 이곳이 남향받이에 위치해 있으므로 '밝은마을' 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부림말로 불리웠고 이를 한자화하면서 이두식으로 '富林洞'이 되었다는 것이다 부림말은 비산동 - 인덕원간의 도로확장 후 대도 한미 골드 남광 삼광 원주 등의 연립 및 아파트가 건립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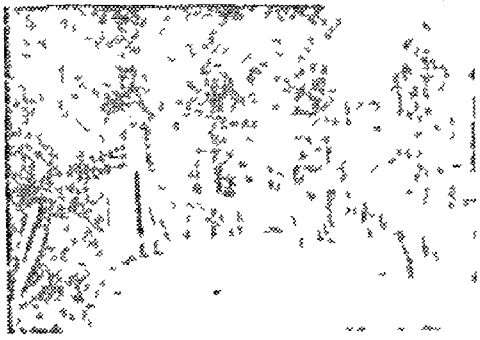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관양우제국 옆에 있던 박우물과 신장로우물 부림우물(윗우물)에서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우물고사(井祭)를 지내다가 우물 주변에 민가가 건립되면서 샘물이 끊겨 폐정되자 1988년부터 제(祭)를 지내지 않는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조영호(趙榮鎬 관양동 355 1923년생)
  남창우(南彰祐 비산동 531-88 1946년생)

37 북부동 (北部洞) 〈안양2동〉

안양시가지 북쪽에 위치한 마을이라 하여 '북부동(北部洞)'이라 칭한다 시가지가 형성되기 이전에는 야생조류의 서식처였으나 일제강점기 초에 오끼(冲井)라는 일본인이 안양에서는 처음으로 포도를 재배한 곳이며 화단극장 앞 구 연미예식장(→ 안양상공회의소) 자리에는 일본인 고뢰정태랑(高瀨政大郎)이 고뢰합명회사(高瀨合名會社)를 설립하여 무역과 농업(농장) 업무를 관장하였다

남부동입구 안양여자중 고교 앞(1970년대)★



광복 후에는 안양에서는 최초로 극장(화단극장 안양2동 815)이 들어섰고 여성교육기관인 안양여자중학교(1952년에 설립 안양2동 856-8)와 안양여자고등학교(1960년에 설립 안양2동 856-8) 및 만안초등학교(1960년에 설립 안양2동 248) 등의 학교와 시민회관 도서관 안양지구 축산업협동조합 등이 들어서면서 발전의 주세를 보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38 붓골(筆洞 富谷) 〈박달2동〉

공군아파트 서쪽에 있던 마을로 능성 구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이래 안동 권씨 전주 이씨 김해 김씨 등이 세거해 40여호의 촌락을 이루다가 일제강점기에 군용지(軍用地)가 건설되면서 폐동되었다 이 마을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농지 또한 비옥해 년년세세(年年歲歲) 풍년이 들자 인근의 사람들이 부자가 많이 사는 고을이라 하여 '부골(富谷)'이라 불렀는데 1930년대 일본인들이 한자로 표기하면서 '붓골(筆谷)'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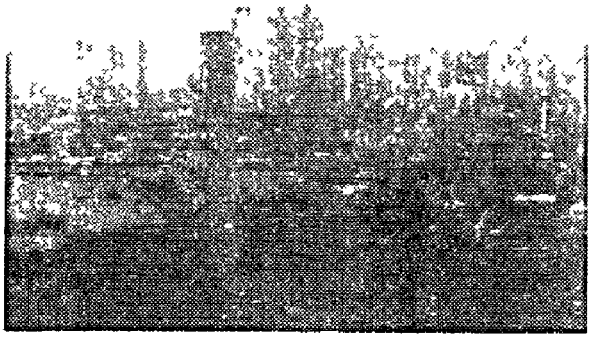
이 곳에는 임진왜란때 충신으로 유명한 구만의 묘와 정려각(旌閭閣)이 있었으나 일제 때 군용지에 편입되어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구만은 한림학사(翰林學士)를 지내다가 선조 때(1591) 사화(士禍)로 사면되었고 이듬 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전조랑(天曹郎)에 임명되었다 이 때 왜란을 피하기 위하여 어머니와 할머니를 모시고 평안도 용만(龍灣)으로 향하던 중 왜병 수천명을 만나 적의 목을 무수히 베었으나 힘이 쇠하여져 적에게 잡힌 몸이 되었다 그러나 적에게 잡혔어도 굴하지 않고 적을 꾸짖으니 왜병은 끝내 그를 죽이고 말았다 다행히도 어머니와 할머니는 화를 면하게 되었다

그 후 유시(兪市)와 남조가 이르기를 '구만은 충성과 효성이 지극하니 그 충효는 가히 일월(日月)이 서로 빛을 다투는 것과 같도다'라고 상소하여 숙종 34년(1708)에 정려(旌閭)를 내려 이곳(당시의 지명은 금천현 박달리)에 비각을 세웠다

- **참고문헌** 『여지도서』 1759 『경기읍지』 1871 시흥군 『시흥읍지』 189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上 1988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39 뺌말 (秀村)

〈관양1동〉



뺌말 (「관양」에서)

말무덤이 서편에 있다 이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조선 중기로 알려지고 있다 경상도 김해에서 과거를 보러 왔던 김해 김씨 금녕군파(金寧君派)의 유생 한 분이 과거를 본 뒤 귀향하다 인덕원 쯤에 이르러 관악산을 바라보니 서북쪽 언덕의 지세가 완만하고 남향받이이므로 살기 좋은 곳임을 간과하고 정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그 후 상주 김씨 연안 자씨가 세거해 이들 세 성씨를 뺌말의 삼대 성씨(姓氏)라 일컫는다

'뺌말(秀村)'이란 취락명은 마을 내에 뺑대쑥(준말로 뺑쑥이라 함)이 많이 자생하고 있어 뺑말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지금의 지명으로 불리워 오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평소 안양문화전반에 관심이 많은 남당우(南彰祐 전우회 회원)는 본래 이 마을이 현재의 위치보다는 남쪽으로 좀 떨어진 벌판에 위지해 있으므로 벌말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뺌말'로 되었다는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2일이면 관악산 줄기 나즈막한 봉우리에 있는 당집에서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기 위해 관악산 산신제(冠岳山 山神祭)를 올린다 산신제에 있어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산신제를 주관할 당주(堂主)를 선정하는 일이다 당주는 몸가짐이 바르고 집에 상(喪)을 당하는 등 부정타지 않은 사람 중에서 선정된다 당주로 선정된 사람은 제를 지날 때까지 바깥 출입을 삼가하고 부정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며 대문 앞에 진흙(또는 황토)을 발라 부정한 사람의 출입을 막는다

예전에는 말무덤이 가운데말과 함께 지내다가 부림말 등에 교회가 들어서면서 지금은 뺌말 주민들만 지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관양」 1989 「안양신문」 1989 10
- **도 움 말** 김득춘(金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남장우(南彰祐 비산동 531-88 1946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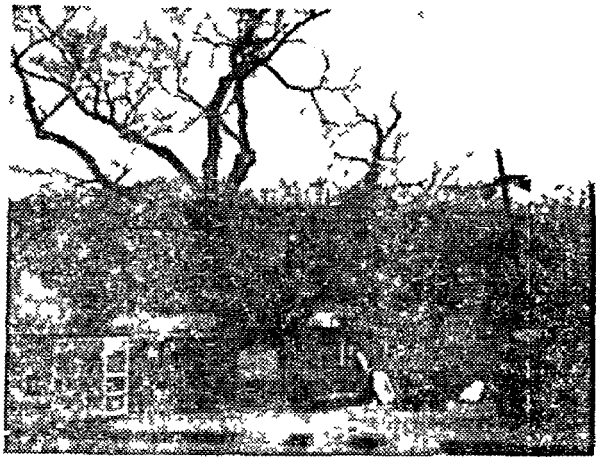
40 산골재 〈관양1동〉

오촌말과 동편사이에 있는 마을 산 속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산골재'라 칭한다고 한다 이곳에 수령 500년 가량된 느티나무가 있다 보성오씨의 종가가 있으며 현재 3호가 있다

- **참고문헌** 「관양」 1995 22쪽
- **도움말** 김봉묵(金鳳墨 관양동 329 1926년생)

41 삼막골 (三幕洞) 〈석수1동〉

삼막골(1996)



밀양박씨 진주하씨 정송심씨 등의 누대 세거지로 진주하씨의 집성촌이라 하여 보통 하씨촌(河氏村)으로 불리워 오고 있다 이 마을에 진주 하씨가 처음 살기 시작하기는 진주 하씨 문효공과(文孝公派 세종 때 영의정을 역임한 河演을 말함) 후손인 하우청(河遇淸 1561 - 1622 호는 낙선재이며 의금부도사를 역임)의 묘를 이곳 뒷산에 쓴 후에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세거하면서 부터이다

삼막골(三幕洞)이란 명칭은 통일신라 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元曉大師 617 - 686) 의상대사(義湘大師 625 - 702) 윤필거사(尹弼居士)의 세 성인이 삼성산에서 수도하며 유유산업(柳柳産業) 부근에 제1막을 짓고 기아의 집(구 안양관광호텔) 뒤 수도사(修道寺 석수1동 241-41)부근에 제2막을 짓고 제3막은 석수1동 산 10-1에 지어 이를 삼막사(三幕寺)라 칭했는데 그 후 그 아래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사찰명을 취한 것이라고 한다

일설에는 이상의 세 성인이 이 마을에 처음 살아 각자 1막씩을 짓고 살았다 하여 삼막골(三幕洞)로 칭했다는 것이나 옛 읍지나 지리지 등에는 고려 말엽 불교계를 대표하는 지공(指空 ? - 1363) 나옹(懶翁 1320 - 1376) 무학(無學 1327 - 1405)이 삼성산에서 수도했다는 연유로 붙여진 지명이라고 하나 어느 설이 옳은 지는 알 수가

없다 안양소년원과 구룡마을 사이에 위치한 삼막골은 삼막천을 경계로 동쪽지역(안양소년원 방향)을 웃말 서쪽지역을 성재이라고 각각 칭한다

이 마을은 구한말(1898 - 1904) 지방관리들의 탐학과 한국의 주권이 외세(일본)에 의해 박탈되어 가자 분연히 일어서 농민운동을 주도한 하주명(河周明 본명 하영홍)이 태어난 곳으로 그는 1901년에 이곳에 교회를 짓고 선교활동을 하였다 석수동 최초의 기독교 전래지로 알려지고 있다 또 마을 어귀에는 하우정 이성환(李星煥 시인)의 묘가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성재이에 있는 느티나무(마을에서는 서낭할아버지로 통칭)와 웃말에 있는 향나무(웃말 서낭할머니로 통칭) 앞에서 나무제를 지낸다

- **참고문헌** 『경기지』 고종조 시흥군 『시흥읍지』189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42 삼봉마을 (三峯洞) 〈박달2동〉

삼봉 기슭에 위치한 마을로 1950년대 말부터 비닐하우스 재배가 시작되면서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예전에는 논 가운데에 큰 묘가 있어 일명 섬마을이라 불렀는데 마을 주민들은 이 묘를 말무덤이라 칭했다 1970년에 주식회사 삼애기업(박달동 604-1)과 삼신아파트가 건설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43 상록마을 (常綠洞) 〈안양8동〉

안양8동 11통 지역으로 골안 동쪽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야산으로 돌이 많았던 곳인데 동덕개발의 정덕한(鄭德漢)이 30여 주택을 지은 후부터 취락이 이루어졌다 푸른 숲으로 둘러쌓인 마을이라 하여 '상록마을(常綠洞)'이라 칭했다고 한다 1990년 10월경부터 성도 대신 일진 한진 삼성빌라 등이 들어서면서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이 곳은 수리산 삼림욕장의 시발지가 되며 지대가 높아 선풍기가 없어도 한여름

을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만큼 최적의 주택지로 손꼽힌다

● **도 움 말** 김성락(金成洛 안양동 394-84 1940년생)

44 새마을 〈안양9동〉

병목안 주민들이 농사를 짓던 농경지로 처음에는 신부골(新富谷)로 불리워 오다가 1969년에 주택단지가 조성되면서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새마을로 개칭되었다 시흥군 안양읍 당시 이곳에 안양공설운동장 설치 계획을 세웠다가 협소하다 하여 신안양리 신촌(현 럭키아파트 자리)에 조성되었다고 한다

새마을은 안양9동 16통 17통 18통에 속하며 1988년에 양지초등학교(안양시 안양3동 977)가 설립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45 샌말 (間村) 〈관양1동〉

샌말(1990년대)▲



동편과 부림말 사이에 위치한 마을이므로 '샌말(間村)'이라 부른다 전주 이씨 보성 오씨 경주 이씨 광주 이씨의 오랜 세거지로 전주 이씨가 대성을 이루었다 샌말은 안양 일대에서는 오지에 속하며 인근의 마을이 하나같이 하루가 다르게 급격한 도시화 추세로 변모되어 가고 있으나 이 마을은 아직도 옛 모습 그대로 남아 있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이곳에는 중종조에 첨지중추부사를 역임한 류계장(1435-1515) 이의준(李義駿 황해도 관찰사) 류녕(柳寧 1507-1583 전주판관 역임) 오병선(吳炳善 1904-1979 만안 안양 관양초교장 역임)의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46 샘모루 (泉隅) 〈비산2동〉

삼호아파트 및 희성촌과 임곡아파트 사이에 있다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17세기 초에 시흥시 능곡동 뒤일에 살던 안동 권씨 정승공파 후손 한사람이 분가해서 살다가 아들 5형제를 두었는데 이들이 모두 이 마을에 정착했으나 크게 번성하지 못하고 5호의 작은 취락을 이루다가 그 중 2호가 외지로 떠났고 현재는 3호가 남았다 샘모루 (泉隅)란 마을명은 구름울(雲谷洞) 초입 산 모퉁이에 샘물이 있는데 그 주변에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용식(權容植 비산동 378 1919년생)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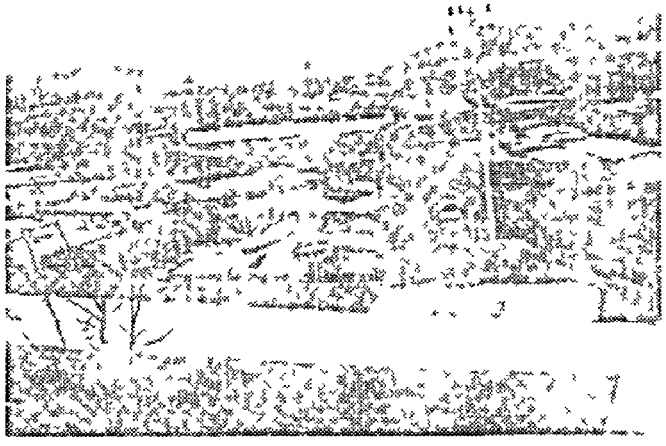
47 샛터말 (新基村)① 〈박달2동〉

조선 중엽에 영월 엄씨가 새로 터를 잡고 살기 시작한 마을로 그 후 달성 서씨 김해 김씨 등이 세거했다 일제강점기에 군용지가 건설되자 폐동되었다 동수암과 붓골 사이에 있었다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48. 샛터말 (新基洞)② 〈호계2동〉

방죽말 안말 주민들이 분가를 하면서 새로 터를 잡기 시작한 마을로 조선조 말엽에 한양조씨가 새로 터를 잡고 산 마을이라 하여 '샛터말(新基洞)'이라 징한다고 한다 방죽말 동남쪽에 위치한 샛터말은 서쪽지역을 웃말 동쪽지역을 아랫말이라 각각 징하고 있는데 안양6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택지로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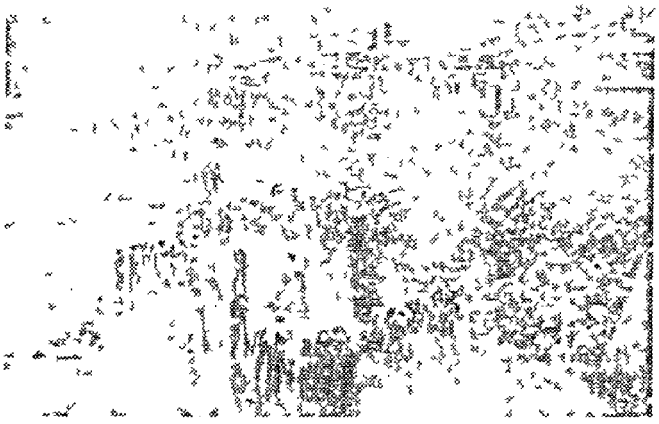


샛터말 전경(1980년대)

되자 미주아파트 강남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 **참고문헌**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한용(李漢容 호계동 1000 1919년생)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49 석수동 (石手洞 · 石水洞) 〈안양2동〉


석수동(1970년대)

안양유원지 남쪽로변 및 삼성전변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석수동(果川郡 下西面 石手洞)이라 칭했으나 1930년대 초에 마을 앞 하천(삼성전)에 석수동 수영장이 개설되면서 석공들이 자귀를 감추자 석수동(石水洞)으로 불리워진다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효성의 다리로 불리워지고 있는 만안교(萬安橋)와 교비(橋碑)도 이 마을 석공들에 의해 조성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안산군『과천군 하서면 석수동 지사남승법오옥사조검문안』 1985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50 선녀골 (仙女谷) 〈박달2동〉

곤두레미고개 밑에 있던 마을로 이곳 골짜기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수리산낙맥인데다가 습한 곳이라 안개가 많이 생겨 흡사 선녀가 사는 고을 같다 하여 '선녀골(仙女谷)'이라 칭했다고 한다 선녀골은 조선조 태종(大宗)의 11남인 후령군(厚寧君)의 묘를 이곳에 쓴 후 그의 후손들이 묘하에 세거하면서부터 취락이 형성될 만큼 전주 이씨 후령군과가 집성(20여호)을 이루었다 그 후 일제강점기에 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건설되면서 폐동되었고 후령군의 묘는 수원시 장안구 이목동으로 이장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51 소골안 (小谷洞 · 昭谷洞) 〈안양 6동〉

안양세무소에서 서쪽으로 수리산 계곡을 따라 형성된 마을로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주접동 주민 3가구가 이주해 살전 한촌이었는데 한국전쟁 직후 강원도 철원 등지의 난민들이 안양1동소재 진흥아파트단지(구 태평방직)에서 수용소 생활을 하자 당시 시흥군 안양읍장 조한구(趙漢九)의 주선으로 이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곳 땅은 본래 서울출신 이해범(李海範)의 소유였는데 이 토지를 조한구가 관리 읍장으로 재직 중 소유주의 양해를 받아 이주를 성사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마을은 수리산의 작은 골짜기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소골안(小谷洞)'이라 칭하고 있는데 일설에는 이곳이 예전에 나무와 숲이 우거져 골짜기 안에서 소(牛)를 많이 기르던 곳이라 하여 '소골안(小谷洞)'이라 했다고 하나 지형상 소를 기를 만한 곳이 못된다는 촌로들의 증언으로 보아 와전으로 생각된다 1980년대 부터 소곡(昭谷)으로 개칭해 사용하기도 한다(소곡새마을금고 등) 1996년 5월에 인덕원에 있던 신성중 고등학교가 마을 위로 이전하였다 이 마을 출신중에 시인 안진호(1944~1994 전 안양상공회의소 근무)가 고향을 생각하며 쓴 '소골안'이란 시가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음 이 동네에는 앞 뒤 옆산과
오막살이 세채가
산짐승들과 함께 밤을 지켰다
어느 날
난민수용소에 있던 실향민 백여 가구가
땅을 파서 움집을 만들고
갈대로 지붕을 엮고
풀잎을 뜯어 소꼽놀이 같은 저녁을 먹으며
긴긴 오뉴월의 하늘만 바라봤다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전쟁의 유산으로 만나

고향을 회상할 순간도 없이 노동판을 쫓아 다니며
공짜라도 일거리를 맡아야 했다

그 후 30년
거룩한 1세들은 늙고 죽고 떠나고
맨살에 엉겨붙어 젖을 빨던 후예들이
가외로 스라브로 이층을 짓고
나의 고향은 소골안이라 했다

한 세대 아 세월은 진정 바람인가

- **참고문헌** 안진호 『아 바람』 1982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병석(金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이효권(李孝權 안양동 589-13 1935년생)

52 소능골 (小陵谷) 〈관양1동〉

본래 샛말에 속했던 마을로 샛말에 살던 보성 오씨 후손등의 분가로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샛말과 동편 사이에 위치해 있는 소능골은 5호 남짓한 작은 취락으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이다 능골 아래에 자리잡은 마을이라 하여 '소능골(小陵谷)'이라 칭하는데 이곳에 숙종 때 문장가로 이름이 높았던 오문서(吳文瑞)의 묘가 있었다가 1985년 충남 조치원으로 전묘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53. 수푸루지 (林谷洞 林川) 〈비산1동〉

비산사거리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 이곳은 조선조 인조 때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 ?~1644)이 그의 부친인 심간(沈諫 1560-1624 정풍군수 역임)이 죽자 이 마을 뒷산에 예장한 후 그의 후손인 청송 심씨가 묘하에 세거하기 시작하였다고

한다 그 뒤 수원 백씨 고령 박씨 곡부 박씨 전주 이씨 안동김씨 등이 살기 시작하였다

이 마을은 깊은 골짜기에 나무와 숲으로 둘러쌓인 고을이라 하여 '수푸루지(林谷洞)'이라 칭하였다고 한다 또 마을 앞으로 큰 하천(안양천 임곡천)이 흐른다 하여 '수풀내(林川)'라 부르기도 하였다 수푸루지는 1978년 대림전문대(비산동 526-7)이 건립되고 이어 비산동 신시가지가 형성되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예전에는 수푸루지 내에서도 동쪽 지역을 건너말 서쪽 지역을 아랫말 북쪽지역을 웃말이라 각각 칭했으며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경화보육원 동쪽에 위치한 당봉 정상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이 마을 출신중에 탈렌트 심은하(여)가 있다



수푸루지 전경(1960년대)★

- **참고문헌** 정조 『을묘원행정리의궤』 1795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심정섭(沈政燮 비산동 521-8 1944년생)

54 시대동 (市垈洞 · 舊市場) 〈안양 1동〉

중앙동 동쪽으로 한국제지와 진흥아파트 사이에 자리잡은 마을이다 안양의 중심부인데다가 지리적으로 군포 의왕 과천 광명 수암 군자 등이 인접해 있어 시장으로서는 최적지였다 이곳에 시장이 개시(開市)되기는 1926년 1월 28일이었고 거래되는 품목은 농산물을 위시하여 축산물로 포목 일상잡화까지 다양했다 개시(開市)1년 후(1927)의 년간 매출액을 보면 농산물이 15만 6천원 잡화



시대동 입구 현재 이곳에는 과천육교 일명 진흥육교가 있다(1971)

가 21만 2천원 그 밖에 직물 죽산물 수산물 등 모두 50여 만원에 달했다 상인들은 개시 1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1927년 6월 4일 단오절을 기해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거행키로 했는데 당시 신문에는 '安養 市場 一週紀念'이란 제하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 시흥군 서이면 안양은 군의 중앙일 뿐 아니라 교통이 편리하고 따라서 산물도 상당함으로 同面에서는 작년 중에 안양시장을 설치한 후 이래 성적이 비상히 양호하던 바 더우기 안양 번영의 일책으로 오는 6월 4일(단오일)을 기하여 全市場 일주년 기념식을 성대히 거행하리라 하며 여흥으로 藝妓의 가무와 烏山青年의 素人劇 외 안양소년적후대 주최의 축구대회 및 동화동요회 등이 있어서 많은 흥미가 있으리라더라 「동아일보」 1927 6 1

1주년 기념식은 예정대로 동년 6월 4일 오후 2시부터 안양시장 내 광장에서 수전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田代) 발기인 대표의 식사와 조한구(趙漢九) 서이면장의 경과보고 신미(神尾) 시흥군수의 고사(告辭) 종문웅(宗文雄 안양금융조합 이사) 조희철(曺喜哲 동아일보 시흥지국 기자) 엄기승(嚴基承 안양공보교 기성회장)의 축사에 이어 기녀들의 가무 소인극 등을 공연해 일대 성황을 이루었다

안양시장측에서는 이후로도 씨름대회 그네대회 등을 잇달아 개최하여 시장의 번영을 도모하였는데 일례로 1933년 8월 25일 8월 30일 9월 4일 등 장날을 기해 안양역 광장에서 안양씨름대회(安養脚戱大會)를 개최했고 같은 해 음력 7월 30일 장날부터 추석날까지 매 장날마다 씨름대회를 개최해 1등에 황소 1두(頭) 2등에 광목1필(疋)이 상품으로 수여되었다 그러나 이곳이 저지대로 홍수가 나면 안양전의 범람으로 침수가 되기 일쑤였고 더우기 1961년 11월 6일 안양4동으로 시장이 이전하자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가 옛 태평방직 자리에 대단위 아파트(진흥아파트)가 들어서자 쇠퇴되기 시작하였다 1929년에 안양지방에서는 최초로 전기가 송전(送電)된 곳이기도 하다 시대동(市垈洞)이란 마을명칭은 안양시장이 있었다는 연유에 기인한 것이며 일명 구시장(舊市場)이라 부르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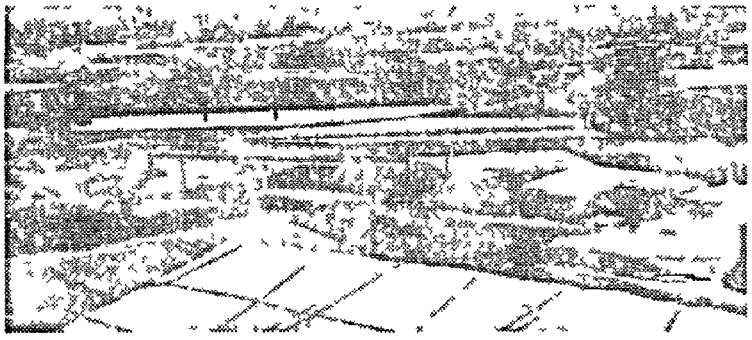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7 6 1 6 7 「동아일보」 1933 8 31 9 2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상표(李相杓 안양동 102 1924년생)
고우영(高佑領 안양동 115번지 1954년생)

55 신말 (新村)

〈신촌동〉

옛 평촌동의 자연취락 중 가장 늦게 생긴 마을로 평양 조씨가 처음으로 정착한 후 새로 형성된 마을이라 하여 '신말(新村)'이라 칭한다고 한다 이 마을 서북쪽인 호계동과 경계지점에는 안양남초등학교의 전신인 흥안초등학교가 한국전쟁 직전에 있었다가 1958년 경에 갈미로 이전했다 귀인 남쪽에 위치한 신말은 1990년 명지대박물관에 의해 4기의 지석묘가 발굴 조사되었다 지석묘가 위치해 있던 곳은 안양남초등학교에서 평촌신도시 개발지구로 들어가는 샛길을 따라 약 500m 떨어져 있으며 지석묘가 놓여 있었던 곳은 해발 50m의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둥글게 돌아가면서 4기의 지석묘가 배치되어 있었다 이곳에서 채집된 무문토기(無文土器)로 보아 B C 2세기 경에 축조되었던 유적으로 같은 부족들의 공동묘지로 생각된다



신말전경(1980년대)★

신말은 평촌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어 1990년에 폐동되었다 호수는 30여호였다 1993년 1월 1일 이 마을명을 취해 이 일대를 '신촌동(新村洞)'이라 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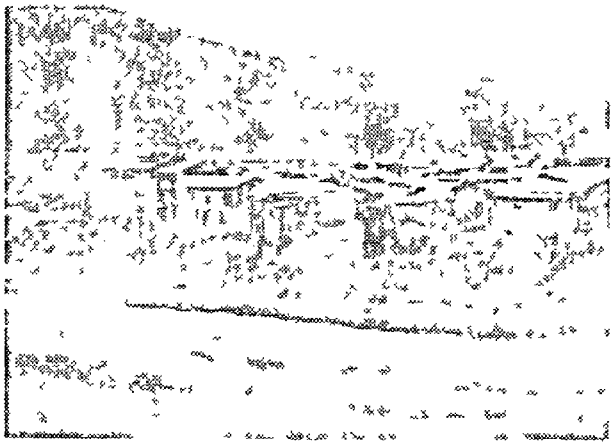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조돈하(趙敦夏 평촌동 615 1936년생)

56 신촌 (新村)

〈석수2동〉

신촌전경(1978)★



관악역(冠岳驛) 서쪽으로 만안로 로변(萬安路 路邊) 옆에 있는 마을 조선조 말엽까지만 해도 대부분 농경지였으나 일제강점기 이후 새로 주댁이 들어서자 '신촌(新村)'이라 칭했다 이곳은 1956년 7월에 수도영화주식회사(首都映畵株式會社)에 의해 대규모 촬영장소인 안양촬영소

(대지2만2천여평)를 건설하여 한국의 허리우드로 불리워질 만큼 한 때는 한국영화의 메카(Mecca)였었다 천연광선이 충분하고 우량(雨量)이 적은 곳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이곳을 적지로 택하게 된 것이다

신촌마을은 1956년 수도영화주식회사가 설치된 후 안양예고 등의 교육기관과 1974년 관악전철역이 건설되자 관악연립아파트 무림아파트 산정연립 등이 건립되어 급격한 성장 주세를 보였다 이곳에는 안양문화의 상징인 만안교(萬安橋)가 1980년에 이전 복원되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56 7 10 「한국의 여행」(2) 중앙서관 1983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진환(林振煥 석수2동 268-24 1924년생)

57 신흥마을 (新興洞) 〈관2동〉

인덕원 서쪽에 자리잡은 마을로 관양2동의 9통 10통 11통 12통에 속해 있다 이 마을은 1972년 안양읍 관내의 전변(川邊)에 난립되어 있던 주택을 정비하면서 안양읍에 의해 이곳의 하전을 매립하여 절거민들에게 집단 이주시켰다 그 후부터 새로 생긴 마을이라 하여 '신흥마을(新興洞)'이라 칭하고 있는데 마을내에는 강남 빌라 그린파크빌라 럭키빌라 삼우빌라 삼인주택 등의 다세대주택이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창준(張昌俊 관양동 1307-84 1935년생)

58 안골 (安谷·內谷) 〈안양9동〉

담배촌 북서쪽에 있는 마을이다 안양9동 13통에 속해 있으며 정주 한씨와 하동 정씨의 세거지로 알려지고 있다 이곳은 조선시대 도자기를 굽던 곳으로 마을의 지세가 아늑하고 물맛이 좋아 사람살기 좋은 곳이라 하여 '안골(安谷)'이라 칭한다고 하나 수리산 골짜기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안골(內谷)'이라 칭한다는 설도 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서울대 국문과 장덕순(張德順 1922 ~ 1996)교수가 이곳 윤모씨의 주택과 토지를 매입해 요지(窯地)를 설치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형욱(金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59 안날미 (內飛山) 〈비산3동〉


류덕옥 묘(1993)○

안양종합운동장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상서면 내비산리(果川郡 上西面 內飛山里)라 칭했다가 1914년에 내비산리와 외비산리를 통합 비산리로 통칭되자 자연취락으로 전락되었다 이곳에 저음 세거한 성씨는 전주 이씨 익안대군파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후 덕수 장씨 문화 류씨 보성 오씨 등이 살아왔는데 현재는 전주 이씨가 집성을 이루고 있다

비산동 골짜기 안에 위지한 마을이므로 '안날미(內飛山)'라 칭하고 있는데 마을 중앙에 가로지르는 개전을 따라 동쪽 지역은 웃말(또는 음짓말) 서남쪽지역은 아랫말(또는 양짓말)이라 각각 부르고 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10월 초에 길일을 택해 안양종합운동장 북쪽 류덕옥(柳德玉 1653-1711 안악군수 역임)묘소 위에 있는 노송 앞에서 마을의 안정을 위해 산신제(山神祭)를 지내다가 외지인이 많이 입주하자 1970년대 말부터 제(祭)를 지내지 않고 있다 이 곳에는 류덕옥의 묘를 비롯하여 류작(柳綽 1686~? 문과급제) 장언방(張彦邦 한성부 판윤) 등의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류경(柳璟 비산동 147 1935년생)

60 안말 (內村) 〈호계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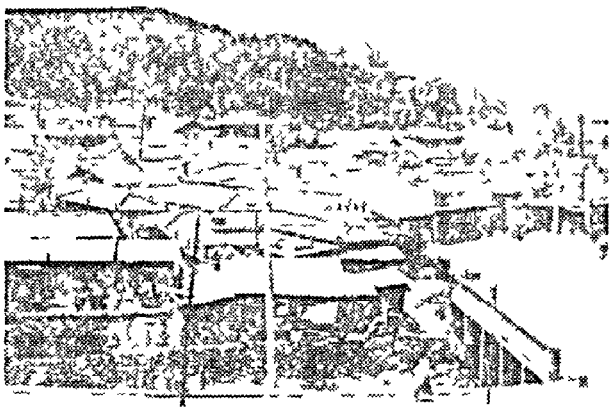
방죽말 북쪽에 있다 숲(森林) 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안말(內村)'이라 칭하는데 일설에는 골짜기 안에 위치해 있어 '안말(內村)'로 불리우고 있다는 것이다 이 마을은 전주 이씨 영응대군(永膺大君 1434-1467 세종대왕의 제8남 시호는 敬孝

묘는 시흥시 군자동에 있음) 후손들이 입향한 이래 함경 이씨 경주최씨 등이 세거해 왔다 안양6지구 구획정리사업(1974-1979)으로 마을의 면모가 일신되었다 마을 내에 현대아파트 경남아파트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61 양지동 (陽址洞·陽智洞 陽支洞) 〈안양3동〉

안양공고 주변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3동 1 2 3 4 6 25 26 27통에 속해 있다 이 마을은 조선조 제2대 정종의 7남인 수도군(守道君)의 증손 이공(지제부수)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이래 원주 원씨 등이 세거해 왔다고 한다 이 마을명칭에 대하여 陽智洞 陽地洞 陽支洞 陽知洞 등으로 쓰이고 있으나 지세가 양지바른 곳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양지동(陽地洞)이라고 표기함이 옳다 이곳은 1928년에 지금의 안양3동사무소 부근에 안양산업사(安養産業社)란 안양 최초의 공장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광복 직전에는 아사이(旭)학교가 설립되었고 광복직후에는 안양중학교(1948) 안양공업고등학교(1949) 등 많은 학교가 운집되어 안양교육의 요람지로 변모되었다


양지동(1978)★

양지동은 안양을 대표하는 시인 김대규(金大圭 1942~)의 출생지이며 방송작가 이서구(李瑞求 1899-1981) 소설가 채만식(蔡萬植 1904-1950) 시인 평론가 정귀영(鄭貴永 1917~) 시인 성기조(成耆兆 1934~)등 문인들이 오랫동안 이곳에 살며 문학활동을 한 곳이기도 하다

특히 채만식은 전북 옥구(全北 沃溝)출신으로 「동아일보」「조선일보」의 기자로 있으면서 1925년 단편 「세길로」로 『조선문단』지의 추전을 받고 문단에 데뷰했다 「태평천하」 「허생전」 「아름다운 새벽」등의 장편소설을 발표했는데 1938년「조선일보」에 연재한 「탁류는」 그의 대표작으로 현실을 비관하여 풍류작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채만식이 양지동에 살기 시작한 것은 1940년으로 그는 이해

6월 5일부터 8일까지와 6월 10일부터 11일까지 6일간 「매일신보」에 「안양복거기(安養卜居記)」를 발표했다 그 후 이듬해(1941) 3월에 양지동을 떠나 서울 광장리로 이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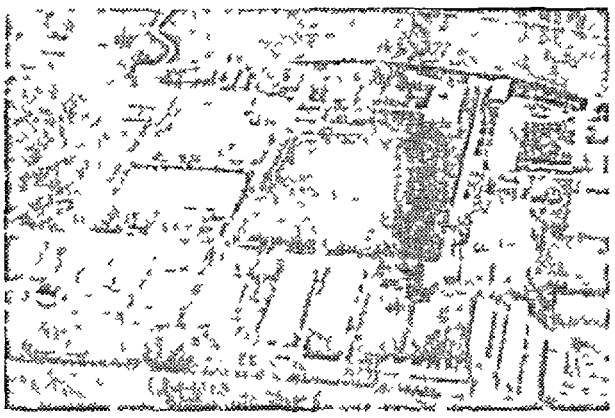
- **참고문헌** 채만식 「매일신문」 1940 6 5-6 6 11
  김대규 『양지동 946번지』 1967
  이병택 『푸른나목의 이야기』 1984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형욱(全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62 양회다리 〈박달2동〉

곤두레미고개 조입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양회로 가설된 다리가 있었는데 이곳에 민가 5호와 주막(酒幕)이 있었으나 일제 때 군용지가 건설되면서 폐동되었다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63 연현 (鳶峴) 〈석수2동〉


동아제약 전경(1993)★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博山)마을과 접경지역으로 석수전철역(석수동 422-3) 주변에 있는 마을이다 마을 초입인 안양육교 부근(서리재고개)이 풍수로 보아 솔개가 날개를 편 형세라 하여 '연현(鳶峴)'이라 부른다고 한다 이곳은 1950년 대만 해도 대부분의 지역이 농경지였으나 태양당인쇄(석수동 433-1 1968년 6월 28일에 창립) 동아제약(석수동 410 1972년 설립) 삼흥유지 등의 공장과 석수역이 생기면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안양죄북단에 위치한 마을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세준(張世俊 석수동 435 1934년생)

64 오촌말 (吳村洞)

〈관양 1동〉

샌말 북쪽에 있다 이곳에 최초로 정착한 사람은 조선 숙종 때 승정원 좌승지(承政院 左承旨)에 증직된 오익서(吳益瑞 자는 龍伯 호는 三山散人)로 알려지고 있으며 그 후 그의 후손인 보성 오씨가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져 오씨의 마을이란 뜻으로 오촌말(吳村洞)이라 칭하고 있다 마을 뒤에는 그가 생존시에 암각한 삼산동천(三山洞天)이란 바위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65 웃박달리 (上博達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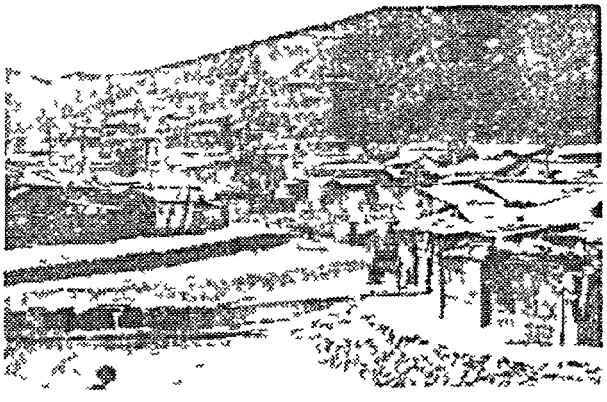
〈박달2동〉

조선시대 박달동(리)에는 모두 12개의 자연취락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마을이 웃박달리였다고 한다 선녀골 동쪽에 있던 웃박달리는 과평 윤씨 김해 김씨 등 15여 호가 일제강점기에 군용지(경양육군병기장 안양분장)가 건설되면서 폐동되었다

- **도움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66 율목동 (栗木洞)

〈안양9동〉



율목동 전경(1978)★

안양9동 19통 20통에 속해 있는 마을로 노적봉의 산세에 따라 동서로 길게 생겼다 밤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율목동(栗木洞)'이라 칭하고 있는데 일제강점기인 1933년과 1934년에는 동아일보사와 그 자매지인 『신가정(新家庭)』 주최로 전국 부인 밤줍기대회(婦人拾栗大會)가 열릴만큼 밤의 명산지로 유명했던 마을이다 당시 동아일보에 보도된 밤줍기대회 관련기사 중 그 일부를 전재한다

秋空一碧의 安養에 婦人拾栗의 盛遊

풍부한 상품 재미있는 경기-

신동아사 신가정부 주최로 제1회 부인습률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늘 높고 바람맑은 요즈음 가을날 하루를 이용하여 우리 부녀들이 한곳에 모여 유쾌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이번에 여는 이 부인습률대회는 다만 습률 그것을 목적함이 아니라 이렇게 부녀들만 여러 백명 모이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고 친목하여 우리 부녀들의 기운을 돋우고저 함에 더 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날 하루를 유쾌히 놀게 하기 위하여 재미있는 유희도 있겠고 또 습률 기타 여러가지 쉬운 경기들이 있겠으며 그 위에 상품을 많이 준비하여 둔것 만큼 이번 대회처럼 재미있는 모임이 없는 것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가정부인 되신 이들은 이 대회에 참가하여 시원한 들관으로 나오셔서 집안에서 받은 오랜동안의 피로를 이 날 하루에 다 씻어버리시고 그리하여 다시 새 기운을 얻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래 대회의 날짜와 장소와 그 밖에 여러가지 규정을 발표합니다

■ 대회규정

- 날짜 10월 1일(일요일)
- 곳 安養
- 모일 때 龍山驛
- 모일 시간 오전 8시반
- 떠날 시간 오전 9시 10분(안양에는 동49분)
- 돌아올 시간 오후 6시 15분(용산에는 동 50분)
- 회원자격 여자들만에 한함
- 회비 60전(단체할인 왕복자비)
- 점심 각각 가지고 올 것
- 정원 9월30일(토요일)정오까지 본사 사무부로 회비 점부하여 정원하실 것
  (만일 비가오면 그 이튿날로)

■ 大會委員

- 會長 宋鎭禹
- 委員長 梁源模
- 施賞 薛義植
- 遊戱及競技委員 李吉用 朴奉愛 朴政淳 洪喜 이하생략

「동아일보」 1933 9 26

밤나무 숲이었던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2년 당시 시흥군 안양읍에서 강원도 경강(平康) 등 거의 난민들을 집단 이주시키면서 부터이다 일명 피난민촌이라 부르기도 한다 1977년 7월8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불과 4시간동안 쏟아진 집중호우로 해발 110m의 노적봉이 산사태로 이 마을 주민 8가구 29명이 몰사(沒死)하였다 안양시에 의해 1996년 말부터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이 마을(안양동 969일대) 3만846㎡ 253가구의 일반주거 지역을 복합개발 방식으로 개발한다

산사태로 폐허가 된 율목동(1977 7 8)★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 9 26 「중앙일보」 1977 7 9
  「경기일보」 1996 9 6 경기도 「종화의 의지」 1978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4-1985
- **도 움 말** 김형욱(金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유정규(劉貞奎 안양동 949-1 1958년생)

67 인덕원 (仁德院) 〈관양2동〉

이 마을은 조선시대 내시(內侍)들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이들은 비록 거세(去勢)된 몸이지만 환관(宦官)이라 하여 궁중을 출입하여 임금과 가까이 있는 신분으로 높은 관직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남에게 덕화(德化)를 베푸는 사람이 사는 곳이란 의미로 인덕(仁德)이라 칭했다가 공용(公用)여행자의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원(院)을 설치하면서부터 인덕원(仁德院)이라 부르고 있는데 원(院)이 임진왜란 전에 이미 폐하여 없어졌다고 한다 인덕원은 조선 초기부터 이미 교통의 요충지로 알려졌는데 이러한 사실은 충무공 이순신(李舜臣)장군이 백의종군(白衣從軍)할 때의 일기

인 『난중일기』의 기록만 보아도 알 수가 있다

정유(1579) 4월 초 3일조

(계해) 맑음 일찍 남으로 길을 떠났다 금오랑 이사민 서리 이수영 나장 한언향은 먼저 수원부에 도착하였다 나는 인덕원에서 말을 먹이면서 조용히 누워 쉬다가 저물어서 수원에 들어가 경기관찰사 수하에서 심부름 하는 이름도 모르는 군사의 집에서 잤다 신복용이 우연히 왔다가 내 행색을 보고 술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위로하였다 부사 유영건이 나와 보았다

丁酉 四月 初三日 條

四月二日癸亥晴早登南金吾郎李士貞書更李春水羅州韓彦香先到水原府今卽○馬于仁德院從容臥息暮投水原宁監觀察使牙乒名不知家值伏龍寓到見吾行備酒府伎相永健出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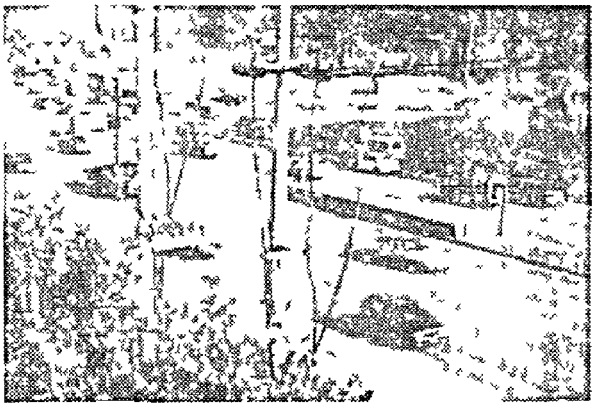
관양중학교(1993 『관양동지』에서)



인덕원은 정조의 수원 능행로(陵幸路)로도 유명하다 즉 정조는 정조 13년(1789) 10월 5일에 양주 배봉산에 있는 묘(영우원)를 수원 화산으로 옮기기 위해 부왕(사도세자)의 영여(靈輿)와 함께 과전행궁에서 경박한 후 이튿날(10月6日) 인덕원을 지나 수원을 향했다 그 후 정조 14년(1790) 2월 29일 정조 15년(1791) 1월 16일 정조 16년(1792) 1월 24일 정조 17년(1793) 1월 12일 정조 18년(1794) 1월 14일 등 모두 6차에 걸쳐 인덕원을 왕래하였는데 특히 제5차 행차 때인 1793년 1월 12일에는 인덕원들(人德院坪)을 지날 때 인근에 있던 부노(父老)들을 접견하고 그 노고를 위로하기까지 하였다 이후 정조의 인덕원 행차는 없었는데 그 이유는 안양에 만안교를 가설한 후 행로를 시흥-안양-수원으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김해 김씨가 입향한 이곳은 광복 직후까지만 해도 불과 33호에 지나지 않았으나 수 차에 걸친 도시계획 등으로 북쪽으로는 과천시 동쪽으로는 의왕시 남쪽으로는 군포시 서쪽으로는 안양시 진입에 이르는 사통팔달(四通八達)로 교통이 발달되자 급성장하였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상서면(上西面 현 동안구지역) 관내에서는 제일 부촌이었다가 광복 직전부터 빈촌으로 전락된 후 1970년대부터 다시 부촌으로 부상해 관양동 관내

에서는 땅값(地價)이 제일 비싸다고 한다 인덕원 사거리에서 수원방향으로 약 200m 지점 도로변에 현감 이태응(李泰應)의 송덕비(頌德碑)가 있다 이 비는 본래 조롱내 개울둑에 있었다가 마을내로 수차 옮겨지고 다시 1984년 도시계획에 따라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보존되고 있다 이 비석이 인덕원에 소재한 것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 첫째는 현감 이태응이 인덕원지방에 선정을 베풀어 이곳 주민들이 그 은공을 잊지 않기 위해 세웠을 경우 두번째는 조선시대 과전현감이 주재하고 있던 현 과천시 중앙동사무소와 과천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역대 과전현감의 선정비군(善政碑群)과 함께 있었다가 후대에 주민에 의해 이곳으로 옮겼을 경우 세번째는 과전-인덕원 사이 노변에 있었다가 홍수나 전란 등으로 옮겨졌을 경우 등을 주론할 수가 있는데 현재로는 어떤 연유로 이곳에 소재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수가 없다


인덕원 사거리(1990년대)○

현감 이태응은 조선 고종 때 공조좌랑(工曹佐郎)을 지내다가 고종 3년(1866) 12월 5일 과전현감에 제수를 받아 그 해 12월 18일에 부임하여 13개월간 재직하다가 고종 5년(1868) 1월 29일 송화현감(松和縣監)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송덕비는 과전현감에서 물러난 후 14개월만인 고종 6년(1896) 3월에 세워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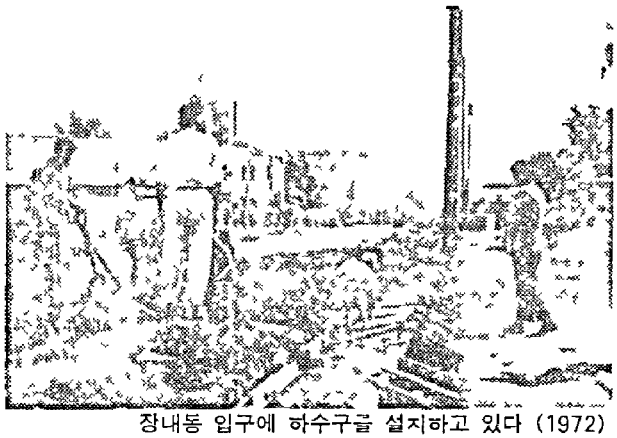
인덕원마을에서 신성중학교(관양동 188-2 1969설립) 신성고등학교(관양동 188-2) 관양여자중학교(제 7지구 34블럭 1982년 설립) 인덕원초등학교(관양동 210 1987설립) 등의 교육기관이 소재해 있었으나 신성중 고등학교는 1996년 5월에 안양 6동 587-68로 이전하였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에 길일을 택해 마을 중앙에 있는 대동우물에서 우물고사(井祭)를 지내다가 한국전쟁 직후부터 인근에 주택을 지으면서 수원(水源)이 딸리자 제(祭)를 지내지 않는다

● **참고문헌** 이순신 『난중일기』 1597 정조 『원행정례』 1789
과천군 『과천읍지』 1899 『양세계보』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4-1985 『관양』 1989

● **도 움 말** 이용진(李龍鎭 과천시갈현동 35 1917년생)
김기남(全基男 관양동 265 1930년생)

68. 장내동 (墻內洞 澹安) 〈안양4동〉

조선시대에는 과전군 하서면 장내리(果川郡 下西面 墻內里)라 칭했던 마을로 진주 강씨 원주 원씨 등이 세거하면서 취락이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곳은 밤나무 뽕나무 등이 많았던 곳인데 밤나무 울타리 안에 있는 마을이라 하여 담안(澹安)이라고 부르고 이를 한자화 하면서 '장내동(墻內洞)' 또는 '담안(澹安)'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러나 남창우(南 彰祐 전우회 회원는 이곳이 너른 들안에 자리잡은 마을이므로 뜰안이라 했다가 '들안'으로 되었고 다시 현재의 지명인 '담안'으로 정하기 시작했다는 견해로 밝히고 있다


장내동 입구에 하수구를 설치하고 있다 (1972)

1961년 11월 6일 안양1동 소재 시대동에 있던 안양시장이 이전되면서 상권이 형성됨과 동시에 중앙로의 개통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1980년대까지만해도 중앙동과 함께 안양 최대의 번화가였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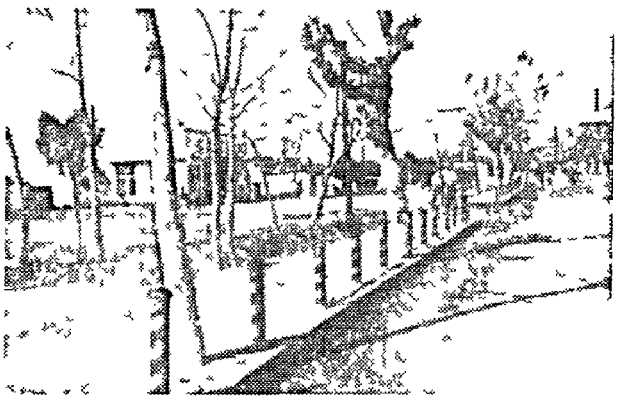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 1912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남장우 (南彰祐 비산동 531-88 1946년생)

69 주접동 (住接洞) 〈안양6동〉

교하동 남쪽에 위치한 마을로 본래의 주접동은 현재의 안양6동 안양7동 안양8동을 통칭했으나 도시화의 추세로 인구가 증가하자 분가 또는 분동되자 현재는 안양시정 안양상공회의소 만안구청 주변을 일컫는다

이 마을은 정조와 인연이 깊은 곳이다 정조는 양주 배봉산(拜峯山)에 있던 부왕(사도세자)의 묘(永祐園)를 1789년 수원 화산으로 천묘한 후 처음에는 서울-과천-인덕원-사근(현 의왕시)을 잇는 로정을 택했다가 1795년에 안양에 만안교를 가설한 후부터 서울-시흥-(현 서울 금천구 시흥동)을 잇는 시흥로정(또는 금천로정)으로 변경

하고 아울러 안양1동에 안양행궁을 짓고 안양경찰서 뒤 동아아파트 부근에 (亭閣 또는 政閣)을 세워 능행과 환궁 때 잠시 쉬어 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마을을 '주접동(住接洞)'이라 불렀다고 한다 보통「주젭이」이라 칭하며 문헌에 따라 주점리(住占里 록되어 있다


주접동은 본래 안양6동 7동 8동을 통칭했다
왼쪽 건물은 안양주유소이다(1972)

주접동은 나주 정씨 삭녕 최씨 상산 김씨 함평 이씨 전주 이씨 등이 오래동안 세거한 마을로 예전에는 안양변전소 부근을 아랫말 만안구정 부근을 가운데말(中村) 성문중학교 아래(동)를 곡내동(谷內洞) 중앙병원 부근을 명학동(鳴鶴洞) 덕전초등학교 부근을 벌터(坪村)라 각각 칭했다

광복 직전만 해도 이상의 5개 마을의 민가라야 불과 100여호에 지나지 않았으나 1960년대(?) 중앙로가 개설된 후 시흥군정(현재 만안구청 자리) 안양시정 안양상공회의소 등이 들어서면서 부터 번창되기 시작했다 만안구정 남쪽은 장녕 성씨의 분묘가 많았는데 도시화로 이장 또는 화장되어 현재는 모두 택지로 조성되어 민가가 들어섰다 이곳에 있던 묘 중 세상에 알려진 인물로 성준영(成俊英 1571-1626)이 있다 임진왜란 때 아버지(成洛)가 해를 당하자 대신 왜병의 칼을 맞아 장(腸)이 튀어나와 거의 사경에 이르렀을 때 부인 심씨의 구혈(救血)로 살아 일생을 폐업하고 두문불출하고 자취를 감추어 스스로 서호서사(西湖處士)라 칭했다

- **참고문헌** 창녕성씨상곡과보간행추진위원회 『장녕성씨문헌록』1985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시흥군지편찬위원회「시흥군지」上 1988
- **도 움 말** 김병석(全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70 중앙동 (中央洞) 〈안양1동〉

북부동과 시대동(또는 남부동) 사이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시가지 중앙에 있는 마을이므로 '중앙동(中央洞)'이라 칭하며 이 마을을 기점으로 남쪽에 있는 마을이 남부동(南部洞) 북쪽에 있는 마을이 북부동(北部洞)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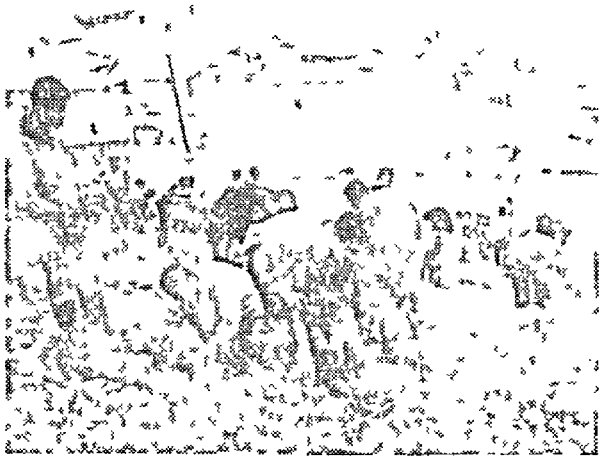
중앙동이 오늘날처럼 안양의 중심지로 크게 번창되기는 조선조 제22대 임금인 정조가 1795년에 시흥현과 과천현 경계지점에 만안교를 가설한 후 화산능행의 로정(路程)을 과천-인덕원-수원에서 시흥(현 금천구 시흥동)-안양-수원의 로정으로 바꾸면서 유래정 뒤 (안양1동 674-67)에 안양행궁(安養行宮)을 짓자 주변에 민가가 생기기 시작했고 1904년 경에 경부선 부설로 안양역이 건설되자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되어 1917년 7월에 호계2동에 있던 서이면 사무소가 안양1동사무소 옆 안양옥(安養屋 안양1동 674-271)자리로 이전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안양금융조합과 안양연초조합 등이 속속 이곳에 세워졌고 광복 후에는 시흥군청을 비롯하여 안양경찰서 안양읍사무소 등 공공기관이 들어서자 관가의 거리로 되었다가 이들 기관이 1970년 다른 곳으로 이전하자 뉴코리아호텔 안양백화점 그 밖에 유흥음식점이 붐벼 안양의 1번가로 자리를 굳혔다



중앙동(1971 현 뉴코리아 호텔 앞 1번가)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71 찬우물 (冷泉洞) 〈안양5동〉


층혼탑 아래에서 본 찬우물(1969)

주접동 북쪽에 위치한 마을로 안양5동 15통에 속한다 충혼탑 아래(안양5동 590-5)에 찬 샘우물이 있어 그 인근을 '찬우물(冷泉洞)'이라 칭하였다

이 우물은 일제강점기만 해도 식수와 농업용수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도 약수(식수)로 이용되고 있다

이곳에 인구의 유입이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쟁 직후 난민들이 잔우물 위쪽에 정착하고 우물 아래의 농경지가 택지로 변모되면서 부터인데 현재는 안양5동사무소를 비롯하여 장미아파트 건흥연립 원불교 현충탑 장안사 등이 있다 안양5동 590-5안양5동 590-5

- **참고문헌** 안양시 『내고장 전통문화가꾸기』 1981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봉훈(李奉薰 안양동 622-367 1927년생)
  한영복(韓榮福 안양동 470-1 1946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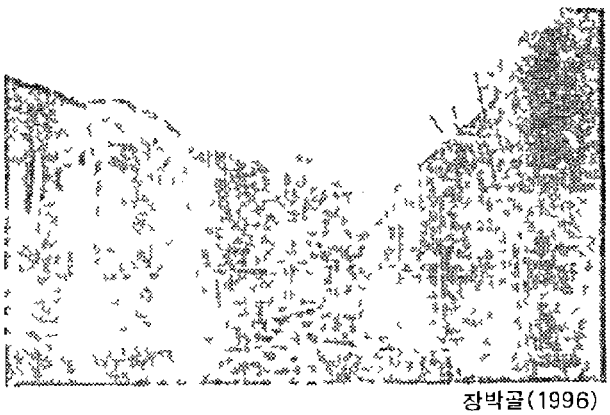
72 창박골 (蒼岩洞) 〈안양9동〉

안양9동 10통에 속한 마을로 병목안 서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마을 유래에 대하여 설이 구구한데 대체적으로 다음의 2가지 설로 압축된다

첫째 이 마을이 산골이라 바위가 많은데 이곳 바위의 색갈이 유독 푸른 심청색(深靑色)이라 하여 「장박골」(蒼岩洞)이라 불렀고 골짜기를 장암곡(穽岩谷)으로 칭했다

둘째 안양예비군교육장 서쪽에 큰 바위가 하나 있었는데 이 바위에 구멍이 뚫려 있어 흡사 장(穽)과 같다 하여 '창바위(穽岩)'라 불렀고 이 바위 안쪽(현재 교육장이 소재한 곳)을 '창암골' 바깥(북쪽)에 있는 골짜기를 '창박골(蒼外谷)'이라 각각 칭했는데 이곳에 민가가 생기면서 마을명칭도 장박골(蒼外谷)로 되었으나 현재와 같이 창박골(蒼岩洞)으로 쓰이기 시작한 연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산 골짜기에 위치한 이곳은 1970년대 병목안 담배촌 일대가 시민의 휴양지가 되면서 번창하기 시작했고 이어 1985년 석산연립과 이어 안양서중학교(안양 3동 1055-3)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급격히 늘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마을에서는 해마다 음력 7월 1일이면 창박골 앞산(약수터 입구)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냈다


장박골(1996)

다음에 소개하는 시는 제여매 시인이 장박골의 풍경을 읊은 「장박골

저녁」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금새 바뀌어진 빗물로
서럽다
저녁을 느끼게 하는
연기속에서
창박골 사람들은
때려도 아프단 음성없이
슨한 짐승이 되어
살아간다

햇빛 가난한 얼음장 사이로
봄이 먼
겨울이 흐른다

처음 딛는 발길이
고향처럼 익숙한 건
내리는 눈발 때문일까
온화한 산의 얼굴때문일까

낯선 아낙이
보이지도 않는 가난을
봄이 와도 풀리지 않을
가난을
뜨물로 걸러내고
걸러도
맑아지지 않는 진실이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천군양안」 199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수전(全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조문성(趙文成 안양동 973-35 194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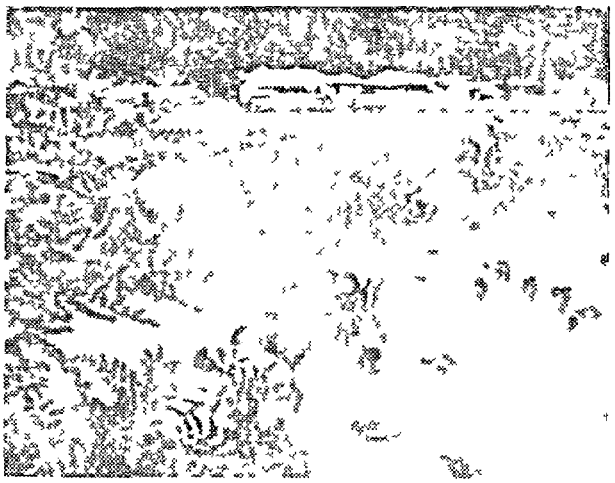
73 충훈부 (忠勳府) 〈석수3동〉

조선시대 국가의 공훈이 있는 신하들이 있던 충훈부(忠勳府)란 관아가 있었으므로 관아 인근에 민가가 생기면서 취락을 형성하자 관아의 명칭을 취해 '충훈부(忠勳府)'로 불리운다고 한다



충훈부 전경(1970년대)★

1906년 당시 시흥군수였던 남기선(南基善)에 의해 보고된 『시흥군전충훈부전진군영양둔내장사주수기(市興郡前忠勳府前親軍營兩屯內藏司私收記)』에 의하면 진군영의 둔토(屯土)는 소하리(所下里 현 광명시 소하동) 유등리(柳等里 현 광명시 가학동 공세동 마을) 읍내(邑內 현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사성리(巳省里 현 광명시 철산동) 가리봉(加里峯 현 서울시 구로구 가리봉동) 신림리(新林里 현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철산리(鐵山里 현 광명시 철산동)의 연간 도지(賭地)가 10석(石)5두(斗)5승(升)이며 충훈부 둔토는 사성리를 비롯하여 우두리(牛頭里 현 광명시 철산동 광명시청 인근에 있던 마을) 광화대리(廣火大里 현 광명시 광명동)에 소재해 있었는데 연간 도지가 3석(石)2두(斗)였었던 것으로 보아 이들 지역에 있던 친군영과 충훈부의 둔토에서 일반 농민에게 경작하게 하고 주수 때 도지를 받아 그것으로 충훈부를 관리 운영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꼬챙이 남쪽에 위치한 충훈부 마을은 일제강점기만 해도 안양전변에 밤나무가 무성해 밤의 명산지로도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1950년대에는 당시 시흥군에 의해 화훼 및 고등소



마을앞에서 모내기하는 광경
(1960년대 전우희 회원 이용기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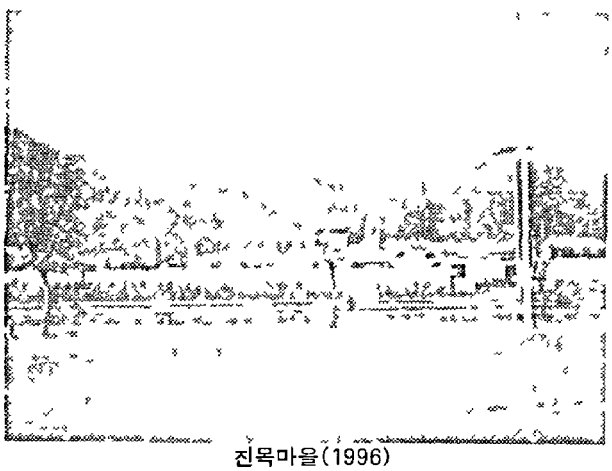
재 육성마을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 마을에 최초로 세거한 성씨는 광주 이씨로 폐동 전(1982)에는 60여 호가 있었는데 그 중 광주 이씨가 33호로 대성을 이루었다 1983년 폐동되자 주공아파트가 들어섰고 농경지였던 곳에는 석수초등학교(석수3동 655 1981년에 설립)와 안양중학교(석수3동 752 1948년에 설립)가 각각 들어섰다 마을에서는 폐동전까지만 해도 해마다 음력 10월 1일이면 마을 동쪽에 있는 꽃메산(花山) 정상에서 당제(堂祭)를 지내며 마을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했다

- **참고문헌** 경리원 『始興郡前屯勳府前親軍營兩屯內藏司秋收記』1907
  경리원 『始興郡前親軍營前屯勳府兩屯內藏司秋收記』1906
  경리원 『始興所在糧餉屯及屯勳府屯田畓十數落區別成冊』1897
  경리원 『始興郡糧餉屯勳府兩屯賭組成冊』1898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74 친목마을 (親睦洞) 〈박달2동〉

범고개마을 북쪽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는 고총(古塚)등 분묘가 많았던 산간지대로 면적은 1 850평에 이른다 본래 범고개 출신 임종대(林鍾大 1930년생 박달동 774)소유였다가 안양보육원(원장 사태현)에게 매도되었고 다시 안양읍에 의해 매입되자 1966년 비산동 사거리에서 인덕원 사거리에 이르는 도로(관악로) 개설로 인한 도로변의 철거민과 안양역 주변의 철거민을 이곳으로 집단이주시키자 취락이 형성되었다 일설에는 당시 시흥군 출신 국회의원이었던 오학진(吳學鎭)이 안양읍에 헌상한 토지라고도 전해진다


친목마을(1996)

'진목마을(親睦洞)'이란 마을명칭은 관악로노변의 철거민과 안양역 주변의 철거민들이 서로 친하며 화목하게 잘 살라는 뜻이 담겨져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황용호(王龍鎬 박달동 산83 1935년생)

75 포도원 (葡萄園) 마을 〈호계3동〉

구군포 동쪽으로 의왕시 오전동 성나자로원 마을과 경계에 있다 이곳은 1950년대에 이르러 경향포도협동조합의 장업자인 황인웅(黃仁雄 작고)이 처음으로 포도를 재배하기 시작하자 주변일대가 포도단지로 조성되어 한동안 포도산업이 발달되었으나 1970년대 부터 도시화로 쇠퇴하기 시작하자 택지로 변모되면서 취락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 **도움말** 허광산(許光山 호계동 707-3 1939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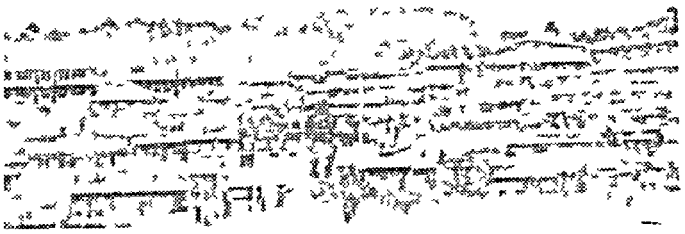
76 횃골 〈박달2동〉

김해 김씨 장원 황씨 등의 세거지로 10여호의 작은 취락이었다가 일제강점기에 경양육군병기장 안양분창이 건설되자 폐동되었다 선녀골 서북쪽에 있었던 이 마을은 예로부터 옹기(土器)로 유명했었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시대 어느 안산군수(安山郡守)가 부임자 안산(현 안산시 수암동에 관아가 있었음)으로 가던 중 이곳에 이르러 이 일대가 한낮에도 해를 볼 수가 없을 만큼 삼림(森林)이 우거진 점에 착안하여 해골이라 했는데 그 후 취락명도 해골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횃골'로 불리웠다고 한다

● **참고문헌** 임시토지조사국 『조선지지자료』 1918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77 희성촌 (喜星村) 〈비산2동〉


희성촌(1970년대)

미륭아파트 북쪽에 있다 1970년경 금성전선주식회사(金星電線株式會社)에 근무하던 무주택 사원 70명이 출자해서 대지를 매입한 후 주택을 신축하고 1971년부터 입주를 시작하자 취락이 형성된 곳이다 '희성촌(喜星村)'이란 마을명칭은 럭희그룹(당시) 산하 금성사우(金星社友)들의 집단촌이란 뜻인데 럭희의 희(喜)자와 금성의 성(星)자를 취한 것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유재창(劉在昌 비산동 421-33 1932년생)

제2절 산

1. 가운데봉 〈박달2동〉

시흥시 목감동 율조와 박달2동에 걸쳐 있다 무쇠봉과 목감동 소재 계골봉(또는 문봉 한국농촌문화연구소 새마을교육원 뒷산) 사이에 있는 산이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 **도 움 말** 김지헌(金址憲 시흥시 목감동 92 1916년생)

2, 갈매산 〈석수2동〉

안양육교 서북쪽에 위치한 얕은 산이다 갈매나무가 많이 자생하므로 갈매산이라 칭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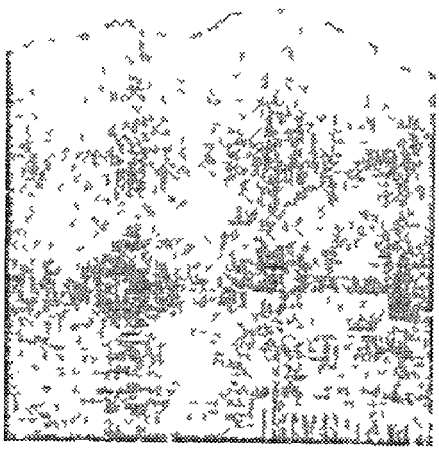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3 갈미봉 〈안양9동〉

담배촌 큰 골 위에 있다 이 산 서북쪽에 있는 산은 수암봉(秀岩峯)이고 동남쪽에 있는 산은 태양산(大陽山)이다 산 정상에는 현재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아주 먼 옛날 전지개벽할 때 산봉우리가 갈매기의 꼬리만큼 남았다하여 갈미봉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조종성(趙鍾成 안양동 1014-3 1927년생)

4 관모봉 (冠帽峯) 〈안양8동〉


관모봉(1980년대)

안양8동과 군포시 산본동에 걸쳐 있다 산세가 흡사 관모(冠帽)와 같으므로 '관모봉(冠帽峯)'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하) 1988

● **도 움 말** 김관겸(全寬兼 군포시 산본동 129 1930년생)

5 관악산 (冠岳山)

〈비산1동 비산3동 관양1동〉



연주대 위의 봉우리가 흡사 관저럼 생겼기 때문에 관악산이라 부른다고 함 (198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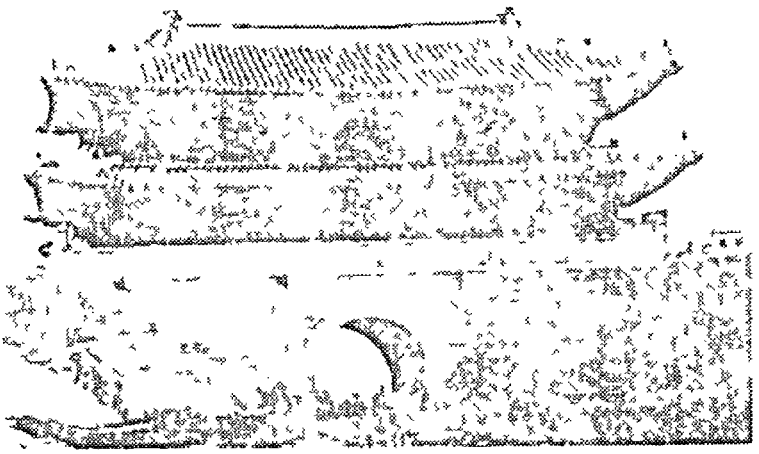
관악산은 태고 이래로 삼성산 수리산과 함께 안양 지방의 변전모습을 묵묵히 지켜 온 명산으로 그 내용(來龍)은 경상도 대백산맥으로 마이산(馬耳山)에서 갈라져 충정도 속리산의 중조(中祖)가 되어 역으로 치달아 한강을 지계선(地界線)으로 하여 안양 서울 과천의 삼각교자 지점에 우뚝 솟아 서울의 삼각산과 마주하고 있다

관악산은 정계산(淸溪山) 광교산(光敎山) 보개산(寶蓋山) 수리산(修理山) 백운산(白雲山) 등의 산이 모두 한강 이남에 자리잡고 있는데 대개 백두산의 간맥(幹脈)이 남하하여 접자로 금강산(金剛山) 설악산(雪嶽山) 오대산(五臺山)이 되고 다시 서쪽으로 뻗히어 속리산 계룡산 등의 산악이 된 후에 역류하여 관악산이 되었는데 연주대 위의 봉우리 모양이 흡사 관저럼 생겼기 때문에 '관악산'이라 부른다고 한다 그 후 국인(國人)이 소금강(小金剛)이라하여 과장하는 것을 강감찬(姜邯贊)이 금강산 서쪽에 있는 산이란 의미로 서금강(西金剛)이라 고쳤는데 오늘날 관악산을 경기의 금강이니 소금강이니 하는 별칭이 붙은 것은 이러한 연유에서 라고한다 이러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관악산이라 칭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조 이전이었 음이 틀림없고 『고려사』권 56 지 권 제10 지리 - 과주조와 『고려사』권 122 열전 권 제35 김위제조에 '冠嶽'이라고 기재된 사실로 보아 저음에는 '冠嶽山'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冠岳山'이라 칭한 것 같다

조선 조기부터 관악산은 과천의 진산(鎭山)이었다 조선조 최초의 지리지인 『세종실록』지리지 권 148 과전현조에 '과천의 진산은 관악이다 ' 하였고 이보다 30년 후에 발간된 『동국여지승람』과전현 산천조에도 '관악산 현 서쪽 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하여 관악산이 과전의 진산임과 동시에 과천의 영역이었음을 아울러 밝히고 있다 그러나 1914년부터는 전역이 시흥군에 속하게 되었고 그 후 잦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오늘날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금전구 및 경기도 안양시 과천시의 4개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데 전체면적 1 922ha 중 59 4%인 1 141ha가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다 이후 1968년 1월 15일에는 건설부 고시 제34호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었다

1986년 과전시가 시흥군에서 분리된 후에는 과전시의 향토축제명으로 관악산의 산명을 취해 '관악제'로 명명하고 해마다 10월에 대대적인 문화 행사를 거행한 바 있으며 이보다 앞서 1973년에는 관악구가 구의 명칭을 영등포에서 분리되면서 역시 산명을 취했고 이어 1988년 부터는 매년 봄에 '관악산 철쭉제'를 개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악산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에 시 구 등의 노래와 학교의 교가 등은 한결같이 '관악산 정기 운운'하는 문귀가 들어있다 이는 관악산이 오랫동안 이 지역의 변전 모습을 묵묵히 지켜본 산(?) 증인이자 이 지역을 지켜온 수호산이기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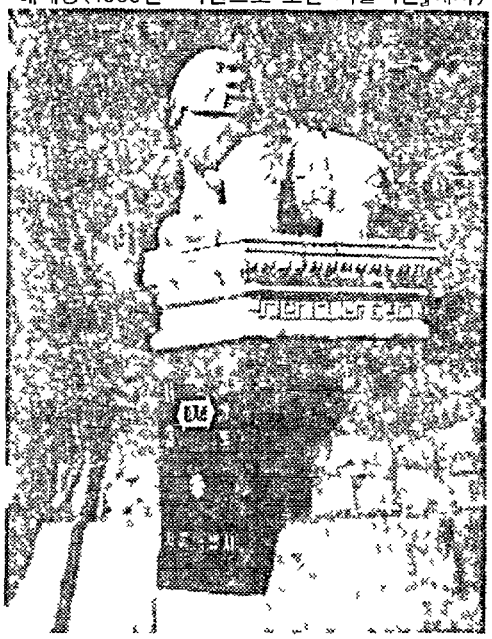


숭례문밖 풍경(1894년경 『사진으로 보는 서울백년』에서)

관악산은 서울의 조산(朝山)으로 풍수지리상으로 볼 때 서울 남쪽에 있는 불산(王都南方之火山)이다 조선 초기에 있어서 왕궁터(宮基)를 정하는 데 관악산을 정면(正面)으로 하면 궁성(宮城)을 위압하여 국가가 평안치 못하다는 무학대사(無學大師)의 주장과 남면(南面)에 한강이 있어 무방하다는 정도전(鄭道傳)의 주장이 양립되었음은 유명한 사실로 전해지고 있다 관악산이 불산(火山)이라는 데는 이론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불의 산인 관악산과 그 서쪽에 있는 삼성산의 불기(火氣)를 끊는다는 풍수설에서 서울 숭례문 바로 앞에 남지(南池)라는 연못을 팠었다 『동국여지비고』에 의하면 "남지는 숭례문 밖에 있는데 연꽃을 심었기에 연지(蓮池)라고도 하며 민간에서 김안로(金安老)의 집터라고 한다"고 하였다

성종 때 한명회(韓明澮)가 상주하기를 "도읍을 정할 때 모화관 앞과 숭례문 밖에 큰 연못을 파서 국도(國都) 대산(大山)을 진압했는데 지금 그것이 메워져 있으니 세종 이래 화재가 빈번하여 사람들을 방울을 흔들며 도로를 돌아다니면서 경계하였는 바 이 연못을 복구해서 불을 진압하면 좋을 것이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전 서울대 교수 최창조(崔昌祚)는 "남지는 당시의 원지형면이 낮은 저습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소택지성 연못일 가능성이 크고 그것이 메워졌다는 것도 단순한 퇴적 작용의 결과일 것으로 짐작이 되기 때문에 풍수적 의미성은 크지 않다고 여겨진다"고 말하며 화기(火氣) 비보(裨補 허한 氣의 땅을 보완해 주는 것을 말함)로 중요한 것은 관악산의 모양과 해태조성이라는 것이다 관악산형이 화성(火星 풍수에서는 산을 하늘의 별이 땅에 모양을 드러낸 것으로 보아 星 혹은 曜라고 부르기도 함)이라는 기록은 이미 고려시대부터 있었다


해태상(1980년 『사진으로 보는 서울백년』에서)

고려 숙종 때 김위제)가 오늘의 서울을 오덕구(五德丘)라 하여 극찬을 한 바 있다 오덕구란 중앙에 면악(面岳 北岳山)이 토덕(土德) 북에 감악이 수덕(水德) 남에 관악이 화덕(火德) 동에 남행산이 목덕(木德) 서에 북악(北岳 부정)이 금덕(金德)에 속하여 그 중앙인 북악산 아래 즉 서울이 풍수가들이 말하는 오성귀원(五星歸垣)의 최대 길지가 된다는 것이다 오성귀원격이란 "중앙과 사방의 산들 그러니까 오성(五星)이 각각 오행방위(五行方位)를 제대로 찾아 전하의 대지를 형성한 것으로 지귀지존(至貴至尊)하므로 만의 하나도 얻기 어려운 격이다"하며 고려 때 부터 이미 관악산을 화기의 산이라고 보았다고 최교수는 주장한다

불의 원시적 발상은 화재(火災)다 연못 뿐만 아니라 서울의 모든 성문의 액명(額銘)이 가로인데 반하여 숭례문(崇禮門)의 액명(額銘)이 세로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불의 산(冠岳山)에서 옮겨 붙을 서울의 화재를 막기 위함이었다 '예(禮)'는 오행(五行)의 '화(火)'가 되고 또 오방(五方)으로 보면 '남(南)'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숭(崇)'은 불꽃이 타오를 상형문자이기에 '숭례(崇禮)'는 세로로 세워야 불이 타오를 수 있고 또 타오르는 불을 막아 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光化門) 양편 문전에 해태상이 있다 조선 말엽 대원군 집정시 경복궁을 중수할 때 불이 자주 일어난 데 자극 받아 대원군이 당대의 명인 이세욱(李世旭)으로 하여금 조각케 하여 궁전 앞에 안치한 것이다 일설에는 대원군이 경복궁 정문에 해태상을 안치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관악산 정상에다 우물을 파고 구리로 만든 용(龍)을

그 우물에다 넣어서 화기를 진압했다고 하며 또 관악의 주봉인 연주봉에 아홉개의 방화부(防火符)를 넣은 물단지를 넣었다고 한다 이러한 일련의 조치는 한양의 도성 풍수(都城風水)에 있어 화기(火氣)가 등등한 관악의 기세로 부터 경복궁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작업이라고 한말의 문헌인 『조선근세정감(朝鮮近世政鑑)』은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최창조 교수는 "관악산의 화기를 압승(壓勝 너무 강한 땅의 기를 이완시켜주는 것을 말함)하기 위하여 해태를 조성했다는 기록이 정사(正史)인 『조선왕조실록』에 없는 것으로 보면 그것은 속설일 가능성이 높다 "며 "관악산의 화기에 대한 염려는 서울 북서쪽에서 유입된 바람이 남쪽에서 소용돌이를 일으켜 화재 위험이 있음을 간과한 풍수응용이었을 것 "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한편 언론인 이규태(李圭泰 조선일보)는 "대원군의 경복궁 해태상이 관악산의 화기를 막기 위해 설치했다기 보다는 왕도와 문무백관의 이도(吏道)를 바로잡기 위함" 이라는 견해이다 즉 이와 같은 사실들은 정치에 풍수나 도참을 곧잘 활용했던 대원군이기에 생겨난 뜬 소문으로 해태는 풍수와 전혀 관계 없는 상상 속의 성스러운 짐승이라는 것이다 『이물지(異物志)』 등 중국문헌에 보면 해태는 중국의 동북지방 깊은 수풀이나 산속에 사는 짐승으로 신선이 먹는다는 먹구슬나무 열매만 먹기에 해태 둘레에는 파리 한 마리 꾀지 못한다는 성스러운 짐승이다 성질이 곧아 사람이 싸우는 것을 보면 반드시 그 사악한 자에 대들고 사람이 논쟁하는 것을 들으면 부정한 쪽에 달려들어 물어 뜯는다 곧 곡직(曲直)을 능히 판단하는 충직한 짐승으로 9덕(九德)까지 갖추고 있어 고대 중국의 초(楚)나라에서는 임금이 금관 대신 해태관을 보고 국사를 다스린 것이 본이 되어 그후부터 법을 다스리는 수령(守令)이나 어사(御史)들의 관복으로 이 해태관과 해태를 흉배에 수 놓은 옷을 입도록 제도화하였다 근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법관이 해태관을 변형시킨 법모와 해태 문양의 검은 법복을 입었다

풍수란 본래 믿을 만한 게 못 된다 하지만 풍수를 믿음으로써 빚어진 구체적인 현상은 믿지 않을 수가 없다 실례로 서울 양반촌인 북촌(北村)에서는 이 관악산과 맞바로 보이는 집에서 자라난 딸과는 혼인을 거절한 실례가 있는가 하면 주민들이 관악산과 마주 보이는 곳을 피한다든지 또는 친정으로 가 아이를 낳는 풍습까지 있었는데 이는 불의 문화적 해석을 열정적이고 반체제적이기에 요망스럽고 음탕하여 일부종사(一夫從事)를 할 수 없다는 풍수의 숙명 때문이었다

관악산은 서울 근교인 데다가 기기괴괴한 바위가 많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4계에 따라 갖가지 변하는 광경이 절경이라 예로 부터 신분의 높고 낮음을 가리지 않

고 찾는 이가 많았다 그 중 대표적인 인물이 조선조 태종의 큰 아들 양녕대군(讓寧大君)과 둘째아들 효령대군(孝寧大君)이다 『양녕유사(讓寧遺事)』에 보면 "태종 18년(1418)에 양녕대군이 어느날 밤에 아우인 효령대군의 침소로 가 묻기를

자네는 충녕(忠寧 세종)의 성덕을 알고 있는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장차 오(吳)나라 태백(泰伯)이 되려고 하는데 중옹(仲翁)이 될 수 있겠는가

그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기회는 다만 오늘 저녁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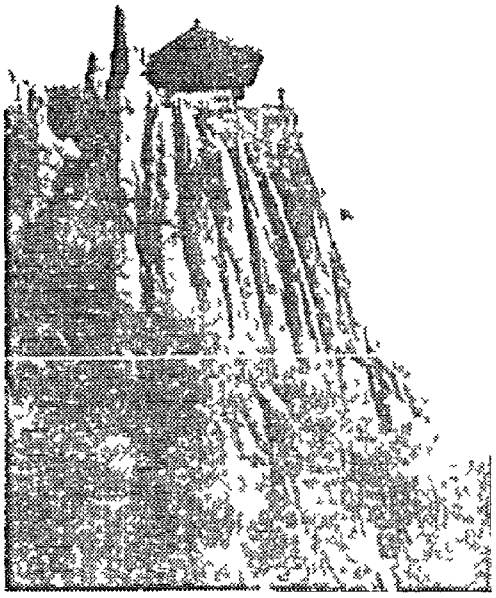

효령대군 영정(1990년대 연주암 소장)

대화가 끝나자 양녕대군은 아우인 효령대군의 손을 이끌고 나갔다 궁궐의 담을 넘고 도쪽 성문을 나가 양녕대군은 경성(京城)의 십리행궁(十里行宮)에 숨고 효령대군은 산사(山寺)에 들어가 합장하고 앉아 있기를 사흘만에 비로소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을 찾았다"는 기록과 이해 6월에 세자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다시 세자로 책봉한 것(六月 上廢王世子爲讓寧大君冊忠寧大君爲王世子)으로 보아 1418년에 두 왕자가 관악산을 찾은 것으로 보여지나 문헌상에 효령대군이 관악산에 오른 해는 그의 나이 33세 때인 세종 10년(1428)으로 이해 관악산 문수대에 시 두 수를 짓고 아울러 관악산 최상봉 암면(岩面)에 '연주대(戀主臺)'라는 큰 글자 세자를 친히 진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冠岳山最上峯 石面有刻戀主臺三大字 是大君筆迹云) 그런데 이 연주대에 대해 염불대(念佛臺)로 잘못 알려지고 있다 조선 후기에 문신으로 이조판서와 좌찬성을 지낸 이돈영(李敦榮 1801~1884)이 상고한 바에 따르면 이러한 오류는 재제공(蔡濟恭)이 판부사(判府事)로 있을 때 연주대(戀主臺)를 염불대(念佛臺)로 아뢴 후부터 일반에 염불대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정조 13년(1789) 12월 30일조를 보면 재제공이 정조에게 아뢰기를 "관악산의 제일봉에서 경복궁이 바라보이는데 양녕대군이 반드시 이 봉우리에 올라 바라 보았던 까닭에 차일을 겼던 흔적이 있고 세상사람들이 연주대라고 칭한다고 합니다"라 하여 관악산의 제일봉인 문수대와 연주대가 모두 효령대군과 절대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양녕대군 운위하면서 유독 효령대군과의

제 사실들을 쏙 빼어 놓은 것이라고 한다 연주대(戀主臺)란 각자는 조선 후기까지만 해도 글자가 완연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전술한 이돈영의 가형(家兄)이 젊었을 적에 관악산에 올라가서 몸소 이 세 글자를 보았는데 검은 이끼와 단단한 등나무 사이에 아직도 완연하데 다만 '연(戀)'자의 실 사(絲)획이 좀 닳아졌다고 했다는 것이다 효령대군이 각자한 '연주대(戀主臺)' 세 글자는 현재 군부대 안에 소재해 있어 그 상태를 알 수가 없다

그런데 후세 사람들이 이 연주대의 '연주(戀主)'를 잘못 해석하여 마치 효령대군이 '임금'에 연연해서 연주대란 한 것으로 사실을 곡해하고 있는데 이러한 오류는 시흥군이 1950년에 편찬한 『금천지(衿川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는 그후 경기도가 1957년에 편찬한 『경기도지(京畿道誌)』하 910~911쪽에 그대로 전재되었고 이후 신문 잡지는 물론 일반 도서에 이르기까지 관악산하면 으레 이러한 이야기를 인용하는데 필자에 따라서는 전자의 내용을 확대 해석하는 경향도 있다


연주대(1970년대)

『금천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주암(戀主庵)

戀主庵은 寺史로 응대함으로나 삼막과 비기는 거찰이다 관악의 상봉 연주봉을 배후에 지고 幽邃疊疊의 深谷을 내려다보는 위치로 점했을 뿐더러 寺庭에서 眺望되는 秀峯마다가 기암이요 괴석으로 이루어져서 아연 금강산에 든 감을 자아내게 한다

寺史는 1천 2백 60여 년전 신라30대 문무왕 17년 戊寅에 의상대사의 창건이다 創始 당시는 寺名은 冠岳寺요 위치도 현재의 자리는 아니었으니 거금 5백 50여년전 이조3대 태종11년 辛卯에 이태조의 제일 제이 왕자인 양녕대군과 효령대군의 손으로 현재 자리로 移寺된 것이다

양녕대군이 특히 冠岳 移寺를 뜻한 데는 남모르는 슬픔이 있었으니 태조는 제일 제이의 왕자를 비켜놓고 제3자인 충령대군에게 전위할 뜻을 가졌음을 눈지 재인지라 兩大君은 손에 손을 잡고 눈물을 먹음으며 왕실을 벗어나 발길 가는대로 방랑의 길을 떠났던 것이다 상심한 兩王子는 혹은

민가에 雨露를 피하고 혹은 산정에서 날을 밝히며 형은 아우를 아우는 형을 서로 牽勢해 가며 산에서 산으로 해매기를 數朔 문득 발을 멈춘 곳이 관악산정이었으나 보지 않고 생각지 않으려던 왕궁이 바로 나려다 보이는지라 관악사에 들어 입산수도를 꾀했었다

그러나 잊자 할수록 꿈속에 나타나는 왕좌에의 애련한 추억과 동경의 정을 눌을 길 없어 峯 넘어로 절을 옮기려 하고 지금 자리로 移寺를 시켰으나 가지 말자면서도 발길은 언제나 산정으로 옮겨지는지라 이 兩王子의 心懷를 아로삭여 세인이 관악산정을 연주대라 일컫고 寺名도 모르는 사이에 연주암이 되고 만 것이다 이 舊寺址는 현재의 寺境넘어 골짝에 있으니 자리로 보아 지금 자리보다는 더 아담한 절터다 왕궁족으로 마음을 이끌어 가는 연주봉을 보지 않기 위해서 移寺까지한 두 왕자의 슬픔은 옵소리며 舊寺址를 거닐어보는 감회도 깊거니와 舊寺庭에서의 眼下眺望은 全岡의 단방령을 넘는 느낌을 준다


연주암(1979)

寺庭에서 둘러 보면 蓮峯이 꽃이요 단풍이다

「若亦若莽若卫若白 勢若鬼神之聚 倍 遊是山者 伍幾擇幾 」

이는 古人의 관악봉 頌이거니와 이 시인도 寺庭에서 蓮峯을 쳐다 보고 읊은 감회이리라 제일왕자 양령대군은 왕위를 단념했지만 효령대군은 끝내 왕위에 대한 정을 못잊어 悶悶 관악사를 옮기기까지 했으나 끝내 왕좌에 앉아 보지 못한 채 원한이 서린 관악산록에 묻치고 말았다

(중략) 寺史에는 麗朝末의 두문동 72인으로 徐甄 南乙珍 庾得龍等이 이태조 모반에 반감을 품고 관악에 들었드니라 하나 徐甄만은 있으나 其他는 實記에 없으니 趙胤 李穡의 誤傳이 아닌가도 한다 그야 어쨌든 이 主峯의 麗朝 李祖의 두 不平客들이 主를 그린 峯이니 變主의 이름은 있어 마땅할 것이다 * 줄전 『衿川誌』(1950 원문의 맞춤법을 그대로 따랐으며 내용 중 오기로 주정되는 것도 원문대로 두었다)

흔히 고려에서 조선으로 왕조가 교체될 때 조선건국에 참여하지 않은 두문동 72인 중 일부가 관악산에 은거했다는 설이 있으나 옛 문헌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금전지』에서 인용한 인물 중 이 색 조 견은 관악산과 마주하고 있는 청계산과 관련이 있고

서 견은 금천현(시흥)에 은거한 사실이 있으며 강득룡은 그의 묘(墓)가 현재 정부 제2종합청사 뒤에 있다

그런데 『연주암지(戀主庵誌)』에 보면

新羅 第三十世 文武王 17年 戊寅에 義湘祖師께서 義湘臺와 冠岳寺를 初創하니 祖師는 戊寅에 錫을 携하고 漢水南域에 遊化하다가 冠岳山의 明媚秀麗함을 愛하야 同 山頂에 義湘臺를 創建하는 同時 冠岳寺를 開山하다

라고 하여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의상조사(대사)가 관악사를 창건하고 이어 의상대를 창건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어 동지(同誌)에

神德王后 康氏의 家兄인 康得龍(安靖公)이 徐甄 南乙珍 等으로 더불어 杜門洞 七十二人의 跡을 倣하야 不事二祖의 志를 抱하고 遂히 冠岳山 義湘臺에 登하야 松京을 望하고 痛哭하며 前祖를 戀慕하야 遂히 義湘臺를 고져 戀主臺라 改稱함

이라 하여 '연주(戀主)'가 두문동 72인 중 강득용(康得龍) 서견(徐甄) 남을진(南乙珍) 등으로 부터 유래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강득용 묘

효령대군 연보(年譜)에 의하면 효령대군의 나이 34세 때인 1429년에 관악사를 3창(三創)함과 동시에 약사여래상과 미륵존상 오층석탑을 조성하고 아울러 시주하였으며 현재 연주암에 봉안된 그의 영정(影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81호)은 선조 30년(1597)에 전주 이씨 효령대군파 『정유세보(丁酉世譜)』에 처음 실었는데 오늘날 효령대군의 사당(淸權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소재)과 존영각(尙川)에 봉안된 영정은 모두 연주암본을 본뜬 것이라고 한다

관악산을 찾은 인물 중에 허 목(許穆 1595~1682)이 있다 숙종조에 그림과 문장은 물론 전서(篆書)에 있어 동방 제일인자라는 칭호를 받은 허 목은 조선 중기에 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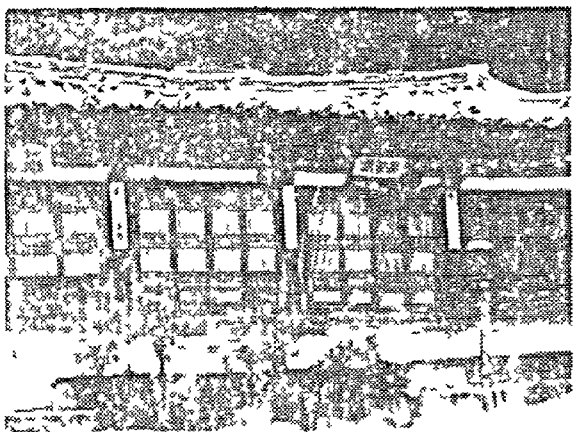
정을 지낸 이원익(李元翼)의 손녀 사위이기도 하다 그는 1678년 4월 17일 83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관악산을 마치 신선이 노니는 것처럼 등반했다고 한다

『미수기언』「미수선생년보」 제2권에 보면

"서자하대(西紫霞臺)에서 영주대(靈珠臺)로 올라가 해양(海洋)을 바라보다가 강산으로 돌아왔다"는 기록으로 보아 연주대를 '영주대(靈珠臺)'로도 불렀던 것 같다

금강산에 유점사(楡岾寺) 묘향산에 보현사(普賢寺) 계룡산에 갑사(甲寺) 정족산에 전등사(傳燈寺) 가야산에 해인사(海印寺) 오대산에 월정사(月精寺) 등과 같이 명산에는 으레 명찰이 있다 그러나 관악산은 그 명성에 비하면 명찰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다 화산이므로 사찰이 번성하지 못한다는 속설이 지배되어 온 탓인지도 모른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과천읍지(果川邑誌)』 『시흥읍지(始興邑誌)』 『경기읍지(京畿邑誌)』 등에 기재된 관악산에 소재한 사찰은 다음과 같다

- 연주암(緣主庵) 신라 문무왕 17년(677) 의상대사에 의해 장건되었으며 조장의 이름은 관악사(冠岳寺) 이다 조선초에 연주암으로 개칭
- 관음사(觀音寺) 과천현 북쪽 10리 지점인 지금의 관악구 남현동에 있다 변계량의 칠언고시(七言古詩)가 전해진다
- 불성사(佛性寺 佛聖寺 佛成寺) 과천현 서쪽 15리 지점으로 지금의 안양시 비산3동에 있다 의상대사에 의해 창건되었다
- 원각사(圓覺寺) 과천현 뒤쪽 10리 지점인 관악산에 있다고 하나 창사연대 창건주 현존여부를 알 수가 없다
- 자운사(紫雲寺) 과천현 북쪽 25리 지점으로 관악산 북쪽에 있었다고 하나 현존여부는 알 수가 없다
- 망해암(望海庵) 과천현 서쪽 20리 지점으로 관악산 남쪽에 있는 사찰로 지금의 안양시 안양2동에 현존한다
- 연대암(蓮臺庵) 과천현 서쪽 15리 지점으로 관악산 남자하동에 있는 사찰인데 현존 여부를 알 수가 없다
- 만수암(萬壽庵) 과천현 서쪽 10리 지점으로 관악산 북쪽에 있는 사찰인데 현존 여부를 알 수가 없다



자운암(사)(1950년대)

이상 열거한 사찰 중 명찰은 아무래도 '연주암'일 것이다 그런데 연주암에는 광해군과 인조시대의 사람 강홍립(姜弘立)과 그의 애첩인 소학사(蘇學士)의 딸 봉조(鳳祚)와의 애틋한 사랑의 얘기가 전한다

강홍립은 광해군 10년(1618) 도원수로 임명되어 명나라를 구원하기 위하여 군사를 이끌고 북으로 심하에 들어갔다가 패하여 청나라에 항복하고 심양 근처에서 볼모살이를 하고 있었다 이때 그와 가까이 지내던 사람이 명나라에서 문화전 학사로 있다가 쫓겨나 귀양살이를 하던 소학사였다 소학사에게는 봉조라는 딸이 있었다

강홍립은 소학사의 딸을 첩으로 맞이했고 누루하치는 사람을 보내 이들의 성혼을 축하했다 정묘년 인조5년(1627) 정묘호란이 일어났다 강홍립은 조선에 나와 두 나라 사이의 평화를 주선했다 그러나 조정 중신들은 강홍립을 반대하고 나섰다

강홍립은 지금 화평을 주장하고 있으나 사실은 적을 끌고 들어온 자입니다 국운이 불행하여 도둑의 떼가 뱃속 깊이 들어온 이때 그는 평화를 말하며 임금과 대신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하여서는 그를 배척해야 하옵니다

강홍립은 전에 5도 도원수로 임명되어 그 관직이 아직도 그대로 있는 자이옵니다 그는 이것을 기화로 도원수인 제하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있사옵니다 ! 어서 그자의 목을 베어 효시토록 하심이 옳을 줄 아뢰오!

강홍립은 적에게 항복한 반신이옵니다 그럼에도 전하께옵서는 이런 자의 말을 듣고 친히 대하시며 그런 자의 아들에게 벼슬을 주어 역적의 마음을 위로한다 하옵시니 국가의 체면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속히 강홍립을 처형하시옵소서!

한편 소학사의 딸은 강홍립을 따라 조선으로 와 심양에 함께 있었던 박난영의 부인과 더불어 강화에 들어와 있었다

마님 소식 들으셨습니까?

"장군께서는 지금 어디 계시옵니까?

장군께서는 청나라 진중에 계시지만 아드님이 대신하여 청나라로 들어가시면 대감께선 한양집으로 들어가시게 된답니다

그럼 이젠 청나라엔 들어가지 않아도 됩니까?

그렇구 말구요 아마 멀지 않아 마님께서도 한양 댁으로 가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어느날 강화로 몰려온 군사들은 봉조를 데려다가 관악산 연주암에 연금하고 말았다

한편 강화도로 난을 피한 인조는 청군과 화약을 했으나 강홍립은 탄핵되어 삭탈관직되고 방면

되었으나 봉조는 관병에 의해서 감시를 받으며 사는 몸이 되었다 작은 암자에서 감시를 받는 생활인지라 봉조는 어떻게 해서든지 빠져 나가려고 애를 썼다 봉조는 노리개와 금가락지를 여승에게 내주면서 말했다

나는 이제 아무 곳에도 가지 못할 팔자가 되었으니 이것은 가져 뭘하겠소

"마님 이것은 우리나라에 없는 보물이옵니다 도루 넣어 두십시오

아니오 내가 여기서 스님께 많은 폐를 끼치고 있으니 그저 정으로 받아두시오

원 천만의 말씀이시옵니다 폐는 무슨 폐이옵니까 그저 아씨를 잘 보살펴 드리라는 웃전의 분부대로 하고 있은 따름이온데

스님 내가 스님게 긴한 부탁이 있는데 어떻게 내 남편에게 소식만이라도 전해 줄 수 없을까요?

네? 도원수대감께요?

내 남편에게 편지를 썼는데 한양에 들어가는 길이 있으면 전해 주구려

봉조의 편지는 강홍립에게 전해졌다

낭군을 만나보려고 불원천리하고 온 이 몸이 낭군을 기다리다 못해 대문 밖에 나갔다가 지척을 모르고 이곳 암자에 와 있습니다 이곳에서 들으니 낭군은 옥에 갇혔다 하옵기 듣기에 놀라 기절하였습니다 일편단심 먹은 마음 오직 낭군만이 내 심정을 아실 것이오 넓은 벌판 그 옛 땅이 그립소이다 낭군의 본국에 돌아오면 우리들의 생활이 잘 될 줄 알았더니 뜻밖의 이 곤경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마 낭군을 다시 만나기 전에 저 세상에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강홍립은 곧 봉조를 찾아 나서기로 하고 한양을 빠져나와 시흥에 이르렀는데 이것을 안 그의 반대파당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다 강홍립은 인조 5년 7월에 옥중에서 병사하니 이 소식을 전해 들은 봉조는 연주암에서 암을 그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한다 * 줄전 이경재 『서울정도 600년』③ 1993 서울신문사 239~242쪽

관악산은 산세가 험하고 숲 또한 우거져 옛날에는 왕실의 사냥터로 많이 이용되었다 특히 연산군이 관악산을 자주 드나들며 사냥을 즐겼다고 한다 관악산 중턱에 있다고 전해지는 바위 하나도 바로 연산군이 얼마나 사냥을 즐겼는가를 일러주는 일화 중에 하나인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악산(冠岳山)의 왕후묘(王后墓)

관악산(冠岳山)은 조선시대 과천현(果川縣)의 진산(鎭山)이었다

이 곳 관악산(冠岳山)의 산 중턱에 바위가 하나 있는데 이것을 왕후묘(王后墓)라 부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져 온다 조선시대의 열 번째 임금인 연산군은 숲이 울창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관악산(冠岳山)으로 사냥을 즐겨 다녔다

하루는 임금이 내시 몇 사람을 데리고 사냥을 나섰는데 막 산기슭을 올라 냇물을 건너려 할 때였다 연산군은 어찌된 일인지 내를 건널 생각은 않고 저쪽 편에 있는 빨래터만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기다리다가 지친 내시가 마침내 말문을 열었다

전하 어인 일로 내를 건너지 않으시옵니까?

갑자기 사냥을 하고 싶은 생각이 가셨도다

일기가 화창하여 사냥하기가 더 없이 좋은 날씨인데 어인 일로 사냥을 하고 싶지 않으시옵니까? 내시는 상감의 마음을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때 연산군은 저쪽 빨래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그대들의 눈에는 저기서 빨래하는 처녀가 어떻게 보이느냐? 미인으로 보이느냐? 아니면 박색으로 보이느냐? 어서 말해 보렷다

전하 비록 촌락의 처녀이오나 천하의 절색인 줄 아뢰오

역시 과인(寡人)의 눈이 틀림없구나

연산군의 입가에 만족스러운 웃음이 돌았다 한편 빨래하던 처녀는 웬 사냥군 대여섯명이 자기를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이 무엇인가 심상치가 않아 두려운 생각이 들어서 하던 빨래를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급히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였다

마침 멀리서 그것을 본 연산군은

"여봐라 저 처녀의 뒤를 따라가 집을 알아보고 오렸다 과인(寡人)이 오늘밤은 호젓한 촌락에서 아리따운 처녀와 더불어 회포를 풀어 보아야겠다

하고 처녀를 유심히 눈여겨 보는 것이었다

한편 집으로 헐레벌떡 달려오는 딸을 본 처녀의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다

얘야 왜 빨래를 하다 말고 이렇게 급히 뛰어오느냐? 무슨 일이라도 생겼는냐?

어머니 저기 웬 사냥군 서너 명이 제 뒤를 따라오고 있어요 저것 보세요

이 때 요란히 들려오던 말발굽 소리가 처녀의 집 앞으로 멈추며 사냥군 차림의 장정 서너명이 처녀의 어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여보시오 부인 당신이 저 처녀의 모친 되시오?

예 그러하옵니다만 어린 것이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나는 상감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오

이 말에 여인은 깜짝 놀라며 얼굴에는 걱정스런 빛이 감돌았다

예? 상감마마의

오늘 상감이 이 곳으로 사냥을 오셨다가 날이 저물어 하룻밤을 여기서 유숙하고 가실 것이니 방 하나 깨끗히 마련하도록 하오

상감께서 이렇게 누추한 저의 집에 머무르시다니

아뭏든 상감의 영(令)이니 그대로 하도록 하시오

너무나도 갑작스런 일에 여인은 놀랄 뿐 어찌해야 좋을지 몰랐다

아! 이 일을 어쩌면 좋담

아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처녀가 오늘밤 상감을 모실 것이니 깨끗이 목욕하고 몸단장을 하여 상감의 침소에 들여 보내도록 하시오

제 딸을요? 어린 것이 어떻게 상감을 모시오리까? 더구나 산중에서 철없이 자란 것이 되어 무슨 잘못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어린게 실수라도 하면

처녀의 어머니는 사나이들의 옷자락을 잡고 울며 사정했다

그러나 사나이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어명이오 어서 빨리 준비되도록 서둘러야 하오

정말로 하늘이 알면 노할 일이었다 두 모녀는 그냥 그 자리에 주저 앉아서 흐느끼며

어머니 만약 이 사실을 만우가 알면 날 죽이고 자기도 죽을 거예요

이 처녀는 아랫마을의 만우라는 사나이와 정혼을 했던 것이다 이윽고 밤이 되자 단장한 처녀는 연산군이 기다리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아랫목에 누워서 처녀가 들어오는 것을 본 연산군은

이런 산골에 너 같은 천하 제일의 여인이 있을 줄은 정말 몰랐도다 어서 이리로 가까이 오너라 하며 처녀의 손을 잡아 끌려고 할 때 처녀가 울고 있는 것을 알아챘다

아니 울긴 왜 우느냐?

연산군은 호통을 쳤다 이 때까지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던 처녀는 이 말에 살며시 머리를 들며 상감께 조용히 아뢰었다

상감마마 소녀는 이미 백년가약을 약속한 자가 있는 몸이옵니다

약혼자가 아니라 지아비가 있다 해도 괜찮다 나는 만인의 어버이요 만인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거역할 수 없도다 그러니 어서 자리에 들라 어서

한편 처녀의 약혼자 만우는 뒤늦게야 이 소식을 듣고 미친 듯이 달려와서 처녀의 집으로 들어가려 하였으나 문앞에 지켜선 병정들이 떠밀며 막아서는 바람에 도저히 처녀를 만날 스가 없었다 그는 처녀와 연산군이 단꿈에 취해 있는 방을 보기 위해서 그 방이 보이는 바위로 올라갔다 그리고는 가슴을 치고 통곡을 했다

제 아무리 임금이라고 하지만 남의 아녀자를 빼앗다니 에잇! 정말로 더러운 놈의 세상이다 국왕이면 남의 계집도 마음대로 한단 말이냐

정말로 원통한 일이었다 만우는 터져 나오려는 울분을 가까스로 억눌렀다 당장에 임금에게로 달려 들고픈 심정이었다 그러한 일이 있은 뒤 슬픈 상처를 안은 채 처녀와 만우는 혼인을 하였다

연산군은 그 뒤로도 이따금씩 관악산(冠岳山)으로 사냥을 나왔다가는 처녀를 만나고서 환궁을 하곤 하였다 이러한 일로 처녀는 남편을 마주 대할 때마다 가슴 깊이 자책감을 느꼈다

나는 무슨 낯으로 오늘밤도 서방님을 대하나? 이렇게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 버리자

그리고는 뒷산 오동나무에 목을 매어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다 집에 돌아온 만우는 아내의 시체를 발견하고 너무나 엄청난 일이어서 눈물도 나오지 않았다 만우는 아내의 시체를 바위 밑에 묻고는 가슴아픈 상처를 안고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그 뒤로 그를 보았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런 일이 있은 뒤에 연산군이 처녀의 집에 들러 그 이야기를 듣고서

괘씸한 것들 아니 내가 너희들 꾀에 속아 넘어갈 줄 아느냐? 그래 죽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는 자기들끼리 멀리 가서 살려고? 고약한 놈들

그는 화가 치밀어 신하들에게 소리를 질렀다

여봐라! 저 무덤을 파서 시체를 확인해 봐라

그런데 이 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임금의 명(命)에 따라 병정들이 막 무덤을 파려할 때 임금을 부르는 처녀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들려왔다

상감마마 상감마마

아니 처녀의 목소리가

연산군은 깜짝 놀랐다

상감마마 이부종사를 한 죄많은 소녀 죽음으로서 지아비에게 사죄함을 얻으려고 이렇게 세상을 하직하였습니다 마마는 어찌하여 소녀를 괴롭게 하시옵니까? 원하옵건대 차후로는 소녀를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처녀의 목소리는 슬프게 멀리멀리 퍼지더니 차츰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차츰 사라져 버리고 말았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한편 놀란 연산군은 잠시 후에야 정신을 차리고 소리를 쳤다

너희들은 그 처녀의 혼을 못 보았느냐?

못 보았사옵니다 상감마마 고정하시옵소서

여봐라! 그 무덤을 다시 전과 같이 덮고 곱게 다듬어서 비석을 세운 다음 왕후묘(王后墓)라 부르도록 하여라

그러한 일이 있은뒤 연산군이 폐위되자 왕후묘(王后墓)는 임자 없는 무덤이 되어버렸다

* 출전 경기도 『전설지』

관악산은 조선조 말기까지만 해도 여우 늑대 호랑이 등 맹수의 서식처로 유명해서 엽사들에게 인기가 높았다 기록상에 호랑이가 관악산에서 최후로 그 모습을 나타낸 것은 1937년이었다 즉 「동아일보」 1937년 8월 13일자에 보면 이해 8월 10일 관악산에 서식하는 호랑이가 문원동 민가에 나타나 개 돼지를 물어가 마을사람들이 공포에 떨고 있다는 것이다 수렵가로 유명한 이상오(李相旿 작고)가 1964년에 발간한 『사냥』에는 「관악산에서 만난 대호(大虎)」란 제하의 사냥기 내용이 있다 수렵가 이상오는 대구출신으로 이상정(李相定 1897~1947 군인 독립운동가) 이상화(李相和 1901~1943 시인) 이상백(李相伯 1904~1966 사학가 사회학자 IOC위원)과 형제 간으로 이른바 '대구 4형제' 중 막내이다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관악산에서 만난 大虎

李翁(李聞會)은 시흥군 태생이었다 어려서 부터 체질이 유약하여 병상에 누웠을 때가 많았다 18세 때에 건강을 위해 총을 들고 산야로 돌아다녀 본 것이 후에 수렵가로 專門하게 된 동기였다 80년 전의 일이니까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당시는 총기를 가지고 사냥꾼 행세를 하면 으레 웬만한 가정에서는 부형들에게 꾸지람을 들었던 것이다

이옹도 처음에는 총을 부형들 몰래 숨겨 두고 새벽같이 일어나서 부근 산야를 한바퀴 돌아오는 것이 그 일과였다 아무리 짐승이 흔한 80년 전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초입생에게 쉽사리 잡힐 짐승은 없었다 짐승의 습성을 모르니 어느 시각에는 어떤 곳을 조사하여야 짐승을 만나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였다 꿩은 아침마다 인가 부근의 전야에 참새떼 같이 몰려 다녔으나 총기는 오직 獸類만을 잡는 것이란 관념이 있어 막연히 산으로만 돌아 다녔던 것이다

어느 날 새벽 일찍 관악산으로 올라갔다 물론 수사방법이라곤 알 리 없었으니 덮어 놓고 산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다 가끔 노루나 토끼가 뛰어 나왔지만 그 모두가 이옹보다 훨씬 먼저 이옹의 접근을 알고 뛰어나갔으니 사격을 시도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그럴 때 마다 가슴만 두근거릴 뿐이었다 마침내 땀을 흘려 가면서 한 능선에 겨우 올라 섰다 먼저 건너편 산 바라다 보기도 전이었다 갑자기 으르렁하는 범의 吼聲은 산천을 진동시켰다 깜짝 놀라 그 곳을 바라다 보니 건너편 산을 8分 정도 올라가서 수목이 稀少한 잔디밭이었다 그 곳에 큰 호랑이 한 마리가 아침 해를 바라보며 앞 발과 뒷 발로 번갈아 가면서 땅 바닥을 긁어 먼지를 풀풀 날리며 怒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범의 아침 운동이었다 물론 이옹이 나타난 것을 본 것은 아니었고 우연의 일치로 이옹이 능선에 오르자 吼聲을 지르게 되었던 것이다

깜짝 놀란 이옹은 어찌할 줄 몰라 그 자리에 털썩 주저 앉았다 그리고 엉겁결에 사태가 난 모래 위를 딩굴어서 단숨에 산 밑까지 내려 왔다 겁이 나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취해진 행동이었으나 산 밑에 내려와서 땀을 씻고 긴 숨을 몇 번 쉬고 비로소 자신의 무기력한 행동을 뉘우쳤다 억울함을 참지 못한 이옹은 공중을 향하여 2 3발 공포를 발사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이옹은 항상 말하기를 大虎를 처음 만나서 충을 겨눌 수 있는 사람은 지극히 우둔한 痴者거나 지극히 대담한 勇者라고 말하였다 여기서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읽고 그 당시의 내가 아무리 수렵초심자였다 하더라고 얼마나 무모하였는 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족적을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는 것은 초심자인 만큼 어쩔 수 없다 할지라도 일반獵獸의 습성에 대하여 전연 무식하였으며 위험도 자각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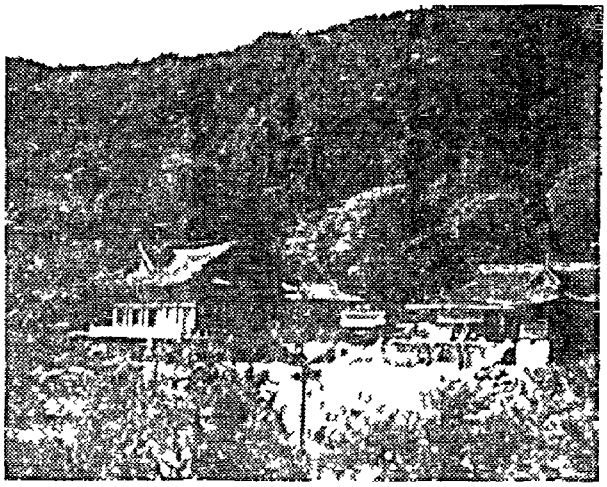
원래 표범은 大虎보다도 간악한 지혜와 경계성은 한층 더한 짐승으로 大虎의 4분의 1 내지 5분의 1의 體能에 불과하면서도 동등한 무서운 칭호를 받는 것이다 獵師에 따라서는 위험한 율을 표범을 제일로 지고 있다 사자 코끼리 들소 코뿔소 등을 표범과 함께 아프리카의 5대 맹수라 하여 그 서열에 있어 표범을 첫째로 꼽는 것은 유명한 수렵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다 15 6관의 체중이 보통이며 월등하게 거대한 체구의 놈이라 하더라도 20관이 한도인 표범이므로 누구나 이상하게 느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그 습성과 성격을 고찰할 때는 수긍되는 바 한 두가지가 아니다 치밀한 기획과 전광과 같은 행동 그리고 강한 의지력을 가진 사람을 속담에 표범같은 사나이라고도 한다 이 한마디로 표범의 성격을 추측할 수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실지로 역량이 강하기로도 모든 맹수중의 제일위라 할 것이다

자신의 체구가 20관에 불과하면서도 35관 내지 40관이나 되는 짐승을 물어다가 20미터 가량의 높이나 되는 단애나 나무위에 운반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그 勇力은 경탄할 바이다 大虎나 사자가 소 말 같은 가축을 물고 1 2미터 높이의 담을 뛰어 넘는다 하더라도 대략 그 무게는 自己體과 같거나 혹은 약간 초과할 뿐이니 표범의 勇力에는 도저히 비할 바 되진 않는다 천만다행히도 표범은 사람의 실력을 과대평가하여 천성의 강한 경계심 때문에 좀체 사람을 먼저 공격하지 않는다

* 출전 이상오 『사냥』 1964

관악산과 마주하고 있는 청계산은 관악산보다 비록 11m 낮지만 관악산보다 골[谷]이 깊다 하여 '여성산'으로 상징하고 풍수로는 '청룡산(靑龍山)'이라고 한다 그리고 관악산은 골이 얕고 바위가 많다 하여 '남성산'으로 불리우며 풍수로는 '백호산(白虎山)'에 해당된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관악산에는 여늬 산과 달리 유난히 바위가 많다 그런데 이 바위들은 그 바위 하나하나 마다 이름과 그에 따른 갖가지 전설이 있다고 전해지나 오랜 세월을 겪는 동안 수 많은 바위 이름들이 일실되었으며 현재는

정계산 중턱에 자리잡은 청계사(1988)



몇몇 바위에 대해서만 그 이름이 알려져 있을 뿐이다 그 중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바위에 대해 기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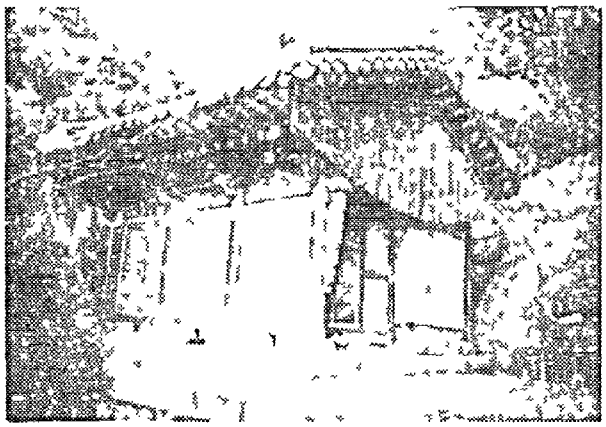
관악산 정상인 연주봉에 수십 인이 앉을 만한 평편한 돌이 있다 조선초에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이 왕위를 아우(세종)에게 양보하고 관악산에 머물 때 대궐을 바라보곤 하였는데 여름에 해가 뜨거우면 오래 머무르기가 힘들어 자일을 지고 앉았다는 전설로 차일암(遮日岩)이라고 한다 연주암 금륜보전(金輪寶殿) 뒤에 유명한 '붙임바위'가 있다 이 바위의 유래 및 전설이 한국일보사에서 발행한 『스포츠레저』(1987 4)에 실려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3대 외동 정씨(鄭氏) 집에 시집을 가 아들 셋 딸 하나를 낳았다 시흥(始興)에서 밥술이나 먹고 사는 정씨집이라 아들 딸을 술술 낳아 주는 정씨부인은 덕분에 이 집안에서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시집을 오자 시어머니에게서 관악산(冠岳山)에 붙임바위 라고 큰 바위가 서 있는데 근처에서 주먹만한 돌을 줏어 이 바위에다 비비며 소원을 기도하면 관악산 산신령이 꼭 소원을 들어 준다는 말을 들었다 시어머니와 함께 정씨부인은 산신각에서 기도를 마치면 어김없이 이 바위앞에 서서 열심히 돌을 비볐다

어느 날 새벽녘 눈을 감고 돌을 비비던 정씨부인은 손안에 쥐고 비비던 돌과 함께 손이 바위에 붙어 버렸다 놀라서 손을 바위에서 떼내니 주먹만한 둥근 돌은 그대로 바위에 붙어 떨어질 줄 몰랐다 그로부터 산기(産氣)가 있은 후 정씨부인은 바위같이 튼튼한 아들을 낳았다 둘째도 셋째도 넷째도 모두 이 붙임바위의 덕분이라고 믿고 있다

지난 2월 말 홍익인간학회 허영수씨(許永秀 56세)와 동국대학교 윤열수 교수(尹列秀 42세)와 함께 이 곳을 찾았을 때도 50을 눈앞에 둔 정씨부인이 이 바위 앞에서 돌을 비비고 있었다 지금은 아기를 낳게 해달라는 소원이 아니고 남편과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라고 했다 남들이야 부질없는 허무맹랑한 짓거리라고 하겠지만 정씨부인에게 이 붙임바위는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는 신령한 바위이다

관악산 연주암 대웅전 뒤쪽 지금은 금륜보전(金輪寶殿)이라는 현판이 붙어 있지만 옛날 산신각(山神閣)자리라고 했다 금륜보전 위에 직벽에 가까운 큰 바위가 벽처럼 서있고 이 바위에는 지금


금륜보전(1990년대 초)

도 크고 작은 들들이 다닥다닥 붙어있다 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금륜보전이라는 작은 법당이 들어서기 전 관악산이 생길 때부터 이 바위는 서 있었고 그 이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바위에 소원을 빌었는지는 알 수 없다 의도적인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지금의 법당은 바위벽에 너무 가까이 붙여 세웠기 때문에 법당 뒤에까지 일부러 들어가서 바위를 비비지 못하게 해 둔 것 같다 윤 교수의 말대로 아무리 막아도 이를 찾는 사람의 믿음을 막을 수는 없는지 지금도 붙임바위에는 여전히 작은 돌들이 매달린 듯 붙어 있었다

아기를 못가져 본 사람의 마음을 아기를 가진 사람은 이해를 못합니다 남근석이나 부부석에 지성을 드리는 이들의 심정은 바로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결사적인 믿음이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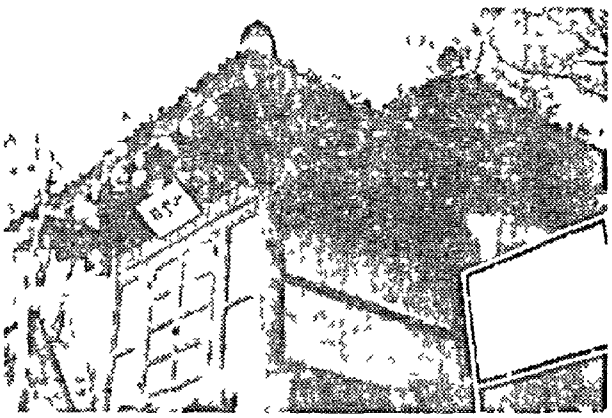
오래 전부터 전국의 선돌(立石)을 찾아 다닌 허영수씨는 이들의 기도하는 자세에서 신령스럽고 무엇보다 경건함을 보았다고 했다 * 출전 한국일보사 『스포츠레저』1987 4

관악산의 연봉인 삼성산(三聖山)에는 삼막사(三幕寺)가 있다 그 삼막사를 가다 보면 비포장 차길이 뚫려 있고 그 돌머리 왼쪽에 있는 바위로 된 절벽 높지막한 곳에 사각으로 된 한 구멍이 있다 이곳은 삼막사의 '부도'자리라고 하는데 그 아래 길바닥과 하수구에 호도만한 작은 돌들이 무수히 많이 있다 이 돌들은 밑에서 돌을 던져 그 구멍 속에 넣히지 않고 떨어진 돌이라고 한다

그 곳에 돌을 던져 넣히면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있어 이 바위를 '던짐바위'라 부른다고 한다 삼막사(신라 문무왕 17년인 677년에 창건되었다고 함)본당에서 서쪽으로 난 오솔길을 5분 정도 걸어가면 느티나무가 있는 공지에 이른다 지금은 매몰되어 그 자리만 있는 연못 서쪽 암벽에 '삼귀바위(三龜岩)'가 있다 거북 '귀(龜)'자가 글씨체를 달리하여 세 글자가 음각되어 있어 그렇게 부른다 이 글씨는 1920년에 삼막사 주지로 있던 지운영(池雲永 또는 雲英 1852~1935)의 글씨라고 한다 274×96cm 크기의 이 '귀(龜)'자는 제각기 독특한 형체의 글씨이다

삼귀바위에서 더 올라가면 절벽 위에 세워진 칠보전(七寶殿)이 나온다 칠보전은 옛 칠성각(七星閣)이 있는 자리이다 바로 이 건물 옆에 유명한 '부부석(夫婦石)'으로 불리우는 삼막사 남녀근석(三幕寺 男女根石)이 있다 얼핏보면 복숭아같이 가운데가

갈라진 두 아름이 넘는 바위가 여근석이고 이곳에서 2~3m 떨어진 낭떠러지 옆에 불쑥 돌기한 바위가 남근석이다 질보석 앞에서 이 남녀근석을 보면 하나는 크고 하나는 작은 돌 기둥이 붙어 있어 얼핏 남근으로 보기 어려우나 여근이 있는 동쪽에서 보면 우람하고 장쾌한 남근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여근이 갈라진 쪽이나 남근의 뒤쪽은 높이 15m가량의 절벽으로 여근석쪽에서 남근석쪽을 보려면 옆에서 확보를 해주지 않고는 힘이 든다 남근석의 돌기 부분은 여기 저기에 비빈 자국이 뚜렷하고 여근석의 윗쪽이나 옆에도 비빈 자국이 역력하다 이 비빈 자국을 보통 '알바위'라고 칭한다 남근석의 높이는 150cm 여근석의 높이는 110cm이다 이 남녀근석을 만지면 출산과 일가의 번영 무병 및 수명장수(壽命長壽)의 효험이 있다고 하여 4월 초파일과 7월 칠석날 등에는 경향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촛불과 3색 과일을 놓고 빈다 1983년 9월 19일 경기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되었다


삼막사 칠보전(1994)○

관악산이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동아일보」와 「조선일보」등 대중 언론매체가 등장하면서 부터로 보여진다 즉 「동아일보」가 1927년 4월에 신사옥을 짓자 그 기념으로 「동아일보」 시흥지국에서 '관악산탐승단(冠岳山探勝團)'을 모집하여 동년 4월 18일 안양역전을 출발하여 관악산행을 실시했고 1929년에도 인하정년(仁下青年)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어 1935년과 1936년에 「동아일보」 수원지국에 의해 거행되었다

1936년에는 시흥군 산림계에 의해 경기도립공원으로 지정하여 유원지 계획을 세웠으나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1937년에 발발한 중일전쟁으로 백지화되었다 신문사 잡지사 등에서 잇따른 탐승단을 모집하여 관악산을 찾는 행락객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산림이 화폐화되고 화재발생이 잇따르자 1937년 10월 시흥군에서 '관악산 자연보호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실시했다

광대의 관소리나 잡가(雜歌) 등을 총칭하여 '타령(打令)'이라고 한다 타령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의 귀에 익은 산타령(山打令)과 바위타령이 있다 산타령은 서울의 전면(前面)과 배면(背面)에 솟은 관악산 등 명산을 두루 편답(遍踏)하

며 경치 좋음을 예찬하는 경쾌한 소리곡조이며 바위타령은 관악산 쇠소바위 앉은바위 등 서울과 각 지방의 유명한 바위이름을 80여 개나 들어 긴 사설을 통한 박자로 몰아 부르는 소리 곡조이다 산타령과 바위타령의 가사 내용은 지면상 생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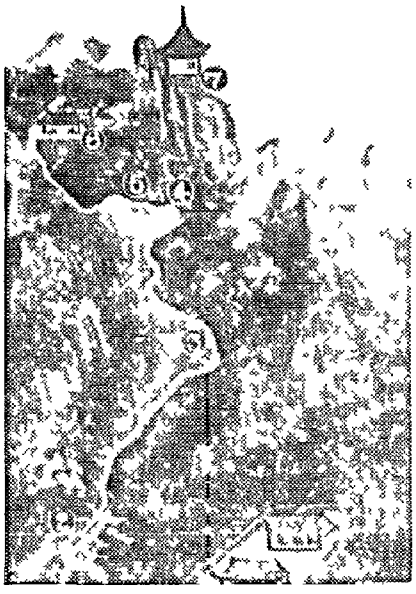
경부선 개통 후 융희 2년(1908) 육당 최남선(崔南善)은 '학도모자를 끼고 흥띄어라를 노래하는 아해들로 하여금 시맛[詩趣]과 재미를 맛보게 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남반구의 지리지식을 주기 위하여' 「경부철도가(京釜鐵道歌)」를 지었다 '우렁차게 토하는 '으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모두 96절에 이르는 방대한 가사인데 제8절은 관악산을 비롯한 옛 시흥지방의 풍광을 담고 있다 노랫말과 함께 곡조를 옮긴다

관악산의 개-인景 우러러보고
水郎城의 묵-은터 바라보면서
잠시동안 시흥역 거쳐가지고
날개있어 나-는듯 안양 이르러

■ 登山路

관악산은 경기도민과 서울 시민들에게 하루거리 산행지로서는 더 없는 곳인데 관악산은 넓은 의미에서는 관악 서남쪽에 있는 삼성산까지를 포함시키지만 보통 관악산하면 연주대와 연주암이 있는 관악산을 말한다 관악산은 서울과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인파가 몰려 여러 개의 변형코스가 생기고 또 교통편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행이 시작되지만 대개 신림동 코스 과천 코스 및 8봉 코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관악산등산코스(1970년대)



■ 신림동 코스

이 코스는 신림동에 서울대학교가 들어선 1970년대 중반부터 기존의 등산로가 확장 및 연장되어 산행지로서의 면모를 보이지 시작했다 산행은 서울대학교 정문 오른쪽 관악산 입구에서 시작되는데 이곳에서 제4 야영장까지는 제1 제2 광장을 거쳐 약 40분이 소요된다 제4 야영장에서 동쪽 연주암으로 이어지는 오솔길은 처음에는 비좁은 듯

생각되나 10여분 거리인 무명폭포 부근에 이르면서 부터는 비교적 넓은 산길로 이어진다

무명폭포를 뒤로 하고 20분 가량 올라가면 두 계류가 만나는 합수점이 나타난다 이 합수점은 제4 야영장과 연주암의 중간지점으로 여기서 부터 산길은 험해지기 시작한다 숨이 턱에 차 오르며 비지땀이 흘러내리기 시작하는 급경사 산길을 밟으며 20분 정도 오르면 고개마루가 앞을 가로 막는다 이 고개를 넘으면 연주암에 당도하게 된다 연주암고개에서 가운데로 트인 길로 가면 연주암이고 오른쪽 길을 따라가면 전망대에 이르게 된다

■ 과천 코스



자하동천(1950년대)

이 코스는 과천소재 과천향교(전 시흥향교)에서 시작된다 과천향교에서 연주암까지는 3 2km로 쉬지 않고 걸으면 1시간이면 족하지만 산행 도중에 주변 경관을 살피며 올라가면 30여분은 더 걸린다 과천향교를 지나면 산행은 아기자기한 계곡으로 이어지는데 첫 계곡 왼쪽에 '白雲山人 紫霞洞天 ' '紫霞洞門, '紫霞詩境'이라고 음각한 큰 바위가 한 시야에 들어온다 이곳은 조선말기에 시 서 화의 삼절(三絶)로 유명한 자하(紫霞) 신 위(申緯 1769~1847)선생이 생존시 각한 것이라고 전해지며 그곳 일대를 그의 아호를 따서 '자하동천(紫霞洞天)'이라고 한다

이 곳을 지나 경사진 바윗길을 따라 약 15분 올라가면 마지 자고저럼 지은 대피소가 나온다 이 곳에서 조금 올라가면 크고 작은 바위가 수목과 잘 어울린 지점에 이르게 된다 이 부근의 암벽에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음각한 바위가 있다 이 바위에서 연주암 아래에 있는 산장까지는 30여분 거리로 등산로가 산행기점보다는 험하지 않고 햇볕이 잘 들어 쉬어가기에 알맞다 이 코스에는 샘이 2개나 있어 중식장소로도 이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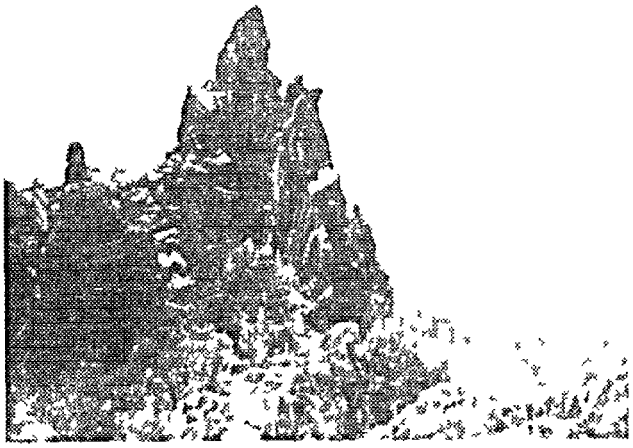
연주암에서 여장을 풀고 사찰경내를 한번 구경하는 것도 산행에 더 없는 즐거움이다 연주암 측은 등산인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자비를 들여 도로 3km를 개 보

수했다 뿐만 아니라 갈수기에 대비하여 식수 5백드럼을 저장할 수 있는 급수시설을 설치했고 점심을 지참하지 못한 등산인들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해 주고 있다

연주암에서 연주대까지는 약 25분이 소요된다 연주대는 크고 작은 죽순처럼 솟은 자연절벽에 석죽을 쌓아 올린 곳에 자리잡고 있는데 멀리서 보면 흡사 비둘기집 같이 보인다 관악의 정상은 연주대보다 조금 남쪽에 10여m 높은 바위로 뾰족하게 솟아 '칼바위'라 부르기도 하고 말의 머리부분 같다고 하여 '말바위'라고도 하는데 초심자들이 이 바위에 오르려면 다리깨나 부들부들 떨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히려 산행을 하는 묘미를 더 있게 해 준다

■ 팔봉 코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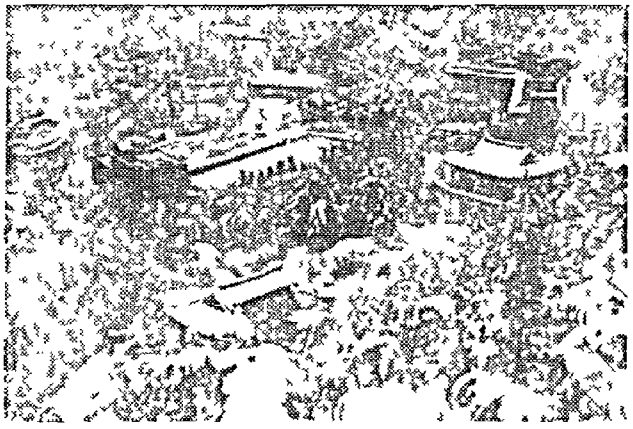
관악산(1980년대)



관악산 정상에서 삼성산 쪽으로 뻗은 8개의 암봉으로 이루어진 코스를 말하는데 '설악산 공룡능선의 축소판'이란 별명이 붙여졌다 이 등산로가 세인에 널리 알려진 것은 1970년대라고 한다 관악산 팔봉은 연주암까지는 기존코스인 신림동 코스나 과천코스를 이용한다 소요시간은 공히 1시간 40분 정도이다 연주암고개에서 오른쪽 길을 가면 곧 전망대에 당도하게 된다 팔봉 왼쪽은 안양시 뒷쪽은 과천시인데 청계산과 멀리 우면산까지 시야에 들어온다 전망대에서 팔봉코스의 종점인 금관바위까지 가려면 전망대에서 50분 거리인 불성사(안양시 비산동 산1)부근에서 중식을 한 후 한 봉우리씩 차례로 오르는 것이 좋다 전망대에서 바라보이는 팔봉의 산세는 '공룡능선 축소판'답게 위험한 바윗길을 다 갖추고 있는 듯하다 전망대에서 불성사에 이르는 바윗길은 가파르기 때문에 가족단위로 산행하기에는 적당치가 않다 불성사 대웅전 앞으로 트인 소로는 안양유원지(비산공원)로 내려가는 길이기 때문에 팔봉코스를 타려면 불성사 오른쪽의 산길을 이용하는데 이 길은 서울 신림동으로 연결된다 불성사 입구에 샘이 있는데 이곳에서 마주 보이는 지점이 팔봉의 뒷 모습을 잘 살필 수 있어 '제2전망대' 또는'만경대'로 불리운다 이 곳 샘터 위의 제2봉을 시작으로 산행을 시작한다 제2봉은 60도의 경사 8m 높이여서 초보자는 보조자일을 써야한

다 팔봉 코스의 최대의 난코스라 할 수 있는 이 곳을 지나면 내리막길과 오름길이 계속 이어진다

제2봉을 지나면 넓은 반석지대가 나오는데 이곳을 '신선대'라고 부르기도 한다 제3봉과 제4봉을 차례로 넘으면 점차 릿지등반을 하는 재미가 붙는다 안전하지 않은 바윗길을 내려 갔다가 작은 암봉에 붙는 재미는 팔봉코스의 백미이다 제5봉이 바라보이는 고개에 당도하면 팔봉의 허리를 가로 지르는 소로가 나온다 이 길은 신림동에서 불성사의 신도나 등산인 등이 주로 이용한다 제6봉은 계단과 비슷한 형태의 암봉으로 어느 쪽으로 올라도 무난하지만 안양 쪽은 깊은 낭떠러지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제7봉을 오르면 비교적 순탄한 바윗길을 걷는다 이 봉우리 밑에는 10m 정도 높이의 '금관바위'가 있다 이 바위는 보는 방향에 따라 동쪽에서는 금과 서쪽에서는 삼존불 남쪽에서는 미륵불 북쪽에서는 두 사람이 합장을 한 형상이다 이 바위를 지나면 제8봉이 기다리며 이어 '개구멍'이라는 바위굴이 나온다 이곳까지 오면 팔봉코스는 끝이 나는데 등산인에 따라서는 안양 염불암을 거쳐 안양유원지 방향으로 하산하지만 대부분의 등산인들은 신림동 방향으로 하산하기도 한다


안양유원지(1992년경)

팔봉코스는 약 2km로 1시간 30분 ~ 2시간이 걸리나 서울대 입구에서 제2야영장 ~ 제4야영장 ~ 연주암 ~ 불성사 ~ 금관바위 ~ 제4야영장 ~ 아카시아동산 ~ 서울대입구로 내려오는 팔봉코스의 초산행거리는 약 18km로 산행시간은 중식포함 6시간 가량 소요된다 이 밖에도 서울 시흥 ~ 호압사 ~ 삼성산 ~ 연주암 ~ 연주대(도보거리 11km 3시간 30분 소요)코스가 있고 안양 ~ 안양유원지(비산공원) ~ 염불암 ~ 삼막사 ~ 삼성산(삼성산에서 시흥 또는 신림동쪽으로 하산하거나 불성사 입구를 경유하여 관악산에 오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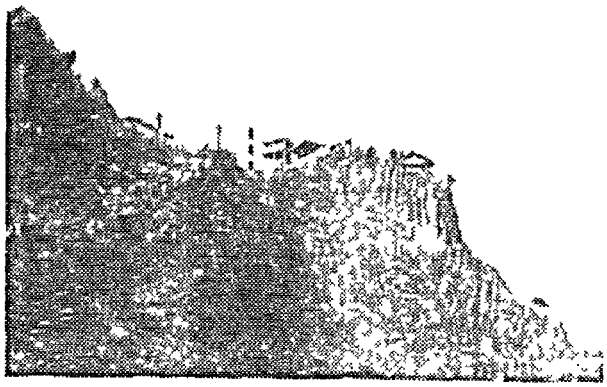
코스 및 사당동 ~ 연주암 ~ 연주대(도보거리 6km 소요시간 2시간)코스 등이 있는데 관악산 삼성산 일대는 곳곳에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길이 교차하는 곳이 많아 자유롭게 코스를 택해 산을 즐길 수 있다

■ 관악산내 지명

■ 자연마을〔村落〕

안양(安養)-석수동(石水洞　또는 石手洞) - 삼막골(三幕洞) - 박미(博山) - 시흥탑동(始興塔洞) - 보구니말 - 낙골〔蘭谷〕 - 신림(新林) - 자하동(紫霞洞) - 낙성대(落星臺　塔谷) - 원당 - 동산말 - 사당(舍堂) - 승방경(僧坊坪) - 너머남태령 - 한계(寒溪) - 관문(官門) - 교동(校洞) - 홍촌(洪村) - 냉정(冷井) - 가일(佳日) - 동편(東便) - 수촌(秀村) - 내비산(內飛山) - 외비산(外飛山) - 임곡(林谷) - 안양(安養)

자일암(1971 중앙 흰 건물이 있는 곳이다)



■ 바위이름〔岩名〕

퉁소 차일 너르러 구멍 두지 자라 솔개 북 노장 칼 큰두지 강첨지 맹공 벙풍 볼기 족도리 감투 댕구 배 송편 가마 집 문 맷돌 뒤주 붙임 노적 자수 쇠뿔 덤 범 범이굴 보습 각씨 애남 농 안장 말 고양이 애기 새수 곡갈 세턱 광석 영가시 임 괭이 소 세수 죽 더덕 너러석 금관 앉인문턱

다음은 90년대 초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조사된 바위이름이다 번뇌의 얼굴 주먹 돼지 두꺼비 개구리 강아지 열녀 관악산 품에 누운 아기 바둑이 세쌍둥이 도마뱀 곰 토끼 명상의 얼굴 고래 거북이 낙타얼굴 물고기 물개 연꽃 부처얼굴 잠자는 바둑이 목탁 달팽이 독수리 주먹 사자얼굴

■ 고개이름〔峴名〕

매지 환히 너머남태령 까치 용마 빙고(水庫) 반수(盤水) 소리개 박미 말미 무네미 동막 세 뒤 샌말 능골 할닥 싸리갓 아레 웃 헤메기 매봉

■ 골짜기 이름〔谷名〕

배나무 가는 큰 느락 노득 원도막 자하동 미력 승방 폭포 치 뱀 독수리 수리 서덜 실 치마 삼데 비자나무 삭갓 노년 소년 원누막 된봉 작박 널은양지 긴 발은 사태 구뒤 작은 좁은 범 시배 물말은소년 활테거

리 됨박 솔개 좀아 화장터 절안산 한우제 괴 시응 칼봉 어둔 폭포 백토 구리터 바른 덤 게 닭밧 후룡(後龍) 망성 삼막 소등 절 노박 소심 치다리 넙적 뱀 사기장 염불암 귀 거북 오소나무 둥치 임청 망녕 한자 치차 통목 쟁 헤방 노두 세방 퉁툼 완쟁이 마금

■ 봉우리 이름

염주 소고락 애기업은 국사 문필 감노 향노 삼성봉(三聖峯) 호봉(虎峯) 애기 칼 문장(文章) 의상(義湘) 형재(兄弟) 쌀개 무적(無敵) 대장군(大將軍) 문귈(文筆) 가식

● 참고문헌 정인지 『고려사』 1451 노사신 『동국여지승람』 1481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서거정 『동문선』 1478
허목 『미수기언』1667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조선철도여행안내』 1917 김일우 『관악연주암지』 1932
시흥군 『금전지』 1950 「동아일보」1958 6 9
「조선일보」1969 9 18 이규태 『한국인의 인맥』 1971
「동아일보」1978 11 29 이혼의 『정유』 1980
「한국일보」1982 8 3 안양문화원 『안양문화』 1982
김대규 「경인일보」1983 12 27
이승언 『행정구역변천사』 안양문화 3-1984
「경인일보」 1985 8 21 이규태 「조선일보」 1985 12 17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과전문화원 『과전향토사』下 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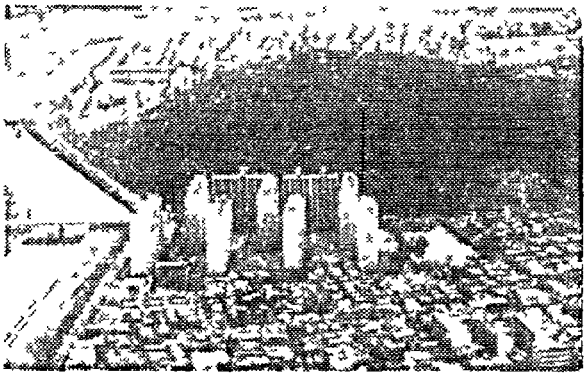
6 군웅산 (軍雄山) 〈호계3동〉

호계파출소 북쪽 약 100m지점에 있는 산 예전에 구군포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10월 2일에 군웅제(軍雄祭)를 지내던 곳으로 1960년 말경에 이곳에 만가가 들어서자 제(祭)를 지내지 않는다 마을에서는 당집이라 칭한다

● 도 움 말 김순흥(全順興 호계동 702-3 1925년생)

7 꽃뫼산 (花山) 〈석수3동〉

곶뫼산 산 밑에 있는 건물은 럭키아파트다(1990년대)★



충훈부 동쪽에 있다 충훈부 최초의 세거 성씨인 광주 이씨 선조의 묘가 있으며 4개의 약수터가 있다 돌이 많은 산이다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8 노적봉 (露積峯)

〈안양3 안양9동〉

율목동 뒤에 있는 산으로 곡식을 쌓아둔 노적가리처럼 생긴 산이라 하여 '노적봉(露積峯)'이라 칭한다 1933년과 1934년 『新家庭(여성동아의 전신)』과 동아일보사가 공동 주최한 전국부인 밤줍기대회(全國婦人拾栗大會)가 개최되어 밤의 명산지로 이름이 났으며 산정에는 참나무가 있어 이곳 원주 원씨가 가문의 안정을 위해 해마다 치성을 드렸으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인근의 주민들이 땔감으로 베어갔다 산중턱에는 1983년에 안양예술고등학교(안양동 산 42-1)가 세워졌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3 9 26 「동아일보」 1934 9 25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 **도 움 말**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9 당봉 (堂峯 매봉)

〈비산1동〉

평화보육원(平和保育院) 동쪽에 있다 산 정상에 당집(堂宇)이 있었으므로 '당봉(堂峯)'또는 '당재'라고 칭한다 또 매가 날개를 편 형상이라 하여 매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산 인근의 수푸루지 구름울 매곡동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7월 또는 10월에 당집에서 산신제(山神祭)를 지낼만큼 신성시하는 산이다 1970년대 구름울에 사는 K씨가 당집에서 자살하자 당집을 헐고 그 아래에 있는 바위에서 제(祭)를 지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守燮 비산동 567 1921년생)

10 더러미산

〈비산1동〉

상업은행 안양지점 뒤에 있다 예전에 비산동 주민들이 과천 인덕원 등지를 가자면 이 산을 끼고 돌아가야 한다고 하여 '덜미산'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오면서 '더러미산'으로 불리운다고 한다 또 산중에는 조선조 태종때 영의정을 지낸 류정현(柳廷顯 1355~1426)의 묘가 있어 그 내용(來龍)이 이곳에 까지 이르렀다 하여 '영의정뿌리'라 징한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11 덤박골산 〈관양1동〉

덤박골에 있는 야산으로 안양시 관양동과 과천시 갈현동 가일에 걸쳐있다 토지소유자는 이서구(李書九 대림콘크리트 상임고문)이다

● **도 움 말**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12 뒷뫼 〈안양6동〉

만안구청 뒤에 있는 산 주접동마을 뒤(서)에 위치한 산이므로 '뒷메'라 부른다 이 산 북쪽에 범바위가 있고 산 아래에는 만안구정 안양세무서 등이 자리잡고 있다 만안구청 바로 뒤에 있는 우물은 일제강점기에 임업시험장에서 표고버섯재 배에 이용키 위해 판 것이라고 한다 가뭄에도 샘물이 끊기질 않아 주접동 주민들이 대동우물이 마르면 이용했었다고 전해진다

● **도 움 말** 김병석(金炳錫 안양동 402 1921년생)

13 망해산 (望海山) 〈안양2동〉

비산1동과 석수1동 및 안양2동에 걸쳐있는 해발 290m 높이의 산이다 이 산 정상에 올라가면 멀리 서해바다가 한 시야에 들어 온다고 하여 망해산(望海山)이라 부르고 있다 산중에 망해암(望海庵 안양2동 산 19)이 있다

● **참고문헌** 한글학회 『한국지명 총람』 1986

14. 매봉산 (鷹峯山) 〈호계2동〉

안양시교육청 정남향으로 덕원아파트 뒤에 있다 산세가 흡사 매가 배를 깔고 있는 형상(鷹腹之穴)이라 하여 '응봉산(鷹峯山)'이라 칭한다고 한다 이 선 동쪽 산록은 샛터말 북쪽 산록은 방죽말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15. 매봉(鷹峯)재 〈비산3동〉

관악산의 연봉(連峯)으로 쟁골 북쪽에 있는 2개의 봉우리를 일컫는데 동쪽에 있는 봉우리를 '웃매봉재' 서쪽에 있는 봉우리를 '아랫매봉재'라고 각각 칭한다 이 봉우리는 익평부원군(이석근)의 후손인 이기(李岐 이율곡의 문인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되었다 전주이씨 익안대군 후손들은 진사공이라 칭함)가 이곳에서 매 다리에 방울을 달고 꿩 사냥을 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희덕(李喜德 비산동 35 1936년생)

16. 명학봉 (鳴鶴峯) 〈안양8동〉

안양중앙병원 뒤에 있는 산이다 속전에 따르면 명학봉이란 산명이 붙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 인조때 부터라고 한다 인조 원년(1623)에 인조반정에 공을 세워 정사공신(靖社功臣) 1등에 올라 후에 좌의정을 역임한 심기원(沈器遠 ~ 1644)이 그의 아버지 심간(沈諫)의 묘를 헌 대림전문대 뒤에 쓰기 위해 땅을 파는데 돌 밑에 학 2마리가 앉아 있다가 그 중 한 마리가 명학국민학교와 안양경찰서 사이에 있는 바위 위에 앉아 슬피 울고는 어디론가 날아갔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바위를 명학바위(→미악바위)라 불렀고 아울러 그 산을 '명학봉(鳴鶴峯)'이라 칭했다고 한다

명학봉이란 산명이 문헌에 최초로 기록되기는 정조의 수원 현융원능행에 관해 편찬된 『원행정례(園幸定例)』 척후조에 ' 林川後峯 鳴鶴峯 以上 '이라 하여 정조의 능행을 위해 명학봉에 척후를 설치하여 장교 1인과 군인 3명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 이어 정조 19년(1795)에 정조의 어머니 (혜경궁 홍씨)회갑연을 수원에 있는

화성행궁(華城行宮 奉壽堂 전 경기도립병원 자리)에서 거행키 위하여 이 앞을 지나가자 역시척후와 복병(伏兵)을 설치하여 장교 1인광 군인 3명으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 산낙맥에는 중앙병원(안양8동 산 160) 명학초등학교(안양8동 349-13) 봉용사(奉龍寺 안양8동 342-70) 약사사(藥師寺 안양8동 342-68)등이 있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989 정조 『을묘원행정리의궤』 1795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원종면(元鍾冕 안양동 213 1946년생)

17 무쇠봉 〈박달2동〉

박달동과 시흥시 목감동 율포(栗浦)에 걸쳐 있는 산 무쇠가 매장되었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 **도 움 말** 김건영(全健寧 시흥시 목감동 92 1932년생)

18. 박산 (博山) 〈석수1동〉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박미 뒤에 있다 산 중턱에 절터가 있으며 이 산으로 인하여 박미(博山)라는 마을명이 유래되었다고 한다

- **도 움 말**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19, 살푸재산 〈관양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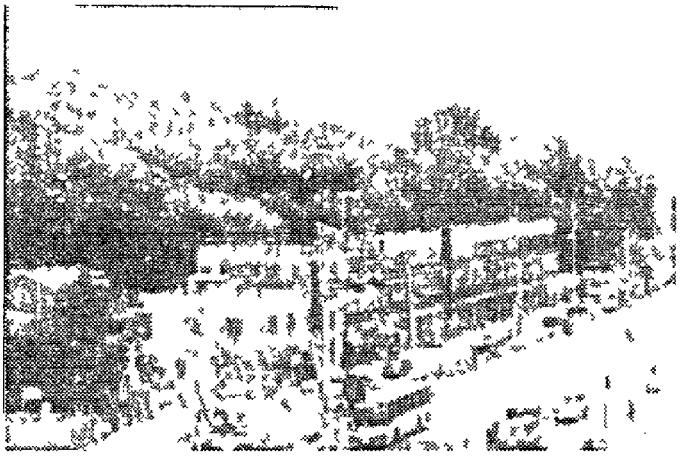
인덕원 사거리 동북쪽에 있는 야산으로 과천시 갈현동 자경골과 관양2동 인덕원에 걸쳐 있다

- **도 움 말** 김기남(全基男 관양동 265 1930년생)

20, 삼봉산 (三峯山) 〈박달2동〉

삼봉마을 뒤에 있는 산이다 세 개의 봉우리로 이루어져 있어 '삼봉산(三峯山)'이

라 칭한다 속전에 따르면 조선 중엽에 어떤 사람이 석수3동 소재 충훈부라는 관아를 찾아와서 충훈부의 장(長)을 몰아내려는 의도아래 조선조의 개국공신으로 이방원(李芳遠 태종)에게 주살된 정도전(鄭道傳)의 호가 삼봉(三峯)이고 이 산 또한 삼봉산인 점에 착안하여 관아의 정문이 삼봉산을 향해 있다고 외치자 이 소리를 들은 충훈부의 장(長)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관아의 정문을 다른 방향으로 바로 잡았다고 전해진다 이 산 아래에 있던 구만(具?)의 정문(旌門)은 일제강점기에 군용지가 개설될 때 훼철되었다 산중에는 석바위와 삼화제면공업사가 동남쪽에는 삼봉마을과 삼신아파트 삼애기업 동북쪽에는 대한레인트 잉크(주) 동아유리공업 등이 각각 소재해 있다



삼봉산(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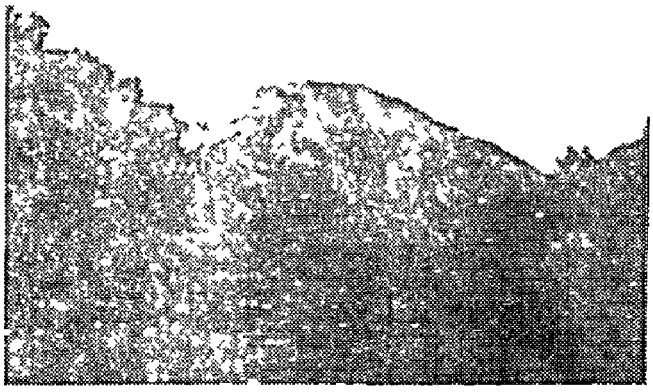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안양상공회의소 『기업체명단』 1989
- **도 움 말** 심수섭(沈守燮 비산동 567 1921년생)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21 삼성산 (三聖山) 〈석수1동〉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과 안양시 석수동에 걸쳐 있는 해발 455 8m의 산이다 안양의 시원지가 되는 이 산에 대하여 관악산과 동일의 산으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성종 때(1484) 노사신(盧思愼)등이 성종의 명을 받들어 『대명일통지』를 본떠 저술한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금전현 산천조에 "삼성산 현동쪽 10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 (三聖山在縣洞十里鎭山)"라고 하였고 같은 책 과천현 산천조에 「관악산 현 서쪽5리 지점에 있는데 진산이다」(冠岳山在縣西五里鎭山)라고 하여 삼성산은 금천현의 관아가 있던 지금의 서울시 금전구 시흥5동에서 동쪽으로 10리 지점에 있는 산으로 금전현의 진산(鎭山 각 고을을 진호하는 주산)이며 관악산은 지금의 과천시 관문동 소재 온온사가 있는 지점에서 서쪽으로 5리

지점에 있는 산으로 과천현의 진산이어서 이들 두 산이 별개의 산임을 밝히고 있다 또 삼성산과 관악산의 산계(山界)에 대해 안양의 원로들이 증언하는 바를 종합하면 대체로 삼막사 동쪽에 있는 계곡을 따라 동쪽이 관악산이고 그 서쪽에 위치한 지역이 삼성산인데 이 산계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과 금천현의 현계(縣界)가 되었고 후에는 과천시와 안양시의 시계(市界)가 되었다고 한다

삼성산의 유래 또한 설이 구구하다 보통 원효 의상 윤필의 세 고승이 신라 문무왕 17년(677)에 조그마한 암자를 짓고 수도에 정진하던 곳이 삼막사의 기원이며 아울러 삼성산의 산명도 이 세 고승을 성화시켜 삼성산(三聖山)이라 칭했다는 설이 일반에 널리 알려져 있으나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가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교주(敎主)인 아미타불과 그 왼쪽에 있는 관세음보살 및 오른쪽에 있는 대세지보살을 삼성(三聖)이라 부르는데 여기서 산명이 유래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간행된 『시흥읍지』 『시흥현읍지』 『시흥군읍지』 『경기읍지』 『기전읍지』 등 읍지와 지리지 등에 따르면 고려말기에 불교계를 이끌던 나옹(懶翁 1320 ~ 1376) 무학(無學 1327 ~ 1405)과 인도승려 지공(指空 ? ~ 1363)이 이곳 삼성산에 올라가 각기 수도할 자리를 잡고 정진했다는 연고로 '삼성산(三聖山)'이라 했다(三聖山在縣東十里無學懶翁指空三釋各卜精籃而居之因名三聖山焉)는 것인데 이상의 세 유래 중 두번째는 입증할만한 문헌이 전혀 없다 그러나 전자와 후자는 한결같이 당대의 고명한 세 고승을 기원으로 하고 있는데 전자는 삼막사가 창사한 677년 부터 조선조에 이르기까지 이를 뒷받침할 만한 사료(史料)가 없고 극히 일부의 사사(寺史)에만 그 기록이 전해지고 있을 뿐이며 후자는 사사가 아닌 읍지 지리지 등 관찬과 사찬 등의 여러 문헌에 기록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후자의 지공 나옹 무학의 삼성설이 가장 믿을만한 정설로 생각된다


삼성산(1980년대)

산중에는 삼막사를 비롯하여 염불암 망월암 안양사 성주암(서울) 삼성사 등의 사찰이 있으며 임진왜란 때(1592) 병조관서를 다섯번이나 역임하고 후에 우의정을 지낸 백사 이항복(白沙 李恒福 1556 ~ 1618)이 생전에 이 산에 올라 읊은 「차유삼성산운(次遊三聖山韻)」이란 장시와 일제강점기에 고백록(高百祿)의 시조가 전해지는

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삼성산에 노닐어〉라는 시에 차운하다 (次遊三聖山韻)

이항복(李恒福)

삼년이나 市井에서 역락되었다가
흥이 나서 문득 명산을 찾고 싶어졌다
글 짓기야 餘事지만 저윽이 사마자장의 遊覽 사모했다네
기이하고 광활한 구경을 통해 스스로를 웅장하게 길렀음을
듣건데 강남땅에는 삼성산이란 산이 있어
북으로는 이름난 도시를 두고 남으로는 크나큰 바다를 둔
장안에서도 가까와 바라보이네 구름 위에 푸른 산 한모퉁이가
한강을 등지고 뫼뿌리를 서렸는데 멀리 뻗힌 산세 우주를 가루지를 듯
신선도 집으로 여기고 고라니 사슴도 우리로 삼는 곳
이 몸이 책을 지고 강 건너 노닐 때는
바로 비 갓 개인 첫여름 사월이어라
말안장 풀고 첫번 쉰 데는 석왕동인데
지팡이 짚고 이내 환희대에 올랐었네
仙兄은 말달리듯 올라가건만 늙은 이 몸 부끄럽다
蘇東坡 재주 없음이 열거니 잡거니 낡은 절에 들어가니
절문은 멀리 푸른 바다 바라보며 열려 있구나
절의 스님 불러 묻기를 三聖이라 이름한게 무슨 뜻이냐고
大初 混沌시에 幽深한 과물이 어지러이 날쳐
과아나 巨靈으로도 혼자의 힘으로는 어쩌지 못해
숲은 베어지고 바위는 무너지고 용왕도 알아났다네
그래 하늘이 세 성인을 내니 차례로 나오는데 기운차기도
신비한 功力은 이 산을 진압하고 그 道力 지축을 가다듬었네
이에 그 해는 제거되고 만물 비로소 제 자리에 편안케 됐네
三十三天도 좋아라 하고 서기는 동서에 감돌았다네
듣기를 다하고 말이 끝나자 정신이 갸온해져서
문에 들어 사자향로 앞에 이마를 조아려 절하였다네
절 세 채가 지금도 엄연한데

두억시니며 殺人惡鬼가 안뜰에 다 있었다니
천년이나 된 기이한 자취 누구와 함께 징거할까
이 일은 한 어리벙벙하여 상고하기 어렵도다
예 와서 나 보기에 가장 마음끌리는 바는 연화대 아래 多羅樹이어라
맑은 그늘 이에서 생기고 사방은 온통 푸르러서
푸른 장막같은 다라수 숲에 떠가는 구름 낮에도 늘 자옥하네
서남으로 큰 바다 바라보면 비내리는 동경 奇絶하지만 개인 풍경도 볼 만하다
발걷어 머들 굽어 보면 또한 봉나무며 산봉나무 마을마다 사람사는 연기로다
시재며 그림거리라 붓 잡으면 주줄이 나옴을 스스로 깨달았다
이런지 어언 서른 두해 눈 앞을 스쳐간 세월은 이내 사라졌건만
옛모습 그대로인 것은 오직 산 뿐이다
그 당시 스님이래야 의래이 많지 않지만
물노라 벽에 걸린 제영들 이끼 끼고 벗겨지고 떨어지고 진흙에 먼지까지 덮였다오
늙마에 옛 노던 곳 병들어 뒤따르기 어려웁고
사립은 쓸쓸하고 족문엔 찾는이 없네
때로 일어나 남쪽을 바라보니 구름 속에 푸르르게 몇 봉우리 들어나네
보아하니 너는 어린 나이에 손만 대면 이미 솜씨가 있어
이청련 두초당 두 글을 실 켜듯 수 놓듯
오묘하고 현묘한 말을 낱낱이 가려 내는구나
뜻있어 장유시 속편을 쓰려면 더위를 꺼리랴 물더위를 겁내랴
한 평생 밀칠한 나막신 신고 그윽한 데 더듬고 승경을 가려
높고 높은 데 끝까지 가서 응당 내 말 더듬어 여운을 찾아
物色을 나누어 기억해 두면 너를 일으키는데 도움이 되리
아비는 시 짓는 힘이 쇠하여 말쑥한 맛이 줄었으니라
아들아! 빛을 더하기 힘써 사람축에 끼이도록 노력하여라
하늘 끝도 더듬고 달 속에도 올라보고
귀신도 울려 보고 바람과 비도 놀래 보아라
팔꺼나! 자리위의 보배 잠시라도 떨어뜨릴세라
詩書를 힘써 간직하기를 너의 집안의 세업이니
문호를 빛냄을 마땅히 보리로다

남들이 말하기를 골은 깊어도 난초 향기 퍼지고
하늘은 멀어도 학의울음 들린다고
顔回라고 별 사람이랴? 바라면 그리 되느니
옛사람과 똑같지 않다고 걱정하지 마라
애써 부지런히 널리 배워야 하니 蘊蓄이 많아야 된단다
쌓인게 많아서 통하게 되면 저절로 말쑥해지느니라
道란 아득히 멀기만 한데 세월은 덧없다고 걱정말고
갈 길은 멀고 먼데 내 힘 부칠세라 걱정해라
이 걸음이 아마도 우연 아니리니 어찌 다만 산을 몹시 사랑해서 뿐이랴
과거에 붙는 것도 또한 여사요 시나 읊조림도 귀할게 없다
내 바라는 바는 내 마음을 즐거이 할 길 함양하여
거룩한 내 마음에 띠끌 먼지 타지않게 함이란다
애당초 터가 없다면 어떻게 산을 이루겠는가
가지가 무성히 뻗으려면 뿌리가 滋潤해야 하듯이 말야
내 말이 망녕기 있다하여도 聖人의 법임을
세간의 삼척동자도 다 아는 터
진실로 내 힘은 쇠해졌으나 늙마에도 뜻은 啓發되는구나
사나이란 관 뚜껑 닫기 전에는 만사는 아직도 끝나지 않는 법이란다
가시덤불 헤치고 부지런히 찾으면 아마도 眞境을 찾게 되겠지
눈에 덮인 얇은 막 금비로 긁어내어 뭘체며 그림자가 보이는 듯
처음에는 매운 여뀌맛에다 밀납을 씹는 듯할테지만
마침내 훤히트여 올올이 가닥지고 毫末까지 분석되어
이로부터 차츰 진전하면 아홉길 높이까지도 생각하게 되니
작은 띠끌만한 흙알도 하나가 높은 산을 이룰 수 있게 된단다
마음을 항방잡아 달린 때 부디 먼 데서 구하지 말거라
道란 바로 네 곁 궤안에 있지 높은 데 있는게 아니란다
요즘 사람들 터럭끝(남의 허물)은 보아도 제 속눈섶(제 잘못)은 못보니
뜰 앞에 있는 저 잣나무가 바로 나의 부처이니라
네 말이 끄는 덩그런 수레로 큰 길 따라 가보고
고삐를 당겨 천천히 고향으로 돌아오너라
나는 늙었단다 아무 것도 할 스가 없어

너를 경계하니 덕으로 들 땐 곧은 문을 통해 가라고
행할지어다 힘쓸지어다 족에서 나와 족보다 푸르기를
내 지팡이 짚고 동구문에 기대어 너를 기다릴 때가
바로 네가 구름을 바라보며 禪寺에 갓들 때이리
자식 그리는 아비 마음이 어찌 멀리 떨어지려 들리오마는
네가 공부를 더하여 進德 수업을 마치도록 하려고
학문의 요점은 마땅히 근본과 수원을 먼저해야 하며
때때로 마음의 깨달음을 점검해야 한단다
맑고 맑은 밤기운도 잘 가꾸어
네 머리가 막히게 해서는 결코 안된다
그릇된 생각이란 의례 어둠 속에서 일어나기 쉬우니
요것이야말로 난세의 간특한 영웅이니라
지난 날 잔재주나 부리던 버릇을 뼈아프게 경계하여
묵은 부끄럼을 지금부터 싹 씻독 기약하거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사나이로 태어남이 얼마나 귀하냐
네 앞에 한가한 나날을 부질없이 허송치 말거라
내 말이 바른 길을 일러줌이니 용왕매진하여 피하지 말라
떠남에 특별히 줄게 있으니 여섯가지 일로 경계함이니라
양껏 먹고 실컨 놀고도 온종일 처마밑 빙빙돌며
패거리 좇으며 농지거리 하거나 산천 구경에만 빠지지 말거라
벗들과 사귈 때 항상 남보다 한걸음 앞설 걸 생각하고
점잖게 공경스레 남을 대하여 망녕되게 희노를 발하지 말거라
글을 읽을 때 이해가 되거든 춤을 추거라
두세번 읽고서는 귀취를 깨닫도록
기름부어야 파란이 번득이리니 결코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
학문을 할 때 大體에 뜻을 두어야 하니 義를 바로 잡는데는 利를 따지지 말고
道를 밝힘에는 功을 따지지 말기를 江都相 董仲舒같이 하라
모름지기 참되고 바른 외줄기 길만 찾아가거라
행여나 俗學들의 가닥진 갈림길에 빠질세라
네 마음 간직할 때 먼저 뜻을 세워서는
곧게 나아가되 책임져서 분연히 용감히 과단성있게

뜻이 이르러온 뒤에야 氣는 따르니
만사는 다 이로써 正案을 삼느니 경계하여라
네 마음 늘 고요하고 해맑게 하고 겸하여 養生하도록
학업이란 어찌 한갓 독서만 부지런해서 되는 것이랴
때때로 장차 잘 가꾸고 북돋아서 보양할 血氣를
온전히 보호하여 이지러짐이 없게 하여라
정녕코 여섯가지 경계할 것을 신신부탁하니
맨 손으로 깊은 못의 용을 잡을 각오를 해라
헤어짐에 애틋한 아비사랑 어여냄은 이 늙은 것의 뜻이오
문을 나서며 팔뚝을 깨물며 맹서함은 길 떠나는 자신의 마음이라
머리 돌려 다시금 그리워진다 지난 날 내가 노니던 그 곳
흥겹게 푸른 산에 드니 설핏한 구름 맑기도 했지
같이 가는 스님에게 들으니 전쟁을 치른 뒤에도 살아 남아서
삼십년 뒤 평안한 기별 전해 주려고
깊이 숨어 허리뼈 등이 꼬부라졌다네
때때로 고개 빼어 분연히 날듯이
슬프게 남녘 구름 바라봄은 누구를 위해서인가
늙마에 딱하게도 생각나는 건 松筍酒라
스님 찾아가 한번 실컷 취하리라

삼성산(三聖山)

고백록(高百祿)

보라빛 아지랑이 산에 덮여 아롱대고
寂寞한 산골안에 山寺鐘만 은은코나
塵世를 떠나왔으니 邪心인들 있으랴

산높고 물도 맑아 洞谷안이 幽深한데
소나무 靑靑하고 杜鵑花도 만발이라
간간이 새소리 들려 더욱 아름다워라

삼성단 부른이름 세 성인의 뜻이라네
草幕에 風雨막고 정성드려 수도한터
그 자리에 이룩한 절을 一二三幕 하였소

또 삼성산은 일찌기고려 태조 왕건(王建)이 금주(衿川 과주(果川)등의 고을을 정벌하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능정이란 스님을 만나 안양사를 지어 오늘날의 안양시명이 탄생되는 유서깊은 곳이기도 하다

● **참고문헌** 노사신 『동국여지승람』 1481
시흥군 『시흥군읍지』 1899 의정부 『기전읍지』 고종조
시흥군 『경기도 시흥군읍지』 1899 『경기읍지』 1871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조선일보사 『월간 산』 1988-1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22 서계동산 (徐溪洞山)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서남쪽에 있는 산 예전에 갈미 마을에 사는 서씨의 땅이라 하여 서가동산(徐家洞山)이라 칭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서계동산(徐溪洞山)'으로 불리워오고 있다 평촌신도시 개발구역내의 공원지로 존치(存置)하며 1989년에 명지대 박물관팀에 의해 지석묘가 발굴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23 성계동산 (成溪洞山)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동쪽에 있는 낮은 산이다 갈미에 사는 성(成)씨의 산이라 하여 성가동산(成家洞山)이라 칭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성계동산(成溪洞山)'으로 불리워오고 있다 평촌신도시 개발구역내의 공원용지로 편입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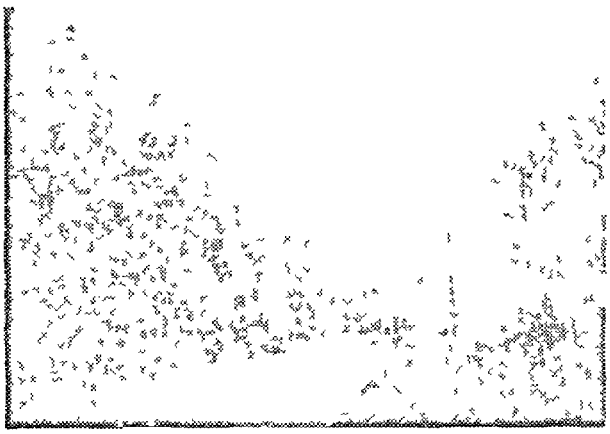
24 수리산 (修理山) 〈안양9동〉

안양시와 안산시 장상동과 군포시 산본동 및 속달동에 걸쳐있는 산 해발 474m 이다 조선 후기의 학자 이중환(李重煥 1690 ~ 1756)은 그의 저서 『택리지(擇理誌)』에서 수리산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충주의 서쪽은 경기도의 죽산 여주와 경계한다 죽장의 칠장산은 기호(畿湖)경계에 우뚝 솟았고 서북으로 뻗하여 수유현(水踰峴)에서 크게 끊어져 평지가 된다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 용인의 브아산(負兒山)이 되고, 또 석성산 광교산을 일으킨다 광교산 서북에서 관악이 되고 똑바로 서쪽에서 수이산(修李山)이 되어 서해로 들어간다」

고 하여 수리산이 광주산맥의 한 자락임을 밝히고 아울러 수리산을 또 다른 이름으로 수이산(修李山)임을 기록하고 있다 어떤 기록에는 견불산(見佛山)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어느 왕손이 산중에서 기도중 부처님을 진견(親見)했기 때문이라고 전해진다

산 정상에 오르면 멀리 군자 앞 바다와 소래염전 및 인천 수원의 시가지까지 조망된다 산 남쪽에는 수리사(修理寺)라는 작은 절이 있다 신라 진흥왕 때 창선된 사찰로 신심(信心)을 닦는 성지(聖地)의 절이라 하여 수리사라 했는데 그 후 산명도 사명(寺名)을 취해 '수리산(修理山)'이라 칭했다는 것이다 일부 풍수연구가들은 아주 먼 옛날 전지개벽이 일어났을 때 서해 바닷물이 이곳까지 들어와 수리가 앉을 만큼 남았다하여 수리산이라 칭했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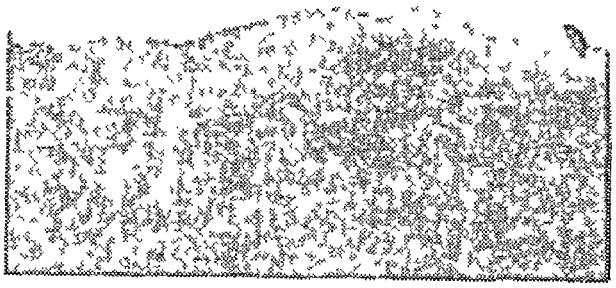
수리산 가는 길(1996)

또 안산지방에는 예로부터 수암봉의 옛 이름인 독수리봉(鷲岩)에서 유래되었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북애노인(北崖老人)의 『규원사화(揆園史話)』 상권 「단군기(檀君記)」에 "동방의 여러 산에 마이(馬耳) 마니(摩尼)등의 이름을 가진 산이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마이(摩利)로 부르고 일찌기 서로 구분하지 않았다 대개 마이와 마니는 머리 두(頭)자의 머리에서 나왔다 지금 광주(廣川)에 수리산(修理山)이 있다

이것은 틀림없이 수리산(鷲山)이다"고 하여 독수리봉 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이세종(李世鍾) 안양대학교 교수는 수리산에 대해 「수리산 散稿」라는 시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밝히고 있다

수리산에는 큰 바위가 별로 없다 기파른 벼랑도 없고 숲이 울창한 土山 곳곳에 약수터가 있고 그 약수터에는 남녀노소들이 끊일 사이가 없이 모여들고 산새들은 한가로이 지저귄다 골골마다 산재와 약초가 무성하고 옛날부터 사찰이 없는 유명이란 단어와 거리가 먼 산이다 안양은 그 수리산 기슭에 터를 닦았고 수리산은 도시화되고 대형화되어 가는 안양에 경이로운 산이 아니라 적당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획일화되고 규격화되어가는 현대문명 속에서 인간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며 안양을 싸잡고 지키는 자애로운 암탉이다

수리산(1988)



수리산 수리산이란 무슨 뜻일까? '살다(生)'의 語幹 '살'에서 파생된 언어로 '쌀' 등 木의 뜻이 있고 곡식(主食)에 입쌀 좁쌀 수수쌀 보리쌀 등등 생활생명과 연상된 언어가 되었다 (지금도 경북 方言에서는 '쌀' '살'이라고 한다) 생활에 곡식만큼 중요한 필수품이 연료였다 柴炭中에 중요한 것이 송림이다 "솔나무의 솔은 솔에서 어원을 찾아야 한다"는 학설이다 전국 지명이나 산명 가운데 수리 설악 설월 등이 많은데 이들은 모두 살에서 변형되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설에는 수리 수리치 수리골 수리재 수리절 등등의 명칭은 단오 명절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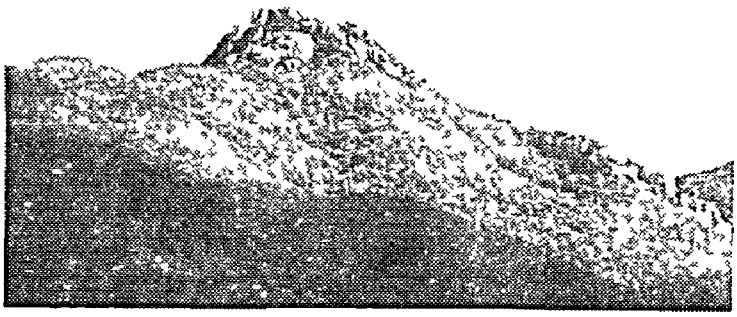
단오 때(초여름) 목욕하고 산재를 뜯던 풍속과 지명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한다 수리란 이름을 가진 지명에는 반드시 냇물 또는 시내가 있고 산재 수리지가 풍성하다는 것이다 어쨌거나 수리산은 이 지방에 柴炭과 산채를 풍성히 공급하던 산이고 여름이면 목욕하고 빨래하던 개울이 흐르고 있었다 밤나무가 많아 알밤을 줏던 정든 터전이 있으며 머루와 다래와 개암이 영글어 가던 유명하기를 거부한 안양 정신의 모태였다

● **참고문헌** 이중환 『택리지』 1714 이긍익 『연려실기술』 1934
본말사주지회 『용주사본말사지』 1984
조선일보사 『월간 산』 1988 5 방극인 「수리산」 안양문화 3-1984

안양시 「수리산산림욕장현황」 1990
「수원신문」 1990 6 9 「수원신문」1990 6 16
「경기평론뉴스」 1990 9 15
안양시 『안양시지』 1992

25 수암봉 (秀岩峯) 〈안양9동〉

수암봉(1988)



안양시 안양9동과 안산시 수암동에 걸쳐있는 해발 395m 높이의 산이다 수리산의 연봉으로 조선 초기부터 예 안산군(安山郡)의 진산(鎭山)이었고 조선 말엽에 산봉이 수려하다 하여 수암봉(秀岩峯)으로 개칭되었다 1914년에는 산명을 취해 수암면(秀岩面)이란 면명과 수암동(秀岩洞)란 동명이 탄생되었다 본래의 산명은 산봉우리가 흡사 독수리와 같다하여 취암(鷲岩)이라 불렀다 암봉의 식물분포는 신갈나무 참나무 소나무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 **참고문헌** 정인지 『세종실록지리지』1454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26 쓰레봉 〈박달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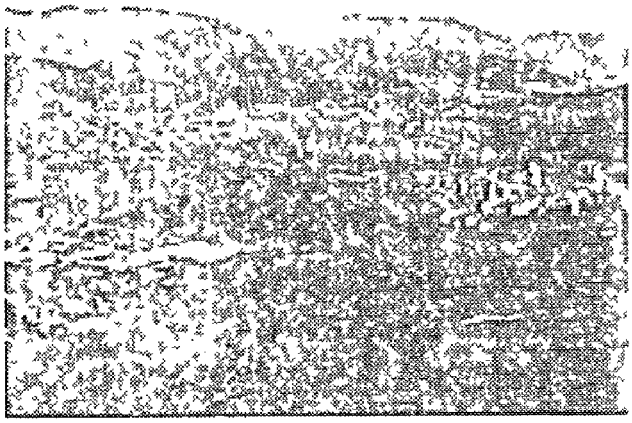
산세가 흡사 쓰레(써레)처럼 생긴 산 시흥시 목감동 모감동과 박달동에 걸쳐 있다 일명 무쇠봉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지흥군지』(下) 1988
- **도 움 말** 류지창(柳志昌 시흥시 목감동 324 1916년생)

27. 오미산 (烏尾山)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와 구 국제수영장 사이에 위치한 작은 산이다 산세가 흡사 까마귀의 꼬리같다고 하여 예로부터 명당자리로 이름난 산이라고 한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인조 때(1623)인조반정에 공을 쌓아 1등공신에 올랐다가 후에 좌의정을 지낸 심기원(沈器遠)의 아버지(沈凍) 묘를 대림전문대 뒤에 쓰기 위해 광중을 파는데 바위 밑에 있던 두마리의 학(鶴) 중 한 마리가 이산 동쪽으로 날아 갔다고 하여 그 주변을 '학뒤(鶴後)'라 부른다


오미산전경 중앙부분임(1981 석우회원 최장선 촬영)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28 움진산 〈비산1동〉

수푸루지 북쪽에 있다 예전 부터 만석꾼이 살 자리라고 구전되고 있으며 임진왜란 때 비산동 주민들이 난을 피하기 위하여 산 중턱에 움막을 짓고 살았다고 전해진다 산정에 한전중계탑이 설치되어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守燮 비산동 567 1921년생)

29 작별산 〈석수2동〉

석수2동사무소 서쪽에 있는 돌산이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조 중엽에 낙향한 어느 선비가 충직한 제자와 함께 이 산 중턱에서 토굴을 파고 함께 살았는데 제자의 큰 뜻을 스승이 헤아려 주지않자 제자가 이 산을 떠났다고 한다 그 후부터 스승과 제자가 작별한 산이라 하여 작별산(作別山))이란 산명이 붙여졌다고 하나 아무래도 후대에 와서 와전된 것으로 보여진다 1980년에 만안교를 현재의 위치로 이전 복원하자 안양의 원로들이 작별이란 어감이 좋지 않으므로 만안산으로 개칭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일명 앞산이라 칭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임진환(林振煥 석수동 268-24 1924년생)

30. 태양산 (太陽山) 〈안양9동〉

수리산의 연봉으로 담배촌에서 제일 큰 산이다 담배촌 동쪽에 있어 이 산 능선을 따라 해가 뜬다 예전에는 이곳 주민들이 산 정상에 올라가 봉화를 올렸다고 한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31 학림산 (鶴林山) 〈박달2동〉

범고개마을 동북쪽에 있다 구전에 따르면 범고개 중턱 범바위 밑에 어느 부자가 살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부자집 부인은 늘 찾아오는 식객(食客)들로 골머리를 앓곤 했는대 하루는 시주하러 온 교명한 스님에게 어떻게 하면 식객이 오지 않느냐고 그 방도를 물으니 스님이 범바위를 깨트리면 식객의 발길이 끊어질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그 후 부인이 머슴을 시켜 범바위를 깨트렸는데 바위 속에 학(鶴)이 쪼그리고 앉아 있다가 슬피 울며 이 곳 산으로 날아와 숲속에 앉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산을 '학림산(鶴林山)'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또 산세가 험하고 나무가 많으므로 항상 도둑이 끊이질 않아 일명 도둑뫼(도둑산)라 칭하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임종대(林鍾大 박달동 774 1930년생)

32 학무봉 (鶴舞峯) 〈석수1동〉

삼성산의 연봉으로 삼성산 서남쪽에 있다 산봉이 흡사 학(鶴)이 날개를 펴고 춤을 추는 형상이므로 '명학봉(鶴舞峯)'이라 칭한다고 한다 일명 상라봉이라 부르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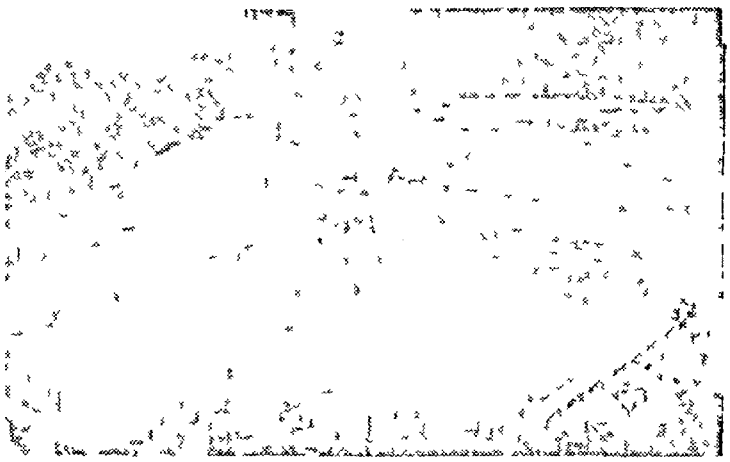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33 호암산 (호암, 금주산, 금지산, 금산, 검지산) 〈석수1동〉

삼막골과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걸쳐 있는 산 조선 중기에는 금전현(衿川縣

후에 시흥현 시흥군으로 개칭)의 진산(鎭山)이었다 고려 초(940)부터 조선 정조(1795)조까지 옛 시흥지방의 행정명인 금주(衿川)와 금천(衿川)은 이 산명에서 취한 것으로 보이나 일부에서는 금주(衿川)와 금천(衿川)의 관아 뒤에 있는 산이므로 금주산(衿川山) 금지산(衿芝山) 금산(衿山)이란 산명이 붙여졌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조선시대에는 대원군(大院君) 신위(申緯 호가 紫霞) 강희맹(姜希孟)(1424~1483 좌찬성 역임)등이 이 산을 잦아 읊은 시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강희맹이 이 산 아래에 살면서 『금양잡록(衿陽雜錄)』을 저술하였다 또 조선말엽 시 서 화의 3절로 유명한 신위(申緯 1769~1845)가 이곳에 올라 읊은 시가 전해지고 있다

호암(虎岩)이란 산명은 범모양과 같은 바위가 이 산에 있기 때문인데 이 범바위는 산 정상에서 서울 시흥동 쪽으로 면면히 뻗어 오다가 부러지듯 단절된 곳에 있다 이 호랑이의 달리는 도잠(陶岑)을 막지 않으면 금전(衿川) 고을은 흉재(凶災)를 못 면한다 하여 이 기세를 꺾기 위하여 호암산 아래 호랑이를 짓누르는 호암사(虎壓寺)를 짓고 또 그 호암이 뛰어 내릴만한 지점에 화살을 상징하는 궁교(弓橋)를 놓고 다시 그 북쪽에 호랑이를 위압하는 사자암(獅子庵)을 지은 것이다 현재도 그 지점에 호암사며 궁교며 사자암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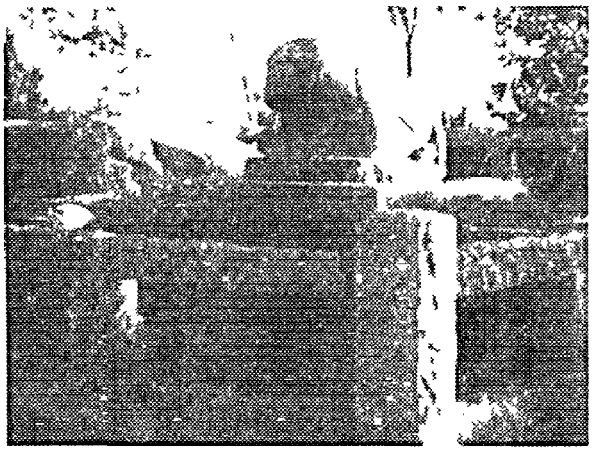

한우물(1990년대)

이 호랑이의 억센 지세는 호랑이 바위 아래에 있는 세 개의 마이너스적 가지의 샘(泉)으로 나타났으니 그것은 광전(狂泉) 음전(瘖泉) 탐전(貪泉)인데 이 물을 마시면 미치거나 탐욕해지거나 음탕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이 금천(衿川 옛 시흥) 삼성산 아래에서 태어나면 호랑이의 지세 때문에 슬기로움을 모조리 빼앗겨 어리석다는 속전이 지배적이어서 이 곳 주민들은 3월이 되면 진정 또는 이 마을을 피해 아이를 낳는 풍속까지 있었다

이 풍수적 미신성에 사로잡혀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금전현령(衿川縣令)이 부단히 노력했다 오은지(吳隱之)같은 분은 청백리로 유명한 분인데 일찌기 금천의 현령으로 있으면서 탐전의 물을 직접 마시면서 자신이 탐해지지 않는 사실을 입증까지 하였고 윤자(尹慈)는 호랑이 바위의 이름을 없애 버리고저 우암(愚岩)이라

고쳐 부르도록 계몽까지 하였는데 이상의 사실들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금천현편에 자세히 상술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虎岩山 현(금천현으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 있었음)에서 동쪽으로 5리 지점에 있다 범 모양과 같은 바위가 있으므로 이름되었다 윤자(尹耔)의 설(說)에 금전 동쪽에 있는 산의 우뚝한 형세가 범이 가는 것 같고 또 험하고 위태한 바위가 있는데 호암(虎岩)이라 부른다 술사(術士)가 보고 바위 북쪽 모퉁이에다가 절을 세워서 호압사(虎壓寺)라 하였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7리 지점에 있는 다리를 궁교(弓橋)라 하고 또 북쪽 10리 지점에 사자암(獅子庵 현 상도동 소재)이 있다 모두 범이 가는듯한 산세를 누르려는 것이었다


호암산 석구상(1990년대)○

내가 경오년 봄에 어사(御史)를 그만두고 이 고을에 현령으로 왔다 고을 민속이 본래 어리석고 나 또한 어리석었다 사람들은 모두 바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고 전부터 그것을 진압하려 한것도 어리석지 않기 위한 까닭이라 한다 나는 말하기를 옛적에 광천(狂泉) 음천(痓泉) 탐천(貪泉)이 있었다 사람이 그 물을 마시면 미치거나 음하거나 탐하거나 하지 않는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이름되었다 한다 그런즉 이 바위밑에 살면서 여기에서 먹고 여기에서 놀고 여기에서 자고 일어나고 하는 자가 어리석게 되지 않는 줄을 어찌 알겠나 이치가 혹 그럴 듯하나 또한 알 스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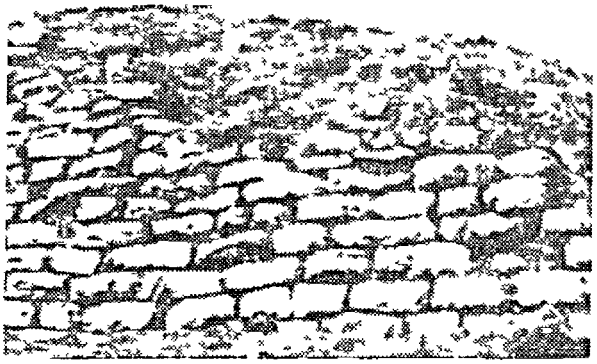
옛적에 오은지(吳隱之)가 현령이 되어서 탐천 물을 마셨으나 마침내 탐하지 않고 청백한 지조를 더욱 힘 썼다 그리하여 시험삼아 이제(夷齊 백이숙제를 지칭함)에게 마시게 하여도 마침내 본심을 바꾸지는 않으리라는 시를 지었다 하물며 사람의 슬기로움과 어리석음은 당초 태어날 때에 품수한 것이니 산천이 어찌 바꾸어지게 하리요 가령 이 고을에 사는 자로서 혹 안자(顔子)의 어짊과 같이 어리석은 듯하면서 어리석지 않은 자가 있는지도 마침내 알 스가 없다 이것으로써 미루어 보면 민속과 나의 어리석음은 바위 때문이 아닌 것이고 바위 때문이라 말하는 자가 진실로 어리석은 자이다

아 당나라 유자후(柳子厚)가 염계 풍경을 사랑하여 거기에다 집을 짓고 우계(愚溪)라고 고쳤다 이것은 자기의 어리석음으로 이름 붙인 것인데 대개 예전 우공곡(愚公谷)의 남긴 뜻이며 어리석지 않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 어리석은 나의 어리석음은 한마디 말과 한번의 움직임과 공적(公的) 사적(私的)으로 어디에 가나 어리석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므로 나도 유자후의 우계라는 우의 뜻을 가만히 본따서 호암을 고쳐 우암이라 하였다 그러나 그 잠으로 어리석은 데에야 어찌하랴

감히 설을 지어서 어리석지 않은 군자를 기다린다 하였다

이 산에 호암산성(虎岩山城)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 고적조에 "호암산성 석죽이며 둘레는 1천6백81적이다 성안에 큰 못이 있는데 날씨가 가물면 기우한다"고 기술되어 있는데 그 위치는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산 93의 2로 면적은 75 053㎡에 이른다 1989년 부터 1990년까지 서울대학교 박물관의 발굴조사 결과 축조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기우제를 지내던 한우물 내부에서는 한반도에서는 처음으로 절제(鐵製) 도끼가 출토되었으며 그 밖에 명문이 새겨진 정동숟갈 등 다량의 통일신라시대 유물이 나와 6세기 이후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관련한 통일신라시대 문화를 연구 하는데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일부 문헌에 고성으로 기록되어 전하던 주변산성(周邊山城 퇴메식산성 총연장 1 25km)의 존재가 확인되어 학술적으로도 뜻이 깊은 곳이 밝혀져 1991년 2월 사적 제343호(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로 지정되었다

호암산성(1980년대)



이 산은 본래 호암산(虎岩山) 또는 호암(虎岩)이라고 불렀으나 조선중기 부터 금천현(시흥현)의 진산(鎭山)이 되면서 금주산 금지산 검지산 금산 등으로 개칭된 것으로 생각된다 산중에는 기암기석과 절묘한 승경지가 있어 주말마다 휴일이면 안양 서울 등지의 등산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룬다

● **참고문헌**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강희맹 『사숙재집』 1492 시흥군 『시흥군읍지』 1899
권상노 『한국사찰전서(下)』 1979
이승언 『행정구역변 전사』 안양문화3-1984
「인천일보」 1991 2 26

제3절 사찰 (寺刹)

1 공덕사 (公德寺) 〈안양2동 산5〉

'안양유원지 남쪽 산 등성이에 자리잡고 있다 법화종으로 1981년에 창건되었다 공덕사(公德寺)'란 부처님께서 공덕을 이룬 후 큰 법을 세운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성지화(性智華) 보살(안양2동 산5 1929년생)

2 관음사 (觀音寺) 〈안양9동 1088~33〉

장박골에 있는 사찰로 1975년경에 창사되었다 종파는 조계종이다 '관음사(觀音寺)'란 사명은 극락정토(極樂淨土)에서 아미타불(阿彌陀佛)의 협시(脇侍)로서 부처님의 교화(敎化)를 돕고 있는 관세음보살(觀世音菩薩)에서 취한 것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성혜(聖惠)스님(안양9동 1088~33 1952년생)

3 금강사 (金剛寺) 〈석수1동 산54~1〉

삼막골 뒷 산에 있다 '금강사(金剛寺)'란 사명은 금강반야바라밀다심경(金剛般若波羅密心經)이란 불경에서 취했다 종파는 법파종으로 1960년대 초에 창사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정해운(鄭海雲)스님(석수1동 산54-1 1943년생)

4 망월암 (望月庵) 〈석수1동 산2〉

염불암 동쪽 약 1km 지점에 있는 사찰이다 창사연대는 알 수가 없으나 조선조 태종 때(1407) 신미(信眉)스님이 왕명으로 5층탑을 세웠다는 기록으로 보아 조선조 이전에 창사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후 정조 3년(1779) 동호(東湖)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경내에는 3층석탑을 비롯하여 극락전 요사채 용신각 등이 있다 170년생 노

송 두 그루가 사찰의 분위기를 한층 일신 시킨다

조선 말엽에 발간된 『기전읍지(畿甸邑誌)』 『시흥현읍지』 사찰(寺刹) 조에 '삼성산에 망월사(望月寺)가 있다' 는 기로으로 보아 처음에는 망월사라 했다가 후대에 현재의 이름인 망월암으로 개칭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사찰은 심산유곡에 위치해 있어 달(月)만 바라 본다고 하여 '망월암(望月庵)'이라 칭한다 종파는 태고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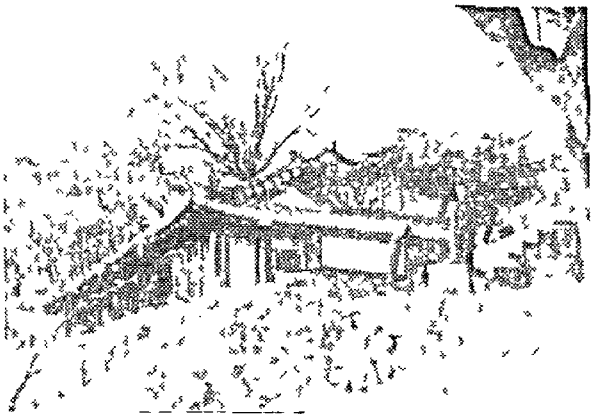

망월암(1960년대)

- **참고문헌** 『기전읍지』 고종조
  이운허 『불교사전』 1961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해송(海松)스님(안양2동 40~31 1933년생)

5. 망해암 (望海庵)

〈안양2동 산19〉

망해암(1959 12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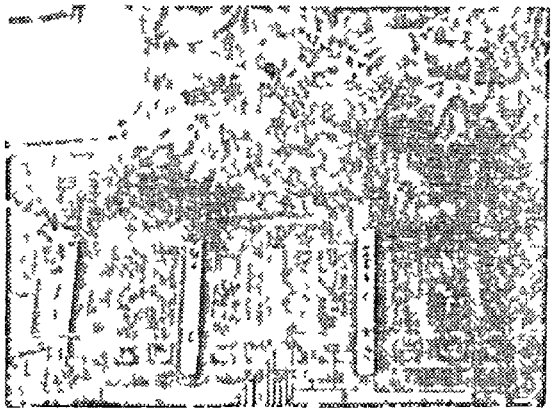


양명고등학교 동쪽 망해산(望海山 해발 290m)에 있는 절이다 '망해암(望海庵)'이란 사명(寺名)은 바다를 바라다 볼 수 있는 암자에서 나온 것으로 맑은 날에는 멀리 서해바다를 조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안양시가지 또한 한 눈에 내려다 보인다 사찰의 전체적 규모는 큰 편은 아니지만 아담하게 자리한 법당과 사찰 뒤편의 경지가 잘 조화되어 있다 일제 때에는 봉은사(奉恩寺)의 말사였다가 현재는 용주사의 말사로 종파는 조계종이다

망해암의 창건 연도와 창간주에 대해서는 정확한 서술이 어려운 상태이다 최근 사찰 경내에 세워진 「안양망해암사적비」에는 665년 원효스님이 미륵불을 봉안하면서

이 사찰을 창건하였다고 명기하였으나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아마도 사적비의 이러한 내용은 『봉은본말지(奉恩本末志)』에 기록된 '원효스님이 창건하였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음'이라는 내용을 확대하여 서술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하지만 『봉은본말지』 역시 1940년대에 편찬된 자료로 원효 창건설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망해암의 원효 창건설은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 따라서 망해암의 원효 창건설은 사실적인 측면보다 원효스님을 창건주로 설정하려 했던 후대 불교인들의 뜻을 헤아리는 정도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망해암의 사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기는 조선 초기 태종대(大宗代)로 보인다 태종은 수도 한양의 백호(白虎)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산천기맥(山川氣脈)을 누르기 위해 명을 내려 이 지역 일대의 사찰을 중건하였는데 망해암도 이 때에 중건되었다는 기록이 전하는 것이다 관악산 일대의 사찰은 조선시대에도 비교적 안정된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으며 여기에는 망해암의 경우처럼 풍수지리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태종대의 중건 이후 19세기까지 망해암에 관련된 기록은 찾아보기 힘들다 다만 세종대(世宗代)를 배경으로 하는 전설이 하나 전해지고 있어 흥미를 끈다 비록 역사적인 사실은 아니지만 전설이 지니는 특성을 감안할 때 다음의 내용은 망해암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아 소개하고자 한다


망해암 용화전(1990년대)○

조선조 세종 때 전라 경상 충청 등 삼남지방에서 조세(租稅)를 받아 해로(海路)를 통해 서울로 운반하는데 곡물을 실은 여러 척의 배들이 인전 앞바다 팔미도(八尾島) 근해를 지날 무렵 몹시 심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혀질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죽느냐 사느냐 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당황하여 놀란 선원들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등 분요(紛擾)하게 날뛰고 있는데 돌연 뱃 머리에서 한 스님이 나타나 '그대들은 너무 당황하지 말고 차분히 내 말을 들어라' 하며 선원들을 진정시키고 인도하여 무사히 위기를 넘겼다 풍랑이 잠잠해지자 한 선원이 '대사님은 어느 절에 사십니까?' 하고 묻자 '관악산 망해암에 있노라' 하고는 홀연히 사라져 버렸다

선원일행이 한강까지 무사히 다 닿은뒤 생명의 은인이요 신통자재(神通自在)했던

그 스님을 찾아 망해암에 가 보았지만 그런 스님은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 스님과 용모가 흡사한 모습의 부처님이 법당안에 모셔져 있음을 보았다 그들은 부처님의 크신 중생(衆生) 구원의 자비신력(慈悲神力)으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이를 임금님께 상소하니 가상히 여긴 임금(세종대왕)은 해마다 한섬씩의 공양미를 불전(佛前)에 올리도록 명하였는데 그후 400여년 간이나 계속 되었다고 전해진다

위의 전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리 학자들의 극심한 탄압이 계속되었지만 불교는 민중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왕실에서도 중요한 신앙의 대상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아울러 망해암 같은 작은 규모의 암자에 이러한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사찰이면에 숨겨져 있는 문화사적 자료들이 얼마나 풍부한 것인가를 느끼게 한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위의 전설 등외에는 이렇다할 사료들을 발견할 수가 없다 다만 19세기 이후에 대해서만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전하고 있는데 이를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 망해암의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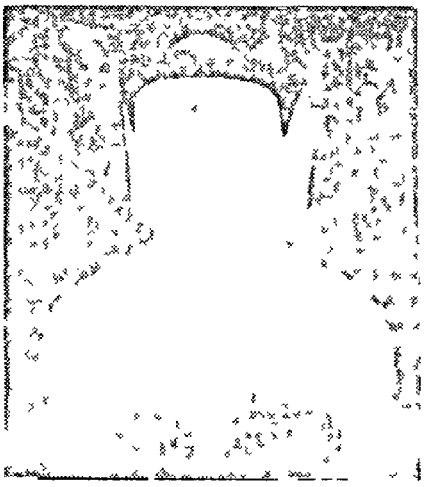
연 도	주 요 사 항
1803년(순조3)	홍대비(洪大妃)가 재물을 내어 중창함
1863년(철종14)	주지 대련(大蓮)스님이 중창함
1922년	화재가 발생하여 사찰 전제가 소실됨
1926년	주지 박호남(朴湖南)스님이 법당과 요사채를 중건함
1939년	주지 유청봉(劉靑峰)스님이 용화전(龍華殿)을 중건함
1940년	대방(大房)을 중수함
1941년	삼성각(三聖閣)을 중건함
1952년	6 25전쟁의 와중에서 다시 전소되었으나 청봉스님이 중건함
1973년	보경(寶鏡)스님이 주지로 취임하여 대방을 중축하고 사적비를 세우는 등 도량을 일신함

* 자료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증서③」경기도 1 1993 29쪽

위의 내용에서 보면 망해암은 1900년대에 들어와 두자례 전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963년에도 소실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망해암과 관련되었던 인물은 근대 이후 사찰 중수를 맡았던 대련 호남 청봉스님 등인데 여기서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순조 3년(1803)에 중창을 시도한 인물이 홍

대비(洪大姬)였다는 것이다 여기서 홍대비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자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1735~1815)임이 분명하다 그녀는 본관이 풍산으로 영의정을 지낸 홍봉한(洪鳳漢)의 딸인데 빈으로 간택되는 영광을 맞기도 했지만 남편인 사도세자의 아사로 평생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비운의 여인이었다 망해암이 홍대비에 의해 중장되었다는 사실은 한스런 삶과 관련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비록 아들 정조의 지극한 효성으로 남편인 사도세자의 많은 오명이 벗겨지고 자신도 극진한 예우를 받으면서 여생을 보냈지만 남편의 비극적 죽음을 달래기 위해 이와 같이 사찰을 찾아다니며 중장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인 것은 정조의 용주사 창건과 유사한 사례로 보이는 것이다


망해암 미륵불(1990년대)○

망해암에 현존하는 건축물을 비롯한 불화 불상 등은 거의가 근대에 조성된 것이어서 지정된 문화재는 전무한 상태이다 현재 망해암에는 용화전 관음전 삼성각 종각 3동의 요사 등의 건축물이 있고 최근에 건립한 사적비와 5층석탑 석등이 있다 먼저 용화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6평 규모이며 관음전과 삼성각 사이에 세워져 있다 1952년에 건립되었으며 괄작지붕의 형태로 내부에는 미륵불과 약사불을 봉안하였다 미륵불은 전체 높이 237cm 신고(身高) 223cm 두고(頭高) 76cm 안고(顔高) 50cm 견폭(肩幅) 100cm이며 하나의 화강암에 조성한 망해암을 대표하는 불상이다

이 불상의 상호는 가늘고 긴 눈썹에 눈은 약간 치켜 올라갔으나 복스러운 코와 어울려 원만하고 자비로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귀는 그다지 길지 않고 목에는 삼도를 표현하고 있지 않다 통견의 법의에는 옷주름이 굵은 음각선으로 파여있고 수인은 손가락을 모두 폈는데 왼손은 가슴까지 올려 밖을 향하였으며 오른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뜨렸다 옷주름은 앞면에만 선명하게 나타냈고 뒷면에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용화전에는 미륵불 외에 약사불로 보이는 60cm 크기의 또다른 석불이 있으며 최근에 제작된 후불탱(240×180cm) 지장탱(150×120cm) 신중탱(180×150cm) 등의 불화도 있다 또한 관음전은 용화전 오른쪽에 서 있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4평 규모로 역시 최근 제작된 아미타불상 관음보살상 대세지보살상과 신중탱화(150×180cm) 등이 봉안되어 있다 삼성각은 용화전 왼쪽에 서 있는 1칸 집으로 칠성탱화(120×110cm) 산성탱화(110×90cm) 독성탱화(110×90cm)를 모셨다

● **참고문헌** 안산군 『과전군 하서면 석수동 지사남승법오옥사조검문안』 1895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본말사주지회 『용주사본말사지』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안양신문」 1989 8 30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종서③』경기도 1993 27~32쪽
● **도 움 말** 서보경(徐寶鏡) 스님(안양2동 산19 1937년생)

6 반월암 (半月庵) 〈석수1동 산11〉

삼막사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종과는 태고종으로 고려말의 고승인 나옹(懶翁 1320~1376)에 의해 창사되었다고 한다 이곳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져 낮 12시가 되어야 해를 볼 수 있고 밤 12시가 되어야 달을볼 수가 있어 해(日)와 달(月)을 각각 반 밖에 볼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사찰이므로 '반월암'(半月庵)이라 칭한다고 한다


반월암약사전(199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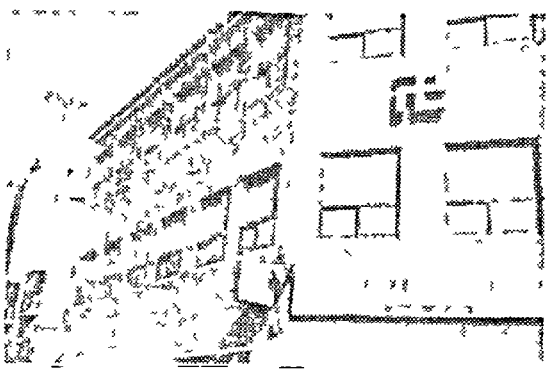
경내에는 명성당대사(明性堂大師)와 장(張) 모 대사의 부도(浮屠)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안익성(安益成)스님(석수1동 산11 1957년생)

7 백년암 (白蓮庵) 〈안양1동 622-234〉

남부동 정호식당 앞에 있다 상불암에서 수도한 신백년(申白蓮) 니사(尼師 여승)가 1932년에 창사했다 종파는 조계종이며 사명은 창건주의 법명을 취한 것이다

백년암(1996)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정수현(鄭修賢)스님(안양1동 622~234 1940년생)

8 백운암 (白雲庵) 〈비산3동 289〉

약수암 북쪽 약 200m 지점에 있는 사찰이다 종파는 보문종으로 처음에는 수암사라 했다가 1960년대 백운암으로 개칭되었다 '백운암(白雲庵)'이란 사찰이름은 불가에서 절(寺)의 큰방 웃목 벽에 써붙인 손님의 자리를 가리키는문자나 오고 가고 한다는 것을 일컬어 백운(白雲)이라 칭하는데 유래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자덕현(車德賢)스님(비산동 289 1934년생)

9. 보덕암 (寶德庵) 〈비산1동 186〉

삼성사(三誠寺) 서북쪽 약 150m 쯤 떨어진 곳에 자리잡은 사찰이다 종파는 원효종으로 1960년대 초에 창사되었다 창건주인 보덕(寶德)보살의 법명을 취해 '보덕암(寶德庵)'이라 칭하는데 원효종단에는 성불암으로 등록되었다

건물의 노후화로 1989년에 헐고 중수하였다 예전에는 송도사란 분이 살던 곳이라 하여 '송도사골'로 통칭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이기민(李基敏 비산1동 산186 1925년생)

10 보장사 (寶藏寺) 〈석수1동 240~10〉

안양유원지 주차장 옆(북)에 있다 본래 암자가 있었는데 1974년에 재창하면서 보장사로 명명하였다 종파는 조계종으로 불가에서 불(佛) 법(法) 승(僧)을 삼보(三寶)라 하는데 '보장사(寶藏寺)'란 이를 저장하는 사찰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박영봉(朴永峯 석수1동 240-10 1921년생)

11 봉용사 (奉龍寺) 〈안양8동 342-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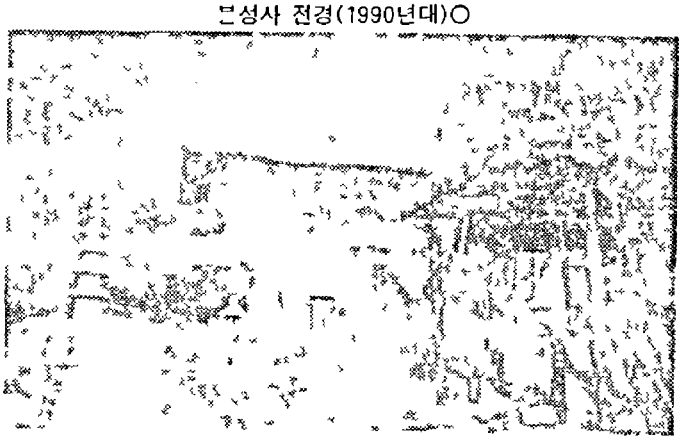
안양중앙병원 옆 약사사 위에 있다 풍수로 보아 용혈(龍穴)에 자리잡은 사찰이라 하여 '봉용사(奉龍寺)'라 칭한다고 한다 1985년에 창사되었으며 종파는 태고종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정암(淨岩)스님(안양8동 342-70 1932년생)

12 불성사 (佛性寺) 〈비산3동산1〉

관악산 소재 연주암에서 남쪽으로 약 1 2km 지점에 있다 종파는 태고종이다

통일신라시대 의상대사(義湘大師)에 의해 창사되었다 사찰측에 따르면 의상대사는 원효대사와 함께 이곳에서 10여년간 머문 후 당나라로 유학했다고 한다 그 후 조선조 선조 때 서산대사(西山大師 1520~1604)가 중창했고 이후 3자례나 화재를 당해 폐사된 것을 1960년대 부터 보수하기 시작해 1970년대 초에 현재의 모습대로 단장되었다 1986년 11월 16일 부처님의 진사리탑이 불자(佛子)들에 의해 건립되었다


불성사 전경(1990년대)○

'불성사(佛性寺)'란 사명은 불가에서 팔만대장경의 근본 요체를 불성(佛性)이라 칭하는데 유래하고 있다 불성사의 한자표기는 佛成 佛性 佛聖의 세가지가 있는데 음양오행설에 관악산은 불산(火山)으로 佛成寺는 화맥(火脈)이라 하여 화재가 심해 成을 性으로 고치어 쓴다고 한다 또 佛聖은 부처를 거룩하게 일컫는 말로 조선시대에는 佛聖이라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선조 때(1590) 우의정을 지냈으며 글씨와 문장이 뛰어났던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이 퇴관하고 비산동의 퇴로정(退老亭)에 은거할 때 이곳을 찾아 읊은 2수의 시가 전해지고 있다

- **참고문헌** 심수경 『정전당집』
  과잔군 『과잔군읍지』 1899 「안양상의보」 1973 10 15
  이희승 『국어대사전』 1981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공명감』 1990

● **도 움 말** 홍대봉(洪大奉)스님(비산동 산1 1949년생)

13 불암사 (佛岩寺) 〈비산3동 산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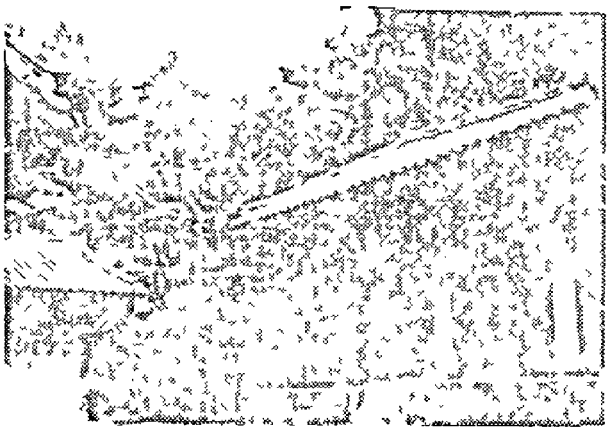
1980년에 창사된 사찰로 안양동초등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일신종인 이 절은 주지 스님이 과거 서울 정릉에 있는 불암사에서 수도했다는 연유로 '불암사(佛岩寺)'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정지봉(鄭冶峰 비산동 산184 1919년생)

14 삼막사 (三幕寺) 〈석수1동 산10~1〉

삼막사(1960년대)



안양을 대표하는 사찰로 연주암 염불암과 함께 관악 삼성산의 3내 사찰로 꼽히며 조선시대에는 서울근교의 4대 명찰 가운데 하나였다고 한다

이렇듯 이름난 사찰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문헌은 일전하다 『시흥읍지』 『시흥현읍지』 『경기지』 등의 문헌이 있으나 이들 문헌에는 삼막사가 삼성산에 있다는 사실외에는 별로 언급이 없다 다만 일제강점기의 문헌으로 『조선사찰사료(朝鮮寺刹史料)』가 있는데 오늘날 일반에 널리 알려진 삼막사의 사적은 대개 이 문헌을 인용하는 것이 상례이다 이책에 의하면 삼막사는 신라시대의 승려인 원효대사(元曉大師) 의상대사(義湘大師) 윤필거사(尹弼居士 潤筆居士)의 삼인이 창사했다 하여 '삼막사(三幕寺)'라 칭하고 산명 또한 '삼성산(三聖山)'이라 한다는 것인데 어떤 사서를 근거로 단정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러한 기록은 1771년에 설암(雪庵)이 지은 「삼성산삼막사사적(三聖山三幕寺事蹟)」에도 같은 내용인데 신빙성 여부를 떠나 이들 문헌은 중요한 자료임에는 분명하다

그러나 조선후기에 발간한 『동국여지지』금천현 사찰조와 『범우고』의 금천(衿川)조에 실린 삼막사 관련 기록에는 고려말의 지공(指空) 나옹(懶翁) 무학(無學)이 삼막사를 창건 하였으며 아울러 이 세분의 상(像)이 사찰에 봉안되어 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우며 「삼성산삼막사사적」의 내용으로 이

루어 볼 때 이들이 삼막사에 거주했던 사실이 창건주로 잘못 인식된 것이 아닐까 추측된다 여하튼 이 지역 일대의 여타 사찰에서도 원효 의상 윤필거사 또는 지공 나옹 무학 등 세 분의 성현과 얽힌 설화가 널리 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삼성산(三聖山)이라는 지리적 배경이 관계된 것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경남 양산(梁山)일대의 삼성산을 비롯하여 전국각지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전승 실화가 상당수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가운데 일부는 '3'이라는 숫자를 짜맞추기 위한 작위적인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창건 이후 삼막사의 연혁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앞서도 언급하였지만 근대 이전까지의 연혁은 「삼성산삼막사사적」이라는 자료에 의존할 수 밖에 없으며 근대 이후의 일부 역사는 『봉은본말지』라는 자료에 정리된 내용이 있어 큰 도움을 준다 『봉은본말지』는 1940년대에 편찬된 봉은사의 본 말사 사지(寺誌)인 것 같으나 현재 그 전체 내용은 알려진 바가 없으며 다만 『한국사찰전서(韓國寺刹全書)』 등에 인용된 내용을 통해 일부를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이들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간략한 연표를 구성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삼막사의 연혁

연 도	주요사항
677년(신라 문무왕 17)	원효 의상 윤필거사 등 세 분이 사찰을 창건함
신라말	도선국사(道詵國師)가 잡초만 무성하던 빈 터에 사찰을 중건하고 관음사(觀音寺)라 이름함 후에 도선국사의 문도들이 삼막사(三幕寺)라고 부름
1348년(고려 충목왕 4)	나옹선사(懶翁禪師)가 휴휴암(休休庵)에서 이 곳으로 거처를 옮겨 머무름
1349년(충정왕 1)	중국에 있던 지공(指空)스님이 제자인 나옹을 만나기 위해 이 곳에 찾아온 이후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선풍(禪風)이 크게 일어남
조선 태조대	나옹의 제자인 무학대사(無學大師)가 태조의 청으로 수도를 정하는 과정에 도움을 주었는데 이 때 동서남북의 각 방향에서 서울을 외호하는 4개 사찰을 선정하였으며 삼막사는 남쪽에 해당하는 사찰로 지정됨
1398년(조선 태조 7)	왕명에 의해 무학대사가 중창함 대웅전을 석조 기둥으로 바꾸어 중수함

연 도	주요사항
1407년(태종 7)	태종이 특별히 명을 내려 크게 중수함 불전(佛殿) 3동 요사채 5동 어실(御室) 1동 향각(香閣) 1동 누(樓)와 문 각각 1동 대(臺) 2곳 비와 탑 각각 1기 등을 이 때 신축하거나 보수하였으며 아울러 망월암(望月庵) 염불암(念佛庵) 망해암(望海庵) 등의 암자도 중수함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사찰이 거의 불에 탔으나 대웅전만 소실을 면함
1625년(인조 3)	범종을 조성하여 봉안함
1636(인조 14)	병자호란 때 적병이 산으로 들어오자 사중에 있던 무리들이 모두 도망갔으나 종변(宗卞)이라는 스님만이 두려움 없이 사찰을 지켰다고 함
1763년(영조 39) 1764년(영조 40)	화주(化主) 오심(悟心)과 시주 서세준(徐世俊) 등이 마애삼존불(磨崖三尊佛)을 봉안함 칠성전(七星殿)을 세움
1771년(영조 47)	삼막사에 있던 장노(長老)의 청으로 설암(雪庵)이 사적기를 지음
1880년(고종 17)	의민(義旻) 등이 화주가 되어 명부전(冥府殿)을 중건함
1881년(고종 18)	김주용(金周容) 김대용(金大容)이 재물을 내어 칠성각(七星閣)을 새롭게 건립함
1896년(고종 33)	응월대사(應月大師)가 화주가 되어 대웅전을 중건함
1905년	후불탱(後佛幀) 신중탱(神衆幀) 칠성탱 산신탱 현왕탱(現王幀) 독성탱(獨聖幀) 등의 불화를 대웅전에 조성함 명부전의 지장탱화를 조성함
1935년	주지 안원오(安元旿)스님이 대웅전과 망해루(望海樓)를 중수함
1936년	영산전(靈山殿) 명부전 산신각을 중수함
1939년	칠성각을 중수함
1973년	주지 이지환(李知幻)스님이 법당 요사재 누각 등 모든 건물을 중수하여 도량을 일신함
1975년	명왕전을 중수함 대웅전에 천불(千佛)을 조성하여 봉안함
1990년	화재가 발생하여 대웅전이 전소됨 이 때 법당내에 있던 불상 불화 등도 모두 소실됨 이후 새로운 주지 자승(慈乘)스님이 부임하여 대웅전을 육관음전(六觀音殿)으로 개명하고 중건함

* 자료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증서③』경기도 1993 35~36쪽

위의 연표에서 언급된 내용 가운데 일부는 역사적 사실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는 각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 작업은 생략하기로 하겠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사찰에 남겨진 자료는 사찰사(寺刹史)라는 특수한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즉 사찰의 창건과 관계된 각종 설화나 그 사찰에 거주했었다는 고승 등에 대한 내용은 사실 자체의 의미보다는 신앙사적 차원에서의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의 연표 내용으로 본다면 삼막사가 역사적으로 크게 부각되는 시기는 고려말 ~ 조선초에 이르는 기간이었던 것 같다 이 기간 동안 삼막사에는 나옹 지공 무학 등 당대의 고승들이 주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 곳에서 크게 선풍(禪風)을 떨칠 수 있었던 것이다 도한 태종의 지원으로 1407년에 이룩된 사찰의 중건은 삼막사 창건 이래 가장 대규모에 달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것 역시 태조와 무학대사의 관계 속에 부각된 사찰의 비중을 감안한 결과가 아닐까 한다 정확한 연도 추정은 어렵지만 삼막사가 일시적으로 중국 소주(韶川)의 삼막사와 비교되었다는 사실도 삼막사의 전통을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내용이 된다고 하겠다

■ 주요인물


원효 영정

삼막사의 창건 이래 이곳과 관계했던 주요 인물은 상당수에 이른다 하지만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일부는 사실 여부보다는 신앙사적인 접근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원효스님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에 원효스님이 창건하였다는 사찰수는 상당량에 달하며 이들 모두를 스님이 직접 창건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이처럼 원효스님의 창건이라고 전해지는 사찰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후대 불교인들이 한국 불교의 최고 인물인 원효스님을 창건주로 모시고 싶은 신앙적 열망의 한 표현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삼막사의 주요 인물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원효 의상 윤필거사 등 세 인물에 대한 상세한 서술은 피하고자 한다 다만 윤필거사의 경우는 반드시 삼막사와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인물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에 관해서는 어떠한 내용의 기록도 전해지는 것이 없지만 의외로 원효 의상스님과 함께 '삼성(三聖)'의 대열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이 발견되기 대

문이다 일례로 부산 선암사에 있는 원효스님 영정에도 오른쪽에는 의상 왼쪽에는 윤필거사가 나란히 앉아 있는 내용의 그림이 그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전국에 윤필암(潤筆庵)이라는 이름의 암자도 여러개 있다 물론 윤필(潤筆)이라는 단어 자체는 인명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도 있지만 앞으로 보다 세밀한 자료 조사와 연구를 통해 그의 불교사적 위치를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면 삼막사와 관계했던 몇몇 주요 인물들에 대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

• 도선국사

「삼성산삼막사사적」에는 신라말 도선스님이 이 곳에 와서 잡초만 무성한 절터에 사찰을 세우고 관음사라 하였다는 내용과 그 문도들이 중국 소주의 삼막사와 지리적 여건이 흡사하므로 이 사찰의 이름을 삼막사로 부르기로 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물론 사적기의 자료적 성격상 이들 내용을 정확한 사실로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삼막사가 이후 조선시대에도 풍수지리적 조건으로 주목받았던 점을 감안한다면 도선스님과의 연관성은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도선은 827년 탄생하였으며 영암지역 출신으로 김씨(金氏)였다 그의 자세한 가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으나 일설에는 왕족의 후손이라는 설도 있다 15세에 출가 하였으며 846년 동리산(桐裏山) 혜철(惠徹)스님을 찾아가 법문을 듣고 밝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850년 전도사(穿道寺)에서 구족계를 받은 뒤 운봉산(雲峰山) 태백산 등지에서 수행을 계속하였다 그러다가 전남 광양의 옥룡사(玉龍寺)에 거처를 정하고 후학들을 지도하였는데 그의 문하에는 언제나 수백 명의 제자들이 모여있었다고 전한다 한때는 그의 명성을 전해들은 헌강왕(憲康王)이 궁궐로 초청하여 법문을 듣기도 하였다 898년 72세의 속랍으로 입적하자 효공왕은 요공선사(了空禪師)라는 시호를 내렸고 제자들의 주선으로 옥룡사에 징성혜등탑(澄聖慧燈塔)을 세웠다 이후에도 고려 숙종은 대선사(大禪師)와 왕사(王師)로 추증하고 인종은 선각국사(先覺國師)라는 시호를 각각 내렸다 아울러 의종은 그의 비를 다시 세우도록 하였다

도선스님은 승려의 측면보다는 한국 풍수지리학의 창시자로 더 알려져 있다 그가 어떻게 해서 풍수지리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 가를 알 수 없으나 중국의 대표적 밀교 승려인 일행(一行)스님으로 부터 전수받았다는 설도 전한다 하지만 이것은 두 인물의 생존 연대가 서로 맞지 않아 믿을 수 없다

여하튼 도선스님의 음양 풍수지리는 고려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을 만큼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특히 고려 태조는 직접 스님을 접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훈요10조〉에 도선스님이 창건한 사찰 이외에는 사찰 창건을 금하도록 당부할 정도로 크게 존경하였다 흔히 비보사찰(裨補寺刹)로 불리우는 도선 창건 사찰은 상당수에 달하며 아마도 삼막사의 경우도 비보사찰로 인식되기 위한 측면에서 도선과의 연관성을 강조한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도선스님의 저술로 알려진 것으로는 『도선비가』 『송악명당기(松岳明堂記』 『도선답산가(道詵踏山歌)』 『삼각산명당기(三角山明堂記)』 등이 있다

• 무학대사

무학대사 영정



무학스님과 삼막사의 관계도 역시 「삼성산삼막사사적」에 전하는 내용이 유일한 상태이다 이에 의하면 조선 태조는 지리학에 능통했던 무학스님을 궁중으로 초정하여 수도를 정하는 과정에 자문을 받았는데 스님은 한양의 지세(地勢)를 누르고 보호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의 네 곳에 사찰 건립을 건의하였다는 것이다 삼막사는 바로 이 때에 남쪽의 지세를 담당하는 사찰이 되어 무학스님에 의해 중창되었다 태조와 무학의 관계 또한 도선스님과 삼막사의 관계 등을 고려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설득력있는 내용으로 생각된다 즉 도선 무학 등의 스님은 풍수지리에 관련된 관계 자료가 많은 상태이고 이들에 의해 중창된 사찰이라면 대부분 풍수지리적 입지 조건이 빼어난 곳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태조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무학스님이 지리적 조건을 배경으로 삼막사의 중창을 도왔다는 부분은 역사적 사실에 근접한 내용으로 보고 싶다 그러면 무학스님의 간략한 생애를 살펴보기로 하겠다

스님은 1327년 탄생하였으며 성은 박(朴)씨 호는 무학 당호는 계월헌(溪月軒) 법명은 자초(自超)였다 현재 경남 합천군 삼가면에 해당하는 삼기(三崎) 출신으로 인일(仁一)이라는 분의 아들이다 1344년 출가하여 혜명국사(慧明國師)의 밑에서 수학하며 부도암(浮屠庵)에 머물렀다

1346년 『능엄경』을 읽다가 깨우친 바가 있었으며 이후 길상사(吉祥寺) 금강굴(金剛窟) 등에서 수행에 전념하였다 1353년에는 원나라에 건너가 지공(指空)스님에게 도를 인정받았고 이듬해 나옹(懶翁)스님을 만나 서로의 도를 시험해 보기도 하였

다 1356년 귀국한 스님은 곧이어 나옹스님도 귀국하자 1359년 다시 찾아가 나옹으로 부터 법맥을 전수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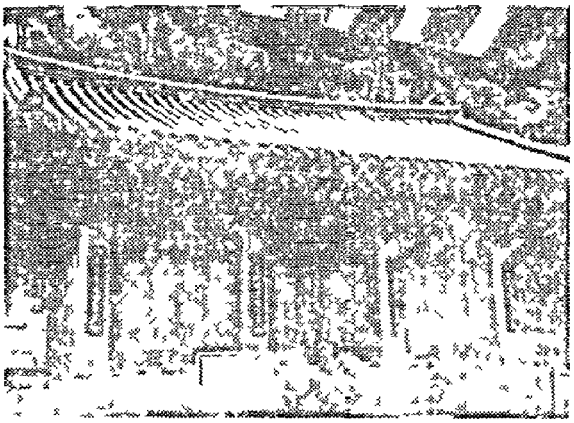
이후 1371년 나옹이 왕사로 책봉되어 송광사에 머무를 때 무학스님에게 의발(衣鉢)을 전수하기도 하였다 1376년 나옹스님이 입적하자 그는 전국의 명산을 돌아다니며 자취를 감추었고 공양왕이 왕사로 삼고자 하였으나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1392년 태조가 스님을 왕사로 책봉하였다

태조와 스님에 관계된 일화는 상당수 전하는데 태조의 꿈을 해명하여 준 일이라든가 한양으로의 전도와 관련된 풍수설화 등은 특히 유명한 이야기이다 왕사에 오른 이후 회암사 용문사 진불암 금강암 등에서 머무르던 스님은 1405년 나이 78세 법람 62세로 금강암에서 입적하였다 현존하는 저서로는 『불조종파지도(佛祖宗派之圖)』가 있으며 『인공음(印空吟)』 『무학대사어록(無學大師語錄)』 등은 전하지 않는다 또한 스님의 풍수지리와 관련한 설화를 입증하듯 『무학비결(無學秘訣)』이라는 필사본이 전하고 있으나 스님의 저술로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편 삼막사와 관계했던 주요 인물은 상당수 더 있으나 이들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전하지 않아 상세한 서술이 어려운 상태이다 특히 조선시대에 삼막사에 주석했던 종변(宗卞) 의민(義旻) 등의 스님은 불교사적 위치도 상당했을 것으로 추측되지만 자료가 없어 아쉬움을 더한다 의민스님은 조선 중기 보경사(寶鏡寺)를 중심으로 활동했던 또다른 의민스님(1710~1792)과 한자까지 똑같지만 동명이인임이 분명해 보인다

■ 문화재

삼막사 대웅전(1980년대)



역사가 꽤 오랜 삼막사에는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문화유산들이 상당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현존하는 당우와 불상 불화 등은 모두 근대 이후에 속하는 것들이다 특히 1625년에 조성되었던 범종은 조선 중기의 범종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평가되던 것인데 지난 1990년의 화재 때 불타버리는 안타까움을 겪기도 하였다 현재 삼막사는 지난 화재 때 입은 상처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여기서는 현존하는 몇 가지 자료에 대하여 상술하고자 한다

• 대웅전(육관음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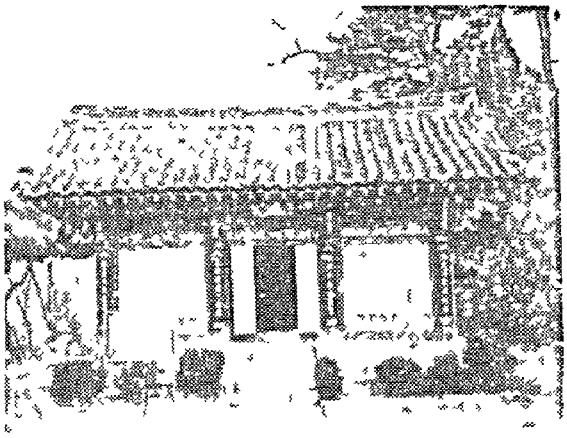
삼막사 대웅전은 조선 후기 건축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던 목조 건물이었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난 1990년의 화재로 인하여 대웅전 전체가 소실되었으며 법당 내부에 있던 각종 불화와 범종(일명 해동종이라고 하였음) 등도 함께 불타버리는 안타까움을 겪었다 현재는 대웅전을 육관음전이라고 개명하여 불상 봉안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태이다 여기서는 비록 현존하는 건물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물의 옛모습을 되돌아 본다는 의미 그리고 육관음전의 내력을 정리한다는 의미에서 옛 대웅전의 면면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대웅전은 신라 때 건축되어 조선 초기에 무학대사가 중건하였다고 전한다 그러나 최근까지 남아있던 대웅전은 조선후기 양식에 속했으며 석조(石造) 기둥이 무학대사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측한 바 있다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 그리고 좌우에 방풍관이 있었던 이 건물의 전체적인 규모는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정면 936cm 측면 659cm의 그다지 크지 않은 규모를 가지고 있다 법당 구조를 좀더 상세히 살펴보면 우진각 지붕 단청 다포계양식(多包系樣式)의 건물로 공간포가 1조(組)씩 배치되어 있었으며 4단의 장대석(長臺石) 기단 위에 다듬어진 4각 초석을 놓고 그 위에 8각 석주(石柱)를 세운 형태였다

대웅전 안에는 1905년에 조성된 후불탱화 신중탱화 칠성탱화 산신탱화 현황탱화 독성탱화 등각종 불화와 대준제(大准提)보살상 전불상 등의 불상 그리고 1625년에 제작된 동종(銅鐘) 등이 있었으나 화재 발생 때 모두 소실되었다 현재는 대웅전 자리에 육관음전이 새로 건축되었으며 내부에 봉안할 육관음상과 탱화가 제작되었다

• 명왕전

삼막사 명왕정(1994)○



육관음전 앞뜰의 서쪽에 자리잡고 있으며 명부전(冥府殿)이라고도 한다 1880년에 의민(義旻)스님이 건립하고 1975년에 이르러 중수하였다는 기록이 전한다

잘 다듬은 장대석(長大石)으로 2단을 겹져 죽대를 쌓았으며 높은 화강암 주초석으로 기둥을 받치고 있어 기초를

튼튼하게 구축하였다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에 한식 골기와를 얹었으며 좌우에는 방풍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문살을 일부 보수하였을 뿐 다른 부재는 원형을 잘 보존하고 있으며 총 10 3평에 달하는 면적이다 내부에는 지장보살 도명존자 무독귀왕 지장시왕 등의 불상이 봉안되어 있고 1905년에 제작된 지장탱화도 있다

• 마애삼존불상

삼막사 경내에서 서북쪽으로 약 700m 거리에 칠성전(七星殿)이 세워져 있으며 칠성전의 내부에 마애삼존불상이 봉안되어 있다 이 삼존불은 1763년이라는 조성 연대가 뚜렷하여 조선 후기의 불상 및 조각연구에 있어 귀중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기도 하다 특히 칠성신앙의 본존불인 치성광여래와 협시보살인 일광 월광보살로 이루어진 삼존불은 불화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양식이지만 이처럼 마애불상으로 치성광삼존 불상이 조각되어 있는 경우는 유례를 찾기 힘들어 매우 귀중한 작품이라고 하겠다

이 삼존불상은 화강암의 자연암벽에 양각한 좌상 형태이다 높이 약 200cm 너비 약 250cm의 반원형 감실에 150cm의 본존불과 93cm의 협시 보살을 조각해 놓은 것으로 전체적인 선이 투박하고 윤곽 또한 세련되지 못한 작품이며 얼굴의 일부는 파손되어 시멘트로 보수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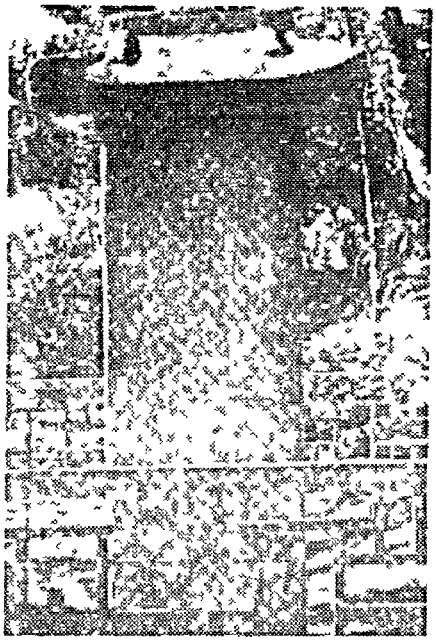
• 3층석탑

이 탑은 육관음전 왼쪽 축대 위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높이는 약 255cm에 달한다 지방유형문화재 제112호 일설에는 고려 고종19년 1232년 김윤후(金允侯)스님이 몽고군 장수 살리타이를 화살 하나로 쓰러뜨린 기념으로 이 탑을 세웠다는 내용이 구전으로 전하지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이다 아울러 탑의 위치도 원래부터 세워져 있던 곳일까 하는 의문이 남는다 현재 탑의 모습은 1979년에 중수하면서 일부 보수된 것이다

탑 기단부의 하층 기단저석과 중석(中石)은 4매의 장대석으로 구성되었고 갑석(甲石)은 2매의 판석으로 이루어졌다 상층 기단의 면석은 4매석으로 이루어졌는데 모서리에 우주의 표시가 보이고 갑석은 한 귀퉁이가 깨져 있는 상태이다 탑신부는 탑신과 옥개석이 각 1매로 조성되었으며 옥개석의 낙수면은 경사가 완만한 편이고 옥개석 받침은 각기 3단씩이다 탑의 규모는 그다지 큰 편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유지하고 있는 고려시대 석탑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 삼막사사적비

사찰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있으며 비대(碑臺)가 거의 땅에 묻혀 있어 윗면만 드러나 있는데 별다른 꾸밈이 없는 방형의 대석이다 목조건축의 괄작지붕 형태인 개석에도 기왓골 등의 꾸밈이 가해지지 않은 경범한 모습이다 비문의 전재 내용은 마모가 심하여 관독이 불가능한데 강희(康熙)46년 즉 1707년이라는 건립 연대를 알게 하여주는 명문이 관독되었다고 한다



삼막사 사적비(1990년대)○

하지만 설암(雪庵)이라는 분이 지은 「삼성산 삼막사사적」은 1771년을 그 작성 연대로 밝혀 있어 의문이 남는다 즉 사적비의 수록 내용으로 보이는 설암의 글이 작성된 시기와 사적비의 건립 연도가 서로 맞지 않아 혼선을 빚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한 비문 관독 등의 작업이 이루어진 이후에 정확한 해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남녀근석

바위편「남녀근석」바위 참조

삼막사에 관한 문학작품으로는 조용만(趙容萬)의 「삼막사」가 있다 (『사상계』 1957년 4월호에 게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이다

• **참고문헌** 설암 「삼성산 삼막사사적」 1771
시흥군 『시흥군읍지』 1899 안진호 『조선사찰일람』 1935
『조선문단』 1935 5 『사상계』 1957 4
『조선사찰사료』 1972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1973 11 15
『법륜』 1975 10 권상노 『한국사찰전서』 1979
국제불교도 협의회 『한국의 명산대찰』 1982
이고운 『명산대찰을 따라』 1982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종서③』경기도 1993 33~45쪽

• **도 움 말** 이지환(李知幻)스님(안양5동 1088-4 1935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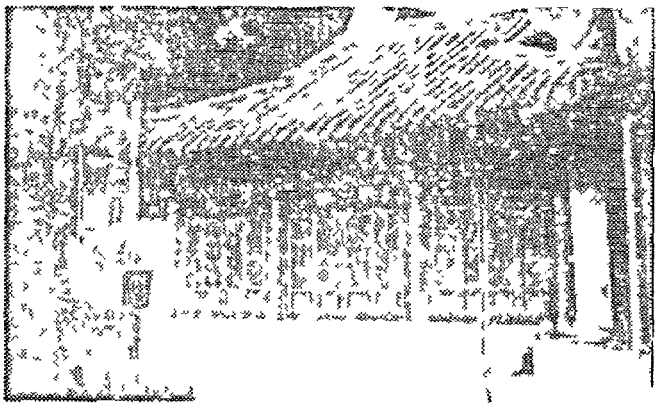
15 삼성사 (三誠寺) 〈비산동 산183-3〉

대림공전 북쪽 약 1 100m 지점에 있다 삼성사(三成寺)의 3은 과거 미래 현재를 뜻한다 구전에 따르면 이곳에서 50m 떨어진 곳에 동굴이 하나 있는데 신라 문무왕 때 원효대사가 머물며 부처님께 정성을 드린 후 삼성산에 올라가 삼막사를 창건했다고 한다 원효종으로 1954년에 창건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송학(松鶴)스님(비산동 산183-3 1937년생)

16 상불암 (上佛庵) 〈석수1동 산4〉

상불암(1990년대)○



망월암에서 위로 조금만 넘어가면 그곳에 절벽을 기대인 양 자리잡고 있는 작은 암자가 있으니 이것이 바로 태고종 산하의 상불암이다

높은 산봉에 자리잡은 사찰이라 하여 '상불암'(上佛庵)이란 사명(寺名)이 붙여졌는데 절 입구에 조그마한 화전(火田)이 있어 주승(主僧)의 근검을 짐작하려니와 이 암자에는 일찌기 화성군 봉담내리(峰潭內里) 정궁(淸宮) 출신 홍선관(洪仙官 본명 洪秉燃 兒名 洪大直 號 雲林 法名 陀高 仙官)이란 분이 충북 박달산(朴達山) 출신 지선녀(池仙女)와 함께 1914년 3월 3일 부터 이곳 자연동굴(상불암 법당내에 있는 동굴) 속에서 수도하다가 1918년 3월에 자연동굴과 연결된 현재와 같은 위치에 법당을 짓고 상불암이라 명명하였다

창건주 홍선관은 1856년 남양 홍씨 관중추파 제15대 손인 홍익현(洪益憲)과 인동 장씨 사이의 2남중 장남으로 태어나 14세 때(1870)에 출가 입산하여 금강산 묘향산 등을 찾아 수도하던 중 1899년 3월에 득도(得道)하고 49세 때(1905) 충북 박달산에서 수도 중이던 지선녀와 결혼하였다

1932년에 법당을 중창하고 이해에 지선녀가 59세로 입적했으며 1934년에 요사채 6칸을 중창하고 이해 4월 19일에 홍선관이 78세로 입적했다

이곳은 1928년 『정감록』의 도참설을 혹신(惑信)하던 전 태을교도(大乙敎徒) 홍순택(洪淳澤)이 『정감록』에 「己年己月己日己時」에 해당하는 1929년 4월 16일 10시에

성인(聖人)이 나와 도술로서 왜놈들을 우리나라에서 몰아내고 새 왕국을 건설하여 신미(辛未)년에는 즐거움이 집집마다 충만하게 되는 세상이 열리는데 그 성인이 바로 홍선관이며 홍선관은 하늘이 보낸 선관(仙官)이니 반드시 우리나라의 실권을 회복할 것이라는 논리 아래 그를 따르던 전 태을교도와 평안도 지역의 동학도인(東學道人) 75명이 상불암에 모여 홍선관의 등극 준비를 위해 순금으로 옥쇄를 주조하고 곤룡포와 면류관 등을 만드는데 이에 자금이 달리자 홍순택씨가 용인군 이동면 송전(松田)에서 땅굴을 파고 사전(私錢)을 밀조하여 충당하려다 왜경의 앞잡이 이(李) 모가 왜경에게 밀고하여 가담자들이 체포되므로서 이 사건은 무위로 끝나고 말았는데 주모자 홍순택은 장성으로 피신하였고 홍선관은 관할서인 영등포경찰서에 구속되었으나 혐의 사실이 없어 곧 석방되었다

일설에는 홍선관의 저 지선녀가 명기(名妓)출신이라는 설도 있는데 이규태의 「인맥(人脈 39 조선일보 1969 9 18)」에는 지선녀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일제 때 이 명기(지선녀)는 요염하기로 이름이 나 경수간(京水間)의 갖은 오입장이와 접하였고 속칭 천석군 천명을 녹였다 할만큼 분방하였다고 전한다 그래도 잉여된 애욕을 가는 길이 없었던 그는 어느 하루 한 도승(홍선관)을 찾아가 그 애욕이 충족될 길을 물었다 분 속에 불을 던지면 불은 본다 크게 타 오르지만 던져진 불은 없어진다면서 불(火)산인 삼성산에 입산하면 애욕의 불을 불산에 옮아 타고 자신의불은 그 큰 불속에없는 것이 된다 하였다

이 명기는 그 많은 가산을 정리하고 삼성산 절벽 밑 동혈에다 초막을 짓고 입산 하였다 그곳은 역시 불산인 관악의 주봉이 맞 바라보이는 화택(火宅)이었다 그는 그곳에서 자기가 먹을 만큼만 화전을 가꾸고 살았다 도구라고는 가야금과 장고와 호미 한 자루-

일제말 그 동혈의 맞바라지인 망월암에 살았다던 한 스님을 필자(이규태)는 만난 일이 있다 상불자(上佛子)라 법명을 삼은 이 기생은 통곡도 하였고 밤세워 기성을 지르는 일도 있었으며 처량한 금소리에 자신의 수도가 크게 시련 받기도 하였었다고 말하였다 그런 소리들은 한 여인이 그의 불(情欲)을 큰 불속에 콩볶 듯 달달 볶아 무화(無化)하려는 그런 과정의 시련에서 나온 것일게다 그는 크게 잊는 공(空)의 경지를 풍수가 유도한 대로 살았다 광복 직후까지 그곳에 살았던 것을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며 그가 수도한 곳은 지금 상불암으로 초라하게 남아 있다 지금도 그 근처를 파보면 이 상불자(上佛子)가 밥지어 먹은 재가 나온다고 한 보살이 말해준다

상불암은 김동인(金東仁)의 『운현궁의 봄』을 비롯하여 「전설따라 삼천리」 등에 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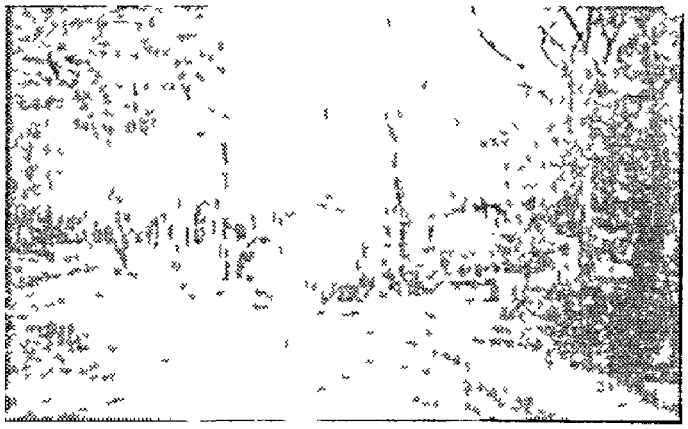
리 소개되기도 했는데 특히 서경보(徐京保) 스님이 지은 『불교설화-일붕단편집(佛敎說話-鵬短篇集)』의 「환화(幻花)」는 상불암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이규태 「조선일보」 1969 9 18
  상불암창건주문중회 「상불암자료철」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최성원(崔性源)스님(석수1동 산4 1950년생)

17 수도사 (修道寺)

〈석수1동 산241-40〉

수도사 경내(1990)



「기아의 집」(구 안양관광호텔) 위에 있는 시찰로 종과는 도덕회에 속해있다 이 사찰은 신라시대의 고승인 원효대사 의상대사 윤필거사 등 삼사가 이곳에서 3년간 노천참선(露天參禪)을 하며 수도하던 곳이라 하여 '수도사(修道寺)'라 하였다 사찰측에 따르면 1942년 현재의 사찰을 지을 때 토막사(土幕寺)라 암각된 바위가 출토되었는데 무지한 석공(石工)이 쪼개 없애 버렸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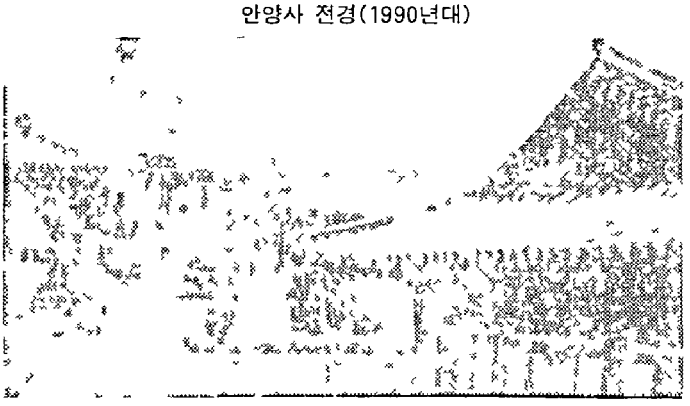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고정인(高正印)스님(석수1동 산241-10 1917년생)

18 안양사 (安養寺)

〈석수1동 산41〉

안양유원지 입구에서 북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본래의 안양사는 이곳에서 동북쪽에 있었다 현재의 사찰은 1950년에 창건되었다 대한불교태고종 사찰로 안양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안양'이란 지명이 이 사찰명에서 유래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안양지역에서 안양사의

안양사 전경(1990년대)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가늠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안양사에 관하여는 비교적 정확한 자료가 전해진다 즉 이숭인(李崇仁 1349~1392)의 「금주안양사탑중신기(衿川安養寺塔重新記)」인데 그 내용을 옮겨 보기로 한다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것은 한(韓)나라때 축법란(竺法蘭)이라는 중이 전도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드디어 온 천하에 퍼지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중 아도(阿道)로 브터 시작하였으니 실로 신라 때의 일이다 불교는 그 설이 굉장하고 분방하며 활대(浩大)하다 또 화복의 설로써 능히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다 그런 까닭에 천하 사람들이 다 귀의하게 된나 비록 영명한 임금과 충의한 신하라 할지라도 가끔 크게 절을 지어 불교를 신장 시킨다

대개 국가를 위하여 그 복리를 희구(希求)하는 것이니 또한 군자의 마음쓰는 것이 심후하다고 하겠다 우리 태조(王建)가 처음 나라를 세웠을 때 부처가 비보(裨補)한다는 설로써 간여하는 자가 있어서 자못 그의 말을 채용하여 탑과 불묘를 많이 두었다


최영 영정

지금 금주 안양사(衿川 安養寺)의 탑같은 것도 그 중의 하나이다 자은종사 양가도승통 임공(慈恩宗師 兩街都僧統 林公)이 내게 와서 나에게 말하기를 안양사 탑은 태조가 세운 옛 것입니다 벌써 무너졌으므로 문하시중 철원부원군(門下侍中 鐵原府院君) 최공 (崔公) 최영(崔瑩 1316~1388)이 지금의 주지 혜겸대사(惠謙大師)와 더불어 개수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혜겸은 나의 제자입니다 나를 통하여 선생님에게 글을 요구 하였습니다 그 자세한 것은 혜겸이 반드시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하였다

이튿날 혜겸이 왔는데 그가 말하기를 혜겸이 이 절에 머문 지가 몇해 되었습니다 절의 유래를 상고해 보니 옛적에 태조께서 장차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복할 참이었는데 여기를 지나다가 산 꼭대기에 구름이 다섯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루었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사람을 시켜 가 보게 하였더니 과연 늙은 중을 구름 밑에서 만났는데 이름을 능정(能正)이라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말해보니 태조의 뜻에 맞았습니다 이것이 이 절을 짓게 된 유래입니다 절 남쪽에 있는 탑은 벽돌로 7층을 쌓았고 기와로 덮었습니다 맨 아래층에는 빙 둘러서 12칸(間)의 회랑(廻廊)을 만들고 벽마다 불(佛) 보살 인천(人天)의 상을 그렸으며 밖에 난간을 만들어 출입을 제한하게 하였습니다 그 크고 화려함이 다른 절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에 바람에 깎이고 비에 씻기어 거의 기울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혜겸이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슬프게 여겨 진실로 다시 세우고자 한 것이 오래였으나 힘이 부족하였습니다

신유년(1381) 7월에는 시중(侍中)최공(崔公)을 뵈옵고 이 이야기를 하였더니 공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젊었을 때 일찌기 한번 탑 아래서 기숙한 일이 있었다 우러러 태조가 이 절을 처음 경영하심을 생각하고 나 스스로 맹세하기를 신(臣)이 뒷날 영달하고도 이 탑을 새로 세우지 않는다면 하늘에 계신 신령이 내려다 보시리라고 하였었다 이제 지위가 모든 동료들의 위에 있으니 영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나는 나의 맹세를 저버리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하고 즉시 양광도 안렴사(楊廣道 按廉使)에게 통첩을 보내어 군조를 털어서 그 비용에 충당하고 장정들을 징집하여 그 공사를 집행하게 하였습니다 혜겸은 주머니를 기울이고 시주들의 희사를 모아 쌀과 콩과 돈과 베를 모두 얼마만큼 마련하였습니다

또 놀고 있는 혜겸같은 자 약간 명을 청하여 왔습니다 공사를 시작하기는 이해(1381) 8월의 어느 길일(吉日)이며 일손을 끝기는 9월의 어느 길일이었고 낙성식을 거행한 것은 10월의 어느 길일입니다 이 날은 전하(우왕)께서 내시 박원계(朴元桂)를 보내어 향(香)을 내리고 승려 천명으로서 성대하게 불사를 올리고 사리 열 두개와 불아(佛牙) 한개를 탑 속에 안치하는 의식을 마치었습니다

시주를 마친 각계의 인사가 무려 3천명이나 되었습니다 거기에 단청을 장식한 것은 임술년(1382) 2월이고 거기에 상(像)을 그린 것은 계해(癸亥)년(1383) 8월이었습니다

사벽(四壁)에는 동에는 약사회(藥師會) 남에는 석가 열반회(釋迦涅槃會) 서에는 미타극락회(彌陀極樂會), 북쪽은 금강신중회상(金經神衆會像)을 그렸으며 회랑12칸에는 벽마다에 상 하나씩을 그렸으니 소위 십이행연불(十二行年佛)이란 것입니다

무릇 일을 맡아 본 역군이 4백여명이며 백미가 5백 95석 콩이 2백석 베가 1천1백 55필이 쓰여졌습니다 아 이것은 막대한 비용이며 거대한 공사였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 우리 최시중공(崔侍中公 崔瑩)께서 발원하기를 맹세한 소치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최공(崔公)은 오직 국가의 복리를 희구할 뿐입니다 어찌 사사로 자기 한 몸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러한 훌륭한 일을 후세에 전하기를 꾀하려면 글로 써 놓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원컨데 선생께서 글로 기술하여 주십시요 하였다

나는 아직 불교에 들어가 본 기회가 없었으니 어찌 감히 말할 것이 있겠는가 그러하나 나는 역사의 기록을 맡은 관원으로 무릇 흥작(興作)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적는 것이 직분이다 하물며 이 탑에서 성조(聖祖)와 현상(賢相)의 두터운 마음 씀을 볼 수 있음에랴 이것을 글로 적을 뿐이다 하였다

이후의 중건 사실 등은 전혀 찾아볼 길이 없고 안타깝게도 언제 폐사되었는지 조차도 알 길이 없다 안양사 측에 따르면 현 안양사를 1950년에 창건할 때 절터를 닦다가 '安養寺'라고 음각한 향로가 출토되었는데 안양사 경내에서 전덕꾸러기 자식처럼 굴러다니다가 1980년대 초에 자취를 감추었다고 한다

고려 명종조에 시인으로 문과에 급제했으나 벼슬에 뜻이 없어 관직에 오르지 않고 초야에 묻혀 시작(詩作)에만 전념한 김극기(金克己)가 일찌기 안양사를 찾아 읊은 시 한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을 소개한다

안양사(安養寺)

김극기(金克己)

긴 다리를 지나
감색 불궁(佛宮)에 이르니
조촐한 놀이가 다행히
부처 있는 곳과 함께 했다

푸른 못에는 교교하게
가을 달이 잠겼고
붉은 잎사귀에는
쓸쓸하게 밤 바람이 분다

불사(佛社) 안에는 일찌기
사객(謝客)을 용납하지 않았고
시냇가에서 다행히
도옹(陶翁)을 맞이 한다
서로 이끌어 웃음을 띄며
돌아가기를 늦추는데
지는 해가 서쪽에 넘어가니
재(嶺)가 반쯤 붉다

파리한 말 몰아
서울을 지향하다가

우연히
안양사에 들어 유숙한다

새벽 닭이 처음으로
소리 치는데
데운 밥 먹고
그윽한 골에서 나온다

조각달은 옥 고리처럼
나즈막하고
성긴 별은
금 좁쌀을 흩은 듯하다

깊은 골짝 길은
성난 뱀이 오듯
꾸불꾸불
3백 굽이여라

시냇물 얼음되니
새로 흰 것이 보태였고
잿마루에 그름끼니
본디 푸름이 없어졌다

여윈 말은
고슴도치 털처럼 까칠하고
파리한 아이는
거북이 등처럼 옵추린다

내 본디
풍진 바깥 사람으로서
평생에

얽매임이 적었다

십년 동안
산림에 놀 제
건구로서
사슴을 좇았네

문득 조물(造物)의
속임을 만나
내 한가함을
오로지 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명리(名利) 속에서
천리 길
행역(行役)이 괴롭구나

어느 때나
인패를 던지고
완적(阮籍) 이 궁도에서
울던 곡 면하리

또 조선시대의 시작품으로는 『용재총화』와 『악학궤범』의 편저자인 성현(成俔 1439~1504)의 칠언고시(七言古時)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양사에서 자고 다음날 앞 시내에서 고기를 잡으며 남행하는 기지를 보내며(宿安養寺翌日捕魚前溪送者之南行)

성 현(成 俔)

달을 짝해가서
안양루에 올랐다가
벗을 전송하며

또 맑은 시내에 가 노니네

풀밭에 여윈 말을
올라고 흩어 놓고
조그만 흰 차일(遮日)을
나루터에 치누나

행인을 만나는 족족
그대 행차 물었지
오늘 새벽
한강 정자를 떠났더냐고
묻득보니
종녀석이 저는 나귀를 몰며
저고리 바람으로 거문고 메고
어깨를 들먹이며 오누나

짚신신고 야복(野服)입은
소년하나
맨 끝에 오는데
자네지 뭐야
만나 한번 읍(揖)하고
한바탕 웃음
잡방이
맨다리로 물에 철버덩

그물보니 퍼덕이는
은린 옥척들
비늘떼고 회로저며
수초로 양념

훼예가 분분하고

벼슬할 마음 적으니
강산에 돌아갈 뜻
안 저버리네

(城中)에 술 금하기
도둑 금한 듯
저자의 놀이꾼도
취객도 드무니

한 잔으로 보내는 이
몇 사람인고
물려 앉어 기쁨 것
갓 젖겨지네

그대 이제 남으로 가면
언제 돌아오리
검은 구름
봄 나므가 멀기도 한데

임원(林園)에 경독(耕讀)타가
틈이 있거든
새 시를 월축(月軸)에 써서
자주 보내소

전술한 바와 같이 현재의 사찰은 1950년에 창사되었다 그 뒤 1968년에 대웅전을 짓고 심검당 삼성각 종각 등을 차례로 지었다 절은 현재 대웅전 천불전 명부전 삼성각 심검당으로 이루어졌다 대웅전은 목재와 콘크리트 조합건물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다 안에는 석고삼존불과 아미타후불탱화 삼장탱화 신중탱화 산신탱화 칠성탱화 범종을 봉안하였다

천불전은 정면3칸 측면1칸으로 석고전불상을 모셨다 명부전은 정면 3칸 측면 1칸으로 절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이다 지장삼존상과 관관 사자 인왕 동자상 지장

탱화 명부시왕도 등을 봉안하였다

삼성각은 정면1칸 측면1칸으로 산신 칠성 독성을 각각 불상과 탱화로 모셨다 삼성각 왼쪽에는 머리에 2단의 갓을 쓴 석조미륵불상이 있다

• 안양사귀부



안양사 귀부(1990년대)

안양사 경내에 소재한 거북형상의 비석 받침돌이다 높이1m 길이3m 너비2 18m 원래 안양사 뒷산에 일명 거북골이라는 곳에 있었으나 지금 안양사 법당 앞에 옮겨져 있다 이 탑비는 비신(碑身)과 이수가 없어지고 귀부만이 남아있어 어떤 내용의 비가 세워져 있었던가를 알 길이 없다 다만 『동국여지승람』 금천현(衿川縣)조에 들어있는 내용 즉 '사찰남쪽에 고려태조가 세운 7층 벽돌탑이 있고 김부식(全富軾)이 지은 비명이 있지만 글자는 빠져있다'는 것으로 볼 때 김부식에 의해 지어진 비문의 내용이 새겨져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비의 지대는 몇개의 장대석(長臺石)으로 구축되어 있고 괴대와 귀부는 하나의 돌로 이루어져 있다 두겹의 선으로 육각형의 귀갑문(龜甲文)을 정연하게 구획지어 배치한 귀부 정상 중앙에 방형의 비좌(碑座)를 설정하고 비좌의 네 면을 연꽃무늬로 장식하였다 똑바로 세우고 있는 거북 머리는 용의 머리모양으로 쫑긋한 두 귀와 불거진 눈 주름잡힌 코 쭉 찢어진 입 등을 매우 사실적이고도 생동감있게 표현하였으며 목에는 일곱겹의 굵은 선이 새겨져 있다 정확한 조성연대는 알 수 없지만 사실적인 세부 묘사 무늬의 도식화 등 전체적인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 때 제작된 작품으로 평가된다 경기도유형무화재 제93호

• 참고문헌 이승인 「금주 안양사탑중신기」 『도은집』
서거정 『동문선』 노사신 『동국여지승람』 금전현 불우조
권상노 『한국사찰전서』下 1979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 -198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종서3』 경기도1 1993 46~49쪽

• 도 움 말 박해송(朴海松)스님 (석수1동 산41 1921년생

19 안흥사 (安興寺) 〈안양2동 산5〉

안양유원지 남쪽 산 등성이에 있다 충남 공주출신의 비구니 방보성(方普聖)스님이 법주사 수정암에서 득도한 후 여러 사찰의 안거(安居)를 거쳐 1965년에 이곳에 자리를 잡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을 위한 기도도장(祈禱道場)이란 뜻으로 '안흥사(安興寺)'라 칭하였다 고려 때(926) 창건한 안흥사(현 염불암)와는 동명이찰(同名異刹)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의 비구니(比丘尼) 수도장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정수현(鄭修賢)스님 (안양2동 산5 1940년생)
  - * 정수현스님이 백년암의 주소와 같은 것은 두곳의 주지를 겸했기 때문임

20 약사사 (藥師寺) 〈안양8동 342-68〉

안양 중앙병원 아래에 있는 사찰로 경기도 성남시 은행동 소재 약사사의 말사(末寺)로 약사여래불(藥師如來佛)을 봉안한다 하여 '약사사(藥師寺)'라 칭한다 1975년에 창사되었고 종파는 법화종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윤덕기(尹德基 안양8동 342-68 1938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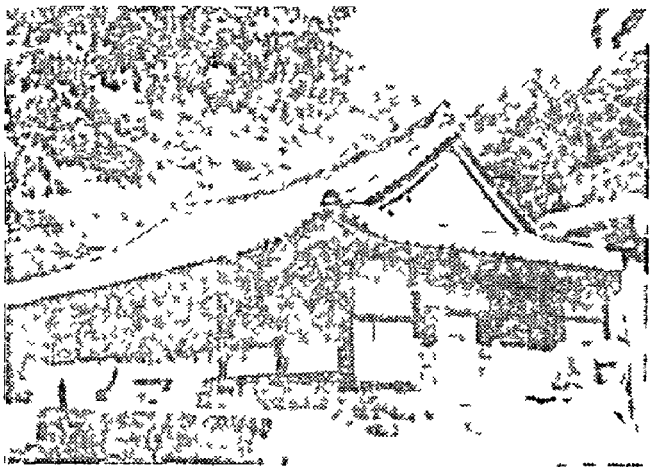
21 약수암 (藥水庵) 〈비산3동 292-1〉

매곡동 북쪽에 위치한 사찰로 1970년대 초에 창건되었다 주지인 하도심(河道心)스님이 어느날 부처님께 기도를 올렸는데 '이곳이 병을 낫게 해주는 곳이니 사찰 이름을 약수암(藥水庵)이라 하라'고 현몽했다 하여 '약수암'이라 칭한다고 한다 종파는 조계종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하도심(河道心)스님(비산동 292-1 1918년생)

22 염불암 (念佛庵) 〈석수1동 산17〉

불가(佛家) 에서 아미타불(阿彌陀佛)의 명호(名號)를 부르며 부처의 상호(相好) 공덕(功德)을 억념(憶念)하는 일을 염불(念佛)이라고 하는데 '염불암(念佛庵)'이란 사찰 이름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염불암은 고려 태조 9년(926)에 장건된 '안흥사(安興寺)가 모체라는 설과 삼막사의 예와 같이 원효 의상 윤필의 세 성인이 장건하였다는 설이 있는데 이에 대해 사찰문화연구원이 펴낸 『전통사찰종서』3 경기도1 망해암편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염불암(1950년대)

염불사의 창건에 대해서는 두가지설이 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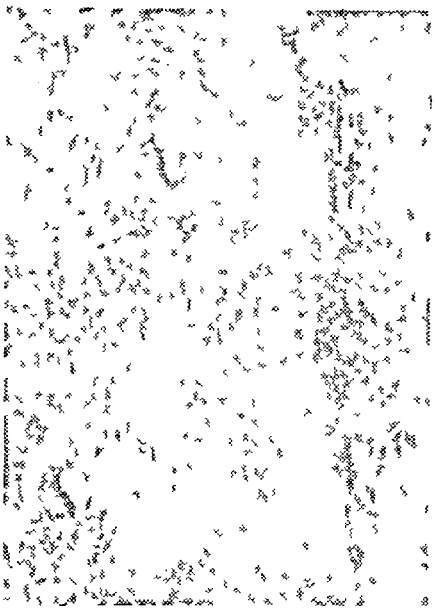
첫째는 고려 태조의 장건설이다 이 설은 안양사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약간의 자이는 보이므로 소개하기로 하겠다 태조는 고려를 건국하고 926년에 후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남행하였는데 삼성산(三聖山)밑을 지나던 중 우연히 산의 모퉁이에서 오색구름이 영롱하게 서려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를 이상히 여긴 태조는 사람을 보내어 그 연유를 알아보게 하였는데 그곳에 능정대사(能正大師)가 앉아 좌선삼매에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태조는 대사의 법력에 몹시 탄복하였고 곧 좌선하던 곳에 사찰을 세우도록 명하였으니 그 이름은 안흥사(安興寺)였으며 이것이 염불사의 전신이다

두번째는 원효 의상 윤필 등의 세 성인이 창건하였다는 설이다 이들 세 분과 관계된 사찰은 삼막사의 경우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삼성산이라는 지명과 밀접한 연관성 이 있다 「염불암중수기(念佛庵重修記)」라는 짧은 내용의 자료에서도 이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즉 이 글에는 세 분의 성인이 수도하였기 때문에 '삼성산'이라 이름하였고 세 분이 염불을 하던 정토(淨土)였기 때문에 '염불암'이라 하였다는 내용이 실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세분의 성인과 관계된 장건설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따라서 염불사의 장건은 고려 태조의 대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편이 타당할 듯하나 장건 당시 안흥사라고 명명된 사찰 이름이 언제 또는 어떠한 목적으로 염불사로 바뀌어지게 되었는 가는 불분명한 상태다

그후 조선 태종 7년(1407년)에 한양에 백호(白虎)에 해당하는 관악산의 산전기맥(山川氣脈)을 누르기 위하여 왕명으로 건립된 호압사(虎壓寺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현존) 등 몇몇 사찰을 중창할 때 중창 되였다 이어 철종 7년(1856)에 도인(道印)스

님이 칠성각을 장건했고 고종 41년(1904)에 호남(湖南) 보주(普主)스님이 사찰을 중건했다 일제 강점기인 1927년에는 주지 김성념(全聖念)스님과 거사 박정신(朴鼎臣)이 사찰을 중수했고 1930년에 세심루(洗心樓)를 신축했다 2년 뒤에는 산신각(山神閣)을 1941년에 정전(正殿)과 칠성각을 중수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으로 완전 파괴된 것을 이곳에 잠시 머물렀던 성공(性空)스님이 1962년 3월(어떤 기록에는 1956년으로 기록됨)에 새롭게 터를 잡고 대웅전과 삼성각을 중수하고 수십칸에 달하는 요사를 건축했다 성공스님은 한국전쟁으로 폐허된 사찰만을 찾아 다니며 문전(門前) 탁발로 복구하여 안양사 여승방(女僧房) 장건을 비롯하여 염불암 중수 등을 중수한 큰 스님으로 비구 대처간의 불교분쟁 때에는 비상종회의원을 역임하기도 했으며 일제의 종과를 초월하고 불절주야 조근목피(草根木皮)로 연명하여 염불암의 용화전에 미륵불을 모셔 놓고 호국 전일기도를 1972년 4월 29일 회양(回陽)했다 그러나 그해 11월 2일에 금강석탑을 세우려다 완공을 보지 못했는데 몸에서 사리 100여과가 나왔다고 한다


염불암 인봉당부도(1990년대)○

염불암에는 대웅전 영산전 용화전 칠성각 산신각 독성각 선당 등의 전각과 요사가 있다 이들 건축물은 모두 1910년 이후에 지어졌는데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는 상태이다 대웅전은 정면3칸 측면1칸의 맞배 지붕으로 내부에는 석가모니불 문수보살 보현보살 등 삼존불상과 거장보살상 등이 봉안되어 있으며 후불탱화와 신중탱화도 함께 봉안되어 있다 영산전에는 최근에 봉안된 삼존상과 십대제자상 16나한상 그리고 소형의 오백나한상이 봉안되어 있다 칠성각 독성각 산신각은 대략 1 7평 규모이며 각각 칠성과 독성 그리고 산신을 탱화로 모셨다

염불암은 안양유원지에서 가장 가까운 사찰의 하나로 주위가 수십폭의 돌 병풍을 둘러친 듯 웅장하고 가파른 암벽아래에 자리잡고 있어서 매우 평화로운 풍경을 자아내고 있다 조선시대에 발간된 지리지 읍지 등에 기록된 것으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명찰(名刹)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 제2교구 본사 용주사의 말사인데 일부 기록에 '염불사'라고 되어 있으나 안양시 공보담당관실에 등록된 사명은 염불암이다

• 참고문헌 『여지도서』 1759 시흥군 『시흥군 읍지』 1899
안양상공회의소 「안양상의보」 1974 1 15
본말사주지회 『용주사본말사주지회』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사찰문화연구원 『전통사찰종서』3 경기도1 1993 50~53쪽
• 도 움 말 성문(性門)스님 (석수1동 산17 1953년생)

23 용화사 (龍華寺) 〈호계2동 산61〉

불가에서는 미륵이 56억 7천만년 후에 세상에 나타나서 용화나무 밑에서 도(道)를 이루어 성불(成佛)을 하면 그 세계를 용화세계 (龍華世界)라 하는데 '용화사(龍華寺)'란 사명은 여기서 유래된 것이다

용화사는 안양미륵당의 후신으로 알려지고 있다 구전에 따르면 지금의 안양역 일대가 미나리밭이었을 당시 밭주인 할머니가 꿈속에 미륵보살을 만난 후 다음날 미나리밭에 가보니 꿈속에서 본 석조미륵보살이 있어 이를 지금의 안양역 앞에 움막집을 짓고 봉안하자 안양미륵당이라 칭했는데 일제말엽에 이곳(현 안양역전 로터리에서 약간 북쪽) 일대가 도로용지로 편입되자 1943년 안양의 원로 장배근(張培根 1909 ~ 1989)등에 의해 현재의 안양본백화점 자리로 옮기면서 용화사로 개칭되었다고 한다 그후 1978년경 전기누전으로 화재를 당해 1983년에 현위치로 이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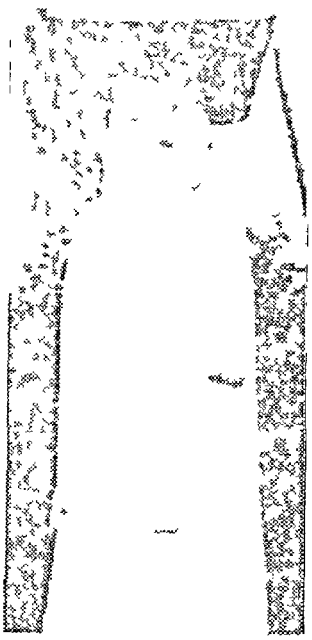
• 용화사 석탑

이 석탑은 원래 안양역내에 있었다가 용화사 신축 후 경내로 옮겼다 현재의 석탑은 2개의 옥신석(屋身石)과 2개의 옥개석(屋蓋石)이 남아 있는데 옥개 받침은 각 3단씩이고 옥신 괴임은 2단씩이다 정상이 8각대석 상면에 2단의 괴임대가 조각되어 있다

• 용화사 미륵입상

『과전현신수읍지』(1699)에 '安養彌勒在縣西二十里 安陽坪大路' 라는 기록으로 보아안양미륵은 요화사 경내에 있는 석불입상을 지칭하는 듯 하며 권상노의 『한국사찰전서』(下)에 '安養庵址在京畿道始興郡安養驛前'이라는 기록으로 보아 석탑과 함께 봉안되었던 것으로 생각되지만 정확히 알 수는 없다 이 석불의 상호(相好)는 원만하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법의(法衣)는 통견의(通肩衣)로 양팔에 걸치고 있으며 흉전(胸前)으로 부터 제전(臍前)까지 원호가 양호하다 오른손은 가슴에 올리고 왼손은 제전에서 여의주 3개를 가지고 있다 보존상태는 양호하며 전하는 바에 의하면 안양역전에서 현위치로 이전했다고 전해진다 높이는 4 15m에 이른다


용화사 미륵불(1990년대)

- **참고문헌** 과전군 『과전현신수읍지』 1699
  본말사주지회 『용주사본말사지』 1984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4-198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1동 674- 97 1909년생
  이상덕(李祥德) 스님(호계2동 산61 1939년생)

24 운암불교회관 (雲庵佛敎會館) 〈안양5동 618-138〉

안양대학교 기숙사 옆에 위치해 있으며 1986년 6월 8일에 개관되었다 운암(雲庵)은 한병익(韓炳益) 스님의 법명으로 운암은 건양 원년(1896) 12월 24일 경양에서 출생하여 1924년 일본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광복 후인 1949년 법주사에서 백용성 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1957년 범어사에서 하동산 스님을 계사를 비구계 받은 후 이듬해(1958년) 영주 부석사 주지로 있다가 1982년 87세를 일기로 삼막사에서 입적하였다 저서로 『절학개론』 『동양철학개론』 『중국절학사 사상평』 『서양절학사사상평』 『비판윤리학』 『염불신곡』 『반야심경1 2』 『살길을 찾자』 등을 남겼다 이에 불자들이 스님의 거룩한 뜻을 되새겨 모든 이에게 운암사상(雲庵思想)을 널리 펼치고 스님의 자취를 길이 보존함은 물론 이를 영원히 기념하기 위하여 운암불교회관을 건립한 것이다

- **참고문헌** 운암불교회관 『우리스님 韓雲庵』 1983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이지환(李知幻)스님 (안양5동 1088~4 1935년생)

25 원광사 (圓光寺) 〈안양9동 1088~4〉

창박골에 있다 모가 나지 않고 둥굴게 빚내며 중생을 계도하는 사찰이므로 '원광사(圓光寺)'라 칭한다고 한다 종파는 태고종이며 1981년에 장사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박병권(朴炳權 안양 3동 1088~4 1935년생)

26 장안사 (長安寺) 〈안양5동 산103~131〉

1968년에 장건된 사찰로 충혼탑 아래에 위치해 있다 태고종인 이 사찰은 불자(佛子)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또 안심도량을 수행하는 곳이라 하여 '장안사(長安寺)'라 칭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심월암(心月岩)스님 (안양 5동 산103~131 1931년생)

27 정심사 (淨心寺) 〈안양2동 산5〉

안흥사 부근에 있다 마음을 맑게 하고 수도에 정진하는 곳이라 하여 '정심사(淨心寺)'라 칭한다 1974년에 장사되었으며 종파는 종화종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김대목(金大穆 안양2동 산5 1920년생)

28 천인암 (天人庵) 〈석수1동 산4〉

망월암 맞은편에 위치해 있다 1908 ~1910년 사이에 여주출신 문경월화(文慶月花)보살에 의해 창사되었다 종파는 태고종으로 하늘과 사람 즉 우주와 인생은 같다는 의미로 '천인암(天人庵)'이라 칭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정덕흥 (鄭德興 석수1동 산4 1938년생)

29 칠조사 (七朝寺) 〈안양9동 산82〉

병목안 소재 한증탕에서 동남쪽으로 약100m 지점에 자리잡고 있다 범상종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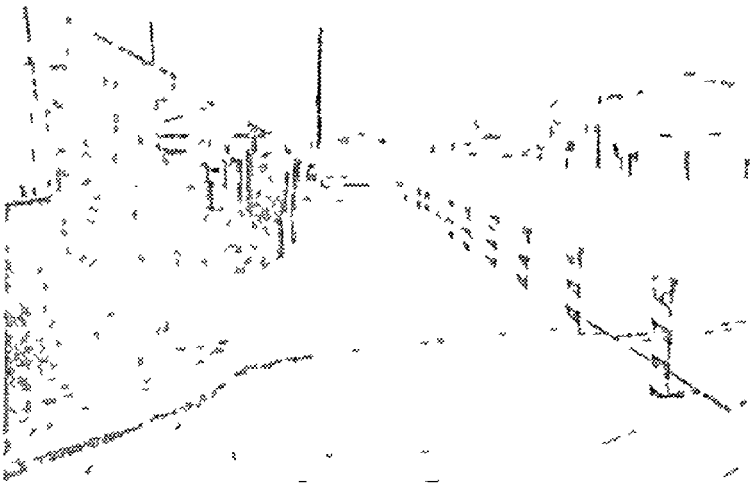
1982년에 창사되었다 칠조사의 칠(七)은 행운과 북두칠성을 뜻하며 조(朝)는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아침을 의미한다 즉 아침(새벽)에 일어나 예불을 올리면 행운과 기쁨이 함께 온다고 하여 '칠조사(七朝寺)'라 칭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범천(梵天)스님 (안양3동 산82 1924년생)

30 한마음 선원 (禪院)

〈석수1동 101~62〉

석산개발사업소(石山開發事業所) 입구 삼거리에서 서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는 선원(禪院)으로 1972년에 장설되었다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인 이곳은 주로 참선(參禪)을 가르치는 곳으로 우리가 다 모두라는 뜻인 한 마음을 개발해서 지상전국을 건설한다는 의미로 '한마음 선원(禪院)'이라 하였다



한마음 선원 우측 산등성이에 있는 건물이다(1972)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이재형(李載亨 석수1동 101-62 1942년생)

31 효달암 (曉達庵)

〈안양9동 1094~3〉

재석장 정문에서 서남쪽으로 약 350m 에 있는 사찰로 1970년에 장건되었다 이 절은 1968년경 박중규(朴重圭)가 신병을 치료차 계룡산 자연동굴에서 49일간 불공을 드리는 도중 어느날 갑자기 섬광(閃光)이 비춰더니 불치의 병이 치유되어 아호를 효달(曉達)이라 하였고 아울러 사찰 이름도 그의 아호를 취해 '효달사(曉達寺)라 칭하였다 종파는 원효종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박중규(朴重圭 안양3동 1094~3 1920년생)

32 흥국사 (興國寺) 〈비산3동 306~12〉

매곡동 마을 중앙에 있다 국가를 태평하게 하고 국민을 평안하게 잘 살게하기 위하여 기도를 올리는 사찰이라 하여 '흥국사(興國寺)'라 칭한다 종파는 태고종이며 1969년에 창사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김절우(金哲右 비산동306~12 1934년생)

제4절 전철역 (電鐵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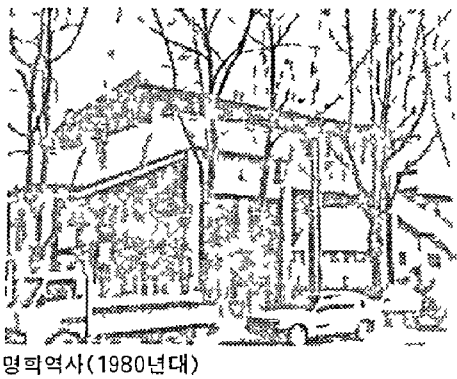
1 관악역 (冠岳驛) 〈석수2동 246〉

경부선 전철 1호선으로 서울 기점 21km 599m 지점에 있다 1973년 11월 16일 역사신축 기공식을 거행한 후 1974년 7월 5일에 준공되어 이해 8월 15일에 수도권 전철 개통시에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1983년에 명학역 등과 함께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부지는 3 849㎡ 에 건물(역사)는 381 59m 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2층이며 여객승강장은 2개(상행 226 x 5 4m 하행 266 x 7m)로 하루 201회(상행 101회 하행 100회) 운행한다

● **참고문헌** 철도정 『한국철도요람집』 1994 248쪽

2 명학역 (鳴鶴驛) 〈안양 6동 38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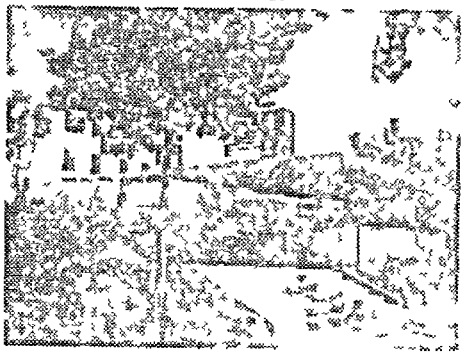
경부선 전철 1호선으로 서울 기점 26km 100m 지점에 있다 1973년 11월 27일 역사신축 기공식을 거쳐 이듬해 7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이어 이해 8월 15일에 수도권 전철이 개통되자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후 1983년 8월 6일에 보통역으로 승격하였다 부지는 2 318 9㎡ 에 건물(역사)는 533 3㎡ 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2층이며 여객승강장은 고상홈 2개(220 x 7m)로 하루 201회(상행 101회 첫차 05시 32분 막자 24시 06분 하행 100회 첫자 05시 30분 막자 24시 01분) 운행하며 여객인원은 1995년 한해동안의 통계를 보면 승차인원이 4백 6십 4만 7천 130명이고 강차인원은 4백 18만 2천 3백 11명에 이른다


명학역사(1980년대)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365쪽
절도정 『한국철도요람집』 1993 250쪽
명학역 「명학역 제자료」 1996

3 범계역 〈호계동 30-7〉

범계역 입구(1996)



인덕원 벌말역사와 함께 철도정 최초의 지하역사이다 1993년 1월 15일 금정-인덕원간 일부 개통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1994년 4월 1일에 완전개통(금정-사당간)되었다 정액승차권이 수입의 60%를 차지할 만큼 주로 출 퇴근 이용자가 다수를 자지하고 있다 승객이용현황은 영업을 시작한 1993년에는 일일 평균 2만 6전여명이던 것이 1994년에는 3만 2전여명으로 늘었고 1995년 부터는 4만여명으로 경존지역내 3개 전철역 중에는 이용자수가 가장 많다 운행은 평균 7 5분 간격으로 하루 304회(상행 하행 각각 152회)이며 운행시간은 서울방향이 첫자가 05시 22분 막자가 23시 39분이며 산본 안산행은 젓자가 06시 10분이고 막자가 24시 23분(산본)이다

범계역은 처음에는 '호계역'으로 명명해 줄 것을 건의 했으나 울산항선에 기존의 '호계역'이 있으므로 불가능해지자 원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안양시정자문회의의 결정으로 호계동의 원이름인 '범계'로 하여 '범계역'으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벌말역의 예와같이 범계가 한자로 호계인데 그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범계와 호계를 별도의 지명으로 인식될 것이고 설사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일지라도 지명상 혼돈을 야기시킬 수가 있다

- **참고문헌** 범계역 「범계역 제자료」 1996

4 석수역 (石水驛) 〈석수 2동 422-3〉

석수역사(1991 안양시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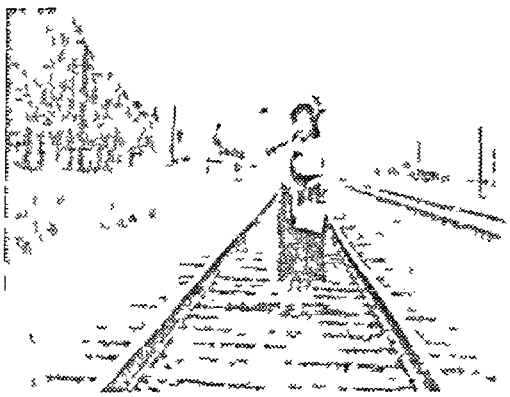
경부선 전절 1호선으로 서울 기점 19km 600m 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홈 북쪽 끝이 안양시(석수동)와 서울시(금천구 시흥동)의 시(도)계이다 1982년 1월 15일 역사 신축 기공식을 거행하여 이해 8월 2일에 역사 신축 준공(공사비 387백만원)과 동시에 역원배치 간이역으로 영업을 시작한 후 1992년 3월 2일에 보통역(운전간이역)으로 승격되었다 부지는 4 544㎡ 에 건물은 233 7㎡ 로 철근콘크리트 스라브 지상 3층이다 여객승강장은 고상홈 2개(220 x 7m)로 하루 201회(상행 101회 하행 100회) 운행하며 1996년의 하루 여객인원은 경균 1만 6전여명에 이른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지』 1992 1365~136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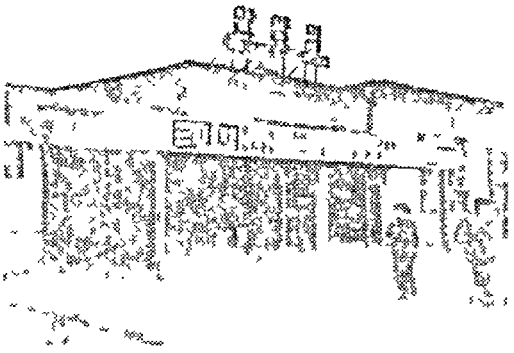
절도정 『한국절도요람집』 1993 247쪽

5 안양역 (安養驛) 〈안양 1동 641〉

경부선 서울 기점 23km 9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안양 지방의 7개 전절역 중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안양역은 1905년 1월 1일 경부선이 개통되자 보통역으로 영업을 개시한 후 역사의 노후로 1938년 8월 공사비 4만원으로 건평 88평에 목조콘크리트 '스레트'식으로 작공하여 동년 10월 21일 정오 12시에 신축 낙성식을 가진바 있었고 1951년 1월 26일 1 4후퇴 때 완전 소실되었다 그 뒤 1956년 6월 17일 공사비 1천3백여만 환으로 건평 95평을 준공하였고 이어 1974년 8월 15일 선상역사 신축 준공과 동시에 전절 1호선이 개통되자 영업을 개시했다


전철개통 이전의 안양역 플랫홈(1950년대)

안양역의 부지는 49 307 6㎡ 에 건물(역사)은 191㎡(부대건물 97㎡)로 건물구조는 부럭조 스레트 단층이다 구내는 본선 1 299m(상)에 1 372m(하) 측선은 1 201m 이며 포용량수는 279량에 입환가능량수는 29량이다 안전보안기기설비는 신호기는 전기 10대 전철기는 추병 2 전기 22이다 여객승강장의 규모는 고상홈 2개로 그 크기는 266m x 7 6m 이고 저상홈 역시 2개로 220m x 7 6m이다 전절이용승객은 1995 1996년에 일일 평균 6만여명 선에 이르고 기차는 무궁화 1회 통일호 4회 비둘기 2회 상 하행에 각각 정차하여 장거리 이용에도 편의를 제공해 주고 있다


안양역사(1980년대)

안양역사 자리는 본래 미나리밭이었는데 역사 건설 당시 이곳에서 미륵이 발견되어 안양역 앞으로 옮겨 놓았다가 광복직전에 다시 용화사(현재의 안양본백화점 자리) 경내로 옮겼다고 한다 그래서 용화사를 일명 미륵당으로 불리웠다

앞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안양'이란 지명이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세계의 별칭임을 감안할 때 이곳의 역명을 안양역으로 한 것은 물론 안양리의 지명을 취한 것이지만 미륵이 출토된 사실과 불교명인 안양과 같은 맥락에서 유추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안양역은 만안교와 함께 안양발전의 한 축을 이룬다 즉 1795년 만안교의 가설로

능행로가 신설된 후 경부선 개통과 동시에 안양역이 생기면서 교통의 편리 등으로 안양에 각종 공장들이 들어서면서 각 관청이 속속 들어서는 등 오늘날에는 60만의 거대도시로 발전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안양역이 수송교통에 있어 그 중심역할을 훌륭히 수행했기 때문이다 안양역이 생긴지 90년이 되는 1995년 부터 안양역의 민자역사 신축 기초공사가 진행 중인데 동 계획에 따르면 4개년 계획(1999년 12월까지)으로 역사내에는 복합용도(운수 관매 업무 운동 관람집회시설 등)이 설치된다 대지면적은 27 621㎡ 에 연면적은 62 023 39㎡ 이고 건축면적은 15 394 25㎡(건폐율 55 72% 용적율 110 67%)이다 역사의 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이다 한편 대합실은 지상 2층 지하 2층에 설치되며 주차장은 선상 2 3 4층에 각각 설치된다

• **참고문헌** 조선총독부 『조선철도사』 1992 1365쪽
「동아일보」 1938 8 6 1956 7 3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안양역 「안양역 제자료」 1996

6 인덕원역 (仁德院驛) 〈관양2동 1566〉

사통팔달의 인덕원사거리에 위치한 철도청 최초의 지하전철역사이다 인덕원역은 1993년 1월 15일 오후2시 금정 - 인덕원간 일부 개통으로 영업을 개시한 후 이듬해 4월 1일에 완전개통(금정 - 사당간)되었다 역사는 지하 2층 철골콘크리트 건축물로 총 2 550평(외부통로 및 계단 565평 승강장 739평 대합실 1 246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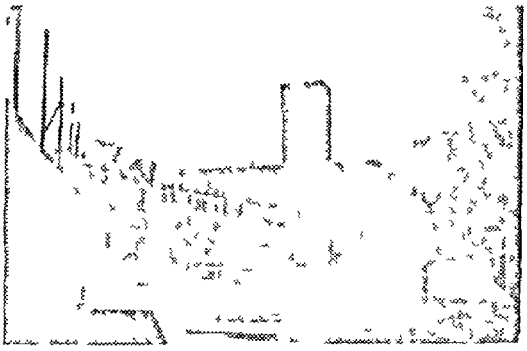
승객이용현황을 살펴보면 1993년 영업을 시작한 첫해에는 승하자 총승강인원이 1백 99만 8천 8백여명으로 일일평균 5천 4백 76명이던 것이 완전개통한 1994년에는 총승강인원이 7백 2십 8만 9천여명에 일일평균 1만 9천 971여명이었고 1995년에는 총승강인원이 9백 6십 3만 8천여명에 일일평균 2만 6천 407여명이다 1996년에는 총승강인원을 1천여명에 일일평균 2만 7천 700여명을 예상하고 있다 운행은 평균 7 5분 간격으로 상 하 각 152회(종 304회)이며 운행시간은 서울방면 첫차가 05시 26분이고 막차는 23시 43분이다 한편 산본 안산행은 첫차가 06시 06분이고 막차는 00시 20분이다

• **참고문헌** 인덕원역 「인덕원 제자료」 1996

7 평촌역 (坪村驛)

〈관양동 1608〉

평촌역 입구(1996)



열병합발전소 서쪽으로 인덕원역과 범계역 사이에 있다 범계역사 인덕원역사와 함께 건도청 최초의 지하 전철역사로 1993년 1월 15일 금정 - 인덕원간 일부 개통으로 영업은 시작한 후 1994년 4월 1일에 완전개통(금정- 사당간)되었다

승객현황을 살펴보면 영업을 시작한 1993년에는 일일평균 종승하자 인원이 불과 2천여여명에 불과하던 것이 이듬해에는 500% 늘어난 1만여명이나 되었고 1995년에는 1만 6천여명애 1996년에는 2만여명으로 주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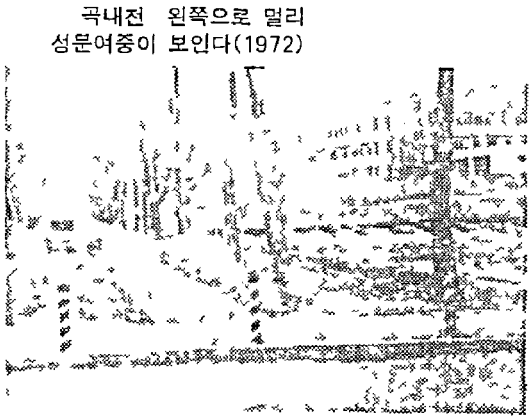
평촌역의 대합실은 여늬 전철역과 달리 반지하역이라 이용하기가 편리하다 즉 북쪽(대한전선 방향)으로 출구가 있지만 대부분의 승객은 동 서쪽 출구로 이용한다 동쪽 출구는 열병합발전소 조원마을 동안조교 우제국 중앙공원 조선일보 방향이고 서쪽 출구는 기업은행 공작마을 시정 법원 한국석유개발공사 외환은행 한가람마을 교육정 검찰정 국토개발연구원 국립기술품질원 등이다

평촌역은 본래 원주민들이 평촌지구내 중앙에 위치해 있으르모 평촌신도시의 기본뜻을 살리기 위해 평촌역(坪村驛)으로 해 줄것을 요구했으나 철도정에서 기존 경전선에 평촌역이 있으므로 난색을 표시하므로 평촌의 우리말인 벌말역으로 정했던 것인데 전철개통이후 벌말 평촌이 서로 혼선을 이르킬뿐만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평촌의 중앙에 위치했으므로 평촌역으로 해 줄것을 요구하자 안양시지명위원회 안양시의회를 거져 철도정에서 '평촌역'으로 개칭하여 1996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제5절 하천 (河川)

1 곡내천 (谷內川)

〈안양8동〉


곡내전 왼쪽으로 멀리 성문여중이 보인다(1972)

성문여중 뒷산(관모봉)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730m 하폭 2m 몽리면적 0 3ha이다 곡내동 앞으로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 '곡내전(谷內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 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2 구시월개울

〈비산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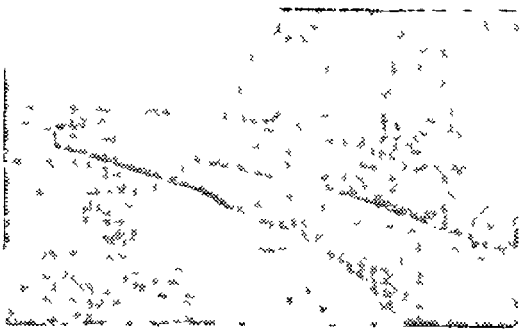
9 10월이면 시원한 바람이 부는 곳이라 하여 구시월개울이라고 부른다 중상골 동쪽에 있는 개울로 불성사 뒷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 앞에서 삼성천 과 합류된다

- **도 움 말** 김기종(金基鍾 관양동 619-3 1945년생)

3 내비산천 (內飛山川)

〈비산3동〉

내비산전(1978)★



내비산(內飛山 안날미)에서 발원하여 학의전에 합류된다 하천의 길이 1 600m 하폭13m이다 하천명칭은 발원지인 내비산에서 유래되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4 능곡천 (陵谷川)

〈안양9동〉

능곡(陵谷)에서 발원하여 수암전에 합류된다 하천의 길이 250m 하폭2 5m 몽리면적 2ha이다 발원지인 능곡마을 명에서 하전명을 취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5 동샘천 〈박달2동〉

동샘에서 발원하여 박달천을 경유 안양전에 합류된다 하전의 길이 500m 하폭 2m 몽리면적 0 2ha이다 발원지인 동샘에서 하전명을 취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6 마분산천 (馬賁山川) 〈관양1동〉

뻼말(秀村)에서 발원하여 학의전에 합류된다 하전길이 1 000m 하폭6m 몽리면적3ha이다 마분동 뒷산(마분산?) 명칭을 취해 마분산전(馬賁山川)이라 칭하나 이 산의 명칭은 없고 다만 마을명을 따서 마분산(馬賁山)이라 작명된듯 하다 마을에서는 보통 「완쟁이개울」로 불리운다 현대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일부가 복개되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7 망해천 (望海川) 〈안양2동〉

망해산(望海山 망해암 뒷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된다 하천길이 190m 하폭 2m 몽리면적0 5ha이다 발원지인 망해산의 산명을 취해 '망해천(望海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8 박달천 (博達川) 〈박달2동〉

양단말(?)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연장 1 590m 하폭 5m 몽리면적 1 5ha이다 박달동에 소재한 하천이라 하여 '박달천(博達川)'이라 칭하는데 발원지인 양단말을 안양3동의 양짓말(양지동)을 지칭하는지 아니면 옛 박달리의 지명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9 방죽천 (防築川) 〈호계2동〉

방죽마을(防築洞) 뒷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연장 150m 하폭 2 5m 몽리면적 0 5ha이다 발원지인 방죽말의 마을명을 취해 '방죽천(防築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10 배순이천 〈석수1동〉

배순이에서 발원하여 삼막천을 거쳐 안양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1 500m 하폭 2m 몽리면적 0 2ha이다 발원지인 배순이에서 하천명을 취했다 배순이가 골짜기 이름인지 또는 마을명칭인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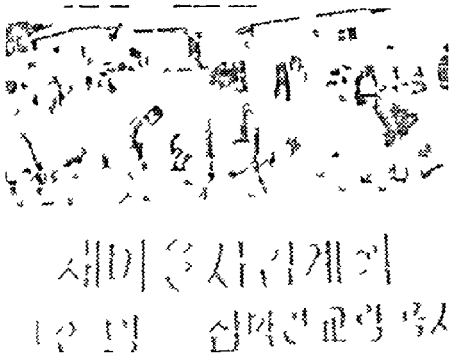
11 부림천 (富林川) 〈관양1동〉

샌말(間村)에서 발원하여 학의천에 합류된다 하천의 길이 1 000m 하폭 7m 몽리면적 3ha이다 부림말(富林洞)앞으로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 '부림천(富林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2. 삼막천 (三幕川) 〈석수1동〉

삼막천(1972)



삼막사(三幕寺)에서 발원하여 삼막골(三幕洞)을 거쳐 관악역 남방 약 400m지점에서 삼성전(三聖川)에 유입되는 하전이다 연장 3 50km 하폭 15m에 이른다 발원지인 삼막사와 마을명인 삼막골을 취해 '삼막천(三幕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 218 1910년생)

13 삼성천 (三聖川) 〈안양2동, 석수1동〉

조선초기 금천현(衿川縣 시흥현 → 시흥군)의 진산(鎭山)인 삼삼성(三聖山)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를 거쳐 안양대교에서 안양전과 합류한다 『과천읍지』 산전(山川)조에 과전현 서쪽 20리에 안양전(安養川)이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안양천(安養川)으로도 칭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일제강점기 때 현재의 이름인 삼성천으로 개칭 되었다 1910년이전에는 옛 시흥군과 과천군의 군계(郡界)였고 1973년 부터 안양2동과 석수1동의 동계(洞界)가 되고 있다 이 하전이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1932년에 수영장을 개설하자 석수수영장(石水水泳場)이라 했는데 그후 시제가 실시되면서 동명(洞名)이 되었다 길이 5 3Km 하폭 15m로 발원지인 삼성산의 산명을 취해 '삼성천(三聖川)'이라 칭하였다



삼성천 시흥군에 의해 정비된 모습(1972)

- **참고문헌**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 218 1910년생)

14. 서울제지발천 〈안양3동 안양9동〉

서울제지에서 발원하여 수암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450m 하폭 3 5m 몽리면적 1 0ha이다 발원지인 서울제지에서 하천명을 취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5. 선녀천 (仙女川) 〈석수1동〉

선녀골(?)에서 발원하여 삼막천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길이 1 000m 하폭 3m 몽리면적 0 1ha이다 발원지인 선녀골에서 하천명을 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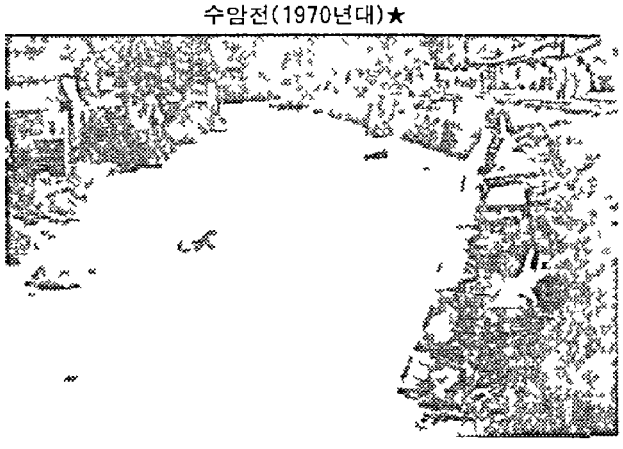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6 소골안천 (小谷川) 〈안양6동〉

소골안에서 발원하여 안양세무서 앞을 거쳐 안양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길이 1 100m 하폭 3 5m 몽리면적 1 2ha이다 발원지인 소골안(小谷洞)에서 하천명을 취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7 수암천 (秀岩川) 〈안양2동 안양3 안양9동〉


수암천(197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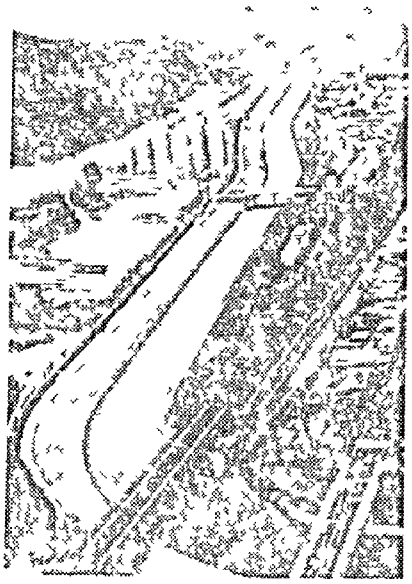
수리산의 연봉인 수암봉(秀岩峯)에서 발원하여 안양3동과 안양2동을 거쳐 안양대교에서 안양천과 합류되는 하천이다 총연장 5 5km에 폭은 20m에 이른다 이 하천은 천변에 유수의 공장과 민가가 밀집돼 있어 각종 생활폐수가 흘러 심한 악취를 풍기어 파리 모기 등 해충의 서식지로 주민보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오물 등이 쌓여 도시미관을 크게 해친다는 여론에 따라 양지교에서 부터 안양교에 이르는 폭 4m 길이 72m를 복개했다 즉 종사업비 13억원을 들여 1986년 11월 27일에

작공하여 이듬해 5월에 완공되었다 수암전의 복개로 종 9전5백여m2의 면적에 차량 5백 50여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되는 등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가져왔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전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8 안양천 (安養川) 〈안양동 호계동 비산동 석수동 박달동〉

안양전을 비롯하여 탄전 중랑천을 한강지류의 3대 오염천이라 일컫는다 그 중에도 안양전은 '가장 공장이 많고 가장 폐수 배출량이 많으며 가장 오염도가 큰 하전'이란 별로 달갑지 않은 닉네임을 붙여져 극락세계의 별칭이라는 '안양'을 이 하전이 온갖 먹칠(?)을 하고 있는 셈이다 안양전은 본래 석수1동 소재 삼성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유원지를 거쳐 안양대교에서 지금의 안양천과 합류되는 하천을 지칭했으나 1930년대 일인들에 의해 안양전을 삼성전으로 개칭하고 의왕 군포-안양-광명-서울 한강에 이르는 제하천을 안양천으로 명명하면서 오염전의 대명사가 되었다


안양천 왼쪽에 양명여고 오른쪽에 경부철도가 있다(1990년대)★

하천연구가 이형석(李炯石)에 의하면 1400 ~ 1500년대에는 안양전을 대천(大川)이라 했다가 조선 후기부터 대천 또는 기탄(岐灘)으로 불리웠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그 논거로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천현 산전조에 '대전 현 서쪽 4리 지점에 있다 물의 근원이 과전현 관악산 정계산에서 나오는데 북쪽으로 양전현 철곶포(鐵串浦)에 흘러 든다'는 기록과 김정호(金正浩)가 제작한 「대동여지도」(1861)에 안양천의 하류가 기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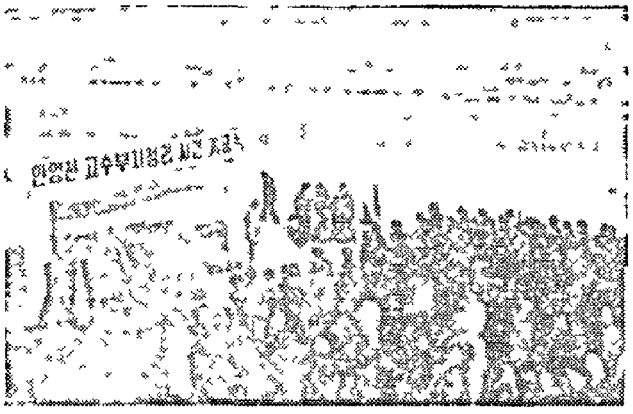
그런데 학글학회가 펴낸 『한국지명총람』 경기도편에 보면 "안양천(安養川)은 시흥군 의왕읍 왕곡리(현 의왕시 학의동) 백운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서 오전리를 지나 고천리에서 서북쪽으로 꺾여 흘러 군포읍에 이르러 흐린내를 합해 가지고 안양시 비산동에 이르러 학의전을 합하여 석수동에서 서쪽으로 꺾여서 박달동에 이르러 다시 북쪽으로 꺾이어 광명시를 거쳐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영등포구 양화동을 지나

강서구 염장동에서 한강으로 들어감" 이라고 기술되어 있다 위의 기록 중 발원지에 대해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관악산과 정계산을 『한국지명총람』에는 백운산으로 각각 기술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발원지란 물줄기의 끝을 조용하고 있는 산을 말하며 또 그 산의 계곡중 가장 길고 높은 곳에 솟아나는 샘물을 지칭하기도 하는 것으로 발원산 발원계곡 발원샘 발원지명을 통칭하는 개념을 갖고 있다

이처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안양천의 발원지에 대해 이형석은 국립지리원 발행 「축적 1 25 000 지형도」에서 곡선자로 계측한 결과 정계산 서남쪽 계곡해발 290m 지점임을 확인하고 안양전에 대한 정의를 다음과 같이 약술하고 있다

안양천

안양전 고수부지 사업 기공식(1981)



한강의 지류 경기도 시흥군 의왕읍 정계리(현 의왕시 청계동) 청계산 서남쪽에서 (* 해발 290m)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며 청계사천(淸溪寺川)이라 불리우다가 한직골(청계시내 버스 종점에 위치한 마을)에 이르러 백운산에서 발원한 물과 합진 다음 학의전(鶴儀川)이라 불리우며 서쪽으로 흐른다 다시 안양시에 이르러 백운산 서남쪽에서 발원한 맑은 내(淸川)를 합지고 수리산에서 발원한 수암천(秀岩川)을 합류한 뒤 안양시를 서북쪽으로 꿰뚫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경기도 광명시의 경계를 이루며 흐르다가 개봉동과 구로동의 경계에서 목감천(牧甘川)을 합치고 도림동과 신정동 사이에서 관악산과 발원한 마장천(馬場川)을 합치고 서북류하여 강서구 등촌동과 영등포구 당산동 사이에서 한강으로 유입된다

'안양천(安養川)'이란 안양시가지 앞을 흐르는 하천을 뜻하며 수암천을 뒷개울이라 징하는데 반하여 일명 '앞개울'이라 부르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오염천의 대명사 인데다가 극락세계란 의미를 지닌 안양을 훼손시키는 안양전의 일제 잔재의 차원에서도 하루속히 옛 이름으로 바꿔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과전현 『과전현신수읍지』 1699 김정호 「대동여지도」 1861
시흥군 『시흥군읍지』 1899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한국일보」 1987 5 22 「경인일보」 1987 8 5
이형석 「안양전의 수계와 지형소고」 기전문화 4-1988
「안양일보」 1989 8 30 1990 1 17

19 양단천 〈박달1동〉

양단말(?)에서 발원하여 호현전을 거쳐 안양천에 유입된다 길이 700m 하폭 3ha 몽리면적 0 2ha 이다 발원지인 양단말명을 취해 '양단전'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0 임곡천 (林谷川 林川) 〈비산1동〉

수푸루지 뒷산에서 발원하여 수푸루지마을을 거쳐 안양전에 유입된다 길이 400m 하폭 6m 몽리면적 0 1ha 이다 마을명칭을 취해 '임곡전(林谷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전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21 조롱내 (仁德院川) 〈관양2동〉

과전시 갈현동에서 발원하여 인덕원사거리를 지나 관양여자중학교 복개 하전을 경유하여 학의전(鶴儀川)에 합류되는 하전이다 숙종 때(1699) 발간된 『과천현신수읍지』 산천 조에 "인덕원전 현의 남쪽 14리에 있다 (仁德院川在縣南十四里)"고 했는데 조롱내를 조선시대에는 인덕원전으로 지칭한듯 하다

• **참고문헌** 과전현 『과전현신수읍지』 1699 『관양』 1989
• **도 움 말** 김기남(金基男 관양동 265 1930년생)

22 평촌천 (坪村川) 〈평촌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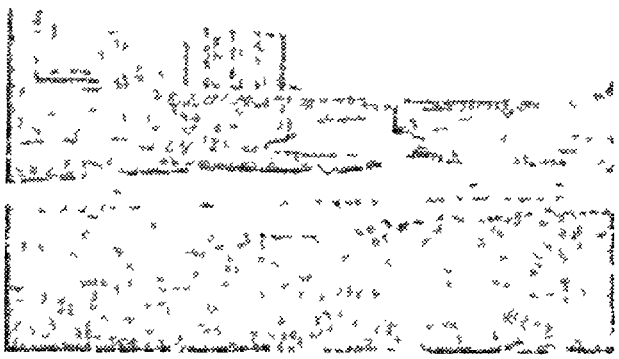
의왕시 내손동 소재 포일아파트단지 뒤에서 발원하여 오뚜기식품을 거쳐 학의천에 합류된다 하폭 3m에 몽리면적 0 5ha 이다 벌말(坏村)앞으로 흐르는 하천이라 하여 '평촌천(坏村川)'이라 징하며 일명 앞개울 또는 쌍개울이라 부르기도 한다 1980년대 초에 포일단지가 조성되면서 일부가 복개되었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음상규(陰相圭 평촌동 62-2 1927년생)

23 학의천 (鶴儀川 · 鶴古介川)

〈관양1동 관양2동〉

의왕시 학의동 뒷산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백운저수지를 이루고 조일동을 거쳐 평촌동에서 안양전에 합류되는 하천이다 학의동에서 발원한 하전이므로 '학고개전(鶴儀川)'이라 징한다 그러나 『과전현 신수읍지(1699)』 산전조에 '鶴古介川在縣南十四里'라고 하여 본래의 하천명은 학고개전이라했다가 후대에 내려 오면서 학의전으로 징한 것 같다


학의전(1978)★

학고개(鶴古介)란 학고개의 이두문자로 의왕시 학의동의 마을 이름인데 이 마을 동쪽에 있는 김해 김씨의 종산이 풍수로 보아 학이 거둥하는 형국인데다가 북쪽에 있는 안동 김씨의 묘 역시 학의 혈이므로 학의 고개 즉 학현(鶴峴)이라 징한데 유래하고 있다고 한다

- **참고문헌** 과전현 『과전현신수읍지』 1699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986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 下 1988

24 혜인천 (惠仁川)

〈석수1동〉

혜인중기(惠仁重機)앞(동)산에서 발원하여 안양전에 합류된다 길이 150m 하폭

2m 몽리면적 2ha 이다 혜인중기의 사명(社名)을 취해 '혜인천(惠仁川)'이라 칭하였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5 호현천 (虎峴川) 〈박달2동〉

중단말(?)에서 발원하여 안양천에 유입되는 하천이다 길이 520m 하폭 4m 몽리면적 0 1ha 이다 호현마을(虎峴)명을 취해 '호현천(虎峴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7 후두미천 (後頭尾川) 〈안양9동〉

후두미동(後頭尾洞)에서 발원하여 수암천에 유입된다 길이 520m 하폭 4m 몽리면적 0 1ha 이다 발원지인 후두미동의 마을 명칭을 따서 '후두미천(後頭尾川)'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새마을 하천표』 1972 안양시 「안양시하천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제6절 고 개 (峴)

1 가일(加一)고개 〈관양1동〉

샌말과 과천시 갈현동 가일에 걸쳐 있는 고개 샌말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1990년대에 포장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2 가재물고개 〈호계2동〉

옥산아파트 북쪽으로 동양나이론과 매봉산 계곡 사이에 있다 가재물골에 위치한 고개이므로 '가재물고개'라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3 가죽재고개 〈석수1동〉

고개길이 급경사져서 쇠가죽처럼 미끄러운 고개 쟁반처럼 미끄럽다 하여 일명 '쟁비탈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삼막골과 유유산업 사이에 있다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4 각씨고개 〈관양1동〉

안날미 공동묘지(군인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사이에 있었음) 위로 뻠말(관양동)과 안날미(비산동) 사이에 있다 각인각성(各人各姓)이 왕래하는 고개라고 한다 안양6지구 구획정리사업(1974-1979)으로 택지가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재선(金在善 관양동 685 1941년생)

5 곤두래미고개 〈박달2동〉

안양에서 안산가는 신작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이 고개길이 유일한 통로였다 이곳은 주위가 산림이 우거진 험준한 산인데다가 민가가 없어 산적이나 강도 등이 많아 이곳을 지날 때면 황급히 서둘러야 지나칠 수 있다고 하여 곤두박이고개라 불렀다고 하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곤두래미고개라 칭한다고 한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군용지가 개설되면서 폐로가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6 구룡(九龍)고개 〈호계2동〉

구룡고개(1996)



예전에 방죽말 주민들이 수(壽)를 다해 죽으면 산세를 살피고 묘지를 택했는데 한전 안양지점 앞에 있는 고개가 풍수로 보아 좌청룡(左靑龍)에 해당하는 명당지지(明堂之地)로 최적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사실을 안 인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이 불법으로 묘를 쓰므로 방죽말 주민들이 산의 혈을 끊기 위하여 지금의 강남아파트 앞산 허리를 파자 피가 솟았다고 한다 그 후부터 방죽말 주민들은 용(龍)의 허리가 끊겨지면서 나온 피라고 하여 구룡(九龍)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동양나이론에서 한전 앞을 지나 선일레미콘 대림아파트에 이르는 고개로 안양 시내버스 1 2 13 19 19-1번이 왕래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1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7 구리(拘留)고개 〈비산3동〉

안양종합운동장 후문 앞 안양교통(103번 시내버스) 종점부근에 과천군 상서면의

죄인을 구류(拘留)시키는 구류장(拘留場)이 있었다 구리고개란 고개명칭은 이 구류장에서 취한 것으로 예전에 안양 사람들이 과천 인덕원 등지를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했던 고개인데 안양6지구 구획정리사업(1974~1979)으로 평지가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8 꼬챙이(花倉 串昌) 고개 〈석수2동〉

꽃쟁이와 벌터 사이에 있는 고개 비포장 소로이다 이곳에 박서(1602~1653)의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임시토지조사국 『조선지지자료』 1918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성시만 (成始萬 석수동 산 159 1923년생)

9 낭떠러지고개 〈관양1동〉

뻠말과 말무덤이 사이에 있던 고개 예전에 안양에서 인덕원 방향을 가자면 비산동 구류고개(또는 구리고개)를 지나면 바로 이 고개에 이르게 되는데 고개는 높지 않으나 급경사가 졌으므로 '낭떠러지고개'라 불렀다 1978년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으로 비산동과 인덕원간 도로를 확장할 때 도로 용지에 편입되어 현재는 그 흔적조차 찾아 볼 수가 없을 만큼 크게 변모 되었다

- **도 움 말** 김종성(全鍾聲 관양동 1406-15 1927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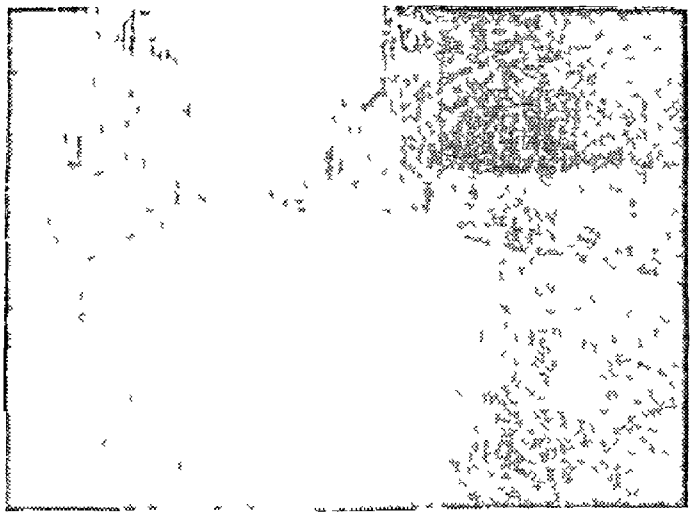
10 노두골고개 〈비산3동〉

비산공원(안양유원지)과 육군 ○○부대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비산동 관양동 주민들이 서울 관악구 동작구 등을 왕래할 때 이용하던 고개인데 1970년대 군부대가 들어서면서 폐로가 되었다 고개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는데 이곳이 으슥하고 음침해서 비오는 날이면 도깨비가 나타나 도술을 부린다고 하여 흐린날 또는 해가 저물면 주민들이 접근을 꺼려 했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권장식(權璋植 비산동 378 1925년생)

11 달래고개 〈박달2동〉

우성아파트와 양지동(안양3동)에 걸쳐있는 고개길이다 그런데 이 고개에 대한 전설이 이곳 촌로들간에 구전되고 있는데 내용은 이러하다


달래고개(1996)

옛날 양지동에 단 두 남매가 살고 있었다 마음씨 착하고 의좋기로 소문나서 정잔이 자자하였는데 부모를 일찍 여읜 탓에 늦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어느 무더운 여름날 두남매는 재 넘어인 박달1동 먹해이들(박달1동사무소 부근)로 일하러 갔다 땀흘리며 일하고 나서 점심을 먹으러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인 우성아파트 뒤 고갯마루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갑자기 쏟아지는 비여서 피할 인가가 없어 두 사람은 큰 나무 밑에 서 있었는데 삽한 비 때문에 옷이 흠뻑 젖고 말았다 비에 젖은 남매의 모습은 실로 가관이었다 여름 모시옷이 비에 젖어 살에 착 달라 붙었으니 알몸이나 다름없었다 이런 누이동생(일설에는 누님이란 설도 있음)의 모습을 본 오빠는 여태껏 느껴보지 못한 미묘한 감정에 빠졌다 비에 젖은 살결과 머리카락 연적처럼 둥글게 솟은 젖가슴을 보자 욕정이 끓어 올랐다 그러나 참아야 하지 않는가 상대는 누이 동생인데 얼마 후 비가 개자 오빠는 누이 동생에게 어서 빨리 앞서가서 상이나 차리라고 재촉했다 누이는 집에 가서 옷은 갈아입고 점심을 지어 놓았다 그러나 오빠는 이내 돌아오지 않았다 이상한 예감이 들어 비 피했던 고갯마루로 간 누이 동생은 깜짝 놀랐다 오빠가 피투성이가 되어 나무 밑에 죽어 있지 않은가 누이에게 욕정을 느낀 오빠는 누이를 얼른 집으로 보낸 후 흥분했던 자신이 부끄럽고 죄스러워 돌로 자신의 생식기를 찍어 자살했던 것이다 오라버니의 처참한 모습을 본 누이는 죽지 말고 달래나 보지 하면서 통곡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마을 사람들이 이 고개를 달래고개 라 부르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12 뒤뜸이고개 〈안양9동〉

담배촌과 안산시 수암동 사이에 있는 고개 일제 때 안양 - 박달동 - 안산시 수암동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되기 이전에는 안양과 안산간을 왕래하는 큰 통로였다 조선시대에는 '작은재(小峙)'라 칭했다

- **참고문헌** 임시토지조사국 『조선지리자료』 1918
- **도 움 말** 이태만(李泰萬 안산시 수암동 130-14 1918년생)

13 뒷말고개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었다 뒷말과 안양남초등학교 사이를 왕래하는 고개로 비포장 소로였다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14 막은고개 〈박달2동〉

박달동과 시흥시 조남동 장승박이 사이에 있다 예전에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 새미 방화주민들이 안양을 왕래할 때 다니던 고개인데 일제 때 군용지 건설로 폐로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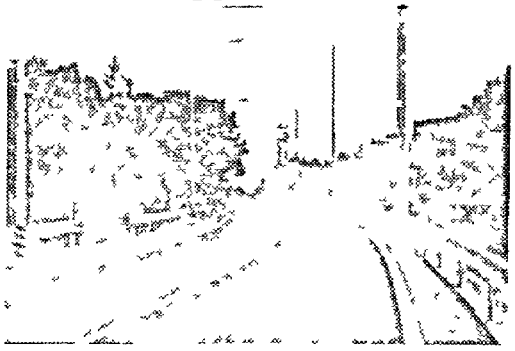
- **도 움 말** 김지용(金智容 시흥시 조남동 70 1916년생)

15 망거리고개 〈호계2동〉

샛터말과 금성통신 사이에 큰 나무가 있었는데 이 나무가 고개길을 막았으므로 '막은거리고개'라 칭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부터 '망거리고개'로 불리우고 있다 비포장 소로로 고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 **도 움 말** 이강태(李康台 호계1동 1000-36 1927년생)

16 망령골(亡靈谷)고개 〈관양1동〉


망녕골고개(1990년대 초 「관양」에서)

동편과 과전시 갈현동 가일 사이에 있다 예전에 관양동 주민들이 과천을 왕래할 때 다니던 고개이다 나무가 울창하고 으슥한 곳이라 산적 강도 등의 출현이 잦아 대낮에도 지나치기를 꺼려 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김득춘(金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17 무너미(水餘里) 고개 〈비산3동〉

예전에 비산동 주민들이 서울 봉천동 신림동 갈 때 이용하던 고개로 안날미에서 북쪽으로 약 2 5Km지점에 있다 관악산 골짜기에서 흘러 내리는 물이 열두굽이 흘러흘러 이 고개를 넘져 흘렀다고 하여 '무너미고개'라 불렀는데 일명 '수여리(水餘里)고개'라 징하기도 한다 골짜기 사이에 있는 고개라 비가 조금만 내려도 빗물이 넘쳐 왕래를 하지 않았다 비포장 소로로 폐로가 된 지 이미 오래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18 박달(博達)고개 〈박달2동〉

범고개마을과 붓골 사이에 있다 예전에 이 고개를 넘어야 원박달리를 갈 수 있다 하여 박달고개라 징했다 비포장 소로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19 범고개(虎峴) 〈박달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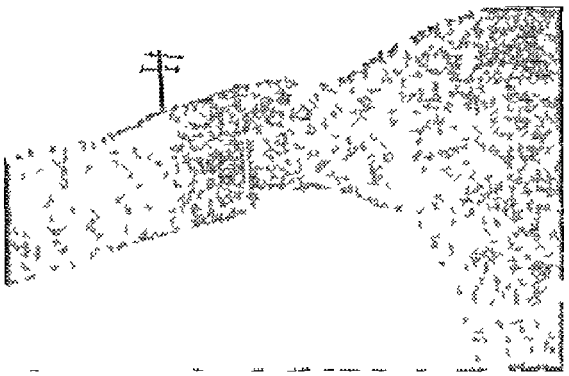
박달동 범고개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 사이에 있는 고개 범고개 주민들이 더푼물을 왕래할 때 다니는 고개라 하여 '더푼물고개'라 부른다 예전에는 고개 길이 험하고 으슥해서 강도 도둑 등이 득실거려 도독놈고개라 불렀다 이 고개 유래에 대하여 여러 설이 전해지고 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선조 중엽 범고개마을에 어느 부자(과평 윤씨라고 함)의 시종을 범이 물

고 이 고개를 넘어 시흥시 목감동 방향으로 간데 유래했다는 설

둘째 이 고개 산중턱에 호랑이가 다리를 조아리고 고개길을 향해 응시하고 있는 범바위에 서 유래 했다는 설

셋째 일제강점기 초까지만 해도 고개길이 험준하고 삼림이 울창해 으슥해서 범이 많아 이 고개를 넘자면 장정 5명 이상이 함께 동행해야 무사히 지나졌다는 범의 서식저설 등이다


범고개(1970)★

이 고개는 1976년 안양-수인산업도로간 포장공사 때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었으며 이어 1991년에 박달로 확장공사로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20 부림말(富林洞)고개 〈관양1동〉

부림말(富林洞)과 샌말(間村) 사이에 있다 1982년에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본래의 고개보다 2-3m가량 낮추었고 아울러 고개길도 포장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21 부처고개 〈호계1동〉

샛터말과 구 금성통신 사이에 있는 비포장 소로 예전에 이곳에 돌부처가 있었으므로 '부처고개'라 부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한용(李漢容 호계동 1000 1919년생)

22 서리재고개 〈석수1동 석수2동〉

동아제약 입구에 있는 안양육교(安養陸橋)부근이 원래는 높은 고개였는데 구한말

에 경부선 철도를 부설하면서 고개를 평탄화 되었다 현재는 솔개고개(鳶峴)라 칭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곳 일대가 나무가 많고 숲이 우거졌을 뿐만 아니라 으슥한 곳이라 과거를 보러가는 과객이나 보부상(褓負商) 행인(行人)등이 한양을 가자면 반드시 이 고개를 거져야 했는데 그때마다 으레 산적과 강도의 습격을 받아 빈털터리가 되곤 했다고 한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의 연현마을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이곳이 농경지여서 참외 수박 등 정과물을 이들 산적과 강도가 떼를 지어 서리를 해가는 바람에 농민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시흥(금전) 현령이 골머리를 앓곤 했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이성래(李星來 석수동653 1921년생)

23 성당고개 〈호계2동〉

금성마을과 경수산업도로로 사이에 있던 비포장 소로 예전에 구 금성통신 정문 앞에 성당이 있었다 하여 '성당고개' 라 칭했다 1970년대 금성마을을 건설할 때 민가가 신축되자 자취를 감추었다

- **도 움 말** 오광렬(吳廣列 호계동 998-55 1930년생)

24 아랫고개 〈비산3동〉

아랫매봉재 서쪽으로 비산동에서 안양유원지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아랫매봉재 밑에 있어 '아랫고개' 라 칭한다 비포장 소로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득춘(金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25 오미(烏尾)고개 〈안양2동〉

양명고등학교에서 석수동으로 가는 구길에 위치한 고개 오미산에 있는 고개라 하

여 산명을 취해 '오미(烏尾)고개' 라 칭한다 비포장 소로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26 오촌말(吳村洞)고개 〈관양1동〉

예전에 안양에서 과천으로 가는 첫째 고개인데 말무덤이와 오촌말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인근의 마을명을 취해 '오촌말(吳村洞)고개'라 부른다 1982년에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포장이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움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27 웃고개 〈비산3동〉

웃매봉재 동쪽에 있다 비산동에서 서울대학교 방향으로 가자면 이 고개를 이용해야 했던 고개로 웃매봉재에 있는 고개이므로 '웃고개'라 칭한다 고개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군사보호구역이라 일반인의 출입이 어렵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득춘(金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28 웃말 안산내미고개 〈안양9동〉

등잔골 서쪽으로 안산시 수암동과 담배촌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담배촌 주민들이 (안산장 또는 수암장 읍내장으로 현 안산시 수암동 개다리에 있었음)을 이용할 때 또는 안산읍에 사는 천주교 신자들이 담배촌에 있는 수리산공소(修理山公所)에 예배를 보기 위해 이용했었다 1889년 가을 전주교 왕림본당(현 화성군 봉담면) 앙드레 야고보 신부가 판공 때 수리산공소에 가서 본 안산출신의 한 노인 예배자에 관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마지막 공소인 수리산에서도 한 예배자가 교우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예배자는 안산(安山)에 사는 83세의 할머니였습니다 그의 아들과 며느리는 세례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들

만이 내가 수리산에 오는 날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해진 날 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어머니 몰래 떠날 차비를 하면서 우리가 우선 가서 신부님을 뵙고 어머니의 세례 문제를 신부님과 의논합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은 아들과 며느리가 떠나는 것을 알아채고 멀찌감치 뒤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안산읍에서 수리산 동네에 오려면 높고 아주 험한 산을 손바닥만한 소로로 몇번을 오르내려야 하는데 노인은 그런 것은 상관치 않고 지팡이를 짚고 헐떡이며 산(주 수암봉을 지칭)을 기어 온랐습니다 그러다가 폭설을 만났습니다 마침내 구사일생으로 해질 녘에 수리산에 도착한 이 노인은 보고 교우들은 어안이 벙벙하여 할머니 연세로 어떻게 눈이 오는 산을 올라오셨나요? 라고 묻자 노인은 성세를 받으러 오는데 어려움이 어디 있단 말이요? 내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낫지 하고 대꾸했습니다 내가 그 노인에게 세례를 주었더니 노인은 대단히 기뻐하면 아들 며느리와 함께 왔던 길로 해서 돌아갔습니다

- **참고문헌** 한국교회사연구소 『서울교구년보』(1) 1984
  서상요 『전주교장내동교회사』 1989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3동 1254 1913년생)

29 완쟁이(浣井里)고개 〈관양1동〉

관양초등학교 뒤에서 샌말(間村)로 넘어가는 고개 조선시대에는 이 곳 일대를 삼현원정리(三峴院井里)라 하여 원정이고개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완쟁이고개'라 불리우고 있다 그러나 『과천현신수읍지(1699)』현치조(峴峙條)에 '삼현 현 서북 10리에 있다(三峴在縣西十里)'란 기록으로 보아 본래의 이름은 '삼현(三峴)'이라 칭했던 것으로 보인다 농로로 1985년에 조장되었다

- **참고문헌** 과천현 『과천현신수읍지』 169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조재근(趙載根 관양동 355 1903년생)

30 자진골(自棧谷)고개 〈호계3동〉

안양교도소 뒤 자진 골에 있다 낮으막한 고개로 예전에는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교통로였을 뿐만 아니라 정조의 현융원 능행도 금천로(衿川路 → 시흥로)가 개설된(1795) 이전까지는 이곳이 유일한 능행로였었다 고개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어 일명 '서낭고개'라 불렀으며 고개길 일부가 1985년경에 콘크리트로 조장되었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178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박용익(朴用翊 의왕시 고천동 156 1920년생)
오광렬(吳廣烈 호계동 998-55 1930년생)

31 장군재(張君谷) 고개 〈박달2동〉

예전에 안산(주로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 사람들이 안양 다닐 때 이용하던 고개 횃골과 장군재 사이에 있다 비포장 소로(小路)로 이미 폐로가 되었다 고개 마루터기에 서낭이 있었다 장군재사람들은 '횃골고개'라 칭한다

* 장군재(張君谷)

조선조 인조 때 인조반정 공신으로 신풍부원군(新豊府院君)에 봉해진 장유(張維 1587~1638)의 묘가 시흥시 조남동 장군재에 있는데 '장(張)'은 장유에서 '군(君)'은 부원군에서 각각 취함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32 장터고개 〈호계2동〉

샛터말 귀인 안말 방죽말 주민들이 군포장 다닐 때 왕래하던 고개 샛터말과 구군포 사이에 있으며 1980년대 금성통신연구소가 설립될 때 고개길이 포장되었다

● 도 움 말 이강태 (李康台 호계1동 1000-36 1927년생)

33 절골(寺谷)고개 〈박달2동〉

비포장 농로(農路)로 동수암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 사이에 있다 이곳(동수암)에 절터가 있으므로 '절골(寺谷)고개'라 칭한다

● 도 움 말 염재혁 (廉載赫 시흥시 목감동 8-4 1931년생)

34 정문(旌門)고개 〈박달2동〉

범고개마을과 군용지 사이에 있는 고개 예전에 이곳에 임진왜란 때 충신으로 숙

종 34년(1708)에 명정(命旌)된 구만의 정문(旌門)이 있어 '정문(旌門)고개'라 했는데 이 정문은 일제강점기 때 군용지가 건설되면서 훼절되었다고 한다 비포장으로 고개가 낮으며 현재는 군용지에 속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된다 박달동 주민들은 '범고개'라 불렀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774 1913년생)

35 형제(兄弟)고개 〈안양6동〉

안양초등학교 동편 만안로에 있던 고개 길마형태의 두 고개가 흡사 형제같다 하여 '형제고개'라 칭했는데 일제강점기에 도로를 정비하면서 고개를 낮추었다


형제고개(1972)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행웅(金幸雄 비산동491 1942년생)

36 활터고개 〈관양1동〉

샌말에서 가운데말로 넘어가는 고개로 활(弓)과 같다 하여 '활터고개'라고 한다 이 고개길이 가운데말로 가는 지름길인데 급하게 가면 숨을 헐떡거린다 하여 헐떡고개 또는 할딱고개라고 부른다

- **도 움 말** 『관양』 1995 28쪽

37 훼무기고개 〈비산1동〉

예전에 비산동 주민들이 삼막사 안양유원지 불성사 서울 봉천동 등지를 왕래할 때 이용하던 고개로 수푸루지와 안양유원지 사이에 있다 이 고개 마루터기에 오르면 바람이 세차게 불었는데 이를 '훼무기바람'이라 칭했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제7절 골짜기(谷)

1 가능골 (細谷) 〈안양9동〉

담배촌 소재 집뒤골과 병풍골 사이에 있다 골짜기가 어찌나 좁고 가는지 예전에 담배촌 주민들이 입담배를 지게에 걸머지고 이곳을 지나치면 호랑이가 지게에 달린 바수쿠리를 잡아 당겼다는 우화가 구전되고 있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2 가재미골 〈관양1동〉

현대맨션 뒤에 있던 골짜기 이곳에 수존 약수터가 있었다 관양1동 8통에 속한다

● 참고문헌 『관양』 1995 28쪽

3 가재물골 〈호계2동〉

선일레미콘 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가재와 물이 많아 가재물골이라 칭한다고 하나 그보다는 매봉산의 '가새'(가장자리의 사투리)이므로 붙여졌을 가능성이 크다 예전에 방죽말 어린이들이 추운 겨울이면 이곳에서 솔가지 등을 꺾어 미끄럼을 타던 곳으로 호계2동에 상수도가 들어오기 전에는 마을의 식수원이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4 각자골 〈호계3동〉

이곳 토질이 박토라 호미로 김을 매면 각잘각잘 했다하여 각잘골이라 불렀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각자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호계3동사무소와 안양교도소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서울소년감별소(호계동700) 안양시 민방위교육장(호계동 764-5)등이 소재해 있다

• **도 움 말** 김순흥(金順興 호계동 702-3 1925년생)
오광렬(吳廣列 호계동 998-55 1930년생)

5 갈매골 〈석수2동〉

안양자동차학원 서북쪽에 있다 갈매산 밑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갈매골'이라 부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653 1921년생)

6 개미골 〈안양9동〉

송쟁이골 서쪽에 있다 개미같이 작은 골짜기라 하여 '개미골'이라 칭한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 -1986

• **도 움 말** 이도운(李道雲 안양동 1152 1928년생)

7 거북골 〈석수1동〉

웃절터골 아래(남)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지방유형문화재 제 93호인 안양사귀부(安養寺龜趺)가 있다 신라 효공왕 4년(900) 궁예의 명을 받은 왕건이 후삼국을 경정하기 위하여 이곳을 지나다가 능정(能正)이란 노승을 만난 후 그 자리에 안양사(安養寺)를 창건했다 이어 경내에 7층 벽돌탑을 세웠으나 현재는 귀부와 부도 등의 유물만이 남아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218 1910년생)

8 괭맹이두턱골 〈석수1동〉

학무봉 정상과 키다리골 사이에 있다 골짜기가 흡사 괭맹이 (등잔받이)처럼 생겼다하여 '괭맹이두턱골'이라 부른다

• **도 움 말**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9. 굴뚝골 〈안양9동〉

굴뚝처럼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로 담배촌 안골 서쪽에 있다 골짜기 초입에 경기도 임업 시험장 관리 사무실이 있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10 꼬챙이골 〈석수2동〉

작별산 남쪽 기슭으로 꼬챙이와 벌터사이에 있다 마을명을 취해 '꼬챙이골'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성시만(成始萬 석수동 산159 1923년생)

11 넙적골 〈비산3동〉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소유 수목원(樹木園)과 불성사 중간에 있는 넓고 경평한 골짜기이다 이 골짜기 초입에 유명한 관악산 정 백자가마터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218 1910년생)

12 노랭이골(굴) 〈안양9동〉

조선조 어느 전란 때 어떤 사람이 이곳에 피신했다가 불이 나자 노랗게 타 죽었다는 고사가 전해지고 있다 굴뚝골 남쪽에 있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13 누두골 〈비산3동〉

쟁골 북쪽에 있다 1970년대에 육군 00부대(충의대)가 들어서면서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한때는 비산동 관양동 주민들이 서울 봉천동 노량진 등으로 갈 때 이용하던 교통로였었다

• 도 움 말　권장식(權昶植　비산동 378　1925년생)

14 능골 (陵谷)　〈관양1동〉

동편과 샌말 사이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에 열녀 파평 윤씨의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488-1　1914년생)

15 덤박골　〈관양1동〉

관양동 동편마을과 과전시 갈현동 가일 사이에 있다 이곳 덤박골산 정상에 덤바위가 있어 '덤박골'이라 칭하며 듬박골이라 부르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16 덩골　〈비산1동〉

움진산 아래로 심간(沈諫)의 묘 북쪽에 있다 덩쿨이 많았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5-1986

• 도 움 말　심완섭(沈琓燮　비산동 528　1915년생)

17 도장골　〈안양9동〉

치루골 남쪽에 있으며 횃골과 치루골 사이에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이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18 동이점골 (盆店谷)　〈안양9동〉

담배촌에 속한 골짜기로 재석장과 치루골 사이에 있다 조선말엽에 동이를 굽던 곳인데 골(谷)이 짧고 경경하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19 두리미골 〈석수1동〉

동이바위 북쪽에 있다 삼성산 낙맥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이다

● **도 움 말** 김동환(全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20 뒷골 (後谷)① 〈석수1동〉

학무봉 뒤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뒷골(後谷)'이라 징한다 염불암에서는 북쪽에 해당된다

● **도 움 말** 김동환(全東煥 석수동 152 1932년생)

21 뒷골 (後谷)② 〈석수3동〉

꽃쟁이 서쪽으로 중훈부 뒤(동)에 있으므로 '뒷골(後谷)'이라 징한다 이곳에 광주이씨 선현 묘가 있었는데 1990년 5월 7일 화성군 남양면 문호2리로 이장되었다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653 1921년생)

22 들어가는 속골 〈석수1동〉

삼막사 아래로 한증막터에서 남쪽으로 골짜기가 둘이 있는데 그중 한 골짜기는 아무 장애물 없이 왕래할 수 있는 골짜기라 하여 '들어가는 속골'이라 징한다 학무봉 서쪽에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23 등잔골 〈안양9동〉

병풍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로 웃말 안산내미골과 병풍골 사이에 있다 등잔처럼 처음은 좁으나 뒤는 넓게 생겼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24 디디미골 〈석수1동〉

초앙골 북쪽에 있다 예전에 삼막골 주민들이 서울 신림동 봉천동을 가자면 반드시 이곳을 거쳐야 할 만큼 중요한 교통로였다 이 골짜기 인근의 삼성산과 관악산 학무봉이 험한 산이라 예로부터 영약인 산삼이 많아 산삼을 채취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이곳 일대에 집단으로 살았으므로 '디디미골(심마니)'이라 불려진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25 막는골 〈비산3동〉

안양종합운동장 북쪽 약 700m 지점으로 안날미(內飛山)) 뒤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곳은 관악산 맑은 물이 항시 흐르는 골짜기라 하여 맑은골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막은 골'로 불리워지고 있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곳이 사람이 살면 누구나 망해 빈털터리로 나간다 하여 '망한골'이라 칭하기도 하는데 이 골짜기 위에 있는 어느 부자가 연못을 파고 살다가 끝내는 망해 나갔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경(柳璟 비산동 147 1935년생)

26 모이골 〈석수1동〉

삼막사에서 큰절골 쪽으로 올라가다 동북 방향으로 깊숙히 들어간 곳을 일컫는데 이곳이 사람의 발길이 뜸해 야생조수의 서식처가 되고 있다

- **도 움 말**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27 못들어가는 속골 〈석수1동〉

삼막사 아래로 한증막터에서 남쪽으로 두개의 골짜기가 있는데 그 중 학무봉 서쪽에 있는 골짜기가 암벽이 가로 막혀 깊이 들어갈 수가 없어 '못들어가는 속골'이라 칭한다 돌이 무수히 많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28 문바위골 〈안양9동〉

수암봉과 담배촌 사이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 이곳에 문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이 일대를 '문바위골' 이라 칭한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29 밤나무가시 〈관양1동〉

대한전선 서쪽으로 예전에 이곳 일대에 밤나무가 많았다고 한다 경존신도시 개발 구역내에 편입되었다

• **도 움 말** 김종성(金鍾聲 관양동 1406-15 1927년생)

30 뱀골 (蛇谷) 〈비산3동〉

불성사와 망월암 사이에 있다 좁고 길게 생겨 '뱀골(蛇谷)'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경(柳璟 비산동 147 1935년생)

31 벗나무골 〈관양1동〉

삼곡터 뒤(북)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예전에 벗나무가 많아 '벗나무골'이라 칭했다고 하나 지금은 잡목만 우거져 있을 뿐 벗나무는 단 한그루도 없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32 병풍(屛風)골 <안양9동>

병풍을 친 형상을 한 골짜기 가능골 남쪽에 있는데 이 골짜기를 넘으면 안산시

장상동 동막골(東谷)에 이른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33 부엉골 〈석수1동〉

안양유원지 관리사무실 위에 있다 부엉이의 서식처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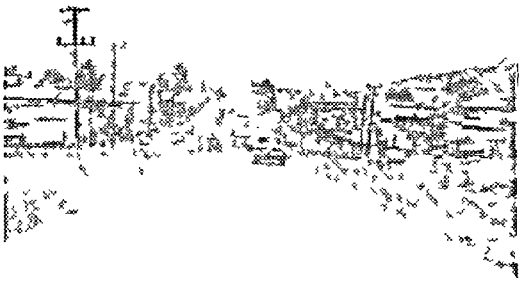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34 분상골 〈안양5동〉

산소가 많은 곳이라 하여 '분상골'이라 칭한다 지금의 안양우체국 안양병원 안양등기소 일대로 일제강점기 중엽에 일제에 의해 정비가 되었다

● **도 움 말** 장배순(張培存 안양동 636 1921년생)



분상골 안양우체국 앞에서 바라본 안양시가(1977)

35 분투골 〈석수1동〉

이곳 골짜기의 토질이 붉다하여 '분투골'이라 칭한다고 한다 작은 바랑골 북쪽에 있다

● **도 움 말**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36 불당골 (佛堂谷) 〈비산1동〉

당봉(또는 당재 매봉) 밑(서북)에 있다 예전에 이 곳에 사찰이 있어 '불당골(佛堂谷)'이라 칭했다고 하나 사찰의 이름 규모 창사연도 및 폐사 연도 등은 일제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경(柳璟 비산동 147 1935년생)

37 비지재골 (비재골) 〈안양9동〉

창박골 뒤(서쪽)에 있다 이 곳에 빗돌(碑石)이 있어 '비지재골' 또는 '비재골'이라 불렀다 이 골짜기에서 서쪽으로 넘으면 박달동 선녀골에 이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자기형(車基衡 안양동 1102-2 1934년생)

38 삼막골 (三幕谷) 〈석수1동〉

삼막골 뒤에 짜는 골짜기이다 마을명을 취해 '삼막골(三幕谷)'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39 송도사골 (宋道士谷) 〈비산1동〉

삼성사(三聖寺) 서북쪽에 위치한 골짜기로 예전에 송도사(宋道士)가 살았다 하여 '송도사골(宋道士谷)'라 칭한다 이 곳에 1960년대 조에 보덕암(寶德庵 비산1동 산 186)이란 사찰이 창건 되었다가 1989년에 재창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40 송지골 (松脂谷 承旨谷) 〈안양9동〉

송쟁이골 서북쪽에 있다 이 곳은 산세가 험해 소나무가 많아 소나무 줄기에서 분비되는 수지(樹脂) 즉 송지(松脂 또는 松津)가 많으므로 '송지골(松脂谷)'이라 칭한다고 한다 일설에는 조선시대 승지(承旨)의 벼슬을 지낸 분의 묘가 있어 '승지골(承旨谷)'이라 부른다고 한다 승지란 조선시대 승정원(承政院)의 도승지(都承旨) 좌승지(左承旨) 우승지(右承旨) 좌부승지 우부승지 동부승지를 총칭함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도운(李道雲 안양동 1152 1928년생)

41 송청내미골 〈안양9동〉

담배촌 동남쪽에 있는 골짜기로 이곳을 넘으면 군포시 산본동 골안(谷內 谷蘭)에 이른다 1950년대 까지만 해도 담배촌 주민들이 군포장(또는 군포시장)을 보러 가려면 반드시 거쳐야 했다 한국전쟁 직후 경기도 임업시험장에서 조림을 실시했다

● 도움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42 송챙이골 (宋政丞谷) 〈안양9동〉

담배촌 초입 서남쪽에 있다 송정승(宋政丞)이 살던 곳이라 하여 송정승골(宋政丞谷)이라 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송챙이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 도움말 김병석(金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43 수리골 〈석수2동〉

안양시 위생처리사업소(석수2동 585) 일대를 일컫는다 예전에 이곳에 큰 웅덩이가 있어 각종 민물고기가 많아 수리가 서식했다고 한다 일명 '송아지웅덩이' 또는 '새치웅덩이'라 칭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수리골 왼쪽건물은 안양시 위생처리사업소이다(1996)

44 수리바위골 〈안양9동〉

담배촌 송정내미골 서남쪽에 있다 골짜기가 좁고 급경사졌을 뿐만 아니라 음침하고 험준해 사람들이 접근을 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 골짜기 중앙에 수리바위가 있다

● **도움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1254 1913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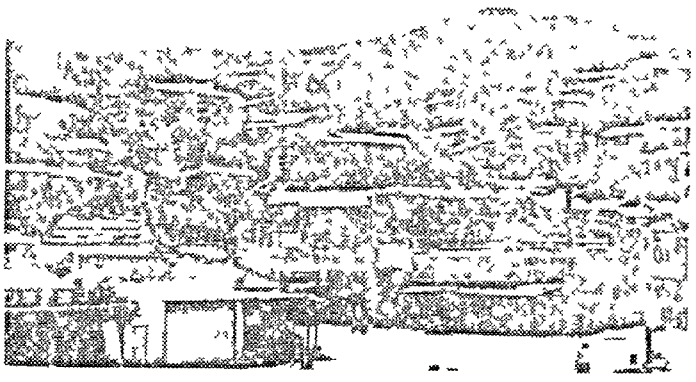
45 수안골 〈비산3동〉

마장골(매곡동) 북쪽에 있는 좁고 긴 골짜기 비닐하우스와 충의약수가 있다

● **도움말** 권장식(權秥植 비산동 378 1925년생)

46 수태골 〈안양4동 안양5동〉

근명여상과 동덕아파트 사이에 있다 이 골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지고 있다


옛 공동묘지가 있었던 곳으로 무허가촌이었으나 현재는 동덕아파트와 화양아파트가 들어섰다(1970)★

한 중년 부부가 있었다 이들 부부사이의 금실은 매우 좋았지만 웬일인지 그들에게는 슬하에 자녀가 없었다 그리하여 그들의 보금자리인 오두막엔 항상 정다운 이야기와 함께 보글보글 된장찌게가 맛있게 끓어도 어딘지 모르게 허전함이 떠나지를 않는 것이었다 생각다 못한 중년 부부는 골짜기 샘 근처를 찾아와 치성을 드리게 되었다 목욕 재계를 하고 의복을 정갈히 입고는 정한수를 떠다 놓고 촛불을 밝히며 산신령님께 온 정성을 다해 백일기도를 드렸다 정성어린 기도에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늘도 무심하지 않았던지 백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중년부부는 영험한 꿈을 꾸고 산신령님의 계시를 받아 그 길로 집으로 내려왔으며 그 후 곧 부인에게는 태기가 있어 탐스러우며 당당하고 어엿한 사내아이를 낳게 되었다 그 아들은 후에 큰 인물이 되어 나라에서 큰 일을 하였다 한다 이러한 일이 있은 후 소문은 안근 마을로 점차 퍼져나가 자녀가 없는 부인네나 아들을 못둔 부녀자들이 이곳을 찾아와 정성을 드리고 번번이 자녀를 얻었다 한다 그러한 연고로 이 골짜기를 수태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내고장 전통가꾸기』 1981
김행웅 『수태골의 유래』 안양문화 7-1989

● **도 움 말** 김행웅(金幸雄 비산동 491 1942년생)

47. 시계능골 〈안양9동〉

시계덩쿨이란 야생풀이 많이 자생한다고 하여 '시계능골'이라 징한다고 한다 1977년에 안양전문대학(安養專門大學 안양9동 산 39-1)이 들어섰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형욱(全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48 신부골 (新富谷) 〈안양9동〉

병목안 서쪽에 있는 골짜기 본래 농경지였었는데 1969년 민가가 생기면서 새마을로 불리우고 있다 예전에는 한글로 신부골이라 징했는데 병목안 주민들이 농사를 잘 지어 부자마을이 되라는 의미로 새 '신(新)'자와 부자 '부(富)'자를 취해 '신부골(新富谷)'로 호징하기 시작 했다고 한다 한 때는 병목안과 신부골 일대를 통징해 신부동으로 명명하자는 의견이 대두되기까지 했었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49 안산내미골 〈안양9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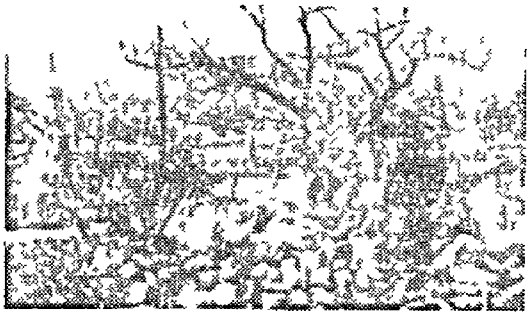
담배촌과 수암봉(秀岩峯)사이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담배촌 병목안 주민들이 안산장(安山場 또는 읍내장 수암시장으로 안산시 수암동 개다리에 있었음)을 보러 갈 때면 반드시 이 곳을 거쳐야 했다 보통 '안산골(安山谷)'이라 징한다 일제 때 안양-범고개-안산간 도로가 개통되기 이전에는 주요 교통로였으나 광복 직후부터 폐로가 되어 잡목만이 무성하다 안산냄이 란 안산 넘어에 있는 골짜기란 뜻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수병(李壽柄 안양동 961 1915년생)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50 약사골 〈안양9동〉

안양전문대학 안양여상 안양서초등학교 등이 위치한 곳으로 예전에 사찰이 있었다가 빈대 때문에 폐사되었다고 전해진다 이 곳의 약수가 피부병에 효험이 있다고

약사골 현재 안양서초등학교가위치해 있다(1971년경)★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51 어둠골 〈비산3동〉

안날미와 수푸루지 사이에서 안양유원지로 향하는 곳에 있다 이 골짜기는 한낮에도 해를 볼 수 없을 만큼 삼림이 우거져 어두운 곳이라 하여 '어둠골' 이라 칭하고 있다 이 곳은 특히 자연생 작약(芍藥)이 많이 자생한다고 하여 예전에는 이를 채취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붐볐으나 현재는 군사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52 언추리골 〈석수1동〉

호암산(虎岩山) 줄기로 분투골 북쪽에 있다 골짜기가 Y형상을 하고 있다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53 염불암골 (念佛庵谷) 〈석수1동〉

염불암 앞(남)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염불암골(念佛庵谷)'이라 부른다 이 곳에 사찰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사찰의 이름과 창사 및 폐사 연도 등에 관해서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우석(柳雨錫 석수동 218 1934년생)

54 옥적골 (玉笛谷) 〈안양6동〉

소골안 약수터 부근에 있는 산골짜기 풍수로 보아 옥적혈(玉笛穴)이라고 한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이 곳에다 선조의 묘를 옥적의 구멍에 해당되는 곳에 썼는데 그 곳이 옥적의 구멍을 막는 꼴이 되어 결국 패망했다고 한다 옥적(玉笛)은 대개 청옥(靑玉)이나 황옥(苗玉)으로 제작되는데 모양이 흡사 대금(大笒)과 비슷한 취악기(吹樂器)이다

- **참고문헌** 이희승 『국어대사전』 1981
- **도 움 말** 김병석(金炳錫 안양동 402 1921년생)

55 완쟁이골 (院井里谷 浣井里谷) 〈관양1동〉

관양초등학교 뒤에 있다 본래는 이곳 일대를 삼현원정리(三峴院井里)라 하여 원정리골(院井里谷)이라 불렀다가 후대에 내려 오면서 '완쟁이골'로 되었다 일설에는 이 곳 아낙네들이 빨래하던 터라 하여 빨래할 '완(浣)'자와 우물'정(井)'자를 취해 완정골 이라 칭했다가 '완정이골' 또는 '완쟁이골'로 되었다는 것이다

『과천현신수읍지』 괘총조에 "安名世(1518-1548 중종조에 문과 급제 후 홍문관정자를 역임)의 묘가 이 곳에 있다 (弘文正字安名世墓在峴西十里 三峴院井里有墓)"고 하였는데 이 묘는 1970년대 도시화로 성남시 수정구 심곡동으로 이장되었다

- **참고문헌** 과천현 『과천현신수읍지』 169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관양』 1989
- **도 움 말** 조재근(趙載根 관양동 355 1903년생)

56 요골 (龍谷) 〈박달2동〉

범고개마을 뒷편(서쪽)에 있다 이 곳은 본래 안동권씨의 사패지지(賜牌之地)로 이 골짜기 위에 대제학을 역임한 권모의 묘가 있다 용골(龍谷)이란 지명은 이 일대가 풍수상 좌청룡(左靑龍)에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1985년경에 군부대가 주둔해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임종대(林鍾大 박달동 774 1930년생)

57 웃능골 〈안양9동〉

병목안 서쪽에 있다 예로부터 명당지지(明堂之地)라고 전해진다 이 곳에 고총(古塚)과 밤나무가 많다

● **도움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58 웃삿갓골 〈석수1동〉

삼막골과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 박미 소재 박산 중간에 있다 삿갓모양으로 한 골짜기라 하여 '웃삿갓골'이라 칭하며 예전에 까치가 많았다는 연유로 일명 '웃새까치골'이라 부리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59 웃절터골 〈석수1동〉

고려 태조인 왕건이 창건한 안양사(安養寺 석수1동 산 27) 위에 있는 절터이므로 '웃절터골'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 218 1910년생)

60 자그나무골 〈석수2동〉

수리골 아래에 있는 골짜기 졸쭉 진달래 등 작은 나무가 많다고 하여 작은나무골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자그나무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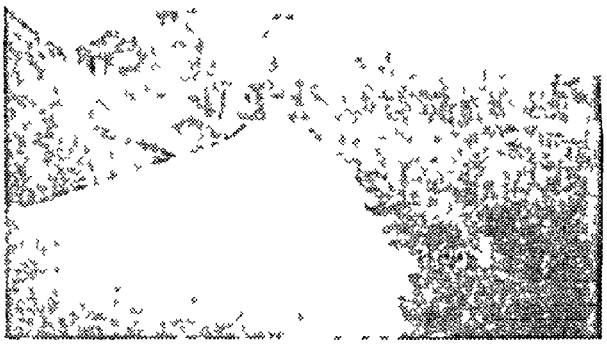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61 자진골 (自棧洞 自盡谷) 〈호계3동〉

안양교도소 뒤에서 의왕시 오전동 성나자로원 마을로 가는 구도로 길에 위치한 지역으로 부근에 호성초등학교가 있다 지금은 공항주유소에서 안양교도소 뒤쪽으로 길이 나 있어 이 길만을 이용하나 조선시대에는 현 군포 신사거리에서 안양교도소 영내 지역으로 길이 있었는데 『원행정례』 도로교량조(道路橋梁條)에 의하면 정조의 현융원 능행로는 과천-인덕원-민배기-갈미주막-덕고개-군포내주막-자진골-원골주막 등은 거쳐 원소를 잇는 로정이 정로였었다

자진골(1996)



이 곳은 예전에 이도령(춘향전의 남 주인공)이 과거볼 때 다녔던 곳이라 하여 더욱 유명하며 조선 중기만 해도 민가가 있었으나 이 일대가 한적하고 산기슭이 잦은듯 가라앉아 도둑이 대낮에도 오가는 길손을 괴롭혀 살지를 못하고 덕고개로 옮겨 살기 시작했다고 한다

자잔동(自棧洞)은 자진골(←잦은골)을 나타낸 한자어 지명임을 간과할 수가 있는데 일명 자진구리라 부르기도 하다 이 골짜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진다

임진왜란 때(1592~1597) 왜장 가등청정(加藤淸正)이 우리나라에서 큰 인물이 나오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스님으로 변장하고 의왕시 오전동 소재 성나자로원입구에서 옛 과천가는 구도로상에 이르러 혈(穴)을 끊으려고 큰 미륵을 세웠다고 한다 그 후 의왕시 고천동 소재 지구페인트 공장 뒤에 있는 말무덤에서 용마(龍馬)가 났는데 그 용마가 이 골짜기에 있던 큰 바위에서 몸부림치다가 죽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춘향전』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경수노정어 연구」 인문논총 16-1988

- **도 움 말** 박용익(朴用翊 의왕시 고전동 156 1920년생)
  오광렬(吳廣烈 호계동 998-55 1930년생)

62 작은바랑골 〈석수1동〉

큰바랑골 북쪽으로 호암산(虎岩山) 남쪽에 있다 이 곳에 기괴한 돌이 많아 탐승객이 끊이지 않는다

● 도 움 말 김동환(全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63 작은창배안골 〈안양9동〉

예비군 교육장 정문일대를 말하며 큰창배안골 서남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변원신(邊原信 안양동 947 1933년생)

64 작은태양산골 〈안양9동〉

큰태양산골과 송정내미골 사이에 있는 좁은 골짜기 큰태양산골 아래에 있으므로 '작은태양산골'이라 칭하며 일명 '작은탱산골'이라 부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수전(全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65 장골(長谷) 〈관양1동〉

퉁퉁골 북쪽으로 불성사 가는 길목에 있다 좁고 긴 골짜기라 하여 '장골(長谷)'이라 칭한다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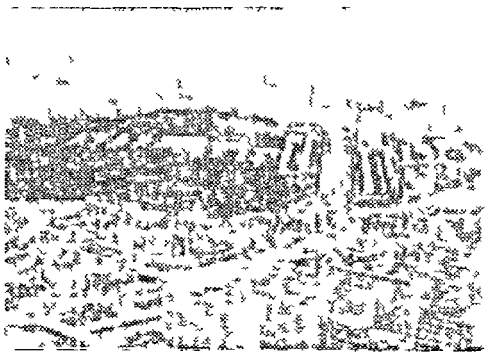
66 장녕골 〈관양2동〉

대한전선(관양동 785)주변에 있는 들 마루들 보다 지대가 낮은 데다가 샘이 잘 나 아무리 가물어도 모를 내던 곳이다

● 도 움 말 김종성(全鍾聲 관양동 1406-15 1927년생)

67 장장골 (張長谷) 〈비산1동〉

수푸루지와 구름울 사이로 비산 주공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예전에 어느 장자 부자가 살던 곳이라 하여 '장장골(張長谷)'이라 칭한다 속전에 따르면 이 곳이 산골로 외딴 곳이라 도적과 강도 등에 시달림 끝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했다고 한다 주공아파트를 지을 때 깨진 기왓장과 주춧돌이 출토되었다



장장골 중앙 좌측의 숲과 숲 사이의 아파트가 들어선 곳이다 (1993)★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완섭(沈琓燮 비산동 528 1915년생)

68 쟁골 (齊宮谷) 〈비산3동〉

안날미(內飛山)) 음지말에서 서북쪽으로 약 600m 지점에 있는 골짜기이다 이 곳에 익안대군(益安大君 이성계의 셋째아들)의 아들 이석근(李石根 益平府院君)의 재실(齋室)이 있어 '재궁골(齊宮谷)'이라 칭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쟁골'로 불리워 오고 있다 재실은 1950년에 일어난 한국전쟁으로 소실(燒失)되었다고 한다 이 곳에 이석근의 묘를 비롯하여 이기(李岐 증 이조참관) 이정용(李廷龍 사헌부 감찰) 이수(李尌 선공감역) 이동용(李東龍 증 병조참관) 이종용(李從龍 양전현령) 등의 묘가 있다 수도군단사령부가 주둔해 일반의 출입이 어렵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1986
- **도 움 말** 이희덕(李喜德 비산동 35 1936년생)

69 절골 (寺谷) 〈석수1동〉

삼막사(三幕寺)밑에 있는 골짜기라 하여 '절골(寺谷)'이라 칭하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218 1910년생)

70 절터골 (寺址谷) 〈비산1동〉

대림전문대(大林專門大)뒤에서 망해암 가는 길 사이로 재석장보다 약간 서쪽에 위치해 있다 예전에 절이 있었으므로 '절터골'이라 칭한다 사찰의 창사 및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속전에 따르면 빈대가 많아 폐사되었다고 하며 현재도 이곳에 있는 돌을 유심히 살펴보면 빈대죽은 껍데기가 있다(?)고 한다 이 골짜기는 조선조 말엽에 비산동에 살던 조모씨가 문경에서 사주전(私鑄錢)기계를 가지고 와 이곳에서 사전을 주조했다고 하여 일명'사주전골(私鑄錢谷)'이라 부르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71 접시골 〈안양9동〉

접시처럼 둥글게 생긴 골짜기 담배촌 소재 기도원에서 구도로로 약 500m 지점에 위치해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도운(李道雲 안양동 1152 1928년생)

72 조골 (趙谷) 〈호계2동〉

강남 3자아파트 뒤에 있는 골짜기 예전에 한양 조씨가 은신해 살던 곳이라 하여 '조골(趙谷)'이라 칭한다 이 골짜기 옆에 우보군(右保君 정종의 9째아들)의 손자인 안읍부수(安邑副守)와 그 후손의 묘 및 단(壇)과 한양조씨 선대의 묘가 있다 한양조씨 후손들은 샛터말에 전주 이씨 후손들은 방죽말에 각각 일가를 이루며 세거하고 있다 1988년 호계중학교(호계2동 312-2)가 들어섰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 -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73 중상골 (中上谷) 〈비산3동〉

구시월개울 서북쪽에 있다 좁은 골짜기로 이 골짜기 능선에 괭이바위가 있다

● 도 움 말　김기종(金基鍾　관양동 619-3　1945)

74 지치밭골　〈안양6동〉

옥저골 동쪽에 있는 골짜기이다　수리산 낙맥으로 예전에 주접동 주민들이 이곳을 밭으로 일구고 지치를 재배했다하여 '지지밭골'이라 칭하는데 지금은 지지는 없고 잡초와 잡목만 무성하다

* 지치란 지지과에 속하는 식물로 개지지　갯지지　들지지　반디지지　산지지 등의 종류가 있다　다년초로 뿌리는 굵고 자색을 띠며 줄기는 높이 30-35cm이며 상부에서 가지가 진다　우리나라 및 북해도　일본　중국 동북부에 분포한다　뿌리는 화상　동상　습진 등의 약재로 쓰고 자색 염료로도 쓴다

● 참고문헌　이희승『국어대사전』1981

● 도 움 말　김병석(金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75 집뒤골　〈안양9동〉

수리바위골 남쪽에 일제강점기 때 조가 두 집이 있었는데　그 뒤에 있는 골짜기이므로 '집뒤골'이라 부른다　이 곳에 유명한 약수가 있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76 초앙골 (草庵谷)　〈석수1동〉

삼막골 뒤에 있다　이 곳에 작은 암자가 있어 '초암골(草庵谷)'이라 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초앙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우석(柳雨錫　석수동 218　1934년생)

77 치루골　〈안양9동〉

안양재석장을 지나 동이점 입구에 있다　이 곳에 7가지 보배스러운 것이 있어 치루골이라 칭한다고 하나 믿어지지 않는다　또 골짜기가 칠리(七里)가 되므로 '칠리골(七里谷)'이라 했다가 후대에 내려오면서　지루골'로 불리워오고 있다는 설도 있으나

7리가 될 만큼 길지가 않다 예전에는 안양 일대의 주민들이 이 곳의 구들(장)을 재석해 방구들을 설치했다고 한다 지세가 수려해 안양시에 의해 1989년 수리산 산림욕장이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78 큰골 (大谷)① 〈안양9동〉

담배촌에서 제일 큰 골짜기 담배촌 남쪽에 있다 이 곳을 넘으면 군포시 속달동 소재 수리사(修理寺)에 이른다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79 큰골 (大谷)② 〈관양1동〉

불성사와 한자골 사이에 있다 관양동에서 제일 큰 골짜기라 '큰골(大谷)'이라 칭한다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80 큰바랑골 〈석수1동〉

삼막골 서북쪽에 있는 골짜기로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뒷산인 호암산(虎岩山 또는 衿川山 衿山 衿芝山)낙맥에 있다 본래의 이름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 곳이라 하여 '큰 바람골'이라 칭했는데 후대에 내려 오면서 부터 '큰바랑골'로 불리운다고 한다

- **도 움 말** 김동환(全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81 큰절골 〈석수1동〉

삼막사 밑에 있는 골짜기로 이 곳에 큰 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조석 돌절구 와편 등이 출토되었다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82 큰창배안골 〈안양9동〉

장박골 서남쪽으로 이 곳에 장바위가 있었으며 현재는 예비군교육장이 있다

● 도 움 말 김수전(全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83 큰태양산골 〈안양9동〉

작은태양산골 동쪽으로 태양산 낙맥에 있는 큰 골짜기이다 이 곳에 성인 최영환(경환)의 묘(묘는 1930년에 명동성당으로 천묘되었고 현재는 서울 절두산에 있는 것으로 알려짐)가 있으며 남쪽을 군조시 산본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 도 움 말 김수전(全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84 키다리골 〈석수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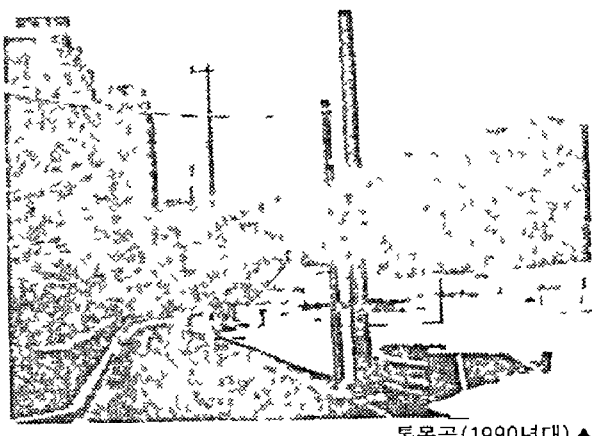
좁고 긴 골짜기라 하여 '키다리골'이라 칭한다 학무봉(鶴舞峯) 동쪽에 있다

● 도 움 말 김동환(全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85 통목골 〈관양1동〉

현대아파트 뒤에 있다 큰 나무가 많은 곳이라 하여 '통목골(通木谷)'이라 칭한다고 한다 현재는 대부분 농경지이다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통목골(1990년대)▲

● 도 움 말 김재선(全在善 관양동 685 1941년생)

86 퉁퉁골 〈관양1동〉

비산동 안날미에 있는 막은골과 관양동 사이에 있는 좁고 길게 생긴 골짜기 한자골 서쪽에 있다

● **도 움 말** 류정희(柳廷熙 관양동 426 1914년생)

87 한자골 〈관양1동〉

완쟁이골 북쪽에 있다 관양동 주민들이 불성사를 왕래할 때 거쳐야 하는 곳인데 최근에는 폐로가 되어 잡목만이 우거져 있다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88 횃골 〈안양9동〉

동이점 남쪽에 있는 넓고 긴 골짜기이다 삼림이 울창해 낮에도 해를 볼수 없는 곳이라 하여 '횃골'이라 칭한다

한국전쟁 직후 경기도 임업시험장에 의해 조림되었나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조문성(趙文成 안양동 973-35 1943년생)

제8절 바 위 (岩)

1 감투바위 〈박달2동〉

범고개마을 서쪽 용골(龍谷)에 있다 바위가 흡사 감투처럼 생겼으며 이곳에서 서쪽으로 100m 쯤에 농바위가 놓여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2 공알바위① 〈비산3동〉

비산초등학교 서쪽 70m 지점에 있다 이 바위를 건드리면 마장골 부녀자들이 바람이 난다는 속설이 있어 마장골 남자들이 바위의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1988년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서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3 공알바위② 〈호계2동〉

선일레미콘 동쪽야산에 있다 큰 바위 가운데에 또 하나의 바위가 있는데 흡사 공알(陰核)처럼 생겼으므로 '공알바위'라 칭한다 바위 가장자리에 노목(老木)이 있었는데 이 나무를 베면 주접동(안양6동의 자연취락)의 부녀자들이 떼과부가 생긴다는 속설이 있다 예전에 방죽말의 짓궂은 정년들이 작대기로 나무를 휘두루거나 바위에다 방뇨(放尿)를 하곤 했다고 한다

- **도움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4 광석(廣石)바위 〈석수1동〉

안양유원지 주자장 옆에 있다 바위가 크고 넓다하여 '광석(廣石)바위'라 부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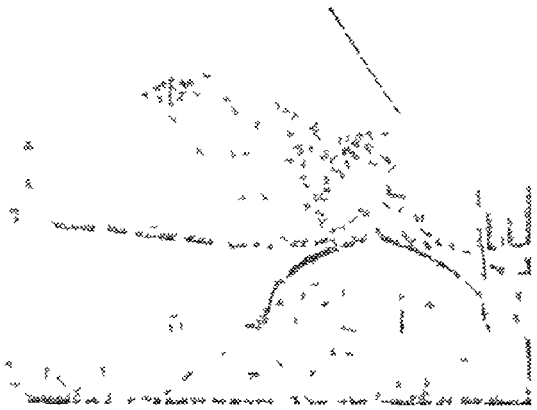
광석바위(1996)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218 1910년생)

괭이바위(1996)



5 괭이바위 ①

〈석수2동〉

안양시 위생저리사업소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고양이의 얼굴처럼 생겼다 하여 '괭이바위'라 칭하며 일명 '괘이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류우석(柳雨錫 석수동 218 1934년생)

6 괭이바위 ②

〈비산3동〉

중상골 능선에 있다 고양이 형상을 한 바위이므로 괭이바위라 칭한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기종(全基鍾 관양동 619-3 1945년생)

7. 군함(軍艦)바위

〈관양1동〉

완쟁이고개에서 불성사가는 길가에 있다 군함(軍艦)같이 큰 바위라 하여 '군함(軍艦)바위'라 부르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노인수(盧仁壽 관양동 355-1 1939년생)

8 굴바위 ①

〈석수1동〉

두리미골 서쪽 계곡 옆에 있는 바위에 큰 구멍이 나 있어 '굴바위'라 칭하는데 박쥐의 서식처라고 한다 근래에는 치성을 드리는 아낙네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다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9 굴바위 ②

〈관양1동〉

쪽돌바위 동북쪽 산 마루터기에 있는 거암(巨岩)이다 바위 밑에 작은 굴이 뚫려 있어 '굴바위'라 부르고 있다

- **도 움 말** 이용래(李龍來 관양동 1415-7 1935년생)

10 금관 (金冠)바위

〈석수1동〉

수도사 경내에 있다 면류관(冕旒冠)처럼 생긴 바위라 하여 '금관(金冠)바위 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고경인(高正印 석수동 산 241-40 1917년생)

11 넙적바위

〈석수1동〉

상불암 못미처 약 500m지점에 있다 바위가 크고 마당처럼 넓으므로 '넙적바위' 라 칭한다 바위가 영험하다 하여 지성을 드리는 부녀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최성원(崔性源 스님 석수동 산4 1950년생)

12 농바위 ①

〈박달2동〉

범고개마을 뒷편 요골 중간에 있다 장농처럼 생겼으며 이곳에서 동쪽으로 100m 쯤에 감투바위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13 농바위 ②

〈비산2동〉

장농처럼 생긴 바위 희성촌 초입에 있었다가 7지구 구획정리 사업으로 1970년대 말경에 자취를 감추었으며 현재 바위가 있던 곳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14 덤바위 〈관양1동〉

덤박골산 정상에 있다 덤가리(두엄→퇴비)처럼 생긴 바위라 하여 '덤바위'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15 동이바위 〈석수1동〉

삼막사 서편 산 중턱에 동이처럼 둥근 형상을 하고 있는 바위로 흔들거린다고 한다

● **도 움 말**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16 뒤뜸바위 〈관양1동〉

막은골 약수터 부근에 있는 바위 예전에 이 바위 앞에 큰 집이 있었는데 그집 뒤에 있는 바위라 하여 뒤뜰바위라 했는데 후대로 내려오면서 '뒤뜸바위'라 불리운다고 한다 일설에는 이 바위에 올라서면 바위가 뒤뚱뒤뚱하므로 '뒤뜸바위'라 칭한다고 한다 바위의 한 부분이 움푹 패인 것은 옛날 어느 부인이 이 바위에 앉아 소피를 본 자국이라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득춘(金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17 뒤주바위 〈비산3동〉

안날미 약수터 부근에 있다 뒤주 형상을 한 바위이므로 뒤주바위라 칭한다 인근에 장언방(張彦邦 한성부관윤 역임)의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희덕(李喜德 비산동 35 1936년생)

18 마귀할미- 불돌바위 〈석수1동〉

학무봉에 있다 예전에 마귀할머니가 불돌로 사용하던 바위라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985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 1986

19 마당바위 〈석수1동〉

마당같이 넓고 큰 바위이다 망월암에서 동쪽으로 약 30m 지점에 있으며 영험한 바위라 하여 치성을 드리려는 불자(佛子)들이 많이 찾는다

- **참고문헌** 이승언『안양시지명유래』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해송(海松스님 안양동 40-31 1933년생)

20 마리아바위 〈석수1동〉

바위의 둘레 2m 높이 20m 정도의 거암(巨岩)이 우뚝 서 있다 성모마리아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성모마리아바위'라 칭했고 다시 '마리아바위'로 통칭되고 있으나 본래의 이름은 흡사 개의 생식기와 같다고 하여 개×바위라 불리워 오다가 주민들이 어감이 좋지 않다고 하여 개칭했다고 한다 속전에 따르면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녀자들이 이 바위에다 치성을 드리면 득남을 한다고 하여 예전에는 부녀자들이 길일의 새벽이면 성시를 이루었다고 전해진다 안양소년원 북쪽으로 학무봉 아래에 있다

- **참고문헌** 한글학회『한국지명총람』1985
- **도 움 말**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21 만두바위 〈석수1동〉

키다리골과 괭맹이두턱골 사이 산 능선에 있다 만두형상을 한 거암(巨岩)이다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22 말바위 〈비산1동〉

수푸루지에 있는 토끼바위에서 서쪽으로 약 50m 쯤에 있다 말의 머리형상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지호(金吉浩 비산동 494 1946년생)

23 매바위 〈석수1동〉

삼성산 정상 국수봉 아래에 있다 바위에 매가 응시하며 서 있는 형상이라고 한다 바위 중앙에 종서로「南無阿彌陀佛 大淸光緖二十年 甲年三月日」이라고 쓴 글씨가 암각(1894년)되어 있는데 그 크기는 폭 40cm에 높이는 185cm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문화유적종람』 1996

24 명학(鳴鶴)바위 〈안양8동〉

안양경찰서와 명학초등학교 사이 산 등성이에 있다 조선조 중엽에 정풍군수를 지낸 심간(沈諫)의 묘를 쓰기 위해 지금의 대림공전 뒤를 팠는데 돌 밑에 있던 두 마리의 학(鶴)중 한 마리가 이곳 바위에 날아와 울었다 하여 '명학(鳴鶴)바위'라 칭한다 일명 '미악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이 바위로 인해 명학동 명학역 명학대교 명학봉 등의 명칭이 탄생되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박유선(朴有善 안양동 342-28 1938년생)
  이석범(李錫範 안양동375 1945년생)

25 문등바위 〈안양9동〉

창박골과 병목안 사이에 있는 삼거리 삼오상회에서 남쪽으로 약 1㎞지점에 있었던 바위로 예전에 나무꾼들의 쉼터로 이용되었으나 1970년대 장배근(張培根)이 별장을 신축하면서 죽대안에 파묻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도 움 말** 김영학(金榮學 안양동757 1946년생)

26 문(門)바위 〈안양9동〉

수암봉과 담배촌 중간에 두 개의 바위가 있는데 하나는 지붕형상을 또 하나는 문처럼 생겼는데 이를 '문(門)바위'라 칭한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27 범바위 ① 〈안양6동〉

만안구청과 안양세무서 사이 뒷 매 북쪽에 있는 바위 범의 머리형상을 한 바위라 하여 범바위 라 칭한다 일설에는 예전에 범이 이 바위에 앉아 주접동을 향해 울었다 하여 범바위라 했다고 한다 이 바위 부근은 예로부터 명당지지(明堂之地)로 소문난 곳인데 조선 말엽에 어떤 사람이 부모의 묘를 이 바위 위에다 썼다고 한다 그런데 이 곳이 풍수로 보아 범의 머리 부분에 해당되는 호두혈(虎頭穴)이므로 후손들이 성묘를 하면 그 후 어김없이 죽으므로 이 곳에서 동북쪽으로 멀리 떨어진 서리재고개(현 안양육교 일대)에서 이 바위를 향해 제(祭)를 지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병석(金炳錫 안양동 402 1921년생)

28 범바위 ② 〈박달2동〉

범고개(虎峴)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신촌) 사이에 있는 범고개 산중턱에 있다 호랑이가 남쪽을 응시하며 앉아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29 범바위 ③ 〈비산3동〉

안날미에서 장참봉(張參奉 한성부 관윤을 지낸 장언방을 지칭함) 묘소 가는 초입에 있다 범이 쪼그리고 앉아있는 형상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순성(張淳星 비산동 126 1943년생)

30 범바위 ④ 〈호계2동〉

선일레미콘 동쪽에 있다 호랑이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범바위 라 칭한다 이 바위에 구멍이 나 있는데 속전에 따르면 어느 전란 때 장수가 소피(所避)을 눌 때 뚫렸다고 하며 구멍 옆에는 그 장수가 소피를 눌 때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다고 전해진다 바위가 있는 일대는 본래 전주 이씨 영산군파의 종산으로 이곳에는 현재 영산군의 손자 묘가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31 병풍(屛風)바위 〈비산1동〉

대림전문대학 뒤에 있다 10폭 병풍을 편 형상을 하고 있어 '병풍(屛風)바위'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32 보습바위 〈석수1동〉

보습처럼 생긴 바위 동이바위 북쪽 약 500m 지점에 있다

* 보습이란 쟁기의 술바닥에 맞추는 삽 모양의 쇳조각을 말함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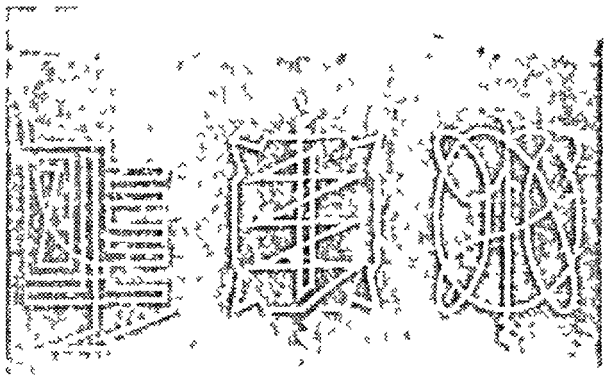
33 복(福)바위 〈석수1동〉

안양소년원 뒤 학무봉 중턱에 큰 바위 위에 얹혀 있는 바위 예전에 산막골 등 부녀자들이 이 바위 앞에서 소원성취 해달라고 기원했는데 그 때마다 바위가 영험해 복(福)를 내렸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34 삼귀자(三龜字)바위 〈석수1동〉

삼막사에서 서쪽으로 약 30m지점에 있는 바위로 백련암터 서쪽 암벽에 거북 '귀(龜)'자 세글자가 음각되어 있는데 이를 일컬어 '삼귀바위'라 칭한다 274×96cm의 '귀(龜)'와는 제각기 독특한 형제의 글씨이다 이 글씨는 구 한말 수구파로 유 불 선(儒佛仙) 및 시 서화(詩書畵)에 능통했던 지운영(池雲英 運永)이 삼막사 주지로 있을때인 1920년에 음각한 것이다 지운영은 이 외에도 백련암이란 암자를 지었고 백련암 연못을 조성했으나 모두 1977년 홍수 때 매몰되었고 이 삼귀바위에 암각된 거북 '龜'자 세글자만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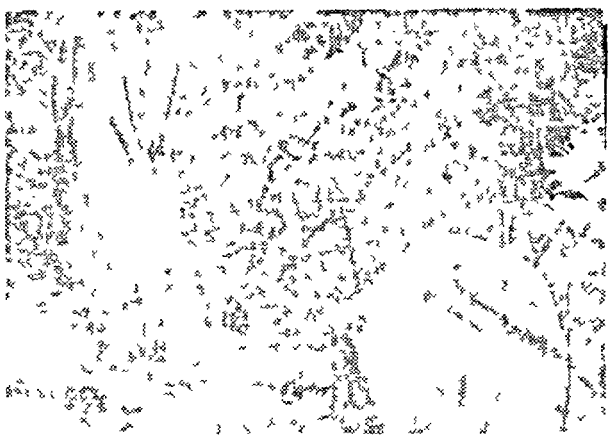


삼귀자바위(탁본)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진석(眞石스님 석수동 산 10-1 1955년생)

35 삼막사 남여근석 (三幕寺 男女根石) 〈석수1동〉

삼막사 칠성각(七星閣) 옆에 있는 돌로 경기도 민속자료 제3호로 지정 보호 관리되고 있다 이 돌은 자연형태의 남근석(男根石)과 여근석(女根石)으로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드리며 신성시 한다 이 바위를 만지면서 자식 두기를 원하고 출산과 일가(一家)의 번영 무병 및 수명장수(壽命長壽)를 빌면 효험이 있다고 전하여 4월 초파일과 7월 칠석날 등 이름있는 날에는 경향 각지에서 수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촛불과 3색 과일 등을 놓고 빈다 천연 그대로의 돌인 남근의 높이는 150cm 여근의 높이는 110cm 이다



삼막사 남여근석(1980년대)

이러한 성기숭배(性器崇拜) 사상은 수렵 채집의 풍속과 풍농(豊農) 풍어(豊魚)

다산(多産)과 무병장수 신앙과 하나를 이루어 선사시대부터 행해 왔으며 고려시대에는 물론 현재까지도 무속(巫俗) 풍수신앙(風水信仰) 동제(洞祭)미륵신앙 속에 어우러져 이어 오고 있다 민속학자인 김태곤(金泰坤 작고) 경희대 교수는 한국에 전승되고 있는 성신신앙(性神信仰)의 형태를 첫째 남(男) 성신신앙 둘째 여(女) 성신신앙 셋째 성교 모의신앙 넷째 남근봉납신앙(男根奉納信仰)으로 크게 구분한다 김교수에 의하면 남성신 신앙은 돌로 대형의 남근을 만들어 세워 놓고 신체로 믿거나 또는 자연입석(自然立石)을 남근의 상징으로 보아 신체(身體)로 믿고 여성신신앙은 자연석이 여근과 유사한 것을 성신의 신체로 믿는다 성교 모의신앙은 애기 못 낳는 여인이 바위를 타고 앉아 구르는 말바위 신앙과 큰바위에 작은 돌을 대고 문질러서 붙게하는 붙임바위신앙이 있고 남근봉납 신앙은 여신(女神)을 모신 신당에 나무로 남근을 깎아서 바치는 것이라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한국일보 『스조츠레저』 1987 4 「삼막사 남여근석」 안내문
  『명랑』 1989 7

36 삼산동천(三山洞天)바위 〈관양1동〉

삼산동전(탁본)



오촌말 뒤에 있다 조선조 숙종 때 좌승지에 증직된 삼산(三山) 오익서(吳益瑞)가 이 곳에 살면서 암각했다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금석종람』 1988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37 삿갓바위(笠岩) ① 〈안양9동〉

수리산 산림욕장 입구 오른쪽(서)에 있는 바위로 삿갓처럼 생긴 거암이다

• 도 움 말 김영학(金榮學 안양동757 1946년생)

38 삿갓바위(笠岩) ② 〈비산3동〉

무너미고개 못 미처에 있다 삿갓이 공중에 떠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삿갓바위(笠岩)'라 부른다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39 석바위 〈석수1동〉

삼봉산 중턱에 돌이 많으므로 그 일대를 '석바위'라 칭한다 일제 때 권의선(權宜善)이 농작을 위해 일시 살았다고 한다 이곳 일대가 명당지지(明堂之地)라고 전해진다

• 도 움 말 권형(權瑩 박달동 100 1925년생)

40 선(立)바위 〈석수1동〉

석산개발사업소와 삼막사 중간쯤에 위치해 있다 우뚝 서 있어 '선바위'라 칭하는데 예전에 경계석으로 세운 바위라는 설이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진석(眞石스님 석수동 산 10-1 1955년생)

41 소바위 〈비산3동〉

불성사 초입에서 무너미고개 가는 길가에 있다 소가 누워 있는 형상을 하고 있어 '소바위'라 칭한다

• 도 움 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42 수리바위 〈안양9동〉

수리바위골 중앙에 있는 바위 독수리의 서식처라고 한다 광복 직후 군포시 금정동 주민이 이 곳에서 나무를 하다가 실족사(失足死)했다고 한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守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43 십자(十字)바위 〈석수1동〉

삼성산 중턱으로 안양사 뒤에 있다 바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 '십자(十字)바위'라 칭한다 이 바위 밑에 석실분(石室墳 기념물 제126호)이 있다 석실의 길이 4 5m 폭 1 8m 높이 1m에 이른다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 218 1910년생)



십자바위 밑에있는 석실분(1993)★

44 쓰레(써레)바위 〈안양3동〉

안양전문대 뒷산 정상에 있다 쓰레(써레)처럼 생겼으며 일명 '수리바위'라 칭한다

* 쓰레한 갈라놓은 논의 바닥을 고르거나 흙덩이를 잘게 하는데 쓰이는 농구임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병택(李丙澤 안양동 961 1944년생)

45 오송칠성(五松七星岩)바위 〈호계3동〉

자진골고개 주변에 소나무 5그루와 바위 7개가 있어 이를 '오송칠성바위(五松七星岩)'라 불렀다 예전에 어느 신혼부부가 혼행(婚行)중 이 곳에 이르러 신랑이 갑자기 죽자 그 자리에 묻었다고 한다 후일 유복자인 아들이 장성하자 어머니에게 아버지의 묘소에 대해 묻자 '큰 소나무 5그루와 바위 7개가 있는 곳'이라고 아들에게 일러주었다 이에 어머니가 일러준 대로 현장을 가 보니 소나무는 나무꾼에 의해 이미 베어지고 바위는 인근 주민들에 의해 구들장으로 사용키 위해 떠가 흔적조차 없어 낙담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는 과객에 의해 아버지의 무덤을 잦았다고 한다

조선후기에 이르러 정조가 수원 화산에 있는 부왕의 묘(顯隆園)를 참배하고 환궁하다가 칠성바위에 앉아 모락산 정상에 있는 소나무를 보고 마지 우산같이 생겼다 하여 '일산 소나무(一傘松)'라 명명했다고 한다 또 예전에 어느 부인이 이 바위에 앉아 바위가 7개인 점에 작안하여 칠성님께 아들을 점지해 달라고 지성을 드렸는데 그 후 득남을 하자 '칠성바위(七星岩)'라 칭한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강태 (李康台 호계동 1000-36 1927년생)

46 장군(將軍)바위 〈석수1동〉

망월암 서쪽 약 40m 쯤에 위치해 있다 장군처럼 우람하게 큰 바위로 일명 '장사바위'라 부르기도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해송(海松스님 안양동 40-31 1933년생)

47 장사(壯士)바위 〈비산1동〉

안양동초등학교(安養東初等學校) 북쪽 150m 쯤에 있다 바위 위에 있는 바위인데 옛날에 어느 장사가 올려 놓은 바위라고 전해진다 일명 '업힌바위'라 칭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심정섭(沈政燮 비산동 521-8 1944년생)

48 장수(將帥)바위 ① 〈안양6동 안양8동〉

소골안과 곡내동 경계 야산에 있다 옛날에 어느 장수가 갖다 놓은 바위라고 전해진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정정수(鄭貞秀 안양동 563 1946년생)

49 장수(將帥)바위 ② 〈관양1동〉

관양동에서 과전으로 넘어가는 도로앞에 있는데 이 바위에 대하여 다음의 3가지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 바위에 특이한 구멍이 나 있는데 우리나라에 장수가 많이 태어나는 것을 두려워한 일본인들이 장수의 혈(穴)을 끊기 위하여 구멍을 뚫은 것
- 옛날 어떤 힘센 장수가 관악산을 만들기 위하여 전국 각지에서 아름답고 빼어난 돌들을 나르던 중 이 곳 바위에 도착하여 소피를 보면서 지광이를 짚었던 곳으로 실제로 이 바위에는 지광이를 짚었던 구멍과 소피가 흘러 내려간 듯한 형태가 남아 있다
- 예전에 한양을 왕래하는 나그네에게 떡을 만들어 팔던 자리라 하여 일명 '떡적바위'라 칭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의 설들은 이 바위가 위치하고 있는 지점이 과전가는 길가인 데다가 바위에 구멍이 나 있다는 연유에 따라 유래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학술조사가 실시되어 지석묘(支石墓)라고 밝혀지면 구멍은 다산(多産)등을 기원하기 위한 성혈(性穴)이 아닌가 생각된다

● **참고문헌** 『관양』 1989

50 지붕바위 〈안양9동〉

문바위골에 있다 지붕처럼 큰 바위라 하여 '지붕바위'라 칭한다 이 바위 옆에 문바위가 있다

● **도 움 말**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51 쪽돌바위 〈관양1동〉

오촌말 산 중턱에 있었던 바위 쪽돌(족두리)처럼 생겼다 1960년대 초에 인근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에 의해 훼파되어 자취를 감추었다

● **도 움 말** 이용래(李龍來 관양동 1415-7 1935년생)

52 창바위 〈안양9동〉

바위의 색깔이 푸른 심청색(深靑色)이라 하여 '장바위'라 칭한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장박골 주민들이 해마다 음력 7월이면 길일을 택해 마을의 안정을 위해 제(祭)를 지냈으며 요즈음도 바위가 영험하다 하여 치성을 드리는 부녀자들과 자칭 도사(道士)라고 자처하는 역술인들로 성시를 이룬다


창바위 왼쪽 흰부분 바위 위에 촛불이 보인다 (1996)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수병(李壽柄 안양동 961 1915년생)

53 칼바위 〈안양6동〉

안양6동에 있는 범바위에서 서쪽 능선 너머에 있는 바위 칼처럼 뾰족하게 생겼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정정수(鄭貞秀 안양동 563 1946년생)

54 토끼바위 〈비산1동〉

대림전문대 본관 건물에서 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산토끼의 서식처로 예전에 비산동 수푸루지 주민들이 바위 속에 들어간 토끼를 잡으려고 불을 때서 바위가 시커멓게 그을렸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지호(金吉浩 비산동 494 1946년생)

55 행여(喪輿)바위 〈비산3동〉

안날미에 있는 뒤뜸바위에서 서쪽 150m 쯤에 있다 상여(喪輿)처럼 네모진 형상을 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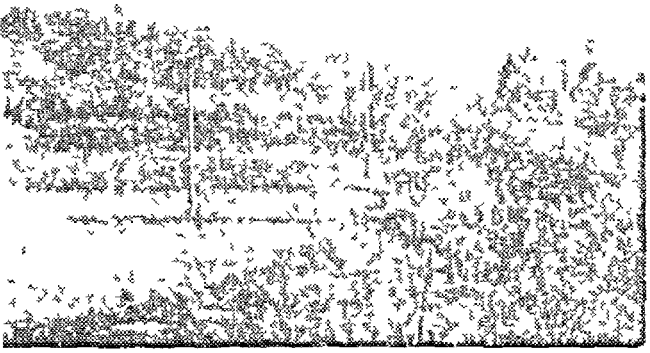
제9절 들 벌 (野坪)

1 가운데벌(중간벌) 〈석수3동〉

충훈부 마을과 아랫벌 사이에 있었던 벌(들) 1984년에 주공아파트와 민가 등이 들어섰다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2 강청(江村)머리들 〈관양1동〉


강정머리들(1990년대)▲

인덕원사거리 북쪽지역으로 아주 먼 옛날에는 이 곳 일대가 바다였다고 전해진다 구전에 따르면 7세기경 이곳을 지나가던 어느 고승이 마을 사람들에게 관악산에 절을 지으면 이 일대가 육지로 변할 것이라고 말한 후 어디론가 홀연히 떠나갔다고 한다 이 말을 듣고 마을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니면서 관악산 기슭에 절을 건립하니 고승의 예언대로 과연 바다물이 빠져 나가고 육지로 변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때 건립한 절이 관악산의 고찰인 불성사(불성사 불성사는 의상대사에 의해 창간된 것으로 알려짐)라고 하며 배를 타고 다니던 그 나루터는 강가의 한 쪽기슭이란 뜻으로 '강촌(江村)머리' 또는 '강정머리'라 부른다고 한다 주민들에 의하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나루터 형태가 남아 있었다고 전해지며 현재도 이 일대를 깊이 파면 시커먼 개흙이 나온다고 한다

● **참고문헌** 『관양』 1989

3 꼬챙이벌 (花倉坪 串昌坪) 〈석수2동〉

꼬쟁이마을 앞에 있는 들(벌)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절죽이 많았다고 한다
1980년대 초부터 택지로 변모되었다

● **참고문헌** 임시토지조사국 『조선지지자료』 1918

● **도 움 말** 성시만(成始萬 석수동 산 159 1923년생)

4 덕보들 (德伏坪 德坪) 〈비산3동〉

조선시대 이곳 농민들이 농작을 위해 수도군단 초입 산밑에 둑을 쌓고 흐르는 냇물을 막았는데 이보(伏)를 덕보(德伏)라 했고 그 아래(미륭아파트 서남쪽)에 있는 들을 '덕보들(德伏坪)'이라 불렀다 예전에는 이곳 개울(학의천)가에 물레방아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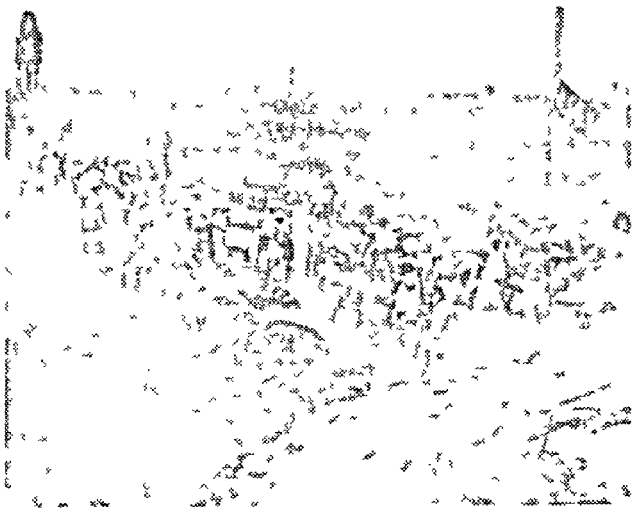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5 달안이들 (達安洞坪) 〈달안동 부흥동 뱀계동 부림동〉

달안이들(1977)



미륭아파트 남쪽에 있는 들 이곳은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다가 들이 넓다하여 만주벌관 또는 만주벌이라 부르기도 하고 만마지기들(한 마지기가 200평이므로 2백만평에 이름)이라 칭하기도 한다 또 농사를 짓다가 언제 비가 내릴지 모르므로 항상 삿갓을 쓰고 다녔다 하여 '삿갓들(笠坪)'이라 부르기도 하였고 넓은 들이므로 비가 내리면 황급히 달아나야 비를 안맞는다 하여 '달안이들(達安洞坪)'이라 칭하는 등 여러 갈래의 지명이 붙여졌다 이 일대가 허허벌관일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서울과 근교인 관계로 일제강점기 때 박흥식(朴興植)이 조선비행기주식회사를 설립하려다가 광복이 되자 중단하였다 1990년 경촌 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었다

● **참고문헌** 양지아문 『과전군양안』 1900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장식(權昶植 비산동 378 1925년생)

6 돌머리들 (石隅坪) 〈박달2동〉

범고개 마을에서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新村)가는 초입이다 이 곳에 초가 한 채와 큰 바위가 있었다가 1976년 안양 ~ 논곡간 도로포장 공사 때 집은 헐리고 바위는 다른 곳으로 이전되었다

● **도 움 말** 임종대(林鍾大 박달동 774 1930년생)

7 마루들 ① 〈관양2동〉

대한전선 동남쪽에 소재해 있다 학의천에 보(洑)를 막아 농사를 짓던 들이다 공업지구로 편입되어 있다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8 마루들 ② 〈호계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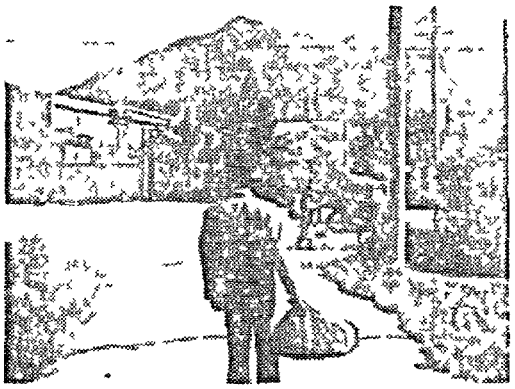
태흥무역 뒤에 있는 들로 이곳이 길게 등성이가 진 곳으로 지대가 높은 들이므로 '마루들'이라 부른다 공업지구로 지정되어 많은 공장이 들어섰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9 먹해이들 〈박달1동〉

현 박달1동사무소 일대를 말한다 박토인데다가 건한 곳이라 두엄(퇴비)을 아무리 주어도 결실이 되질 않아 농군이 빗자락만 들고 한숨만 내쉬던 버려진 들관이었다고 한다 이 곳에 사람이 처음으로 살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말엽 쯤이었다 붓골에 살던 권공선(權公先)이 경양 육군병기창 안양분장 건설로 마을이 폐동되자 1937년경 농작(農作)을 위해 처음으로 정작하면서 취



먹해이들 1930년대말 부터 민가가 들어서기 시작했다 (1971 전우회회원 이응식제공)

락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10 면세들 〈관양2동〉

대한전선 남쪽에 있는 들 학의천에 보(洑)를 막아 농사를 지었다 경존신도시 개발 구역내에 편입되었다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11 삭계들 〈관양2동〉

대한전선 남쪽에 있는 들 경존 신도시 개발지구에 편입되어 택지로 변모되었다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2동 924-2 1924년생)

12 샘들 (泉坪) 〈관양2동〉

장양들 동쪽에 있었다 광복후에 임업시험장에서 묘포장을 설치하였다 경존지구내에서는 샘물이 가장 풍부했다

• 도 움 말 김봉묵(金鳳默 관양동329 1926년생)

13 아랫벌 (들) 〈석수3동〉

충훈부 서쪽에 있는 벌판 인근에 민가와 아파트 등이 들어서자 1984년 부터 ⑧ ⑨ ⑪ 시내버스 종점 주차장으로 변모되었다 일명 벌말이라 부른다

• 도 움 말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14 어수물들 (御水井坪) 〈박달1동〉

박달1동사무소 동남쪽(구 대농단지)에 있던 들 정조(正祖)가 갈증이 나자 마셨다는 어수정(御水井)이 이 곳에 있어 이 일대를 '어수물들(御水井坪)'이라 불렀다 이 들은 본래 도로(박달로)보다 낮았으나 1950년대 말에 금성방직에서 공장을 확장하기

위하여 속칭 떡산(우성아파트 뒷산)에 흙을 돋우면서 공장부지(금성방직 → 대농단지)로 변모되었고 그 후 1977년 민간에게 택지로 분양되어 주택지로 변모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15 작대들 〈박달2동〉

붓골(筆洞) 위에 있는 들 예전에 이 곳 뒷산의 산림이 우거져 낙엽 등 부식물로 인해 토질이 좋아 농사를 지으면 작대기로 받쳐야 할만큼 결실이 좋았다 하여 '작대들' 이라 칭했으며 특히 미질(米質)이 좋아 서울 사대부가에서 작대들 쌀 이라 하면 장안에서 최고가로 팔렸다고 한다 일제강점기 때 시흥군 관내에서 상답(上畓)이라고 하면 첫째가 박달리 작대들 논을 쳤고 둘째가 서면 설월리(현 광명시 소하동)논 셋째가 남면 삼성리(현 군포시 부곡동 삼성)논을 일컬었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16 장양들 〈관양2동〉

크라운제과 남쪽에 있는 들 길게 생긴 들이므로 '장양들'이라 부른다 예전에는 이동교(현 인덕원교) 쯤에 보(洑)를 막아 농작을 했으며 일제강점기 때만 해도 물레방아가 있었다 경촌 신도시 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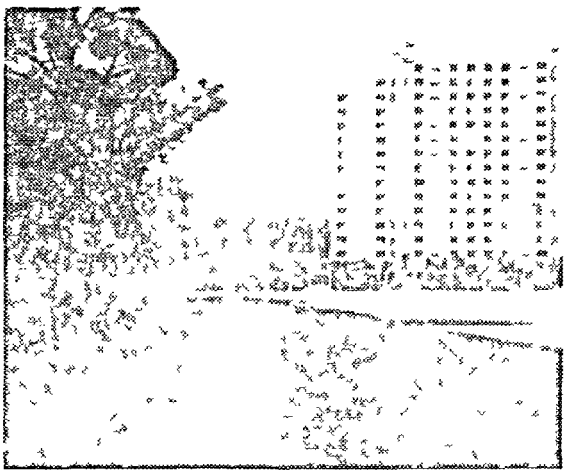
- **도 움 말** 음상규(陰相圭 경촌동 62-2 1927년생)

17 중보들 (中洑坪) 〈부림동 달안동〉

대한전선 서쪽에 있다 예전에 관양동 비산동 주민들이 이곳에 농작(農作)을 하기 위하여 학의천에 보(洑)를 막았는데 이를 중보(中洑 덕보보다 작으므로)라 했으며 이 보에 의해 농작을 한다고 하여 '중보들(中洑坪)'이라 불렀다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18 향나무들 〈박달2동〉



향나무들(1996)

예전에 현 안양고등학교 자리에 큰 향나무가 있어 그 주변의 들을 '향나무들'이라 불렀다 이 향나무는 주변에 인가가 없어 농사철이면 농민들의 휴식처로도 이용되었다 1970년대 말에 자연사 되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19 호현들 (虎峴坪)

〈박달2동〉

호현마을(범고개) 뒤에 있는 골짜기로 마은 이름을 취해 '호현들(虎峴坪)'이라 칭한다 1986년 부터 안양시에서 쓰레기로 매립하였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제10절 길(道 路)

1 경수산업도로 (京水産業道路)

서울시계(서울시 금천구 시흥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서 의왕시계(안양시 동안구 호계동과 의왕시 오전동)로 이르는 폭20~50m(종전 20~35m) 연장 10 294m(종전 9 940m)의 국도로 도로명은 목도 ~ 신의주선이며 노선번호는 국도1번이다

서울과 수원을 연결하는 기간도로라고 하여 '경수산업도로(京水産業道路)' 또는 '산업도로(産業道路)'라 칭한다 이 길은 북으로는 서울시 남으로는 의왕시 수원시를 연계하는 안양의 핵심도로이다



경수산업도로의 깃점인 서울시계 우측공터가 현재 벽조아파트가 들어섰다 (1970)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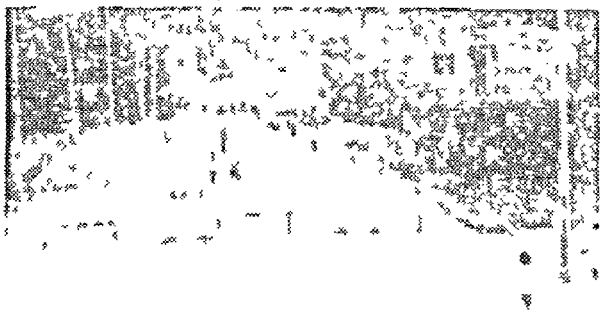
2 공원로 (公園路)

중앙공원 옆에 있는 폭 25m의 도로로 공원 3 4호에 접하고 있어 '공원로(公園路)'라 칭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3 관악로 (冠岳路)

관악로의 옛모습 비산사거리에서 안양우체국방향으로 바라본모습(1978)★



안양우체국 사거리에서 관양동 인덕원 사거리(의왕시계)에 이르는 폭 12~60m(종전 35~59m) 연장 5 800m의 지방도로 도로명은 안양~판교선이며 노선번호는 34번이다 관악산을 따라 도로가 개설되었으므로 산명을 취해 관악로(冠岳路)라 칭하였

다 이 길은 과천과 서울 및 의왕시를 거쳐 성남시 등을 왕래하는데 중요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6

4 관평로 (冠坪路)

시정 옆에 있는 도로로 폭 30m이다 관양동과 경촌지구를 연결하는 도로이므로 관평로(冠坪路)'라 칭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5 귀인로 (貴仁路)

만안로 삼익아파트 앞 안양7동 지하도(주접지하도) 초입에서 귀인에 이르는 폭 8 ~ 12m 연장 2 400m의 길이었으나 경촌신도시의 개발계획에 따라 도로의 폭 연장 등의 재편성으로 말미암아 도로의 명칭 등에 관해 재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귀인마을을 진입하는 도로라 하여 마을명을 취해 '귀인로(貴仁路)'라 칭하였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86

6 냉천로 (冷泉路) <안양5동>

삼덕제지(三德製紙) 앞에서 성결대학교(聖潔大學校)에 이르는 폭 15m 연장 2 100m의 길로 안양5동 소재 냉천동을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 '냉천로(冷泉路)'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6

7 달안로 (達安路)

폭 25m로 옛 달안마을을 통과하므로 '달안로(達安路)'라 징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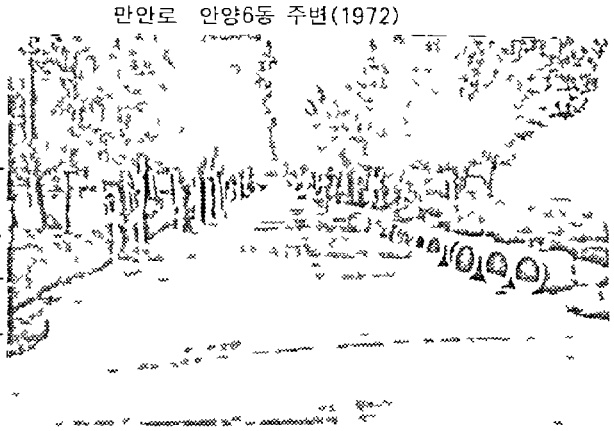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8 대한로 (大韓路)

폭 25m로 폐기물소각장 옆에 있다 대한전선 앞을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대한로(大韓路)'라 징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9 만안로 (萬安路)


만안로 안양6동 주변(1972)

석수2동 소재 석수주유소에서 군포삼거리 호계동 시계에 이르는 폭 20 ~ 25m 연장 6 900m(종전 8 870m)의 길로 안양문화의 상징으로 경기도 지방유형문화재 제38호인 만안교 연변을 통과하는 도로라하여 '만안로(萬安路)'라 징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10 명학로 (鳴鶴路)

안양경찰서 앞에서 경수산업도로(또는 산업도로)에 이르는 폭 30m 연장 1 200m(종전 1 250m)의 길로 명학동에서 명학대교를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 '명학로(鳴鶴路)'라 징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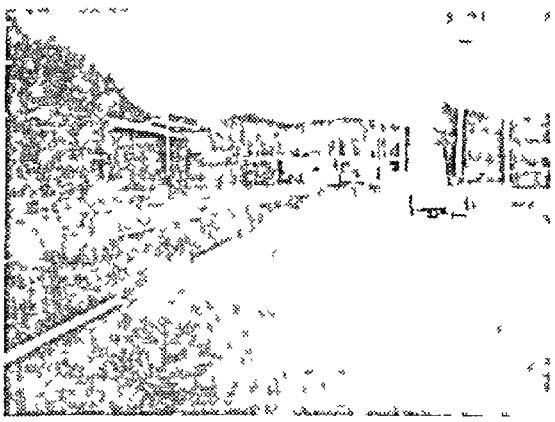
11 문화로 (文化路)

폭 25m의 도로로 주변에 공원이 있어 문화적인 이미지가 구상되어 '문화로(文化路)'라 칭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12 박달로 (博達路)

박달로(1993)



화단극장 앞에서 박달동 범고개(시흥시계)에 이르는 폭 20 ~ 25m(종전 12 ~ 20m) 연장 4 000m의 지방도로로 도로명은 안양 ~ 오류선이며 노선번호는 397번이다 박달동의 동명을 취해 '박달로(博達路)'라 칭하였고 1991년에 4차선으로 확장되었다 이 길은 1930년대 군용지(평양육군병기창 안양분창)이 건설되자 우회도로로 개설되었다 1976년 경에 첫 포장되었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6

13 방죽로 (防築路)

동양나이론에서 경수산업도로(또는 산업도로)에 이르는 폭 12m 연장 1 100m의 길로 호계2동의 방죽말을 통과하는 도로라 하여 '방죽로(防築路)'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14 범계로

경수산업도로 옆에 있는 폭 25m 도로이다 범계동 지역과 인접해 있는 도로이므로 '범계로'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15 새마을로

삼원극장에서 안양3동 병목안(後頭尾洞)에 이르는 폭 16m 연장 1 800m의 길로 새마을(안양9동)을 진입하는 도로라 하여 '새마을로'라 칭하며 일명 '병목안 진입로'라 부르기도 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16 시민로 (市民路)

폭 20m로 시청과 시의회를 통과하는 도로이므로 '시민로(市民路)'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7 시민대로 (市民大路)

시정 옆을 통과하는 폭 40m의 도로로 경촌지구내 중심도로로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로이므로 '시민대로(市民大路)'라 칭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18 신기로 (新基路)

농산물도매시장 옆에 있다 샛터마을을 통과하므로 '신기로(新基路)'로 칭하며 폭은 40m에 이른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 신기이로 (新基二路)

신기로 남쪽 공원 옆에 있다 폭 40m도로로 샛터마을을 통과하므로 '신기2로(新基二路)'라 칭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20 중앙로 (中央路)

중앙로 원용안 안양읍장의 운구행렬이 보인다(1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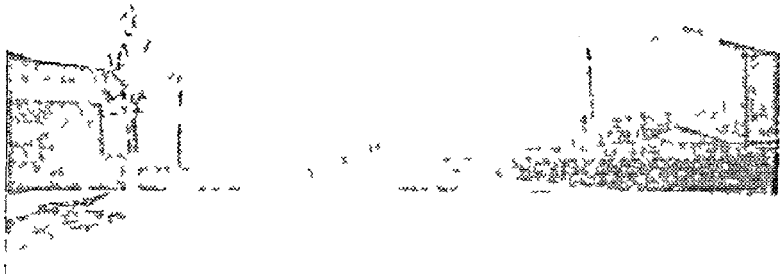


석수동 소재 안양육교에서 호계동 산본고가로에 이르는 폭 35m 연장 G 300m (종전 5 200m)에 이르는 길로 안양시의 중심가를 따라 도로가 개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안양의 중심도로 역할을 담당한다 하여 '중앙로(中央路)'라 칭한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21 충훈로 (忠勳路)

충훈로(1972 안양대교에서 충훈로 방향)



안양유원지 소재 기아의 집(구 안양관광호텔)에서 석수3동 충훈부에 이르는 폭 10 ~ 15m(종전 10 ~ 12m) 연장 3 400m의 길로 충훈부 진입로라 하여 마을명을 취해 '충훈로(忠勳路)'라 칭한다 이 도로명은 옛 관아명칭과 마을명칭인 충훈부에서 취한 것이므로 '충훈부로(忠勳府路)' 바꿔야 한다 충훈과 충훈부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22 평촌대로 (坪村大路)

무역전시장 옆에 있는 폭 40m 도로이다 평촌신도시내 주 간선도로이므로 '평촌대로(坪村大路)'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23 학의로 (鶴儀路)

폭 25m로 학의전변에 접하고 있으므로 '학의로(鶴儀路)'라 칭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24 흥안로 (興安路)

군조사거리에서 과전시계에 이르는 폭 30 ~ 60m(종전 14 ~ 30m) 연장 5 380m의 지방도로 도로명은 반월 ~ 금화선이며 노선번호는 47번 국도이다 흥안국민학교(현 안양남초등학교) 연변에 개설된 도로라 하여 '흥안로(興安路)'라 칭한다 현재의 도로는 1990년 6월 18일에 작공하여 1993년 9월 25일에 준공었으며 시행정은 서울지방국토관리정 시공자는 서광산업(주)이다

● **참고문헌** 내무부 『도시의 길 이름』 198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 - 1986
안양시 「안양시 도로 관리대장」 1992 1996

제11절 다 리 (橋 梁)

1 관악교 (冠岳橋) 〈석수1동〉

안양유원지 내 대형풀장 서쪽 약 50m지점에 있다 1978년 9월 30일에 준공된 이 다리는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동덕개발(주)이다 하천명은 삼성천이다

● 참고문헌 「관악교관」 197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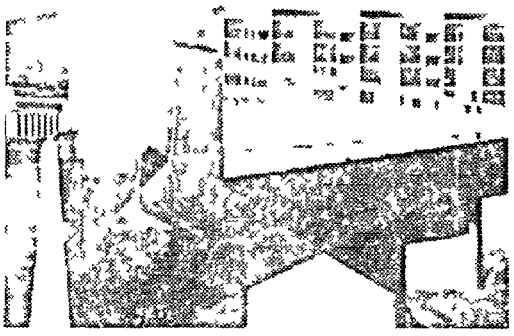
2 관악일교 (冠岳一橋) 〈석수1동〉

안양육교 서쪽 약 100m 지점으로 물가놀이터 뒤(북)에 있다 1980년 11월에 준공된 이 다리는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삼풍건설(주)이다 하천명은 삼성천이다

● 참고문헌 「관악1교관」 1980

3 관양교 (冠陽橋) 〈관양2동〉

관양2동사무소와 크라운제과 사이에 있다 종연장 60m 교폭 7 5m 설계하중 18톤 통과하중 18톤으로 1987년 12월 28일에 착공하여 1988년 6월 24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청은 안양시청 시공자는 남경개발이며 하천명은 학의천이다 관양여중과 관양2동사무소 진입에 있어 '관양교(冠陽橋)'라 칭한다


관양교(1996)

● 참고문헌 「관악교관」 1988

4 관양이동보도교 (冠陽二洞步道橋) 〈관양2동〉

관양2동 일반주택과 고려산업사이에 있는 다리 종길이 65m 교폭 2 4m로 1989년 11월 10일에 착공하여 1989년 12월 9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청은 동안출장소 시

공자는 형제공업사로 학의전 위에 남 북방향으로 놓여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5 군포교 (軍浦橋) 〈호계3동〉

국제전선(주) 옆에 있는 다리로 호계3동과 군포시 금정동에 걸쳐 있다 다리의 총연장 34 5m 폭 11 5m 다리높이 3 4m 차도 폭 11 5m 경간수 3개 설계하중 18톤 통과하중 25톤이다 다리의 구조에 있어 상부는 스라브교에 난간은 절재원형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또 도로의 노선명은 흥안로 하천은 안양전의 지류이다 '군포교(軍浦橋)'란 교명은 이곳 일대를 구군포(舊軍浦)라 징한데 유래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6 내비산교 (內飛山橋) 〈비산2동 달안동〉

한가람 한양아파트 307동 한양 샛별아파트 201동과 안양종합운동장 진입사거리(충의대 사거리)에 걸쳐 있는 다리로 총연장 72m 교폭 40m 설계하중 24톤으로 1990년 12월 31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시공자는 (주)한양이다 하천명은 학의전이며 평촌대로와 관악로를 연결하느 중요 교량이다

● **참고문헌** 「내비산교판」 1993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7 대한교 (大韓橋) 〈관양2동〉

대한전선주식회사 정문 앞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60m 교폭 10 4m 교각 3개로 1975년 8월 20일에 작공하여 1975년 11월 30일에 준공되었다 대한전선 초입에 있으므로 '대한교(大韓橋)'라 징한다 하천명은 학의천이다

● **참고문헌** 「대한교관」 1975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8. 덕천교 (德泉橋)

〈안양7동 비산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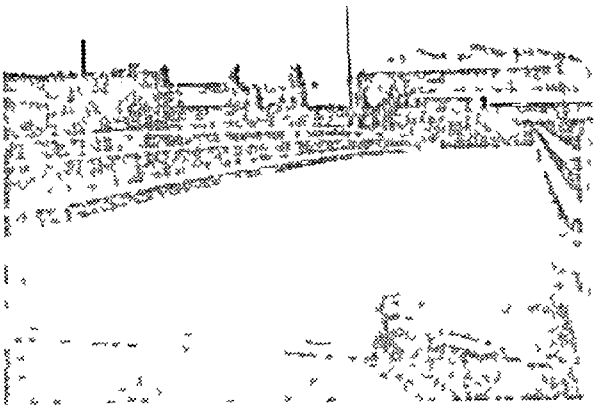
홍왕빌라 C동과 원영아파트 동화약품공업(주)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 3억 8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었다 다리의 총연장 73 5m 폭 18m(자도 14m 인도2m)로 1990년 7월 28일에 착공하여 1990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이 다리는 등교길로 이용될 뿐만 아니라 만성교통제증을 해결하는 가변 교각으로도 사용되고 아울러 안양천을 중심으로 동서로 끊겨진 생활권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시행행은 안양시정 시공자는 삼풍건설(주)이며 하천명은 안양전이다

• 참고문헌 「덕천교관」 1990 「안양신문」 1991 3 4

9 동안교 (東安橋)

〈관양2동〉

동안교(1996)



구 동안구정(현 안양문화원)과 신태양아과트 B동 사이에 있다 총연장 65m 교폭 9m 설계하중 24톤으로 1989년 11월에 작공하여 1990년 5월에 준공되었고 시행정은 안양시정 시공자는 동일건설(주)이다 동안구정 진입에 있어 '동안교(東安橋)'라 칭하며 하천명은 안양전이다

• 참고문헌) 「동안교관」 1990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10 동양교 (東洋橋)

〈호계2동〉

동양교(1972)



우일주유소에서 동양나이론(후문)을 연계하는 다리로 1963년 11월 3일에 준공되었다 동양나이론 진입에 있는 다리이므로 '동양교(東洋橋)'라 부르고 있다

• 참고문헌) 「동양교관」 1963

11 만안교 (萬安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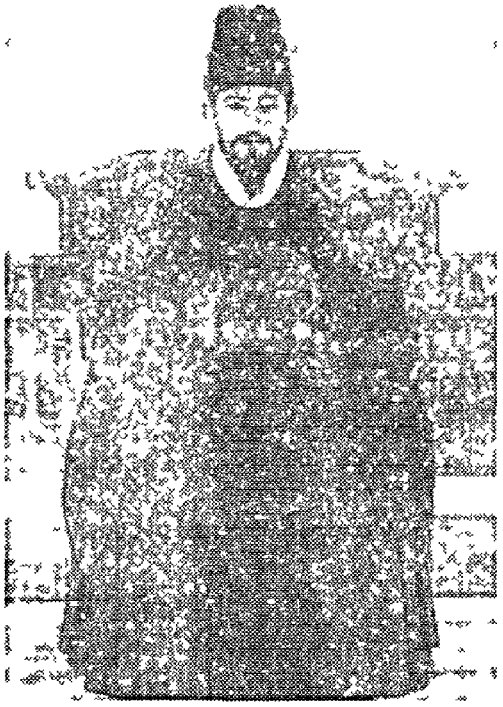
〈석수2동〉

안양을 대표하는 문화재의 하나로 안양 문화를 상징하는 문화제(文化祭)의 유래가 된 조선 후기의 홍예석교(虹霓石橋)이다 이 다리의 축조는 조선 제22대 임금으로 효심이 지극했던 정조(正祖 재위 1776-1800)의 명에 의해 가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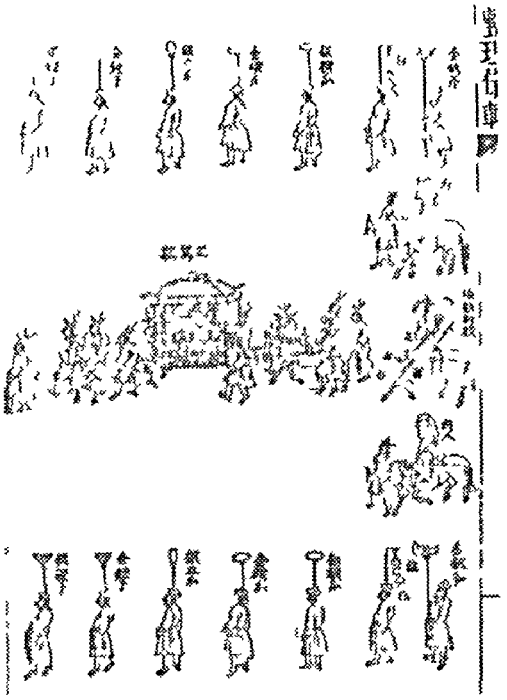
정조는 영조(1694-1776)의 왕세손으로 영조의 뒤를 이어 즉위했으나 아버지 사도세자(思悼世子 1735-1762)는 영조의 왕세자이었으나 부왕인 영조에 의해 영조 38년(1762) 윤 5월 13일 왕세자의 지위에서 폐출되어 뒤주 속에 갇힌지 8일째 되는 동년 윤 5월 21일 죽은 비운의 인물이다 세자가 죽은 후 영조는 세자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킴과 동시에 시호를 사도(思悼)라고 하고 세자빈을 혜빈(惠嬪)이라 하여 비명에 간 아들의 영혼을 위로하였으나 이미 지나간 비극이었다 영조가 재위 52년(1724-1776)만에 83세를 일기로 죽자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즉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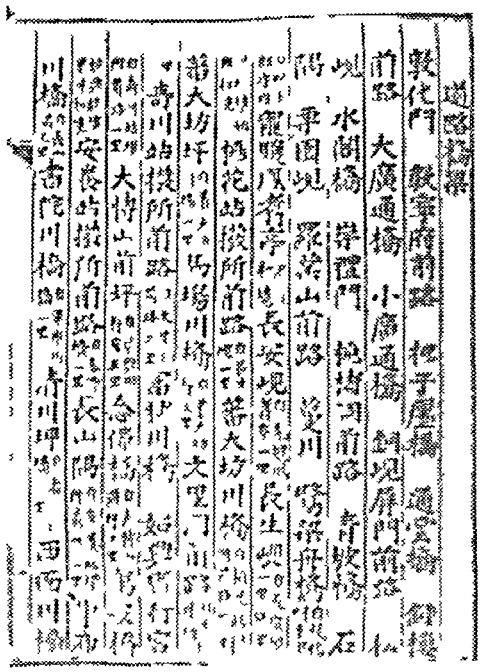
정조의 이름은 산(?)자는 형운(亨運) 호는 홍재(弘齋)로 영조 35년(1759)에 세손에 책봉된 후 아버지가 원통하게 죽은 뒤 효장세자(孝章世子 眞宗 1719~1728)의 후사가 되었고 영조 51년(1775)에 늙은 영조를 대신하여 국정을 다스리다가 영조가 죽자 25세에 왕위에 오른 후 부왕인 사도세자의 존호를 장헌(莊獻 1899년에 莊祖로 주

정조대왕 어진



정조대왕의 능행자(「을묘원행정리의괘」에서





정조의 능행로정(「원행정례」 도로교량조)

존)이라 주상하고 양주 배봉산에 있는 그의 묘소인 수은묘(垂恩墓)를 영우원(永祐園)으로 봉(封)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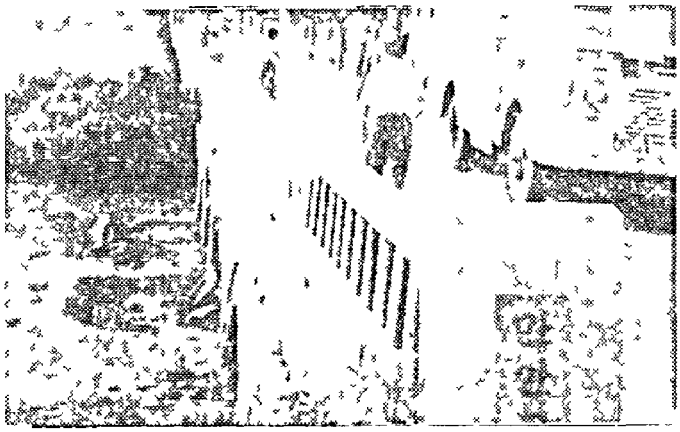
정조는 즉위 초부터 매년 한 두 자례씩 영우원을 전배하고 국내(局內)를 두루 살피곤 했으나 영우원의 원침형국(園寢形局)이 전협(淺狹)한 것을 늘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명당으로 전장할 계획으로 년운(年運) 산운(山運) 본명운(本命運) 등을 살펴 길년(吉年)인 정조 13년(1789)에 전장할 것을 연교(筵敎)하고 지사(地師)를 각지로 보내어 명당을 살피도록 명한데 이어 금성위(錦城尉) 박명원(朴明源 정조의 친누이동생 和平옹주 남편)이 "영우원은 원침의 형국이 좁고 또 불길한 듯 하오니 다른 곳으로 전봉(遷奉)하는 것이 좋겠다"는 요지의 상소를 올리자 정조는 대신(大臣) 각신(閣臣) 예당(禮堂) 등 2품 이상의 신하들을 희정당(熙政堂)에서 소견(召見)하고 영우원 전봉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다이리하여 홍제동의 영능(寧陵) 건원능(建元陵) 우강(右岡)의 원능(元陵)과 더불어 수원의 화산(花山)이 3대 명당으로 꼽히게 되었는데 그 중 수원의 화산은 『영능의궤 寧陵儀軌)』에 실려 있는데 전년에 한 번 만나볼까 말까한 길지로 '반용롱주형(盤龍弄珠形)'이어서 정조도 이 곳을 천봉지로 의중을 굳히고 승지로 하여금 수원산론(水原山論)을 낭독케 하자 여러 신하들이 모두 잔동하여 전봉지를 수원 화산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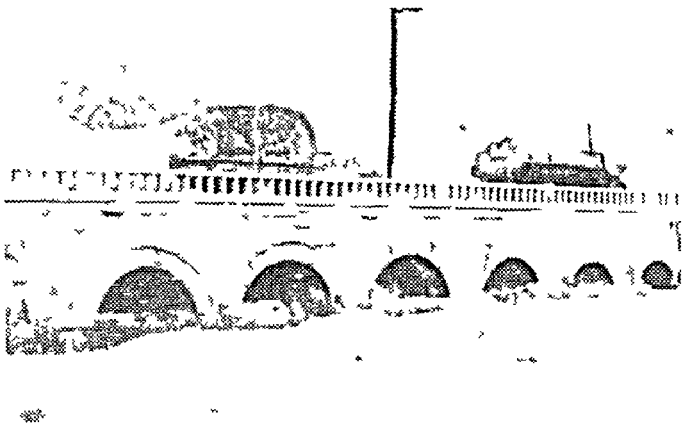
정조 13년(1789) 7월에 산역(山役)이 시작되자 8월에는 원호(園號)를 현융(顯隆)으로 결정한데 이어 10월 7일에는 현륭원의 전봉례(遷奉禮)를 거행하였으며 10월 17일에는 마무리 산역이 있었다 이후 정조의 현륭원 전배는 춘행(春幸)과 추행(秋幸)의 두 행차가 있었는데 춘행은 1월 말에서 2월 초에 거행되었으며 추행은 8월 삭망 사이에 거행되었으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춘행을 원칙으로 하였는데 이는 사도세자(장헌세자)의 탄신일이 1월 21일이도 하겠지만 무엇보다도 강민(疆民)과 농민의 한가한 시기를 이용함으로써 그들의 괴해를 최소한에 그치게 하려는 정조의 배려 때문이었다

정조의 수원능행은 전봉 이듬 해(1790)부터 정조가 사망(1800)하기까지 11년 동안 모두 12차례에 걸쳐 행해졌는데 제1차(1790) 부터 제5차(1794)까지의 능행로는 창덕궁(昌德宮)의 정문인 돈화문(敦化門)을 출발하여 돈령부전로(敦寧府前路) 서울 종로구 익선동) - 파자전교(把子廛橋 종로구 묘동 57) 통운교(通雲橋 종로 2가 30 동남쪽) - 종루전로(鍾樓前路 종로 네거리 앞길) - 대광통교(大廣通橋 종로구 서린동 122 남쪽) 소광통교(小廣通橋 중구 남대문로 1가 23 남쪽) - 동현병문전로(銅峴屛門前路 중구 을지로1가에서 명동 롯데백화점 사이) - 송현(松峴 중구 소공동 111 부근) - 수각교(水閣橋 중구 남대문 4가 1)- 숭례문(崇禮門 중구 남대문) - 도저동전로(桃楮洞前路 용산구 도동과 양동) - 청파교(靑坡橋 용산구 정파동 1가 168) - 석우(石隅 청과전과 만초천이 만나는 서쪽) - 율원현(栗園峴 용산구 원효로 2가에서 용산가는 동남쪽 산?)- 나업산전로(羅業山前路 용산구 신계동) - 만전(蔓川 용산구 한강로 3가) - 노량주교(鷺梁舟橋 한강) - 용양봉저정(동작구 본동 10-3) - 만안현(萬安峴 만냥고개)- 금불암(金佛庵 상도터널 - 숭전대 사이에 있던 암자) - 금불현(金佛峴 - 舍堂里 동작구 사당동) - 상업천교(裳業川橋 관악구 남현동) - 남태령(관악구 → 남현동) - 과천현행궁(果川縣行宮 과천시 중앙동 소재 온온사) - 읍내전전교(邑內前川橋 과전전화국 앞) - 냉정점(冷井店 과전시 갈현동 찬우물앞)- 은행정(銀杏亭 과전시 갈현동) - 인덕원점후전교(仁德院店後川橋 안양시 관양2동 인덕원네거리) - 인덕원전교(仁德院川橋 안양시 평촌동 인덕원교) - 독박지(禿朴只 안양시 평촌동 민배기) - 갈산점(葛山店 안양시 갈산동 갈미) - 독동현(禿洞峴 안양시 평촌동 호계1동) - 군보전점(軍堡川店 안양시 호계1동) - 자전동(自棧洞 안양시 호계3동) - 원동점(院洞店 의왕시 오전동) - 사근평(肆覲坪 의왕시 고천동) - 사근점발소전로(肆覲站撥所前路 의왕시 고전동) - 사근점행궁(肆覲站行宮 의왕시 고전동 고전동사무소) 등을 거져 화성군 태안읍 안녕리 소재 현융원에 이르는 83리 과전노정(果川路程)을 택했으나 이상의 노정이 다리가 많은데 다가 남태령 등 험준한 고갯길이 있어서 치도(治道)하는데 민력(民力)이 배나 들어 이 폐단을 깊이 근심한 정조가 여러 차례나 민폐를 줄일 방도를 강구하도록 하명하자 전후도신(前後道臣)이 금전로정(衿川路程 또는 시흥로정)이 편리하다는 뜻을 전달하자 정조 18년(1794) 4월에 이르러 정조의 명으로 경기감사(京畿監司) 서용보(徐龍輔 1757-1824)가 과전로정과 금전로정을 살펴본 결과 금천로정이 거리에 있어 과전로정이 85리 시흥로정이 83리로 별반 차이는 없으나 과천로정에 비해 땅이 높낮음이 없이 고른데다가 길이

경평하고 넓어 금전로정을 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품계하자 정조가 윤허를 하여(『정조실록』39 18년 갑인 4月 무오조) 관서(關西)의 남당성(南塘城) 축조공사 때 남은 1만 3전량을 빌어서 도로의 제치(除治)에 작수하여 당년에 끝냈다

이리하여 금전현과 과천현 사이의 안양천(安養川 현삼성천)위에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하고 시흥현 치소(현 서울시 금전구 시흥5동)에 금전행궁을 설치했다 이듬해(1795) 윤 2월 1일에는 금전현감(衿川縣監)을 현령(縣令)으로 승격시키고 고려 성종 때(991) 금주의 별호로 정해진 시흥(始興)을 읍호(邑號)로 개호改號)하여 이후부터 금전현을 시흥현(始興縣)으로 금전로(衿川路)를 시흥로(始興路)로 부르게 되었다 (『정조실록』 19년 을묘 윤 2月 계미조) 만안교가 가설되기 이전에 이 다리는 사람이나 간신히 다니던 나무다리였다 어쩌다 임금이 행차할 때는 목재로 가설했다가 행차 뒤에는 바로 철거되어 보관했다가 행차가 있을 때에 다시 가설하는 것이 상례여서 얼음이 풀릴 때나 장마가 질 때면 물을 건너는 사람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시흥로의 개설과 정조의 능행으로 항구적인 돌다리를 축조케 된 것이다 만안교의 가설은 본래 경기감사였던 서용보가 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자 후임인 서유방(徐有坊 1741-1798)이 정조의 명을 받고 정조 19년(1795) 7월에 작수하여 3개월 만인 동년 9월에 완공을 보았다 이처럼 다리가 빨리 완공을 보게 된 것은 경기관찰사가 직접 지휘한 탓도 있었겠지만 만안교 부근의 하전가에 돌이 많았기 때문이었다 만안교는 길이가 15장 폭은 4장 높이는 3장에 압문(閘門 다리구멍을 뜻함) 7개(사적비에는 5개로 기록)의 홍예석교(虹霓石橋)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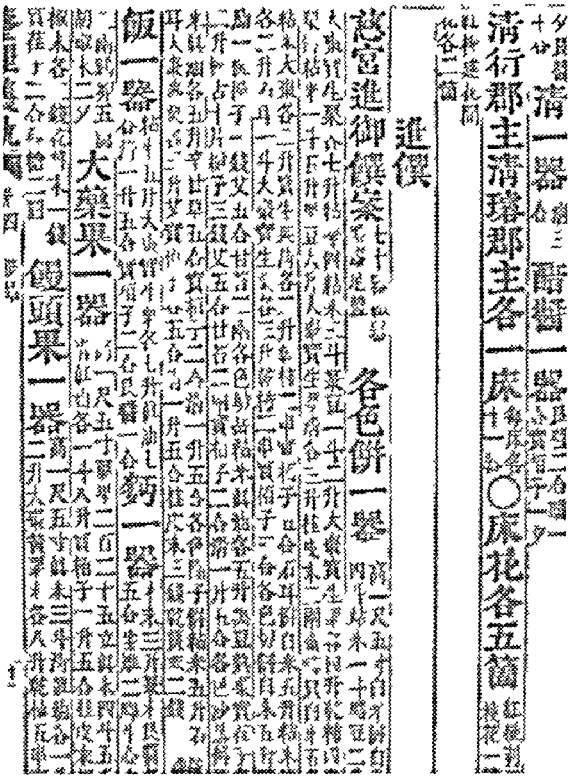

만안교(1960)


만안교(1960)

이 다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조는 준공 후 감독한 사람과 공장(工匠)에게 상을 내림은 물론 만안교(萬安橋)란 교명(橋名)도 직접 명명했는데 만안교는 성가(聖駕 임금이 탄 수레 즉 정조)와 자가(慈駕 혜경궁홍씨)가 육용(六龍)에 멍에를 메이고 방울을 울리면서 편안히 지났다가 편안히 오기를 만만년을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편

의는 만백성에게까지 미저 원근의 짐꾸러미들이 튼튼한 다리로 건너게 되어 만만년토록 성은(聖恩)을 입게 되고 자덕(慈德)을 기리게 되었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다 만안교가 유명해지기 시작한 것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를 모시고 함께 건너면서 부터인데 이 때는 만안교가 가설괴기 이전이기 때문에 나무로 임시 가설했다가 행자를 하였다

혜경궁 홍씨는 영의정 홍봉한(洪鳳漢)의 딸로 세자인 사도세자와 함께 영조 11년(1735)에 탄생하여 16세 때〈영조 20년(1744)〉네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2남 2녀를 두었으나 28세 때 세자가 살해된 뒤 어린 3남매(큰아들은 요절)를 거느리고 홀몸이 되었다 시아버지인 영조와 남편인 세자의 괴벽 틈에서 끝내는 당쟁의 소용돌이로 뒤주 속에 갇혀 굶어 죽는 것을 살아서 지켜보아야 했던 혜경궁 홍씨의 인간상황은 그가 『한중록』에서 썼듯이 '눈물이 말라 슬프면 눈이 아플 지경'으로 처절했던 것이다 그러다가 42세 때인 1776년 둘째 아들이 영조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1795년 윤 2월 13일이 회갑일(回甲日)이 되어 세자의 원침이 있는 수원에서 회갑연을 거행키 위해 그해 음력 윤 2월 9일 원행길에 올랐다 왕궁을 출발한 정조는 용양봉저정에서 잠시 쉰 후 시흥행궁에서 경박(經宿)하고 다음날 시흥행궁을 출발하여 만안교를 저음으로 건넜는데 이후 부터 만안교란 존재가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清一器 醬一器
清衍郡主清瑤郡主各一床 各五色花各五箇
進饌
慈宮進御饌案
各色餠一器
大藥果一器
饅頭果一器
飯一器
湯一器

혜경궁 홍씨의 진찬(1795 「을묘원행정리의괘」에서

만안교를 지난 후 안양행궁 남변 중로(南邊 中路 안양경찰서 뒤 동아아파트 부근으로 추정)에 이르러 혜경궁 홍씨와 청연군주 청선군주〔淸衍郡主 淸璿璿主〕의 상(床)에는 미음 한 그릇(木飮一器) 고음 한 그릇(膏飮一器) 정과 한 그릇(正果一器) 등을 들고 사근행궁(현 의왕시 고천동사무소 자리)을 거쳐 화성행군(華城行宮 현 수원시 장안구 신풍동 및 남창동의 옛 경기도립 병원 수원경찰서 신풍조등학교 일대)에서 경박하고 11일에 공자 사당(聖廟)을 배알하고 새로 인출(印出)한 사서삼경(四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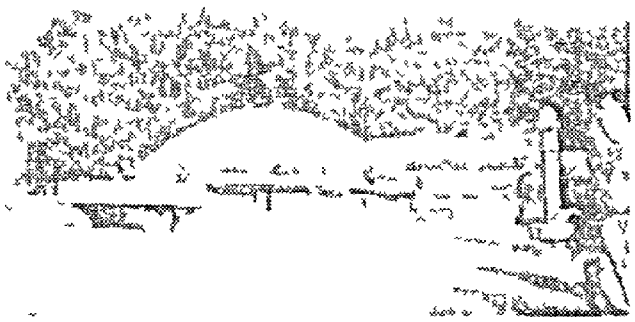
三經)과 노비를 하사하고 화성행궁 내 우화관(于華館)에서 시사(試士)하고 낙남헌(洛南軒 현재 수원 신풍초등학교 교정에 소재함)에서 무사들에게 과거를 시행하였다 12일에 정조는 혜경궁을 모시고 현융원을 전배하고 서장대(西將臺)에 올라 성조(城操)와 야조(夜操)을 열람하고 13일 진시(辰時 오전 8-9시)에 화성행궁 내 봉수당(奉壽堂 옛 경기도립병원 자리로 수원시 장안구 남창동 6-2에 있었음)에서 거행되었다 진찬(進饌)에 참연(參宴)한 내빈(內賓)이 13명 외빈(外賓)이 69명이었으며 참연노인(參宴老人)은 384명이었다

회갑연이 끝난 후 14일에 정조는 친히 낙남헌에 임어하여 사민(四民)에게 쌀을 나누어 준 후 영의정 홍낙성(洪樂性) 등 15인과 화성(수원)노인 이석조(李奭祚) 등 384인을 위한 양노연(養老宴)을 베풀었다 15일에는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모시고 환궁길에 올라 사근행궁에서 주정(晝停)하여 광주부윤 서미수(徐美修)와 시흥현령 홍경후(洪景厚) 과전현감 김이유(金履裕 1794 2 6 - 1797 12 20에 과전현감 재임) 등과 소견하고 만안교를 거쳐 안양교 앞길에서 잠시 쉬었다가 시흥행궁에 당도하여 경숙하고 16일에 환궁하였다

정조가 만안교를 처음으로 통과한 것은 현융원 제7차 전배가 있던 정조 20년(1796)이었다 이 해 1월 20일 왕궁을 진발한 정조는 만안교를 거쳐 당일에 화성행궁에서 경숙하고 현륭원을 전배한 후 24일에 환궁하였다 이후 정조의 현륭원 전배는 제8차(1797)에 2회 실시한 외는 11차(1800)까지 모두 5회나 실시해 정조는 시흥로정을 택한 제6차(1795)까지 6회나 안양을 거쳐 전배했으나 1795년에는 나무다리였으므로 정조가 실제 돌다리로 축조된 만안교를 왕래한 횟수는 제7자(1796)부터 제11차(1800)까지 5회에 이른다 정조의 효심에 의해 가설된 만안교는 그 후 안양에 많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첫째는 전술한 바와 같이 로정의 변동으로 서울에서 삼남지방으로 가는 도로가 종전의 과천에서 안양으로 우회되어 1백여년 후에는 경부선 철도가 거의 정조의 능행(陵幸)길를 따라 부설되므로 교통이 발달되자 과천에 속한 작은 마을 안양은 점차 도시화로 변모되는가 하면 한때(신라시대)는 인천광역시와 서울시 강서구 양천구 영등포구 구로구 금천구 관악구 용산구 서초구 동작구와 안양시 군포시 등의 제 지역이 영역 또는 영현이었을 만큼 웅군이었던 과천은 점차 한촌으로 전락되어 가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번째는 학교 행정구역 문화제 일반 상호에 이르기까지 만안이란 이름을 쥐하기 시작했다 1901년에는 만안교 서남쪽(위지 안양2동 248)에 조등학교가 설립되자



융능 사도세자와 세자비 혜경궁 홍씨의 능이다(1980년대)



능행자(1986 중앙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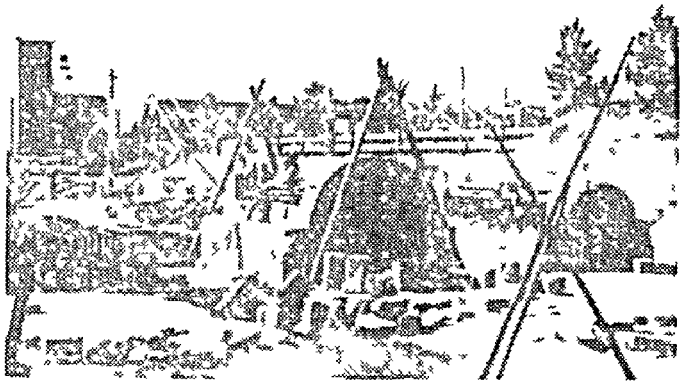
만안초등학교라 하였는데 이 교명은 관양동 출신의 오병선(吳炳善)이 이 학교 초대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명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4년에는 석수2동 소재 석수주유소에서 호계동 삼거리에 이르는 길이 8 8km의 도로를 만안교(萬安路)라 칭하였으며 1986년에는 안양문화를 상징하는 종합문화제의 명칭을 만안문화제(萬安文化祭)로 명명하였고 그 해 10월 6일 부터 17일까지 12일간에 걸쳐 제육행사를 비롯하여 시민위안공연 전야불꽃놀이 연극제 수석전 가훈전 관악백일장 안양미협전 등의 각종 문화행사를 거행하였다 1992년에는 안양에 2개의 구가 개정되었는데 그 중 안양1동 2동 3동 4동 5동 6동 7동 8동 박달1 2동 석수1동 2동 3동 등에 이르는 제 지역을 만안구(萬安區)라 하였다 이 밖에 만안의 명칭을 취한 것으로는 만안새마을금고(안양1동 842-4) 만안각수영장(석수동 241-41) 만안감리교회(안양 2동 822-3) 만안교회(박달동 50-5) 만안유치원(박달동 10) 만안파출소(안양1동 842-5) 등이 있다

세번째는 만안교 축조 후 안양지역 주민들이 이 곳에서 해마다 음력 정월 초닷새부터 열엿새 사이에 답교놀이를 했다 답교놀이를 하면 풍년이 들고 농사일에 허리와 다리가 아프지 않다는 풍속에 의해 행해졌다 대보름 다음날(16일)은 '귀신당날'이라 하여 하루를 더 놀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이 날까지 놀아야만 나무가 죽지 않아 땔나무를 많이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답교놀이는 일제강점으로 식민착취가 시작되면서 경제적 여유가 없는데다가 인심마저 각박해져 술과 음식을 대접하는 풍습이 점차 사라졌기 때문에 1920년 경까지 실시되다가 그 이후 사라졌다고 한다

이 놀이의 악사는 짠지괘가 주동이 되다가 차츰 두레괘(일명 뚱뚱괘)들이 담당했는데 그 배역을 살펴보면 무동으로 소승(小僧) 1인 소무(小巫) 2인 별감 1인 밭복 1인 등 5인과 밑무동 5인 왜장녀 1인 잽이(쌍호적 제금 장고 북 징 괭과리) 등 잽이 7 - 8인 선소리꾼 5 - 8인 기수 3인 양반(샌님)1인이다 놀이는 길놀이를 시작으로 마당놀이 - 선소리꾼 놀이 - 대동놀이 - 다리밟기 - 줄다리기 - 짚불놀이 순으

로 구성되었는데 이 답교놀이는 1987년 무용평론가 이병옥(李炳玉 용인대교수)에 의해 현지조사로 대본이 작성되어 1989년 9월 제6회 경기도 민속예술경연대회에 안양시의 대표 전통민속놀이로 경연에 참가하여 공로상을 수상한 바 있다

만안교는 원래 안양대교에서 동쪽으로 안양유원지 길을 따라가다 만안로와 서로 만나는 十자 교차로에서 북쪽으로 약 20m 지점에 있었다 그러나 구 한말에 이르러 일제가 경부선을 부설하면서 안양천을 남쪽으로 우회한 후부터 다리로서의 효용가치는 상실되어 다리의 위와 아래지역에 공장과 민가가 들어섰는가 하면 한 때는 다리 밑은 넝마주이 등의 안식처(?)이기도 했으며 광복 후 국도1호선에 포장을 실시하면서 다리위에 콜타르를 부어 만안교의 의미가 퇴색되었다 언론인 이규태(李圭泰 1933년생 조선일보)가 1976년 만안교를 둘러본 후 주간조선(1976 9 16)에 「만안교」란 제하에 글을 기고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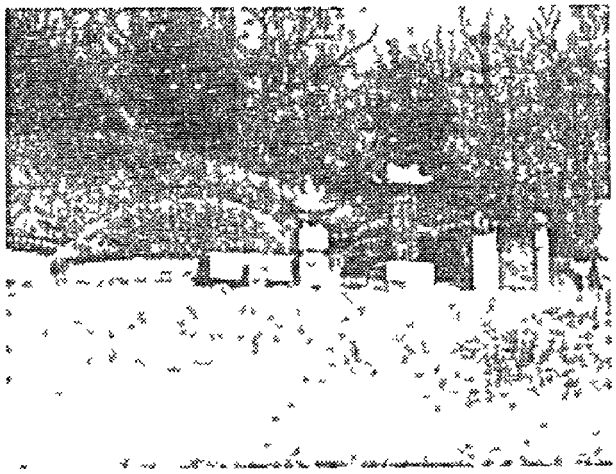


만안교 이전복원공사(1979~1980)★

안양에 다가가니 넓은 새길이 좌로 나고 우로 나 산책자(散策子 이규태)가 찾고자 하는 역사의 한 현장을 찾아가는데 갈피를 못잡겠다 무작정 우로 돌아가니 안양대교로 이어지는 구도와 안양유원지로 가는 새 길이 마주쳐 전에 없었던 새 십자로(十字路)가 나타난다 그 십자로의 구길쪽에 걸친 다리가 찾고자 하는 만안교였다 이상한 일이다 이 다리를 놓았던 정조 19년(1795)에는 안양천의 물줄기가 달리 흘렀던 것 같다 지금은 안양대교가 놓인 쪽으로 물굽이가 돌아갔지만 1백 80년 전에는 만안교가 놓인 쪽으로 흘렀던 것같다 지금은 늪이 되어 그 강바닥 위 아래 쪽에 집이 들어서고 공장이 들어서 만안교란 사실상 다리 구실을 못하고 있었다

이 돌다리는 정조의 효심을 입증한 많은 유적 가운데 하나다 사도세자로 속칭된 장헌세자의 비명을 몹시 슬퍼한 그의 아들 정조는 수원 화산(華山)에 능을 옮기고 거의 해마다 능행을 했던 것이다 수원은 동작동 과천을 거쳐 가는 것이 바른 길이었으나 그 길 도중에 정조의 숙원(宿怨)인 김상로(金尙魯)의 무덤이 있다고 해서 이를 피해 금천(衿川 始興) 안양의 새 길을 택했던 것이다 대제학 김유의 아들인 김상로는 좌의장 김약로(金若魯)의 아우로 영조 때 호조판서(戶曹判書) 좌의정(左議政) 영의정(領議政)를 역임한 정승이었는데 영조와 장헌세자간을 가운데 들어 이간하고 두 편을 오가면서 고자질하여 서로 시기케 하여 끝내는 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이게 한 원인이었다

김약노 묘(1980)



이에 정조는 병신년(丙申年)에 김상로의 관직을 삭탈하고 그의 치양 치현(致讓 致顯) 두 아들을 유배하는 한편 그의 손자를 종으로 하천(下賤)시켰던 것이다

이 숙원의 무덤을 피한다는 정조의 감정 때문에 서울 - 시흥 - 수원간에 새 길이 다듬어졌으며 남도로 가는 주로(主路)가 과천 우회로 부터 시흥 우회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임금의 대연(大輦)을 지탱하기에는 너무 빈약했던 나무다리를 뜯고 길이 15丈 너비 4丈 높이 3丈의 돌다리를 놓은 것이 만안교다 경기관찰사를 비롯 경기도 관내 병마(兵馬)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그리고 수원 개성 강화의 각 유수(留守)가 총 동원되어 놓은 다리니 그 중대성이나 규모가 당시로서는 대단했음을 알 수가 있다 다리 목에 세워진 만안교비(萬安橋碑)를 보면 만안(萬安)이란 다리 이름이 만년동안 단단하다는 뜻과 만성받이가 안전하게 이 다리를 건넌다는 뜻이 복합되어 지어진 것이라 한다

한데 겨우 1백 80여년 만에 다리구실을 잃고 말았으니 무상하다 다리 밑을 내려보면 여덟개의 완벽한 반원(半圓)의 홍예가 제대로 남아 있는데 그 역사적 유물 위에 다가 콘크리트를 붓고 콜타르를 부어 새 다리를 만들어 기구한 이중구조의 추태를 드러내고 있으니 한심하기 그지없다 옛것에다 콘크리트로 씌어놓는 이 만안교의 몰골이야말로 곧 한국인의 야누스적인 이중구조를 고스란히 엿보여 주는 지부만 같아 낯 간지럽기까지 했다 다리의 효용이 있더라도 못할 짓인데 이미 다리의 효용이 없어진 지금에 그 골로 두어 둔다는 것은 고유문화를 모독하는 우리의 치부요 이 고을의 수치가 아닐수 없다 깨끗이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예대로 복원시킴으로써 지금도 오가고 있을 효심의 행로들 만안케 해야 할 줄 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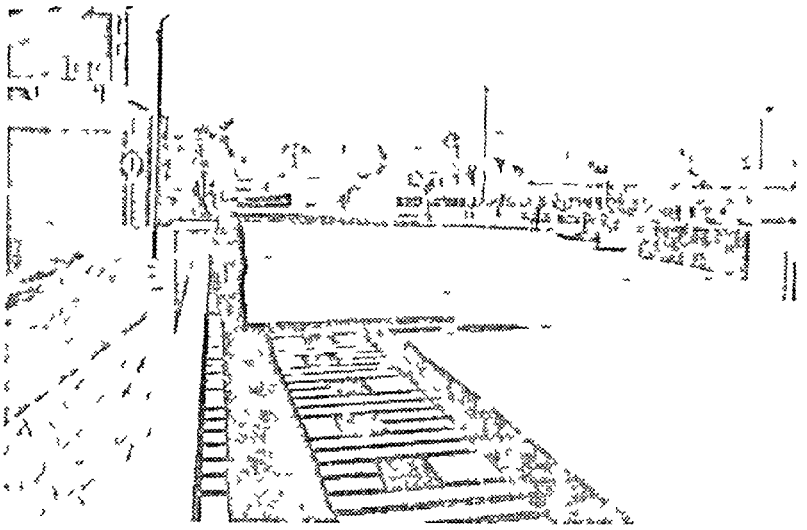
이상의 글 중 「 正祖의 宿怨인 金尙魯의 무덤이 있다 해서 」는 지금의 과천시 갈현동 잔우물(冷井洞)에 있는 묘를 지칭하는 것인데 이 묘는 김상로의 무덤이 아니고 그의 형인 김약로(金若魯 1694-1753)의 무덤이다 김상로의 무덤은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쌍봉에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 京畿관찰사를 비롯 경기도 관내 兵馬 水軍節度使 그리고 水原 開城 江華의 각 留守가 총 동원되어 」라 했는데 이상의 5개의 관직은 당시 정조의 명으로 만안교를 가설한 경기관찰사 서유방(徐有防)의 관직명을 종징하는 것이며 「 여덟개의 완벽한 半圓의 홍예가 」라는 글은 7개의 오기이며 또 만안교비에는 5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 역시 오기이다 이러한 오류는 1956년에 경기도가 편찬한 『경기도지(京畿道誌)』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이후에

발간된 각종 자료가 대부분 『경기도지』를 참고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오류가 생긴 것으로 보여진다 만안교의 안내문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1988년 10월 25일자 「경인일보」에 만안교 안내문 오기란 제하의 보도로 오기임이 밝혀지자 1990년에 재작성하였다

만안교는 1973년 7월 10일에 유형문화재 제 38호로 지정 관리되어 오다가 1980년 도시화로 현재의 석수2동 270으로 복원 이전하였으나 몇 가지 아쉬움이 남는다

첫째 문화재는 본래의 자리에 있어야 하고 아울러 원형보존이어야 한다는 것인데 만안교의 가설은 남 북을 연계하여 서울과 안양은 물론 서울과 삼남지방 간의 원활한 교통수송의 일익을 담당해 안양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만큼 중요한 문화재인데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면서부터 이상의 기능은 상실하고 다만 석수 2 3동 주민들이 지하철 등을 이용하는 구실 밖에 되지 못할 만큼 국소화 되고 말았다

만안교터(1972 안양교에서 바라본 만안교터)



두번째는 만안교는 역사적으로 옛 과천군과 시흥군(금전)의 군계(郡界)여서 경계교(境界橋) 역할도 함께 수행했으나 이전된 자리는 옛 시흥군 영역의 보도로 이용되는 외에는 역사성 등의 당위성이 결여되어 있다

세번째는 복원 이전된 후 그 자리에 표석이라도 세워 선조들이 남긴 훌륭한 문화유적지를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하지 않을까

● **참고문헌**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정조 『원행정례』 1789
이병모 『정조실록』 1805 정조 『을묘원행정리의괘』 1795
정조 『화성성역의괘』 1801 김정호 『대동지지』 1862
시흥군 『시흥군읍지』 1899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 1956
박광성 『기전문화연구』 10-1979
이규태 「주간조선」 1976 9 16 안춘배 『역사의 얼굴』 1980
김성한 『길따라 발따라』상 1984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이병옥 『만안답교놀이』 안양문화원 1988
이규태 『역사의 산책』 1988
최영희 『과전 안양의 답교놀이 연구』 1988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경수노정어연구」 인문경론 16-1988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上 1988

12 만안삼성교 (萬安三聖橋) 〈석수2동〉

안양교에서 북쪽으로 약 200m지점에 있는 다리 총연장 24m 교폭 20m로 스라브교이다 1979년 4월 9일에 작공하여 1979년 10월 19일에 준공되었는데 시행청은 안양시 시공자는 동덕개발(주)이다 도로명은 만안로 하천명은 삼성천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13 명학대교 (鳴鶴大橋) 〈안양7동, 호계2동〉

안양경찰서와 동양나이론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90m 교폭 30m(차도폭 20 6m 보도폭 4 7m) 교각 5개 다리높이는 7m이다 또 다리의 구조에 있어 상부는 T빔교이며 난간은 절재사각에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명학동에 있는 큰 다리라 하여 '명학대교(鳴鶴大橋)'라 칭하며 노선명은 명학로 하천명은 안양전이다 (주)정우개발에 의해 1978년 9월 26일 작공하여 1979년 8월 29일에 준공되었다

• **참고문헌** 「명학대교판」 1979
안양시「안양시 교량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4 박달교 (博達橋) 〈박달2동〉

삼신아과트 앞에 있는 다리로 종연장 14 6m 교폭 6m 다리높이 3 2m 경간수 2개(경간길이 7 3m)이다 또 설계하중은 18톤에 통과하중은 50톤이다 다리의 구조에 있어서 상부는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1976년 안양시에 의해 가설되었으며 노선명은 박달로 하천명은 안양전의 지류이다 박달동에 있는 다리라 하여 '박달교(博達橋)'라 칭한다 1991년 박달로 확장공사로

교폭을 넓혔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5 박석교 (博石橋) 〈박달1동 석수2동〉

박달1동 소재 서일화학(위치 박달1동 24-1)과 석수2동 럭키아파트 10동 사이에 있는 다리 총연장 120m 교폭 20m(차도 14m 보도 6m)로 1989년 5월 16일에 착공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준공된 후 1980년 4월 3일에 개통되었다 하천명은 안양천이다 박석교(博石橋)란 교명은 박달동의 '박(博)'자와 석수2동의 '석(石)'자를 취한 것이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삼풍건설이다 또 건설비는 총 8억원에 이른다

• **참고문헌** 「박석교관」 1989 「경기경론뉴스」 1990 4 16

16 비산교 (飛山橋) 〈비산2동 부흥동〉

부흥동 동성아파트 112동 평안교회와 안양중앙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65m 차도폭 50m〔종전 총연장 60m 교폭 20 4m(차도폭 15 8m 보도폭 2 3m)〕이며 종전의 다리는 삼부토건에 의해 1973년 4월에 착공하여 이해 12월에 준공되었으나 평촌신도시의 건설로 1991년 2월 2일에 착공하여 1993년 6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청은 안양시 시공자는 우성건설 삼풍건설이다 노선명은 경수산업도로(또는 산업도로) 하천명은 학의천이다 비산동에 있는 다리라 하여 '비산교(飛山橋)'라 칭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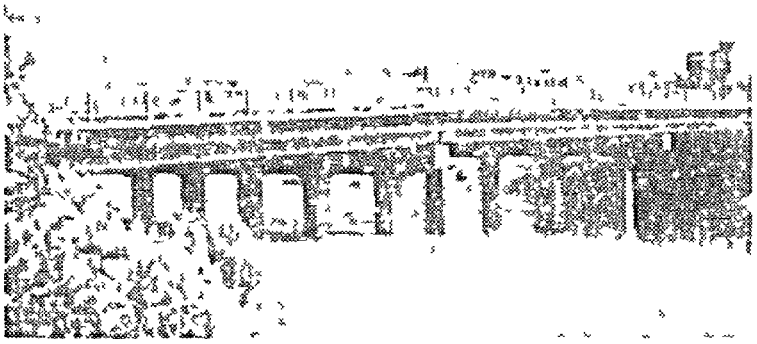
• **참고문헌** 「박석교판」 1973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7 비산대교 (飛山大橋) 〈안양1동, 비산1동〉

비산1동 및 안양1동 안양7동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다리로 비산동 사거리와 비산육교 사이에 위치해 있다 총연장 92m 폭 18 2m 교각 7개로 1974년 6월 8일에 착공하여 1975년 6월 25일에 준공되었다 비산동에 소재한 다리 중 가장 크다고 하

여 '비산대교(飛山大橋)'라 칭한다 하천명은 안양전인데 1990년 9월 홍수로 일부가 도괴된 바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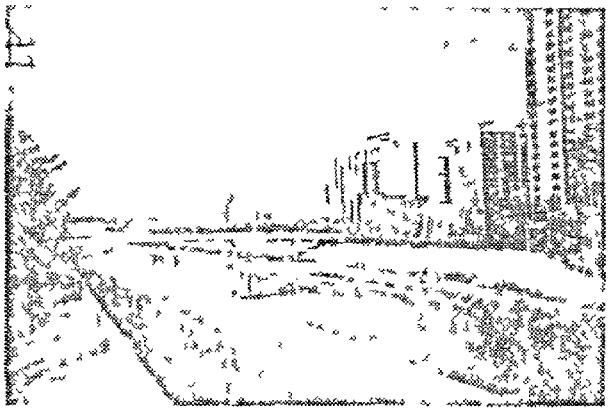
비산대교(1993년경)★

18 비산인도교 (飛山人道橋)

〈비산2동 부흥동〉

부흥동 동성아파트 113동 115동과 비산2동사무소 사이에 걸쳐 있는 다리 총길이 65m 교폭 5m로 1993년 5월 3일에 착공하여 1993년 8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청은 안양시 시공자는 장안건업(주)으로 학의전위에 남 북방향으로 놓여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비산인도교(1996)

19 비호교 (飛虎橋)

〈비산2동 호계3동〉

비산동 진흥아파트 앞에 있는 다리로 총 길이 20m 교폭 15m이다 시행전은 안양시 시공자는 세우건설인데 1986년 5월26일에 착공하여 이해 12월 21일에 준공되었다 하천명은 호계전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20 삼막교 (三幕橋)

〈석수2동〉

성혜의원 옆(북)에 있는 다리 길이 18m 교폭 20m로 1979년 12월 12일에 준공되었다 이 다리밑으로 인도교가 설치되었으며 옆(동)에는 경부선 철도가 북쪽으로 약 150m 지점에는 관악역이 있다 삼막천에 가설된 다리라 하여 '삼막교(三幕橋)'라 칭하며 노선명은 만안로 하천명은 삼막전이다

● **참고문헌** 「삼막교관」 197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1 삼성일교 (三聖一橋) 〈석수1동〉

삼성5교 서쪽 약 100m 지점으로 유유산업(주) 앞(남)에 있다 1977년 6월에 착공하여 1977년 12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삼풍건설(주)이다 하전명은 삼성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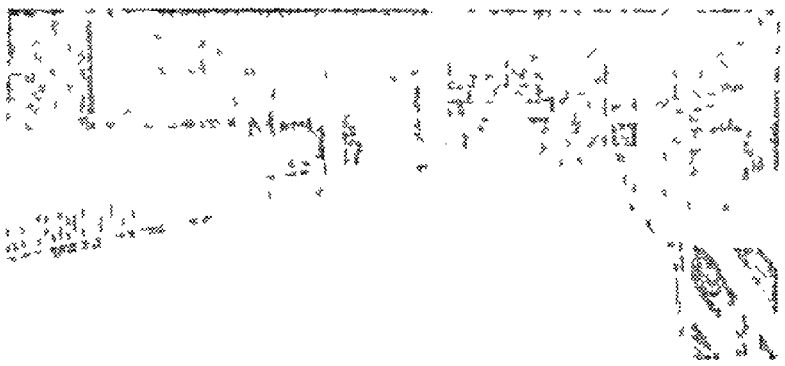
● **참고문헌** 「삼성교관」 1977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22 삼성이교 (三聖二橋) 〈석수1동〉

관악교 서쪽 약 150m 지점으로 안양유원지 매표소 앞(북)에 있다 총연장 26m 교폭 8m에 통과하중은 50톤 설계하중은 18톤이다 1977년 7월 1일에 착공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준공된 이 다리는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삼부토건이며 하전명은 삼성전이다

● **참고문헌** 「삼성2교관」 1977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23 삼성삼교 (三聖三橋) 〈석수1동〉



삼성삼교(1996)

만안각수영장과 영장상회 사이에 있다 총연장 30m 교폭 8m로 1977년 11월 1일에 착공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삼부토건(주)이며 하전명은 삼성천이다

● **참고문헌** 「삼성3교관」 1977

24 삼성오교 (三聖五橋) 〈석수1동〉

삼성2교 서쪽 약 50m 지점으로 안양유원지 주차장 앞(남)에 있다 1984년 5월 2일 착공하여 동년 6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대화건설(주)

이며 하천명은 삼성전이다

• **참고문헌** 「삼성5교판」 1984

25 삼성육교 (三聖六橋) 〈석수1동〉

삼성3공 서쪽 약 100m 지점으로 안양경찰서 유원지파출소 뒤에 있다 종연장 29 5m 교폭 15m로 1987년 2월 18일 작공하여 동년 6월 2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신덕종합건설(주)이다 하천명은 삼성천이다

• **참고문헌** 「삼성6교판」 1987

26 새마을교① 〈석수1동〉

1970년대 새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이 가설한 다리 종연장 20m 폭 6m 삼막골 초입에 있다 하천명은 삼막전이다

• **도움말**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27 새마을교 ② 〈안양9동〉

새마을 진입에 있는 다리 종길이 15m 폭 6m로 1974년 6월에 가설되었다 현재는 후두미교와 함께 복개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28 석수교 (石水橋) 〈석수1동〉

석수 주공아파트 정문 앞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30m 교폭 20 40m(차도폭 15 2m 보도폭 2 6m) 다리높이 3 2m 경간수 2개(경간장 15m)이다 다리의 구조에 있어서 상부는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에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삼부토건에 의해



석수교의 위치 우측 건물 앞에 있다(1972)

1969년 6월 16일에 착공되어 동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노선명은 경수산업도로(또는 산업도로) 하천명은 삼성전이다 석수동에 있는 다리이므로 '석수교(石水橋)'라 칭한다 『과천읍지』 교량조에 '안양전석교 과천현 서쪽 20리에 있다'(安養川石橋在縣西二十里)는 기록으로 보아 이 다리가 조선시대에는 돌다리(石橋)로 '안양천석교(安養川石橋)'라 칭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또 이 다리를 경계로 하여 북쪽이 금천현(→ 시흥군) 그 남쪽이(→ 과천군)이었다

● **참고문헌** 과천군 「과천군읍지」 1899 「석수교관」 1969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2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9 수촌교 (秀村橋) 〈관양1동, 부림동〉

부림동 공작아파트 502동 삼성아파트 201동과 현대아파트 앞 사거리에 걸쳐 있는 다리로 총연장 74m 교폭 30m 설계하중 24톤으로 1990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 31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시공자는 (주)한양이며 하천명은 하의전이다 뱀말 즉 수촌 앞에 있는 다리이므로 '수촌교(秀村橋)'라 칭한다

● **참고문헌** 「수촌교관」 1993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30 신촌교 (新村橋) 〈석수1동〉

삼성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30m 교폭 20 4m(자도폭 15m 보도폭 2 7m) 다리높이 3 1m 경간수 2개(경간장 15m)이다 다리의 구조에 있어서 상부는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삼부토건에 의해 1969년 6월 16일에 착공되어 같은 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신촌마을 앞에 있는 다리라 하여 '신촌교(新村橋)'라 칭하며 노선명은 경수산업도로(또는 산업도로) 하천명은 심막전이다

● **참고문헌** 「신촌교관」 1969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31 안양교 (安養橋) 〈안양2동〉


안양교(1993년경)★

안양대교와 경부선 철도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109 8m 교폭 20m 1986년 12월 20일에 착공하여 1987년 8월 (?)에 준공되었다 본래의 교명은 안양교(安養橋)였으나 1978년에 안양대교가 가설되자 '안양구대교(安養舊大橋)'로 통칭되었다가 다시 안양대교로 명명되었다 노선명은 만안로 하천명은 안양천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2 1996 「경인일보」 1986 12 18 「안양구대교판」 1987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32 안양대교 (安養大橋) 〈안양2동, 석수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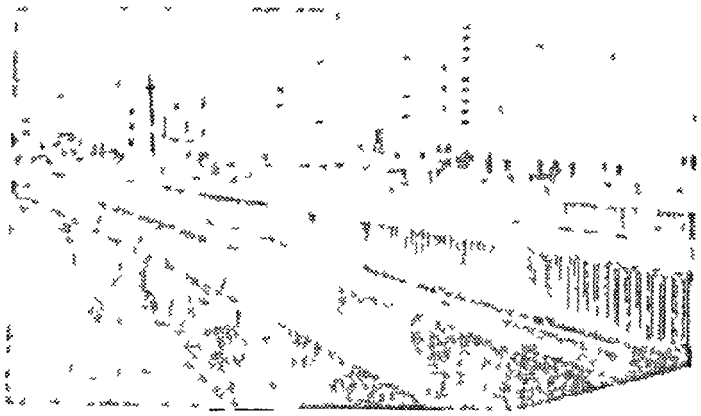
안양2동과 석수2동 경계에 있는 다리 본래 총연장 110m 교폭 25m의 규모로 교량이 있었다가 1977년 7월 8일 안양 시흥지방에 내린 집중호우로 교각(橋脚) 1기가 침하(沈下)되어 60시간 동안이나 교통이 두절된 바 있다 그 후 총 연장 115m 교폭 25m(차도폭 25 6m 보도폭 4 7m) 교각 4개로 1977년 10월 24일에 착공하여 1978년 2월 28일에 준공되었다 삼성천(三聖川) 삼막천(三幕川) 수암천(秀岩川) 안양천(安養川) 등 안양을 대표하는 하천이 모두 이곳에서 합류된다

안양시에 가설된 교량 중 가장 큰 교량이라 하여 '안양대교(安養大橋)'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2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33 양명교 (養明橋) 〈안양2동〉

중앙아파트앞 양명고등학교 진입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95 8 교폭 7m(차도폭 7m) 교각 4개 경간수 5개(경간장 19 2m)로 설계하중 18톤에 통과하중은 25톤이



양명교(1993년경)★

다 다리의 구조는 상부가 PC빔교에 난간은 절재원형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서원건설에 의해 1985년 5월 22일에 작공하여 1985년 10월 21일에 준공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교량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34 양지교 (陽地橋) 〈안양1동, 안양2동〉

대동서점과 성심병원 사이에 있는 다리로 종연장 34m 교폭 34 2m(자도폭 24 2m 보도폭 5m) 다리높이 3 2m 교각 3개로 1973년 12월 11일에 준공되었다 다리의 구조는 상부가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양지동에 진입해 있는 다리라 하여 '양지교(陽地橋 이 다리가 제일양지교임)'리 징하며 노선명은 중앙로 하천명은 수암전이다

● **참고문헌** 「양지교관」 1973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35 율목일교 (栗木一橋) 〈안양9동〉

율목일교(1996)



안양예고 정문에서 서쪽으로 약 100m 지점인 율목동 양지빌딩과 프라자아파트 202동 203동에 걸져 있다 총길이 208m 교폭 8m 설계하중 18톤 통과하중 32톤으로 1990년 8월 30일에 작공하여 1991년 10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범진산업(주)으로 수암천위에 남 북방향으로 놓여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36 율목이교 (栗木二橋) 〈안양9동〉

율목동(1977년 7월 대 홍수 때 산사태 난 곳)에서 프라아파트 205동사이에 있는 다리 종길이 24 1m 교폭 8m 설계하중 18톤 통과하중 32톤으로 1990년 8월 30일에 착공하여 1991년 10월 3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범진산업(주)이며 수암전위에 남 북방향으로 놓여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37 율목삼교 (栗木三橋) 〈안양9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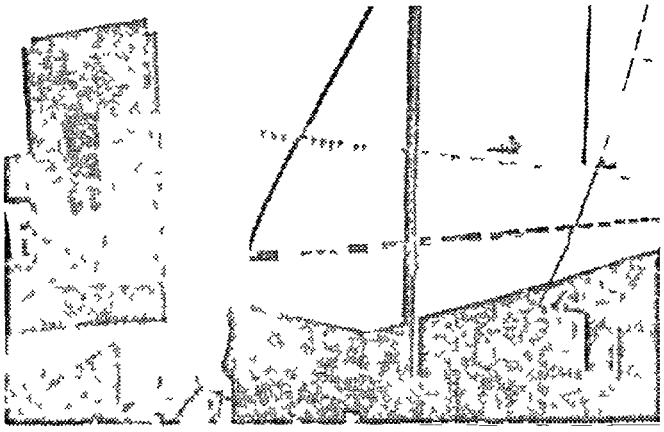
새마을교와 율목이교 사이에 있는 다리 총길이 18 8m 교폭 8m 설계 통과하중 24톤으로 1995년 8월 8일에 작공하여 1996년 9월 20일에 준공되었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다원건설(주)이며 수암전위에 남 북방향으로 놓여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38 인덕원교 (仁德橋) 〈관양2동 평촌동〉

동일방직 앞에 있는 다리로 종연장 60m 교폭 16m (차도폭 16m) 다리높이 4 6m 경간수 5개(경간장 12m)이며 다리의 구조는 상부가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었으나 흥안로의 확장으로 재시공하여 종연장 60m 교폭 50m 설계하중 24톤으로 1990년 6월 19일에 작공하여 1993년 9월 25일에 준공하였다

『원행정례』 도량교량 조에 인덕원점후천교(仁德院店後川橋)와 (禿朴只 민배기로 지징)사이에 인덕원전교(仁德院川橋)란 지명이 기술되어 있는데 조선시대에는 이 다리를 인덕원전교라 불리웠던 것으로 생각된다 이곳이 과거 시흥군 안양읍 이동리(二洞里)라 하여 이동교(二洞橋)라 하였으며 1993년 교량을 확장한 후 인덕원교로 개징하였다 시행전은 서울지방국도관리정 시공자는 서광산업주식회사이며 노선명은 흥안로 하전명은 학의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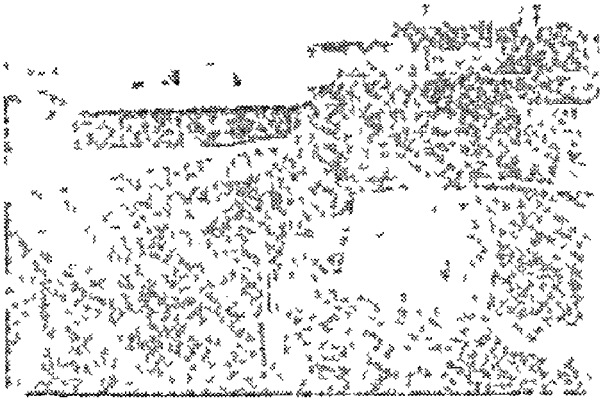


인덕원교(1996)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39 임곡교 (林谷橋) 〈비산1동〉

임곡교(1977 7 8 홍수로 침하된 모습)★



수푸루지 앞(서)에 있는 다리로 종연장 88m 교폭 5 8m(자도폭 5 8m) 다리높이 4 3m 경간수 8개(경간장 11m)로 설계하중 10톤에 통과하중 25톤이며 구조는 상부가 스라브교에 난간은 철재원형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었으나 통행량에 비해 교통이 좁고 안전도가 낮아 동행의 불편으로 공사비 5억원을 들여 1990년 7월에 착공하여 1991년에 3월에 준공되었다 종연장 100m에 교폭 12m에 이른다

이 다리를 가설하기 전에는 수푸루지 주민들이 떼장을 놓고 왕래하였는데 이를 토다리라 불렀고 후에 통나무를 이용했다가 1977년에 현대식 공법으로 가설되었고 다시 1991년에 확장공사를 실시함 것이다 수푸루지(林谷) 진입에 있는 다리라 하여 '임곡교(林谷橋)'라 칭하며 하천명은 안양천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안양시 「월간 안양소식」 1991 3

● **도 움 말** 심수섭(沈秀燮 비산동 567 1921년생)

40 인덕원점후천교 (仁德院店後川橋) 〈관양2동〉

인덕원 주막 뒤에 있었던 다리 정조의 능행로정(陵幸路程)을 엮은 『원행정례』에 로정으로 기록된 것으로 이곳에 조선시대에는 과전 - 갈현동 - 인덕원 - 민배기 - 갈미 - 수원을 연계하는 길 위에 있던 다리로 생각되는데 정확한 지점은 알 수가 없다 추론하건대 예전에 현 대아장여관(관양B 26-11) 자리에 주막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그 주변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경수로정어 연구」 인문경론16 1988

41 인덕원천교 (仁德院川橋) 〈관양2동〉

인덕원지점후천교와 민배기 사이에 있던 다리 정조의 화산능행 때 로정에 속했으며 현재의 동일방직 앞에 있는 이동교(현 인덕원교)가 아닌가 생각된다

• **참고문헌** 정조 『원행정례』 1789
이명규 「원행정례에 나타난 경수로정어 연구」 인문경론16 1988

42 제이양지교 (第二陽地橋) 〈안양1동, 안양2동〉

연탄공장 옆(북)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18 9m 교폭 21m(차도폭 21m) 다리높이 2 9m 경간수(경간장 9 5m)이다 다리의 구조는 상부가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건설산업에 의하여 1979년 4월 11일에 착공되어 1979년 6월 25일에 준공되었으며 노선명은 만안로 하천명은 수암전이다

• **참고문헌** 「제2양지교판」 1979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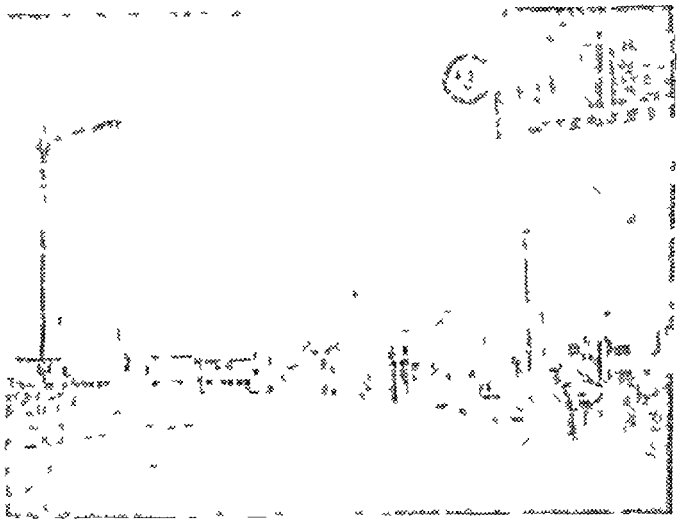
43 제3양지교 (第三陽地橋) 〈안양3동〉

안양공업고등학교와 삼덕제지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18m 교폭 12 6m(자도폭 12 6m) 다리높이 2 8m 경간수 3개(경간장 6m) 설계하중 10톤(통과하중 25톤)이다 다리의 구조는 상부가 스라브교에 난간은 콘크리트사각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노선명은 안양공고 진입로 하천명은 수암전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8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44 전파교 (電波橋) 〈안양7동〉

종전의 다리는 총연장 72m 교폭11 4m(자도폭 11 4m) 다리높이 5 8m 경간수 6개(경간장 13m)로 설계하중 18톤에 통관하중은 25톤이었으며 1977년 7월 26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으나 현재의 다리는 동아아파트 동산



전파교(1996)

진흥(주)와 한성전기공업 (주)영진철강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72m 교폭 14m이다 시행정은 안양시 시공자는 (주)광문건설이 1995년 7월 31일에 착공하여 1996년 6월 6일에 준공되었다 하천명은 안양천이며 전과연구소에서 다리이름을 취했다

- **참고문헌** 「전과교관」 1977 안양시「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2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45 충훈교 (忠勳橋)

〈박달1동 박달2동 석수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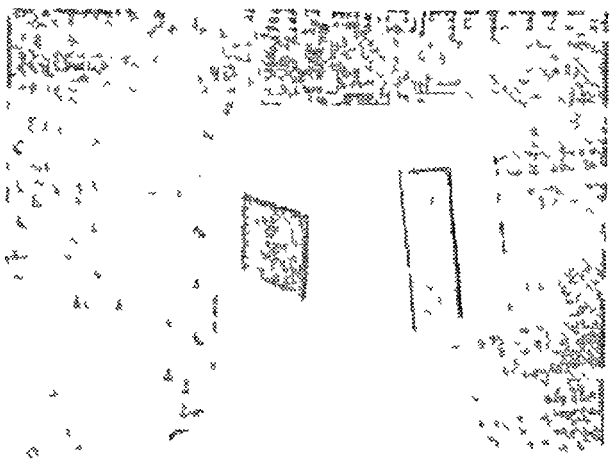
석수3동 주공아파트 206동과 만도기계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90m 교폭 5m 다리높이 5 9m 경간수 9개(경간장 10m) 설계하중 10톤 통과하중 20톤이다 다리의 구조는 상부가 스라브교에 난간은 절재원형이며 교각과 교대는 중력식이다 동덕개발에 의해 1977년 9월 20일에 착공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준공되었고 하천명은 안양천이다 옛 충훈부관아와 충훈부 마을명에서 유래된 다리이므로 충훈부교(忠勳府橋)을 교명을 개칭해야 할것으로 생각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2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46 학운교 (鶴雲橋)

〈비산2동〉

학운교(1996)



부영아파트 209동과 임곡 시영아파트 사이에 있는 다리 총연장 67m 교폭 25m 설계하중 24톤으로 1990년 12월 31일에 착공하여 1993년 10월 31일에 준공되었으며 시행정은 한국토지개발공사 시공자는 (주)한양이다 하천명은 학의천이며 학의천의 '학(鶴)'자와 비산동 운곡 마을의 '운(雲) 자를 따서 '학운교(鶴雲橋)'라

하였다

• **참고문헌** 「학운교판」 1993 안양시
「안양시 교량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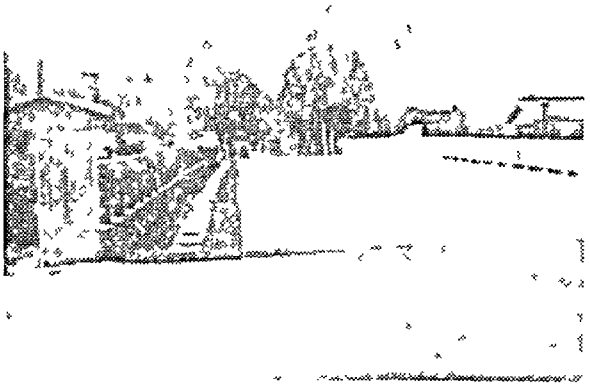
47 호계고가교 (虎溪高架橋) 〈호계1동 호계3동〉

명도 상아빌라 7동과 국민은행 호계지점 사이에 있는 고가교로 총연장 255m 교폭 15 3m 설계하중 24톤 통과하중 43톤으로 1991년 1월 21일에 착공하여 1991년 10월 30일에 준공되었으며 시행청은 안양시 삼성그룹이 시공하여 헌납하였다 이 고가교의 건설로 신군조 사거리에서 군조 안산 방향의 통행이 용이해졌다

• **참고문헌** 「호계고가교관」 1991

48 호계교 (虎溪橋) 〈호계2동〉

LG전선과 동장제지(현 한솔제지) 사이에 있는 다리로 총연장 60m 교폭 25m 교각 4개로 1981년 4월 27일에 준공되었다 예전에는 이 곳이 저지대이므로 비가 많이 내리면 비에 묻혔다고 하여 일명 '무재다리'라 칭하기도 한다 노선명은 만안로 하천명은 안양천이다 조선시대에는 갈미 귀인 범계 등 인근의 주민들이 해마다 정월 14일 또는 대보름에 답교놀이를 했던 유서 깊은 곳이기도 하다


호계교(1972)

• **참고문헌** 안양시 『내고장가꾸기』 1981 「호계교관」 1981
안양시 「안양시교량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이병옥 『만안답교놀이연구』 안양문화원 1988
최영희 『과천 안양의 답교놀이 연구』 1988

49 호계대교 (虎溪大橋) 〈호계2동〉

동양교 옆에 있는 다리 총연장 180m 교폭 20m 설계하중 24톤으로 1993년 6

월 22일에 착공하여 1994년 11월 30일에 준공되었고 시행청은 안양시 시공자는 홍화공업(주) 나산종합건설(주)이며 하전명은 안양전이다 종전에는 평촌쪽에서 산본을 가자면 명학육교쪽을 거져야 했으나 이 다리의 건설로 산본 통행이 용이해졌다 우일주유소와 동양나이론 정문에 걸져있다

● **참고문헌** 「호계대교 교관」 1994

50 후두미교 (後頭尾橋) 〈안양9동〉

병목안 초입에 있는 철교로 일제 때 재석장을 설치하면서 절도부설과 함께 나무다리로 가설되었다가 1966년에 다시 나무다리로 가설되었고 이어 1990년에 확장하였다

● **도 움 말** 유정규 (劉貞奎 안양동949-1 1958년생)

제12절 육 교 (陸橋)

1 거화예식장 앞 육교

〈안양1동 안양5동〉

안양1동 국민투자신탁 안양지점과 안양5동 거화예식장을 연계하는 육교로 관악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이 육교의 통과높이는 4 3m 총 길이는 30m이고 교폭은 5m로 1994년에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 공원관리사무소 앞 육교

〈평안동〉

중앙 공원관리사무소 옆에서 제일유지원을 연계하는 아취형 육교로 관경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총 길이 64 8m 교폭 4m로 1992년에 가설된 이 육교는 주로 부영아파트 세경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중앙공원을 왕래하는데 이용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3 과천육교 (果川陸橋)

〈안양1동〉



과천육교가 있던 곳 과전가는 시대동 진입 건널목 입구에 있었다〉 현재 육교가 설치되었다 (1968)

만안로에서 시대동가는 진입육로로 예전에는 이곳을 거쳐야 과천을 갈 수 있다고 하여 '과전육교(果川陸橋)'라 부르게 되었으며 주민들 사이에서는 구시장육교(舊市場陸橋)로 통칭되어 왔다 1985년 3월 4일 총연장 56m 교폭(종전 3 3m)을 증축하면서 인근에 대단위 아파트단지인 진흥아파트의 명칭을 취해 일명 진흥육교(進興陸橋)라 칭하기도 한다 「안양시교량관리대장」에도 진흥육교라고 되어 있다 이 육교는 경부선 철도를 건너는 다리로 교명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는데 그 실례로 「경인일보」 1984년 5월 31일자 주간살롱에 난 기사를 소개한다

안양에 果川육교라니

柳錫輔 안양시장은 안양1동 육교확장건설 현장에서 관계자가 果川육교라고 보고하자 果川도 아닌데 왜 果川육교라고 하느냐 확장공사가 끝나면 지명을 따서 새로운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라고 관계자들에게 지시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지역 주민들도 시장의 말이 옳다면서 지역과 관련된 좋은 이름을 지어 동네가 大吉 있기를 바란다고 한 마디씩

- **참고문헌** 「경인일보」 1985 5 31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구선(李九善 안양동 55-17 1939년생)

4 관악역보도육교 (冠岳驛步道陸橋) 〈석수1동 석수2동〉

석수2동 관악빌라 가동에서 관악역사를 걸쳐 석수1동 삼신아파트 A동에 걸쳐있는 육교로 통과높이 6 3m인데 1974년에 관악역사를 건립할때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석수1동과 석수2동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는데 주로 사용한다 노선명은 국도1번으로 만안로이다

5 귀인초등학교 앞 육교 〈귀인동 평안동〉

귀인동 귀인초등학교 꿈마을내 라이프 아파트 101동과 평안동 초원마을 내 대원아파트 309동 대림아파트 211동을 연계하는 아쿠형 육교로 귀인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이 육교의 통과높이는 5m이고 총 길이는 90 4m에 교폭은 4m로 1992년에 개설되었다 주로 귀인초등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길로 이용되고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6 남초등학교 앞 육교 〈갈산동〉

갈산동 안양남초등학교와 의왕시 내손동 갈미마을을 연계하는 육교로 홍안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 높이는 5m에 총 길이 45 3m 교폭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다 북쪽으로 약 100m지점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 서로 관통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7 느티나무 앞 육교 〈호계2동 범계동〉

호계2동 성민교회 다목적 복지회관과 범계동 신동아아파트 905동 906동을 연계하는 육교로 경수산업도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지금의 느티나무 식당 앞에 느티나무가 있어 '느티나무앞 육교'라 칭했으나 고사되어 1996년 8월에 나무는 베어지고 그 위에 아스팔트로 조장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8 달안동사무소 앞 육교 〈달안동〉

샛별아파트 602동 606동과 주안교회 샘물어린이집을 연계하는 아취형 육교로 달안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육교의 총 길이는 84 6m 교폭은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고 육교에서 서쪽으로 20m 지점에 달안동사무소가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9 대안중학교 앞 육교 〈갈산동〉

갈산동 한양아파트 111동 112동과 의왕시 내손동 소재 호계동 예비군 훈련장 입구를 연계하는 육교로 홍안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높이는 5m 총 길이 45 3m 교폭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다 주로 대안중학교와 대안여자중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길로 이용되고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0 대한전선 앞 육교 〈관양1동 관양2동〉

관양1동 할아버지 한약방(관양동 입구)와 관양2동 안디목교회(대한전선 입구)를 연계하는 육교로 관악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육교의 총 길이는 52m에 교폭은 5m로 1995년에 설치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1 럭키아파트 앞 육교 〈호계2동 신촌동〉

호계2동 승진종합카세차장 다산학원과 신촌동 코오롱아파트 706동을 연계하는 육교로 경수산업도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이 육교에서 서남쪽으로 약200m 지점에 럭키아파트가 있고 남쪽으로 약 100m 지점에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가 동 서로 관통되었다 육교의 통과높이는 4 5m에 총 길이는 45m이고 교폭은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2 명학역보도육교 (鳴鶴驛步道陸橋) 〈안양7동 안양8동〉

안양7동 신진자동차정비공업사에서 명학역을 거쳐 안양8동 명학극장을 연계하는 육교로 만안로와 경부선 철도위를 동 서로 놓여있다 1974년 명학역사 건립 때 함께 건립된 것으로 보인다 육교의 통과 높이는 4 3m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3 명학육교 (鳴鶴陸橋) 〈안양7동 안양8동〉



명학육교(1972)

안양경찰서 앞 명학로와 만안로에 있는 육교로 1902-1903 경부선 부설 때 처음 가설된 이래 1938년 경부선 복선공사 때 교폭을 넓혔다가 다시 서울 - 수원간 경부선(전철) 복복선 공사로 1979년 12월 31일에 준공되었다

총연장 36m 교폭28m 명학전철역 및 명학동명을 취해 명학육교(鳴鶴陸橋)라 칭한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 8 6 「명학육교 관」 197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14 민백마을 앞 육교 〈귀인동 평촌동〉

귀인동 동아아파트 310동과 평촌동 민배기마을을 연계하는 육교로 흥안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총 길이는 45 1m이고 교폭은 4m로 1994년에 개설되었다 육교 아래에는 평촌지하자도가 흥안로를 따라 남 북으로 관통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5 박달삼거리육교 (博達三巨里陸橋) 〈박달1동 박달2동〉

박달삼거리에 있다 이 곳은 안양 광명 안산방면 도로가 갈라지는 곳으로 사업비 3억원 (보상비 포함)을 개설했다 총길이 25m 폭5m 높이 4 5m의 강절관교이며 1992년 8월 26일에 준공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월간 안양소식」 1992 6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6 범계중학교 앞 육교 〈범계동 신촌동〉

범계동 범계중학교와 신촌동 무궁화마을내 금호상가를 연계하는 아쥐형 육교로 귀인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총 길이 85 6m 교폭4m로 1992년에 설치된 이 육교는 주로 범계중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길로 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7 범계초등학교 앞 육교 〈범계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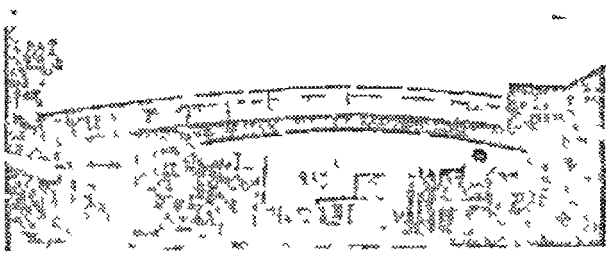
범계초등학교 목련아파트501동과 동안교회 평촌고등학교를 연계하는 아쥐형 육교로 귀인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총 길이는 84 6m 교폭 4m로 1992년에 개설된 이 육교는 주로 범계초등학교와 평촌고등학교 학생들이 등 하교길에 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18 부림동사무소 앞 육교 〈부림동〉

부림동사무소 부안중학교와 부림초등학교 공작상가를 연결하는 아쥐형 육교로 달안로 위에 남 북으로 놓여있다 총 길이 85 2m 교폭 4m로 1993년에 개설된 이

부림동사무소 앞 육교(1996 부림동사무소 제공)



육교는 주로 부림초등학교와 부안중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길과 부림동사무소를 왕래할 때 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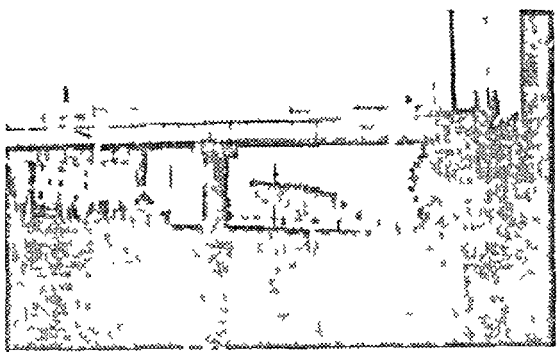
19 비산육교 (飛山陸橋) 〈안양5동 안양7동〉

안양초등학교 입구에서부터 덕천마을 입구에 이르는 육교로 폭이 16 2m 길이가 205m이다 1977년 12월 31일에 준공된 이 육교는 비산동으로 가는 진입 육교라 하여 '비산육교(飛山陸橋)'라 부르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0 성혜육교 〈석수1동 석수2동〉

성혜육교(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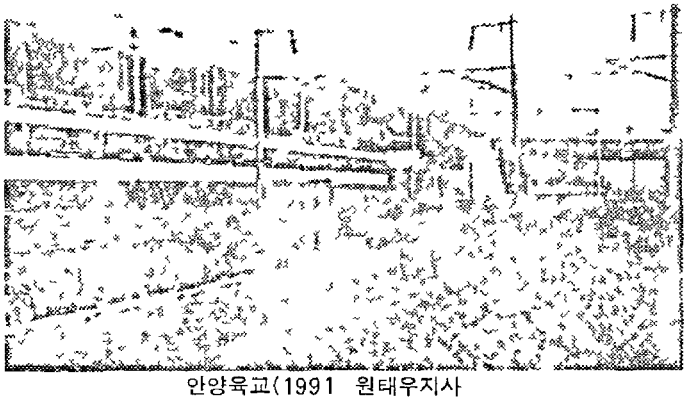
석수1동 주공아파트 7동과 구 성혜의원 사이를 연계하는 육교로 총연장 28m 교폭 4m 통과높이 6 3m로 1978년에 준공되었다 석수동의 동명을 취해 석수육교(石水陸橋)라 칭한다 그러나 「안양시교량관리대장」에 성혜육교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성혜의원은 폐업한지 오래되었고 더우기 개인의 병원이름을 사용함은 적절지 않다고 생각되어 석수육교로 호칭됨이 옳을듯 하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86 1996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1 안양육교 (安養陸橋) 〈석수1동 석수2동〉

경수산업도로에서 중앙로의 기점이 되는 곳으로 총연장 40m 교폭 24m로 1979년 6월 2일에 착공하여 1980년 2월 28일에 준공되었다 이 곳은 서울 가는 길목으로 서리재고개라 하여 험준한 고개길이었는데 1901-1903에 경부선 철도공사를 실시하면서 처음 가설했고 이어 1938년에 복선공사로 재가설했다가 다시 복복선(전

철) 공사로 교폭을 넓혔다 이 육교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이 제결되자 5일 후인 동년 11월 22일 이토 히로부미가 이 곳을 지나다가 안양 출신 원태우(元泰祐)지사에 의해 저격을 당한 역사의 현장이기도 하다 남쪽으로 약 40m지점으로 제2경인고속도로가 동 서로 관통되고 있다



안양육교(1991 원태우지사 손자 원상길 촬영)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86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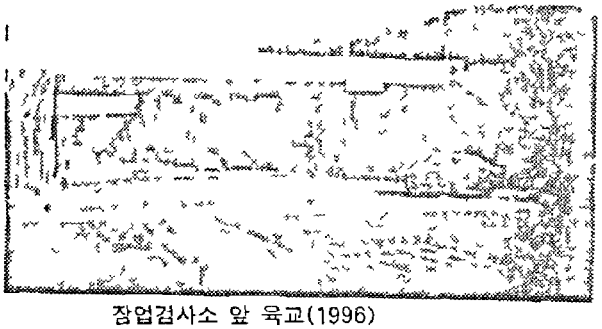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22 잠업검사소 앞 육교

〈안양6동 안양8동〉

안양6동 명학역진입과 안양8동 경기도가축위생시험소 잠업검사소를 연계하는 육교로 중앙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높이 4 7m에 총 길이는 28 7m 교폭은 5m로 1995년에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관리대장」 1996



잠업검사소 앞 육교(1996)

23 중앙공원 옆 육교

〈평안동 범계동〉

범계동 우성아파트 311동과 평안동 중앙공원을 연계하는 아취형 육교로 평촌대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총 길이 96m 교폭 4m로 1992년에 설치된 이 육교는 주로 우성아파트 주민들이 중앙공원을 왕래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4 중앙로 국민은행 앞 육교

〈안양2동 안양3동〉

안양2동 광성전기 한양당구장과 안양3동 성심병원 국민은행 안양지점을 연계하는 육교로 중앙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이 육교의 통과 높이는 5m에 총 길이는 30m이고 교폭은 5m로 1994년에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5 중앙로 수의과학연구소 앞 육교 〈안양6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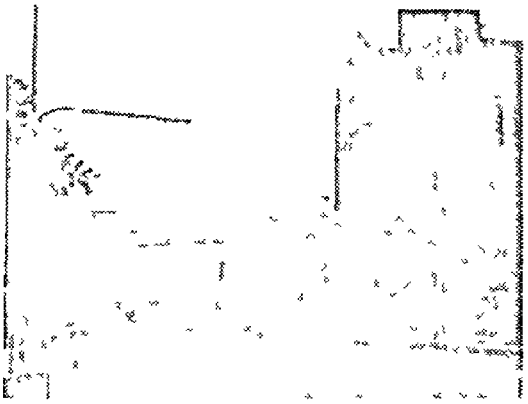
중앙종자공급소와 수의과학연구소(구 가축위생연구소)를 연계하는 육교로 중앙로 위에 남 북우로 놓여있다 육교의 종 길이 29 1m에 교폭은 4m로 1995년에 개설되었다 이 육교에서 남쪽으로 약 50m지점에 국립식물검역소가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6 평안동사무소 앞 육교 〈평안동〉

경안초등학교 목양교회에서 경안과줄소 부영상가를 연계하는 아취형 육교로 남 북으로 놓여있다 종 길이 84 6 교폭 4m로 1992년에 개설된 이 육교는 주로 경안조등학교 학생들의 등 하교와 경안동사무소를 왕래할 때 이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평안동사무소 앞 육교(1996)

27 향림육교 〈안양2동〉

장애자복지회관과 향림아파트를 연계하는 육교로 경수산업도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안양유원지 사거리에서 남쪽으로 약 150m지점에 있는 이 육교는 종 길이 47m 교폭 3m로 1995년에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8 호계1동 국민은행 앞 육교 〈호계1동 호계3동〉

호계1동 안양농협 호성지소 정우빌딩과 호계3동 사랑의 교회를 연계하는 육교로

남 북으로 놓여있다 이 육교의 통과 높이는 5m에 총 길이는 25 4m이고 교폭은 4m로 1994년에 개설되었다 이 육교에서 서쪽으로 약 100m지점에 국민은행 호계동 지점이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29 호계1동 삼신아파트 앞 육교 〈호계1동 호계3동〉

호계1동 대림직업전문학교와 호계3동 삼신아파트 가동 사이에 연계된 육교로 남북으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 높이는 4 8m 총 길이 29m 교폭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다 이 육교 서쪽계단 끝이 안양시 호계1동 및 호계3동과 군포시 금정동의 시계와 동계가 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30 호계3동 경향아파트 앞 육교 〈호계3동〉

호계3동 경향아파트 1동 6동과 군포시 당정동 소재 유한양행을 연계하는 육교로 경수산업도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 높이는 5m에 총 길이는 45m이고 교폭은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31 호계3동 삼영아파트 앞 육교 〈호계3동〉

삼호우주아파트 삼익아파트와 성우자동차공업사를 연계하는 육교로 경수산업도로 위에 동 서로 놓여있다 육교의 통과 높이 5m에 총 길이는 45m이고 교폭은 4m로 1993년에 개설되었다 1996년에 삼영아파트를 헐고 그자리에 삼익아파트가 건립된 관계로 육교의 명칭을 바꿔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육교에서 북쪽으로 약 100m지점에 안양시민방위교육장이 자리잡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육교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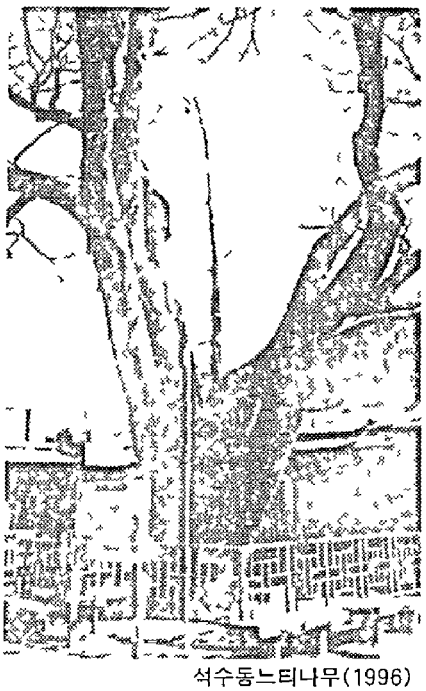
제13절 노거수 (老巨樹)

1 박달동 향나무 〈박달2동〉

안양고등학교 교정에 있었던 나무 박달동에 거주하는 권공선 소유였었다 인근에서 농작(農作)을 하다 비가 오거나 쉴 때면 정자목(亭子木)으로 이용되던 나무였는데 1970년대 초에 고사(故死)되었다 1983년 이 곳에 안양고등학교(박달동 144)가 건립되면서 자취를 감추었다 이 향나무 주변에 있는 들을 향나무들이라 불렀다

• **도 움 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2 석수동 느티나무 〈석수1동〉


석수동느티나무(1996)

경기도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 수령 500년 가량으로 둘레 5m 30cm 높이40m 대수면적 40m의 거목이다 삼막골 송재이 초입에 있다 (석수동 134) 주민들에 따르면 광복 직후 마을에서 이 나무에 고사를 지내기 위하여 마을에 사는 어느 아낙네에게 제수에 사용할 그릇을 빌려 달라고 몇 차례 애원했으나 끝내 거절하더라는 것 그 후 그릇이 산산조각으로 깨졌다고 한다 마을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있었던 나무라고 하며 예전에는 이 나무 주변에 소나무가 울창했다고 한다 1982년 7월 1일에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해마다 음력 7월 1일과 10월 1일에 제를 지냈으나 근래에는 10월 1일에만 지내는 마을의 수호목이다 김지석(안양시 문화계)의 발굴로 「삼막골 느티나무제」로 1994년 제9회 경기도 민속경연대회에 안양의 대표 민속예술로 경연에 출전한 바 있다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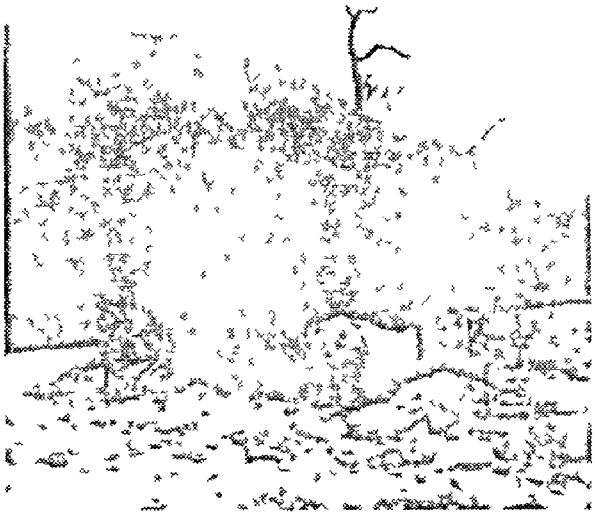
3 석수동 보리수나무 〈석수1동〉

염불암(석수1동 산17) 경내에 있는 나무 보리수나무과의 보리수나무로 나무높이 15m 나무둘레 1 2m 수관(樹冠)직경 1 1m 수령 600년 면적 100㎡로 1982년 10월 15일에 도나무로 지정되었다 수관이 좋고 희귀종이나 수관(수간) 2m지점에 굵은 가지가 부러졌다 고려말에 수도하던 승려들이 식재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염불암의 역사를 보는듯 하다

• **도 움 말** 안양시 「안양시 보호수 관리대장」 1996

4 석수동 향나무 〈석수1동〉

삼막골 성재이 새마을다리 옆에 있는 나무 본래 이 곳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었는데 1977년 7월 8일 대 홍수로 떠내려 와 주민들이 현재의 위치에 옮겨 심었다 마을에서는 웃말 서낭님이라 하여 치성을 드린다 향나무가 할머니를 뜻하는 나무라 하여 1978년 마을 주민들이 그 옆에 은행나무를 식재했다 수령은 500년 이상이라고 하나 근년에 이르러 고사되었다



대홍수 때(1977 7 8) 떠내려 온 석수동 향나무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5 수목정자나무(秀木亭子木) 〈관양1동〉

뻠말 초입에 있다 뻠말에 처음 정착한 김해 김씨가 식재한 나무라고 전해진다 마을의 수호목(守護木)이자 정자목(亭子木)으로 예전에는 마을의 정년들이 입대하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꼭 치성을 드렸다고 한다 노인들에 의해 해마다 음력 10월에 나무제(木祭)를 지내며 마을의 안정을 기원하고 있다 수령은 550년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 **참고문헌** 「관양」 1989

● **도 움 말** 김득춘(全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6 신촌동 느티나무 〈신촌동〉

평촌신도시 개발이란 큰 역사(役事)를 거치는 동안 이곳 토박이들의 의지가 어느 정도인가를 새삼 느끼게 한다 현대식 건물들이 즐비하게 사방을 에워싸았지만 굳굳하게 서있는 모습을 보노라면 평촌을 지키려는 수호신같은 외경감을 자아내게 한다

면적은 3 609㎡에 나무둘에 3m70cm 나무높이 약20m 수감폭 14m로 수령은 150 ~ 200년이라고 한다 나무주위에 벤쥐 6개가 놓여있고 1996년에 4각철재로 보호막을 설지했다 특히 행복교회 옆으로 보도블럭을 설치하여 여름이면 정자목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것 으로 보인다 원래 수목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안양시 녹지공원과 공원계에서 1996년 4월에 나무병원에 의뢰하여 대대적인 치료를 실시하여 수목상태가 상당히 좋아졌다 그러나 아직도 3개의 수목받침대가 나무를 지탱하고 있으므로 상당기간 절저한 관리가 요망된다 그리고 자제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나무의 품위를 격상시켰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번상으로는 경촌동 911-7이고 행정동은 신촌동에 속해있다

제14절 약수, 우물 (藥水·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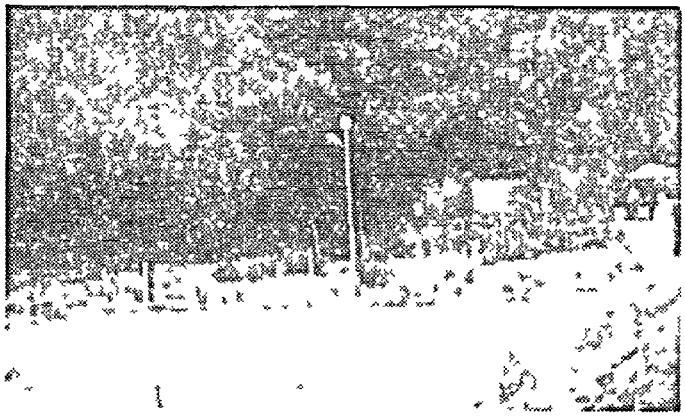
1 가재물골약수 〈호계2동 314〉

선일레미콘 남쪽에 있다 가재물골 내에 있는 약수이므로 '가재물골 약수'라고 칭한다 1987년 8월에 구성된 동산배드민턴 친목회가 관리했으나 1994년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용지에 편입되어 폐쇄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2 간촌약수 (間村藥水) 〈관양1동 461-1〉

간촌약수터(1990년대)★



동안구의 대표적인 약수로 그 규모가 가장 크고 이용자도 가장 많다 샌말(間村)에서 서북쪽 약 1km 쯤으로 불성사 가는 도중에 있다 1980년대에 개발되었으며 관리는 간촌약수회(間村藥水會)가 맡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 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3 관상약수 (冠上藥水) 〈관양1동 산114〉

관악산 전망대에서 동쪽으로 약 1km 떨어져 있다 즉 관양1동과 과천시 갈현동 경계 부근에 있다 주로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 수는 약 5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4 관악천약수 (冠岳泉藥水) 〈안양2동 산 16-1〉

별장가든에서 동쪽으로 망해암 등산로를 따라가면 약 200m 지점에 있다 할아버지 약수라 칭하기도 한다 해마다 음력 12월에 길일을 택해 석수1동 유유산업 뒤에 있는 약수(할머니약수라 칭함)와 함께 마을의 안정과 풍요를 기원하기 위하여 (산신제)山神祭를 지낸다 1982년 6월 1일에 구성된 새통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이팔만 (李八萬 안양동 18-65 1933년생)

5 군포웅뎅이 〈안양 7동〉

삼익아파트 1동에서 안양천을 건너 제방에서 서쪽으로 약 50m 지점에 큰 웅덩이가 있었는데 이를 일컬어 '군조웅덩이'라 불렀다 이곳에 미꾸라지 붕어 등 민물고기가 많았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6 굴챙이우물 〈비산1동〉

한국상업은행 안양지점(비산동 550-1)에서 수푸루지 쪽으로 150m 지점에 있었던 우물 명주실 한 타래를 다 풀어 넣어도 끝이 닿지 않을 만큼 우물이 깊었다고 한다 여름에도 이가 시릴만큼 차서 인근의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했었는데 안양7지구 구획정리사업 때 폐정되었다 그 후 그 자리에 다세대 주택이 들어섰다 더러미산(일명 영의정뿌리라고 하며 상업은행 뒷산을 말함) 굴챙이(골짜기) 밑에 있는 우물이므로 '굴챙이우물'이라 불렀고 그 밑에 있는 논을 '굴챙이 논'이라 칭했다

구전에 따르면 조선 중기에 청풍군수를 역임한 심간(沈諫 1560-1624 본관은 청송으로 아들이 좌의정을 역임한 沈器遠)의 묘가 대림전문대 뒤에 있는데 그의 신도비(神道碑)를 박모씨가 이곳에 넣었다고 전해진다 심간의 신도비는 그 후손들에 의해 1980년대 말에 묘소 앞에 세워 졌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7 냉천약수 (冷泉藥水) 〈안양5동 617-46〉

충혼탑 아래 대신대학교 이세종(李世鍾 광명시 일직동 출신)교수댁 옆에 있다 조

선 조에 한발이 극심하자 어느 부부가 수리산 정상에서 치성을 드린 후 맑은 샘물이 치솟기 시작했다고 전해진다 1989년 1월에 구성된 안양5동 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새안양회 소속 천우회(泉友會)는 이 약수 주변에서 성장한 인사로 구성된 자생단체로 회명(會名) 또한 이 약수명을 취한 것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한영복(韓榮福 안양동 470-1 1946년생)

8 능곡약수 (陵谷藥水) 〈안양9동 산84〉

안양서여중에서 동남쪽으로 학교 담과 붙어 있다 옻올인데 특효가 있다고 하여 일명 '옻우물'이라고 부른다 1989년 1월에 조직된 '능곡회(陵谷會)'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움말** 정춘용(鄭春鎔 안양동 722 1929년생)

9 만안약수 (萬安藥水) 〈안양6동 산123-1〉

안양시립도서관 뒤에 있다 주로 안양6동 주민들과 학생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10 망해암약수 (望海庵藥水) 〈안양2동 산15〉

망해암 아래에 있다 용(龍)의 입에서 나오는 약수처럼 물맛이 특이 하다고 한다 비산 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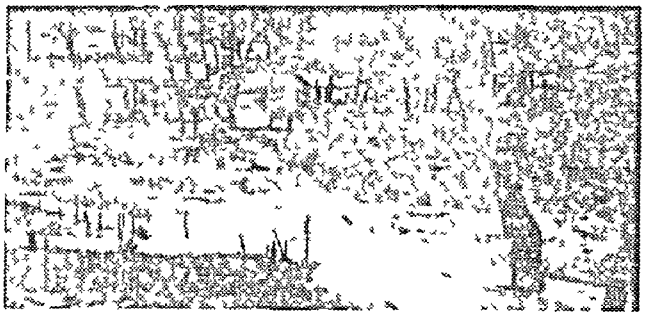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이팔만(李八萬 안양동 18-65 1933년생)

11 매천약수 (梅泉藥水) 〈비산 3동 산23-4〉

1988년에 개발된 약수 속징 내시집에서 서쪽 약 50m 떨어져 있다 1988년에 구

성된 현대 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조인행(趙仁行 현대아파트 2동 408호 1913년생)



매전약수터(1996)

12 미름물 〈박달2동〉

미름물(마을) 중앙에 있었다 마을의 대동무물이었으며 이 우물명을 취해 마을이름이 유래되었다 일제 때 군용지 개설로 마을이 폐동되자 우물 또한 폐정되었다

- **도 움 말** 권형(權瑩 박달동 100 1925년생)

13 박달약수 (博達藥水) 〈박달2동 산139-32〉

신안아파트 뒤에 있는 약수 제육시설의 조성면적은 135㎡ 로 주로 박달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1일 이용자 수는 약 2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14 박산약수 (博山藥水) 〈석수1동 산59〉

박미(博山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 서쪽에 있다 물이 자며 피부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양아파트 등 주로 서울시민들이 이용한다

- **도 움 말** 김동환(全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15 백영약수 〈안양9동 산81-3〉

수리산 산림욕장 석탑에서 남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안양 4동 안양9동 주민들과 등산객이 주로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16 보덕암약수 (寶德庵藥水) 〈비산1동 산186〉

보덕암에서 남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1990년 5월 5일에 구성된 임곡노인회가 관리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17 봉수정약수 (峰水井藥水) 〈안양8동 산133-6〉

성문여중에서 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관모봉(산)봉우리 아래에 있는 약수라 하여 봉수정약수(峰水井藥水)라고 칭한다 1988년 8월 6일에 구성된 봉수노인회(峰水老人會)가 관리하고 있다 주로 안양6동 안양8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서완석(徐琓錫 안양동 398-34 1920년생)

18 부림우물 〈관양1동〉

예전에 부림동에는 대동우물로 세 개의 우물이 있었다 관양우제국 옆에 있던 박우물과 신작로우물은 도로확장 공사로 자취를 감추었고 현재는 부림우물 하나만 남아 있다 마을 위에 있는 우물이라고 하여 일명 '윗우물'이라고도 불리우는 부림우물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전설이 구전되고 있다

지금으로 부터 200여년 전 어느 여름 몹시 심한 가뭄이 들어 농사는 물론 식수마저 구하기가 힘들게 되었다 설상가상으로 마을에 변고가 자주 일어나 민심마저 흉흉해져 편안한 날이 없었다 이에 마을의 연로한 유지 한 분이 관악산 도인을 찾아가 해결책을 물으니 마을 우물에 우물고사(井祭)를 지내면 물이 치솟을 뿐만 아니라 마을의 인심도 진정될 것이라고 일러 주었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모여 최고 상격인 부림우물에는 소머리로 제를 올리고 박우물과 신작로우물에는 소의 갈비로 제를 올리자 과연 물에 잘 나고 마을의 변고도 사라졌다고 한다

그 후부터 해마다 음력 7월 1일에 우물고사를 지냈다 그러나 도시화로 인근에 민가가 들어서자 가가호호 우물을 파므로 수원이 끊겨 폐정되자 1988년부터 고사를 지

내지 않는다

- **참고문헌** 안양시 「내고장전통가꾸기」 1981
  「관양」 1989 「안양신 문」 1989 10 4
- **도 움 말** 문응증(文應增 관양동 118-1 1920년생)

19 불당약수 (佛堂藥水) 〈비산3동 산91〉

불당골 중앙에 있다 상불당 약수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다 상불당약수 아래에 있으므로 일명 '하불당약수(下佛堂藥水)'라 칭하기도 한다 1986년 3월에 구성된 임곡진목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20 삼막부락약수 (三幕部落藥水) 〈석수1동 151〉

삼막골 성재이 뒤(서)에 있다 이 우물을 마시면 삼신할머니가 아들을 점지해 준다고 하여 일명 '삼신우물'이라 부른다 1989년 1월에 구성된 삼막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에는 삼막약수(三幕藥水)로 기재되어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김정호(全井浩 석수동 67 1935년생)

21 삼막사약수 (三幕寺藥水) 〈석수1동〉

삼막사 주자장 아래에 있다 사찰명을 취해 '삼막사약수(三幕寺藥水)'라 칭한다 약수회는 1988년에 구성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22 삼성약수 (三聖藥水) 〈석수1동 산78〉

동아건설(주) 뒷산 중턱에 있다 주로 관악산 삼성산 등을 오르내리는 등산객들이 이용한다 별로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물맛이 좋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23 상록약수 (常綠藥水) 〈안양8동 산1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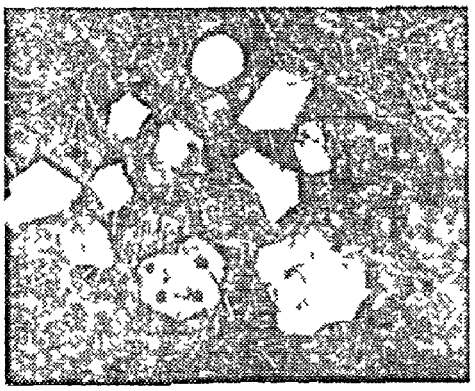
성결대학교에서 동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새마을 지도회(?)가 관리하고 있으나 샘물이 타약수보다 시원치가 않다 주로 안양8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서완석(徐琓錫 안양동 398-34 1920년생)

24 상불당약수 (上佛堂藥水) 〈비산3동 산107〉

하불당약수(일명 불당약수)에서 북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다 하불당약수에 사람들이 붐비자 1980년대 말에 새로 개발되었다 삼호아파트와 안날미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1988년 5월 1일에 제육시설(면적 826㎡)이 설치되었다 관리자는 청암약수회이다



상불당출토 도기편(1990년대)○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권장식(權昶植 비산동 378 1925년생)

25 샘마을약수 〈갈산동 1112〉

1993년 9월 동안구청에 의해 개발되었다 자유공원 내에 있는 약수로 약수주변에 샘마을 아파트가 위치해 있어 '샘마을약수'라 칭했다 주로 평촌신도시 주민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26 석천약수 (石泉藥水)① 〈석수2동 산162-2〉

석수2동 체육공원에서 서쪽으로 산중턱에 있다 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하나 샘물은 시원지가 않다 관리는 1980년 초에 구성된 석천약수회가 맡고 있고 체육시설은 270㎡ 로 1985년에 설치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김필운(金弼云 석수동 관악자조연립 7-102 1920년생)

27 석천약수 (石泉藥水)② 〈석수2동 산162〉

석천약수① 옆(북)에 있다 석수2동 주민들이 주로 이용한다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28 설천약수 (雪泉藥水) 〈비산3동 산22〉

매전약수에서 동북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1987년 3월 8일에 구성된 관우회가 관리되고 있다 체육시설은 조성면적이 3 200㎡ 로 1986년 5월 1일에 설치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29 세심천약수 〈안양2동 산15〉

망해암 입구에 있다 즉 동안구 비산3동과 만안구 안양2동의 경계 부근에 위치한다 주로 안양2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30 소곡약수 (昭谷藥水) 〈안양6동 산123〉

소골안 마을 위에 있다 체육시설은 100㎡ 이고 관리는 소곡약수터 자연보호회가 맡고 있다 소곡(昭谷)은 소골안의 한자 명칭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31 송림약수 (松林藥水) 〈박달2동 81-7〉

우성아파트 뒤에 있다 약수 주위에 소나무가 무성하므로 '송림약수(松林藥水)'라 칭한다 1989년 6월 21일에 구성된 송림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350㎡ 에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조정휘(趙正彙 안양동 689-18 1925년생)

32 수리산약수 (修理山藥水) 〈안양9동 산75〉

수리산 줄기에 있다 하여 '수리산약수(修理山藥水)'아 칭한다 또 담배존 웃말(공군부대)에 있으므로 '웃말약수'라 부르기도 한다 걷지도 못하는 사람이 이 약수를 마신 후 혼자 걸어 갔다고 할 만큼 효험이 있다고 한다 체육시설 조성면적은 50㎡ 로 수리산상인회(1983년 5월에 구성됨)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33 수리천약수 (修理泉藥水)① 〈안양8동 산127-1〉

만안구청사 뒤에 있다 예전에는 주접동 주민들이 식수로 사용되기도 했다 1988년 8월 6일에 구성된 대한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김병석(金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34 수리천약수 (修理泉藥水)② 〈안양8동 산127-1〉

수리천약수①에서 북쪽으로 약 5m 지점에 있다 1993년 만안구청에 의해 개발되었다 샘물이 풍부하고 물맛이 좋으므로 서울 과천 군포 등지의 시민들도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35 수안물 〈비산1동〉

류정현(柳廷顯 1355-1426 태종조에 영의정 역임) 묘소 서쪽에 있었던 옹당우물 물맛이 좋아 다라니들에서 농사를 짓던 농민들까지도 갈증이 나면 이용했었다 이 우물 앞에 큰 수렁이 있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 기마병이 훈련중 이곳을 지나다 말이 수렁에 빠져 허우적 거리자 일본도(日本刀)로 나무른 베다가 말을 구출했다고 한다 주공아파트가 신축되자 폐정되었다

• **도 움 말** 심수섭(沈 燮 비산동 567 1921년생)

36 수왕약수 (水旺藥水) 〈안양6동 산103-102〉

소곡약수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1987년에 체육시설이 설치되었는데 그 면적은 35㎡ 이다 1일 이용가 수는 약 300명으로 주로 등산객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37 수촌약수 (秀村藥水) 〈관양1동 산35-1〉

수촌(秀村 뻼말) 당집에서 남쪽으로 약 100m 지점에 있다 1991년 여름에 수원(水源) 부족으로 확장공사를 했다 관리는 수촌노인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 **도 움 말** 김득춘(金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38 신매천약수 (新梅泉藥水) 〈비산3동 산23-4〉

매천약수에서 동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다 현대아파트 등 이주민들에 의해 개설되었다 1989년 8월 10일에 체육시설(면적 700평)이 설치되었다 이용자 수는 1일 약 2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39 신안약수 (新安藥水) 〈안양9동 산94-4〉

신안초등학교에서 서쪽으로 약 50m 지점에 있다 주로 안양3 9동 주민들이 이용하나 수원(水源)은 시원치가 않다 제육시설은 35㎡ 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40 신양지약수 (新陽地藥水) 〈안양9동 산56-1〉

양지초등학교에서 남쪽으로 약 100m 떨어져 있다 주로 안양9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수는 약 1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41 신촌약수 (新村藥水) 〈석수2동 산133-1〉

정수정약수에서 동쪽으로 약 500m 지점에 있다 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42 어수정 (御水井) 〈박달1동〉

효도대왕(孝道大王)으로 지칭되는 정조(正祖)가 수원 화산(華山)에 있는 부왕(사도세자)의 묘(현륭원 → 융능)를 참배하고 환궁하는 길에 안양행궁(安養行宮 안양1동 674-67)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던 중 갈증이 나자 신하가 구 대동단지(박달동에서 양지동 가는 어귀)내 샘물에서 물을 길어다 드렸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 우물을 임금이 마신 물이라 하여 '어수정(御水井)'이라 불렀다 1950년대 말엽에 금성방직 확장으로 폐정되었다

• **도 움 말** 이수병(李壽柄 안양동 961 1915년생)

43 장수약수 (長壽藥水) 〈비산3동 산112〉

충의약수와 상불당 약수 사이에 있다 1991년 3월 17일에 제육시설(조성면적 231평)을 설치했으나 수질이 좋지 않아 1995년에 폐쇄되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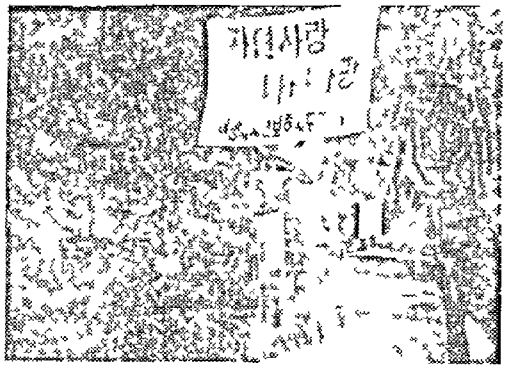
44 장수천약수 (長水泉藥水) 〈안양9동 산93〉

안양서여중에서 동쪽으로 약 300m 지점에 있다 주로 안양3동 - 안양9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45 창암약수 (蒼岩藥水) 〈안양9동 산48〉

본래의 명칭은 장박골약수(蒼岩谷藥水)로 예비군훈련장 옆에 있다 일제강점기에는 장박골 주민들이 산신제를 지내던 곳이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165㎡ 이고 1일 이용자 수는 약 100명이다



장암약수터(1996)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전순원(田順元 안양동 947 1915년생)

46 청란약수 〈석수3동 163〉

석수3동 사무소 뒤에 있다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으로 주로 석수3동(중훈부) 주민들이 이용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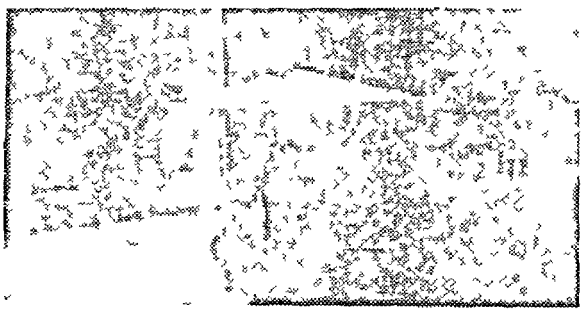
47 청수정약수 (淸水井藥水) 〈석수2동 산148-6〉

안양자동차 학원에서 남쪽으로 약 400m 지점으로 산 기슭에 있다 1980년에 체육시설(조성면적 270㎡)이 설치되었고 이용자는 주로 석수2동 주민들로 1일 이용자 수는 약 2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 대장」 1991 1996
- **도움말** 김골운(金骨雲 석수동 관악자조연립 7-102 1920년생)

48. 청심약수 (淸心藥水) 〈관양1동 산127-2〉

정심약수터(1990)▲



현대아파트 후문에서 북쪽으로 약 500m 쯤 떨어져 있다 주로 관양1동 관양2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49 충의약수 (忠義藥水) 〈비산3동 산118〉

수안골 중앙에 있는 약수 수푸루지 구름울 마장골 주민들이 산제를 지낼 때만 사용하는 약수였으나 1980년대 부터 인근에 아파트 등이 속속 신축되면서 일반에 널리 알려졌다 물맛이 특이하고 피부질환에 좋다고 하여 안양 중심가에 사는 주민들까지도 이용한다 약수명칭이 없었다가 이곳 너머에 군부대가 들어서자 군부대명을 취해 '충의약수(忠義藥水)'라 부르고 있다 1988년 4월 충의약수터회가 구성되어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권장식(權祥植 비산동 378 1925년생)

50 큰우물 〈비산1동 522〉

비산1동 522에 있던 우물 수푸루지의 대동우물로 식수는 물론 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여도 이 물로 불을 껐다 삼년 대한에도 샘물이 끊이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무리 퍼도 물이 넘칠만큼 샘물이 잘 나던 바가지 우물이었다 더욱이 우물가에 오랑캐꽃이 피어 정취가 있었던 우물로 정평이 있었으나 우물 인근에 민가가 들어서면서 각 가정마다 우물을 파자 수원이 말라 폐정되어 현재는 개인집 마당으로 변모되었다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51 통일천약수 (統一泉藥水) 〈석수2동 산162-2〉

석수2동 체육공원 서쪽 산중턱으로 석전약수에서 남쪽으로 약 200m 지점에 있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160㎡이고 1일 이용자 수는 약 400명으로 석수2동 주민들이 이용한다 관리는 1988년 1월 10일에 구성된 통일전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 **도 움 말** 권상렬(權相列 석수동 주공아파트 1동 22-2 1917년생)

52 팔팔약수 (八八藥水) 〈안양9동 산81-3〉

백영약수에서 서쪽으로 약 50m 떨어져 있다 주로 안양9동 주민들과 등산객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 수는 약 200명이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35㎡ 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53 한마음약수 〈안양6동 산106〉

소골안 육각정 옆에 있다 주로 안양6동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1일 이용자 수는 약 300명이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130㎡ 이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6

54 현대건설 앞 약수 〈석수1동 산27〉

현대건설 석산 초입 다리 옆에 있다 1988년 10월에 구성된 현대약수회가 관리하고 있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55 화창약수 (花倉藥水) 〈석수3동 산162-17〉

충훈부에서 동쪽으로 산 중턱에 있다 주로 석수3동(충훈부) 주민들이 이용하고 1일 이용자 수는 약 250명이다 체육시설의 조성면적은 250㎡ 에 이른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약수터 관리대장」 1991 1996

제15절 광 장 (廣 場)

1 범계광장

복지로 옆에 있다 호계동의 동명칭과 범계역 부근에 있는 광장이므로 '범계광장'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광장관리대장』 1992 1996

2 자유광장 (自由廣場)

평화공원과 희망공원 옆에 있다 시민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광장이라 하여 '자유광장(自由廣場)'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광장관리대장』 1992 1996

3. 중앙광장 (中央廣場)

무역전시장 옆에 있다 평촌지구 중앙에 위치한 광장이므로 '중앙광장(中央廣場)'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광장관리대장』 1992 1996

4 평촌광장 (坪村廣場)

폐기물소각장 옆에 있는 광장이다 평촌역에 위치한 광장이므로 역명을 따서 '평촌광장(坪村廣場)'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광장관리대장』 1992 1996

5. 호계광장 (虎溪廣場)

흥안로변에 있으며 호계동과 인접해 있어 동명을 따서 '호계광장(虎溪廣場)'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광장관리대장』 1992 1996

6 흥안광장 (興安廣場)

흥안로변에 있다 흥안로에 접한 교통광장으로 길 이름을을 따서 '흥안광장(興安廣場)'이라 칭한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광장관리대장』 1992 1996

* 이 밖에도 1호 ~ 31호 광장까지 있으나 생략한다

제16절 옛 터(舊址·遺址)

1 고려장터 (高麗葬址)① 〈안양8동〉

성문교회 뒤(서북)에 있었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밤나무 등이 무성했으나 1970년대부터 택지로 개발되면서 민가가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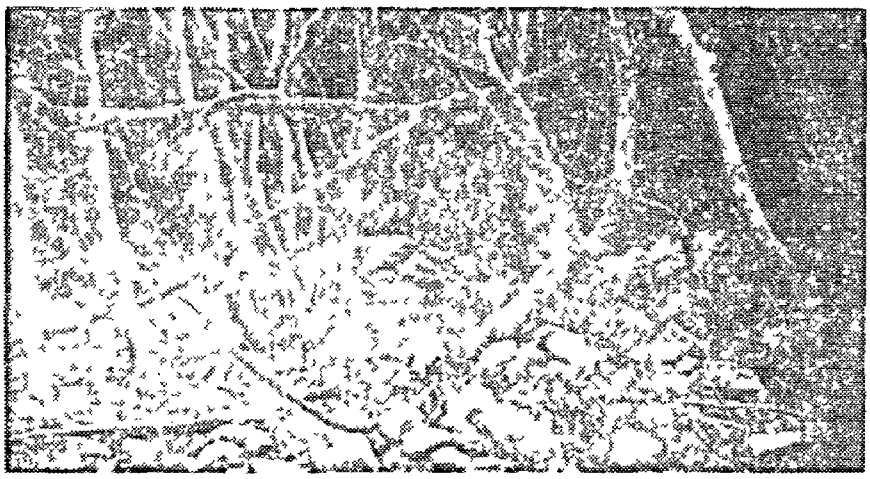
● **도움말** 김병석(全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2 고려장터 (高麗葬址)② 〈박달2동〉

곤두래미고개 중턱 노변에 있다 지면에서 약 5m 높이에 있는데 유물은 일제감정기에 도굴되었다고 한다 고려장은 고구려 시대 늙고 병든 사람을 산 재로 광중(壙中)에 두었다가 죽으면 그것에 매장한 장례법을 일컫는다

● **도움말**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3 관악산청자·백자가마터 (冠岳山靑磁白磁窯址) 〈비산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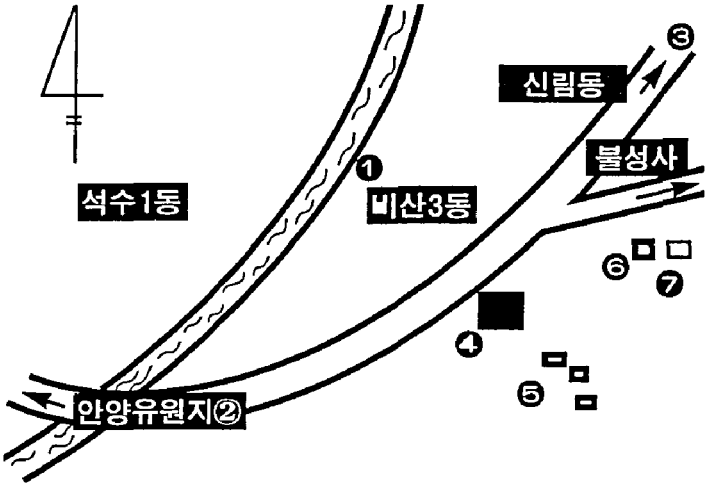
관악산 정자 백자가마터(1990년대초)★

도자기의 가마터는 도자기의 제작장소와 제작방법 제작연대 등을 밝히는데 큰 도움을 주므로 여러 곳의 가마터를 비교 연구하면 도자기의 제작과 제작의 전파과정을 알 수 있는 단서를 찾을 수도 있게 되어 가마터의 조사연구는 도자기를 연구하는 데에는 반드시 따라야 하는 과제인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이 1979년과 1980년 2년여에 걸쳐 전국에 산재해 있는 청자가마터를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두 250여개의 청자가마터가 확인 되었는데 지방별로 분류해 보면 기전권(畿甸圈)에서는 시흥의 방산동 인천의 경서동 고양의 원흥리 용인의

서리 서울 북한산 등지에 있고 충남지방에서는 서해연안인 서산 보령 정양 공주 대덕에 경북에서는 월성 경남에서는 부산 전북에서는 부안과 진안 고창 전남에서는 강진에 각각 분포되어 있는데 그 중 부안에 80 강진에 150여 개소의 가마터가 있어 이 두 지역이 우리나라 정자산업의 주류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백자가마터는 조선왕조 자기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한 경기도 광주군 일원에 있었던 백자가마터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중 조선 전기의 가마는 탄벌리(炭筏里)가마 상림리(祥林里)가마 선동리(仙東里)가마와 조선 중기의 가마는 송정리(松亭里)가마 유사리(柳寺里)가마 신대리(新垈里)가마 탑립동(塔立洞)가마 궁평리(宮坪里)가마 관음리(觀音里)가마 오향리(五香里)가마 금사리(金沙里)가마와 조선후기의 가마는 분원리(分院里)가마 등 이었다 이 후 조사된 가마는 용인군 이동면 서리(龍仁郡 二東面 西里)의 가마가 있다

이렇듯 고려 ~ 조선시대의 청자 백자가마터가 속속 밝혀졌지만 안양지역에 이들 가마터가 있었다는 기록과 발표는 없었다가 1987년 10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실장 鄭良謨)에 의해 안양 관악산 일대가 2세기 ~ 14세기 정자가마로는 강진 부안 이외에 발견된 최초이며 14세기 고려 백자가마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이라고 발표하였다 가마터로 지정되는 곳은 서울농생명과학대학교 수목원(안양2동 산16-1)정문을 따라 불성사 입구 못미처 산등성이로 밤나무와 소나무 등 잡목이 무성한 반경 40 ~ 50m에 이르는 지역이다



정자 백자가마터 부근 약도

그림 ①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따라 서쪽지역은 현재 석수1동에 속하는 지역으로 조선시대에는 금천현(衿川縣 시흥현 → 시흥군) 군내면 안양리였다가 1914년 부터 시흥군 동면 안양리라 했다 1963년 안양읍에 편입되면서 안양읍 신안양리로 되었고 다시 1973년 시제가 실시되면서 부터 석수동이라 했다가 1979년 부터 석수1동이 되었다 동쪽지역은 조선시대에는 과천현 상서면 내비산리(內飛山里)라 했다가 1914년부터 시흥군 서이면 비산리로 되었고 이어 1949년 안양읍 비산리로 다시 1973년 시제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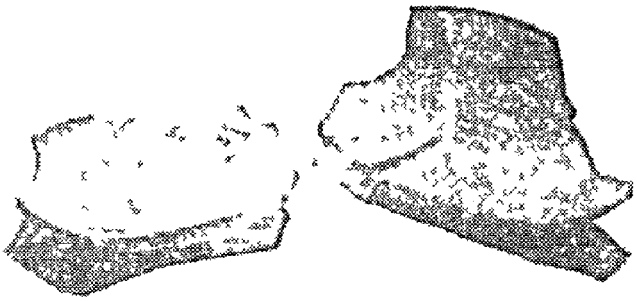
실시되면서 비산동으로 칭했다가 1982년에 비산2동으로 된후 1990년에 비산3동으로 개칭되었다 말하자면 이 하전이 조선시대에는 현계(縣界)였다가 1963년 부터 리계(里界)로 되었고 1973년 부터 동계(洞界)가 된 것이다 그림 ②는 예전에 안양 주민들이 서울 봉천동이나 신림동 등을 왕래할 때 다니던 소로였으나 안양시 상수도 공사로 길이 확장되었다 그림 ③은 상수도관 공사로 터널이 뚫린 곳이며 그림 ④는 청자 백자도편(陶片)이 대량으로 출토된 역사의 현장이다 그림⑤는 군 부대에서 2~4m의 크기로 판 진지이며 그림 ⑥은 절터(寺址)로 추정되는데 이 사찰의 명칭과 규모 장사 폐사연도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그림 ⑦은 절터에서 동남쪽으로 약 20m 남짓한 곳인데 백자 도편이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이곳 일대에 백자가마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지 주민들에 따르면 그림 ③의 지역에 예전에는 무수한 도편이 출토되었다고 하여 현지 조사했으나 도편을 발견지 못했다 이곳 일대를 단 한번만이라도 지나졌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편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을만큼 무수한 도편이 있었으나 누구하나 관심있게 살피지 않았다가 도편이 범상지 않음을 간파한 김종렬(석수1동 거주)이 1987년 9월 하순경 시흥수석회와 시흥표구사(안양2동 소재)를 경영하는 신석철(申碩澈 1948년생 시흥시 금이동 462)에게 얘기 하고 신씨가 당시 『시흥군지』를 편찬하던 학교 선배 이승언(李承彦)에게 자문을 요청하자 동년 9월 30일 김종렬 신석철 이승언 3인이 현장에서 도편 한 부대를 수습하여 이승언이 이를 동년 10월 6일 오전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학예연구실장(현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에게 도편을 건네주고 이어 오후에 정실장(鄭室長) 일행이 이승언의 안내로 현장을 조사 이로 부터 동 박물관의 학예연구실팀과 미술부팀이 수차 현장을 면밀히 조사 연구분석한 결과를 동년 10월 12일 발표하여 비로소 세상에 알려졌는데 당일 동 박물관 학예연구실과 미술부가 발표한 의견서 내용을 전재한다

〈의 견 서〉

국립중앙박물과 학예연구실 미술부

京畿道 安養市 石水洞 冠岳山의 남쪽기슭(안양유원지의 위쪽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수목원내)에 위치하고 있는 이 지역은 陶片이 반경 40 ~ 50m 정도의 범위에 산재해 있으며 그 가운데로 폭 10m 정도의 공사도로가 지나고 있다

몇 차에 걸친 조사에 의해서 수습된 片만도 500여점(국립박물관 300여점 안양시청 200여점)으로 대접 접시 각접시 항아리 등의 靑磁片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순청자가 대부분이나 陰



관악산정자 백자가마터(비산동도요지)에서 수토된 14세기 백자대접 도편(1987)

刻文 牛陽刻文 陽印刻文 象嵌文을 가진 것도 수편있다 특히 굽부분을 施釉하지 않은 것이 많다 청자 외에도 白磁 呈釉磁 등이 보이고 있으며 그 외 도자기를 구울 때 받치는 크고 작은 도지미(陶枕)와 불에 탄 흔적을 가진 기마 벽편도 수 편 있다 이제까지 수습된 陶片에 의하면 시대는 12세기에서 14세기에 걸지며 조선조에도 자기를 구웠던 곳으로 여겨진다 이 도요지는 12세기에서 14세기 청자 가마로는 강진 부안 이외에 발견된 최초의 것이며 14세기 고려 백자 요지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것으로 조선백자의 바로 전 단계로서 조선 백자의 발달과정을 추측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도요지이다 특히 고려시대 상품 청자를 구웠던 것으로 알려진 전라도 부안 강진 가마와는 다른 일반 백성들을 위한 가마터일 가능성이 높아 경기도 용인의 초기 백자 요지와 함께 주목돼는 가마터이다 이 도요지는 경기도 시흥군 郡誌編纂室의 이승언의 제보에 의해서 국립중앙박물관 정양모 학예연구실장과 학예실 조사팀에 의해서 지난 10월 7일 확인되었다

4 관청터 (官廳址) 〈비산3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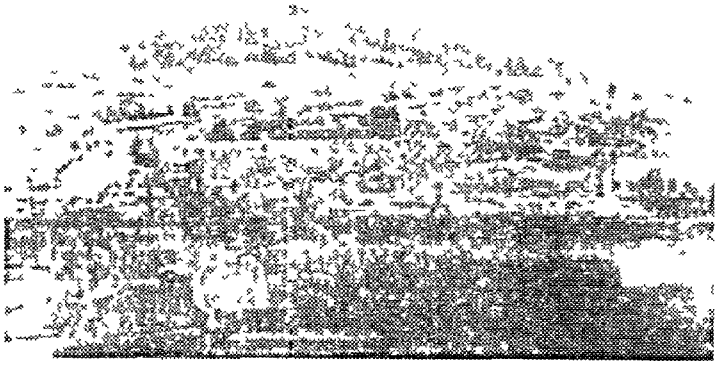
조선시대 과천군 산하 관정이 있었던 곳인데 관정명 및 설지시기와 폐지시기 규모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추정하건데 이곳이 과천군 상서면이었으므로 상서면 사무소 또는 사창이나 옥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이관정(관아)은 훼파된 후 농경지로 되었다가 1978년 12월 5일 비산초등학교(비산동 315)가 세워졌다

- **도움말**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5 금성방직터 (金星紡織址) 〈안양3동〉

왕궁예식장(안양동 695-209)에서 박달동 소재 우성아파트에 이르는 제 지역으로 1950 1960년대 안양경제계를 좌우할 정도로 영향이 컸던 굴지의 회사이다 이 회사는 경북 달성군 현풍 출신인 김성곤(金成坤 1913 8 15~1975 2 25)이 1940년 비누회사인 삼공유지합자회사(三共油脂合資會社)를 설립하여 크게 부(富)를 이루자 사양길에 접어든 조선직물을 인수하였다 조선직물은 일본인이 경영하던 회사(1932년

망해암에서 바라본 금성방직(좌측 1970년대)★



설립)로 그 후 조선비행기주식회사가 대지 7전여 평을 잡아 일시 경영하다가 전쟁이 격화되자 직기와 시설을 소개했다 광복이 되자 한국 최초의 면방기술자인 이강현(李康賢)이 조선직물의 관리를 맡아 수원 등지로 흩어진 직기 등을 안양으로 운반해다가 설치했으나 그 건물이 방대하여 태반이 놀고 있을 때 김성곤이 이를 인수 그 중 일부인 2전9백평을 빌어 1948년 9월 27일 자본금 1억원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가졌다 발기인 대표로는 김성곤(金成坤)을 비롯하여 김홍식(金洪植) 정재호(鄭載護) 김차곤(金且坤) 김홍덕(金洪德) 최사열(崔士列) 박인수(朴寅秀) 등 7인이었다 경기도 시흥군 안양읍 안양리 872에 위치한 금성방직은 본사를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6에 두었다 이 해 10월 4일에는 주주(株主)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금성방직회사 장립총회를 가져 사장에 김성곤 공장장에 김용린이 선출되었으며 이어 10월 5일에는 면방(綿紡)과 견직물(綿織物)의 제조판매 및 직면업(織綿業)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금성방직주식회사의 등기를 마침으로써 회사가 정식으로 설립되었고 공장의 제반시설이 완성된 것은 그 이듬 해 2월 12일이었다

金星紡織會社 安養工場 完成

종 공사비 3천만원으로 작년 9월 부터 착공한 金星紡織株式會社 安養工場은 지난달 12일에 완성되어 金若水 국회부의장 具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인 다수 참석하에 從業式을 성대히 거행하였는데 동 공장은 현재 만추로 운영하나 앞으로는 4만추로 늘리게 될 것이라고 하며 우리 방적계에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기대된다 -『동아일보』 1949 3 10-

그러나 일년 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인민군들이 점령하여 민간인들의 출입이 통제되더니 이 해 8월 7일에는 안양일대에 B-29기 10여대가 안양상공을 맹폭격해 금성방직은 삽시간에 잿더미가 되었다 당시 안양의 유일한 산업시설일 뿐만 아니라 사실상 안양읍 주민의 살림살이를 도맡다시피 했던 금성방직은 1만추의 방적시설과 직기 50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 때 같은 공장 구내에 있던 조선직물의 각종 시설도 다 타 없어졌다 공장 폭격으로 실의에 빠졌던 김성곤은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재기하기 위해 2년 후인 1952년에 금성방직 대구공장을 짓기 시작한데 이어 이듬 해에는 안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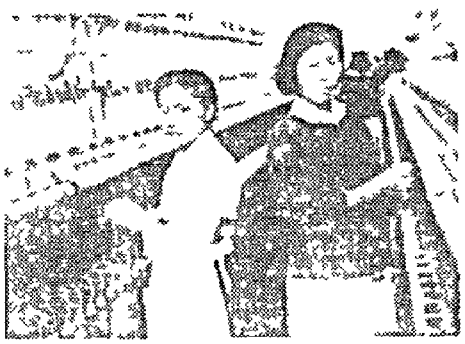


금성방직사무실 조여행 시흥군수가 어느 행사에서 지사하고 있다 (1970)

공장을 완전히 회진시켰다

이 때 전쟁에 피해를 입은 한국의 산업시설을 복구하기 위해 발족된 운크라(UNKRA 유엔 한국부흥위원단)가 제일 먼저 방직공장 분야를 우선적으로 복구하기 위해 원조를 하기 시작했다 국민의 생활필수품 중 가장 긴요한 경공업 분야 중 방직 분야를 특히 먼저 재건해야 된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운크라와 정부에서는 원조자금을 쓸 수 있는 방직공장은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한강 이남에만 준다고 단서를 붙였다 당시 우리나라의 방직공장은 부산에 조선방직(朝鮮紡織) 대구에 삼호방직(三護紡織) 내외방직(內外紡織) 대한방직(大韓紡織)의 전신이 있었고 광주에 전남방직(全南紡織) 인천의 동양방직(東洋紡織) 서울의 경방(京紡) 안양의 금성방직(全星紡織)이 있었다 이 중에 38선에서 멀리 떨어진 전남방직에 원조를 많이 주고 금성방직은 38선에서 가깝다 하여 원조계획에서 누락되었다 그러자 김성곤 등 간부들은 운크라와 정부 당국을 찾아가 부당성을 지적하고 자금 배정을 강력히 주장하자 결국에는 금성방직도 운크라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결정이 내려졌는데 방적기 1만 8천 480추의 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액수였다

금성방직은 이 자금으로 영국기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이 시설로는 너무 적다고 하여 정부 보유불로 일본제 기계 OKK 방적기 1만 1전 6백추를 주가 도입하여 1953년 6월에 금성방직 재건에 착수했고 다음 해인 1954년 5월에는 첫 제품 「은하」라는 상표의 면사가 첫 생산품으로 선을 보였다 이렇게 천신만고 끝에 잿더미 위에서 소생한 금성방직의 새 제품「은하」는 품질도 우수했지만 시장 사정도 좋아 없어서 못팔릴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당시 면사는 실수요자인 가공업자들에게 일정한 양은 공정가격으로 직접 배급해 주고 나머지만 방직공장에서 자유 판매를 할 수 있었다 더구나 면사는 공정가격으로 팔아도 생산비에 이윤을 붙인 값이었는데 자유품은 방직공장이 공정가격보다 2배를 붙여 팔아도 되던 때였다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 이윤이 축적되자 면직기를 늘리기 시작



금성방직 여공(195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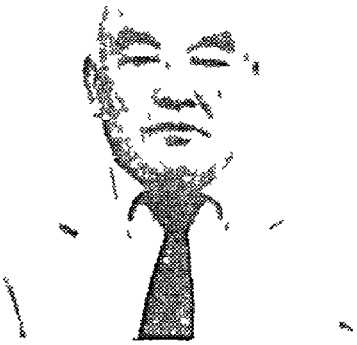
해 제품도 광목 옥양목 포플린 등 인기있는 제품이 나왔다 1960년대 초만 해도 의류의 대종(大宗)이 면직물이었으므로 정부는 국민들의 의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으로 부터 원면을 대량도입 기간상업인 방직공장의 가동율을 충분히 보장하여 주었으므로 방직업계는 바야흐로 황금기를 맞았다

이렇듯 광복 후 안양 경제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금성방직도 1967년 10월 5일 동해대단위 시멘트공장 건립자금 조달을 위해 시대동에 있던 태평방직과 함께 대한농산(大韓農産 대농이라 칭함)에 매도되었고 대농은 그 후 청주공단으로 이전되었다 1977년 한국토지금고에 의해 일반에 매각되어 주택단지로 변모되자 대농단지(大農團地)로 불리워 오고 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49 3 10 한국일보 『財界回顧』 1981
  성곡전기간행위원회 『별일없제』 1985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월간 직장인』 1985 5

6 낙랑실업공사터 (樂浪實業公司址) 〈안양1동〉

안양의 원로 장배근(張培根 1909년생 작고)에 의해 1949년 2월에 창설되었다 김원필병원과 중앙의원 사이에 있던 이 회사는 일본식 적벽돌 1층 건물로 공장평수는 61평에 본견과 인견을 년 15만碼 생산하며 종업원은 남자가 15명 여자가 22명 모두 37명이었다 규모는 그리 큰 회사는 아니었지만 광복 후 안양일대의 빈민을 구제하는데 일익을 담당했던 회사로 덕망이 높았다 당시 창업주 장배근은 조선직물 안양공장과 경기도직물조합 이사 및 시흥군직물조합장 등을 역임하였다


낙랑실업공사 설립자 장배근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7 낙영학교터 (樂英學校址) 〈호계2동〉

융희 3년(1909)에 호계동 방죽말 출신 조용하(趙用夏)가 자신의 집 아래 사랑채에 설립한 학교로 안양시교육정 앞에 있었다 이 학교는 안양지방 각처에 있는 서당의 학동(學童)들을 학생으로 편입 교육했다

교장은 설립자 조용하의 큰 아들인 조동우(趙東宇)였고 교감은 둘째 아들인 조동순(趙東舜 조대 안양읍장 조한구 부친) 교사는 인천영화학교(仁川永化學校)교사를 역임한 한용구(韓用球 한흥이 중부) 경성유학생이던 조준구(趙濬九 조남잔 부친) 무관학교(武官學校) 출신으로 군대가 해산되자 제대한 조희창(趙熙彰) 등이었다 낙영학교는 설립한 지 3년 만인 1912년에 폐교되었다 이 학교출신 중에 뒤에 독립운동가와 교육가가 된 한흥이(韓興履)가 있다 그가 2학년 때(1911) 안양으로 소풍(당시는 원족이라고 했다)를 간 일이 있었다 한 농촌 아이가 베잠방이 등거리 바람에 입을 헤 벌리고 안양역 앞에 있는 미륵을 바라보는 모습을 일본놈이 사진을 찍으려는 순간 그가 피하라고 소리지자 일본놈은 냅다 그의 뺨을 후려졌다 그가 왜 떠리냐고 항의하자 일본놈은 또다시 그의 뺨을 사정없이 때렸다고 한다 그때의 분통함을 읊은 시 한수가 전한다

- **참고문헌** 한흥이 『몽당한항길선생 유고집』 1989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8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터 (大韓食糧公社始興支社址) 〈안양1동〉



안양역 서북쪽으로 현 연탄공장 자리에 있었다 이곳은 일제 때 마루보시(丸윷 대한통운의 전신)사무소가 있었다가 광복이 되자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가 설지되었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 **도 움 말** 이상표(李相杓 안양동102 1924년생)

도로 우측 끝에 있는 건물이 대한식량공사 시흥지사 건물이 있었던 곳이다(1972)

9 독점터 〈석수1동〉

석산개발사업소내 동아건설이 자리잡은 곳이 예전에 독을 굽던 곳이라 하여 그 주변을 '독점터'라 징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10 동이점터 (盆店址) 〈안양9동〉

안양채석장 자리에 조선 말엽부터 동이를 구워오다가 1930년대 초에 채석장개장(1989년에 폐장)으로 폐점되었다 현재도 질그릇 파편 등이 출토된다

● **도움말**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11 박애원안양양로원터 (博愛院安養養老院址) 〈석수1동〉

석수동 수영장 건너편 산속에 있었다 이 양로원은 이윤영(李允榮)이 사회부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1949년 4월 1일에 설립되었다 1950년 현재 수용자는 모두 46명(남자 33명 여자 13명)인데 언제 폐치되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천지』 1950

12 백련암지터 (白蓮庵址) 〈석수1동〉

백련암지터(1950년대)



백련암 맡에 있던 연못 지운영(池雲英 運水)이 삼막사 주지로 있을 때 백련암과 함께 조성한 것이라고 한다 백련암과 함께 1977년 7월 8일 집중호우로 매몰되었다 백련암(白運庵)이라 암각한 바위도 함께 매몰되었다고 한다

● **도움말** 이지환(李知幻스님 안양동 618-138 1936년생)

13 백련암터 (白蓮庵址) 〈석수1동〉

삼귀자바위 동쪽 약 5m 지점에 있던 암자 1977년 7월 8일 안양일대에 내린 집중호우로 매몰되었다 이곳은 구 한말에 서화가이자 유 불 선(儒佛仙)에 통달한 명사로 그 이름이 높았던 지운영(池運永 雲英 1852~1935)이 은거하며 작품생활을 했

던 것으로 유명하다 지운영은 서화가로 호가 설봉(雪峰) 백련(白蓮)이며 의학자로 종두법을 실시하여 유명한 석영(錫永)의 형이다 고종 때(1880) 사대당 정부의 밀령을 받고 자객전권(刺客全權)으로 도일하여 김옥균(金玉均)을 암살하려다가 스스로 노출시켜 일본 요꼬하마에서 체포되어 본국에 압송되었다가 평안도에 유배된 후 고종 26년(1889) 풀려나와 운영(雲英)으로 개칭하고 안양시 석수동 삼성산 삼막사 주지를 역임하며 삼막사 위에 백련암(白蓮庵)이란 암자를 짓고 여생을 시 서 화로 보냈다 이곳에서 제작된 작품으로 「초동(樵童)」 「신선도(神仙圖)」 「초부(樵夫)」 등이 있다

● **참고문헌** 『조선미술사』 『한국인명대사전』

14 범고개약수터 (虎峴藥水址) 〈박달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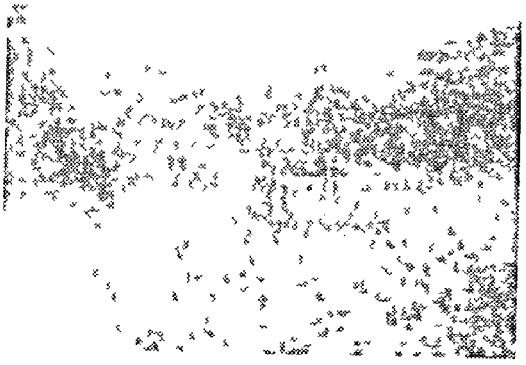
범고개 마을과 시흥시 목감동 더푼물(新村) 사이 도로변에 있던 약수터 피부병에 특효가 있다 하여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한 때는 어느 만신(무당)이 약수 뒤에 사당을 짓고 치성을 드렸으나 1976년 안양 - 논곡간 도로가 포장되면서 약수는 폐정되었고 사당도 훼파되었다

● **도움말** 이계순(李季淳 박달동 765 1927년생)
임종대(林鍾大 박달동 774 1930년생)

15 산골재 활터 (弓址) 〈관양1동〉

동편마을과 산골재 사이에 예전에 선비와 한량들이 사용하던 활터가 있었다 현재는 밤나무와 과수원으로 변모되었지만 실제 강점기 까지 이곳에서 활을 쏘았다고 한다

● **참고문헌** 『관양』 1995 28쪽


산골재활터(1990년대)▲

16 삼곡터 (三谷址) 〈관양1동 478〉

샌말(間村) 동북쪽에 있다 이곳은 조선조 숙종(?)조에 학문과 문장이 뛰어났던 삼곡 오문서(吳文瑞)선생이 살던 곳으로 그의 아호를 취해 '삼곡터(三谷址)'라 칭한

다

오문서는 자가 용중(龍仲) 호는 삼곡(三谷) 본간은 보성(寶城)으로 순천부사를 지낸 오상(吳尙)의 둘째 아들이다 일찌기 사마시에 급제했으나 관계에 나가지 않고 일생을 학문에만 몰두했다 오문서는 사후 그의 후손들이 계속 세거해 왔는데 안양 교육계의 원로 오병선(吳炳善 1904~1979)도 이곳에서 출생하여 후에 입신하여 만안 안양 관양 과천국교장 등을 역임하면서도 계속 이 터를 지켰다 현재는 그의 자제가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오덕균 『보성오씨세보』 1930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17 삼길양산공장터 (三吉洋傘工場址) 〈안양1동〉

1945년 7월 박절재(朴鐵載 과천시 갈현동 출신 작고)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양산과 우산을 제조했다 1949년 현재 공장평수는 400평에 년간 생산량은 10 000本이며 종업원은 6명(남자 5 여자 1)이다 이 자리에 1969년 3월 4일 삼원극장이 설립되었다 안양 최초의 양산 제조공장으로 알려지고 있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시흥군 『시흥군통계연보』 1963
  안양시 『안양시 통계연보』 1978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18 삼막골교회터 (三幕谷教會址) 〈석수1동 134〉

삼막골 마을 송재이 초입 할아버지 느티나무 옆(하천)에 있었다 일명 '야랫서낭'이라고도 불리우고 있는 이 느티나무는 안양에 현존하고 있는 노거수(老巨樹) 중 가장 오랜 나무로 예로 부터 삼막골의 안정과 풍년을 기원하는 신목이다 이곳에 교회를 최초로 세운 사람은 석수동 지역 최초의 기독교인인 하영홍(河永泓 1879 ~ 1915 일명 周明)이다 그는 세종 때 영의정을 지낸 하연(1376~1453)의 17대손이고 삼막골에 최초로 입향한 하우정(1561~1622 의금부도사 역임)의 10대 손으로 아버지 하진잔(河鎭瓚)과 어머니 남평문씨(南平文氏) 사이에 3남 중 막내로 삼막골에서 태어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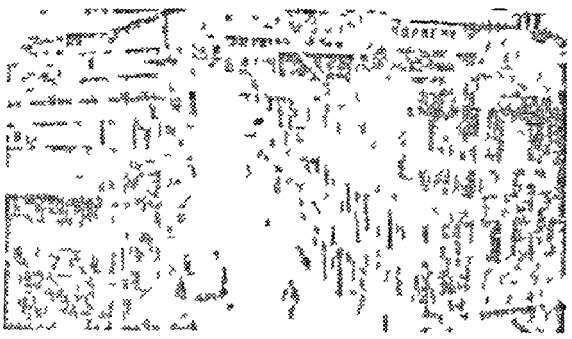
삼막골교회터 석수동느티나무 서쪽도로 부근에 있었다고 함(1995 「안양지방 감리교회백년사」에서)

21세 때 광무 4년(1900)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고 이듬 해 감리교지도자 교육반에 들어가 수료한 후 삼막골 마을을 그리스도의 마을로 만들기 위해 전도하고 자신의 전답(田畓)을 판 돈 180원으로 마을 교우 7가구가 일심하여 초가 3칸 규모로 교회당을 지어 이 해 8월 6일 미국인 선교사 스웨어러와 존스 장노사(長老司) 및 각회 교회 형제자매 70여명이 봉헌예배를 올렸다 무지내교회(시흥시 무지동에 소재함) 김동현(全東賢 1869~1928 시흥시 무지동 출신) 권사가 기도하고 스웨어러 선교사가 찬송한 후 존스 장로사가 예식을 읽고 삼막골교회 속장 하영홍과 유사 이지홍 하진정이 회당문서와 지계아문권(오늘날의 등기부등본과 토지대장)과 열쇠를 장로사에게 드렸다 이날 스웨어러는 요한복음(15 1 ~ 20)을 읽고 '열골 물이 한데 모여 큰 강을 이룬 것 같이 우리 교회에도 각 곳 형제들이 일심이 되어 큰 교회가 이루는 것이니 '하고 연설 하였다 그 후 삼막골교회는 하영홍의 전도로 삼막골마을 60호 중 24명 기독교를 믿었으나 이 교회 속장 하영홍이 25세 때(1904 9 14) 일본인과 부역문제로 농민봉기가 있자 그 주동자로 지목되어 1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되자 점차 쇠퇴하여 끝내 자취를 감추었다

- **참고문헌** 『수원지방교회자료집』 『향기』 『신학월보』 『감리교회연회록』
- **도 움 말** 최언년(崔言年 석수동 263 1910년생)
  이진호(李鎭昊 안양동 391-29 1932년생)

19 서이면사무소터 (西二面事務所址)① 〈호계2동〉

우측상단의 안양시교육정사 아래 민가에 서이면사무소가 있었다(1993)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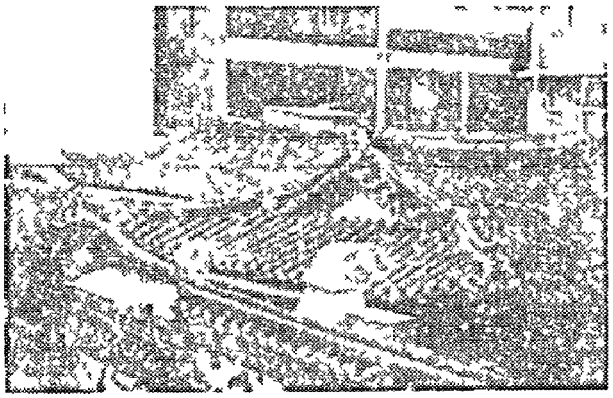
안양시교육정 앞(현재 민가가 있음)에 있었다 서이면사무소는 1914년 3월 1일 부령 제111호에 따라 부군면이 통합되자 과전군 상서명(上西面 현 동안구 지역)과 하서면(下西面 현 만안구 지역)을 합하면서 과천 서쪽에 있는 두개의 면이라 하여 서이면(西二面)이라 칭하고 이 곳에 면사무소를 신축한 것이라고 한다 그 후 1917년 7월 6일 안양1동 674-271(현 안양옥 자

리)로 옮길 때까지 3년 4개월 간 서이면의 행정을 맡아 보았다 확실한 자료는 없어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존로들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조선시대에는 과천군 하서면의 면사무소도 이 곳에 있었다가 상서면을 합하면서 서이면사무소로 사용한 것 같다고 말한다 서이면의 초대면장 조한구(趙漢九 본관은 풍양)도 이곳(호계2동 방죽마을) 출신으로 1917년 안양1동으로 면사무소를 옮길 때 여기에 있던 면사무소 건물을 헐어다가 신축하였다고 한다

● **도움말** 이학증(李學增 호계2동 924-2 1924년생)

20 서이면사무소터 (西二面事務所址)② 〈안양1동〉

서이면사무소터②(1988)



전술한 바와 같이 서이면사무소는 본래 호계2동 소재 안양시교육청 앞에 있었다가 1917년 7월 6일 안양1동 사무소 옆 안양옥(安養屋 안양1동 674-271)자리로 옮겼다 이는 종전에 안양의 중심지가 호계리(호계동)에서 안양리(안양동)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곳은 1941년 10월 1일 서이면이 안양면(安養面)으로 개칭된 이후에도 계속 면사무소로 사용되다가 1949년 8월 15일 안양면이 안양읍(安養邑)으로 승격되면서 안양백화점 자리에 안양읍 정사가 신축되자 이전되었다 말하자면 1917년 7월 6일부터 1941년 9월 30일까지 24년간은 서이면사무소로 1941년 10월 1일부터 1949년 8월 13일까지 8년간은 안양면사무소로 모두 32년 간을 면사무소로서의 행정사무를 수행했던 것이다

● **참고문헌** 이승언 「행정구역변천사」 안양문화 3-1984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4-1985

● **도 움 말** 김형욱(全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21 소호정터 (嘯虎亭址) 〈호계2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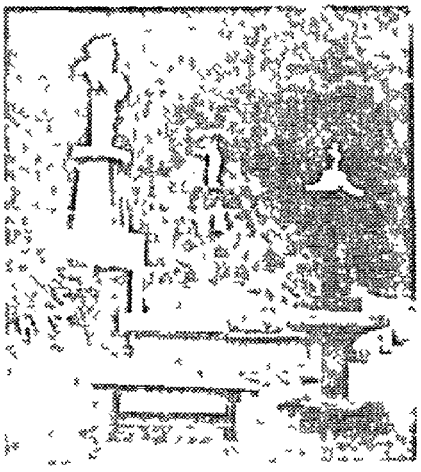
매봉산 북록(北麓) 아래 대림아파트 서편에 있었다 이 정자는 조선시대 범계(현

호계동) 주민들이 활을 쏘며 풍류를 즐기던 곳이다 촌로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정자를 지은 후 정자의 이름을 짓기 위해 유생들이 며칠간을 밤을 지내며 골똘히 생각했으나 마땅한 이름이 떠오르질 않아 근심을 하고 있었는데 때마침 호랑이의 휘파람 소리가 나므로 '소호정(嘯虎亭)'이라 명명했다는 것이다 현재도 정자터 주변에는 깨진 기왓장과 초석 등이 남아 있다 본래의 건물은 일제강점기 초에 훼파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982년 이 마을의 향토 원로들이 소호정 재건에 나서 현 호원파출소(안양시 호계동 925-69)자리에 가건물을 짓고 소호정이란 현액까지 걸었으나 1988년에 파출소가 건립되자 안양시에 의해 파출소뒤(안양시 호계동2동 925-6)에 현대식 2층 건물(연건평 40평)을 지어 '호계2동 소호노인정'으로 이름짓고 옛 범계노인들이 풍류를 즐기던 선비정신을 계승케 하였다

- **참고문헌** 안양시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22 수리산성지터 (修理山聖地 聖址) 〈안양9동〉



최경환의 수리산 성지(1988)

안양지역 최초의 천주교 전래에 대하여는 정확한 사료가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지만 달레(Dallet)가 지은 『한국교회사』에 보면 안양 서쪽 10리 쯤에 위치한 수리산 산록(山麓)에 전형적인 교우촌(敎友村)이 형성되었는데 신자가 60여명이 살고 있다는 기록으로 보아 기해사옥(己亥迫害)이 일어난 헌종 5년(1839) 전후로 보는 것도 무리는 아닐듯 하다 (* 최경환의 묘비명에는 1837년에 최경환이 수리산에 첫 입주한 것으로 명기됨) 이곳은 우리나라 두번째 신부로 알려진 최양업(崔良業 1821 ~ 1861 일명 鼎九 교명 도마)의 부친 최경환(崔京煥 또는 榮訥 永煥 세례명 프란치스코(TCHOI KYENGHOAN FRANCISCUS 방지거)과 어머니 이성례(李聖禮 또는 李性禮 세례명 마리아)가 치명하기 전 생애 최후를 보낸 유서깊은 곳으로 안양지역 유일의 성지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이곳은 최경환의 큰 아들 최양업 신부가 1836년 모방(Maubant 羅伯多祿 베드로)신부에 의해 신학생으로 선발

되어 김대건(金大建 1822 ~ 1946 교명 안드레아(Andre)] 최방제(崔方濟 세례명 프란치스코)와 함께 마카오의 신학교로 유학을 떠난 곳이기도 하다 최양업은 그 해(1836) 2월 6일 수리산에서 모방 신부의 부름을 받고 유학을 준비하기 위하여 서울로 갔다

최경환은 순조 5년(1805 문헌에 따라 4년설도 있음) 충청남도 청양군 북성면 농암리[北城面 農岩里 다락골(樓谷 樓洞)]에서 경주(慶川)를 본관으로 둔 최인주(崔仁柱)의 삼남으로 태어났다 그는 신라시대 한림학사(翰林學士)이자 경주 최씨의 시조인 최치원(崔致遠 (857~?)의 30대 후예이며 조선조에 평정공신(平定功臣 이조판서를 지낸 최확(崔確)의 15대손이자 정조 때(1787) 입교(入敎)한 최한일(崔漢馹)의 손자이다 최씨 일가가 살던 곳은 본래 서울이었다 정조 15년(1791)에 일어나 신해박해(辛亥迫害)로 최경환의 조모(최한일의 부인)가 어린 아들 인주(12세)를 이끌고 이곳 저곳을 유랑하다 정착한 곳이 농암리 다락골이었다

최씨 일가 중 최초로 천주교에 입교한 최한일에게 전교한 사람은 한국교회 조장기에 충청도 일대에 복음을 전파하여 내포(內浦)의 사도(使徒)로 칭송을 받은 이존창(李存昌 루도비코)이었다 최경환은 15세 때 자신보다 3년 연상의 이성례(李聖禮 또는 性禮 마리아)와 결혼하였다 이성례는 홍주태생으로 전기(前記)한 이존장의 후손이다 최경환은 성격이 괄괄해서 불같이 일어나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을 정도였으나 계명을 잘 지킴으로써 차자 부드러운 사람으로 되었다 점차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상숭배에 빠진 주위 사람들 속에서는 잠 신앙생활이 어렵다는 가족과 친척들에게 거듭 권하여 25명의 일가와 함께 다른 곳으로 이사하게 하였다 이때 처음으로 이사한 곳이 서울의 벙거지골(笠洞 Pen-G-Ke-tjɪ-Kol)이었는데 탐욕스러운 외교인들과의 빈번한 접촉의 결과로 살던 집이 재판에 걸려 가산을 탕진했을 뿐만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천주교 신자임이 탄로날 위험에 까지 놓이게 되어 교우(敎友)들이 숨어살고 있는 산간벽지로 뿔뿔히 흩어졌는데 최경환의 맏형은 충남 천안군 병천면 서덕골로 둘째 형은 경기도 용인군 한덕골로 최경환 자신은 강원도 금성(金城)을 거쳐 부평 등에서 일시 살았다가 안양의 수리산 아래로 피신하였다

이곳은 행정구역명으로 경기도 과천현 하서면 후두미동(果川縣 下西面 後頭尾洞)이었고 1895년 부터 과천군 하서면 후두미동으로 되었고 다시 1914부터 시흥군 서이면 안양리로 되었다가 1973년 부터 안양시 안양3동으로 되었다 담배촌이란 지명은 최경환 일가와 천주교인들이 담배를 경작하며 살았다하여 붙여졌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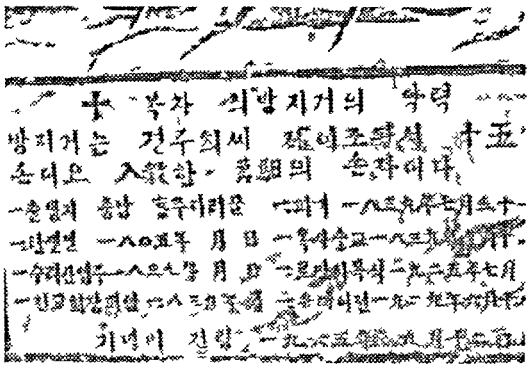
최경환은 이곳 일대가 가시덤불과 돌 자갈이 많은 박토였지만 물이 좋고 땔나무가

많아 살기 좋은 곳으로 판단했고 교우집에서 연장을 빌려 지금의 수리산 공소(修理山公所) 강당 왼쪽 개울 건너편에다 초가 삼칸을 짓고 화전(火田)을 일구어 담배 농사와 잡곡 등을 경작하며 살기 시작하였다 최경환의 수리산 뒤뜸이 묘자리에는 수리산 공소 신자들에 의해 봉분(封墳)이 세워졌고 현재의 봉분은 그 후 다시 세운 것인데 최경환이 묻혔던 묘자리는 봉분(封墳)앞에 제대가 있으며 그 곳 아래 중앙에 있었다 순교 126년이 되는 1965년 9월 12일에는 기념비가 세워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복자 최 방지거의 약력

방지거는 경주최씨 確 이조판서 十五代손이요 入敎한 漢馹의 손자이다

- 출생지 충남 홍주 다락골
- 탄생 一八0五年 十月 十五日
- 수리산 입주 一八三七年 七月 日
- 전교회장 一八三九年 春月
- 피체 一八三九年 七月 三一日
- 옥사순교 一八三九年 九月 十二日
- 시복(로마) 一九二五年 七月 五日
- 유해이전 一九二九年 六月 十八日
- 시성(한국 서울) 一九八四年 五月 六日
- 기념비 건립 一九六五年 四月 十五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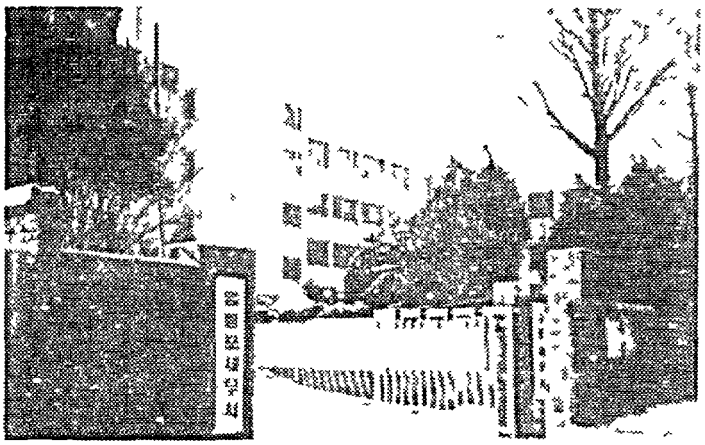
복자 최방지거 비(1980년대)

봉분 앞에 큰 돌 비석은 최경환의 후손들에 의해 최양업 신부의 서품 135주년을 맞이하여 1984년 4월 15일에 세워졌다 또 최경환 순교 145년 후인 1984년 5월 6월에는 서울 여의도 광장에서 거행된 한국천주교 창설 220주년 신앙대회 및 순교 복자 103위 시성식에서 교황 바오로 2세에 의해 성인(聖人)으로 선포되었다

- **참고문헌** 한국교회사연구소 『순교자와 증거자들』 1982
  김옥희 『최양업신부와 교우촌』 1983 조영인 『헌종실록』 1851
  한국교회사연구소 『카톨릭 대사전』 1985
  정태진 「수리산 공소의 내력」

23 시흥군청터 (始興郡廳址)①

〈안양1동〉



일제강점기의 시흥군청터(1995)

시흥군청사는 본래 시흥군 군내면(始興郡 郡內面)으로 현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832일대 범일운수 종점 부근인 옛 시흥군의 진산인 금주산(衿川山 衿芝山 衿山 黔川山) 아래에 있었다가 1899년 경인선 개통과 1905년 경부선이 개통되면서 시흥군 하북면 영등포리(始興郡 下北面 永登浦里)에 영등포역(永登浦驛)이 생기자 영등포 일대가 시흥군의 중심지로 발전되므로 1910년 12월 7일 방림방적 길 건너편(후생의원 옆)으로 이전 되었다 그 후 일제는 경성부에 인접한 시흥군 고양군 지역에서 도로 하수 위생 등을 거의 고려치 않고 마구잡이로 가옥을 신축해 이를 통제함과 아울러 인구 증가로 날로 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어 경성부를 확장해야 한다는 경성부회(京城府會)의 의결에 따라 총독부는 1934년 6월 26일에는 조선시가지계획령을 공포하고 경성부 확장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하여 동년12월 중순에는 동 계획안을 경기도의 해당지역인 시흥군 김포군 고양군에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시흥군의 해당면 의회에서 예정대로 심의를 했는데 동면의 경우 시흥리 가리봉리 독산리 봉전리 상도리 신림리 안양리(현 석수동을 말함) 등 7개리 중에서 상도리 전부를 경성부에 편입시키기로 의결하였다 이리하여 편입지인 시흥 김포 고양의 각 읍면의회 의결사항을 1934년 12월 중순에 경기도에 보냈는데 경기도에서는 영등포 일대의 세수입 감소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시하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해를 넘겼다 그러나 총독부의 강력한 지시에 따라 결국에는 이듬 해(1936) 4월 1일 부터 부령 제 8호에 의거 영등포읍의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 북면의 노량진리 본동리 흑석리 동작리 신길리 번대방리 일부 도림리 동면의 상도리등의 전역이 경성부(서울)에 편입되었다

지방행정의 중심지가 되는 군청 소재지나 도청 소재지를 자기가 사는 지역으로 옮기려는 행위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는 것 같다 그것은 정사가 자기 지역에 소재해 있으면 행정 이용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보다 더 발전된다는 잇점이 있기 때문인데 일제하 시흥군 관할하에 있던 영등포읍의 영등포리 당산리 양평리와 북면의 노량진리 본동리 동작리 흑석리 신갈리 상도리가 서울시 확장책에 의해

1936년 4월 1일 부령제8호에 의거 서울시에 편입되자 영등포읍 영등포리에 있던 시흥군 청사를 안양에 이전해 줄 것을 각계에 진정한 것도 그러한 이유에서 일 것이다

시흥군 청사 이전을 획책

(永登浦) 영등포읍 북면 동면 신동면 서이면 남면 수암면 군자면 등 1읍 9개면을 행정구역으로 한 시흥군청의 소재지는 영등포로서 전국을 통하여 그 소재가 너무나 한편 모퉁이에 치우친 관계상 군내의 모든 進運에 적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공사나 사사를 불문하고 불편한 점이 많아서 종래 지방 유지간에는 군청사를 군의 중앙부이며 교통이 편리한 서이면 안양에 이전할 필요를 절대 느끼어 오직 시기만 기다리는 터이었는데 이번에 대 경성 계획이 드디어 실현됨에 따라 영등포읍 일원과 노량진을 주심으로 한 북면 일부를 경성부에 빼앗김에 따라 시흥군과 행정상 시설에 있어서 아무 관계가 없게되는 영등포에다 군청사를 그대로 둔다는 것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나 또는 군내의 모든 산업 진흥상으로 보아 적당치 않다고 해서 이번 기회에 기어히 군청 이전의 목적을 달설하려고 지난 21일 오후 1시부터 군내 공직자 유력자 등 백여명은 서이면 사무소에 군청 이전 기성회를 조직하고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6 2 26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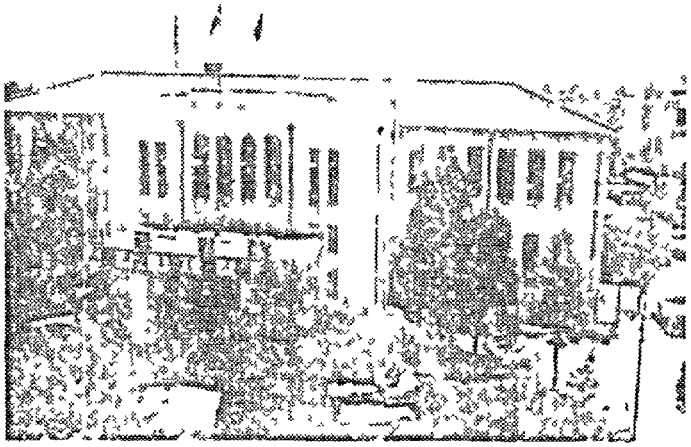
시흥 군민들은 시흥군 청사를 빠른 시일내에 안양으로 이전시키기 위해 기성회를 조직한 후 기성회장에 당시 안양에 대표적인 굴지의 회사였던 조선직물주식회사(朝鮮織物株式會社) 안양 공장이었던 일인(日人)을 선정했는데 이는 일제 점령기였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추측된다

郡廳 유치코저 郡民大會 開催

(永登浦) 오는 4월 1일을 기하여 실시될 경성부 구역 확장에 의하여 시흥군청 소재지인 영등포읍 일대는 자연 시흥군에서 제외되는 동시 모든 행정시설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를 결하게 되었다 이 시기를 계기로 종래 군청사가 너무나 한편에 치우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불리불편을 통감하여 오던 일반 국민들은 지리상으로나 교통상으로 보아 군 관할지역의 가장 중심지가 되는 안양으로 유치 이전코저 몇 일 전에 기성회를 조직하고 朝鮮織物株式會社 安養工場長 동전원차(桐田元次)씨를 기성회장으로 선정하고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여 오는터인데 이 유치운동을 더욱 강화 촉진키 위하여 오는 5일 정오부터 안양 공회당에서 군민대회를 개최키로 되었다는데 그 결과가 매우 주목된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6년 3월 4일자 -

시흥군 청사를 유치하기 위한 계획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1936년 3월 5일에는

시흥군정사(1975)



시흥군내 유지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안양 조선직물(朝鮮織物) 구내에서 시흥군 정사 유치 운동을 적극화하기 위하여 군민대회를 개최하였는데 일인(日人)공직자 2명이 진정위원으로 선정된 것이 특이하다

始興 郡民大會

(永登浦) 경성부 편입기를 목전에 두고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이전코저 안양을 중심으로 인접 각면 공직자 등이 궐기하여 기성회를 개최하였다함은 누보한 바이거니와 지난 5일 오후 2시에 군내 각면에 공직자 유지 등 3백여명은 안양 조선직물회사 구내에 집합하여 군민대회를 개최하고 서이면장 조한구(趙漢九)씨의 개회사가 있은 후 기성회장 동전원차(桐田元次)로부터 경과보고 취지 설명이 있었으며 이어서 안강(安江) 율원(栗原) 등 제공직자들이 차례로 등단하여 군청 이전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진정위원으로 좌기 제씨를 선정한 후 오는 10일 도(道) 총독부(總督府) 당국에 진정을 하기로 하고 만장일치로 결의한 후 동 3시경에 산회하였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6 3 7 -

이어 기성회 회장단은 3천 2백여명이 서명 날인한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하면서 군청사를 시흥군의 중심지인 안양으로 이전해 줄 것을 진정 하였는데 영등포가 서울시 확장구역에 의해 편입되므로 해서 이제는 남되었으니 군정을 돌려 달라는 신문의 기사 제호가 자못 이색적이다

'이제는 남되었으니 군청을 돌려주오'

시흥 군청 기성회장 동전원차(桐田元次) 부회장 박희원(朴禧元) 등 7씨는 19일 총독부와 경기도 당국을 방문하고 현재 영등포에 있는 시흥군청을 안양으로 이전해 달라고 진정하였다 그 이유는 영등포는 원래 시흥군으로 보아서는 맨 북쪽에 있어서 군민 전반이 크게 불편을 당하여 왔으나 영등포는 시흥군 유일의 읍(邑)으로서 아직까지는 참아왔다

그러나 이제 영등포는 경성부에 편입되었으니 불편함을 당하면서까지 구태여 시흥군과 아무 상관도 없는 경성 시내에 둘 필요는 없다 안양으로 말하면 시흥군의 중심으로 이 기회에 당연히 안양으로 이전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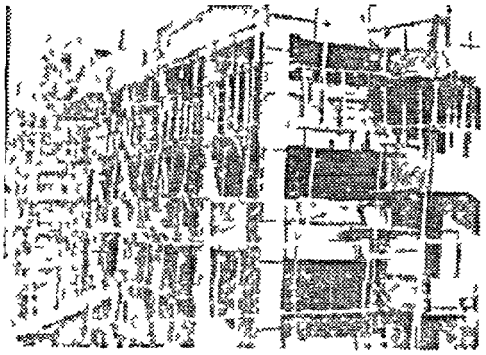
여기 대하여 군민들은 3천 2백 25명의 연서 날인한 진정서를 당국에 제출한 것이다 경성부 확장에 직면

하여 서울로 시집가는 영등포로서는 친정 사당까지는 들고가지 못하리라는 것으로서 금후 당국의 처결이 주목되는 바이다 -「동아일보」 1936 3 20 -

시흥 군민들의 끈질긴 유치운동에도 불구하고 군정사는 이전되지 않았다가 일제가 패망하고 우리나라가 광복되자 안양읍 안양리 688(현 안양1동 674-251 뉴코리아 호텔자리)로 이전하였다

- **참고문헌** 『개벽』 1924 8「동아일보」 1993 2 26 3 4 3 7 3 20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형욱(金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24 시흥군청터 (始興郡廳址)② 〈안양6동〉


시흥군청사 공사장면(1978)

시흥군청사가 안양동 477-1로 이전하기는 1978년 4월 14일로 처음에 서울시 금천구 시흥5동에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을 거쳐 안양1동 등을 전전하다가 후로 자리를 잡은 것인데 그나마 입주한지 11년 4개월 만에 시흥군의 급격한 팽창으로 1989년 1월 1일자로 수암군자 소래지역을 시흥시(始興市)로 군포지역을 군포시(軍浦市)로 의왕 및 동부출장소 지역을 의왕시(儀旺市)로 각각 승격되면서 분리와 함께 해체되자 1989년 5월 1일 안양시 만안출장소 개소와 동시에 만안출장소(1992년에 만안구로 승격)청사로 사용되고 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시흥의 문화재와 유적』 시흥시 1995 182~18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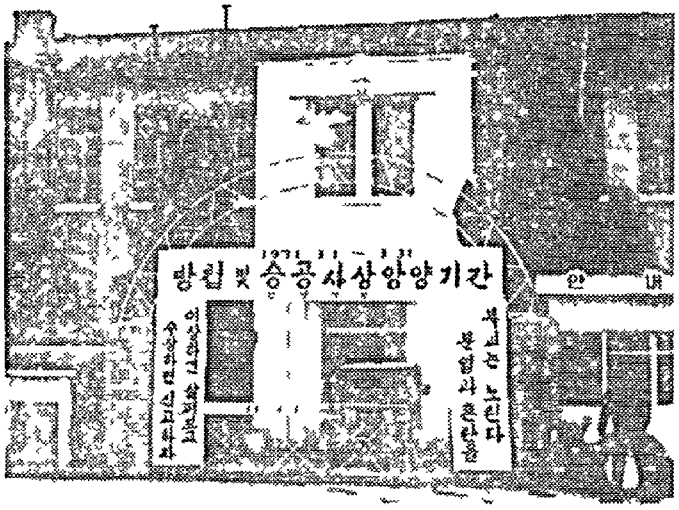
25 아사이(旭)학교터 〈안양3동〉

안양공업고등학교(안양3동 795)자리에 있던 학교 일제강점기 말엽인 1940년대 초에 조선직물공장의 중역인 기리다(桐田元次)가 주동이 되어 안양거주 일본인의 자녀를 위해 설립되었다 교사(校舍)는 모두 4칸인데 일본인의 주렴으로 세웠다 광복이 되자 폐교되어 1948년 안양중학교와 1949년 안양공업고등학교가 설립되었다

● **도움말** 김형욱(金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26 안양경찰서터 (安養警察署址) 〈안양1동〉

안양경찰서(1971)



안양지역(옛 시흥군 관할구역)의 치안 업무는 본래 영등포경찰서에서 관장하다가 광복 직후인 1945년 10월 21일 경부선 안양역 앞 이화순가(家)에서 처음으로 경찰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러 1947년 10월 5일 시흥군 안양면 안양리 660(현 안양시 안양1동 674의 245/246 금강빌딩 자리)에 새 청사를 신축하고 초대 서장에 경감 정규설(丁奎卨)이 임명되었다 그 후 1950년 한국전쟁으로 청사가 파괴되자 새 건물을 짓고 1953년 10월 20일부터 1973년 1월까지 있었다가 현재의 안양시 안양6동 576-2로 이전하였다 당시 안양경찰서의 관할구역은 현 서울시 관악구 서초구 구로구(일부) 경기도의 안양시 광명시 과천시 안산시(일부) 시흥시 군포시 의왕시의 제 지역 이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27 안양고등공민학교터 (安養高等公民學校址) 〈안양1동〉

박영래(朴榮來)에 의해 1948년 5월 7일 설립되었다 1949년 현재 학급수는 4개 교원수 7명 학생수 130명(모두 남자) 수업연한 3년(?)이다 이 학교는 처음에는 제일방적 기숙사에 임시 교사(校舍)로 있었으나 재정상 어려움이 많아 각계의 지원이 있었는데 특히 당시 시흥군의 국회의원이었던 이재형(李載瀅 1914년생 군포시 산본동 출생)이 학교 교지(校地)를 희사해 새 바람을 불러 일으켰다

안양고등공민학교는 처음에는 제일방적 기숙사에서 임시 가교사로 개교했다가 얼마 후 임업시험장 안으로 이전했는데 한국전쟁 직후 운영난으로 폐교되었다 설립자 박영래씨는 일제 때 만주에서 살다가 광복 직후 안양에 터전을 마련하고 초창기 안양 교육에 헌신한 교육자라고 안양의 원로들은 한결같이 증언한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 도 움 말 안현선(安賢善 경존동 809 1928년생)

28 안양곡물검사서터 (安養穀物檢查署址) 〈안양1동〉

만안로에서 조흥은행 안양지점으로 들어가는 초입에 있었다 곡물검사서는 미곡(米穀)과 맥류(麥類)의 품질향상을 도모하고 건조(乾燥) 조제(調製) 포장(包裝) 등의 개량절저를 기하기 위하여 곡물검사 규칙에 의거 설지되었다 1950년대에 안양2동으로 이전되자 신영순의원이 일시 있었다가 까지다방 건물이 들어섰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 도 움 말 이상표(李相杓 안양동 102 1924년생)

29 안양교터 (安養橋址) 〈석수1동〉

조선시대 만안교와 함께 안양에 있던 대표적인 다리이다 그러나 다리가 소재한 지점은 문헌마다 다른데 예컨대 『여지도서』에는 현(縣 지금의 서울시 금전구 시흥동)에서 남쪽 15리로 기술된 반면 『동국여지지』에는 16리에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시흥군읍지』에는 10리 지점으로 과전군과 경계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 고종조에 발간된 『과전군읍지』에는 '안양전석교(安養川石橋)'로 기술되어 있어 이 다리가 돌다리로 일명 안양천석교라 칭했던 것 같다 그러나 정조 때(1789) 발간된 『원행정례』에는 염불교란 교명이 있는데 안양교와 동일의 교명으로 생각되며 그 지점은 석수주공아파트 앞에 있는 석수교(石水橋)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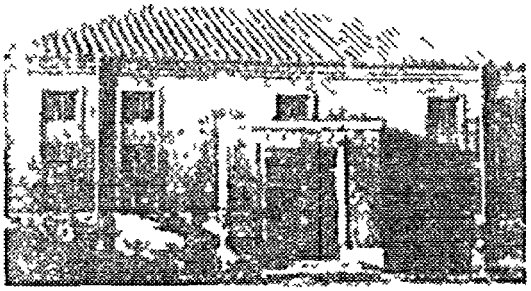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안양교는 안양전(현재는 삼성천으로 칭함)위에 있던 돌다리를 일명 안양천석교 또는 염불교로 칭했던 것 같다

• 참고문헌 『여지도서』 1759 『동국여지지』
정조 『원행정례』 1789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30 안양금융조합터 (安養金融組合址) 〈안양1동〉

일제강점기인 1924년 2월 5일에 설립된 당시 시흥군 서이면(현 안양시)의 유일한 금융기관이었다 당시 조합원은 481명에 불과했으나 13년 후인 1937년에는 3 095명

으로 6 4배에 달했고 출자금은 1만원에서 4만 1천원으로 4배 증가 차입금은 4만3천원에서 22만 3천원으로 5배 증가 예치금은 3만 4천원에서 12만 4천원으로 4배 증가 그 밖에 예입금은 6배 대출금은 7배 신장하였다 금융조합설치 8년 후인 1932년에는 시흥군의 서부지역인 수암 군자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안양금융조합 거모지소를 현재의 시흥시 거모동에 설치하였다 광복이 되자 동 조합의 명칭도 수차례 바뀌어 1961년 8월 15일에는 시흥군 농업협동조합으로 1981년 1월 1일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시흥군지부로 되었다가 다시 1989년 5월 16일 부터 농협중앙회 안양중앙지점로 개칭되었다 최초의 금융기관인 안양금융조합이 있었던 곳은 농협중앙회 안양시지부(안양1동 674-93) 앞(현재 만안로에 편입)으로 9 28수복 후 현재의 위치로 이전하였다


안양금융조합(1955)

- **참고문헌** 藤宅清次郎 『조선금융조합인물』 1937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동아일보」 1935 6 3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31 안양미륵당터 (安養彌勒堂址) 〈안양1동〉


안양미륵당터 주변인 옛 용화사 앞 사거리(1970년대)★

미륵은 인도의 파라나국(波羅奈國)의 바라문(婆羅文)의 집안에 태어나 석존의 화도(化道)를 받고 미래에 부처가 될 수기(受記)를 받은 후 도솔천 올라가 현재 그 곳에 있으면서 모든 중생을 권도(勸導)한다는 보살로 미륵보살을 자칭한다 미륵이 있었던 곳은 지금의 경부선 안양역과 은성다방 사이의 로타리로 광복 직전에 지금의 안양 본백화점 자리로 옮겼다 조선 숙종 때(1699) 과천현의 생원이었던 허오(許塢)가 저술한 『과천현신수읍지』 불우조에 '안양미륵재현서이십리안양평대로방불신고이대허유자(安養彌勒在縣西二十里安養坪大路傍佛身高二大

許有字)'라 하여 이곳이 틀림없는 것 같다 이곳의 미륵은 예전의 어느 미나리밭 할머니가 발견했다고 전해지는데 권상노의 『조선사찰사료』에 보면 안양역전에 안양암(安養庵)이란 암자가 있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이 미륵을 안양암에서 관리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위의 기록 중 안양(安養)은 지금의 안양(安養)을 뜻하는 것으로 옛 기록에는 문헌에 따라 안양(安陽) 또는 안양(安養)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리고 안양평(安養坪)은 지금의 안양역 일대를 지칭한다

● **참고문헌** 과천현 『과천현신수읍지』 1699
본말사주지회 『용주사본말사지』 19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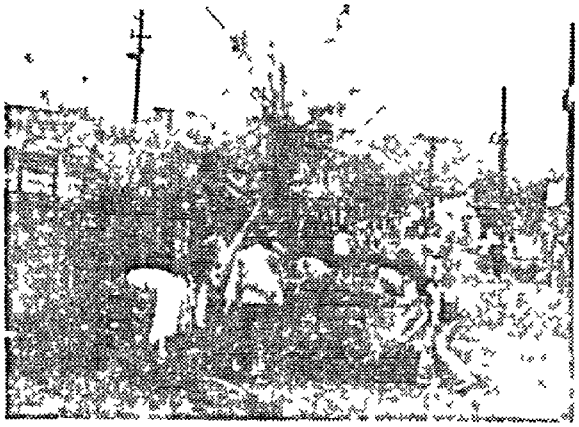
32 안양변전소터 (安養變電所址) 〈안양4동〉

안양지방에 전기 송전(送電)에 관한 논의가 처음으로 일기 시작한 것은 1929년 3월 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동년 3월 7일자 「동아일보」 4면에 '안양에 전등 불원간 가설(安養에 電燈 不遠間 架設)'이란 제하로 보도가 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흥군 서이면 안양은 시흥군에 있어서 중앙일 뿐 아니라 경부선 중 중요한 역의 소재지로 産物의 집산이 상당한 관계상 현재에도 그리 적지 아니한 도시인 만지 앞으로 상당한 발전을 보게 될 것은 無疑한 事이므로 同地 유지들은 그간 동지 발전을 위하여서 많은 활동을 하여 오던 중 금번 京城電氣會社에서 水原電氣를 매수한 후 금강산 水力電氣를 송전하고자 안양을 통과하게 됨을 기회로 면장 趙漢九씨 외 高瀨농장 金子 安商浩농장 松本 兩氏 등 유지 數氏가 얼마전부터 京電 당국자와 수차 교섭하였던 바 경전측에서는 안양이 앞으로도 상당히 발전될 희망은 있으나 안양시가 전부 及 부근 평야의 토지가 모두 高瀨 安商浩 양 資本閥의 소유에 속하였으므로 此 이상 더 발전될 가능성이 없은 즉 전등을 공급할 수 없다 거절함으로 前記 양 농장에서는 시가지는 물론이고 일등 도로변으로 부터 오지 300間씩을 들어가기까지 何人에게 든지 희망자에게 分賣 하겠다는 조건과 初同 電燈需用 500개 이상의 신청자를 책임질 것과 수원까지 송전키 위하여 전주를 세우는데 要하는 토지를 제공할 것 등의 조건을 제시하였던 바 此案에는 경전에서도 만족하게 생각하고 안양에 전등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후 工費 2만여원을 投하여 변전소를 안양에 설치할 터이라 함으로 전기 서이면에서는 즉시 전등 가설 희망자를 모집한 결과 벌써 신청 個數가 500여개에 달하였으므로 不遠에 暗黑하던 안양의 밤 사회도 전등의 밝은 빛에 빛나리라 더라(始興)

이리하여 일제 강점기에 안양의 대지주인 고뢰정태랑(일본인)과 안상호 등 안양의

안양변전소터는 삼덕제지 옆에 있었다(1970년대)★



유지노력으로 안양시장(현 안양1동의 시대동)을 중심으로 전기공사가 시작되었으며 이때 안양변전소도 삼덕제지와 안양역전우체국 사이에 설치되었다 11월조에 송전 계획은 이보다 20여일 늦은 11월 30일에야 드디어 안양에 전기가 들어왔는데 이러한 사실은 1929년 12월 9일자 「동아일보」 기사에서 밝혀졌다 즉 1929년 봄부터 안양 일대에 잇단 강도사건이 발생하여 안양일원을 공포 분위기를 자아냈는데 특히 이해 10월 15일에는 안양의 박준영(朴駿榮 현 안양상공회의소 朴丁鎭 회장의 조부)상점을 습격하려다가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시 11월 30일에 박준영 상점에 들어가 강탈하려다가 이날 안양 일대에 전기가 들어와 사방이 온통 환하게 밝으므로 미수에 그친 것이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9 3 7「동아일보」 1929 9 16
  「동아일보」 1929 12 9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33 안양사터 (安養寺址) 〈석수1동 산27〉

안양유원지 입구에서 계곡을 건너 동북쪽으로 약 250m 쯤 가면 현 안양사 뒷편에 큰 미륵불이 있다 이곳은 지금으로 부터 천백여년 전인 신라 효공왕 4년(900) 고려 태조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기 전 그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를 정벌하려고 지나다가 삼성산 꼭대기에서 구름이 5가지 빛으로 채색을 이루자 이사하게 여긴 나머지 사람을 시켜 가보게 하였더니 능정(能正)이란 늙은 중을 만났는데 태조와 능정의 뜻이 같아 이곳에 사찰을 세우니 이 사찰이 안양사(安養寺)이다

그 후 태조는 사찰 남쪽에 벽돌로 된 7층탑을 세웠는데 그 탑이 후대에 내려 오면서 바람에 깍이고 비에 씻기어 거의 무너지게 되자 이곳에서 유숙한 일이 있는 최영(崔瑩 1316~1388)장군이 우왕 7년(1381) 양광도 안염사(楊廣道 按廉使)에게 통첩을 보내어 군조를 털어서 탑의 중수비용에 충당케 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정들을 징집하여 중수 공사를 집행하게 하였다 안양 시명(市名)에 시원이 되는 안양사는 전술한 대로 신라 효공왕 4년(900)경에 창사된 후 고려 우왕 7년(1381) 최영에 의해 중

수되었다가 조선조 중기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폐사 연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현재 안양사지에는 귀부(龜趺 유형문화재 제93호)와 부도(浮屠)가 있다 귀부는 높이 1m 길이 3m 폭 1 28m 로 여러 개의 장대석으로 지대를 구축했는데 괴임대와 귀부가 일석으로 조성되어 있다 정상부의 비좌(碑座 167cm×58cm)가 있으며 단복엽(單覆葉)의 연화문(蓮花文)이 있고 귀갑문은 6각형에 용수는 사실적이며 꼬리는 옆으로 조각되어 있다 비신과 이수는 일제강점기 직후 벼루 숫돌 등을 만들기 위해 무지한 사람들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전해진다

부도는 본래 현 안양사 법당 앞 골짜기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 탑신과 기단중석(基壇中石)은 없어졌으며 하대(下臺)는 놀직한 2단으로 8각 원당형의 탑신이 지대위에 놓이고 상면에는 복연(覆蓮)을 장식하였는데 일석으로 상대를 뒤집어 놓았다 그런데 귀부 위에 있던 비에 대하여 『대동금석서(大東全石書)』에는 '안양사칠층탑명(安養寺七層塔銘)'이라 하여 일교(一校)의 탁본만이 실려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안양사 부도(1990년대)⊙

李元符는 교서를 받들어 宣書함

내가 성분을 좇은 이후로 種種 인연이 하여 이 모순되니 논의가 紛矣하여 학자로 하여금 할 수가 없었다 으로써 끝 맺음을 하다 화엄은 如實하고 또한 사 갖추었다 은 성은 고씨로 東川의 伊川 사람이다 아버지는 동족에 이르렀느데 처음에는 보잘 것이 없었으나 나중에는 盛大해졌다 깨닫고서 말하기를

李元符 奉 宣書
吾從成佛已來 種種因緣
矛盾 論議紛矣 使學者亡
以爲終 華嚴如實 亦具四
姓高氏 東川伊川人也 父
至東 始小終大覺而語之

위의 글은 고려 때의 명필가인 이원부가 인종(仁宗)의 분부를 받아 쓴 것으로


안양사 칠층탑명(1131)

『대동금석목(大東金石目)』에는 '安養碑 在衿川三聖山 安養寺七層塔銘 尙書金富軾文李元符書 南宋高宗紹興元年辛亥立麗仁宗九年也'라고 하여 이 비문을 지은 연대가 고려 인종 9년(1131)임을 밝히고 있으며 『동국여지승람』 금전현 불우 안양사조에 '재삼성산사지남유고려태조소건칠층(在三聖山寺之南有高麗大祖所建七層)'이라 하여 안양사칠층벽돌탑과 이 비명을 관련시키고 있으나 과연 이 귀부가 그에 해당되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다 또 안양사 칠층탑명이 안양사에 관한 비문은 틀림이 없지만 왕건이 안양사를 창건할 당시 세웠던 7층 벽돌탑을 위한 탑비는 아니고 그 당시 안양사의 고승인 속성 고씨를 위한 탑비일 가능성이 높다는 학설도 있다

극락세계에도 30여 개의 별칭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안양(安養)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일본 등 불교국가에서는 사찰명에 안양사(安養寺)란 명칭을 많이 취했다 권상노(權相老)가 지은 『한국사찰전서(下)』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현존 또는 폐사된 사찰중 '안양사'는 안양의 안양사를 비롯하여 13개 사찰이며 안양암(安養庵)이란 암자명은 모두 16개라고 기록되어 있다 안양사는 서울의 근교인데다가 전연적으로 절경을 이루어 수도승은 물론 위로는 임금에서부터 풍류객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태종 11년(1411) 9월 12일에는 태종이 중남 온양으로 목욕을 가려다 중신들이 정지하기를 청하자 안양 안양사에 거둥하여 목욕을 하였다 (『태종실록』 11년 9월 12일조) 안양사에 관한 제영(題詠)은 여러 수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중에 조선 성종 때 학자로 예학에 밝고 문장이 탁월했던 성현(成俔 1439~1504)의 작품이 유명하다

● **참고문헌** 이승인 『도은집』 1404 맹사성 『태종실록』 1413
서거정 『동문선』 1478 노사신 『동국여지승람』 1481
이우 『대동금석서』 1938 정명호 『고고미술』 1960-11
권상노 『한국사찰전서(下)』 1979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금석종람』 1988

34 안양산업사터 (安養産業社址) 〈안양3동〉

한국인에 의해 설립된 안양 최초의 회사로 알려지고 있다 자본금 10만원에 안양 사람 20명으로 발기된 안양산업사는 자본 부족과 경영 미숙 등으로 설립한 지 3년여 만에 도산되었는데 자세한 사항을 당시 신문기사를 통해 알아본다

産業社 組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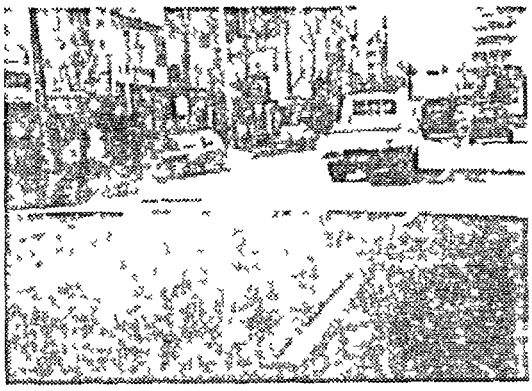
시흥군 서이면 업기승(業承)외 20여 명의 발기로 자본금 10만원의 안양산업사를 창립하고자 그동안 준비중이든 바 각 방면 유지로부터 출자 승락이 定數에 달하였으므로 不日간에 창립총회를 개최하리라는데 同 회사의 목적은 점점 궁핍하여 가는 조선 농촌에 가장 OO한 부업 즉 양잠 양계 양돈 수리개간 사업 등을 주로 하여서 순전한 농촌 구제기관이 되리라 함으로 일반 同社 O生에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더라 (시흥) - 「동아일보」 1928 12 1 -

이 회사는 현 안양3동 사무소 부근으로 추정할 뿐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1928 12 1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35 안양소방대터 (安養消防隊址) 〈안양1동〉

안양소방대터 왼쪽 전신주 부근(1996)



광복 직후 안양읍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근멸(根滅)하여 주민의 안도를 기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한국전쟁 직후 도시계획으로 훼철되었다 경기은행 안양지점 부근에 있던 안양소방대는 1950년 통계에 따르면 대원은 250명에 대표자는 조남찬(趙南瓚)이었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 **도 움 말** 이상표(李相杓 안양동 102 1924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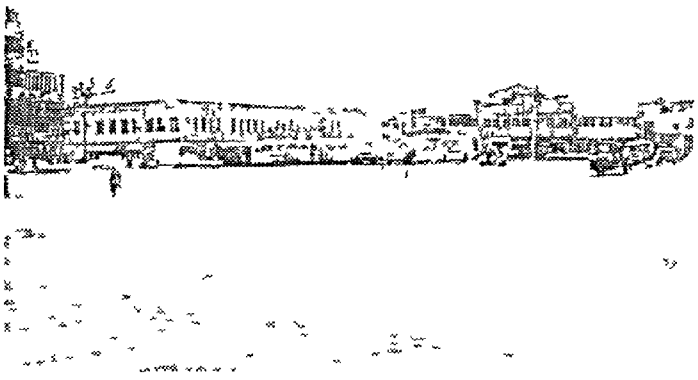
36 안양신사터 (安養神社址) 〈안양1동〉

안양신사는 처음에는 양명고등학교 옆 오미산(烏尾山)에 있었다가 그곳이 외진곳이라 하여 일제강점기 중엽에 안양의 번화가인 현재의 안양 본백화점(안양1동 668-33)자리로 이전되었다가 이 곳이 길지(吉地)가 못된다 하여 일제강점기 말엽에 외환은행 안양지점(안양1동 676-116)자리로 옮겼다가 광복이 되자 주민들에 의해 훼파되었다 신사(神社)는 일본 황실의 조상이나 신대(神代)의 신을 모신 사당으로 일제는 전국 각 고을에 신사를 짓고 우리 민족에게까지 강제로 참배를 하게 하였다

● **도움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37 안양연초조합터 (安養煙草組合址) 〈안양1동〉

안양연조조합터(1972 버스 옆 흰 2층 건물 부근이다)



서이면(西二面 일제 때 안양의 면명)일대에서 경작된 연초를 수매하고 관리하던 기관 안양9동 소재 담배존의 천주교 신자들에 의해 생산된 연초도 이 곳에서 관장했다고 한다 조합이 있던 자리는 안양역 앞 삼창정미소(구 대영장) 부근으로 알려지고 있다 오늘날에는 은행 신용금고 새마을금고 등의 금융기관이 현금을 강탈 당하는 사례가 있지만 일제 때만 해도 금융기관이 많지 않아 연조조합과 같이 현금을 많이 취급하는 곳은 일확천금을 노리는 강도들에 의해 수난이 잦았다 안양연초조합의 경우 1920년대에만 수 차례나 현금을 강탈 당해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가 막심했는데 일례로 1929년 12월에 발생한 안양연조조합의 현금강탈사건을 소개한다

始興을 風靡튼 强盜團逮捕

금월일일 밤 열 한시경에 자전거를 몰아타고 남면 산본리 모 부호의 집으로 향하다가 도중에서 아는 사람을 만나게 되어 후사를 염려하여 다시 돌아와 다음날 가기로 상의하고 李龍吉은 지난 이 일에 安養煙草組合을 엿보아 누가 담배값을 많이 찾어 가나를 탐지하여 전기 피해자인 韓壽福이가 현금 일백구십여원을 찾어가는 것을 알아 가지고 즉시 崔害仁에게 알리어 뒤를 밟아 집을 알고 돌아오게 한 후 어둡기를 기다려 가지고 세 사람은 각각 자전거를 타고 한수복의 집을 습격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 「동아일보」1929년 12월 9일자 -

안양연초조합은 1930년대 부터 조합원의 감소에 따라 생산량 또한 격감되자 1930년대 말경에 용인군으로 이전되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29 12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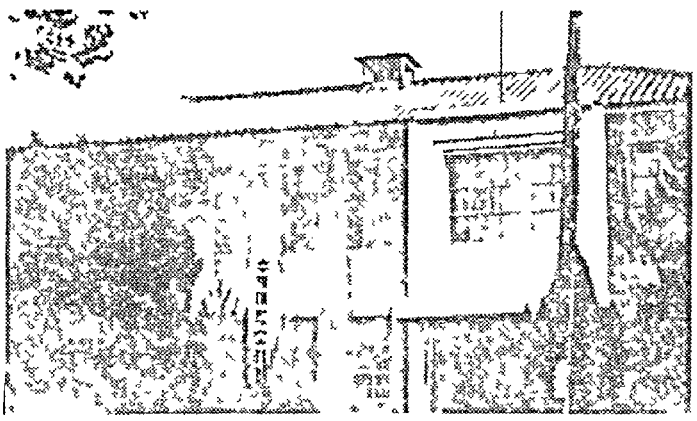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38 안양우체국터 (安養郵遞局址) 〈안양1동〉

안양역과 삼표연탄 사이에 안양 최초의 우체국인 안양우편소(후에 우체국으로 개칭)가 있었다가 일제강점기 말엽에 동화은행 안양지점 옆으로 이전했고 이어 광복직후에 삼원극장 옆(안양4동 782-5)으로 옮겼으며 다시 안양시 안양5동 613에 새 건물을 짓고 이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안양에 최초로 우체국이 생긴 것은 1911년 10월 1일로 저음에는 안양우편소로 칭하다가 1950년 1월 1일부터 안양우체국으로 개칭되었다

- **참고문헌**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군지』下 1988
- **도 움 말**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39 안양읍사무소터 (安養邑事務所址) 〈안양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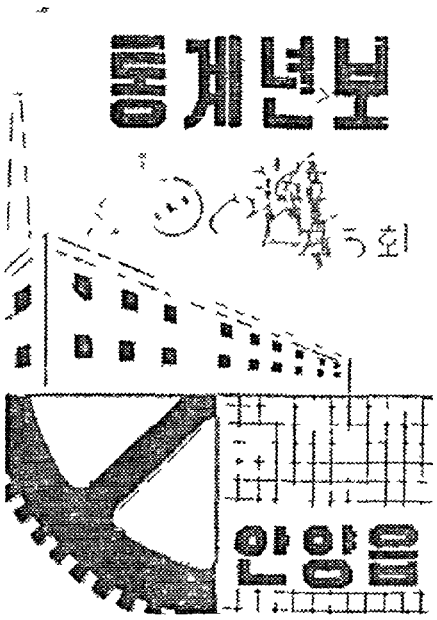
안양읍사무소(1970년대)★

안양읍은 안양시의 전신으로 일찌기 과천군의 상서면 하서면의 지역이었다가 1914년 부군면(府郡面) 통폐합 때 서이면으로 되었고 다시 1941년 안양면으로 개칭된 후 1949년 8월 15일 안양읍으로 승격되어 1973년 시제가 실시되기까지 실로 34년간 안양의 읍행정을 총괄하던 곳이다 읍사무소가 있었던 곳은 지금의 안양백화점 자리(안양1동 674-208)로 본래 조도발이었는데 1949년 읍으로 승격되자 콘크리트 2층 건물을 신축했다 읍으로 승격한지 1년만인 1950년 당시 시흥군에서 발행한 『금천지(衿川誌)』에 안양읍의 위치와 지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상술하였다

안양읍은 단기 4282년 8월 15일 대한민국수립 일주년기념일을 기하여 면으로서 읍으로 승격을 한 본군의 군청소재지다 동은 화성면계와 상접했고 서는 수암 서의 양면과 접했으며 남은 본군의 남면과 북은 격하여 서울특별시와 대치했다 국철 경부선 안양역에서 국도까지는 불과 사십분으로 도달한다 지세는 대체로 평원지대를 이루고 있어 토지도 비옥하고 청계산에서 발원한 안양천의 유역은 더욱 관개의 편이 좋아서 농업지대로서도 천혜적인 모든 조건이 구비되어 있거니와 지리적으로도 국도 서울로 통하는 경수가도와 경부선의 국철이 읍심장부를 통하고 있어 근대도시로서도 유리한 지위에 있다 특히 예로부터 수질이 좋기로 알려 오는

지라 읍료에도 이상적이거나와 대공업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읍내에서 만도 금성방직을 비롯한 제일 조선 등의 각 방직공장과 석면 금속 요공업의 각 공장 수 이십을 산함도 우연한 일이 아니다

행정면에 있어서도 군청 읍사무소 등이 있어 중심지이지만 10만군민의 차안은 물론 국도 대서울의 외곽수호의 대임을 맡고있는 경찰서의 소재지이기도 하다 기타 교육 금융 통신 교통의 중심이 되고 있음은 물론 종축장 임업시험장 가축연구소 등 국가적으로도 사명이 큰 기관이 있어 신흥도시로서의 면목이 요연한바 있다 또한 안양읍 일대는 지질이 원예에 특히 적합하여 각종 과수의 다량 생산지이어서 본군의 명산일 뿐더러 경기금강 등 창이 있는 관악산 탐승과 함께 널리 알려져 있다



안양읍 통계연보(1963 안양읍)

그러나 새 건물을 지은지 1년만인 1950년 6월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대부분 파괴되자 곧 개수공사를 실시하여 1952년 12월 15일 부터 새 정사에서 업무를 개시하였다

安養邑 廳舍落成

〔安養〕 그간 전란으로 인하여 파괴되었던 安養읍 정사는 그간 수축공사를 진행 중이던 지난 15일 브터 본 청사에서 시무중이라 한다 -「동아일보」1952 12 21-

이 후 1973년 7월 1일 법률 제2597호에 따라 안양시로 승격되자 1975년 6월 30일까지 2년간 임시 시청사로 사용되었다 다음표는 1949년 읍 승격이후 1973년 시로 승격전 까지의 안양읍의 인구현황 내용이다

연도별 안양읍 인구현황(1949~1973)

년 도	면 적 (㎢)	가 구 수 (세대)	총 인 구 (명)	남 자 (명)	여 자 (명)	인구밀도 (명)	가구당가족수 (명)
1949	39 07	3 791	20 026	9 835	10 191		
1957	39 07	4 070	22 181	10 523	11 658	507	5 4
1958	39 07	4 082	22 973	11 094	11 879	568	5 6
1959	39 07	4 759	26 493	12 448	14 045	589	5 6
1960	39 07	5 567	31 673	15 229	16 444	785	5 3
1961	39 07	5 529	30 311	14 264	16 047	778	5 5
1962	58 16	6 863	38 750	18 703	20 047	666	5 6
1963	58 16	7 308	40 813	19 841	20 972	702	5 6
1964	58 16	7 817	45 659	22 068	23 591	786	5 8

년 도	면 적 (㎢)	가구수 (세대)	총인구 (명)	남 자 (명)	여 자 (명)	인구밀도 (명)	가구당가족수 (명)
1965	58 16	8 099	50 697	24 332	26 365	872	6 3
1966	58 16	9 931	54 337	26 531	27 806	934	5 5
1967	58 16	10 589	59 871	28 939	30 632	1 029	5 7
1968	58 16	12 180	67 372	32 830	34 542	1 153	5 5
1969	58 16	14 045	76 277	37 173	39 104	1 312	5 4
1970	58 16	18 709	91 894	44 808	47 086	1 580	4 9
1971	58 16	20 494	101 749	49 482	52 267	1 750	5 0
1972	58 16	21 669	104 515	50 841	53 674	1 792	4 9
1973	58 16	22 433	111 075	53 238	57 837	1 910	5 0

* **자료** 『금전지』(1950) 『안양문화』(1984) 시흥군 『통계연보』 각연도

다음은 역대 안양읍장의 명단인데 제9대 부터 1973년 시제 실시전 까지의 명단은 확인 불능으로 수록하지 못하였다

역대 안양읍장 명단(1949~1963)

대 수	성 명	취임연월	이임연월일	재직기간	본 적	비 고
제1대	조한구	1949 8 13	1956 7 13	7년	안양읍 호계리 27	임명
제2대	원용안	1956 8 9	1959 8 7	3년	안양읍 안양리 911-3	민선
제3대	김양묵	1959 8 21	1960 11 16	1년2개월	황해도 장단군 용연면 태화리 690	임명
제4대	최명준	1960 12 26	1961 6 19	6개월	서울 중구 을지로 7가 147	민선
제5대	이종서	1961 6 30	1961 12 7	5개월	시흥군 의왕면 내손리 84	임명
제6대	정재갑	1961 12 7	1962 1 19	2개월	서울 중구 삼각동 61	임명
제7대	안병근	1962 2 11	1963 1 5	11개월	충북 중원군 금가면 사암리	임명
제8대	박길선	1963 1 7	?	?		임명

* **자료** 『제3회 안양읍 통계연보』(1963) * 제 9대부터는 자료미비로 기록지 못함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동아일보』 1952 12 21
안양읍 『안양읍 통계연보』 1963
시흥군 『시흥군 통계연보』 1962 ~ 1974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김형욱(全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40. 안양인쇄소터 (安養印刷所址) 〈안양1동〉

비산동 수푸루지 출신인 김동호(金東浩 작고 흥안농지개량조합장 역임)가 광복 후 설립한 인쇄소로 안양 최초의 인쇄소로 알려지고 있다 동화은행 북쪽 약 30m 지점에 있었다가 그 후 정미소를 거쳐 김홍규가 사법대서소를 개업했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천지』 1950
- **도 움 말**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41 안양직물공장터 (安養織物工場址) 〈안양6동 603〉

안양직물공장은 호계동 방죽말 출신 한흥이(韓興履 1897~1979)가 1945년 10월 30일에 설립한 공장으로 현 정기와 주유소와 주접지하도에 이르는 제 지역에 위치해 있었다 본견(本絹)과 인견(人絹)을 생산했던 안양직물은 1949년 현재 공장평수가 351평에 종업원은 36명(남자 9 여자 27)이었다 이 공장의 제품은 '쇠가죽'이라는 별명이 붙여졌을 만큼 질 위주로 튼튼하고 건실하게 만들어져 어떤 양제상인들은 이 회사제품에 외제상표를 붙여 판매하기까지 했다 설립자 한흥이는 공장내 종업원들의 학력 수준이 매우 낮아 한글을 깨우치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많음을 안타깝게 여겨 공장 내에 공민학교를 세워 공부시켰다



안양직물 설립자 한흥이
(1978 손자 한삼석의원 제공)

이 학교가 오늘날 부설로 설치된 직업학교의 효시로 보는 견해가 높다 설립자 한흥이는 아침에 일어나면 옷을 입기 전에 요 위에서 양생법(養生法)을 하고 가훈(家訓)을 외고 가벼운 옷을 입고는 국민체조를 하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했다 특히 가훈은 공장 기숙생들의 입을 통해서 점자 사내에까지 확산되어 어느 덧 사훈(社訓)으로 정착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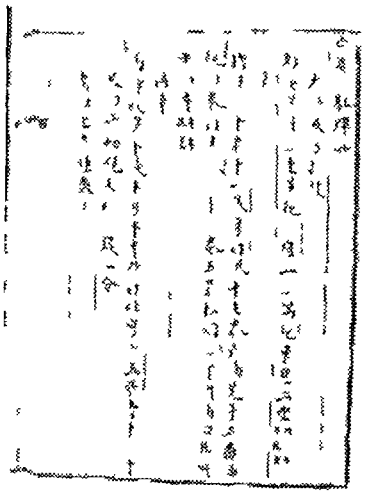
- 하면 된다 내 일은 내가 하자
- 우리 서로 아껴주며 부지런하며 진실하며 인내하자

이 공장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남하하는 인민군 보병부대가 잠시 쉬어가곤 해서 유엔군의 집중포화로 소실되자 1953년 소사(현 부천시)에 있는 금정공업(金井工業)을 인수한 후 안양직물공장의 기계부품들을 뜯어다 닦고 펴고 손질해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회사 직원도 안양직물에 종사했던 전 직원이 모여 '안양직물주식회사'로 등기 제품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 회사가 후일 부천공업전문대학과 소사공고의 모체가 되었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한흥이 『몽당 한항길선생 유고집』 1989
- **도 움 말** 이상표(李相杓 안양동 102 1924년생)

42 안양행궁터 (安養行宮址) 〈안양1동 674~67〉

안양행궁(안양주필소) 배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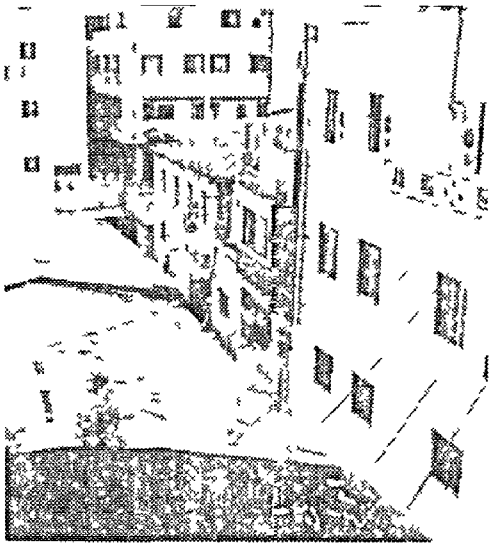


효도대왕이라 지칭되는 정조가 수원 화산에 있는 부왕의 묘인 현륭원을 전배키 위해 안양시 안양1동 674-67 유래정 뒷편에 행궁을 설치하였는데 이를 '안양행궁(安養行宮)'이라 칭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금전현 궁실조(宮室條)와 김정호의 『대동지지』 권4 시흥행궁조(始興行宮條)에 '행군 만안교의 남쪽 안양 언덕에 있다(行宮 在萬安橋之南安養原)'고 기재되어 있을 뿐 건립연도 규모 등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알 수가 없지만 정조가 현륭원의 능행로정을 과천에서 안양으로 바꾸기 위해 시흥과 과천 경계에 만안교(萬安橋)를 가설한 정조 19년(1795) 경으로 추정된다 정조는 시흥 - 안양을 잇는 금천로(衿川路 → 시흥로)를 1794년에 개설한 후 1780년 부터 1795년까지 49세를 일기로 죽을 때까지 해마다 금전로를 왕래하였는데 안양행궁에서 유숙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다 다만 정조의 능행에 관해 편찬된 『원행정례』에는 안양행궁에 대한 각종 배설(排說 의식에 쓰이는 여러가지 기구를 벌여 놓음을 지칭)과 포진(鋪陣 바닥에 깔아 놓는 돗자리나 방석류)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안양행궁은 정조 사후 행궁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후에는 민간인 소유로 되었다가 1986년 경에는 안병일(安炳日 1943년생)이 이 곳에 수어장(守御莊)이란 여관

안양행궁터인 옛 수어장여관(우측건물 1988)



을 신축하였다 주인 안씨에 따르면 여관을 짓기 위해 토지 소유자와 계약하기 하루 전날 꿈에 임금(정조?)이 상궁과 하인을 대동하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상한 꿈을 꾼 안씨는 후에 이 터가 옛날 정조가 어버이의 묘소를 참배하기 위하여 일시 머무르던 곳임을 확인하고 여관의 명칭을 임금님(御)이 주무시던(莊) 옛터(行宮)를 지키겠다는 뜻으로 '수어장(守御莊)'이라 명명했다고 한다

예전에는 이 곳을 큰 집이 있었다 하여 대궐터(大闕址)라 불렀고 그 집을 대궐(大闕)이라 칭했다 현재도 그 주변을 파면 행궁을 지을 때 사용되었던 장대석 지대석 등이 출토된다고 한다

- **참고문헌**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정조 『원행정례』 1789 김정호 『대동지지』 1864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43 영랑성터 (永郎城址 三城古山址) 〈석수1동〉

안양지방에 있었던 유일의 성터(城址)로 알려지고 있다 이 성의 성격이나 축조연대 등은 일체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지리적으로 서해연안에 있어 왜구나 홍건족 등 외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하여 축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동국여지승람』 금전현 고적조에 "영랑성 석축이며 삼성산에 있다 둘레가 3천7백50적이고 성안에 못(池) 하나가 있는데 대정(大井)이라 부른다"고 하여 이 성이 이미 중종 이전에 축조되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 후 영조 때(1759) 발간된 『여지도서』 금전현 성지조(城池條)에는 "삼성산에 옛 터가 있는데 언제 축조 되었는지 알 수가 없으나 "라고 기술된 점으로 보아 영조 이전에 이미 폐성(廢城)된 것은 확실한 것 같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이 성을 삼성산고성(三城山古城)이라고 했는데 삼성산(三聖山)의 오류로 생각된다 최남선이 지은 「경부철도가」 제8절에 "관악산의 개인경 우러러 보고 영랑성의 묵은 터 바라보면서 "라는 노랫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영랑성이 꽤 알려진 성지임이 분명한데 아직까지 그 터 조차 파악되지 못했음은 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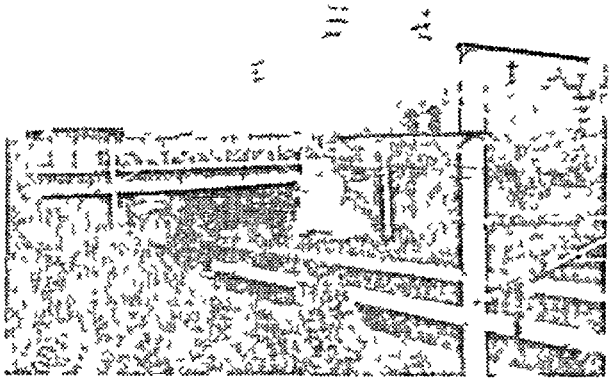
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 참고문헌 이행 『신증동국여지승람』 1530
『여지도서』 1759 시흥군 『시흥군읍지』 1899

44 원태우지사이등박문저격터 (元泰祐志士 伊藤博文 狙擊址)

〈석수1동 석수2동〉

관악전철역에서 서울방면으로 400여 미터 지점인 안양육교는 서울에서 안양으로 들어오는 관문으로 지금은 하루 200여회 이상을 전철이 오가고 서울과 안양을 통과하는 각종 자량들이 24시간 붐비는 교통의 요충지이지만 경부선 철도가 부설되기 이전에는 산림이 우거지고 산세가 험악해 삼남지방에서 올라오는 과객이나 보부상 등은 항상 수난을 당하는 가파른 고개길(서리재고개)이었는데 일본제국주의가 경부선을 부설하면서 고개를 낮추었지만 워낙 경사가 급해 열자가 서행하던 곳이었다 이 곳은 안양출신 원태우(元泰祐) 지사(志士)가 1905년 을사조약 후 수원 지방을 유람하고 열차를 타고 귀경하는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향해 돌을 던져 안양인의 기개를 한것 과시한 역사의 현장 이기도 하다


원태우지사 이등박문저격터(1992)

원지사는 1882년 3월 4일 과전현 하서면 안양리 642(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동)에서 아버지 태성(泰成)과 이호순(李好順)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문헌에 따라 元泰根 金泰根 全台根 등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호적상의 이름은 泰祐임)

원지사는 본래 농촌출신(석공이란 설도 있음)으로 깊은 학식은 없지만 경소 의기가 높고 바른일에 앞장을 서는 정신과 기백이 남달랐다 지사의 나이 23세 되던 1905년 11월 17일 마침내 을사조약이 조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듣고 동료 이만여(李萬汝) 남통봉(南通峰) 김장성(金長成)과 함께 거사할 것을 맹세하고 안양육교 아래 절도레일에 돌을 깔고 열자가 전복되기를 기다리던 중 이만려가 갑자기 두려움에 떨며 돌을 치웠다 곧 이어 이토가 탄 열차가 수원지방을 유람하고 서울로 올라가자 혼자의 몸으로 이토가 앉은 차창을 향해 돌을 던져 유리장이 박살나며 이토 얼굴에 상처를 입히는 거사를 단행했는데 당시의 상황을 「대한매일 신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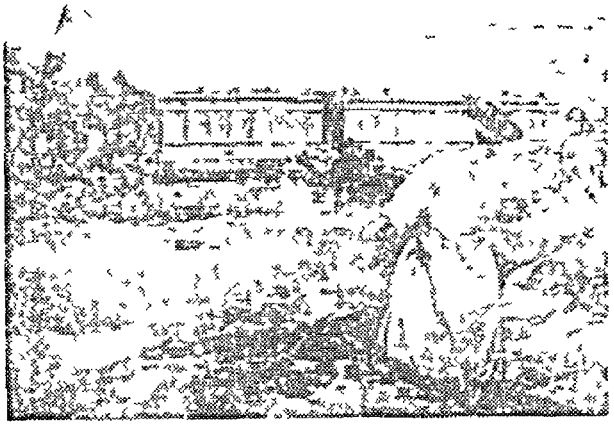
돌멩이가 어디서 날아왔느냐 하면 그저께 상오 9시 이토대사가 수원등지에 유람하기 위하여 기차를 탑좌하고 내려가는 도중에 안양역 근처에 잠시 정차하였는데 돌연 돌멩이가 날라 들어와 차창은 파손되고 이토의 몸과 얼굴을 스치고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그리하여 그날 하오 7시에 서울로 돌아왔다 - 1905 11 24 -

또 김윤식(金允植)의 『속음정사(續陰晴史)』 (권12) 12월 8일조에는

이토가 수원에 가는 길에 김태근(원태우)이로 브터 돌을 얻어맞고 상처를 입었다 김태근(원태우)은 일경에게 룹잡혔고 이토는 관용을 베풀어 태형 100대에 2개월을 감금하고 풀어주었다

라고 기술되어 있다 위 자료는 이토가 수원을 가다가 저격되는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이다 (자세한 사항은 뒤에 밝힘)

의거도(일인 기무라 고타로 그림



원지사의 거사에 대해 일본 오사카에서 발행하는 「대관매일신문(大阪每日新聞)」 동년11월 23일자에는 元泰根(원태우)이란 이름과 「안양시장 22통 1호」라는 주소로 첫 보도했고 「동경매일신문(東京每日新聞)」 11월 29일자에는 '이등박문 조난말(伊藤博文遭難末)'이란 제하의 기사로 거사상황을 보도했으며 서지학자 이종학(李鍾學)씨가 일본 고서점에서 입수한 「일 노전쟁(日 露戰爭畵報)」 (제29권) 동년12월 8일자에는 '어리석은 조선인의 폭행'이란 제하의 「의거도(義擧圖)」(기록화)가 실려있다 일인(日人)화가 기무라 고타로(木村光大郎)가 그린 것으로 명기된 이 그림은 갓을 쓰고 오른손을 번쩍들어 열차를 향해 흰 도포를 입은남자(원지사)가 열차를 향해 돌을 던지는 모습을 담고 있다 동서(同書)에 따르면 이토는 일본측 을사조약 담당자였던 하야시 곤스케(林權助) 공사를 대동하고 11월 22일 오전 9시 남대문역(현 서울역)에서 특별 열차를 타고 수원에서 하차 팔달산 등을 유람하고 수원에서 안양까지 사냥하며 안양에 도착 안양역 에서 오후 6시 15분 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다 지금에 안양육교에 이르렀을 때 원지사가 투석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오후 7시에 도착할 예정이던 열차가 1시간이나 지체해 8시에 도작했다

원지사의 거사는 곧 일본 전황에게 알려져 그날밤 시종장을 통해 전보를 띄어 이

토를 위문했고 동경 증권가에 주가가 폭락되는 등 일본 조야(朝野)에 큰 충격을 주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종황제가 위문겸 사죄의 서신을 보냈으며 사건의 책임을 물어 당시 시흥군수였던 김종국(金宗國)을 파면했고 경기관찰사 정주영(鄭周永)을 견책했다

원태우지사



한편 원지사는 거사직후 사이또 헌병대장이 수명의 헌병을 이끌고 현장에 내려와 철도공부(鐵道工夫) 다니노와 야마사키의 도움으로 동료 3명과 함께 체포되었는데 동료 3명은 무혐의로 곧 풀려났으나 원지사는 철도방해죄로 감금되어 태형 100대에 징역 2개월을 언도받고 이듬해 1월 24일 석방되었다 이처럼 태형 100대에 징역 2개월의 가벼운 처벌에 그친것은 당시 을사조약으로 비등하던 민족적인 울분이 자칫 대규모 저항운동으로 비화할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원지사의 거사에 대하여 학자이자 애국지사인 송상도(1871~1946)는 『기로수필』이란 저서에서 안중근(安重根)과 원태근(元泰根)의 둘중 과연 누가 더 위대한가'라고 자문하며 '성공한 걸로 보면 원태근(원태우)의 돌보다 안중근의 권총이 더 현명했다 그러나 이토가 안중근의 탄환에 죽었다 하더라도 그 꼬투리는 이미 원태근(원태우)으로 부터 있었다'고 표현했다

원지사는 감옥에서 석방된 후 왜경의 혹독한 고문으로 온 몸에 흉칙한 흉터때문에 한 여름에도 긴 옷을 입고 다녔을 뿐만아니라 성기까지 심한 고문을 당해 슬하에 자녀를 두지 못했다 더우기 거사후 가세가 기운데다가 왜경의 감시로 생활이 여의치 못해 원지사의 형인 영우(穎祐)의 삼남인 계복(季福 안양3동 774)가 10세 때 부터 양자로 입적해 뒷바라지를 했다고 한다 만년에는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서 살다가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69세를 일기로 운명했다



원태우지사 의거비 제막(1992)

원지사의 유품으로는 생존시 손수 만든 돌

절구 2개와 맷돌 한개가 있는데 그중 돌절구 1개는 1990년 3월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다 원지사의 사진 또한 1977년 7월 8일 대홍수로 유실되어 계복씨가 전문화가에게 의뢰해 영정을 제작했다 1989년에는 서지학자 이종학(李鍾學)씨가 일본 고서점에서 원지사의 「의거도(義擧圖)」를 입수하여 원지사의 거사가 세상에 자세히 알려졌고 이를 계기로 1990년 8월 15일에는 정부에 의해 건국훈장애족장(建國勳章愛族章)이 추서되었으며 의거 87년이 되는 1992년 11월 22일에는 원지사의 고향 후배들의 단체인 「새안양회」에 의해 고향 후배들의 배움의 요람인 안양시립도서관 광장에 「원태우지사의거비(元泰祐志士 義擧碑)」가 제막되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元泰祐志士 義擧碑文

元泰祐志士는 본관이 原川이며 고려말 大儒學者인 天錫의 후예로 父는 泰成이고 母는 李好順이다 1882년 3월 4일 安養市 安養洞 642번지에서 태어난 志士는 농촌출신으로 학식은 깊지 않았으나 평소 의기가 높고 바른 일에 앞장서는 精神과 氣魄이 남달랐다

志士의 나이 스물셋되던 해인 乙巳年(1905) 日本帝國主義가 우리의 주권을 침해하자 더이상 농업에만 전념할 수 없어 救國의 길로 나섰다 조용히 농사에만 몰두했던 농민이 民族魂의 부름을 받아 救國戰士의 험란한 길을 택한 것이다 근면한 농부의 근성과 피끓는 爲國精神만이 무기의 전부였던 志士는 우리 민족의 元兇인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水原 지방을 遊覽한 후 기차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던 중 지금의 安養市 萬安區 石水洞 所在 安養陸橋에 이르자 혼자의 몸으로 이토 히로부미가 앉은 車窓을 향해 돌을 던져 數週의 진료를 要하는 상처를 입혀 安養人의 氣槪를 萬方에 떨쳤다

이러한 志士의 擧事는 곧 국내에 큰 반향을 일으켜 乙巳條約 後 국민들이 痛哭과 敵愾心으로 방향감각을 잃다가 志士의 擧事로 희망과 용기를 주어 擧事 8일만인 11월 30일에는 侍從武官 閔泳煥선생이 殉國하였고 1909년에는 이토 히로부미가 安重根 義士에게 저격 사망함으로써 자주독립운동이 점차 전국민에게 확산 되었다

志士는 擧事 후 급거 출동한 일본 헌병에 체포되어 온갖 拷問을 당했고 석방 후에도 奸惡한 일제의 彈壓과 감시로 불우하게 살았으며 슬하에 자녀조차 두지 못한채 1950년 한국전쟁때 69세를 일기로 殞命하였다

오로지 겨레의 앞날을 걱정하고 愛國愛族을 위해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며 홀연히 일어선지 87주년을 맞아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워주신 志士의 그 崇高한 護國精神을 기리기 위해 志士의 故鄕 後輩들의 단체인 「새 安養會」이름으로 이 碑를 세운다

글 李 承 彦
글씨 全 星 熙
조각 李 在 王

1992년 11월 22일
새 安養會 세움

• 참고문헌 송상도『기로수필』1955 김윤식 『속음청사』⑫ 1921
정 교 『대한계년사』 1910 「대관매일경제신문」 1905 11 23
「대한매일신문」 1905 11 24 「동경매일신문」 1905 11 29
경기도지편찬위원회 『경기도지』(上) 1956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⑦ 1979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일간스포츠」 1990 3 1 3 3 3 5 8 16
「경인일보」1990 3 1 「수원신문」 1990 6 9
• 도 움 말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45 인덕원 주막터 (仁德院酒幕址) 〈관양2동〉

인덕원 사거리에서 서쪽(안양시내 방면)으로 약 50m 에 있었다 조선시대에는 충청 경상 전라 등 삼남지방에서 서울을 가자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요충지여서 왕래하는 행려자가 들끓어 주막이 성행하였다 광복 직전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에는 대장간 잡화상 주막집 등이 있었는데 1980년대에 이르러 주막집 등을 헐고 그 자리에 대아장여관(관양B 26-11)이 건립되었다

• 도움말 김기남(全基南 관양동 265 1930년생)

46 인덕원터 (仁德院址) 〈관양2동〉

원(院)은 고려 조선시대 지방에 출장나가는 관리들을 위하여 마련한 숙박소를 말한다 즉 공무(公務)로 여행하는 관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로(要路)나 인가가 드문 것에 원을 두었다 원을 유지하기 위하여 고려 공민왕 때는 원위전(院位田)

을 지급했으나 불비한 점이 많으므로 조선시대에는 초기부터 이 제도의 정비에 착수하여 세종 때(1445)에는 원 부근에 거주하는 사람 가운데에서 원주(院主)를 선발하여 관리하도록 하였다 『경국대전』에 의하면 원의 유지비로 원주에게는 대로(大路)이면 1結35負 중로이면 90부 소로이면 45부를 지급하였다 원은 조선 초기에는 크게 번성해 전국에 약 1 220개소의 원이 있었으나 점차 쇠퇴해져 대부분 임진왜란 이전에 폐치되었다 과전에 속했던 인덕원은 조선시대에는 서울과 삼남지방을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였다 그러므로 과전현 관내에는 인덕원을 비롯하여 노량원(露梁院) 미륵원(彌勒院) 오금원(五金院) 요광원(要光院) 등의 원(院)과 양재역(良才驛)이 설치되었다

이들 원중 인덕원은 언제 어는 곳에 설치되었으며 언제 폐치되었는지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원이 도로변에 위치했던 것으로 보아 인덕원이 있던 곳은 예전에 주막이 있었던 현재의 대아장여관(관양B 26-11) 주변으로 생각된다 또 폐치연도에 대해 『과전현신수읍지(1699)』 역원조(驛院條)에 '인덕원지재현남15리(仁德院址在縣南十五里)'란 기록으로 보아 인덕원도 여늬 원과 마찬가지로 조선 중기에 폐지된 것으로 보인다

● **참고문헌** 과전현 『과전현신수읍지』 1699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세계백과대사전』 ⑭ 1978

47 일동리강습소터 (一洞里講習所址) 〈관양1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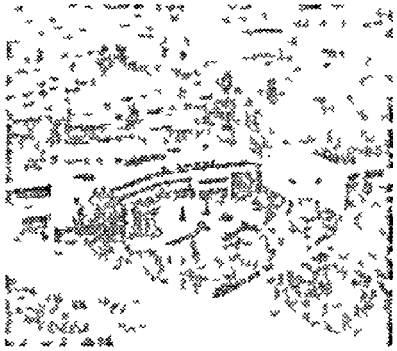
일제강점기인 1935년경 당시 일동리(현 관양동)유지인 조재근(趙載根 1903년생 관양1동 355)이 사재를 털어 현 이근식댁 옆(관양1동 366)에 세운 강습소로 초대교장은 이반석(李盤石)인데 1950년 한국전쟁 때 유탄을 맞아 사망했다 이 강습소는 설립 5년후인 1940년경 안양초등학교 일동리분교(一洞里分校)로 되었고 그 후 1948년 4월 1일 말무덤이에 설립된 관양초등학교의 모태가 되었다

● **도움말** 조재근(趙載根 관양동 355 1903년생)

48 임업시험장터 (林業試驗場址) 〈안양6동〉

임업시험장 터는 지금의 안양시청사를 비롯하여 그 인근의 안양상공회의소 안양문예회관 만수원주택단지 안양주유소에 이르는 제 지역으로 안양6동의 가장 핵심지

임업시험장터 주변(1980년대)★



이다 일제강점기만 해도 이 곳은 밤나무가 무성한 율원(栗園)으로 동아아파트 북쪽에 상여(喪輿)집만 한재 있었을 뿐 민가라고는 안양시정과 만안로 사이에 나가사끼라는 일인 가옥 뿐이었다 이곳에 임업시험장이 처음으로 설치된 것은 1938년이었다 「동아일보」 1938년 5월 29일자에 '安養植林苗圃 昨日開廳式 擧行'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기도에서는 장기 항전 제제하의 가장 필요한 산업의 일부분인 造林에 힘을 들여 작년도에 이어 植林苗圃를 安養에 설치 중이던 바 금번 설비 완료되었느데 그 총면적은 6만 182평의 대규모 묘포로 건물 113평을 합하여 경비 6만 6천3백원은 들이엇다 이 묘포 설지의 목적은 경기도 用材林 1만정보 확충계획에 따르는 조림용 묘목의 양성과 밤(栗) 25만석 증산계획에 따르는 밤나무 묘목 양성 농촌 林業의 시험 등을 위한 것으로서 28일 오후 2시 각 부장과 산하 총독부 林政課長 등 150명이 참석하여 開廳式을 거행하였다

그 후 안양식림묘포장은 1939년 6월 1일 경기도 고시 제 118호 따라 경기도 임업시험장(京畿道 林業試驗場)으로 개칭되었다가 1962년 4월 1일 농촌진흥법(農村振興法)에 의거 경기도 임업양묘장(京畿道 林業養苗場)으로 되었다 다시 1968년 7월 22일 경기도 조례 제334호에 따라 경기도임업시험장으로 바뀌었으나 설지된지 33년 만인 1971년 1월 13일 화성군 오산읍 수청리 332(현 오산시 수청동)으로 이전하였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 1938 5 29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49 제일방적안양공장터 (第一紡績安養工場址) 〈안양1동〉

시대동 진흥아파트 자리에 있었다 이 회사는 모직물을 생산하는 업제로 1946년 12월 7일에 창립되었다 1949년 현재 공장경수는 10 810평에 종업원은 남자가 60명 여자가 27명이다 1950년대 불이 나자 동양방직이 들어섰고 이어 태평방직 대농을 거쳐 대단위 아파트단지(진흥아파트)로 변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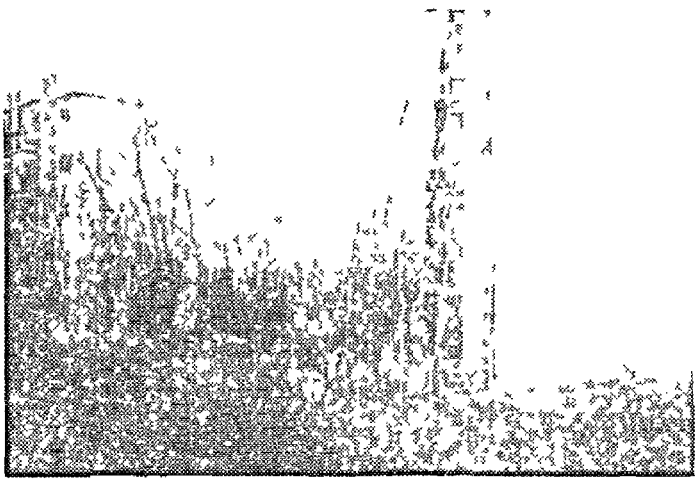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시흥군 『시흥군통계연보』 1962
  성곡전기간행위원회 『벌일없제』 1985

• **도 움 말** 이상포(李相抱 안양동 102 1924년생)

50 조선견직터 (朝鮮絹織址) 〈석수1동〉

시흥군 동면 안양리 191(현 안양시 석수1동 석수주공아파트 자리)에 있던 회사 본래의 공장은 1923년 서울 동대문 밖 숭인동에 공장을 설치하고 문직기(紋織機) 108대와 준비기(準備機) 등 일체를 설비하여 견직물 제조를 개시한 후 1939년에 불행하게도 화재로 인하여 공장이 모두 소실되어 휴면상태에 있다가 이해 10월에 동면 안양리 191에다 공장을 설립하고 견직기(絹織機) 100대 외에 준비기 일체를 완비하고 조업을 개시하였다

조선견직터(1996)



1949년 이 회사의 현황을 보면

- 사업종류 견직물 제조
- 特長 紋綾高級織物
- 월생산고 本絹物 → 1만마 人絹物 → 9만마
- 종업원수 210명(남자 40 여자 170)
- 임원 사장 閔奎植 전무 具然昶 상무 李靖宰 閔丙琦
- 본사 서울시 종로2가 82의 2
- 공장평수 1 026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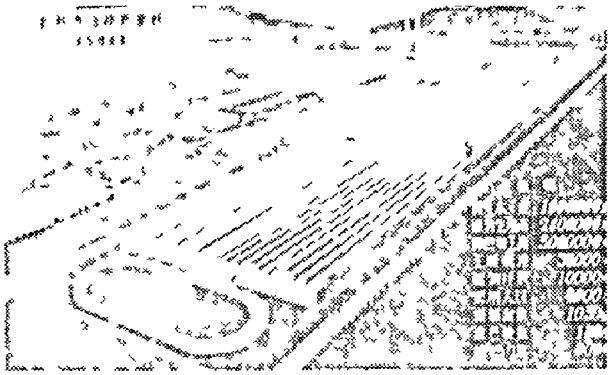
장차 종업원을 모집하여 3부제로 월 15만마를 생산할 계획이었으나 이듬 해 한국전쟁으로 모든 시설이 전소되자 미군부대가 주둔했다가 1978년 경에 석수주공아파트가 들어섰다

- **참고문헌** 시흥군 『금전지』 1950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 **도 움 말** 류효득(柳孝得 석수동 218 1910년생)

51 조선직물터 (朝鮮織物址) 〈안양3동〉

중앙로 안양 시외버스터미널(하행)서편에 이르는 지역 이곳이 지리적으로 서울의 근교인데다가 인접 지역에 안양역이 있어 수송에 편리할 뿐만 아니라 더우기 수원(水原)이 풍부해 일찍부터 공장부지로는 최적지로 평관이 높았던 곳이다 그런데 이

조선직물 조감도(1932 장배순 제공)



일대(안양2 3 4 5동)의 땅은 대부분 일본인 지주 고쵀정태랑(高瀨政大郎)의 소유여서 한국인의 공장 건설은 자본과 기술에 앞서 토지의 구입이 용이하지 못해 상당히 어려웠던 때였다 이때(1932) 지주 고쵀정태랑이 공장부지 1만여평을 희사하자 공익사(共益社) 중역이었던 고정(高井) 등의 발기로 자본금 백만원으로 조선직물주식회사를 창립하였다

(시흥)京釜線 安養驛前은 공장지대로 이름이 잇던 터인데 저간 공익사 전무 高井씨외 제씨들의 발기로 朝鮮織物株式會社를 백만원의 자금으로 창립하여 임시 사무소는 경성 황금정에 두고 안양에 대지주 高瀨政大郎씨로 브터 공장대지 만평까지 기부를 받았다 한다 그리하여 일대 공장을 기에 분하여 건립할 터인데 우선 제1기로 공장급 기숙사를 7전평에다 건립하리라는데 대관있는 大林組가 층공비 11만 8천원에 낙찰하여 일선에 나와서 방금 공사준비에 분망하다고 한다 -「동아일보」 1932 8 2 -

조선직물은 인조견(人造絹)을 생산하는 회사로 193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의 공장이 몇 안되는 데다가 경기 또한 호경기를 맞아 공장을 설립한 지 불과 2년이 경과한 1934년에는 각종 기계 시설을 증축하기 시작하였다

朝織安養工場 增設工事 完成

朝鮮織物 安養工場의 1千7百坪 增設은 竣工되어 기계据附는 來年 二 三月경이며 新据附의 織機는 二百五十대로 据附완성 후는 직기 총수가 430대 생산고 2백 35만원으로 될 예정이라고 한다 -「동아일보」 1934 12 15 -

그러나 설립된 지 4년 후인 1936년에는 큰 시련이 닥쳐왔다 회사가 호경기로 날로 발전하자 직공들이 급료인상과 상여금 지불 등 처우개선을 이유로 동맹파업을 한 것이다

安養驛 朝織染色工 七十名同盟罷業 賞與全 안준데서 不平爆發 特遇改善等件提出

(永登浦支局電話)시흥군 서이면 안양리 朝鮮織物株式會社 染色加工部 직공 70여명은 9일 아침 3개 요구조건을 제출하고 돌연 동맹파업을 하였다 요구조건은

一 금년 상반기 상여를 지불할 것

二 日給을 인상할것

三 諸般特過를 개선할 것 등이라 한다 이번 파업이 일어난 직접 원인인즉 종래에는 6개월 이상 근무 직공에게는 6개월의 상여금을 주어 왔는데 금년에는 이 상여금을 주지 아니하므로 8일 직공들이 加藤 工務主任을 통하여 회사에 상여금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을 당한데서 불평이 폭발된 것이라 한다 9일 밤에 다시 직공대표 全錫載 등 4명이 桐田 工場長과 회견하고 교섭중이나 쌍방태도가 서로 강경하여 사태가 악화할 우려가 있어서 영등포경찰서에서는 佐藤 고등계 주임이 계원 7 8명을 인솔하고 현장에 출동 경계중이다 -「동아일보」 1936 7 10 -

이렇 듯 조선직물 직공들이 완강한 저항에 700여 명이 동조할 뜻을 보이자 회사에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의식 직공들의 대우를 점차적으로 해결해 주기로 약속하고 파업을 시작한지 하루만에 정상화 되었다 회사와 직공들간에 원만한 대화로 일단 진정의 기미를 보인 조선직물은 점차로 호전되자 전국 각지에서 취업을 부탁하는 사례가 줄을 이었는데 그 중 1938년 봄에는 전북 사회과 알선으로 임실군의 남 여 17명이 취직 되었으며 이어 1939년에는 군산의 여공 30명이 조선직물에 취직이 되었다

그러나 각지에서 취업한 직공들이 회사측에서 취업 때 약속한 사항을 이행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작업환경에 대해 회사의 투자가 인색해져 직공들이 잦은 재해사고로 환자가 속출되자 일부 지역에서는 회사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취업알선을 꺼리는 사례까지 있었다 이 후에도 조선직물은 공장 일부가 불이 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안양경제에 큰 영향을 주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일제는 모든 산업을 임전체제로 재편성하고 한국을 군수산업기지로 활용하다가 점차로 전세가 불리해지자 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비교적 간편한 산업시설을 한국쪽에 소개시켰는데 특히 국민의류의 공급원이자 군수산업으로 큰 역할을 하는 면방직(綿紡織) 공업의 대규모 시설을 단행하였다

하지만 일본이 전쟁에서 패하자 미처 설치하지 못한 방직기계의 대부분이 야적된 채 우로(雨路)에 방치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설이 완료되어 가동중인 공장도 원료와 부품이 조달되지 못하였고 이어 전쟁이 날로 격화되자 직기 기타 시설을 수원 등지에 소개되었으며 그곳에 조선비행기회사가 경영하다가 광복이 되자 수원 등지에 흩어진 각종 시설을 운반하여 면방기술자인 이강현(李康賢)이 운반 설치하였으나 그

건물이 워낙 방대하므로 김성곤(金成坤)이 그 공장의 일부를 빌어 관리하다가 1950년 8월 7일 금성방직과 함께 B-29기의 맹폭격으로 모든 시설이 잿더미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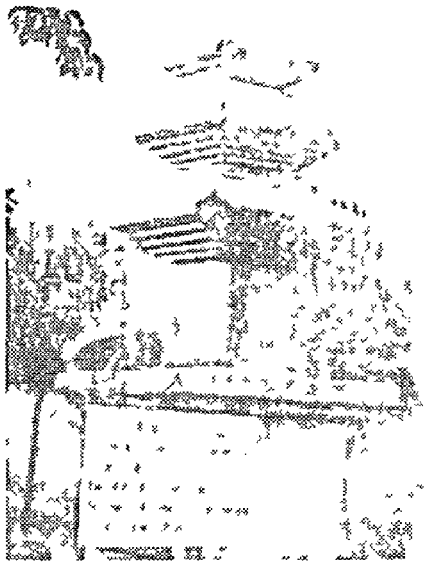
1932년에 설립된 조선직물은 1950년 8월 7일 실로 28년에 그 막을 고하고 만 것이다 참고로 1949년 현재 조선직물의 현황을 보면 공장평수가 5 853평에 종업원은 남자가 144명 여자가 154명으로 모두 289명이었다

- **참고문헌** 「동아일보」1932 8 2「동아일보」1934 12 15
「동아일보」1936 7 10「동아일보」1936 7 11
「동아일보」1938 9 17 「동아일보」1939 9 19
시흥군 『금전지』1950 한국일보 『재계회고』1981
성곡전기간행위원회 『별일없제』 1985
이승언 「안양의 유래」 안양문화 4-1985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52 중초사터 (中初寺址) 〈석수1동 212~1〉

지금의 유유산업주식회사(柳柳産業株式會社) 자리로 1950년대까지만 해도 이곳 일대가 조도밭이었으나 1959년 9월 유유산업이 건립되어 가람(伽藍)의 규모 등을 알 수가 없다 이곳을 중초사터(中初寺址)라고 지칭하는 이유는 서쪽 지주(支柱)의 외면(서측면)에 각자(刻字)한 주기(柱記)가 있어 이 명문(銘文)에 의한 것이다 이 당간지주는 중국 당나라 보력 2년에 재석해서 다음 정미년에 성립하였다는 명기가 있는데 정미년은 신라 흥덕왕 2년(827)에 해당된다 명문은 6행 해서체(楷書體) 음각으로 자경(字經)은 6 ~ 7cm 인데 내용중에 주통(川統) 황용사(皇龍寺) 혹은 제 법사(法師)의 법명(法名) 등이 있음을 볼 때 당대에는 꽤 알려진 사찰로 일컬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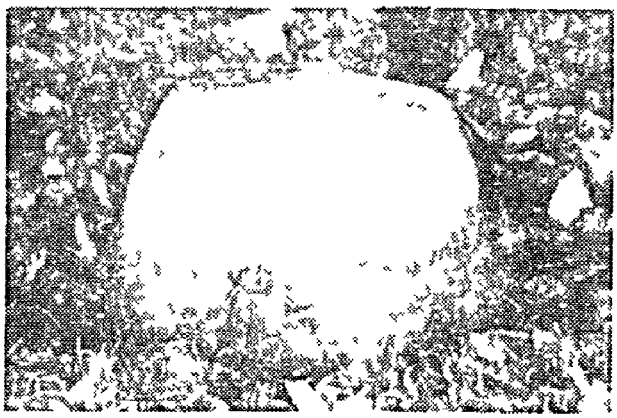

중초사터에 있는 삼층석탑(1972)

경내에는 당간지주(幢竿支柱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호로 지정됨)와 삼층석탑(三層石塔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5호로 지정되었으나 1996년 12월에 해제됨) 등 2개의 국가지정 문화재가 있다 삼층석탑은 당간지주보다 연대가 훨씬 후대로 내려와 고려중기 이후에 조성된 것으로 주정된다 이로 미루어 보면 중초사는 신라시대 장건되었다가 고려 중기 이후에 폐사되니 않았나 생

각된다

• **참고문헌** 「중조사당간석주명」 827 경기도 「경기문화재대관」 1989
안양문화원 「안양문화」① 1982
이승언 「안양시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2
시흥군지편찬위원회 『시흥금석종람』 1988

53 창강서원터 (滄江書院址 虎溪書院址) 〈호계2동 산43〉


창강서원터(1990년대)○

동양나이론 담을 끼고 돌아 뒷산으로 넘으면 양지바른 남향받이 넓은 터가 한시야에 들어온다 현재는 잡조만 무성하지만 이곳(호계2동 산43)이 안양 최초의 교육발상지인 장강서원터(滄江書院址)이다 이 서원 명칭에 대하여 문헌에 따라 장강서원 혹은 호계서원이라 기록되어 있는데 극히 일부의 문헌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장강서원으로 기술하고 있다 영조 때(1759) 발간된 『여지도서』 과전현 단묘조(壇廟條)에 '滄江書院 在縣西十五里虎溪里丙申建未 賜額獨庵趙宗敬滄江趙凍竝享'이라 하여 장강서원이 과천현 서쪽 15리 지점에 있음을 밝히고 장강은 숙종 42년(1716)에 했으나 현판을 내려받지 못하다가 전한(典翰)이었던 독암(獨庵) 조종경(趙宗敬)과 장령이렀던 창강(滄江) 조속을 함께 제사 지낸다고 하였다

촌로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창강서원은 약 210평 정도에 민가가 6호 있었으나 이곳이 관가와 거리가 멀고 또한 산속이라 도둑의 극성으로 모두 다른 곳으로 이전했다고 한다 당시 서원에는 원생(院生)들이 모여 국사를 논의하는 일이 잦았다고 하는데 조선말기에 대원군의 서원 철폐령에 의해 고종 7년(1870)봄에 훼철되었다고 한다 광무 3년(1899)에 발간된 『과전군읍지』 사묘조에 ' 庚午春因朝令毁撤'이라 하여 이상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현재도 당시 신주되었던 초석과 와편 등이 출토되고 있는데 안양유일의 서원이었던 이 서원을 옛 모습대로 복원할 수는 없을까?

• **참고문헌** 권대운 『현종실록』 1677 박윤원 「근재집」
고종조 『여지도서』 1759 과전군 『과전군읍지』 1899
『대동서법』 『풍양조씨세보』 1979
안양시 『내고장전통가꾸기』 1981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안양신문」 1989 8 21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54 청록서원터 (靑鹿書院址) 〈안양1동〉

안양은 물론 옛 시흥군지방 최조의 서점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금의 농협중앙회 안양중앙지점 길 건너편인 정하장여관 자리(안양시 안양1동 146-14)에 광명시 가학동 가골 출신 설웅규[薛雄奎 1923년생 광명시 가학동 512출신 은하수회 회원 설진아(전 시흥시 지적과장)의 부친]가 광복직후에 개점했다가 1950년 한국전쟁 때 폐점되었다 서점의 규모는 약 10평으로 단층 초가였다

● **도움말** 권장식(權秉植 비산2동 378 1925년생)

55 퇴로정터 (退老亭址) 〈비산3동〉

심수경 영정



조선조 선조 때(1590) 우의정을 지내고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삼도도제찰사(三道都體察使)가 되어 의병을 모집했던 심수경(沈守慶 1516~1599)이 관직에서 물러나 83세 때(선조 31년 1598)이 곳 비산동(정확한 위지는 알려지지 않으나 관악산 아래로 비산초등학교 인근으로 추정)에 정자를 짓고 우거(寓居)하며 시문(詩文) 등을 지으며 살다가 이듬 해(1599)윤 4월 24일에 향년 84세로 죽자 선조가 사제문(賜祭文) 견례관(遣禮官)을 보내 치사했다

심수경은 탄생 3일에 무풍자명삼일(無風自鳴三日)하고 운명 하루 전에 역시 무풍자명종일(無風自鳴終日)하니 세상사람들이 이르기를 관악산 정기를 받은 인물이라고 칭했다고 한다 퇴로정은 심수경이 이곳에 우거한 1589년 경에 지은 것으로 보이나 언제 훼과되었는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심수경 사후 100년(1699)에 저술된 『과천현신수읍지』 누정 조에 '퇴로정은 현의 서쪽 15리 지점 비산에 있었으며 옛날 좌의정이었던 심수경의 정자로 없어진지 오래되었고 터만 남아있다(退老亭在縣西十五里飛山洞故左議政聽天堂沈守慶亭子廢久有址)'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심수경 사후

곧 폐정(廢亭)된 것으로 생각된다

심수경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자는 희안(希安) 호는 청천당(聽天堂) 본관은 풍산(豊山)이다 일찌기 조욱(趙昱)에게 수학하여 학문이 해박하고 문장이 뛰어나 중종 38년(1543)에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어 명종1년(1546) 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검상(檢詳)을 거쳐 직제학(直提學)을 지냈다 명종 때(1555) 왜구가 호남지방을 침범하여 여러 고을과 진영이 함락되자 명종이 이준경(李浚慶)을 보내 토벌할 때 종사관으로 임명되어 이준경을 도운 공으로 승지(承旨)가 되었고 이어 도승지가 되었다 이때 임금이 무장(武場)에 친히 나와 문무관원들의 무예를 모두 시험할 때 말을 달리며 활을 쏘아 다섯발중 네발을 명중하자 임금이 금중(禁中)의 과목(頗牧)이라 칭찬하고 가선으로 승진시켰다 그 후 경기관찰사 대사헌 개성유수 우의정이 되고 기로소에 서 들어 갔으나 임진왜란이 발발해 삼도도제찰사가 되어 의병을 모집했고 이듬 해 영중추부사(領中樞府事)가 되어 치사했다

심수경은 이곳에서 우거하며 『견한잡록(遣閑雜錄)』을 지었다고 전해진다 시집으로 『청천당집(聽天堂集)』이 있는데 현재 서울대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다 묘는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개화산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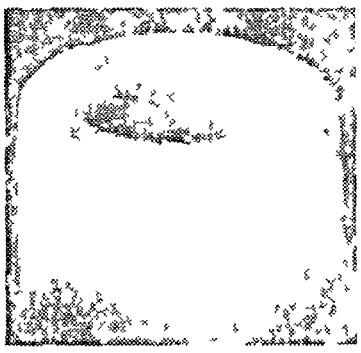
- **참고문헌** 과천현 『과천현신수읍지』 1699
  과천군 『과천군읍지』 1899
  심수경 『청천당집』 심수경 『견한잡록』 1980

56. 한증막터 〈석수1동〉

예전에 삼막사와 삼막골 중간지점에 한증막이 있었다 지금은 잡목만 우거져있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57 향교터 (鄕校址) 〈비산1동〉



향교터 석조물(1990년대)○

수푸루지 소재 평화보육원(平和保育院) 위에 과천군 산하의 향교가 있었는데 설립시기와 규모 명칭 폐치 연도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안양 유일의 향교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 **도움말** 심수섭(沈守燮 비산동567 1921년생)

58 호계방죽터 (虎溪防築址) 〈호계2동〉

조선조 중기 때 조성된 방죽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호계(虎界)방죽이라 했다가 호계리경자(虎溪里競字)로 다시 호계방죽(虎溪防築)으로 불리우다가 안양6지구 구획정리사업(1974~1979)으로 주택지로 변모되었다 이 방죽은 방죽말의 농업용수를 위해 설치된 것으로 풍양 조씨가 관리했다고 한다 방죽이 있었던 곳은 세광아파트 앞으로 반경 약 30m 규모였다

• **참고문헌** 과천현 『과천현신수읍지』 1699
과천군 『과천군읍지』 1899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대담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59 흥안초등학교터 (興安初等學校址) 〈신촌동〉

신말 서북쪽으로 평촌동과 호계동 경계지점에서 약간 신말쪽에 위치해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은 그들의 자녀를 위한 교육기관으로 안양시 안양3동 795(안양공고)에 아사이(旭)소학교를 세웠다가 광복으로 일본인들이 물러가자 1945년 9월 23일 흥안초등학교로 개교하여 일시 수업하다가 한국전쟁 직전에 이곳으로 옮겨 10여 년간 있다가 1958년경 현재의 위치인 안양시 평촌동 746로 이전하였다 당시 흥안초등학교에는 호계동 평촌동 및 의왕시 내손동의 어린이들이 교육을 받았다

• **도움말**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60 황사지터 (黃砂地址) 〈비산2동 호계2동〉

학의천(鶴儀川)과 수리산(修理山) 및 모락산(慕洛山)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부흥아파트 앞에서 합류되는데 이 곳을 일컬어 삼거리(三巨里)라 칭하며 또 이 곳 모래가 유난히 누렇다고 하여 황사(黃砂)라 부르고 그 주변일대를 '황사지(黃砂地)'라고 한다

예전에 황사지에 어느 부자가 전파연구소 뒷산 아래에 살았는데 식객(食客)이 끊이질 않아 어떻게 하면 식객이 오지를 않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끝에 하루는 시주하러 온 스님에게 물으니 대림아파트 앞 가재물고개에 있는 범바위쪽으로 길을 내면 된다고 일러주자 그 말을 들은 부자는 스님이 일러준 대로 길을 냈는데 그 후 부터 그 부자가 망했다고 전해진다 마을에서는 부자가 살았던 곳을 '황사지터(黃砂地址)'라고 부른다 현재 황사지터에서는 현대주택 진성아파트 등이 들어섰다

- **참고문헌** 이승언 「안양시 지명유래」 안양문화 5-1986
- **도 움 말**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맺 음 말

관악산과 삼성산 및 수리산에 둘러 쌓인 안양은 일찌기 과천의 영역으로 왕건(王建)이 고려를 건국하기 이전에 신라 효공왕 4년(900)에 금주 (衿川 시흥) 과주(果川 과천)등을 정벌하기 위하여 옛 금전현의 진산인 삼성산에 이르러 노승 능정(能正)을 만나 그 자리에 안양사(安養寺)를 창건하니 이것이 안양 지명(市名)의 시원이 된다

그후 정조(正祖)에 의해 안양천(安養川 현 삼성천)에 만안교(萬安橋) 가설로 인해 정조의 거둥길이 안양을 경유하게 되고 이어 1904년 경부선 부설로 안양역이 생기자 교통의 요충지로 발달되기 시작하다가 1920년대 부터 안양 최초의 회사인 안양 산업사(安養産業社)를 필두로 조선직물(朝鮮織物) 조선견직(朝鮮絹織) 등 유수의 공장이 들어서면서 산업도시로 변모되기 시작했고 1932년에는 안양천 위에 석수동 수영장(현 안양유원지)를 설치하여 안양이 위락도시로 탈바꿈 되기 시작했으며 1933년과 1934년에는 「동아일보」와 『신가정』(현 여성동아)에서 전국 밤줍기 대회를 개최하여 안양 특산물 밤이 널리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안양의 특산물은 누가 뭐라해도 단연 포도일 것이다 일제때 일본인 오끼(冲井)가 안양2동 일대에 대규모로 포도 재배를 시작하면서 안양 포도는 점자 타 지방의 포도를 압도 인기를 얻자 인근의 농지는 대부분 포도밭으로 변모해 1963년에는 23만5천5백여평에 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밤이나 포도등 안양을 대표하는 특산물들도 산업화로 이제는 먼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다

광복후에는 영등포에 있던 시흥군 청사가 안양으로 이전되고 공장 또한 호경기를 맞게되자 인구의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여 1973년에는 시로 승격 되었고 1988년에는 경촌 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되는 등 안양은 하루가 다르게 급속하게 변모되어가고 있다 이렇듯 상전(桑田)이 벽해(碧海)된 안양의 마을 산 하천 등의 바뀐 모습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다는 것은 말과 같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지명에 관한 자료가 대부분 그 지방에 출생 또는 거주한 인사로 부터 수집이 되어야 하는데 증언을 해 줄만한 인사들은 대부분 타계했거나 신도시 개발 등으로 타지로 떠난 분들이 많았다 또 생존한 인사라도 옛 지명을 떠 올리며 그 지명에 얽힌 제 사실들을 그대로 증언하는 일 또한 쉽지가 않았다 그나마 필자가 1970년대 이후 부터 향토의 원로들을 일일이 찾아 뵙고 메모를 해둔 데다가 관계되는 자료들을 쉬임없이 모았기 때문

에 안양의 지명을 정리하여 책으로 엮는데 큰 무리가 없었다

이렇게 모아진 자료들은 1차로 1985년에 안양문화원이 발행하는 『안양문화』5호에 「안양시 지명유래」란 제하로 발표하였고 이어 1987년 경기도가 편찬한 『경기도지명유래집』에 발표한데 이어 1992년 안양시에서 발행한 『안양시지』에 3차 발표를 하였다 3차에 걸쳐 발표된 내용들은 안양시를 비롯하여 각 동사무소 신문 잡지 학교 등 각 처에서 발행되는 문서나 책 또는 언론 매체 등에 그대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이들 관청 언론기관 교육기관의 담당자 일부는 필자의 동의는 커녕 출전조차 명기하지 않아 그 양심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무단 전재하는 행위가 진정 올바른 지성인의 자세인지 묻고 싶다

이번에 새 안양회 원종면 회장으로 부터 발간 제의를 받고 주저하지 않고 승락하였다 그 이유는 3차에 걸쳐 지명조사를 하여 발표 하였지만 그 뒤 평촌 신 도시 개발로 동안구 일대의 지명에 대해 지각 변동이 있었고 그 동안 발표된 내용에 대해 일부 보안의 필요성이 제기된데다가 더우기 새 안양회의 인적구성이 안양의 뿌리에 그 기저를 두었기 때문에 올바른 지명을 정리하여 후세에 전하려는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러나 본서가 필자의 혼자 힘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바쁜 시간에도 일일이 기억을 되살리며 꼼꼼하게 자문에 응해주신 향토원로들과 자료요구에 헌신적으로 협조하여 준 안양 시정을 비롯하여 각 구청 동사무소 각 전철역 및 안양 곳곳을 찾아 현장의 모습을 일일이 촬영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세심하게 편집을 맡아주신 편집 위원 여러분들에게 그 발간의 공을 돌린다 끝으로 발간에 협조하여주신 기관 및 도움을 주신 분들의 면면을 일일이 밝혀 둔다

◇ 자료협조처

안양시정 만안구청 동안구청 문화공보 담당관실 시민과 건설과 사회 진흥과 녹지 공원과 안양시 향토 사료실 안양1동사무소 안양3동사무소 안양9동사무소 석수1동사무소 석수2동사무소 석수3동사무소 박달2동사무소 비산1동사무소 관양1동사무소 호계1동사무소 호계2동사무소 부흥동사무소 범계동사무소 부림동사무소 달안동사무소 신촌동사무소 평안동사무소 귀인동사무소 갈산동사무소 안양역 관악역 명학역 석수역 인덕원역 평촌역 범계역

◇ 도움말 주신분

□ **안양동** 장배근(張培根 안양동 674-97 1909년생) 김수전(金壽千 안양동 1254 1913년생) 김형욱(金炯旭 안양동 946 1914년생) 이수병(李壽柄 안양동 961 1915년생) 전순원(田順元 안양동 947 1915년생) 서완석(徐琓錫 안양동 398-34 1920년생) 김대목(金大穆 안양동 산5 1920년생) 박중규(朴重圭 안양동 1094-3 1920년생) 김병석(金柄錫 안양동 402 1921년생) 장배순(張培淳 안양동 636 1921년생) 이상표(李相杓 안양동 102 1924년생) 범천(梵天)스님(안양동 산82 1924년생) 조정희(趙正彙 안양동 689-18 1925년생) 이봉훈(李奉薰 안양동 622-367 1927년생) 조종성(趙鍾聲 안양동 1014-3 1927년생) 이도운(李道雲 안양동 1152 1928년생) 정춘용(鄭春鎔 안양동 722 1929년생) 성지화(性智華 안양동 산5 1929년생) 심월암(心月岩 안양동 산103-131 1931년생) 이진호(李鎭昊 안양동 391-29 1932년생) 원종만(元鍾萬 안양동 138-32 1932년생) 청암스님(안양동 342-70 1932년생) 변원신(邊源信 안양동 947 1933년생) 해송(海松)스님(안양동 40-31 1933년생) 이팔만(李八萬 안양동 18-65 1933년생) 자기형(車基衡 안양동 1102-2 1934년) 한윤호(안양동 949 1934년생) 이효권(李孝權 안양동 589-13 1935년생) 박병권(朴炳權 안양동 1088-4 1935년생) 이지환(李知幻 안양동 618-138 1936년생) 서보경(徐寶鏡 안양동 산19 1937년생) 박유선(朴有善 안양동 342-28 1938년생) 윤덕기(尹德基 안양동 342-68 1938년생) 이구선(李九善 안양동 55-17 1939년생) 김성락(金成洛 안양동 394-84 1940년생) 정수현(鄭修賢 안양동 622-234 1940년생) 최돈세(崔暾世 안양동 402-13 1941년생) 조문성(趙文成 안양동 973-35 1943년생) 이병택(李丙澤 안양동 961 1944년생) 이석범(李錫範 안양동 375 1945년생) 한영복(韓榮福 안양동470-1 1946년생) 정정수(鄭貞秀 안양동 563 1946년생) 원종면(元鍾冕 안양동 213 1946년생) 김영학(金榮學 안양동 757 1946년생) 성혜(聖惠)스님(안양동 1088-33 1952년생) 고우영(高雨領 안양동 115 1954년생) 유정규(劉貞奎 안양동 949-1 1958년생)

□ **석수동** 류효득(柳孝得 석수동 218 1910년생) 최언년(崔言年 석수동 263 1910년생) 권상렬(權相烈 석수동 관악 A-1동 22-2 1917년생) 고정인(高正印 석수동 산241-40 1917) 김필운(金弼雲 석수동 관악자조연립 7-102 1920년생) 박해송(朴海松 석수동 산41 1921년생) 이성래(李星來 석수동 653 1921년생) 박

영봉(朴永峯 석수동 240-10 1921년생) 성시만(成始萬 석수동 산159 1923년생) 임진환(林振煥 석수동 268-24 1924년생) 박기수(朴己洙 석수동 320 1929년생) 류우석(柳雨錫 석수동 218 1934년생) 김동환(金東煥 석수동 152 1934년생) 하한용(河漢容 석수동 134 1934년생) 장세준(張世俊 석수동 435 1934년생) 김정호(金井浩 석수동 67 1935년생) 정덕홍(鄭德興석수동 산4 1938년생) 이재형(李載亨 석수동 101-62 1942년생) 정해운(鄭海雲 석수동 산54-1 1943년생) 하부랑(河富郎 석수동 76 1944년생) 최성원(崔性源 석수동 산4 1950년생) 성문(性門)스님(석수동 산17 1953년생) 진석(眞石)스님(석수동 산10-1 1955년생) 안익성(安益成 석수동 산11 1957년생)

□ **박달동** 임성규(林成圭 박달동 774 1913년생) 정갑수(鄭甲秀 박달동 우성아파트 103-603 1924년생) 권형(權瀅 박달동 100 1925년생) 이계순(李季淳 박달동 765 1927년생) 임종대(林鍾大 박달동 774 1930년생) 왕용호(王龍鎬 박달동 산83 1935년생)

□ **비산동** 심완섭(沈琓燮 비산동 528 1915년생) 하도심(河道心 비산동 292-1 1918년생) 이봉래(李鳳來 비산동 6 1919년생) 정지봉(鄭治峰 비산동 184 1919년생) 권용식(權容植 비산동 378 1919년생) 심수섭(沈壽燮 비산동 567 1921년생) 이기민(李基敏 비산동 산186 1925년생) 권창식(權昌植 비산동 378 1925년생) 유재창(劉在昌 비산동 421-33 1932년생) 차덕현(車德賢 비산동 289 1934년생) 김철우(金哲右 비산동 306-12 1934년생) 류경(柳暻 비산동 147 1935년생) 이희덕(李喜德 비산동 35 1936년생) 송학(松鶴 스님(비산동 산183-3 1937년생) 김행웅(金幸雄 비산동 491 1942년생) 장순성(張淳星 비산동 126 1943년생) 심정섭(沈政燮 비산동 521-8 1944년생) 남창우(南彰祐 비산동 531-88 1946년생) 김지호(金志浩 비산동 494 1946년생) 홍대봉(洪大奉 비산동 산1 1949년생)

□ **관양동** 조재근(趙載根 관양동 355 1903년생) 조인행(趙仁行 관양동 현대아파트 2-408 1913년생) 류정희(柳廷熙 관양동 426 1914년생) 오병식(吳炳植 관양동 488-1 1914년생) 김득준(全得春 관양동 703-13 1914년생) 문응증(文應增

관양동118-1 1920년생) 조영호(趙榮鎬 관양동 355 1923년생) 이관구(李寬九 관양동 46-1 1924년생) 김봉묵(金鳳默 관양동 329 1926년생) 김종성(全鍾聲 관양동 1406-15 1927 년생) 유화성(兪和成 관양동 1397-12 1927년생) 김기남(全基男 관양동 265 1930년생) 장창준(張昌俊 관양동 1307-84 1935년생) 이용래(李龍來 관양동 1415-7 1935년생) 노인수(盧仁壽 관양동 355-1 1939년생) 김재선(金在善 관양동 685 1941년생 김기종(金基鍾 관양동 619-3 1945년생)

□ **평촌동** 음상규(陰相圭 평촌동 62-2 1927년생) 안현선(安賢善 평촌동 809 1928년생) 조돈하(趙敦夏 평촌동 615 1936년생)

□**호계동** 이한용(李漢容 호계동 1000 1919년생) 노일선(盧一先 호계동 959-9 1922년생) 정규절(丁奎敞 호계동 314 1924년생) 이학증(李學增 호계동 924-2 1924년생) 김순흥(金順興 호계동 702-3 1925년생) 이강태(李康台 호계동 1000-36 1927년생) 오광렬(吳廣列 호계동 998-55 1930년생) 허광산(許光山 호계동 707-3 1939년생) 이상덕(李祥德 호계동 산61 1939년생)

□ **기타지역** 김지용(全智容 시흥시 조남동 70 1916년생) 류지창(柳志昌 시흥시 목감동 324 1916년생) 김지헌(金址憲 시흥시 목감동 92 1916년생) 이태만(李泰萬 안산시 수암동 130-14 1918년생) 이용진(李龍鎭 과천시 갈현동 35 1917년생) 박용익(朴用翊 의왕시 고천동 156 1920년생) 김관겸(金寬謙 군포시 산본동 129 1930년생) 염재혁(廉載赫 시흥시 목감동 8-4 1931년생) 김건영(金健寧 시흥시 목감동 92 1932년생)

◇ **사진제공**

최창선(崔昌善 석우회) 이응식(李應植 전우회) 이석범(李錫範 전우회) 이용기(李容基 전우회)

◇ **사진촬영**

최창선(崔昌善 석우회) 문수길(文秀吉 합심회) 유정규 (劉貞奎 금천회)

◇ **문서정리**

이명희 (李明姬 새안양회 간사)

◇ **자료 협조**

강인용 (동안구청장) 김정대 (전 안양문화원장) 유준식 (만안구 총무과장) 남기성 (동안구 총무과장) 송이섭 (상수도 사업소 업무과장) 오동록 (청소사업소장) 유영창 (부림동장) 박경수 (귀인동장) 김근찬 (석수2동장) 김종수(시향토사료실 상임위원) 김경화 (산업경제과 노정계장) 김지석 (문화공보담당관실) 배준석(예총안양시지부 사무국장)

◆ **『안양시 지명 유래집』 편집 위원회**

위원장 문수길 (새안양회 상임부회장 합심회)

위 원 김재붕 (새안양회 합심회)

위 원 박원용 (새안양회 외무부회장 송우회)

위 원 고우영 (새안양회 기획이사 안우회)

위 원 유정규 (새안양회 홍보이사 금전회)

새안양회 선언문

관악산 이끼낀 바위 밑을 흐르는 적은 실개천이 모이고 합하여 대해를 향하는 장강을 이루듯이 한알의 적은 모래 알이 수리산의 준령을 이루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내고장 안양을 아끼고 가꾸려는 저마다의 적은 뜻이 알알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새안양회"의 기치밑에 모여 뜻깊은 첫발을 이에 내딛는다 상전이 변하여 벽해가 되는 것이 자연의 섭리인 것처럼 밤나무 우거졌던 금천내 마을이 인구십만을 헤아리는 대도시로 변모한 오늘 어데서 우리는 옛처럼 아름답던 선후배간의 의리와 동료간의 우정은 찾을 것이며 어데서 우리는 내고장을 아끼고 가꾸려는 갸륵한 마음을 찾을 것이며 어데서 우리는 공의과 사회정의를 구현하려는 깨끗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세를 찾을 것인가

이에 우리는 먼저 선후배간의 건전한 의리관을 확립하고 동료친우간의 변함없는 두터운 우애를 다짐코져 한다

우리는 안양의 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대와 외세 의존의 태도를 배격하고 온건한 주체의식을 함양하므로서 여하한 불의와 부정과도 타협치 않을 것이며 우리는 협동하는 마음과 대동단결된 힘으로 내고장의 무궁한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여기 모인 뜻이다

존경하는 선배님들이여

우리의 이 뜻과 충정을 살피시어 아낌없는 격려와 편달을 바라오며 이 뜻에 찬동하는 동지들이여 소아를 버리고 대아를 살려 아집과 독선의 자세에서 벗어나, 모두 함께 뭉쳐 나아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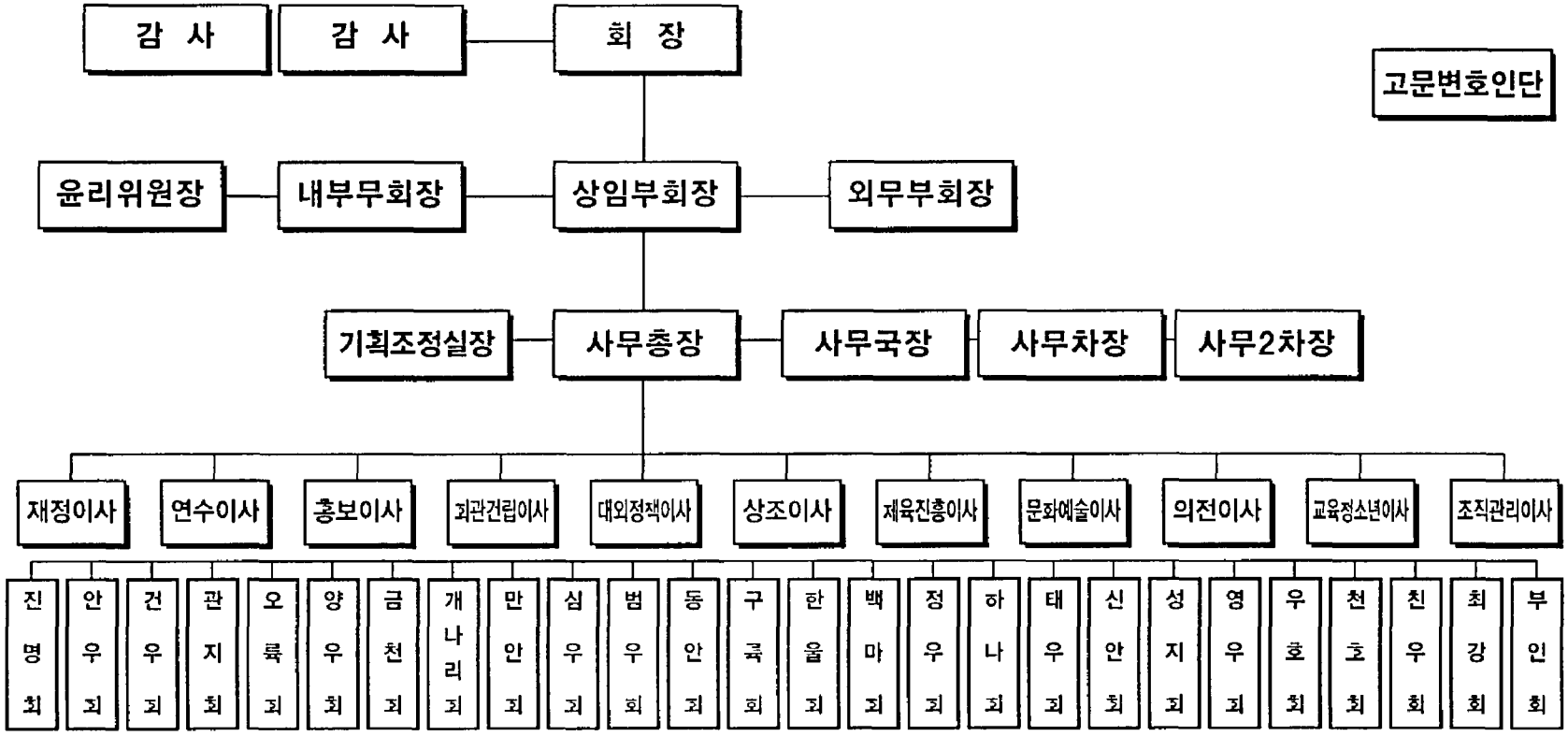
그리고 사랑하는 후배들이여

우리의 모임이 앞으로 나아감과 거두는 성과를 주시하고 또한 심판하시라 오늘 이 자리에서 오직 참신한 기풍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반영하며 우리의 후배와 자손들이 보다 더 밝고 희망에 찬 삶을 영위할 새로운 안양을 건설하는 기수의 역할을 담당하는데 우리의 참뜻이 있음을 엄숙히 선언한다

1970년 12월 19일

새안양회 회원 일동

새안양회 기구표


감 사
감 사
회 장
고문변호인단
윤리위원장
내부무회장
상임부회장
외무부회장
기획조정실장
사무총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사무2차장
재정이사
연수이사
홍보이사
외관건립이사
대외정책이사
상조이사
체육진흥이사
문화예술이사
의전이사
교육청소년이사
조직관리이사
진명회
안우회
건우회
관지회
오륙회
양우회
금천회
개나리회
만안회
심우회
범우회
동안회
구곡회
한울회
백마회
정우회
하나회
태우회
신안회
성지회
영우회
우호회
천초회
친우회
최강회
부인회

새안양회 활동상황

안양 지키는 파워엘리트

청·장년 동아리 새안양회

우리고향 안양/우리가 자란 안양/우리가 사는 안양/안양은 우리가 지킨다 지난 70년 12월 19일 관우회등 청장년들이 모여 '내고장 안양을 아끼고 가꾸려는 거마다의 걱은 뜻이 알알이 준어지지 아니하고 새안양의 기지 밑에 모여 뜻깊은 첫발은 이에 내닫는다 는 선언문은 박표하면서 새안양회 가 정식 준범했다



새안양회 신년인사회(1991 1 15)

회원등은 각자 '안양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사대와 외세의존의 태도를 배격하고 온건한 주체의식을 함양함으로서 여하한 불의와 부정과도 타협치 않을 것이며 협동하는 마음과 대동단결된 힘으로 내고장의 발전과 번영을 위하여 총력을 경주할 것이라"라는 내용을 선언문속에 담았다 새안양회는 지난 70년 12월 관우회를 바롯 동심회 양우회 칠성회 관수회 청우회 스마일회 솔벗회 독수리회 석우회 등 10개 창립서클이 모여 초대회장에 정봉수회장을 취임하고 선언문을 제정한 뒤 새안양회를 창립했다 그후 25년여의 4반세기 역사를 지니면서 28개서클 7백40명(원로회원 1백37명 현역회원 6백3명)이라는 방대한 조직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회원모두가 각계각층에서 제나름대로의 몫을 다하면서 생활하고 있다 새안양회는 30대중반부터 70대까지 연령별 기준으로 단위서클이 구성되고 그 구성의 연합체가 새안양회'이며 회원자격은 안양에서 15년이상 거주하였거나 안양에 소재한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단위서클에 가입된 자로 규정하고 있다

10개의 단위클럽에서 시작해 이제는 전역클럽9개 현역클럽 20개 회원수만도 7백여명으로 33세에서부터 70세의 회원까지 형제지간은 물론 부자지간의 회원도 있다 정봉수회장(관우회)이 초대와 2 3대 회장을 역임하고 4대회장 황병하(별세) 5대회장 심재덕(칠성회) 6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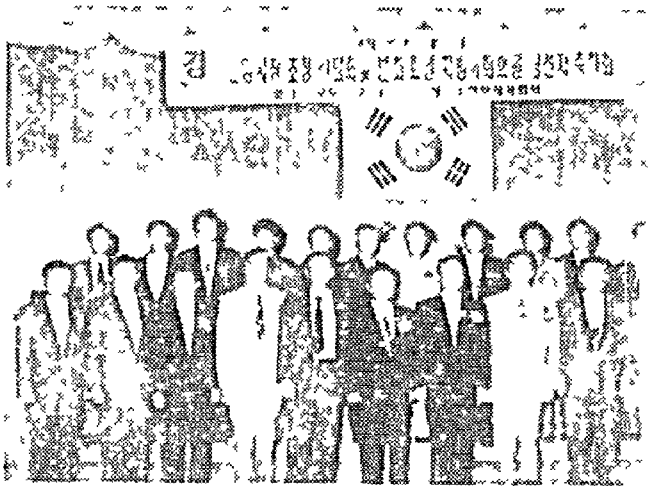
회장 변원신(관수회) 7대회장 이한승(청우회) 8대회장 조경묵 9대회장 원영희(독수리회) 10대회장 은수길(석우회) 11대회장 최선용(서이회) 12대회장 이충일(신우회) 13대회장 장석문씨(안암회)등과 현재 원종면씨(천우회)가 14대 회장직을 맡고 있다 서클만도 관우회를 비롯 동심회 칠성회 관수회 청우회 솔벗회 독수리회 석우회 서이회 신우회(회장 이창환) 안암회(회장 이창기) 천우회(회장 김영학) 합심회(회장 안병만) 은하수회(회장 박철호) 송우회(회장 신필영) 대유회(회장 김영배) 진명회(회장 이철원) 안우회(회장 김진구) 건우회(회장 전유식) 관지회(회장 송희석) 오륙회(회장 김학배) 양우회(회장 정하경) 금천회(회장 김태진) 개나리회(회장 인형수) 만안회(회장 양형모) 심우회(회장 박영관) 범우회(회장 김용곤) 와 유능한 젊은이들로 구성된 동안회(회장 김병철)가 서클중 막내로 지난해 12월 입회식을 갖고 선배들로부터 인기를 독차지하고 있다 이들 회원 모두는 수리에/닦은지혜/모아서로/꿈키우고/관악의/푸른기상/젊은뜻에/뭉쳤다/힘찬의기/드높은얼/밝은횃불/지켜드니/그이름/새안양회/우애단결/협동전진/아!/내고장/내이웃영원히/지키리/지켜서/빛내리라/내고장/새안양이란 새안양회가를 입모아 부른다 한편 새안양회의 제14대회장단 및 상임이사는 회장 원종면(천우회 안양여고 교감) 상임부회장 문수길(합심회 (주)네오필리아) 내무부회장 이문섭(은하수회 기아자동차 성산대리점) 외무부회장 박원용(송우회 경기도청) 감사 장석문(안암회 안산교육청) 성준용(은하수회 안양시설공단) 전무이사 배광윤(대유회 로마건축) 총무 유주현(진명회 신한건설) 기획 고우영(안우회) 재무 이용화(건우회 멕시칸 호프) 국제 박영래(관지회 부국상사) 체육 이택구(오륙회 선우주택) 섭외 임정교(관지회 대본전자) 연수 조영기(건우회 산청오리) 회원 한용희(양우회 영광숯불갈비) 홍보 유정규(금천회 백조씽크) 지역사회 임창경(개나리회 임창경한의원) 의전이사 이풍호씨(양우회 백운상사)가 맡아 이끌어가고 있다



새안양회합동월례회의 및 초청강연회(1991 4 20)

그리고 새안양회 출신으로 현재 백일산(오륙회) 노충호씨(금천회)가 경기도의회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고안양시의회 의원으로는 윤수길(석우회 10대회장 역임) 오영균(서이회) 원법례(안암회) 최경태(은하수회) 김철한(송우회) 이재학(안우회) 이규용(안우회) 김영호(양우회) 장경순씨(개나리회)가 활동 역대회장을 역임한 변원신씨(6대 관수회)와 이한승씨(7대 청우회)도 초대 안양시의회 의원을 수준높은 의정활동을 벌였다 또한 새안양회 회원들은 대부분 공무원과 변호사 의사 법무사 은행원 교원 언론사 회계사 약사 여행사 건축 건설 유

통 음식업 골프장 학원 회원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고 있어 회원 상호간에 필요를 원할 때 도움을 나누고 있다 무엇보다 새안양회는 선 후배간의 친선을 도모하고 각 클럽간의 이해와 우의를 증진시켜 협동정신으로 사회정의구현에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고 재정은 단위클럽의 회비와 입회비 특별회비 찬조금 사업수익금 등으로 회를 꾸려가고 있다



안양시장 조정 간담회 및 새안양회원 지방의회의원 당선자 축하회(1995 7 13 안양상공회의소)

안양다운 토속적인 정서와 안양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토박이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새안양회는 이제는 친목도모차원을 넘어선 봉사활동을 실천하고 있어 가장 높고 깊고 특성있는 시민애향단체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동안 지역봉사사업으로 재해시의 의연금품 모금운동 환경보호활동 심장병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돕기 지역의 각급학교 운동부지원등 장학사업을 전개해오고 있으며 안양의 항일운동가였던 원태우지사의거비를 안양시립도서관 광장에 건립했다 더욱이 지난해부터 전국소년체전 및 경기도체육대회 평가전인 새안양회 회장기쟁탈 육상대회를 매년 개최해 어린 꿈나무를 발굴지원하고 안양지역 20개 노인정 놀이터를 선정 결연을 해 지원과 시설물관리등의 봉사를 펼치고 안양시내 주요시설물 부근을 설정해 각단위 서클의 도시미관 봉사활동으로 지정 나무가꾸기와 청소하기 등을 전개하고 지난 청소년의 달에는 지역사회 개발운동 계획에 따라 자전거와 스케이트 보드 배드민턴 라켓등 운동기구와 식료품을 안양보육원에 기증 지역봉사활동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다 특히 창립 25주년 기념사업으로 『안양시지명 유래집』을 발간해 안양의 각급학교와 유관기관단체에 배포 안양의 뿌리깊은 정신을 후세에 알리고 계승토록 자료수집과 원고정리 작업에 착수했다 새안양회의 활동은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은 오로지 자기네만의 고집을 부르짖으며 가장 안양다운 정서와 안양을 사랑하는 회원들의 마음이 안양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주안점을 둔채 외적인 면을 중시하지않고 드러나지 않는 모습으로 꾸준히 일해오고 있다

결국 이들은 안양을 사랑하고 아끼는 시민애향단체가 제각기의 특성을 발휘하고 시민화합만족의 도시로 가꾸려는 마음을 지니고 활동하며 참신한 기풍과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하고 번영하는 생활의 질이 높은 안양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묵묵히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회원부인들도 새안양회의 창립정신을 바탕으로 새안양회 부인회를 창립 새안양회 각종사업의 지원과 부인회원의 자질향상 도모 건전가정 육성 봉사활동을 통한 여성의 지위향상과 건강한 사회만들기에 뜻을 같이했다 새안양회 부인회는 매년 척사대회와 체육대회때 음

료수를 판매해 수익금을 불우이웃돕기에 사용하고 자연보호 캠페인 등산대회 보육원 방문 및 김장담궈주기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어 새안양회원들의 내조기능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새안양회는 지난 13대때 장석문회장을 비롯 임원들이 날로 황폐해진 사회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인간성회복운동의 일환으로 참고 칭찬하고 헌신하는 마음갖기 운동을 전개해 인간미 넘치는 안양만들기에 앞장 지역사회의 빛을 발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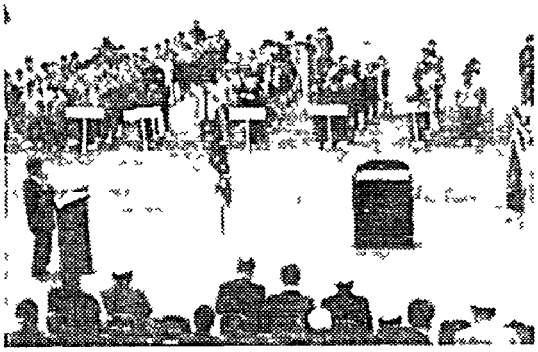
또한 새안양회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를 통한 밝은 사회를 만들기위해 '새안양회장기 육상대회'를 개최키로 하고 초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2회째를 치렀다 그리고 새안양회원들의 결속과 가족 축제의 한마당큰잔치인 회원가족체육대회는 매년 실시 단합체육대회로 통한 회원 상호간의 우의와 결속을 다지고 지역사회의 지역사회 발전의 기수가 되기 위한 장을 펼친다 이로인해 회원들은 나 자신만의 이익 내가 속한 단체만의 명예가 아닌 모든 단체의 역할과 사회적 기능을 뛰어넘어 의리에 있어서 협동에 있어서 봉사에 있어서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 지역사회의 선도적 구심점이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 결과로 지방자치의 기틀을 마련하는 초대 안양시의회에서 새안양회 출신 시의원들이 무려 7명이나 당선됐고 2대때는 경기도의회 의원 3명 시의회 재선 3명 초선 6명등 모두 9명이 배출돼 많은 인재들이 안양을 비롯 외부지역 요소요소에까지 안양의 발전을 선도하는 중추적역할을 할 만큼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매년 안양시장을 초청해 안양시정에 대한 발전안을 제시하는 간담회를 갖고 저명한 교수를 초빙 강연회 개최 회원연수회 개최 농촌일손돕기 회원등반대회 등 회원 자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올해 새안양회의 운영방침은 '사랑이 있고 행동하며 철학이 담긴 애향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새안양의료인연합 봉사를 9월에 실시하는 등 자신들의 노력이 애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지역봉사활동에 묵묵히 봉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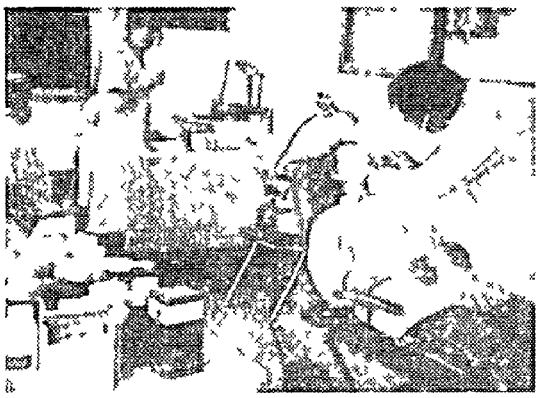

자연보호에 앞서 고유제를 지내는 모습(1996 4 21)수리산 산림욕장

"참안양인의 모습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

"새안양회원들은 연령이 30대에서 70대로 구멍가게를 하는 사람에서부터 시 도의원에 이르기까지 구성원들의나이와 지위를 초월한 단체입니다" 토박이 안양을 자랑하는 제14대 새

제2회 새안양회 회장기쟁탈 육상대회
(1996 3 14 안양종합운동장)





새안양회 의료(내과 치과 한방)봉사
(1996 9 8)

안양회 회장 원종면씨(천우회 안양여고 교감) "무엇보다 25년이란 오랜기간동안 선배들께서 면면히 이어온 전통을 이어받아 인정과 인간미 넘치는 형제애를 다져나가고 매래지향적인 화합의 모제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리 쉽지만 않아 책임이 무겁습니다"는 원회장의 의지력이 담긴 회상이 애향잔체인 새안양회의 기능이 무엇인지른 읽을 수 있게 한다 안양은 70년대 급속한 공업화의 물결로 성장한 도시로서 안양에서 태어나 자란 사람들보다는 타지역에서 전입해온 사람들이 대중을 이뤘다 이러한 가운데 뜻있는 선배들과 각단위 서클이 합심해 안양에서 초 중 고 대학을 졸업했거나 15년 이상 거주자중 이웃들에게 애정으로 대하며 정붙이고 사는 곳이 내고향이라는 애향심을 가진 이들이 정다운 도시를 가꾸기 위해 노력한 것이 새안양회의 모체가 됐다는 것 이에 안양을 사랑하는 청 강년들이 관우회를 비롯 동심회 등이 기존 단위 클립별로 구성된 모임을 모제로 선 후배간 우의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선도적 역한은 담당하기 위해 지난 70년 12월 초대 정봉수 회장을 위촉하고 새안양회를 정식발족 25년이 됐다 원회장은 14대회장으로서 만은 임기동안 선배들과 후배사이의 가교기능을 최대한 발휘해 행동하는 애향단제로서 미래지향적인 화합의 모제를 다져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다

그동안 선배들이 축적해온 향토애의 저력은 결국 우리모두의 자산이라며 앞으로는 전 회원간 친목과 우의를 다지는 모임이 아닌 고장의 발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사랑이 있고 행동하며 철학이 담긴 애향단체'로 변화시키겠다는 원회장은 수많은 제자들을 배출하면서 얻어잰 교직자로서의 참모습이 그대로 배어 있다 29개의 정 현역클럽과 7백여명의 회원들로 구성된 새안양회는 명실상부한 애향단체인 것 만큼은 틀림이 없다

이를 조직족이고 탄력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회장단과 각상임위별 이사들과 협의를 통해 운영하고 특히 지역봉사 활동에 주안점을 둔 애향단체로 발전시키는 사업을 전개해 나간다

"지난 86젼 지역선배들의 권유로 천우회에 가입한 것이 새안양회와 인연을 맺게 됐다"는 원회장은 "이제까지 봉사하는 단체에서 참안양인의모습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다"고 말한다 특히 회장으로서 지역의 신뢰받는 단체로 새안양회를 이끌고 교육자의 길에도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원회장은 "우리의 노력이 애향의 불길로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회원들의 아낌없는 동참과 시민들의 성원이 뒷받짐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김영민 기자)

* 위 글은 새한신문사 발행 『지방시대』 1996년 9월호에서 전재함

한국일보

수도권 현장

절망나눈 대교장 가관다

독바이 憲신모입새 안암회

지난해 12월 안양시립도서관 직장 대 제의된 지방4지사의거비양이서 회장 ㅎㅌ—씨(51)드새안양드 회원들이 모임을 갖고 있다.

교사·자영업자등 5백여회원
소년가장돕기·자연보호 앞장

수도권 가족

새안양회 회원명단

관우회

구자영 권위 김황진 윤영남 이규홍 이도형

동심회

김선구 이상득 이해동

칠성회

김형관 남경석 서수용 송요선 유한수 장석우

관수회

김성균 노순목 류우석 변원신 원용복 이윤수 이준기

청우회

공복영 김길웅 김동근 김진강 박종근 박태진 백진서 성시춘 이절환

솔벗회

김경영 김정대 남장우 신성도 안봉암 오정환 이광원 장흥원 정재순

독수리회

김세호 김영훈 김재선 노재규 신길선 심상덕 원영희 이강술 이강우 이맹세 이명호
이상오 이종원 장만식 장석재 최인용 한원택 홍순정

석우회

권운상 김기호 김정호 남홍우 원철희 유인현 윤수길 이태구 장석구 최창선 한길수

서이회

곽영의 김기택 문영일 박광길 박현기 방병국 서건석 양구석 오영균 원준희 윤승섭

이의환 장국생 최선용

신우회

문동석 박윤근 성복수, 성시남 안병희 이성훈, 이천웅 이충일 임진웅 정오진 홍정남

안암회

권병남 김승억 김정석 김장우 김호영 변병기 서정언, 안영준 여근구 원범례 유정석 이덕종 이창기 장석문 조전풍 하청

천우회

강영선 김갑숭 김규해 김긍회 김시화 김연복 김영규 김영학 민절기 박길호 박조호 신금식 신성현 심정섭 원종면 이광우 이광일 이석범 이용기 이의섭 임흥빈 장동권 조남철 주영하 한광교 한상엽 한영복 한절희

합심회

강영호 김양수 김재붕 김점석 문수길 신중대 안병만 임훙순 조창연 지현수 최종준 하영일

은하수회

김광근 김명겸 김중석 박철호 서영석, 설진아 성준용 안광선 이문섭 이상호 이양우 이영수 이환기 장석범 조문경 최경태

송우회

공재창 김갑주 김근찬 김성호 김종국 김철한 박원용 신필영, 원광희 유덕희 이광우 이상래 이종술 이종행 이창원 전대근 조준호 하재수

대유회

강래전 김종오 박영필 배광윤 원용일 유영일 윤재근 윤정수 이용탁 이지우 최영규 최현용 함사영

진명회

강석진 곽태용 김녕길 김형수 명성륭 문경종 박진호 박흥섭 박희수 배진석 송영남 신대흥 안병호 안성구 안춘식 유주현 오영수 음광진 이국환 이규만 이영선 이정남 이절원 이춘섭 이질관 장석은 전석원 정진섭 조용성 조정묵 최홍규

안우회

고우영 권병무 길형걸 김광성 김구회 김기현 김종관 김진구 노상묵 문화영 박건우 박래진 박세용 서동구 성지구 원성희 윤형택 이규용 이상덕 이장희 이재학 이평희 전진절 죄병욱 한기림

건우회

강장진 계성목 권용준 김상한 김운택 서정수 안인구 오한질 윤재절 이경범 이명규 이상학 이승우 이영섭 이용호 이용화 이천술 이전일 이절구 이필운 이효선 임남혁 임영일 전유식 정한섭 정효진 조영기 주명선 주승종 한승희

관지회

강신구 김경한 김기용 김양선 김종필 김태성 김후환 박병춘 박성수 송희석 안경엽 안유승 오기환 원대희 이규호 이대용 이수전 이임행 이찬일 임정교 장수민 정기춘 진종열 허범행 한성석

오륙회

곽석주 권용호 권익주 권형주 김갑중 김경환 김동기 김삼구 김수웅 김영일 김재근 김학배 김형민 문광수 박광호 박순용 박제민 박창웅 백일산 성세경 원명희 윤영근 음범택 이경식 이남호 이성원 이원효 이종태 정덕종 정성수 정진수 조학경 조홍은 죄기용 죄한규 추봉세 한상일 홍사구

양우회

강신종 계성주 김석배 김선용 김영호 김윤원 김진우 김진호 남주우 민태식 박광수 박래용 박상국 백명기 송교철 신순종 신원철 양승국 유춘호 윤만식 이경환 이근선 이도상 이복한 이안호 이용모 이재석 이종걸 이종국 이종무 이풍호 이호철 이홍우 이황우 장동은 장태성 정용대 죄명희 죄흥규 하경수 하재남 한용희 한장수 홍순학 황희철

금천회

권기봉 김강수 김대근 김성규 김영주 김정식 김지환 노충호 류청선 문광우 문두환 문창수 민수기 박익수 박홍일 서광석 성지도 송삼영 신광철 신상중 신왕무 안병구 오지영, 용한봉 원칠상 유정규 윤병섭 이금인 이대열 이명재 이보성 이봉훈 이부호 이성환 이성효 이한세 정민재 정연우 정원호 조준일 조한징 조항범 최재복 한상두 허 전 홍천표

개나리회

강희교 김경수 김민수 김선균 김성용 김영진 김원기 김의호 김재원 김정필 김주희 김준식 김추하 김학서 김학종 김현철 김현택 나효식 도인훈 맹태환 민경운 박기순 박기환 박노춘 박민화 박영선 박용관 백승기 서정민 석희철 유승희 유정수 윤이돌 이덕우 이원훈 이응호 이장훈 이태섭 이한이 이해명 인형수 임창경 임창원 장경순 장동일 전남석 전해선 정덕길 정진술 조동복 주영동 주홍돈 지수철 최석창 최홍락 하건호 황준영

만안회

강대환 강수일 공영식 권병우 김광수 김명덕 김명수 김명일 김병인 김봉수 김상돈 김성일 김재영 김재진 김정서 김종현 김진국 김 혁 노상호 노종욱 마영수 박용도 박용출 박이호 박태순 백인수 성잔수 송원길 양형모 오수록 오종석 윤용태 이기성 이기주 이민우 이범호 이상헌 이석래, 이원홍 이은세 이정호 임기혁, 장예근 전종화 정난석 정영식 정인선 조연환 최길천 최상대 최우규 최창수 한홍석 함병로 호계천 홍순기

심우회

고광천 고원재 권문상 김광남 김의제 김준호 김태구 김해룡 김형우 류연웅 문명광 문태곤 박기성 박순원 박승한 박재상 신현수 안부혁 양기삼 염광섭 유익절 윤효열 이경환 이규세 이동우 이석열 이수현 이승열 이용균 이재학, 이전직 이홍열 이희잔 임승모 장계순 전종정 정우현 정윤식 정인걸 정현모 주명호 전운기 최정규 최흥묵 하 영 한준호 황 욱

범우회

강주동 구교선 김강식 김두원 김성진 김영성 김용곤 김용정 김유웅 김종수 도순훈
맹경환 박상열 박성기 박승도 박용호 박장규 백승진 송기성 송중재 안광삼 양경석
연상호 오인석 오절환 음정택 이근복 이덕형 이동영 이동진 이명훈 이복섭 이상길
이석주 이양수 이원균 이을수 이장우 이진용 이장수 이학주 이현수 이효재 임준화
장수명 장충근 정성수 정용진 조철호 최권희 최재경 최희식 황춘성

동안회

강득구 강범석 강헌근 고광복 곽이현 구경문 권병욱 김근식 김기일 김민수 김상규
김영국 김영민 김용성 김용식 김정중 김종호 김종훈 김절현 김현수 남성욱 노성이
박세웅 박영절 손남호 신희균 심재민 윤명렬 윤봉중 음범한 이만근 이병호 이상기
이석구 이성효 이영준 이유영 이인표 이종백 이종승 이진권 이장우 이하근 장성환
정완순 지옥창 최무성 최윤근 한상윤 한영희

구륙회

강성이 구선모 구용모 김귀환 김규수 김기백 김도헌 김민수 김소룡 김신종 명광재
민경덕 박재강 박종면 박현배 변동술 성창준 신인용 안교영 오경택 오재석 유은혁
유은호 윤동일 윤희춘 이상우 이영섭 이윤우 이익수 이전우 전상현 정연해 정태식
조광희 조주행 전재준 최승규 추문식 한용희

한울회

공형돈 곽철수 권순우 김명필 김정현 김종락 김종성 박상덕, 박순표 박잔력 성태수
손태호 송상규 안병국 양길석 이기준 이봉환 이정우 이종화 이창호 이풍열 이한규
장 원 조경인 조문수 조영보 조인성 조창배 최영길 최형식 한경택 한잔혁 현용호
황병구

백마회

권유태 김남곤 김동연 김성호 김영일 김운식 김운연 김주석 김춘희 김학경 김현중
명상욱 박일식 박현준 박형만 배석원 서정원 손갑식 송영철 신보영 오재원 우만선
윤래구 이병선 이상렬 이상준 이인환 이후기 인영수 정우진 정희권 조석동 주병규
진홍성 최종성 함봉수 황원영

정우회

강의석, 곽명호, 김경진 김윤태 김재화 김학기 김 헌 노인석 노진권 류정원 박범식 박승욱, 박종일 박천수 박흥규, 양승중 원유권 원이연 윤종민 이근설 임두영 임우섭 정원식, 차상인 허진희 현재오 임철호

하나회

강경철 권응주 김경호 김석규 김진원1 김한규, 김환회, 류창엽 박병준 신동석 신상수 신준욱 심재욱 안용훈 염동수 오태영 유철호 이상민 이용식 이호형 정영일 정완기, 조경묵, 조동일 조의동 차상호 천창섭 최병문, 최상민 최성길, 최 훈 신동석

태우회

강봉원 김남균 김재원 김재훈, 김정수 문익배 박병순 박성철 백광춘, 서인철, 손의락, 안병원 유효상 윤주선, 이광모 이상준 이윤근 이재붕 이종명 이종호 정길영 조정찬 최봉열 최정원, 한종수, 한형석 허영권

신안회

구자성 김구중, 김성일김지수 김학균 남태현, 문병관, 박기덕, 박호용 방극안 신상범 염기풍 유창민 이동균, 이상욱 이청구 이태호 이현국 전경국 조용호 조정현 최돈익, 최성연, 최재경, 한종권 허준욱 홍상표, 황성환 황승규 황준석

성지회

강성구 권유현 김명덕 김재흥 김태진 박영명 박재순 박진성 서대홍 신효섭 유지용 윤지영 이규하 이병호 이윤기 임상곤 장성환, 전명준 조규각, 조종원 주진섭 최명화 홍선용 홍 찬

영우회

강재선 곽 효 김경수 김기홍 김영민 김영성 김태훈 남동영 노진석 문은수 박종일 배 용 백경생 설재수 신경우 안태혁 오광진 오형섭 이경익, 이민수, 이상민 이석희 이영구 이현수 임영석 장기현 전병우 전호권 정종화 조은석 재관중 최근영, 최명엽 최임규 최 훈

우호회

강현오 곽균열 구양호 권기절 권성곤 김경태 김민중 김성광 김재호 김종묵 김종석
김종철 남기홍 박상필 박석현 박 성 방승주 백동현 송재준 신지석 심규훈 원준영
윤상건 이영진 이은학 이종식 이충열 임현우 장광석 전성국 정광석 정성진 정인기
자정민 최상수 최연간 최용식 최재헌 최홍규 한상철 한종섭

천호회

김광수 민준홍 박정훈 서동길 유지현 유철호 윤창건 이관웅 이성일 전은수 전종석
정동의 진현준 최동석 최성진 최형근 하주용 한덕수 한철규 현신엽

친우회

강승식 계훈식 김남석 김병배 김성우 김안종 김종운 김진종 김용면 김평준 김장만
변동일 신동원 왕영일 이우석 이정래 조대진 조덕진 최정태 최종호

최강회

김광석 김기호 김길종 김성권 김성하 김재규 김주성 김진수 김한조 김효식 박절화
변용훈 이태화 조경석 최범규 한동규

부인회

강미옥 김효숙 강성란 권문주 권현주 김미숙 김성희 김주여 민병숙 양원희 우경진
유미희 윤덕남 이기완 이성순 이순복 이정실 이혜정 임경숙 임서연 임정리 장동희
장현숙 전미옥 전성자 정은주 조민경 최기연 한연숙 황영자 황현정

여 백

안양시 지명유래집

초 판 1996년 12월 10일
발 행 1996년 12월 19일
증보판 2012년 11월 26일
발행처 새 안 양 회
발행인 새안양회 회장
저 자 李 承 彦

비 매 품

이 책의 내용을 저자의 사전 승락없이 무단으로 전재 인용 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여 백



새안양회
http://새안양회.kr http://cafe.daum.net/SaeAnYang
Tel. 031)476-4344~5 Fax. 031)476-4346